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李昌植 著







수원문화원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李昌植 著

수원문화원

발간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지속된 일제 식민지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 부모형제들은 수모와 상처로 점철된 '악몽의 세월'을 회상하는 것 만으로도 분노와 전률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일 뿐 인간의 입맛에 따라 가감하거나, 첨삭할 수 있는 얘기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1백만 수원시민 앞에 선 보이는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제목 그대로 일제 식민지하에서 갖은 탄압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 남은 수원군민의 끈질긴 삶의 모습을 사실적(史實的)으로 수록한 새로운 형식의 수원 향토사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자이신 李昌植 선생은 1969년 인천에서 발행하던 《인천신문》(현재의 경인일보)을 언론 불모지인 수원으로 본사를 옮길 당시의 편집국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언론계의 원로이십니다.

저자께서는 언론에 종사하면서 향토사 연구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지난 7년 여 동안 집필하셨던 일제하 수원군민의 민생실록(民生實錄)을 한 권의 책으로 집성(集成)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사고·일화, 거기에 더해서 수원군민이 펼쳤던 항일운동 실록 등은 독자 여러분께 반세기의 시공을 거슬러 가는 색다른 감흥을 안겨 드릴 것 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책을 통해 수원시민 여러분께서 일제하 35년의 민생사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서(良書)를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金容西 수원시장께 감사 드리면서, 저자의 노고에 위안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 8월 1일

수원문화원장 金 鍾 基

축간사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난날의 암울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와 맞닿아 있고,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밝은 미래 역시 설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백만 수원시민 앞에 선보이게 되는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35년 동안 수원 사람들이 겪은 굴욕적인 삶을 되돌아 보고,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형과 누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극명하게 기술한 매우 뜻깊은 기록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언론계에 봉직하시면서 언론계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셨던 李昌植 선생이 틈틈이 쓰고 정리한 역사 기록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은 미래가 약속된 고장입니다. 이미 인구가 1백만을 넘어선데다 그간에 축적한 양질의 인프라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미구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원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기록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보이는 이창식 선생의 역저(力著)는 수원사 보완에 일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일본을 옳게 인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과거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책자 발간을 위해 애쓰신 이창식 선생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 8월 1일

수원시장 金 容 西

축간사



평소해 존경해 마지 않던 경기지역 언론계의 원로이신 李昌植 선생께서 일제하 수원지방의 향토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집성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선생은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인의 한 분이며, 신문사의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기전(畿甸)지방의 역사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힌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이미 세상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필자와는 1980년대 중반 이선생이 수원에서 기전향토문화연구회를 창립 주도할 때 동인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20년 가까이 지근에서 지켜봐 온 처지이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부지런하신 문필활동과 왕성하신 연구의욕을 익히 알고 존경해온 터입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신간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선생께서 언론활동을 하시면서 틈틈이 수원지방 향토사에 대한 노익장(老益壯)의 탐구열을 투영한 저술로서, 선생의 저작 목록 가운데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수난시대인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수원지방 향토사의 이모저모를 특징적으로 조명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현대 수원지방사의 연구가 부진한 현실에 비추어 이 방면의 연구사에도 큰 수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본인이 오랫동안 주로 경기지역 지방사 연구에 종사해 왔고, 또 관련 학회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 후배인 필자에게 글을 청해 왔습니다. 필자는 고사하였으나 선생의 겸양과 학구열을 뿌리칠 수 없어서 감히 몇 줄의 글로서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저자 자신의 건필은 물론 현대 수원지방사의 연구열을 확대 고양시키는데 큰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3년 팔월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수원문화사학회장 崔 洪 奎

저자의 말



우리나라 현대사 가운데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역사가 있다면 아마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비롯된 일제 강점기의 '좌절의 역사'일 것입니다. 필자의 어릴적 기억으로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었던 일들이 한두가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머리를 박박 깎고 단추가 다섯개 달린 교복을 입었던 일, 경성(서울)에 수학여행을 가면서 대두박(大豆粕:콩깻묵)을 질머지고 가서 대두박 밥을 먹고 배탈이 났던 일, 근로봉사를 한다며 군수공장에서 궂은 일을 했던 일, 체벌이 당연시 되었던 시절이긴 했지만 회초리로 매를 맞고 뺨을 얻어 맞았던 일 등은 지금도 언잖은 상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보이는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을까》는 당시의 수원군민들이 겪었던 뼈아픈 삶과 수원군내에서 일어났던 항일사건·사고를 비롯해서, 행정·경제·교육·문화·종교·풍물·인물 등 각 분야에서 있었던 실화들을 가감없이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실증적 향토사'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의 정사(正史)는 진문 학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제(整齊)되어 있으나, 유독 일제 강점기의 '치욕의 역사'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는 듯한 경향이 없지 않아, 언젠가는 이 분야의 역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金容西 수원시장의 각별하신 배려가 계셔서 저희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졸서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金鍾基 수원문화원장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 과찬의 말씀을 주신 崔洪奎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께도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라기는 이 책자가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수 많은 옛 수원군민에게 일말의 위안이 되고, 수원향토사 연구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행이겠습니다.

2003년 광복절

기전향토문화연구회장 李 昌 植

차 례



발간사 / 수원문화원장 金鍾基 ····· 3

축간사 / 수원시장 金容西 ····· 4

축간사 /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수원문화사학회장 崔洪奎 5

저자의 말 / 기전향토문화연구회장 李昌植 ····· 6

光武연대의 수원 인구 ····· 11

일제에 의해 생멸한 수원군 地名 ····· 14

1910년 경술국치 이후의 수원 官街 ····· 19

경기재판소 폐지와 사법의 좌절 ····· 24

일제감점기의 수원군 친일 관료들 ····· 29

四民制度의 벽을 깨고 일어선 수원상공인 ····· 34

수원의 杏林과 병원 이야기 ····· 38

'卽死必生'의 수원 항일운동 ····· 43

3·1독립만세를 부른 수원 기생 ····· 49

일제 만행의 극치, 제암교회 학살사건 ····· 54

開化의 전도사 수원교회 1세기 ····· 59

광복 직후의 수원농사시험장 秘史(1) ····· 64

광복 직후의 수원농사시험장 秘史(2)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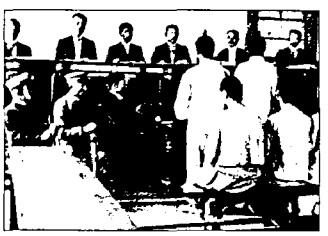
불굴의 수원지방 청년운동(1) ····· 74

불굴의 수원지방 청년운동(2) ····· 80

수원 郵政 '영화역'에서 '덕풍진'까지 ····· 86



기상천외한 月·月·火·水·木·金·金 ····· 91
전시경제의 하수역이 된 '어용조합' ····· 96
상권을 둘러싼 수원 최초의 신여 시위 ····· 101
10전의 다툼, 여공 성폭행까지 파업 백태 ····· 105
한달에 기생 3원, 작부 2원의 혹세 ····· 109
수원상업강습소 돕기에 기생도 한 몫 ····· 113
오만한 伊藤博文의 근업모범장 훈사 ····· 117
내륙의 식량 수탈 철도 '水驪線' ····· 122
서해안의 수산자원 수탈 철도 '水仁線' ····· 127
高宗이 놀란 모형 화륜차 '京仁線' 이야기 ····· 132
세 차례나 거행한 '京仁線' 개통식 ····· 137
'京釜線' 명암사(1) 부설권 둘러싼 美·日의 쟁패 ····· 142
'京釜線' 명암사(2) 팔달산 관통에 반기 든 수원 군민 ····· 146
'京釜線' 명암사(3) 高宗에 떼쓴 일본공사의 무례 ····· 151
'京釜線' 명암사(4) 화령전 절단 막은 수원 군민의 승리 ····· 156
신여성시대 개척자 여류화가 羅蕙錫 ····· 161
독립운동의 기수 金世煥의 생애 ····· 166
독립운동의 열병을 앓은 金露積의 일생 ····· 173
수원 태생 여걸 白善行의 고락기 ····· 177
수원이 낳은 양악의 거성 洪蘭坡 ····· 182
근대 문예의 선구자 洪思容 일대기 ····· 187
'常綠樹'로 거듭난 농촌 계몽가 崔容信 ····· 193



개화파 거두 朴泳孝의 파란만장기 ····· 198
월북 작가 朴八陽의 사회주의 문학 ····· 203
조림가 崔在燁과 일인 축우업자 忽那新人 ····· 208
華城 쌓기 이후의 水原市場 내력 ····· 213
구한말 당시의 수원군 재래시장 ····· 217
일본의 경제식민지와 水原市場 ····· 221
민초의 애환이 서린 수원시장 백태 ····· 225
신새벽에 열리는 수원 땔감 장터 ····· 229
전국에서 내로라했던 수원 우시장 ····· 234
수원 최초의 '漢城銀行 水原支店' ····· 238
희비가 교차된 일제하의 서민경제 ····· 243
실패한 산미계획과 수원 동족부락 ····· 248
1920년대 수원 부자와 빈자 이야기 ····· 253
高宗의 '교육조서'와 수원의 근대 교육 ····· 258
개화의 버팀목이 된 수원의 교육 열정 ····· 262
"교육은 독립의 무기" 삼일학교의 탄생 ····· 267
상공학교 후신인 '수원농림학교' 개교 ····· 271
항일 투쟁에 앞장 선 '水原高農' ····· 275
단발령 소동, 교실에 가두고 강제 삭발 ····· 280
수원고농에 이은 '水原公農'의 탄생 ····· 284
애환 1세기의 증인 공립남양소학교 ····· 288
梁聖寬과 수원공립가정여학교 ····· 293



수원고등학교 전신 수원상업강습소 ····· 298
일본인 저술가가 남긴 일제하 水原史料 ····· 302
조선 최초의 〈漢城旬報〉와 수원 언론 ····· 306
암흑기 가시밭 길 걸어온 수원 언론인 ····· 310
수원인의 언론 사랑과 신문 광고 ····· 315
수원 체육의 원류는 연무대 '馬上武藝' ····· 320
스포츠 수원을 빛낸 체육 선구자들 ····· 325
부싯돌시대를 마감시킨 수원성냥공장 ····· 329
멋쟁이 산실, 수원 양복점 이야기 ····· 333
조선 8도 으뜸가는 '酒鄕水原' ····· 337
冶匠의 원조, 수원 대장간 이야기 ····· 342
"찍습니다" 수원사진관 이모저모 ····· 346
'바다의 신'이 준 수원 소금 이야기 ····· 350
옷감 왕국 수원직물공장 흥망기 ····· 356
호롱불시대 종식시킨 수원발전소 ····· 361
민초의 애환 실어나른 수원 자동차 ····· 366

◇ 참고문헌 ·····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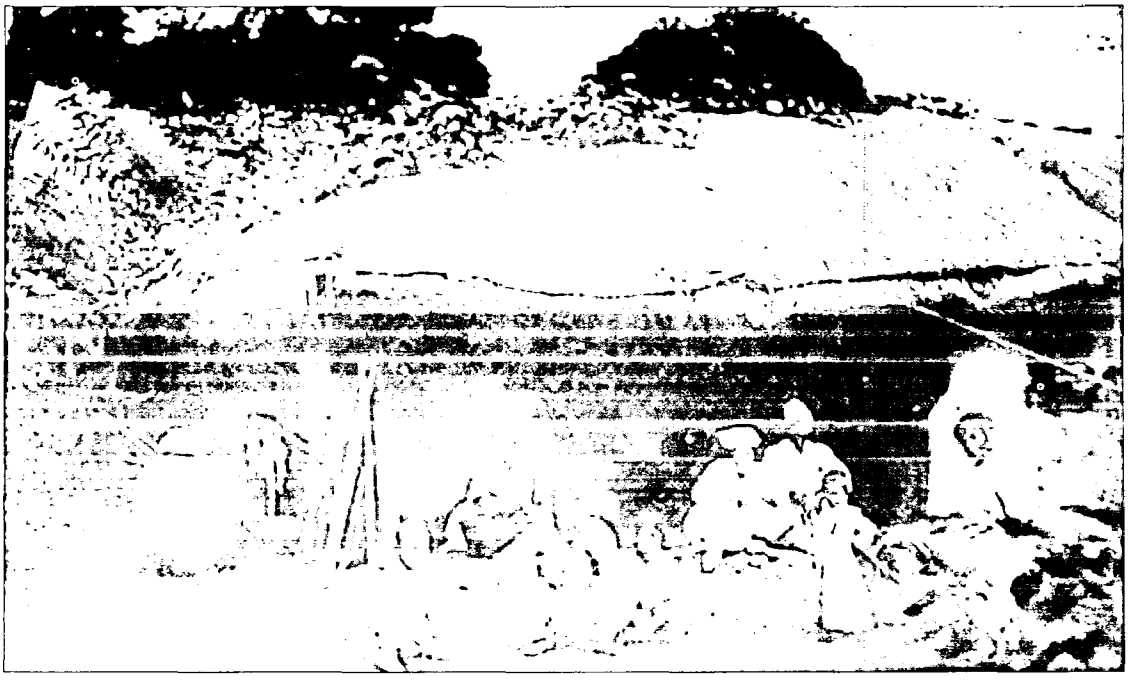
光武연대의 수원 인구

화성(華城) 축성과 함께 생겨난 수원도 어느 듯 개기(開基) 209년 째가 됐다. 알려진 바와 같이 화성은 정조(正祖)에 의해 축성된 도성(都城)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하지만 만약에 정조에 의해 화성이 축성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수원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사가에 따라서는 정조가 한양(漢陽)에 있는 서울을 수원으로 천도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설에 불과하다. 분명한 것은 정조가 수원을 끔찍이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려나 수원이 생기고 나서, 수원 사람들의 윗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하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강요에 못이겨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으로 말미암아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일본제국의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던 시기의 수원 인구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치(國恥)를 당하던 1910년 이전의 시기, 그러니까 조선 말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수원 인구를 알 길이 없다. 이 때(1910) 조선의 연호(年號)는 경희(慶熙)였고, 임금은 순종(純宗)이었다. 그 윗대 임금이 고종(高宗)인데 고종대에서는 국호가 바뀌고, 연호도 여러 차례 고쳐졌다. 즉 그 33년(1896)에 건양(建陽)이 되었다가 이듬 해인 그 34년(1897)에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면서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으며 그의 재임 44년에 해당하는 1907년에 다시 연호를 융희(隆熙)로 바꾸었다.

결국 순종은 융희 원년 후반기부터 그 4년(1910) 8월까지 예고된 '치욕의 옥좌'를 지키다 힘없이 물러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다.

이렇듯 조선왕조의 말기가 혼란했던 탓에 이 시기의 역사 기록이 특히 부실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원에 관한 역사 기록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무이한 기록이라야, 광무 3년(1899)에 편찬된 《水原郡邑誌》(수원군읍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본고에서도 1910년의 수원 인구는 밝힐 수 없고, 수원군읍지의 기록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초가집에 살고 있는 대가족의 모습이다. 맨 앞의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사는 것은 보통이었던 것이 우리의 가족구성 형태였지만 바로 이것이 '인구'의 원초이기도 하였다.

수원군읍지는 수원 일원의 '幅圓'(폭원:폭과 둘레)을 첫 머리로 하여, '判官先生'(판관선생:지방관청의 6품 이상의 벼슬아치로 지금의 시장·군수 격과 같다)까지 모두 54개 항목의 통계를 싣고 있다.

우선 '人口'(인구)를 알아보자. 1899년 당시의 수원군(지금의 화성시와 오산시 포함)의 '戶口'(호구)는 1만 2579호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성안(城內)에 사는 소위 양반(兩班) 계급이 956호, 성밖(城外)에 사는 상민(常民) 계급이 1만 1623호로 되어 있어서, 양반 대비 상민의 비율은 7.5% 대 92.5%였다.

이것은 봉건군주시대(封建君主時代)하의 우리나라 반상계급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 성안이란 지금의 팔달문(八達門)·창룡문(蒼龍門)·장안문(長安門)·화서문(華西門)으로 이어 지는 사대문(4大門) 안을 뜻하는 것으로 '성안의 양반' '성밖의 상민'으로 확연하게 양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양반이란 어떤 계급이고, 상민이란 어떤 신분인가.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신분은 사민제도(四民制度)라 하여 士·農·工·商의 4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여기서 양반에 속하는 것은 '士'뿐이다. 나머지 農·工·商은 상민계급이었다. 봉건시대의 양반은 세습적(世襲的)이었다. 사대부(士大夫) 집안의 사람은 영원히 양반이고, 그렇지 않

은 계급의 사람은 상민 노릇을 해야만 했다. 조선시대가 끝나면서 천하에 고약한 반상계급은 철폐됐지만, 상민계급에 속해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좌절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세상 경영의 주체는 다름 아닌 인간이다. 그래서 인구 통계는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앞에서 인용한 수원군읍지에 보면 호구로만 기록되어 있지, 인두(人頭: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총인구는 물론 남녀별 인구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인구를 추정할 때 흔히 호구당 인원을 3.5 내지 4로 곱하곤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 둘 쯤으로 보는 방식이다. 사실 당시는 대가족제도인데다 아이를 많이 낳던 시절이라 호구당 인구는 더 많았을지 모른다.

아무려나 당시의 수원군 인구를 3.5로 곱하면 4만 4026명이 돼 1994년말 당시 4만 2182명의 인구를 가진 기흥읍과 같고, 4로 곱하면 5만 316명이 됨으로 1994년말 당시 5만 3693명의 이천읍 인구와 비슷했다.

수원천엔 천렵꾼, 광교산엔 짐승의 보금자리

잠시 눈을 감고, 104년 전의 수원군을 생각해 보자. 우선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었을 것이다. 수원읍내에는 5일장도 있고, 소시장도 있어서 장날엔 제법 시끌벅적했겠지만 평소에는 내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이 좋았을 것이다. 당시의 수원천엔 물고기가 노닐고, 천렵꾼이 기성을 지르며 여름 한 때를 즐겼을 것이다. 팔달산과 광교산에는 온갖 짐승이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것이고, 인정은 넘치고 눈 감으면 코 벼간다는 불한당도 없었을 것이다.

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경제는 어려웠겠지만 공해는 없었을 것이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논밭에선 진한 거름 냄새가 풍겼을 것이다. 주막의 주모가 정겹고, 촌로(村老)들의 주정이 오히려 멋스러웠을 것이다. 아낙은 수줍어하고, 아이들은 순진했을 것이며, 훈장은 당당하되 자애스럽고, 학동은 스승을 존경했을 것이다. 더구나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리 없었을 것이고, 유일한 수송수단인 우·마차가 느릿느릿 굴러가는 정경은 한폭의 그림 같았을 것이다. 과거와 추억은 이래서 아름답다.

참고로 2002년 9월 현재의 수원시와 화성시 인구를 알아보면 수원시가 101만 2321명(34만 1171세대), 화성시는 22만 4394명(7만 7617세대)에 달한다. 104년 전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일제에 의해 생멸한 수원군 地名

지명(地名)은 토지를 인식하고, 그 토지와 다른 토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붙인 부호(符號)로서 인간의 사고(思考), 의식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연환경적인 지명으로는 東·西·南·北과 같은 방위(方位)를 표시하는 것이 많고, 一·二·三·四·五·六과 같이 숫자 개념에 따라 정한 통제성이 강한 지명도 있다. 축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牛(우)·馬(마)·牧(목)과 같은 지명이 생겨났는가 하면 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餠店(병점)·銅店(동점)·銀店(은점) 등의 店(점)자 지명과 站(참)·酒幕(주막)·街里(가리)·巨里(거리)·亭(정)·程(정) 지명이 생겨났다. 포구가 있는 곳에는 浦(포)·津(진), 烽燧制(봉수제)나 遭倉制(조창제)와 관련해서는 烽(봉)·燧(수)·倉(창)·昌(창)·關(관), 교역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市(시)나 場(장) 지명이 많다. 방어부락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嶺(영)·營(영), 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城(성)·鎭(진) 등이 있다. 水原(수원)은 물과 관련된 지명으로, 井(정)·泉(천)·池(지) 등은 그 일례다. 지명은 오늘날 역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외국에서는 지명학을 지리학의 한 분야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조선시대에서 일본식민지로 바뀌고 나서, 조선총독부가 저들 멋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바꿔 버린 수원군내의 洞·里名에 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1910. 8. 29)하고 나서, 5년 만인 1915년 1월 29일 조선총독부 경기도장관 히가키나오스께(檜垣直右)는 '경기도 고시 제4호'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반월면(半月面)을 제외한 동·리 명을 바꾸게 되는데 이 때의 변경이야말로 너무 폭이 크고, 획기적인 것이라 '지명반란'이라고 할만했다. 훗날의 자료를 위해 개편 내용 전부를 실었으면 좋겠지만 지면 관계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억해 둘만한 지명, 통폐합 과정에서 아쉽게 없어진 지명이나 특이한 지명 등을 모아 보기로 한다. 개중에는 봉건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정서적인 것, 기복(祈福) 신앙적인

것,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 실제 환경을 반영한 지명 등 흥미로운 것들이 수두룩하다. 먼저 개편 당시의 구(舊) 지명 수와 신(新) 지명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신 지명 수)

◆日荊面 26(16) ◆台章面 27(13) ◆安龍面 31(13) ◆梅松面 19(9)
◆峰潭面 19(15) ◆鄕南面 36(20) ◆楊甘面 31(8) ◆陰德面 32(15)
◆麻道面 12(11) ◆松山面 23(14) ◆西新面 14(13) ◆飛鳳面 21(9)
◆八灘面 27(16) ◆長安面 10(10) ◆雨汀面 2(12) ◆儀旺面 30(9)
◆正南面 38(19) ◆城湖面 31(20) ◆東灘面 28(13)

즉 개편 전에 있었던 동 수는 457 동·리였는데 255리로 개편되었으니까 조선시대의 재래동 202개가 없어진 셈이다. 당시는 일제의 철권정치에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라, 전래의 지명을 빼앗기고 바꾸어도 끽소리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지금 같았으면 큰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았던 동·리를 감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없어져서 아쉬운 지명이 자그만치 202개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동·리 명 가운데는 지금도 남아 있거나, 아주 없어진 것이 상당수 있다.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지명 가운데는 특정한 분야나 실물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 지역의 물산(物産)이나 정서, 전통을 나타내는 지명들이 많다. 예컨대 뫼를 나타내는 山(산), 내를 나타내는 川(천)이나 泉(천), 江(강) 河(하) 井(정) 水(수), 골짜기를 나타내는 溪(계) 谷(곡), 꽃과 나무 등의 식물을 나타내는 栗(율) 木(목) 竹(죽) 芝(지) 柳(류) 花(화) 梅(매) 蓮(연) 梨(이) 桃(도), 아래 위 또는 높낮이를 나타내는 上(상) 下(하) 高(고), 방위를 나타내는 東(동) 西(서) 南(남) 北(북)이 있는가 하면 크고 작은 것을 나타내는 大(대) 小(소), 안팎을 나타내는 內(내) 外(외), 색깔을 나타내는 白(백) 靑(청) 丹(단) 黃(황), 숫자를 나타내는 一·二·三(일·이·삼), 새것과 오래된 것을 나타내는 新(신) 古(고), 온것과 반쪽을 나타내는 滿(만) 半(반), 방축을 나타내는 防(방) 堤(제) 基(기) 城(성), 새를 나타내는 鵲(작) 雁(안) 鶴(학), 鳳(봉) 飛(비), 면적과 용적을 나타내는 坪(평) 斗(두), 광석을 나타내는 石(석) 岩(암) 砂(사), 문사나 벼슬을 나타내는 文(문) 堂(당) 官(관), 동물을 나타내는 牛(우) 鼠(서) 龍(용) 등 예를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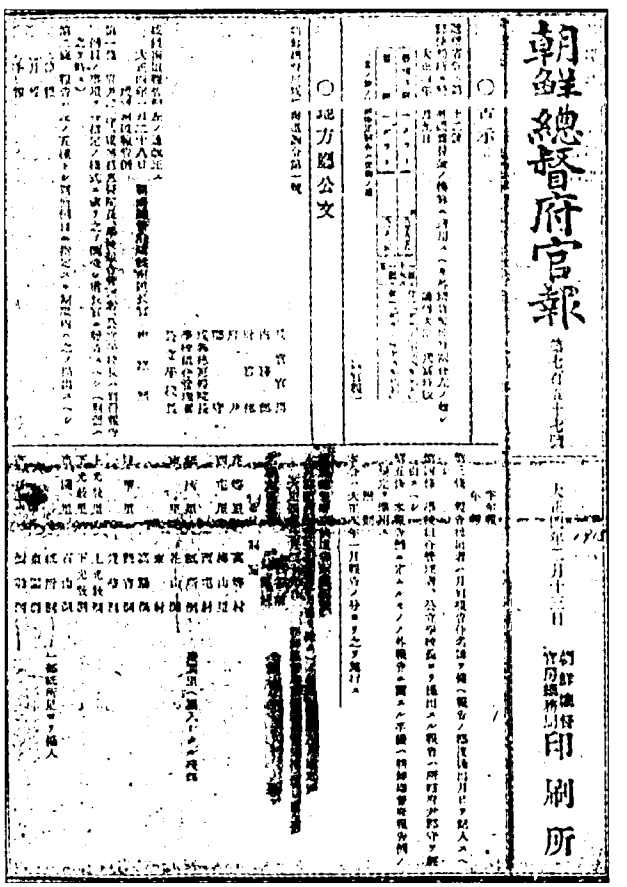
자면 끝이 없다. 편의상 〈자연〉 〈방위〉 〈서열〉 〈식물〉 〈동물〉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없어져서 '아쉽고' 그런 까닭에 '그리운' 지명들을 모아 보았다.

첫째 자연의 〈山〉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일형면의 〈花山〉 〈石山〉, 태장면의 〈山南〉 〈機山〉, 일용면의 〈通山〉 〈山樓〉 〈禿山〉, 매송면의 〈造山〉, 마도면의 〈雙峰〉, 음덕면의 〈山陽〉 〈山花〉, 의왕면의 〈葛山〉 〈牟山〉, 성호면의 〈南山〉, 의왕면의 〈鉢山〉, 성호면의 〈陽山〉, 동탄면의 〈梧山〉 〈山尺〉 등이 있다. 하천이나 물〈水〉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안용면의 〈上柳川〉 〈下柳川〉 〈漁川〉 〈玄川〉, 봉담면의 〈汾川〉 〈水機〉 〈水營〉 〈水直〉, 향남면의 〈石川〉, 음덕면의 〈水充〉, 송산면의 〈大井〉 〈伏井〉, 팔탄면의 〈下沙川〉 등을 들 수 있다. 골짜기와 관련되는 것으로는 매송면의 〈金谷〉 〈肅谷〉 〈柳谷〉 〈蘇谷〉, 봉담면의 〈內谷〉 〈細谷〉, 향남면의 〈松谷〉, 양감면의 〈後谷〉, 음덕면의 〈泉谷〉 〈白谷〉, 서신면의 〈漆谷〉 〈前谷〉, 비봉면의 〈瑟谷〉 〈蓼谷〉, 팔탄면의 〈篤谷〉 〈斗谷〉 〈葛谷〉, 의왕면의 〈藤谷〉 〈谷沙川〉 〈瓦谷〉, 동탄면의 〈梨谷〉 〈基谷〉, 우정면의 〈球谷〉 〈虎谷〉 등이 있었다.

상징적이면서 실감나는 지명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지명인가. 산이 있어서 골짜기가 있고, 내가 있게 마련인데 옛 수원군 지명 가운데 이처럼 산과 골짜기와 물이 흐르는 내와 강이 많았던 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화사상과 자연 숭배 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골짜기를 나타내는 〈谷〉의 경우 부의 상징인 금빛이 나니 〈금곡〉이요, 다소곳이 안쪽에 있으니 〈내곡〉, 여인처럼 가냘프니 〈세곡〉, 소나무가 울울창창하니 〈송곡〉, 뒤쪽에 있으니 〈후곡〉, 앞쪽에 있으니 〈전곡〉이다. 샘이 흐르니 〈천곡〉이요, 희고 깨끗하니 〈백곡〉, 칠보같이 화려하고 은은하니 〈칠곡〉, 금슬이 좋다해서 〈슬곡〉이 있고, 쌀을 퍼담듯이 후하다하여 〈두곡〉, 갈대와 등나무가 우거진듯하다 하여 〈갈곡〉과 〈등곡〉이 있었다. 또 배나무가 많다하여 〈이곡〉, 기와처럼 생겼다하여 〈와곡〉, 든든한 그루터기 같다하여 〈기곡〉도 있었다. 구슬 같다하여 〈주곡〉, 호랑이가 나타난다 하여 〈호곡〉 등 그럴싸한 지명이 많았다.

산과 관련하여 꽃이 우거졌다 하여 〈화산〉, 돌이 많다해서 〈석산〉, 거침이 없다하여 〈통산〉, 태양이 빛난다하여 〈산양〉, 남녘에 있다하여 〈남산〉, 갈대가 우거졌다해서 〈갈산〉, 크다하여 〈모산〉이니 산세와 모양의 아름다움을 짐작케 했다.


朝鮮總督府官報
第一千二百七十七號
大正四年二月十三日
朝鮮總督府印刷所
○彙事
○地方廳公文

1915년 2월 13일자 《朝鮮總督府 官報》. 관보는 관의 소식을 전하는 인쇄물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 민족의 생사여탈을 담은 것들도 수두룩했다.

방위에 관한 것으로는 일형면의 〈西屯〉〈東村〉, 안용면의 〈東鵲〉〈西鵲〉, 양감면의 〈東新旺里〉〈西新旺里〉, 음덕면의 〈西湖〉〈北洞〉, 성호면의 〈西村〉〈西廊〉〈南西〉〈南山〉 등이 있었다. 방위를 원용할 때 동·서·남이 많은 대신 북이 적었는데 이는 북이 추운 곳, 음산한 곳의 이미지와 함께 죽은 자를 묻는 북망산천(北邙山川)의 뜻 때문에 일부러 피했을 것으로 본다.

서열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一·二·三의 숫자와 상·하, 좌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옛 수원군에는 굉장한 숫자 지명이 있었다. 즉 장안면과 우정면 등이 그 대표적인 고장인데 장안면에는 〈一〉〈二〉〈三〉〈四〉〈五〉〈六〉〈七〉까지, 우정면에는 〈八〉〈九〉동까지 있었다. 이 숫자 동들은 개편 당시 장안면에 있어서는 一·二동을 합쳐 〈石浦〉, 三동을 〈水村〉, 四·五동을 〈篤亭〉, 六동을 〈長安〉, 一동 일부를 〈德多〉, 二동 일부와 〈開院〉을 합쳐 〈沙浪〉, 三동 일부와 〈栗田〉을 합쳐 〈沙谷〉, 四·五동 일부를 합쳐 〈蘆浜〉, 六동 일부를 〈漁隱〉, 七동 일부와 〈眞鷄〉〈五洞〉을 합쳐 〈錦衣〉로 바꾸었다. 우정면에 있어서는 五동 일부를 〈覓祐〉, 六동 일부를 〈雲坪〉, 四동 일부를 〈閑角〉, 一·二·三동 일부를 〈梨花〉, 三·四·六동 일부를 〈石川〉, 五동 일부를 〈梅香〉, 七·八동 일부를 〈花山〉, 八·九동을 〈朝岩〉으로 바꾸었다.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는 서열지명이 꽤 있지만 여기처럼 一동에서 九동까지 있었던 예는 이곳이 처음이다. 이밖에 상·중·하나, 내·외와 숫자가 들어간 곳은 일형면의 〈上光敎〉〈下光敎〉, 봉담면의 〈上洞〉〈下加等里〉, 향남면의 〈上水直〉〈下水直〉〈上斗〉〈下斗〉〈下杏亭〉〈上杏亭〉〈上坪村〉〈下坪村〉, 양감면의 〈上里〉〈下里〉, 음덕면의 〈上洞〉〈中洞〉〈下洞〉〈內洞〉〈外洞〉, 마도면의 〈中里〉, 송산면의 〈三尊〉〈六校〉〈北一〉, 비봉면의 〈百老〉, 서신면의 〈百味〉, 팔탄면의 〈三岩〉, 의왕면의 〈浦一〉〈浦二〉〈上淸

溪〉〈下淸溪〉〈五馬〉〈上莊儀〉〈下莊儀〉, 정남면의 〈上普通〉〈下普通〉〈五逸〉, 성호면의 〈一〉〈二〉〈三〉〈四〉〈五〉〈外三美〉〈內三美〉 동이 있었다.

식물을 나타내는 지명으로는 일형면의 〈松山〉〈花山〉〈棗園〉〈逸林〉〈芭長〉〈眞木〉〈松竹〉〈梨木〉〈栗田〉〈鵲橋〉〈松谷〉〈芝長〉〈梧木〉, 매송면의 〈自木〉〈好梅室〉〈柳谷〉〈松蘿〉, 봉담면의 〈桐化〉〈柳村〉〈旺林〉, 향남면의 〈葛川〉〈松谷〉〈桃李〉, 양감면의 〈松山〉〈眞木〉, 마도면의 〈松峙〉〈松亭〉〈居芝〉, 서신면의 〈尙林〉〈松橋〉〈梅花〉, 비봉면의 〈柳池〉〈蓮花〉〈蓼谷〉, 팔탄면의 〈梅安〉〈花塘〉, 장안면의 〈栗田〉, 의왕면의 〈葛山〉〈槐洞〉, 정남면의 〈藍洞〉〈桂香〉, 성호면의 〈竹田〉〈竹美〉, 동탄면의 〈盛竹〉〈古梅〉〈盤松〉〈梧山〉〈梨谷〉〈松村〉〈長芝〉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절개를 표상하는 매화나무 梅(매)자가 든 〈매산〉〈호매실〉〈매안〉은 얼마나 고고해 보이고, 꽃 花(화)자가 든 〈화산〉〈연화〉〈이화〉〈화당〉 등은 얼마나 향기로운가. 특히 〈계향〉〈성죽〉〈반송〉 등은 무성하면서도 건강한 자연과 선비의 기상을 엿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동물과 관련된 것으로는 태장면의 〈龜川〉〈牛滿〉〈鵲橋〉〈龜峰〉〈陣雁〉, 안용면의 〈東鵲〉〈西鵲〉〈黃鵲〉〈臥牛〉〈漁川〉, 봉담면의 〈馬霞里〉, 양감면의 〈龍沼〉, 음덕면의 〈古鼠尾〉〈鼠里〉〈獐田〉, 마도면의 〈古毛〉, 송산면의 〈馬山〉〈鳳歌〉〈牛音島〉〈龍水〉, 서신면의 〈龍頭〉, 비봉면의 〈白鶴〉〈鳩浦〉, 장안면의 〈眞鷄〉, 의왕면의 〈鶴峴〉〈五馬〉, 정남면의 〈鳳凰〉〈龍水〉 등이 있었다.

오래 기억하고픈 지명 수두룩

이밖에 분류하지 않은 지명 중에서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 몇가지를 골라 보면 이렇다. 우선 불교 또는 도교, 왕조시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일형면의 〈觀吉〉〈彌勤〉〈塔洞〉〈靈通〉〈陵洞〉, 안용면의 〈香木〉〈大皇橋〉〈官里〉, 의왕면의 〈官項〉〈德節〉〈新奄〉, 양감면의 〈旋門〉, 송산면의 〈三尊〉이 있고, 희귀한 지명으로는 음덕면의 쥐꼬리를 나타내는 〈고서미동〉과 〈서미동〉, 숟가락 뜻을 나타내는 음덕면의 〈匙里〉, 분가루를 알게 한다는 〈紛知〉, 오래된 털이라는 뜻의 마도면의 〈古毛〉, 하늘에서 등불을 밝힌다는 뜻의 송산면의 〈天燈〉, 백가지 맛을 낸다는 서신면의 〈百味〉와 백살 노인이라는 뜻의 비봉면의 〈百老〉, 새 중의 새라는 봉황새를 뜻하는 정남면의 〈鳳凰〉, 달을 바라다본다는 뜻의 의왕면의 〈望月〉 등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픈 지명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의 수원 官街

27대 국왕에 걸쳐 519년 동안 통치하다 패망한 조선시대를 통털어서 임진왜란(1592), 병자호란(1637년), 경술합방(1910)을 3대 국치(國恥)라고 말한다. 최근에 와서 병자호란을 빼고, 1997년의 IMF를 꼽고 있다지만 시대상황과 배경이 다르다. 아무튼 옛날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국치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경술국치(庚戌國恥)이다. 그만큼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된 '한일합방'은 우리 민족과 나라에 있어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상처이면서 아픔인 것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식민지 통치를 감행하기 위해 소위 메이지덴노오(明治天皇)의 재가를 받아 전광석화(電光石火)식으로 집행한 총독부의 관제(官制) 칙령(勅令)의 대강을 살펴보고, 이 때 함께 단행된 도제(道制)와 경기도 수원군의 군제(郡制) 등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191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자그만치 93년 전이다. 그래서 잊혀질만한 세월이 됐고, 인간의 기억력으로는 사실상 한계를 느낄만한 시점이 되었다. 하지만 오직 역사만은 망각과 예외가 없으니, 역사야말로 만고불변의 존재라 해야할 것이다. 먼저 1910년 8월 22일 매국노 이완용(李完用·총리대신)과 일본 조선통감 데라우찌마사다케(寺內正毅) 사이에 체결된 '한일합방조약'에 따라 동년 9월 30일 발표된 소위 칙령(勅令)에 관해 알아보자. 칙령은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천황의 뜻을 받드는 지엄한 천명(天命)일지 모르지만 우리 조선으로서는 사형선고에 이은 사형집행과 같은 것이었다. '칙령'은 전문(全文) 21조 부칙으로 되어있는데 그 첫 머리는 이러했다.

"짐(朕)은 추밀고문(樞密顧問)의 자순(諮詢)을 거쳐 조선총독부 관제(官制)를 재가(裁可)하고 이에 공포한다"로 되어 있다. 칙령 354호를 받든 소위 내각은 내각총리대신 후작(侯爵) 가쯔라타로오(桂 太郞), 육군대신 자작(子爵) 데라우찌마사다케(寺內正毅), 해군대신 남작(男爵) 사이토오미노루(齊藤 實)의 3인인데 데라우찌는 초대 조선총독에 발탁된 위인이다. 주요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제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제2조 총독은 친임(親任)하는 육·해군 대장(大將)으로 보한다.' '제8조 총독부에 정무총감(政務總監)을 둔다. 정무총감은 총독을 보좌하고 부무(府務)를 통치하며 각 부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9조 총독부에는 관방 및 다음의 5부를 둔다. 總務部·內務部·度支部·農商工部·司法府.' 마지막 조항인 제21조는 '총독부에는 무관(武官) 2인, 전속 부관(副官) 1인을 둔다. 총독부 무관은 육·해군 소장 또는 좌관(佐官:영관)으로 보한다. 부관은 육·해군 좌관으로 한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애초부터 군부를 전면에 내세워 무단통치를 할 작정이었고, 조선 그 자체를 적지(敵地) 개념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같은 날(9월 30일) 칙령 제355호로 '朝鮮總督府 中樞院 官制', 칙령 제356호 '朝鮮總督府 取調局 官制', 칙령 제357호로 '朝鮮總督府 地方 官制'를 공포했다. 이 마지막 칙령 즉 지방관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조 조선에는 다음의 도(道)를 둔다. 京畿道·忠淸北道·忠淸南道·全羅北道·全羅南道·慶尙北道·慶尙南道·黃海道·平安南道·平安北道·江原道·咸鏡南道·咸鏡北道. 도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로 되어 있다.

수원군의 정원은 일·조 반반의 8명

한마디로 세기말적인 국가 수탈이면서 할말을 잊게 하는 무치극(無恥劇)이었다. 결국 조선의 각도는 이날 자 칙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예하 기관이 되었고, 도를 지배하는 장관(도지사) 임명권도 일본 것이 되고 말았다. 각 도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두었다. 장관(長官)-칙임(勅任), 참여관(參與官) 1인, 칙임 또는 주임(奏任), 사무관-주임, 통역관-주임, 기사-주임, 서기·기수·통역생은 판임(判任)으로 하되, 사무관 이하 각 직급의 전임(專任) 423명을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칙임'은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것, '주임'은 주무장관의 상주(上奏)를 받아 천황이 윤허하는 것, '판임'은 장관이 자의로 임명하는 직급이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 데라우찌마사다케는 훈령 제31호로 경기도의 사무관·서기·기수·통역관, 부·군(府·郡)의 서기 정원(定員)을 공표했는데 당시 경성부(京城府-지금의 서울특별시)는 경기도에 예속되어 있었다.

먼저 경기도의 정원은 사무관 2인, 서기 40인 등 42명인데 내역을 보면 관방(官房) 7인

(일본인 5인, 조선인 2인), 내무부 12인(일본인 9인, 조선인 3인), 제무부 11인(일인 8인, 조선인 3인) 기수 12인 등이었다. 경성부는 사무관 1인, 통역관 1인, 서기 24인(일인 12인, 조선인 12인)이고, 인천부는 사무관 1인, 서기 10인(일인 5인, 조선인 5인)이며 경기도 전체 군(郡)의 정원은 서기 201인(일인 82인, 조선인 119인)이었다.

당시 수원군의 정원은 서기 8인(일인 4인, 조선인 4인)에 지나지 않았다. 도내 군 가운데서 정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양주군으로 9인(일인 4인, 조선인 5인)이고, 그 다음이 수원과 개성군의 8인, 파주군 등 18개 군은 5인(일인 2인, 조선인 3인)이었다.

같은 날(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8호로 면(面)에 관한 규정, 또 같은 날 부령 제9호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설치와 위치·관할구역을 공표했다. 이밖에도 경제·교육·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훈령과 부령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 하나하나는 잘했던 잘못했던 519년 동안 존속했던 조선의 제도와 관행을 무참하게 짓밟는 말살과 다름이 없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조선총독부가 사법부인 재판소를 지배했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총독은 행정·입법·사법을 한 손아귀에 쥔 무소불위(無所不爲)격인 권력의 절대자였다. 상대적으로 이미 국권을 상실한 대한제국과 어느 날 갑자기 일제의 노예가 되어 버린 민초들의 비애와 통분은 헤아릴 수 없이 컸다.

절치부심한다고 세월은 멈추지 않는 법이다. 조선총독부는 저들나름의 식민지정책에 따라 조선 잠식의 발걸음을 재촉했을 뿐이다.

初代 수원군수 金寬鉉, 남양군수는 金永斗

그렇다면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일제하 초대 수원군수는 누구였는가. 그 장본인은 '6등 7급' '從7등·勳4등'의 조선인 金寬鉉이었다. 김관현에 대한 인적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어떤 위인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종7등·훈4등'이었다는 점에서 친일파임에 틀림없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저항을 누그러트리면서 민심 회유책으로 군수만은 조선인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군의 실력자인 선임 서기는 10중 8~9는 일본인을 앉혔다. 결국 군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군의 살림살이는 일본인이 장악했던 것이다.

한편 수원군에 배치된 8명의 서기는 다음과 같았다. '從7등·勳7등'의 와다나베요시미찌(渡邊善道), 김중협(金中協), 다카하시히사쯔기(高橋久次), 차석민(車錫敏), 서정규(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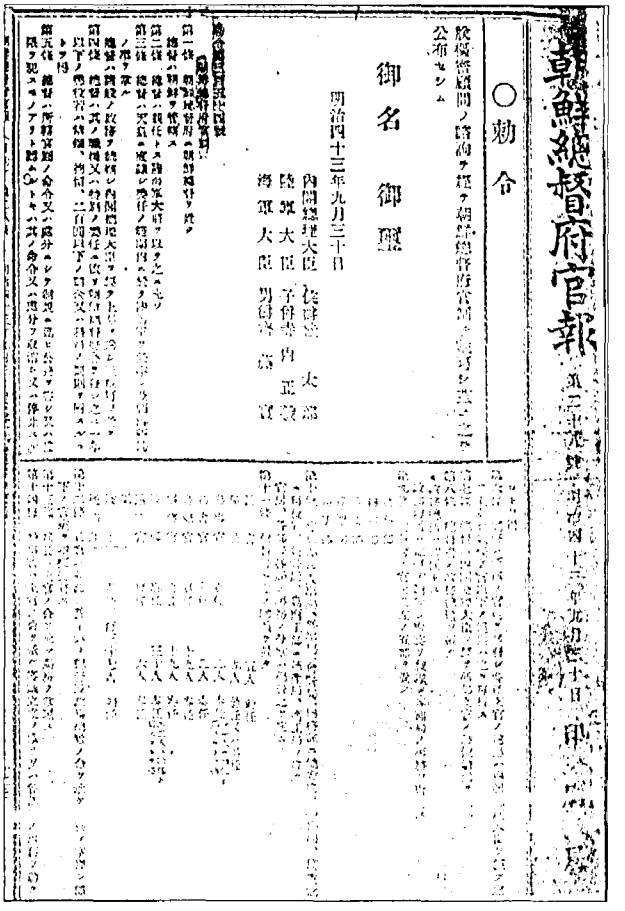
延珪), 마쯔우라킨데쯔(松浦禁鐵), 상윤식(尙允植), 히사사카류지로(久坂龍次郎) 등이었다. 4명의 일본인 서기야 일제의 심복들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과연 4명의 조선인 서기들은 재임 동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일제 때 공직자라고해서 모두 친일파로 매도할 수는 없다. 생계 유지를 위해 혹은 출세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일제의 수족 노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한일합방 직후의 공직자들이 일제의 주구(走狗)로 충실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한편 일제 때 독립한 남양군(南陽郡) 군수는 '8등 11급'으로 '正8등'의 金永斗였고, 6명의 군서기는 다음과 같았다. 洪喆厚, '勳7등·功7등'의 가고시마에이노스케(鹿島榮之助), 나가야마하루쯔기(永山春次), 朴斗容, 黃潤東, 吉昇翊. 이로부터 6년이 지난 1916년 초의 수원군은 金寬鉉이 '5등 6급'으로 진급되면서 자리를 지켰으며, 군서기는 종전의 8인에서 13명으로 5인이 증원되고, 판임관 견습까지 1인이 늘어났다. 그 면면은 다음과 같았다. 다카하시히사쯔기(高橋久次), 스카후지마사오(須藤正夫), 金振瑢, 洪高秀, 鄭宇相, 黃潤東, 朴斗容, 南奎元, 成世慶, 노자와칸이찌(野澤寬一), 鄭鍾翊, 후지시마신지로오(藤島眞治郎), 가키다니다카시(垣谷 猛), 견습 金泰鎬. 6년 사이에 초창기부터 남아 있는 서기는 일본인 다카하시(高橋) 뿐이고, 나머지는 전원 교체되었다.

수원면장은 日本人, 나머지 면장은 朝鮮人

1923년,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13년이 지난 당시의 수원군의 인사는 어떻게 변모하였을까. 그리고 20개 면의 면장(面長)들은 어떤 면면이었을까. 수원군수는 金寬鉉이 물러나고, 후지자와도오루(藤澤 亮)로 바뀌었다. 서기는 나카무라칸키치(中村勘吉), 기시다스스무(岸田 進), 洪高秀, 黃潤東, 도요요시타로오(豊 吉太郎), 成世慶, 金敬晶, 가메다이찌히라(龜田市平), 鄭鍾翊, 金羽坤, 崔顯榮, 韓圭明, 기수 申貞均, 판임 견습 요네하라고오타이(米原光太), 李敬貞, 군참사 禹成鉉, 李秉雲 등이었다. 면장은 수원면 곤도오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 태장면 兪致卨, 매송면 趙寅默, 향남면 申載雨, 마도면 洪麟裕, 서신면 洪大元, 팔탄면 尹元榮, 우정면 崔重煥, 반월면 韓鳳洙, 성호면 劉鍾烈, 일형면 李鴻來, 안용면 金南韶, 봉담면 李應勉, 음덕면 金鉉俊, 송산면 洪達厚, 비봉면 權亨奎, 장안면 金賢默, 의왕면 柳喆義, 정남면 安弼濩, 동탄면 洪思贊 등이었다.

수원면장 만이 일본인이고, 나머지 19개 면장은 조선인이었다. 조선총독부가 면장직까


朝鮮總督府官報
○勅令
御名御璽
明治四十三年九月三十日
公布セシム

경술국치(庚戌國恥) 직후인 1910년 9월 30일자 (조선총독부 관보)

지 독식하지 않은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조선인의 배일감정을 감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력수급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미 관직에 오른 대다수의 관리들은 극렬 친일파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일본인으로 면장까지 보임할 까닭이 없었다.

1925년에 수원군수가 모리가와겐하찌(森川源八)로 바뀌고, 서기, 기수, 산업기수, 도지방비 서기 등까지 22명으로 증원되었다. 면은 1개면(楊甘面)이 증설돼 21개 면으로 늘어났는데 유임된 면장과 새로 임명된 면장이 반반 쯤 됐다. 이듬 해인 1926년에 수원군수가 쯔루사키도시유키(鶴崎敏行)로 바뀌고, 군 직원도 26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일본인이었다. 특히 산업분야를 장악하는 '산업기수' 3인은 전원 일본인이었다. 이것은 조선에서의 산업개발에 역점을 준 배려일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선에서의 자원 수탈 강화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1930년,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된지 20년 만인 해에 수원군수가 스가하라키로쿠(菅原喜祿)로 바뀌었지만 직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듬 해인 1931년에 수원군수가 모리가와켄하찌(森川源八)로 교체되는데 그는 1925년 수원군수를 지낸 바 있다. 상당수의 면장이 바뀌었지만 수원면장 근도오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만은 바뀌지 않았다.

1937년 수원군수가 宋文華로 경질되었다. 이것은 1910년 金寬鉉 이후 27년 만의 조선인 등용이었다. 또한 수원군의 군세가 강화되면서 수원면이 수원읍(水原邑)으로 승격되고, '從7등·勳6등'의 우메하라시즈오(梅原靜雄)가 읍장에 임명되었다. 조선인 군수에 일본인 읍장은 외견상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차별배척(差別排斥)으로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제의 속셈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1939년 수원군수는 조선인 許 燮으로 바뀌었으나, 읍장 우메하라(梅原)는 건재했다.

경기재판소 폐지와 사법의 좌절

이번 마당부터는 일제하의 수원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사태 · 사건 · 사고 · 일화 · 미담 등을 두루 소개할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제하 식민지 시절에 수원군민들이,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굴욕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살아온 수원인 특유의 강인한 생활사를 가감없이 옮겨 싣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구한말 때 수원에 설치되었다가 한일합방(1910년) 2년 전인 1908년 5월에 폐지된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에 얽힌 이야기들을 모아 보았다.

경기재판소가 수원의 어디에 있었는지, 건물 모양이 어떠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대한제국은 고종(高宗) 34년에 해당하는 광무(光武) 원년(1897)에 수립됐다. 이 무렵인 1899년 당시의 수원군 인구는 1만 2579호구(戶口)에 4만 9708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남자가 2만 7632명, 여자가 2만 2076명이었다. 오늘날의 대도시 1개 동 인구만도 못하였지만 당당한 재판소가 있었다. 그것도 경기도란 도명(道名)을 붙인 '京畿裁判所'가 이 한적한 고을에 있었다니 조금은 의아스럽고 놀랍다.

이 재판소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기록을 찾아내지 못해 알 수 없다. 다만 1908년(純宗 2) 5월에 폐지된 것만은 확실하다. 폐지된 경기재판소는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 합병되었는데 한성재판소는 얼마 후 경성재판소(京城裁判所)로 개칭되어 5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같은 해 5월 6일자 〈京城新聞〉(경성신문)은 전하고 있다. 경성신문은 당시의 개화파 인사인 정해원(鄭海源), 윤치소(尹致昭), 윤치호(尹致昊) 등이 함께 창간한 주 2회 발행하는 신문으로, 10호까지 발행한 뒤 〈大韓皇城新聞〉(대한황성신문)으로 개제(改題) 한 바 있다.

또 다른 기록, 즉 1923년 10월 3일 발간한 일본인 저술가 사카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의 책 《水原》(수원)에 보면 '경기재판소'에서 '한성재판소', 다시 '경성재판소'로 바뀌고 나서, 동년 12월 1일자로, '경성재판소 수원지청'이 개설돼 수원 · 용인 · 안성 · 진

위·광주 등을 관할구역으로 삼았다고 적고 있다. 그로부터 한참 뒤인 1932년 2월 10일 조선총독부는 仁川·驪州·瑞山·城津·鎭南浦·義州·密陽·統營 등 8개 지방법원 지청에 대하여 민·형사 사무(등기사무 제외)를 정지시키고, 마산지청 합의부를 폐지한 바 있는데 이 때 정지된 민·형사 업무가 다른 지청에 이관되면서 여주·이천 업무는 수원지청으로, 인천과 양평은 경성지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경기재판소가 1908년 이전에 수원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과 수원이 사법기능을 가진 구한말의 도시였다는 사실이다.

3국시대에 중국의 법제 도입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재판제도 역사를 알아 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을 것 같다. 삼국시대 중엽부터 중국 법제(法制)가 도입되기 시작,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받았다. 고구려는 상가(相加:고구려의 직제로 大官, 즉 각부의 大加에 준하는 벼슬)들의 평의를 통해 과형(科刑)을 결정한 것 같고, 신라도 화백(和白 : 신라시대 6부족의 온 사람이 모여 한 회의)을 거쳐 재판했다. 고구려는 반역죄에 육형(肉刑)과 사형을 병행하고, 도범은 도둑질한 물건의 10배를 배상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도 당제(唐制)를 전수받아 형정관서인 상서형부(尙書刑部)와 형행을 담당하는 전옥서(典獄署)가 있었고, 백관(百官)의 비위를 다스리는 사헌부(司憲府)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범죄는 단심(單審)이었으나, 사죄(死罪)는 삼복제(三覆制)였다.

조선시대에 와서《經國大典》(경국대전)등의 법전이 마련되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명률(大明律:중국 명대의 기본적인 형법전)에 따랐다. 단 양반은 의금부(義禁部), 상민은 형조·한성부·포도청이 관할하는 등 신분 차별을 두었다. 재판은 단심이 원칙이지만 삼복제가 있었다. 1875년 강화도조약 이후 유럽제도에 접하게 되고,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유럽 법제를 계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구한말인 1907년 일본의 간섭으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게 되고, 동법에 따라 1908년 8월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즉 3심제 4계급의 재판소를 설치하였으나, 재판소 간부는 왜인 일색이어서 그 때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본에 예속된 것이다.

한일합방 이듬 해인 1911년의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원의 사건취급상황을 보면 본안소송(本案訴訟) 1022건, 화해(和解) 159건, 독촉(督促) 20건, 가차압·가처분 88건, 형사 1심

109건에 피고인 121명, 예심은 한 건도 없었다. 1914년, 1917년, 1921년의 사건취급 사황은 아래 표와 같았다.

年度	本案訴訟	和解	督促	假差押假處分	刑事 1審		豫 審		登記事件 印紙收入		
					件數	被告人員	件數	被告人員	件數	枚數	收入額
1911	1,022	159	20	88	109	121	0	0	0	0	0
1914	765	40	1,007	488	296	438	3	15	0	0	0
1917	571	2	1,099	748	476	572	27	56	6,539	26,941	28,501.59
1921	631	14	1,647	217	177	250	5	9	7,676	32,036	54,522

한편 1913년의 검사(檢事) 처분사건을 보면 전년도 이월 8건을 비롯해 609건에 달하였다. 기제(旣濟)에 있어서는 기소사건에서 예심청구 3건, 공판청구 308건, 불기소 274건, 이송(移送) 15건으로 600건, 미제(未濟)가 9건이었다. 기제사건의 계류일수를 보면 5일 이내가 가장 많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검찰사건처리가 속전속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검사의 사건처리는 速戰速決主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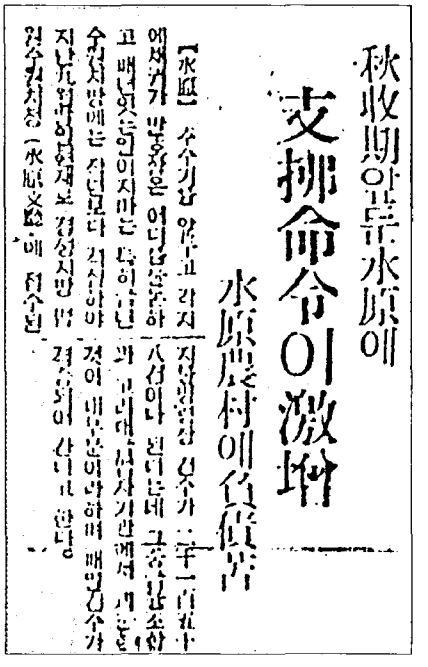
1916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 32건, 화해 83건을 포함해 555건, 미제는 28건이었다. 기제의 계류일수를 보면 15일 이내 190건, 1개월 이내 107건, 2개월 이내 53건, 3개월 이내 13건, 4개월 이내 9건, 6개월 이내 2건, 1년 이내 1건으로 속결(速決)과 지결(遲決)이 공존했다. 집달리 사무취급상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 47건과 접수 2375건을 합쳐 2407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유체동산(有體動産)이 411건, 가차압 146건, 민사 1643건, 형사 51건, 기타 156건이었다. 집달리 수수료는 수수료 112만 5815원, 여비 41만 8600원, 슥박표 24만 2450원, 서기료 2270원, 민사수수료 11만 5010원, 형사 1만 2450원 등 191만 6595원에 달하였다.

같은 해의 검사수리사건을 보면 현행범이 전년도 이월 4건, 고소 2건, 고발 2건, 기타 3건, 경찰 송청 102건, 헌병 송청 78건, 타 재판소 이송 2건이고, 비현행범은 고소 65건, 기타 22건, 전년도 이월 3건, 경찰 송청 392건, 헌병 송청 143건, 타 재판소 이송 18건 등 643건으로, 현행과 비 현행을 합해 836건에 달하였다. 그렇다면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이 선고한 체형자 수와 · 선고 받은 피고인의 국적은 어떨까.

수원지청이 선고한 체형자는 유기(有期) 180명, 구류 1명, 태형(笞刑) 288명으로 469명이었다. 이 시절까지 조선시대 때 있었던 태형이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겠지만 분명히 있었다. 태형은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써 최소가 10대, 최고가 100대였다. 우리는 흔히 몇 '대'라고 말하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몇 '도'(度)라고 하였다. 1911년도에 전국 재판소에서 체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수와 국적을 보면 사형 91명, 무기 31명, 유기 8392명인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7097명, 일본인 1105명, 중국인 310명, 러시아인 1명, 오스트리아인 1명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형 91명 전원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 1914년의 경우는 사형 53명(일본인 1명), 무기 17명(일본인 1명), 유기 조선인 9418명, 일본인 1075명, 구류 63명(조선인 57명, 일본인 1명, 중국인 2명), 태형 7170명인데 태형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왜정 때에는 재판소가 발부하는 지불명령장(支拂命令狀)이란 게 있었다. 아다시피 사람이 살다보면 궁한 나머지 남의 빚을 얻어 쓸 수 있고, 반대로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 주고 받은 빚을 약속대로 지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약속을 제때에 못 지키면 시비가 붙게 마련이다. 일단은 채권자가 채





秋收期앞둔水原에
支拂命令이激增
水原農村에金融梗塞

이 건물은 한일합방 뒤 수원면 교동에 일본인 니시자와케이아이(西澤賢愛)가 세운 富國園 건물로, 왜정 말기에는 수원상공회의소가, 6.25 전쟁 때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화당 수원지구당사로 쓰인 바 있다. 오른 쪽은 지불명령장의 격증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무자에게 말로 독촉하지만 끝내 약속이 안지켜지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지불명령이다. 193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사이에 수원지청에 접수된 지불명령은 자그만치 200건으로 미제분까지 합치면 1000건이 넘었다. 2년 뒤인 1938년에는 지불명령 청구가 2580건이나 되었다. 재판소가 밀어닥치는 지불명령 청구를 소화시키기 위해, '지불명령장'을 무더기로 발부하는 바람에 온 동네방네가 명령장 홍수를 이루었다고, 당시의 〈東亞日報〉(1938. 10. 4일자)는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불명령을 청구한 채권자들은 대부분이 돈장사를 하는 금융기관과 비싼 이자를 챙기는 고리대금업자였다.

아무튼 이 시절에 지불명령장이 난비(亂飛)하였다는 것은 수원군민의 채무채권 의식이 낮아서라기 보다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데서 비롯된 어두운 사회현상의 하나였다.

일제강점기의 수원군 친일 관료들

2002년 2월 28일 진보성향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金希宣)이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사단(事端)은 광복회가 선정한 692명의 명단에 '민족정기 모임' 측이 광복회와 사전협의 없이 16명을 추가 발표한데서 일어났다. 문제의 16명은 여성계의 고봉경(高鳳京), 김활란(金活蘭), 모윤숙(毛允淑), 박인덕(朴仁德), 송금선(宋今璇), 황신덕(黃信德) 문화·예술계의 김은호(金殷鎬), 심형구(沈亨求), 현제명(玄濟明), 홍난파(洪蘭坡), 이능화(李能和), 정만조(鄭萬朝), 언론계의 김성수(金性洙), 방응모(方應謨), 장덕수(張德秀), 종교계의 권상노(權相老) 등이다. 우리나라 근대사 가운데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뼈아픈 것이 경술국치(庚戌國恥)라면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통단해 맞이 않을 일이 광복 직후 민족의 이름과 권능으로 친일인사를 청산하지 못한 일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복을 한지 58년이 된 오늘날에 와서 친일인사의 기준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으니 과연 우리에게 민족반역자를 단죄할 수 있는 진검정신(眞劍精神)이 제대로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각설하고 이번 마당에서는 왜정 때(1910~1945) 수원군청, 수원읍사무소, 수원군내의 각 면사무소에 몸담고 있으면서 조선총독의 명령에 따라 앞잡이 노릇을 했던 소위 식민지 시대의 '친일관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의 관료들을 일괄적으로 '친일파'로 보는 적극적인 해석이 옳은지, 정도를 감안해 '비친일'로 분류하는 선택적 해석이 정당한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데 극악무도한 조선총독의 명령에 따라 행정실무를 집행했다면 그 결과는 민족 탄압이 되었을 것이므로 '친일파'로 단정해야 옳지만 명령에 따르긴 했어도 실제로는 동족의 편에 서서 행동하였다면 '친일파'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군수·읍장·면장 등을 지낸 인사들은 조선총독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친일분자로 볼 수밖에 없다. 뿐인가 수원군수하면 조선총독부 직속의 3~7등 고급 관료로서 1백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인데다 '작은

총독'이라고 할만큼 권세가 대단하였으니, 그들이야말로 친일의 핵심 인사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단계 낮은 수원읍장이나 면장도 군수보다는 덜해도 지방과 지역의 영주(領主)로서 식민지화에 협력한 조선총독의 추종세력임에 틀림없다.

경술국치 이후 없어진 한말 직함

여기서 참고가 될까 해서 조선시대의 소위 목민관(牧民官)에 관해 약술하기로 한다. 경술국치로 말미암아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경기도에는 '수원부사'(水原府使), '수원유수'(水原留守),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수원판관'(水原判官), '수원군수'(水原郡守), '수원읍장'(水原邑長), '수원면장'(水原面長)을 비롯한 여러 면의 면장들이 있었다.

부사는 종(從)3품의 벼슬로 지방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곳에 배치하였는데 수원에 최초로 부사를 둔 것은 1522년(중종 20)이고, 1792년(정조 16)까지 270년 동안 모두 194명에 달하였다. 270년 동안에 194명이 거쳐갔으니까 평균 재임기간은 1년 4개월 남짓했다.

유수란 수도 이외의 요긴한 곳을 맡아 다스리던 특수 외직(外職)으로 정(正)·종(從)2품의 벼슬이었다. 정원은 2명인데 1명은 관찰사가 겸직하도록 하였다. 수원에 유수제도가 도입된 것은 부사제도가 없어진 1793년(정조 17)부터이며 유수제도가 없어진 것은 1895년(고종 32)이었다. 따라서 수원유수는 102년 동안 유지되었고, 거쳐간 유수가 82명인 바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 남짓하였다.

관찰사란 8도(道)의 지방장관을 말하며 오늘날의 경기도지사 격이다. 당초에는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 '안렴사'(按廉使), '감사'(監司) 등으로 부르고 품계는 종2품이었다. 경기관찰사는 서울과 수원에 주재하였고, 1896년(건양 1) 7월 처음 부임한 이래 1901년(광무 5)까지 5년 동안 6명의 관찰사가 거쳐갔다.

판관은 종5품의 벼슬로 감영(監營)이나 유수영(留守營)이 있는 곳의 원(員)을 말한다. 의상은 녹의(綠衣)에 털이 달린 화립(畵笠)을 썼다. 수원에 판관이 있기 시작한 것은 정조 17년(1793)부터이며 1896년(고종 32)까지 모두 65명이 거쳐갔다.

군수란 도(道) 예하의 지방장관을 뜻하며 그 지방에서 불미한 일이 생기면 현감(縣監)으로 강등시켰다. 수원에 최초로 군수를 둔 것은 1895년(고종 32)의 일로 모두 13명의 군

수가 임면되었다. 초대 수원군수는 정 교(鄭 喬)였고, 가장 임기가 길었던 군수는 2년 11개월 동안 재임한 김각현(金珏鉉)이었으며 가장 짧았던 군수는 서상집(徐相集)과 이재관(李載觀)으로 각각 1개월이었다.

면장은 행정기관의 말단 조직인 면(面)의 책임자로서 이미 조선시대에 정착한 제도였다. 그런데도 수원에 관한 연혁·읍명·읍치(邑置)·방리(坊里)·호구(戶口)·총결(總結)·성곽(城郭)·산성(山城)·진도(津渡)·도서(島嶼)·필로(蹕路)·교량(橋梁)·봉수(烽燧) 등을 비롯해서 각급 관원(官員)들의 선생안(先生案)까지 등재된 《水原郡邑誌》(수원군읍지)에는 면장의 이름이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아 면장에 관한 인적사항을 알 길이 없다. 짐작하기에는 면의 수가 많은 만큼 면장의 임면도 퍽이나 많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군수와 읍·면장은 조선총독의 수족

1910년의 경술국치(8월 29일)는 우리 민족을 절망으로 몰고 갔다. 아무리 극심한 절망이라도 한줄기 희망이나 기대는 남아 있게 마련인데 일제하에서의 절망에는 그런 단서(旦書)가 용납되지 않았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조선과 조선 민족에 대한 식민지 작업은 빈틈없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편승한 것이 조국과 동족의 명줄을 팔아 넘긴 '친일매국노'들이었다. 이완용(李完用)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부귀와 권력 그리고 끝도 없는 영화가 아무리 좋다기로서니 피를 나눈 동족과 그들이 5세기 남짓 동안 가꾸고 지켜온 나라까지 팔아 넘길 수는 없는 법인데 그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냈으니 인간의 탈을 쓴 악귀임에 틀림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36년 동안 일제식민지하에서 군수·읍장·면장을 포함해서 일본 경찰로 활동한 조선인들을 과연 어떤 존재로 봐야 할까.

필자는 그들을 친일파로 본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임면권자인 조선총독의 명령을 받들고, 그 명령대로 식민지 촉진에 앞장 섰으며 일황의 신격화를 강요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물론 겉으론 친일을 했지만 속으론 나라와 겨레 걱정을 한 인사가 있었다는 말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신빙성이 없다. 아무튼 일제는 조선을 합병한 뒤 곧바로 도지사, 시장, 군수, 읍·면장을 그들의 입맛에 따라 일제히 임명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朝鮮總督府 及 所屬官署 職員錄》에 보면 합병 직후인 1910년에 김관현

(金寬鉉·7등 8급)을 수원군수로 임명한데 이어 1918년에 고원식(高原植·5등 6급)을 임명하는 등 조선인을 군수로 등용하였다. 반일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그 본색을 나타냈다. 즉 그 해에 조선인을 군수로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즉각 일본인 후지사와도오루(藤澤 亮)를 수원군수(7등 5급)로 임명했다. 이후 조선식민지 완성기인 1935년까지 일본인 군수를 임명하고, 패전 기미가 짙어지는 일제 말기에 다시 조선인 군수를 임명했는데 그 면면은 다음과 같다.

1910년 7등 8급 金寬鉉	1918년 5등 6급 高原植	1919년 7등 5급 藤澤 亮
1923년 7등 6급 鶴崎敏行	1924년 7등 8급 田中弘吉	1925년 7등 7급 森川源八
1929년 4등 4급 白川之藏	1930년 7등 6급 管原喜祿	1932년 4등 4급 白川之藏
1935년 7등 7급 大河內巖	1937년 4등 6급 宋文華	1939년 4등 6급 許 燮
1940년 3등 4급 旭川 和	1941년 3등 5급 許 燮	

수원군의 면은 조선시대 이래 수없이 신설·통폐합을 거듭하였다. 어느날 새로운 면이 생겨났는가 하면 어느 사이에 없어지거나 통합하기 일쑤였다. 신설·통폐합되는 것은 면만이 아니었다. 임금이 바뀌거나 정변이 일어났다가 안정을 되찾으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심지어 왕비가 태어난 고장의 군을 승급시키고, 살인이나 강간 등 괴렴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군을 현으로 강등시켰다. 길사(吉事)나 국가에 공헌한 경사가 있었을 때 군의 등급을 높여 주는 포상적 의미의 개편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면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특이했던 것은 면장은 단 두 차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조선인을 일관되게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일제는 말단 행정조직인 면의 책임자를 일본인으로 임명하자니 인적 공급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일본인을 말직에 보임하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어쨌거나 민초들의 생활을 최측근에서 살피면서 다른 한편으로 반일 움직임을 감시하는 두 얼굴을 가진 친일 면장과 수원읍장은 아래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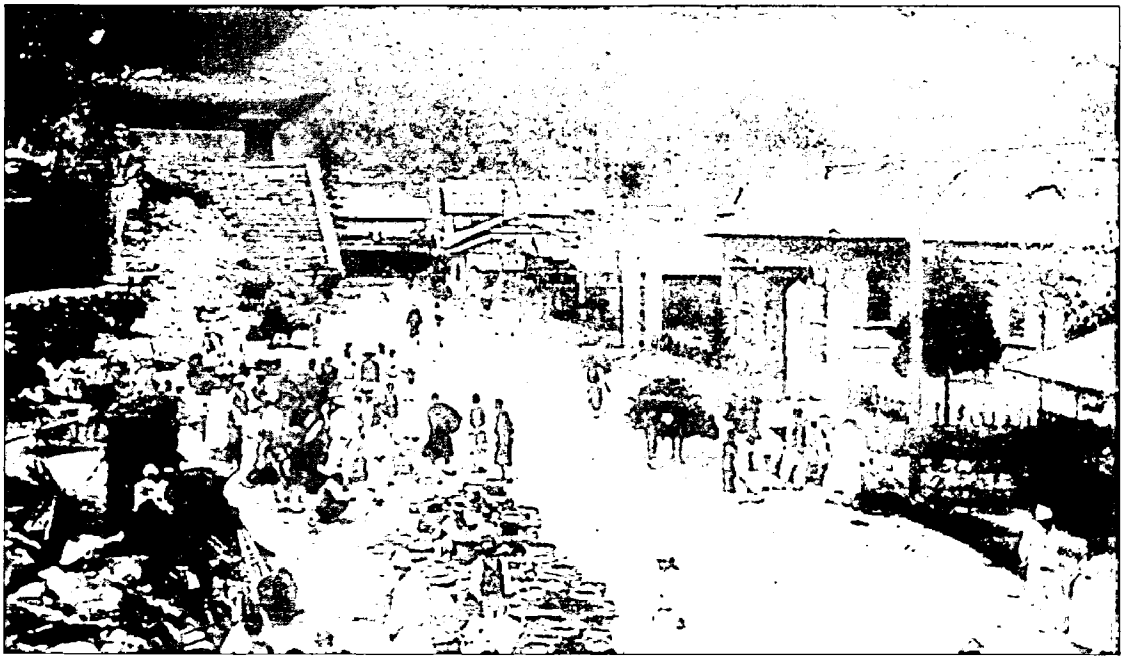
◆ 1919년(20개면)

수원면 近藤虎之介	일형면 李鴻來	태장면 兪致卨
안용면 金南昭	매송면 趙寅默	봉담면 李應憲
향남면 申載雨	음덕면 金鉉俊	마도면 洪麟裕

송산면 洪達厚	서신면 洪大之	비봉면 權亨奎
팔탄면 尹之榮	장안면 金賢默	우정면 崔重煥
의왕면 柳喆義	반월면 韓鳳洙	정남면 安弼濩
성호면 劉鍾烈	동탄면 洪思贊	

◆ 1941년(1읍 19개면)

수원읍 梅原靜江	일왕면 李奭來	반월면 沈玄澤
매송면 鄭寅達	봉담면 朴商德	비봉면 李鳳求
음덕면 洪承殷	마도면 趙應順	송산면 洪龍裕
서신면 鄭奉勳	팔탄면 李鍾範	장안면 金庸模
향남면 尹之榮	우정면 金芝勳	양감면 李光雨
정남면 崔廷植	성호면 康大植	동탄면 洪思贊
태장면 李福承	안용면 金南昭	



1920년대의 수원면사무소, 지금의 팔달문에서 영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 왼쪽에 있었는데 하얀 기둥 4개가 서 있는 건물이 면사무소였다.

四民制度의 벽을 깨고 일어선 수원상공인

역사는 흐른다. 역사의 흐름은 잔잔한 여울 물 같을 수도 있고, 성난 노도와 같을 수도 있다. 역사는 그 흐름 속에서 소멸될 수도 있고, 재현될 수도 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역사는 역사로 인정 받지 못하지만 살아 남은 역사는 교훈이 되고, 생명이 된다. 역사의 취사선택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시대의 몫일 때가 많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상공업이 겪은 시련과 부침(浮沈)의 역사, 그것도 일제시대의 수원을 중심으로 한 상공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하에서 가장 굴욕적이면서 반인권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士·農·工·商의 신분제도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이 제도는 봉건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세도가들의 생존수단인 동시에 인간을 직업에 따라 신분을 등위(等位)로 나눔으로써, 사(士)로 하여금 농(農)·공(工)·상(商)의 지배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별사관의 산물이었다.

여기에 덧붙혀서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 선각자로 알려졌던 선비들의 편향된 사고(思考)였다. 실학자이면서 논필가로 유명한 번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은 "국가의 본(本)은 농업이고, 기타 산업은 전부 말(末)이므로 말이 너무 발달하면 본인 농업이 쇠퇴하게 되는 바 위정자는 농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상공업과 기타 업을 적당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고, 성호(星湖) 이 익(李 瀷)도 "상업은 사치를 조장할 뿐 산업이 아니므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신봉자였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농민이 돈 맛을 아는 것은 위험하다. 농민이 농한기에 땔감을 만들어 소로 날라 돈 벌이하는 것도 나쁘다."라고 할 정도였다.

사농공상제도는 일본 에도시대(江戶時代)에도 있었다. 그들의 해석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양도 비슷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인의 서비스가 상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상업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꽉 막힌 벽창호시대에도 어둠 속의 햇볕과 같은 선각자가 있었으니, 그가 다름 아닌 실학자 박제가(朴濟家)였다. 그는 "상(商)은 사·농·공(士·農·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이 없다면 사·농·공도 존속할 수 없다."고 설파하였던 것이다. 동시대의 사람이면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이론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런 탁견(卓見)을 가진 선각자가 있었기에 무지렁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상공업을 일으킨 상공인이 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잘 것 없는 광무시대 이후의 수원상공업

1899년(광무 3)에 펴낸 《水原郡邑誌》(수원군읍지)에 보면 수원의 상공업은 몇 개의 사설시장과 25가지의 해산물, 소금이 전부였다. 반면에 식량의 총생산량은 4151석(石) 11두(斗) 1승(升)으로, 그 가운데 쌀이 444석 8두 7승, 콩이 756석 4두 7승, 보리가 1643석 4두 5승에 달했다. 따질 것도 없이 농업은 성하고, 상공업은 보잘것 없었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 설립된 소위 신식 상업조직인 회사(會社)는 102개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조선인 회사는 21개에 지나지 않았다. 합명회사는 조선인 3개, 일본인 12개, 합자회사 역시 조선인 4개, 일본인 36개, 주식회사도 조선인 14개, 일본인 54개로 비교가 되지 않았다. 수권자본금(공칭자본금)에 있어서도 조선인 657만원, 일본인 964만원, 불입자본금 역시 조선인 228만원, 일본인 471만원으로 큰 편차가 있었다.

일제 강점을 계기로 사민제도(四民制度)가 없어진 것은 다행이었다. 하지만 워낙 민족경제가 취약한 데다 거대한 일본 자금과 매판자본(買辦資本)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조선 상공인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좁았다. 1926년의 조선총독부 통계에 보면 당시의 수원 인구는 2만 7182명인데 이 가운데 787명의 일본인과 56명의 중국인, 1명의 영국인이 있었다. 언뜻 보기엔 800명이 채 안되는 일본인이 별 것 아닌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이야말로 수원의 관계(官界), 실업계(實業界), 금융계(金融界)는 물론 상권(商權)까지 독점한 실력자 내지는 세력가들이었다. 때문에 실속은 그들이 챙기고, 이삭이나 줍는 것이 수원 군민이었다.

자영업이나 관공서에 다니는 공무원은 그렇다치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반 노동자나 월급장이 생활은 어떠하였을까. 1929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水原郡生活狀態調査》(수원군생활상태조사)에 보면 ◇대목수 조선인(일급) 2원·일본인 3원, 미장이 조선인 2

원 · 일본인 3원, 농작부(연급) 조선인 남자 80원 · 일본인 150원, 농작부(일급) 조선인 남자 80전 · 일본인 1원 50전, 조선인 여자 50전 · 일본인 80전, 막일꾼(월급) 조선인 남자 40원 · 일본인 150원, 조선인 여자 30원 · 일본인 80원, 알력거(일급) 일본인 1원, 짐꾼(1리 기준) 조선인 남자 50전이었다. 일급과 월급, 연급에서 2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그들이 기술면이나 능력면에서 조선인을 다소 앞설 수는 있었겠지만 동일한 일을 시키고서도, 절반의 임금을 지불한 것은 노동 착취, 기본권 박탈이 아닐 수 없었다.

같은 일하고서도 인건비는 절반

임금 격차는 1935년에 와서 더욱 확대돼 2내지 3배의 차이가 났다. 성년공의 경우 조선인 남자(일급)가 94전인데 반해 일본인은 1원 81전, 조선인 여자가 48전인데 일본인은 90전을 주었다. 미성년공의 경우 조선인 남자(일급)에게 37전을 주면서 일본인은 91전, 조선인 여자가 32전인데 반해 일본인은 65전을 주었으니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었다. 결국 일제는 전국토에서 생산되는 물자만 수탈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인력까지도 헐값에 착취하는 인권 약탈을 감행했던 것이다.

현실상황이 이렇다보니 자본 · 기술 · 인력이 기본인 공업보다는 소자본에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1926년 당시의 통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원의 상업 종류와 매출액

상업종류	호 수	매출액(원)	상업종류	호 수	매출액(원)
물품판매업	354	6,617,176	청 부 업	17	501,400
금전대부업	62	94,147	요리점업	15	93,300
물품대부업	7	4,070	여인숙업	9	18,700
제 조 업	24	738,256	운송취급업	5	29,560
운 송 업	2	59,490	주 선 업	2	653
인 쇄 업	2	40,142	대 리 업	5	9,892
사 진 업	2	7,000	도 매 업	65	12,600
전기공급업	5	54,132	총 계	514	8,281,241
창 고 업	1	732			



1920년대의 수원성밖시장 모습. 오늘날 영동시장으로 불리우는 이 시장이야말로 수원 경제의 모태이자 요람이었다. 밀짚 모자에 흰옷을 입은 장꾼들의 모습에서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물품판매업이 전체 호수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매출액도 단연 많았다. 이에 비해 순수 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조업은 불과 24호로 매출액도 그리 많지 않았다.

어쨌거나 일반적인 경제활동은 상설점포, 시장, 노점 등의 특수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수원군에는 도시 규모에 비해 상설점포가 많은 편이었고, 시장도 7개나 있었다. 1926년도의 각 시장의 1년 평균 거래액과 1시장 평균 출장자수(出場者數 : 장에 나온 구매 예비자), 1시장 평균 구매자수(물건을 산 사람)를 차례로 살펴보면 수원성안시장(북수동) 408,171원 · 1700명 · 1500명, 수원성밖시장(영동시장) 503,432원 · 2000명 · 1700명, 오산시장 238,564원 · 1000원 · 800명, 반월시장 21,270원 · 100명 · 90명, 남양시장 30,360원 · 500명 · 400명, 신기시장 24,329원 · 400명 · 300명, 발안시장 91,109원 · 700명 · 500명으로 수원성밖시장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다. 흥미있는 것은 장에 나온 사람 가운데 80~90%는 적든 크든 물건을 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 빠져 있는 또 다른 상인이 있었으니, 그들이 다름아닌 이 장 저 장을 돌아다니며 오만가지 물건을 팔고 사는 장돌뱅이 즉, 행상이었다. 1926년의 통계에 보면 수원성밖시장(영동시장)을 비롯한 수원군내의 7개 시장에서 활동한 행상이 무려 1698명에 달하였다. 성밖시장 규모가 제일 컸으므로 행상도 530명으로 제일 많았고, 수원성안시장(북수동시장) 515명, 오산시장 328명, 반월시장 25명, 남양시장 90명, 신기시장 90명, 발안시장 120명의 순이었다. 취급상품별로 보면 해산물 149명, 곡물류 237명, 가축류 70명, 작물 및 사류(실종류) 238명, 잡화 555명, 기타 449명으로 잡화와 기타가 전체의 3분의 2 가량 차지하였다.

수원의 杏林과 병원 이야기

인간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번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확률은 낮아도, 갈 수 있는 확률은 높다. 설혹 무병장수해서 평생 동안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와 숨을 거두고 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산증명서나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하니까 결과적으론 병원 또는 의사의 신세를 지게 된다.

그만큼 인간과 의사, 건강과 병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인간은 生·老·病·死의 4단계를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원하던 원치 아니하던 인간으로 태어나면 少·靑·壯의 단계를 거쳐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로써 완숙·완성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뜻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아쉬운 일이고 동시에 슬픈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은 되도록 젊음을 오래 유지하려 하고, 덜 늙기 위해서 오만가지 건강술에 매달린다. 하나 불로장수는 애초부터 조물주가 허락한 것이 아니니 과욕은 금물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그 병원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다.

병원의 원형은 고대문명의 발상과 더불어 시작됐다. 고대에는 신전(神殿)이 병원 역할을 겸하였다. 로마시대에는 나환자·불구자·맹인·빈민 환자를 위한 수용시설이 있었고, 동양문명권에도 많은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중세기에는 의료가 귀족의 특권이었으며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라기보다 고아·빈민·노인·불구자 등의 단순한 수용시설에 불과했다. 따라서 병원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면이 많았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간호사인 F·나이팅게일이 과학적 의료·인간적인 간호·직업적 간호제도·의료를 중심으로 한 병원관리 등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비로서 근대적인 병원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식 현대 병원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엽으로 그 역사가 오래지 않다. 그러나 고려 때 이미 국가기관으로서 의약과 치료를 담당하는 태의감(太醫監)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선 초기에는 의료시설로서 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동서활

인원(東西活人院) 등이 설치되어 왕실은 물론 서민의 의료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 의료시설은 모두 한방이었다. 1885년(고종 22) 서울 제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병원이 설치되었다. 이름하여 광혜원(廣惠院)이다. 광혜원은 제중원(濟衆院)으로 바뀌었다가 1902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되었으며 1905년에는 대한의원(大韓醫院)으로 됐다가 일제가 시작되면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 개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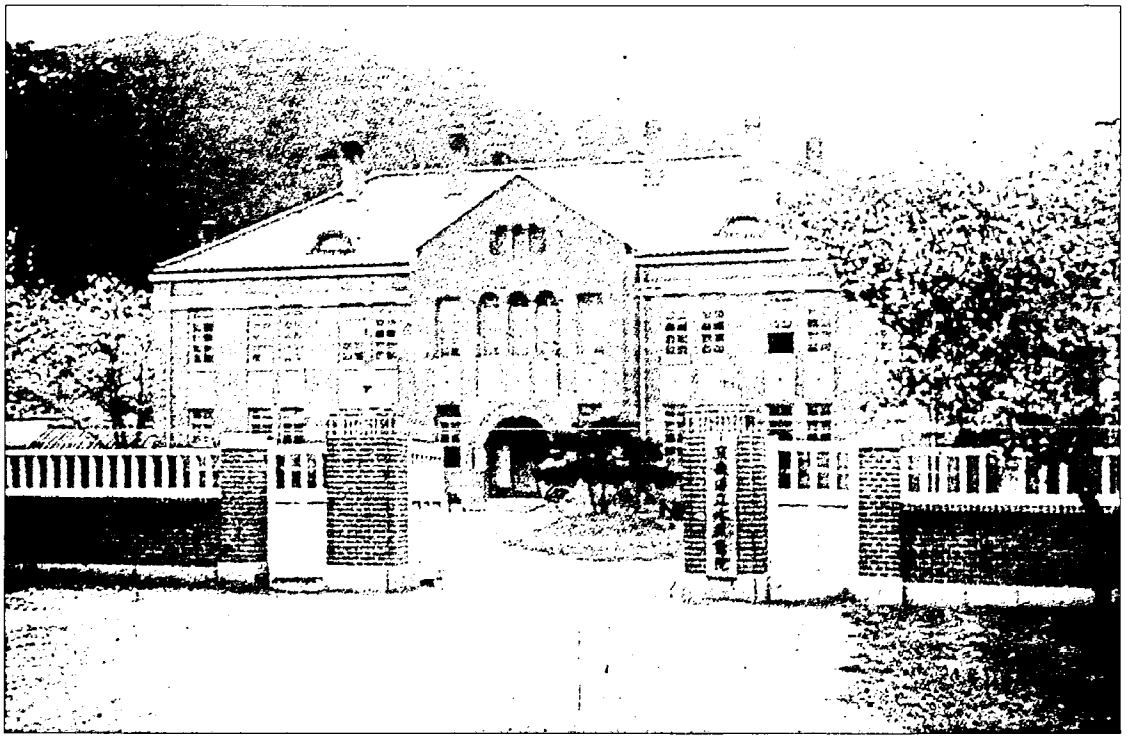
북문에 있었던 수원 최초의 '최주부병원'

수원에는 언제 어떤 병원들이 있었을까. 문헌보다 살아 있는 사람의 증언을 듣기 위해, 1981년까지 종로에서 '보구산부인과의원'을 개업한 김동휘(金東輝 83)씨를 만나 보았다. 필자가 이 글의 제목 속에 행림(杏林)이란 용어를 썼는데 이 말은 의원(醫員)에 대한 미칭으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오(吳) 나라의 동 봉(董 奉)이란 의원이 진료의 대가로 중환자에게는 세 그루, 경환자에게는 한 그루씩의 살구나무를 심도록 했는데 이것이 훗날 울창한 살구나무 숲을 이루었다 해서 생겨난 말이다.

김동휘씨는 1940년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해 의사가 됐다. 졸업하자마자 인턴 자격으로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구세병원에서 일하게 된다. 이 때 세브란스 3년 선배인 김동욱(金東旭)씨를 만나게 되는데 함경도 태생이었다. 그는 1993년에 작고했지만 수원에서 오랫 동안 '김동욱내과의원'을 경영한 원로 의사다. 두 선·후배는 젊은 시절을 원산에서 보냈다.

그러나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이 되자 김동욱씨는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하고, 김동휘씨는 수원이 고향이라 귀향하게 된다. 이럭저럭 1년 세월이 지나 1946년이 됐다. 당시는 미군정시대라, 수원도립병원도 군정청에서 관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진로 문제로 고민 중이었다. 해방정국은 어수선했다. 수원도립병원 안에도 좌·우익이 생겨서 암투가 끊이지 않았다. 우익의 보수이던 산부인과 과장 장연필과 좌익의 우두머리인 내과 과장 이장생이 동시에 해직 당하는 바람에 양과의 과장 자리가 비게 된다. 이것이 두 사람에게 행운의 계기가 될 줄이야. 동욱씨는 내과, 동휘씨는 산부인과 과장으로 들어 앉은 것이다.

다시 얘기는 옛날로 되돌아 간다. 김동휘씨는 1910년에 설립된 관립 수원자혜의원(水原慈惠醫院)보다 한 두 해 아니면 그 이상 먼저 생긴 민간 의원이 두 개 있었다고 증언한다. 즉 하나는 북문 안쪽에 있었던 최진협의원(崔眞協醫院)이고, 다른 하나는 훗날의 김



1910년 신풍동 화성행궁 터에 세워졌던 관립 수원자혜의원. 이 병원은 일본 관헌과 민간인만 치료해, 수원시민과는 사실상 무관한 존재였다.

동욱내과의원 맞은 쪽에 있었던 동화의원(東華醫院)이다. 원장은 권태동(權泰東)이었다. 최의원은 한방과 양방을 다루는 의원으로 흔히들 '최주부병원'이라고 불렀다. 주부(主簿)란 약국을 내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한 말로써 최주부가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최주부는 수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만큼 유명했다. 반면에 권태동은 서울의전을 졸업한 정식 양의사로써 우리나라 개업 의료인으로서는 다섯 손가락에 드는 인물이다. 그러니 수원에서는 최초의 개업의였음이 분명하다. 김동휘씨는 어느 쪽이 먼저 개업한 것 같으냐는 물음에 최진협이 먼저 개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최주부는 50대 노인이고, 권태동은 30대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들이 개업의로써 활약하던 시기에 관립수원자혜의원(官立水原慈惠醫院)이 설립된다. 이 병원은 1920년대 후반에 경기도립수원병원(京畿道立水原病院)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해방 후에는 '도립수원병원'이 되었다가 오늘날에는 '수원의료원'으로 개칭됐다. 하지만 해방 전의 이 병원은 우리 조선 사람과는 거의 무관했다. 수원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헌병대원과 수원에 이주한 일본 민간인들만 치료해 주는 소위 특권적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김동휘씨도 이 병원에 우두를 맞으러 간 일 외에는 가본적이 없다고

했다. 당시의 우리는 우리 땅에 세운 병원에서 조차도 차별 대우를 받았으니 절통한 노릇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의원 개업이 계속되는데 1920년대를 전후해서 개업한 의원은 대충 아래와 같았다. 水原醫院(원장 崔相勳 · 남창동), 雲谷醫院(원장 李完善 · 남수동), 水原齒科病院(원장 李昌鎔 · 남창동), 八生醫院(원장 尹昌容 · 수원역전), 永生醫院(원장 李近浩 · 구천동), 一也醫院(원장 朴秉泰 · 남창동), 盧泳喜내과의원(원장 盧泳喜 · 종로), 성남의원(원장 金明鉉 · 구천동), 李具禮 助産院(원장 李具禮 · 구천동). 이 밖에 여러 개의 민간 의원이 있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밖에 약국이 몇 군데 있었는데 東明堂藥房(주인 李明來 · 구천동), 天杵堂藥房(약사 崔 아무개), 光和藥房(주인 李光澤 · 남창동), 東西藥房(주인 김덕곤 · 종로) 등 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1923년 10월 3일 일본인 저술가 사케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介)가 펴낸 《水原》에 보면 1922년 현재 수원에는 수원자혜의원 말고, 사립 의원이 12개 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앞에서 나열한 9개 외에 3개가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역 의사는 모두 56명으로 이 가운데 19명은 일본인 의사였다. 치과의사 5명, 약제사 6명, 산파 및 간호원이 25명, 제약사 및 약종상이 98명이나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약방도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통파 양의는 서울의전 출신의 權泰東

다시 金東輝씨로부터 들은 옛 얘기를 좀더 소개하기로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수원의 최주부의원은 너무나 유명했다. 그는 유명세 만큼이나 환자가 몰려들어 병원이 늘 붐볐다고 한다. 의료의 질은 수원자혜의원이나 정식 양의보다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동족 의사라는 점 때문에 약물이나 의과적 치료 효과보다는 정신적 치료 효과가 컸을 것이다.

동화의원을 개업한 權泰東은 정통파 양의사로 외과에 능했다고 한다. 실제로 감동휘씨의 자당이 1913년 어깨를 다쳐 권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동휘씨 자신도 4살 때 삼촌댁에서 놀다 바늘에 찔려 권 의사로부터 가벼운 수술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위에서 인용한 사케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介)의 또 다른 저서(1915년 발행) 《華城乃影》에 보면 수원의 위생을 이렇게 적고 있다.

"수원의 땅과 山水는 명미(明媚)해서 공기는 투철(透澈)하고, 물은 청렬(淸冽)해서 위생상 매우 양호한 고장이다. 위생기관으로는 경기도자혜의원, 사립 병원 및 한·일 합동조직의 수원위생조합(水原衛生組合)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생사상이 발달해서 다른 지방에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비록 짤막한 기사지만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의 수원이 얼마나 물좋고, 공기 맑은 살기 좋은 고장이었는지를 알게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정은 그 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냥 마셔도 괜찮을 물은 이미 없어졌고, 그토록 맑던 공기도 공해에 오염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선조들이 물려 준 자연 유산을 이처럼 망가뜨려 놓았으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죄가 크다.

이 글의 결론은 이렇다. 생존자의 증언이나 일본인 저술가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수원은 일찍이 병·의원이 상당수 있었던 선진 위생도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병원문화랄까, 보건문화가 비교적 빨리 발달한 고장으로 근동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다할 것이다. 그런 덕분에 수원시민은 건강한 나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늘날 국내 굴지의 도시로 급성장한 것이다.

'即死必生'의 수원 항일운동

올해로써 기미년(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있은지, 84년 째가 된다. 당시의 수원에서는 어떤 항일운동이 있었으며 누구 누구가 어떤 모양으로 일제와 맞섰을까. 그래서 이번 마당에서는 189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 사이에 전개되었던 수원읍 중심의 항일운동의 사례들을 알아 보기로 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먼저 조선 말기의 의병(義兵) 활동상황을 알아보고, 이어서 3·1독립만세운동의 편편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지면 관계로 중점사항만 요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 당시 민중 중심의 의병활동은 쌀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천에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가 설치되면서 부터였다. 의병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세가와 요시미찌(長谷川好道)의 머리에 칠(漆)을 발라 술잔을 만들고, 이토오히로부미(伊藤博文)의 두육으로 회(膾)를 친다"는 것이 의병들의 슬로건이기 때문이다.

도내의 의병 활동는 전지역에 걸쳐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원지방만은 빈번하지 않았다. 수원이 도시인데다 일본 관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고장이라, 전략상 기피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기록상으로는 1907년 8월에 원 시위대 좌익군장이던 김재선(金在善)이 5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의병활동을 펼친 것이 전부다. 즉 15일 새벽 영시, 수원역 광장에 나타난 의병들이 군경에 공격을 가하고 재빨리 퇴각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육상에서의 의병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대신에 수원에서는 바다를 무대로 한 이른 바 수상(水上) 의병 활동이 거셌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수상 의병을 수적(水賊)이라고 불렀다. 수상 항쟁이 고조된 시기는 1908년 3월로써 수원군의 남부 해안, 즉 남양반도와 인천 앞 바다인 영종도 연안이 근거지였다. 수상 의병은 1900년(광무 4년) 무렵 활빈당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민중항쟁의 산물이었다. 남양반도는 서울의 해상 관문인데다 곡창지대인 충청도에서 수탈한 곡물이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이어서, 수상 의병 활동의 적지

였다. 의병들은 남양 해안에 상륙하여 수원방면으로 진출, 토벌대와 싸우기도 하고, 왜놈들의 선박을 공격하여 물건을 빼앗기도 했다. 당시의 수상 의병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 데 하나는 남양의 우정면 부근, 다른 하나는 고온포를 근거지로 삼았다.

1908년 1월 4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15명의 의병이, 송동면 빈정포에서 남양우편소 체송인을 공격한 것을 비롯하여 수원군 여러 곳에서 의병항쟁이 강화되자, 수원수비대장 시다무라(下村)는 33명의 병사를 데리고 일제 소탕전을 펼쳤지만 의병측 피해는 없었다. 수상 의병 항쟁은 그해 11월과 12월 남양 저팔리면 자양동에서 군수품을 징발하고, 수원 대진 하류에서 곡물을 만재한 15척의 선박을 습격하는 등의 항쟁을 끝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의병항쟁과 별개로 생겨난 것이 애국 계몽단체들이다. 1906년 3월 31일에 결성된 것이 '대한자강회'로 남양에 지회가 있었다. 1907년 11월 10일 '대한협회'가 성립되었으나, 수원과 남양에는 지회가 없었다. 뒤이어 1908년 1월 19일에 창립된 것이 '기호흥학회'로 수원지회에는 72명의 회원이 있었는 데 수원지회의 임원은 회장 김종한(金宗漢), 부회장 이계환(李啓煥), 총무 최동필(崔東弼), 서기원 이하영(李夏榮), 회계원 이용희(李容熙), 감사원 지하영(池河永)·최종순(崔種淳)·최 송(崔 松), 교육부장 박기양(朴箕陽), 재정부장 오철선(吳喆善) 외에 15인이 있었다.

'석달동안 담배를 끊자' 국채보상운동

항일항쟁의 또 다른 수단은 교육 진흥이었다. 현대 지식과 급변하는 시대조류를 알아야 스스로를 구제하고 사상적으로 극일(克日)을 할 수 있다고 판단, 교육기관을 세운 것이다. 이 운동에 앞장 선 것이 다름아닌 사학이었다. 수원은 사학의 발상지이면서 요람이기도 했다. 이 대목에 관하여는 따로 기술하기로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초기의 반일항쟁은 무력이 수반되었으나, 중기에 와서는 애국계몽단체 조직과 사학 설립 등을 통해 범국민적 계몽과 학식 보급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 뒤를 이어 시도된 것이 민족경제독립운동이었다. 이른 바 국채보상운동(國債補償運動)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국채보상운동이란 일제가 피폐한 조선 경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끌어들인 일본 자본의 차관을 우리 힘으로 갚아버림으로써 경제 노예에서 벗어나자는 자강운동이었다. 1905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5년 간의 대일 부채는 무려 4500여 만원이나 되

었다. 이 운동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대구의 광문사 사장 김광제(金光濟)로, 일본 빚을 갚기 위해서는 2천만 인민들이 3개 월 동안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그 대금으로 나라 빚을 갚자는 것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이 제일 먼저 동참했다. 1907년 3월 9일 이하영·임근수·김태제 등이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고, 군민으로 하여금 애국경제지심(愛國經濟之心)을 촉구하는 취지문을 발표했다. 같은 달 29일에 수원 영어삼학당(英語三學堂) 찬성원 조안장·김재구, 서기 이하영·임근수 등이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고, 곧바로 의연금 모금활동에 들어 갔는 데 이 때 수원지부의 활동상은 전국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보상회의 재무원인 나성규와 차유순의 헌신적인 노력은 도하 신문에 미담으로 실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운동도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1907년 하반기를 고비로 쇠퇴하고 만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의 우리 민중은 독립 쟁취의 수단으로 일제 침략 내지는 식민지 책동에 무작정 저항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의 민족역량을 총집결해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한다는 심오한 독립사상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항일운동은 조직적이고 강압적이며 무자비한 일제의 철권통치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른 바 국치일(國恥日)을 맞은 것이다. 원래 한일합방조약은 8월 22일에 체결 발효된 것인데 일제는 조선 민족의 강렬한 저항이 두려워 1주일의 여유를 두고 내외 동향을 살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2천만 조선 민족은 조용했다. 상대적으로 일제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입법·행정·사법 3권과 군대 통수권까지 장악하는 절대 권력기관이었다. 우리의 자주독립운동은 이 시점에서 끝나는가 싶었다. 그러나 탄압 받는 민족일수록 저항의 집념과 용기는 강해지는 법이다.

용두각에서 시작된 3·1 만세시위

3·1운동의 태동이 그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게 되고, 29명이 3월 1일 낮 2시 서울 태화관에서 있은 독립선언식에 참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과 가까운 고장이라, 서울과 거의 동시에 세찬 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1일, 수원 용두각에서 있은 시위는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지방의 독립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다른 도와 달리 경기도내의 여러 군에서는 횃불 시위가 있었다. 횃불은 자유·투쟁·쟁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억제할 수 없는 민족 울분의 표상이기도 했다.

수원군에서만도 7개 면에서 횃불 시위가 있었다. 지금은 수원시, 화성군, 오산시로 나뉘어져 있지만 당시는 수원군이었다. 수원군의 항일운동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당시의 〈독립신보〉는 '독립군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었다. 3월 1일의 용두각 독립만세 시위를 이병헌(李炳憲)의 《三·一運動小史》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서울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시작되자, 바로 수원에 파급되어 3월 1일 수원 장안문(북문) 안에 있는 용두각(화홍문 윗쪽)에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일본 경찰이 해산시키려고 했지만 군중들은 해산하는 척 하다가 별안간 독립만세를 부르는 바람에 순사들이 깜짝 놀라 경찰서로 달아나 버렸으며 만세 소리를 듣고 각처에서 또 다른 군중 수천명이 모여들었다.' 이후 수원읍 내에서 만세운동이 계속되었는데 여러 기록에서 주요 시위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만세시위 주동자 검거하자, 상인은 撤市로 맞서

◇ 3월 16일 수원 장날을 이용해 팔달산 서장대와 창룡문 맞은 편의 연무대에 각 수백명씩의 시위대가 모여 만세를 부른 뒤 종로로 빠져나가자, 일본 경찰이 소방대·헌병대와 합세해서 시위대를 해산하고 주모자를 검거했는데 이런 사실을 안 상인들이 일시에 상가를 철시하자 왜경은 주모자를 석방했다. 수원 상인의 단결력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같은 날 11시 경, 북수동 소재 천도교회당에서는 이병헌이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교인들이 모여 들었는데 이 사실을 안 왜경과 소방관·헌병들이 괭이로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마구잡이로 후려갈겼다 이 때문에 김정모(金正模)·안종환(安鍾煥)·안종린(安鍾麟)·홍종옥(洪鍾玉)·김상근(金相根)·이병헌 등이 크게 다쳤다. 같은 날 자정에 일단의 일본인들은 낮에 있었던 사건의 앙갚음으로 삼일여학교를 습격하였는데 숙직원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자 사무실만 부수고 달아났다.

◇ 3월 23일 항미정(杭眉亭)이 있는 서호에 약 7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수원역으로 달려 갔는데 왜병과 헌병대·소방관이 나타나 난폭한 매질을 하는 바람에 해산하고 말았다.

◇ 3월 25~31일 때마침 장날을 맞아 청년·학생·노동자 등 20여 명이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역시 왜경과 헌병 등이 나타나 10여 명을 붙잡아 가는 바람에 해산하고 말았다. 이튿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상인들이 다시 상가를 철시했는 데 27일에는 시내 상가의 반수 가까운 60 점포가 문을 닫았다. 철시 시위는 31일까지 계속되었고, 장날 장터에서는 장꾼의 그림자를 보기 어려웠다. 이에 놀란 군수는 상인 대표 6명을 불러다 놓고, 철시를 해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 3월 29일 기생 시위가 있었고, 같은 날 300명에 달하는 학생·기독교인·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18명이 검거됐다. 화가난 시위대는 관공서와 민가 여섯 채를 부셔버렸다. 30일에도 시위는 계속됐다. 계속되는 시위로 읍내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경기도지사는 육군 제79연대의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한계를 느낀 애국청소년들은 지하로 잠적해 지하활동을 펼쳤다. 몇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수원군 일형면 하광교리 342번지에 사는 이종상(李鍾祥, 일명 得壽·당시 20세)은 1919년 3월부터 상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 차관호(車寬鎬)와 접선, 서울에 사는 박성환(朴聖煥, 일명 金 一)에게 보내 오는 〈독립신문〉을 여교사 차인재(車仁載)와 함께 8~9월까지 읍내의 민가에 돌리는 등 선무공작을 펼쳤다. 1920년 12월에는 이득수(李得壽)·박선태(朴善泰) 등이 주동이 되어 수원혈복단(水原血復團)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 조직은 1920년 6월경 북수리의 임순남(林順男·당시 19세), 남수리의 최문순(崔文順)·이선경(李善卿)등 여학생들이 참가하면서 구국민단(救國民團)으로 개칭됐다. 이 조직의 총장은 박선태, 부총장은 이득수가 맡았다. 이들은 조직의 강령으로, 일본 국권찬탈에 반대하여



1919년 서울 종로에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 군중의 모습

조선을 일본 강점에서 해방시킬 것과 독립운동을 하다 구금된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을 구제할 것을 내걸고 활동했으나, 얼마 후 일제에 발각되어 이종상·박선태는 징역 2년, 임순남·최문순·이선경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살았다. 그러나 항일운동은 계속됐다. 형태가 달라졌을 뿐 내용면에서는 더욱 조직화 됐다. 1923년 5월 3일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이 7가지 조건을 내걸고 동맹휴학을 했고, 동년 9월 9일 조선소년 척후단 수원지부가 종로예배당에서 발대식을 가지려다 왜경의 저지로 무산됐다. 항일운동에는 너 나가 없었다. 1926년 6월 2일에는 나무꾼들이, 1932년 3월 14일에는 도살부들이 동맹파업을 했다.

1936년 7월에는 수원고농에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 수원지부가 설치되고, 1927년 1월 20일엔 수원형평사(水原衡平社), 동년 10월 16일에는 신간회(新幹會) 수원지부가 설치됐다. 1929년 12월 1일에는 화성학원(華城學園)에서 수원군소년연맹이 창립되어 소년운동의 기치를 올렸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립지하운동도 소진하게 된다. 친일파가 득세하고 대동아전쟁까지 일어나, 고개를 내밀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전후 20여 년 동안 끈질기게 계속된 수원지역의 항일운동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인물이 여럿이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다름아닌 김세환(金世煥)이다. 김세환은 1888년(高宗 25년) 수원읍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학교, 일본 쥬오(中央)대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상업강습소 교사와 삼일학교 교감, 수원상업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등 항일운동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광복이 되던 해인 1945년 9월 16일 57세로 영면했다.

김세환에 대하여는 인물 마당에서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는 해마다 맞는 3·1절을 무심히 지내서는 안된다. 특히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일제 식민지 통치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 선배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1독립만세를 부른 수원 기생

이번 마당에서는 권번(券番) 얘기를 하고자 한다. 권번하면 요새 젊은이들은 무슨 차례를 기다리는 '번호표' 쯤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예컨대 수능시험 때, 대학 본고사를 치를 때, 취직시험을 볼 때 으레 번호표를 받게 되고, 합격자 발표도 번호로 하기 때문에 번호 아닌 것이 없다. 그 뿐인가 복권도 번호로 행운과 불운을 가리게 되고,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예금을 할 때도 번호 순서대로 일을 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번은 전혀 다른 것이다.

권번이란 술자리나 연회 석상에 나와 춤과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기생들이, 기적(妓籍)을 두었던 조합을 말한다. 권번에서는 기생을 양성하고, 일인자가 된 기생의 요정 출입을 지휘하며, 그들의 화대(花代)를 받아 주는 역할 등을 했다. 기생은 허가제로 누구나 할 수 없었다. 또 그들은 많은 재주와 교양을 쌓고 있어서, 소위 유곽(遊廓)이라 일컬는 창녀 굴에서 막굴러 먹는 매춘부와는 구별됐다.

아무튼 그런 권번과 기생 이야기가 이번 마당의 주제다. 그런데 미리 양해를 구해 두어야 할 것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권번이 광복과 더불어 모두 없어지고 기생도 접대부로 바뀌어 버린데다, 그 시절에 기생으로 일했거나 권번을 운영했던 생존자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수원권번에 소속되어 있었던 명기 한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어서 여러 경로로 접근해 보았지만 인터뷰에 응해 주지 않았다.

결국 단편적인 기록과 몇몇 고로의 증언을 종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흔히 기생이 요염한 여자, 그리고 사내를 녹이는 성적 정복자로 인식한다. 하기야 그런면이 아주 없지는 않다. 기생에 홀려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의 평화를 작살낸 한량도 없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글에서는 침략자에게 빼앗긴 나라와 그들로부터 핍박 받는 겨레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독립만세를 불렀던 수원기생 얘기를 서두로 장식하고자 한다.

사건은 1919년 3월 29일에 일어났다. 1919년 하면 바로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


1910년대의 정장을 한 동기(童妓)의 모습. 서울과 평양에는 기생학교가 있었다.

이 모여 3·1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불렀던 바로 그 해다. 이 일이 있고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 항쟁이 시작됐다. 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긴장이 감돌던 3월 29일 바로 그날에 수원기생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30여 명의 기생들이 신풍동 소재 자혜병원(慈惠病院 : 지금의 화성행궁)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쳐댄 것이다. 모름지기 이 사건은 전국에서 최초로 있은 기생 궐기로 추정된다. 이날 수원기생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30여 명의 기생들은 자혜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일단의 기생들이 유유히 거리를 활보했으니 볼만했을 것이다. 때마침 봄 기운이 돋는 춘삼월이 아닌가. 자혜병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수원경찰서가 있었다. 기생들은 경찰서 앞을 당당히 지나, 자혜병원 현관에 도착했다. 병원측에서는 단골 손님이 오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기생 사회에서 공사 간에 주도적 역할을 하던 김향화(金香花)가 앞으로 쑤욱 나오더니,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휘두르며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선창한 것이다. 만세를 부르고 나면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익히 알고 있는 기생들이, 김향화의 선창에 호응해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불렀다. 삽시간에 병원 안팎이 혼란에 빠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녀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검진을 거부했다. 발길을 돌린 그녀들은 경찰서로 돌진했다. 의표를 찔린 왜경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기생들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각오했던 일이라 오히려 당당했다. 경찰은 김향화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녀는 6개 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치렀다. 이 일이 있은 후 다른 도시와 지방에서도 기생들이 독립만세를 불러 왜경의 가슴을 섬뜩하게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우리 겨레의 만세운동은 고무됐다.

비록 술 시중을 드는 기생 신분이었지만 내로라하는 여염집 아낙네나, 신여성이랍시고 치마바람 깨나 일으키던 여인들이 쥐 죽은 듯이 지내던 때에 나라를 되찾자고 만세를

불러댔으니, 이는 가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권번 기생들은 시대를 알았고, 처해 있는 형편을 자각했으며 동족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투옥 쯤 겁내지 않는 용기와 슬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쯤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권번의 역사, 그리고 기생의 존재와 생활의 편편을 알아 보기로 하자. 권번을 다른 말로 검번(檢番) 또는 권반(券班)이라고도 하였는데 사실은 조선시대에 기생을 총괄하는 기생청(妓生廳)이라는 것이 있었으니, 권번은 기생청의 후신이라 해야 옳다. 조선시대 서울에는 한성권번(漢城券番) · 대동권번(大同券番) · 한남권번(漢南券番) · 조선권번(朝鮮券番), 평양에는 기성권번(箕城券番) 등이 있고, 부산 · 대구 · 함흥 · 전주 등지에도 권번이 있었다. 물론 수원에도 있었다. 수원권번은 화성권번(華城券番)이라고 했다. 화성권번에 대하여는 나중에 말하기로 한다.

당대의 명기를 배출한 8도 권번

먼저 권번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들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소장사(消長史)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기생은 대개 4가지로 분류되어 있었다. 즉 관기(官妓) · 민기(民妓) · 약방기생(藥房妓生) · 상방기생(尙房妓生)이 그것이다.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충 이렇다. 신라 24대 진흥왕 때에 여무적(女巫的) 직능의 유녀화(遊女化)에 따른 화랑의 원화(源花 : 화랑의 전신으로 여자를 두령으로 삼았다)에서 발생된 것으로 본다. 한편 실학자 정약용(丁若鏞)과 이 익(李 瀷)은 고려 때부터 생겼다고 주장한다. 즉 '백제 유기장의 후예인 양수척(揚水尺)이 수초(水草)를 따라 유랑하는데 고려의 이의민(李義旼)이 남자는 노(奴)를 삼고, 여자는 기적(妓籍)을 만들어 기로 만드니, 이것이 기생의 시초'라는 것이다. 관기는 고려때 팔관연등회(八關燃燈會)에 여악(女樂)을 베푼 것이 시초라하며 여악은 훗날 창기희(娼妓戱)로 발전하면서 많은 관기가 생겨났다고 전한다. 민기는 민간을 상대하는 것이고, 약방기생은 관기가 의침(医針)을 일삼으면서 의녀(醫女) 행세를 한다해서 약방기생이라 했고, 상방(尙房 : 조선시대 어의대〈御衣帶〉를 만들어 바치거나 대궐 안의 제물이나 보물을 관리하는 관아)에서 침선(針線 : 바느질)을 담당한다 하여 상반 기생이라 불렀다. 중종(中宗)은 그 25년(1510)에 연회를 베풀 때 의녀나 창기를 부르지 못하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기생을 관장하는 곳은 기생청이라 했다. 훗날 권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동

기(童妓)를 뽑아 가무 등 기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기는 물론 행의(行儀)·시(詩)·서화(書畵) 등을 가르쳤다. 까닭은 그들이 상대하는 상류층 고관이나 사족(士族)의 교양과 걸맞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평양과 서울에서는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처녀만을 입학시켜 가음곡 외에 예의·서예 등을 가르치는 기생학교가 있었는데 이 과정을 거친 평양 기생들 가운데는 당대를 풍비했다는 일화가 수두룩하다. 명기도 많이 배출됐다. 시와 문장으로 유명한 황진이(黃眞伊)·매창(梅窓)·소백주(小柏舟)는 말할 것도 없이, 의기(義妓)로 유명한 논개(論介)·가산(嘉山)·홍련(紅連) 등은 기생이기 전에 지식인이요 애국자였다. 이런 탓에 기생들은 사회적으로 천민으로 분류됐지만 교양인으로 대접 받는 특이한 존재였다.

한량의 오금을 녹인 미녀 기생들

각설하고, 조선기생청이 없어지고 일제에 의해 권번이 등장한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수원에는 어떤 권번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수원의 오상근(吳尙根)씨를 비롯한 몇몇 고로들을 만나, 기억나는 것이나 체험담 같은 것을 들어 보았지만 신통한 증언은 얻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들의 나이가 기방 출입을 하기에는 조금 어리고, 설혹 나이가 찼다해도 요리집에서 기생을 앉혀 놓고 술을 마시기에는 주변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술 값도 그러려니와 시간당으로 쳐주는 화대를 물자면 상당한 돈을 써야하는 데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또 대개의 기방에는 일본의 유력자나 친일 성향의 부자들이 드나들던 때라 웬만한 신분으로는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수원에 권번이 생긴 연대는 자세치 않다. 하지만 기록상으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는 1921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2단 짜리 '수원예기조합'(水原藝妓組合)이라는 광고를 들 수 있다. 이 광고는 '東亞日報社 代表 萬國記者大會 副會長 當選'을 기리는 축하 광고다. 당시의 동아일보 사장은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로, 요새 말로하면 세계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돼 장안의 유지와 기관들이 축하 광고를 낸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아무튼 수원에 수원예기조합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번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면 일제가 권번을 장악하고, 기생들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거창스레 조합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 시절에 틀림없이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그 유명한 '화성권번'이다. 화성권번은 수원을 대표하는 기생통괄기관으로 당시의 남수리(南水里 · 지금의 남수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얼마전까지 종로 통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옛 종로예식장 골목으로 접어들어 개천가로 나가다 보면 오른 쪽에 평양냉면집 대원옥으로 들어가는 골목 길이 있다. 바로 길 모서리 쯤에 화성권번이 있었다. 지금은 당시의 모습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허름한 대포집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인력거가 문앞에 대령하고 있는 기방이었다. 인력거가 대령한 까닭은 지휘 받은 기생들이 요정으로 가고 올 때 걷지 않고 인력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이다.

화성권번은 기회 있을적마다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고 있다. 말하자면 민족지인 동아일보를 돕자는 뜻도 있었겠지만 인 · 허가 직종이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협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1936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 광고란에는 매우 주목할만한 광고가 실렸다. 1단 짜리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水原華城券番 △評議員 徐竹必 △評議員 卞錦花 △評議員 洪雲珠 △藝妓 鄭錦桃 △藝妓 成一桃 △藝妓 黃菊香 △藝妓 金松鶴 △藝妓 劉碧桃

대개의 경우 권번의 임원이나 예기들은 공개적인 기명광고를 안하는데 이 때는 공개했다. 이를 통해 당시 권번에 평의원 제도가 있었다는 것과 내로라하는 예기들이 포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예기들의 예명이 재미있다. 다섯명 가운데 3명이 이름 끝글자로 봉숭아 '桃'(도)자를 쓰고 있는 데다, 이름 모두가 매우 도색적이고 풍류의 멋을 한껏 풍기고 있다. 금도(錦桃)는 비단 같은 복숭아요, 일도(一桃)는 오로지를 강조하고, 벽도(碧桃)는 영롱함을 내비친다. 국향(菊香)은 국화의 절개를 나타내고, 송학(松鶴)은 고고함을 연상시킨다. 이밖에 몇몇 고로에 의하면 수원에는 구슬 '玉'(옥)자가 든 심재옥(沈在玉) · 권재옥(權在玉) · 이재옥(李在玉) 등이 기생 삼총사로 이름을 날렸고, 엄계화(嚴桂花) · 한금화(韓錦花) · 능파(凌波) · 단계(丹溪) 등이 장안의 한량을 그냥 두지 않았다고 전한다.

일제 만행의 극치, 제암교회 학살사건

올해로써 3·1독립만세운동 83주년을 맞는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행한 전대미문의 저항운동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큰 획이다. 그러나 이토록 거룩하고 용감한 독립운동에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랐다. 서울에서 봉기한 독립만세시위는 지방으로 번져, 모두 1542회의 집회가 있었고, 참가한 애국시민만도 202만 3089명에 달했다. 눈이 뒤집힌 일본 광헌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압에 나섰는데 이 때 7509명이 사망하고, 1만 5961명이 부상 당했으며 4만 1948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또 소각 당한 교회가 47개 소에 이르고, 학교 2개교, 불타거나 파손된 민가가 715채나 됐다.

이번 마당에서는 3·1운동 기간 동안에 가장 잔학한 만행으로 기록되고 있는 옛 水原郡 鄕南面 堤岩里 소재(지금은 華城市로 바뀌었다) '제암교회사건'을 되돌아 보기로 한다. 제암리는 일명 '두렁바위'라고 부른다. 향남면 소재지인 발안에서 약 2㎞ 쯤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농촌 마을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1919년 당시만해도 40호 안팎의 농민이 사는 전형적인 촌락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일찍이(1905년) 선교사 아펜젤러의 전도로 기독교 신자가 된 안종후(安鍾厚)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고, 60여 명의 교도가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세상 물정에 눈을 뜬 안종후는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고, 1919년 2월경 독립운동가 이승훈(李昇薰)과 박희도(朴熙道)를 만나 3·1운동의 거사계획을 알게 됐다.

그는 바로 안정린(安政麟)의 집에서 모의를 하고, 3월 1일 서울과 동시에 만세를 부르기로 했다. 밤을 세워가며 태극기를 만들고 격문(독립선언서)도 준비했다. 시위는 예정대로 감행됐다. 낮에 이어, 저녁에는 마을 동편에 있는 지네산 꼭대기로 올라가 봉화를 올리면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며칠 뒤 주민들은 발안 장날에 맞춰 발안에서 만세를 부르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일본 경찰이 가만히 있을리 없었다. 동구 밖에서 4명의 일경과 마주친 주민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안종후가 그들이 쏜 총에 허벅

지 관통상을 입자, 화가 난 주민들이 도망가는 일경 한 명을 붙잡아 패 죽이고 말았다.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지 조사를 위해 출동했던 일본 헌병 2명이 방아거리에서 몰매를 맞고 목숨을 잃게 되고, 시위는 여기저기서 계속 됐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사고가 제암리사건의 단초가 되고 만 것이다. 비극의 날은 4월 15일 화요일이었다. 무르익은 봄날은 따스하고 평화 스러웠다. 그런데 오정이 지난 2시반 경에 수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사과할 일이 있으니 교회로 모이시오"

한낮의 정적을 깨고, 제암리에 들어 닥친 일본 경찰과 헌병은 30여 명에 달했다. 헌병들은 수원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78연대 소속으로 아리다다케오(有田建夫)가 이끄는 1개 소대였다. 일경 뿐 아니라 무장한 헌병까지 가담한 것이 수상 쩍었고, 손바닥만한 마을에 30명이 넘는 병력이 출동했다는 자체가 불길한 조짐을 예고했다. 주민에게 다가와 수작을 부린 것은 발안주재소 소장 사사카(佐坂)와 앞잡이 조희창(趙熙彰)이었다. 그들은 "지난 4월 5일 발안장터에서 너무 심한 매질을 하였기에 사과하고자 하니, 15세 이상의 남자 신도들만 모두 예배당에 모여 달라"고 했다.

주민들은 수상쩍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시에 따랐다. 주재소장 사사카는 주모자 명단을 꺼내 호명하기 시작했는 데 미쳐 당도하지 않은 주민들은 부하들을 보내, 급히 불러들이기까지 했다. 사사카는 무슨 연설을 할 듯이 하다가, 잠시 앉은 채 기다리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이 때 교회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일본 경찰에게 얄궂은 눈짓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출입문이 닫히더니 창틀마다 각목을 대고 못질하는 소리가 요란했다.

일이 잘못된 줄 안 주민들은 필사적인 탈출을 꽤 했지만 뒤늦은 후회였다. 그들은 교회당 안팎에 석유를 퍼붓고 불을 붙인 것이다. 뒤이은 총소리. 1개 소대의 일본 헌병들은 교회 건물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보다 더 지독하고 더 잔인했다.

이런 장면도 있었다. 아내가 밭일을 하러 나간 탓에 어린 아기를 안고 교회에 갔던 아버지가, 어린 것 만이라도 살려 달라며 활활 타오르는 창틀 틈새로 아기를 내밀었는 데 그 어린 것 마저 일격에 죽여 버렸다. 또한 남편이 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새댁(3대 독자 강태성의 아내)이, 애원하며 통곡하자 일경이 "왜 우느냐"고 묻길래, "지금 남편이 죽어 가는데 어찌 울지 않겠느냐"고 쏘아 붙이자, 왼손으로 여인의 머리채를 거

머쥐고 오른 손으로 칼을 꺼내 목을 쳤다. 목이 단칼에 떨어지지 않자 두 세 차례나 내려쳐 끝내 땅에 떨구었다. 그리고 나선 그도 겁이 났던지 볏짚으로 덮고 불을 지르고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다.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 진압대는 제암교회에서 500미터 쯤 떨어진 고주리로 달려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천도교 신자 6명을 산으로 끌고 가, 총 세례를 퍼부은 뒤 나뭇가지로 뒤덮고 불을 질러 버렸다. 이날 참사로 교회당 안에서 기독교인 23명, 천도교 신자 6명을 합쳐 2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완전범죄는 없는 법이다. 그 와중에 1명의 생존자가 있었으니, 그가 노경태(盧慶泰)이다. 그가 살아 남았기에 교회당 안에서 일어났던 참극의 전모가 오늘에 전해졌고, 영원히 은폐되는 진실은 없다라는 교훈을 남겼다.

만행 사실을 세계에 알린 선교사 스코필드

제암리 학살사건은 곧바로 외부에 알려졌다. 천인공노할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사람이 다름 아닌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를 비롯한 외국인들이었다. 스코필드가 제암리를 방문한 것은 4월 17일이다. 그는 열차 편으로 수원까지 와서, 제암리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했다. 현장을 목격한 스코필드는 크게 놀랐다. 스코필드는 일경에게 사건의 전말을 물었다. 일경은 "예배당 옆집에 사는 불량 청년이 술을 마시고 자기 집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교회에 옮겨 붙어 예배를 보고 있던 신도들이 타 죽고, 마침내는 넓게 번진 불길이 동네를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스코필드는 까맣게 타버린 유해를 수습하여 아쉬운 대로 마련한 유택에서 잠들게 하는 등 초인간적인 인간애를 실천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스코필드는 즉각 본국 캐나다에 보고하게 되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이 보고를 인용해 일제의 만행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감리교 선교사 노블, 장노교 선교사 언더우드, 주한 미국 영사 커디스, 영국 총영사 대리 로이드, 캐나다 선교사 하마디와 게일, 감리교의 케이블, 빌링, 에크 등도 교단 본부 또는 본국에 '일제의 인간사냥' 사실을 낱낱이 알렸다.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 독립운동 진용은 천군만마에 견줄만한 세계 여론의 덕을 보았지만, 일본은 거센 비난 여론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일제의 만행 공개와 규탄은 미국 상원에까지 이어졌다. 즉 당시 스코필드에 이어 현장을 답사했던 언더우드는 일련의 답사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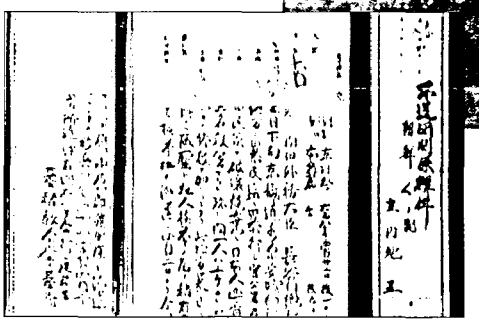
작성했는데 이 답사기가, 전미 기독교연합협의회에 의해 미국 상원에 제출된 것이다. 이름하여 《朝鮮의 狀況에 관한 報告》였다. 이 자료는 이미 공개된 것이지만 인상적인 몇 대목만 간추리는 것으로, 사건 이후 일경들이 취했던 안면몰수식의 뻔뻔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아래에 인용한 기록은 언더우드와 동행했던 커티스가 주민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다.

"언제 불이 났는가?" "어제 꼭 이맘 때에 났다"(오후 2시)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가?" "憲兵隊가 질렀다" "많은 주민이 살상 당했거나 죽었는가?"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죽였다" "主日도 아닌 화요일 오후 2시에 교회당에 있은 까닭은 무엇인가?" "兵丁들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다" "여자들도 있었는가?" "여자들은 오지 말라고 했다" "신자들을 모아 놓고 무슨 일을 했나?" "그들에게 총을 쏘고 칼로 찌른 다음 교회당에 불을 질렀다" "교회당에 불을 질렀는데 다른 집까지 탄 까닭은 무엇인가?" "왜병들이 다니면서 불을 질렀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 남았는가?"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회당 안에는 몇명 쯤이 있었는가?" "30명 쯤 있었던 것으로 안다"

광복 후 일본의 교회와 지식인 사이에서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있었다. 그 중 두가지 경우를 소개하면 이렇다. 하나는 필자가 〈인천신문〉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1969년 4월 15일의 일이다. 필자는 이날 '堤岩敎會 燒打事件謝罪委員會' 실행위원장 오야마레이진(尾山令仁)과 집행위원 아리가(有賀)의 방문을 받고,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서 단독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야마는 "제암리교회사건은 지울 수 없는 죄악으로 통감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죄는 이제 부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 일화 100엔(한화 1000만원)을 가지고 와 사죄의 뜻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제암리교회 신도와 일부 주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당시 경기도지사인 南鳳振에게 기탁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훗날 이 돈은 제암리교회와 부락민에게 전달돼 교회 복구비와 마을회관 건립에 보태 썼다. 귀국한 오야마는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말함으로써 양식있는 일본인의 고뇌를 내비쳤다.

다른 하나는 1998년 8월 일본 중의원(국회) 의원인 하시모토 아쓰시(橋本 敦·공산당)가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1919년 당시의 제암교회사건에 관해 조선총독 하세가와요시미찌(長谷川好道)가 일본총리 대신 하라케이(原 敬)에게 보낸 '전문 보고서' 사본을 전달





▲ 1969년 4월 15일자 〈인천신문〉에 실린 단독회견 사진, 왼쪽부터 有賀, 尾山, 필자.

◀ 일본 중의원 의원 하시모도(橋本)가 전달한 일본 외무성 문서.

한 일이다. '不逞團 關係 雜件'(부정단 관계 잡건)이란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에는 "신문 훈계에 반항하는 25명을 사살한 후 불 놓아 죽였다"고 명기되어 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다음 대목이다. "검거반원의 방화가 확실하지만 방화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고, 군대 및 경찰 위신에 관계되므로 모두를 검거하는 혼잡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화로 처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군대와 경찰의 위신을 지키고, 범죄 구성이 두려워 실화로 꾸몄다니 할말을 잊게 한다. 지금 제암리는 평화를 되찾았지만 역사의 뒤안 길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다.

開化의 전도사 수원교회 1세기

종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갈래의 학설과 견해가 있다. 예컨대 신비와 힘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주물(呪物)을 기원으로 보는 페티시즘설을 비롯해서 동식물과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의 신념을 원초로 보는 토테미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각설은 대개 19세기 말 이래 잇따라 제창되었으나, 실증적 근거는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종교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과 종교의 관계는 떨라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자리 잡았다. 이번 마당에서는 수원의 종교, 교회에 관해 알아 보기로 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수원에 처음 소개된 종교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가 천주교, 두 번째가 개신교, 세 번째가 천도교다. 물론 불교는 그보다 더 역사가 길다.

《韓國天主敎 殉敎史》(한국천주교 순교사)에 따르면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 때 수원 출신으로 조베드로(화서), 조요셉(윤호), 장요셉(낙소) 등 3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절에 천주교 신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갓등리(旺林) 본당에서 분리된 수원 본당(북수동 성당)이 1892년(고종 29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로써 101년 째가 된다. 초대 본당 신부는 프랑스인 신부 한아릭스로 알려져있다. 2대 곽가롤로, 3대 김원영(아오스딩), 4대 이레메레(루수), 5대 경헨리코, 6대 박일규(안드레아) 등으로 이어졌으나 수원지방에서의 전교는 활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는 당시 수원 사람들 특유의 배타심과 종교에 대한 불신 탓이었다. 실제로 7대 신부로 임명되어 18년 동안 시무했던 신부 심데시테라도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었다. "내가 1930년에 수원 본당에 부임했는데 당시 수원읍내의 천주교 신도는 7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읍내에는 4군데의 예배당이 있었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예배당에 한두 번 쯤 출입하고나서 시치미를 떼고 물만 흐려놓았다"라고 힘겨웠던 시절을 회상했다.

1912년 4대 신부로 일한 신부 이레메레도 "수원에서 전교하기는 쉽지 않다. 성당을 새

로 지어야겠는데 전교가 어려우니 성당을 지을 의욕이 나질 않았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북수동 성당이 세워진지 31년 째가 되는 1923년과 1925년 당시의 수원읍내 천주교 신자는 40여 명에 불과했다. 1년에 1,3명 꼴로 신자가 생긴 꼴이 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수원인의 종교에 대한 경계와 의문은 매우 강했다. 그러나 소수일 망정 천주교에 입문한 신자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도 부유한 편이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다. 1941년 소위 대동아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종교 탄압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 신도들의 결속이 강화되고 전교도 활발했다고 하니, 이 또한 수원인 특유의 근성과 용기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 시절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다. 어느날 일본 고등계 형사가 신부 심제시테라도를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온 국민이 승전일념에 쏠려 종교를 등한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천주교는 어떤지요." 이 물음에 신부는 "다른 교파의 신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군요. 우리 교회는 일본 정부가 잘 보살펴 주는 덕택으로 신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빗대서 하는 말이었으나, 실제로 감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1세기를 넘긴 수원천주교는 27개에 달하는 성당과 10여만 명이 넘는 신자를 거느린 종교집단으로 성장했으니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수원 개신교의 효시는 수원교회

수원의 개신교 역사는 천주교보다 1년 쯤 늦게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기록이 없어 확실치는 않다. 다만 1893년(고종 30년) 3월 2일 지금의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에 장지내교회(長川敎會)가 세워진 것이 확실함으로 이 때를 수원지방의 개신교 전교 기원으로 본다해도 큰 잘못이 아닐 것 같다. 홍석창이 쓴 《수원지방감리교회 70년 약사》에 보면 장지내교회를 설립하는 데는 박홍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교회 건립 자금의 대부분을 박홍성이 댔고, 정신적 지원도 컸다고 한다.

이 교회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1900년(광무 4년) 장지내교회에 파송된 전도부인 김사라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딸 메리였다. 모녀는 훌륭한 선교교육과 수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천성적인 신앙심을 가진 독실한 신자로 '첫 가정교사'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실제로 김사라는 무속에 푹 빠져있는 20~30명의 동네 부인들을 교회에 나오게 했고, 딸 메리는 주간학교를 개설해서 문맹퇴치에 힘



1920년대에 찍은 수원성공회의 정문 모습. 안쪽으로 기와를 이은 한옥이 보이고, 왼편에는 서양식 건물도 보인다.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교인 수는 14명, 학습인은 45명에 지나지 않았다. 장지내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5년 뒤인 1898년에 수원읍내에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마침내 목사 서원보가 수원 및 공주구역장으로 임명되었다. 여기서 밝혀 두어야 할 것은 당시의 교회구역 내용이다. 원래 수원지역은 미국 북감리회 선교지역으로, 목사 시란돈(施蘭敦)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원과 공주가 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1901년까지 수원 및 공주구역으로 존속하다가 동년 5월 제17회 선교회에서 수원과 공주를 분리, 수원구역으로 독립했다. 이 무렵(1898년)에 목사 서원보(徐元輔)가 수원·공주지역의 구역장을 맡게 되는데 그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었다.

개신교도 천주교 못지않은 전교의 어려움을 겪었다. 시란돈의 회고에 따르면 "선교사업에 있어서 큰 애로점은 주민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실로써 특히 부녀자들의 문맹은 심했다"고 말하고 있다. 1902년 수원구역은 수원구역회와 시흥구역회로 분리되는데 이 때의 교회 수가 3개 소, 입교인 49명, 학습인 44명 등 93명에 지나지 않았다니, 선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서원보의 초기 개척사는 단순히 험난했다는 표현만으론 부족하다. 보태

서 말한다면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수원에 배치된 서원보는 수원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수원읍민들은 경계와 배척의 벽을 허물지 않았다. 서원보는 교회 터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썼지만 허사였다. 1901년 가을 서원보는 김동현을 수원으로 내려 보내 교회 터를 물색하도록 했다. 김동현은 터를 구했다. 서원보는 그곳에 레스트룸(휴양관)을 지으려 했다. 지주와 정식계약을 맺고 땅을 샀는데 당시 수원관찰사에 의해 체포되고만 것이다.

이유인 즉 장헌세자(사도세자)의 어영을 모시고 있는 화령전(華寧殿) 가까이에 예배당을 짓는 것은 왕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사라는 것이었다. 문제의 땅을 사고 판 매매계약을 백지화하고 나서야 김동현은 석방되었다. 이번에는 이명석을 대타자로 내세워 장안문(북문) 안에 위치한 13칸 짜리 초가집 한채를 확보하고, 1901년 12월 서원보 가족이 이사왔다. 마침내 1902년 2월 17일 휴양관과 예배당을 겸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수원교회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예배당을 짓고 나서 첫 번째 신자가 명부에 오르게 되고, 같은 해 4월 24일 신자가 19명으로 늘어났으니, 여간한 약진이 아니었다.

쇄락한 천도교, 지금도 건재한 성공회

그런데 이 때 수원교회에 나온 교인들은 당시 수원읍에서는 저명한 식자층으로 두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인테리였다고 한다. 목사 서원보는 목사 베크의 도움으로 소년주간학교를 운영했다. 당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비추어 보면 이 글방은 향학열에 불타는 소년들에게 한줄기 빛이요 희망이었다. 새로 입교하는 신자들의 계층도 다양해서 남녀노유가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신자 가운데는 몇몇 수원 부호와 양반댁 귀부인이 섞여 있어서 아녀자들의 개화 접근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만했다.

다시 1903년과 1904년 경에는 획기적인 부흥이 일어나 교세가 크게 강화되었다. 비좁은 예배당으로는 원만한 예배가 어려워, 1907년 종로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1907년에는 종로에 5백평의 땅을 마련하고, 1913년에 목조 교회당을 지었다가, 1922년 증축, 1932년 6월 15일 2층 짜리 벽돌 교회당을 지으니 수원개신교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게 된다.

이후 교세는 계속 확장되어 1932년에 고색교회와 금곡교회가 세워졌다. 1932년은 일제가 조선식민지를 강화하던 시기로, 일본 신도(神道)와 궤를 달리하는 크리스트교를 곱게

볼 때가 아닌데도 속속 교회를 지은 것을 보면 수원인의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알만하다. 실제로 1932년 4월 29일 의사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벌어진 상해사변 승리축하연에 참석한 육군대장 시라가와(白川) 등에게 폭탄을 던졌고, 위기감을 느낀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동원해 3000여 명의 양민을 투옥하는 등 강경책을 서슴치 않았다.

천주교와 기독교 말고도 수원에는 천도교가 있었다. 수원에서 천도교가 포교되기 시작한 것은 1908년(포덕 50년) 쯤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1860년 4월 5일 천주교가 창시될 때만해도 동학이라 했는데 손병희(孫秉熙)가 교리를 재정리하고 나서 천도교라 개명한 것이다. 포교 초기에는 교세가 강성해서 1919년 기미독립운동 당시에는 33인 가운데 천도교 대표가 15명이나 낄만큼 그 비중이 컸다. 수원지방도 그 영향을 받아 한 때는 가톨릭이나 예수교 못지 않은 교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사실 규명은 어렵다. 또 하나 수원인들이 기억하고, 아끼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1904년에 설립된 수원성공회(水原聖公會)였다.

수원성공회는 일제 때 항일운동을 한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김노적(金露積) 등 애국청년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독립운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므로써 우리의 독립 욕구를 충족시켜 준 우호적인 교회였다. 오늘날 교회 건물이 대부분 개조되긴 하였으나, 구건물이 일부 남아 있어서 석일의 애환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종교로 불교가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신앙을 갖고 안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 동시에 특권이다. 다만 말세적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 앞에 서다보니까 종교의 역할과 가치가 돋보이기는 하지만, 작금의 교회 난립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시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

광복 직후의 수원농사시험장 秘史(1)

이번 마당에서는 오늘날의 농촌진흥청 전신인 수원농사시험장(水原農事試驗場)이 8·15 광복 직후 일본인 한테서 한국인 손으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분노와 적개에 찬 일련의 실화를 재현해 보기로 한다.

이 실화는 5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누구, 그 어느 언론매체에도 발표된 바 없는 것이므로 야사적 비화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의 비화를 밝힌 주인공은 과연 누구이며 입수 경위는 어떤 것인가. 비화를 기록으로 남긴 주인공은 당시 수원농사시험장 서무과장이던 구로자와마쓰키(黑次松樹)이다. 그는 혼란 무극한 광복 정국하에서, 시험장의 모든 것을 미군정청을 통해 우리나라 당국에 인계해 주고, 광복 이듬해인 1946년 5월 일본으로 돌아갔다.

당시 패전한 일본은 저들 나라 동포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른 바 '니혼진세와카이'(日本人世語會)라는 지치기구를 국내 주요 도시에 설립하고, 귀국 안내와 난민구호 등을 도맡아 했다. 구로자와는 일본에 돌아가고 나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니혼진세와카이로부터 집필 의뢰를 받게 된다. 그는 장문의 수기를 쓰게 되고, 마침내 세와카이가 발간한 《南朝鮮狀況》(남조선상황)이라는 책에 자신의 글을 실었다. 그 때가 1948년 9월이다.

이 글을 필자가 어렵사리 입수해 내용을 검토해 보았더니, 혼란기에 이렇다할 주인도 없이 표류를 거듭하던 수원농사시험장을 인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돼 번역을 하게 됐고, 이번 마당에 전문을 싣기로 한 것이다. 본문 가운데는 한·일 양측이 적대감 탓에 티격태격한 사건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실을까 말까 주저하였으나, 역사란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싣기로 했다.

'수원에는 비행대(비행장)를 중심으로 하여 적지않은 군부대가 있었다. 수원은 경성(서울)에서 하루 거리 밖에 되지 않아, 종전(終戰:일본은 지금도 패전이라 하지 않고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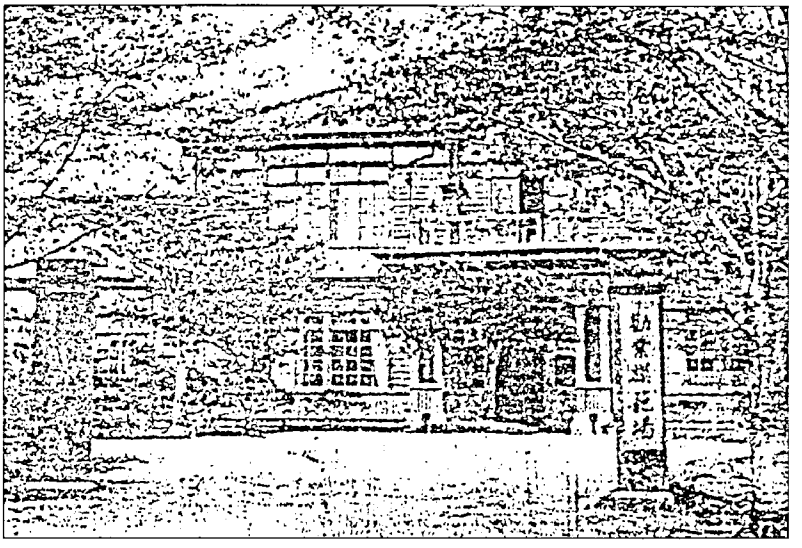
전이라 부른다) 후에도 이동하는 군대가 시험장·농림전문학교(현 서울농생명과학대학) 등의 교사와 기숙사 등을 이용하며 이동하곤 하였다. 실제로 일본 조선군사령관과 그 막료들도 경성에서 미군과 철수조인식을 끝낸 뒤 그날 밤에 수원으로 내려와서, 수원농사시험장 장장 관사에서 일박한 후 남하한 적이 있다. 그런 관계로 수원에는 일본군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평온했다. 시험장은 수원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의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둔감한 편이었다. 특히 장장 유가와마다오(湯川又夫)는 일본인 티를 잘 내지 않고, 보기 민망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이 그리 사납지 않았다. 그는 후임 한국인 책임자에게 시험장을 잘 인계하려는 생각이 깊었다.

사제간의 만남이, 주먹다짐의 실마리

10월 초순경 미군정청으로부터 농업기술자가 시찰하러 온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환영 아치를 만든 일이 있었는데 젊은 일본 직원 한 사람이 반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치에 붉은 기를 매단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때문에 평화롭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한동안 불안감이 감돌았다. 이웃에 있는 농림전문학교에서도 일본인 교수 구타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인 주택 명도 요구가 잇따라 긴박감이 충만했었다.

드디어 미군 기술자의 시찰 날이 왔다. 일본 큐슈대학 출신의 농학박사 계응상(桂應祥)이 미군 장교 다우닝을 안내하여 왔는 데 일본인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가와 장장은 점령군에게 경의를 표하고, 안내할 생각으로 대기하고 있었으나 끝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런 차에 그 쪽 사람이 와서, 장장의 관사를 다우닝 숙소로 쓸터인즉 비워 달라는 통고만 하고 갔다. 다시 얼마 뒤에는 다우닝 외에 수명의 수행원까지 함께 숙박하겠으니 그리 알라고 통보해 왔다. 우리측으로서는 예의상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어 거절한 바 있었다. 이에 앞서 유가와 장장은 계응상의 옛날 은사이기도 해서, 현관까지 찾아 온 그에게 다소 힐책조의 불쾌감을 나타낸 일이 있었다. 이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과장되게 전파되어 마침내는 폭행사건의 빌미가 되고 만 것이다.

이튿날 장장은 평일과 다름 없이 출근했다. 서무과장 자리로 다가와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10여 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난입하더니, 같이 있었던 후나비키(船引) 기사와 유가와(湯川) 기수(장장의 아들로 병리학 전공)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자, 장장은



오늘날의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권업모범장. 그 뒤 근업모범장은 수원농사시험장으로 개칭되어 해방을 맞았다. 이 사진은 일본인 저술가 시카이세이노스께(酒井政之助)가 쓴 《水原》(1922)에서 복사한 것이라 그림 상태가 좋지 않다.

시종 어쩔줄 몰라했다. 나도 가만 있을 수가 없어서 말로 하자고 말렸지만 결국 두 사람은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가고 말았다.

따지고 보면 어제까지의 친구들이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서무과장인 나에게도 물어 볼 것이 있다면서 여러 사람이 2층까지 가자고 강요했다. 그들은 한국인 직원의 인사문제 등에 관해 힐문했다. 더러는 "나는 대단히 불평이 많다"면서 따지고 드는 자가 있었다. 한 연장자가 뜬어말리고 나서, "결국 금후 우리 한국인들도 불행하다. 일본이 조선에 대해 많은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들 일본인들도 아마 행복했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사무실로 돌아오고 나서, 예사 사태가 아닌 것을 알았다. 앞서 끌려갔던 후나비키와 유가와는 코피가 낭자할 뿐 아니라,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난처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른 일본인 직원들도 국기 게양대가 있는 광장에 불려나가 폭행 당했다. 이같은 폭행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연일 계속됐다. 결국 몇 명의 직원만 변을 당하지 않았을 뿐 모든 직원이 변을 당했다. 우유 배급을 타러 축산부 우사에 다녀 온 사동이, 오늘도 매를 맞는 직원이 있었다고 알려 줄 정도였다. 훗날 안 일이지만 이 폭행사건은 단순한 내부사건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전후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순진한 청년의 정조였다. 폭행사건이 끝나고 나서,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 야경조를 만들어 밤샘을 해 준 것은 다름아닌 일본인 직원에 손찌검을 적극적으로 했던 한국인 청년 직원이었다. "이미 제재는 끝났다. 지금부터 그대들이 귀국할 때까지 생명과 재산을 우리들이 책임지고 지켜 줄 터이니 안심하라."면서, 눈물겨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폭행사건이 진정되고 나서 사무실 전부를 명도하고, 일본인 직원들은 방 하나를 귀국

대책본부로 정했다. 그날 이후 관계자들만 출근해서 연일 일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만 의논했다. 장장의 관사도 비워주었다.

어느새 가을 밤이 스산해지고 제법 한기마저 더해 갔다. 우리 일본인 직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픈 귀심(歸心)으로 가득차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시험장의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이유는 수원농사시험장의 한국인 장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당시 한국의 혼미스러운 정치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인 농업기술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를 몰라 고뇌하고 있었다. 지방에 있는 농업기술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윤태중(尹泰重:전 수원농전 교수)을 회장으로, 조백현(趙伯顯:전 수원농전 교수, 훗날 교장이 됐다)을 부회장으로 하여 조선농업기술협회(朝鮮農業技術協會)를 결성한 뒤 윤태중을 장장으로 올립할 예정이었다.

이와 별도로 수원농사시험장에서는 한국인 직원 가운데 최고참인 박승만(朴勝萬:교오토대학 출신)을 후임 장장으로 할 생각으로 미군정청에 교섭을 벌였다. 군정청에서는 시험장은 수원농전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 쯤으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우닝의 현지 시찰 이후 시험장의 지위와 사명을 알게 됐다. 한편 서울에서는 한국 농정에 밝은 이훈구(李勳求)를 장장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훈구는 기술분야 보다는 농정 쪽을 맡겠다하여 농림국장으로 발탁됐다. 이훈구는 미국대학 출신으로, 일본대학 출신자가 많은 농업기술협회 측에서는 미국 대학 출신을 좋아하지 않았다. 결국 10월 말이 되어서야 계응상이 장장으로 임명되었다.

桂應祥은 장장, 李勳求는 농림국장

계응상은 큐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출신으로 양잠 전문가였다. 관동대학(關東大學) 강사로 초빙돼 9년 동안 일했고, 일지사변이 발발하자 중국의 제래종 종자를 많이 가지고 귀국해서, 수원농사시험장의 잠사부 촉탁으로 일했다. 종전 때는 황해도의 동양제사회사 촉탁으로 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다. 계응상은 광복과 함께 군정청이 설치되자, 곧바로 양잠 장려를 역설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계응상이 장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은 우리들도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 또 일본 직원의 잔류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간간히 들려왔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접수는 늦어지고만 있었다. 다른 한쪽에선 그 때의 폭행사건

이후 일본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인양(引揚) 촉진열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 일본 재향군인들이 주축이 되어 벌인 귀환 교섭이 주효해서 약 절반 가량의 직원은 일본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귀환열차계획도 구체화되고, 때론 금족령까지 내리곤 했으나 여전히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드디어 11월 12일 경성에서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이튿날(13일) 장장 이하 수명의 간부들이 오래간만에 경성으로 가서 서면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 실로 종전이 된지 3개월 만의 인계였다. 인계를 마치고 밤 8시경 수원으로 돌아오니까 뜻밖에도 귀환열차가 출발한다는 전갈이 와 있었다. 너무나 갑작스런 소식이라 모두 눈코 뜰새가 없었다. 인계할 때 계응상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잔류 일본인 인선에도 혼란이 있었다.

장장은 노구인지라 귀환하게 하고, 또 양잠과의 후지이(藤井) 박사도 계장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귀국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다음의 5명만 남기로 합의했다. 그 5명은 총무부장 겸 사리원(沙利院) 지장장 다카하시노보루(高橋 昇), 시험부장 와다시게호(和田滋穗), 화학과장 후나비키신고(船引眞吾), 서무과장 구로쯔기마쯔키(黑次松樹), 기사 우찌다(內田)였다.

5명 가운데 다카하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그를 중심으로 해 나갔다. 14일 귀국자 일동을 수원역까지 환송하고 나니, 남은 5명의 감회는 실로 난감했다. 같은 날 일본인 직원 귀국과 때를 같이 하여 계응상이 미군 징교 마이림과 함께 부임했다. 그날 밤 우리들 5명은 불려나가 마이람으로부터 사령장을 받았다. 사령장에는 우리들 5명을 '어드바이서 투 더 코리안 디렉터(Adviser to the Korean director)'라고 기록하고, 이후 달달이 봉급을 받았다. 5명의 잔류자는 우찌다 기사의 관사에 합숙하면서 한국인 1명을 고용했다. 후나비키가 요리통이라고 자랑하길래 그에게 취사 일체를 맡겼다. 그의 요리 지식은 상당한 것으로, 훗날 미군 관리관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그의 솜씨 덕택이었다.'

광복 직후의 수원농사시험장 秘史(2)

이래저래 한달 동안은 아무 일없이 지냈다. 계응상(桂應祥) 장장은 장내 정비를 하느라 사업계획 등에는 거의 손을 못대고 있었다. 거기다가 마이람 대위는 경성(서울)에 머물고 있으면서 실업학교 학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장 일에 몰두할 겨를이 없었다. 12월이 되면서 젊은 공군 장교인 시엠버 소령이 부임해 장장 관사에 머물게 되었다. 12월 어느날, 우리들이 평소와 같이 화학부의 일실에서 각각 사무를 보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농포에서, 처음 보는 해군 장교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쥐덫을 든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다. 궁금하길래 모두가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그는 셈퍼 관리관의 보좌관으로 착임한 오스틴 박사였다. 부임하자마자 들쥐를 채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학자다운 모습에 감명 받아, 저녁 식사에 초대했더니 쾌히 받아들였다. 그 이후 잔류자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조선인들도 우리들을 결코 냉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관계는 서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 우리들 다섯명의 마음은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만 기다렸다.

오스틴 박사는 우리들을 결코 억류자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기술자로 지내기를 원했으며 우리 또한 미군 당국에 어드바이스 할 수 있었던 것이 마음 든든하였다. 미군정청이 갑자기 두 사람의 미군 고급 장교를 배치한 것은 미군이 농사시험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짐작케 했다.

당시 수원농사시험장은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적 분위기를 피해 모이는 농업기술자들의 피난처 같아 보였다. 그만큼 상당한 인재들이 모였다. 계장장은 이들을 잘 통솔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만 했다. 우리들은 물론 한국인 직원들도 그의 재능을 믿고 있었다. 과묵한 그는 기발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고, 검소한 옷차림은 그의 청렴결백한 성품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왠지 우리들을 공공연하게 이용하지 않았다. 밤 중에 관사를 방문한다든지, 장장 숙소로 부르는 것도 밤일 때가 많았다.

당초의 자문은 수출농산물의 증산책으로 그것 때문에 필요한 시험연구를 금후의 시험장사업의 중심 과제로 삼았다. 이것은 수긍이 갈만한 생각이었다. 다카하시 박사도 의기투합했다. 계장장은 다카하시 박사가 개성의 약용 인삼 조사와 개성 상인의 상술을 연구한데 이어, 개성 인삼이 아무데서나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알고, 그 시험을 당장에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박사는 장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성으로부터 2명의 인삼 재배 경험자를 초치해 묘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같은 농산물 연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과연 한국인다운 착상이라고 생각한 것은 사슴을 축산에 포함시키자고 한 대목이었다. 강원도의 사슴은 전설에 나올만큼 유명한데 그 뿔(녹용)은 강장제로써 매우 효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토록 유명하고 효험이 있는 데도 어느 누구도 사육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축산도 금후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면 인삼 재배와 함께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데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다카하시 박사와 우찌다 기사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또 장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복도를 메운 農專 강의는 대인기

일본인 직원들에게 이렇다 할 일거리를 주지 않았고, 시험장 업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기간 경리관계는 예전의 서무과장이던 나의 확인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미군 장교가 현금 지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1월말은 연례 사업계획에 관해 회의를 갖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각 부서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 농사가 시작되는 3월이 되고나서야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점 안타깝게 생각한 미군 관리관은 우리들 5명을 불러, 관계 부서에 매일 출근해서 지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부터 와다(和田) 기사는 수전부(水田部), 화학부엔 후나비키(船引), 축산부에는 우찌다(內田) 기사가 나가 일했다. 이로 인해 보존해야 하는 원종 정리 등은 잘 되었으나 시험적 연구 성과는 이를 수행하는 과학자의 소질 여하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갑자기 높히려해도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장교가 우리들의 참여를 계속 요구해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연히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괴리가 줄어들고 질문이나 의견을 묻는 일도 차츰 늘어났다. 농림전문학교(서울대)로부터는 과외 강의를 요구해 왔다. 후나비키는 토양에 관하

여, 우찌다는 축산에 관해 강의했다. 이들의 강의는 당시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에 참신한 자극을 주게 되고, 한국인 학생들 간에 큰 인기를 끌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 학생들 가운데는 한국에서는 학자가 부족해 공부하기가 어렵다면서 일본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는 자도 있었다. 4월 중순에 개최된 지장장회의에서, 다카하시 박사는 강연을 했다. 공식회의 석상에서 있은 장장 훈시 속에는 일본의 폭정 36년을 비판하는 말이 반드시 나왔다. 다카하시 박사는 이같은 훈시를 듣고, 강연을 하는 기분이 기묘했다고 술회했다.

우리들 5명의 잔류자들은 연구업무 지도에 참여하기도 하고,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기도 하면서 무심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나, 그 사이에 한국인 끼리의 분쟁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당시 한국의 양상을 인식하는데 일조가 될까해서 몇자 적으면 이렇다.

桂應祥 물러가고 金浩植 부임

당시 수원농사시험장에는 앞에서 말한 박승만(朴勝萬)과 김안희(金眼熙:경성제대 출신의 農理 전공) 두 사람 말고는 대부분이 조수·용인급의 직원 뿐이었다. 계장장이 부임한 이래, 시험장의 간부는 거지반 신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총무부장 정영흥(鄭永興:경성제대 출신·황해도 기사), 곤충부의 석인명(石寅明:가고시마 고농 출신) 등이 중심이고 농업경제·수전(水田)·병리·축산 등은 모두 외래자였다. 새로운 간부가 부임해 오긴 했지만 하나 같이 미경험자들이라 현상 유지가 고작이고, 연구활동은 훗날의 일로 여기는 상태였다.

어느날 김호식(金浩植)이 돌연 부장장으로 부임했다. 계장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실은 김은 중앙으로부터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파견된 것인데 그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장장 계응상, 총무부장 정영흥, 곤충부 석인명 등은 전출되고 김호식이 장장으로 승진됐다. 그는 일본 동북대학(東北大學) 출신의 이학사로 영양학 전공인 바 농사시험장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사고력이 있는 상식인으로써 모두로부터 환영 받았다. 그는 장장에 취임하고 나서, 일본인 직원들의 귀국을 위해 진력해 주었다. 4월 말이 되자, 우리들의 책임해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1개월 동안에 강습회를 열어 마지막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분장(支分場)의 직원들을 불러 올려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셈퍼

관리관과 오스틴 박사의 임기도 가까워지고 있는 듯 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귀국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샘퍼 소령은 출발 날짜를 타협하기 위해 찌프를 손수 운전해 가며 서울까지 함께 가 주기까지 했다.

서울의 달라진 모습, 북한에서 귀향한 월남자들의 비참한 몰골은 한결 같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이런 일에 관하여는 언젠가 쓸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1946년 5월 1일 귀국했다. 불행하게도 출발 며칠 전부터 후나비키 기사가 위궤양이 발병해 동행할 수 없게 되자, 우찌다 기사가 간병차 남아 2개조로 나누어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이 체류한 반년 동안은 이미 태풍이 지나간 형국이었다. 일본인의 그림자는 볼 수 없었고, 한국인의 관심은 내부 건설에 쏠려 있었다. 우리들 5명은 세간의 관심권에서 잊혀진 인간들이었다. 어쩌다 거리에 나서면 진귀한 듯이 호기심 어리게 대해 주곤했다. 다섯명이 밤늦게까지 추억담을 해도 꿈과 환상의 세계를 오고 가는 듯 현실감이 없었다. 모국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38선 이북의 소식은 알길이 없었다. 사리원시험장 소식은 가끔 들을 수 있었는데 혼자 남은 하라다(平田) 기사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도 귀동냥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험장은 소련군이 진주하는 바람에 큰 고생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직원들은 다행히 탈출에 성공해 본장의 가족이 귀국할 때 함께 열차를 탈 수 있었다.

8개월 만의 귀국, 불망의 추억

평남북과 함남북 등지에는 수 많은 지장과 분장이 있는데 명천종양장의 오오쯔(大津) 기사가 재빨리 되돌아 온 것 말고는 다른 소식은 전혀 듣지도 알 수도 없었다. 38선 이남의 시험장에서는 저들 나름으로 지방민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전북 이리지장의 직원들은 우리들과 같은 이유로 잔류하고 있다가 2월경 귀국했다. 유감스러웠던 것은 광주지장의 아라시(嵐) 기사였다. 혼란기의 난리 통에 실험용 백금접시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서 투옥되었는데 친구들의 노력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귀국할 때 함께 귀국하지 못했다. 개성의 종모양육성소에서는 비극적인 희생자 한 사람이 생겼다. 도심에서 벗어난 목장인데다 라디오마저 변변치 않아 8월 15일의 항복방송을 모르고 있었는데 근처 부락의 주민들이 난입했다. 가다야마(片山) 장장이 사정 얘기를

하여 뜯어 말린 뒤 와보니까 조수 부부가 독약을 먹어 위독하였다. 부인은 요행이 살아났으나 남편은 죽고 말았다.

우리들의 체제 중에 있었던 일들은 매거할 수 없을만큼 많다. 그러나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오스틴 박사에 관해 한마디 남겨 두기로 한다. 그는 동물학자로써 조류가 전문인데 특히 분류와 철새에 정통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줄곧 채집을 계속했고, 우리들의 도움을 받아 일본어 문헌을 완전히 섭렵했다. 그는 《조선의 새》라는 책을 하버드대학에서 출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조류학자로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박물관에 관계하면서 그 자신이 주관하는 연구소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뒤 군에서 제대하고 시빌리언(민간인) 자격으로 일본에 부임해서 목하 GHQ의 천연자원국 야외생물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또 한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1945년 12월 7일 미국정청으로부터 시험장에서 필요한 물품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물품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적어 보낸 일이 있었다. 참고를 위해 적기로 한다.

① 종자 및 종축류. 甘菜(사탕무)의 반병(班病) 내병성품포종자(耐病性品袍種子), 노율육성신품종(蘆栗育成新品種), 옥파육성품종자, 우량 과수 소채 종묘종자, 내한성목초류, 해바라기류, 가축용 비이트(사탕수수)류, 젖소용 수놈 2마리, 암놈 3마리, 돼지 바크셔 수놈 3마리, 암놈 5마리, 닭 로드아이랜드, 렛드프라마우스록 백색 레그혼 수놈 5마리, 암놈 10마리, 집오리(식용용) 수놈 5마리, 암놈 10마리.

② 농기구류. 소형 카르치베타, 소형 하로, 소형 트랙터, 포테토 파종기, 곡류파종기, 목초파종기, 콘세라, 중경(中耕) 제초기, 수확용조제기구류, 전열기용 배터리 육추기, 낙농기구류 세바레타 1조.

③ 실험실용 기구류, 미량천평(저울), 석영분광종사진기(石英分光種寫眞機), 미크로미터, 브르후릿프광도계.

구로자와의 수기는 이렇게 끝난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광복 직후의 우리 농업연구기관의 현주소는 미미하다 못해 비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는 이래서 교훈이 되는 것이다.

불굴의 수원지방 청년운동(1)

우리는 흔히 청년을 나라의 보배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는 미래의 희망이면서 정기라고도 말한다. 보배, 희망, 정기, 이것은 한마디로 청년을 예찬하는 말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펼치는 사회운동을 '청년운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생긴 문화를 '청년문화'라고 한다.

이번 마당에서는 일제하의 수원지방 청년운동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근대 청년운동의 효시는 1830년 독일의 혁명적 젊은 시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청년독일파(青年獨逸派), 1831년 마치니가 마르세유에서 창설한 청년이탈리아당을 꼽는다. 그 뒤를 이어 체코 국민당으로 분리·자립한 청년체코당, 1889년에 창립된 청년터키당을 꼽는데 이들은 단순한 청년단체라기 보다는 정치단체에 가까웠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서양보다 훨씬 오래 전에 청년운동단체가 있었으나, 서구처럼 체계화, 조직화 되지 못했다. 즉 신라의 '화랑도', 고구려의 '흡의선인'(皂衣仙人) 등이 그것이다. 고려 의종(毅宗)은 유신교서(維新敎書)를 통해, 화랑도를 부흥시키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와 숭유억불(崇儒抑佛)을 국시로 삼는 바람에 청년운동 자체가 사실상 어려웠다. 뒤이어 1910년 일제 조선총독부의 무단정치가 감행되면서, 청년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우리 청년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명맥을 이어왔으니, 당시의 청년운동이야말로 항일·독립 지향적인 구국 청년운동이라고 할만 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근대 청년운동의 시발점을 일제 식민시대 전후로 보아도 큰 잘못이 아닐 것 같다. 우선 대표적인 단체로 1908년 무실역행(務實力行) 주의를 내세워, 도산 안창호(安昌浩)가 조직한 '청년학우회', 3·1운동 직후 남만주에서 조직된 '청년단연합회' 등을 들 수 있다. 청년학우회는 훗날 흥사단의 모체가 되었고, 청년연합회는 광복군사령부에 통합되었다.

특히 수원지방은 서울을 지척에 두고 있는 데다 언론·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일사상

과 항일세력이 여느 지방보다 강했던 터라, 청년운동을 하기에 알맞은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수원지방에는 소수일망정 집요하고 강력한 애국운동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청년운동에 앞장섰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수원은 청년운동 불모지가 되었을지 모른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1920년대의 수원지방에는 종교단체가 지원하는 청년회와 대소 민간 자생단체 등을 합쳐 40개 정도의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개별 청년운동 단체들의 창립·조직·활동사항을 두 번에 나누어 싣고자 한다.

청년운동을 주도한 종교단체들

◇ 수원엡워트청년회

수원엡워트청년회가 창립된 것은 1908년 가을이었다. 엡워트청년회는 1889년 미국에서 창립된 범세계적인 감리교 청년운동단체로서 한국에서는 1897년 5월 5일 서울 정동감리교회에서 창립 돼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는데 수원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간섭이 자심해 설립 2년만인 1910년 해체의 비운을 맞고 말았다. 그러나 몇몇 유지들이 조직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사발통문을 통해, 운동구락부 또는 체육회 등의 명분을 내세워 명맥을 유지했다. 1917년 재창립한 청년회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야학·대중계몽·토론회·음악회·체육단련 등을 펼쳐 청년정신에 바탕을 둔 청년운동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말기의 회원은 40명 안팎이고, 초대 회장은 김성실(金成實), 후임 회장은 김병호(金炳浩)였다.

◇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

천도교가 수원에 들어와 포교를 하기 시작한 것은 1884년(고종 21)이었다. 청년회를 창립한 것은 1920년 어느 날로, 수원면 북수리 천도교 교구 사무실에서 총회를 가졌다. 이때 발기인은 이병헌(李炳憲), 홍종각(洪鍾珏), 이인수(李寅壽), 김유향(金有鄕) 등이었다. 1929년 5월 30일 전국 천도교청년회의 조직 강화와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경기도연맹을 창립하게 되는데 초대 위원장은 이병헌이었다. 청년회는 주로 시민 계몽운동과 천도교 포교활동에 역점을 두었으나, 1930년 경에 소멸되고 말았다.

◇ 천주교청년회

1922년 9월 11일, 수원군 봉담면 왕림리 소재 왕림성당에서 있은 창립총회는 회장에 이의수(李義洙), 총무 김덕균(金德均)을 선출했다. 청년회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임원회와 정기회를 열고, 월간 행사계획을 수립한 후 일반 신도의 교회 참여와 신문명에 관한 계몽운동을 펼쳤으나, 역시 1930년 초에 소멸되고 말았다.

◇ 龍珠寺 본말사 불교청년회

막강한 불교 세력의 지원을 받아 창립된 이 청년회는 1928년 8월 14일 오전 수원군 안용면 소재 용주사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손일해(孫逸海) 사회로 시작된 창립총회는 첫째 우리는 단결의 힘을 양성하자. 둘째 우리는 현시대에 적합한 교화방식을 만들어 내자. 셋째 부처님의 자비적 구제의 방식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자 등 3대 강령을 통과시켰다. 청년회는 포교·교육 등에 주력하였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 수원진명구락부

1920년 6월 28일 저녁 7시, 수원면 남문 밖에 자리 잡은 수원성공회에서 발기인총회가 있었는 데 발기인은 김현필(金顯弼)·허 용(許 榕)·안영기(安永基)·이인영(李麟榮)·김인○(金仁○) 등이었다. 7월 11일 성공회에서 수원 유지, 종교계, 교육계 인사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초기 회원은 40명에 달했다. 회장은 김인○, 총무 조용호(趙鏞昊), 도서부장 김로적(金露積), 운동부장 박선태(朴善泰) 등이었다. 구락부는 주로 덕성 함양, 체지(體智)계발, 친목 도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으나, 일제의 간섭에 밀려 소멸되고 말았다.

◇ 수원여자보호회

수원 종로교회가 주축이 된 단체로, 1920년 창립되었다. 일찍이(1908년) 창립된 수원엡워트청년회의 자매 단체로 여성보호운동을 목표로 삼았다. 남존여비사상이 남아 있던 당시로서는 주목할만한 여성단체로 초대 회장은 이신애(李信愛), 부회장 이화순(李華淳), 총무 박효정(朴孝貞)이었다. 동년 7월 14일 서울의 윤치호(尹致昊)를 초청하여 시국강연회를 가졌는데 200명 가까운 청중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보호회는 야학을 설립해 여성교육을 실시했는데 1927년에는 4학급에 60여 명의 수강생이 있었다.

◇ 수원구제회

감리교 수원종로교회의 후원을 받아 1925년 종로교회에서 홍사혁(洪思赫), 김노적(金露積) 등의 발기로 창립되었다. 구제회는 60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들을 돕는 자선단체로 효경사상의 실천을 으뜸 덕목으로 삼았다. 초대 회장은 김용각으로, 30여 명의 회원이 십시일반으로 금품을 모아 살기 어려운 노인들을 도왔다.

◇ 미감리교 수원악우회

감리교가 지원하는 청년단체로, 음악 보급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었다. 1926년 7월부터 발기인 모임이 시작되어 8월 8일 수원삼일학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사회는 김덕근(金德根)이 맡았다. 이 날 회의에서는 회명칭을 '미감리교 수원악우회'로 정하고, 회칙을 통과시켰다. 총간사에 김덕근이 선출되고, 1928년 6월 3일에는 수원군 정남면 소재 대성강습소에서 있은 제1회 학예품전람회에 찬조출연하여 음악회를 베풀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들어온 성금이 120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상의 8개 청년단체들은 종교기관의 후원을 받았거나,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터라, 각 교단의 전도와 신도 확장 등에 역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같은 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항일·독립정신의 계몽과 고취는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왜경의 감시와 압력에 늘 시달렸다.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은 옥고를 치르고, 일부 단체는 강제 해산 당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의 공통점은 신앙심을 가지고 고난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용기와 신념을 심어주면서 고무시킨 일이다.

청년들의 눈을 뜨게 한 청년운동

◇ 남양청년회

1920년 5월 18일 수원군 남양면에서 개최된 발기인 총회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 6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회장에 김성달(金性達), 부회장 홍형섭(洪亨燮), 부장 황대창(黃大昌)·박우영(朴宇榮)·홍승열(洪承烈) 등을 선출한 후 청년회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문예부·사회부·운동부 등 3부를 두었다. 1921년 12월 총회에서는 청년회 명칭을 '남양엡워트청년회'로 바꾸기로 하고, 회장에 임응순(任應淳), 부회장 홍형준(洪亨俊), 총무 홍승열, 종교부장 최선일(崔宣一), 문예부장 홍성인(洪性麟), 운동부장 정해붕(丁海鵬), 사

교부장 강신규(姜信奎), 서기 강신홍(姜信弘), 회계 원대식(元大植)을 선출했다.

청년회는 제하(製荷)여학교에 야학을 마련해 조선어·한문·산술 등을 가르쳤다. 수강자는 50여 명에 달했는데 언제 해체되었는 지는 알 수 없다.

◇ 수원청년구락부

1920년 7월 3일 수원면 신풍리 화령전 풍화당(豊化堂)에서 개최된 '수원청년구락부' 창립총회는 임시 회장 최상훈(崔相勳)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창립 취지설명이 있은 후 회칙을 통과시키고 무기명 투표로 회장에 라홍석(羅弘錫), 이사 홍사훈(洪思勛), 학예과장 최상훈, 운동과장 김종영(金鍾滎), 오락과장 박성근(朴盛根), 경리과장 이광현(李光鉉)을 선출했다. 청년회는 청년들의 체력 단련에 역점을 두었다. 이웃 지역과의 친선 원정축구경기를 갖는가 하면 지역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회 등을 가졌다. 역시 소멸 일자는 알 수 없다.

◇ 수원유년군

1908년에 창립된 수원상업회의소가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한 것이, 다름 아닌 수원상업강습소였다. '수원유년군'은 이 강습소에 재학 중인 유년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단체였다.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창립 연월일은 알 수 없고, 임원도 모른다. 다만 1921년 6월 2일 수원유년군 용맹팀과 오산유년팀이 수원청년회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1921년 6월 12일 수원유년군 야구단 'SW팀'과 경성 통학생 유년으로 구성된 'SY팀'이 야구시험을 했다는 기사로 보아 1920년 쯤에 창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축구는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야구는 보급된지 오래지 않은 신식 스포츠였는데 수원유년군이 야구를 했으니, 수원의 스포츠가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수원청년회

1920년초 청년운동이 한창하던 시절에 창립되었으나, 집행부의 리더쉽 부족과 회원들의 열의 부족으로 침체상태에 빠져 있었다. 1923년 지역 활동가이면서 신문화운동에 앞장 서 있었던 홍사훈 등 8명이 재기에 합의하고, 조직을 재정비한 후 주로 문예진흥운동의 하나로 소인극, 기호현상가투대회(畿湖懸賞歌鬪大會), 정구대회 등을 개최하므로써 물밀 듯이 밀려 오는 신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축적에 힘썼다. 가투대회란 음악경연대회를 말하는 것으로 요즘의 노래자랑과 같은 것이다. 1928년 5월 15일에는 수원화성학

원(수원상업강습소 후신)에서 흥사훈 사회로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이 때 회원의 연령을 17세 이상 30세까지로 개정하고, 신입회원 25명의 입회를 승인했다. 이 때 위원장에 신 충(申 忠), 상무위원장에 권순회(權舜會)가 피선되었다. 이후 청년회는 수원의 유수한 청년단체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수원청년회야말로 수원지방에서 애국청년운동을 선도한 대표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 수원소년군 제8호대(朝鮮少年軍 第8虎隊)

수원유년군의 형벌인 수원소년군이 창립된 것은 1923년이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921년 일본이 보이스카우트를 도입하자, 우리 민족 진영에서도 조철호(趙喆鎬)가 조선소년군, 정성채(鄭聖采)가 조선소년척후단을 창설하게 되는데 수원에서는 1920년 김장성(金奬星)이 '빛의 모임'이란 소년 단체를 조직했다. 이것을 고인관(高仁寬)이 수원소년군으로 개명했는데 결국 이 단체가 수원 보이스카우트의 원조인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조선소년군 제8호대'가 발대되고, 대장에 공인관이 선임됐다. 당시 단원은 20명이었다. 1927년 김노적(金露積)이 대장이 되고, 대원은 30명, 1933년 대장이 이기현(李起鉉)으로 바뀌고 수원면 신풍리에 사무실을 두었다. 8호대 전승기인 1923년에는 종로예배당에서 소년홍보활동을 펼쳤는데 청중이 500여 명이나 운집했고, 이튿날도 400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밖에도 1926년 5월 29일에는 활동사진대(영화), 1927년에는 수원야구대회, 같은 해 7월 31일엔 강화에서 개최된 전조선소년군 잼버리에 참가했다. 또 1927년 9월 24일에는 소년야구대회, 1928년 5월 5일엔 조선군음악회, 같은 해 19일에는 제3회 소년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소년으로 하여금 꿈과 이상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계몽운동을 펼쳤다.

불굴의 수원지방 청년운동(2)

앞의 마당에서 소개했듯이, 일제하의 수원지방 청년운동은 특별히 과격하거나 노선이 선명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색무취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단체나 조직도 아니었다. 일제의 철권통치하에 살다보니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매사에 조심스러웠을 뿐이다. 말하자면 정중동(靜中動) 형태를 취하는 온건 경향이 강했다. 당시 청년운동계에는 항일사상의 한 변형으로서,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급진 혁명성향의 단체와 인사들이 더러 있었으나, 수원지방에서는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눈에 띌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설혹 얼마간의 유사 세력이나 찬양자가 있었다하더라도, 수원 특유의 보수주의와 배타주의 성향에 밀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수원지방의 청년운동이 그 성과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제의 탄압과 감시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친일파가 세상을 주름 잡던 당시로서는 친일을 하지 않고, 민족진영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행동한다는 자체가 애국이요 애족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일제하의 청년운동은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에 대한 희망을 지켜 준 정신운동이면서, 권토중래의 구심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의 마당에서는 주로 종교단체가 지원하는 청년 모임을 주로 소개했는데 이번 마당에서는 순수 민간 내지는 서울에 본부를 둔 산하 청년회의 활동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경성소년군 수원지부(朝鮮少年斥候團)

수원지부 발단식은 1923년 9월 8일 저녁 8시 종로예배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대식 1주일 전인 9월 1일에 일본 관동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과 조선 간에 급냉기류가 흐르게 되고, 일본 관헌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된 분위기였다. 일제는 관동지진이 발생하자, 조선인 폭동설을 조작하여 우리 교포 5000여 명을 학살하는 야만극을 벌였다. 누명을 쓴 조선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 관헌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

려 했다. 결국 경성소년군 수원지부 결단식은 관동대지진 때문에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날 결단식에 참석하거나, 견학하려고 모인 시민이 무려 700명에 달했다니, 일본 관헌의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 화향회

'하나님 사랑 아래 공부와 운동을 잘하며 친구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조선 여자된 본분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인격을 함양하자'며 조직된 것이 화향회였다. 수원삼일여자학교 학생들이 조직한 이 모임은 1924년 11월 29일 학교 강당에서 총립총회를 가졌다. 회칙을 통과시킨 뒤 임원을 선출했는데 회장 안성의(安聖義), 부회장 정봉수(鄭鳳洙), 서기 김주희(金周熙)·차재명(車載明), 회계 표덕성(表德成)·정마서(鄭嗎瑞)였다. 화향회는 매주 토요일에 음악회·원족회·친목회를 열었다.

◇ 팔탄부인회·팔탄청년회

팔탄부인회는 1920년, 팔탄청년회는 1922년에 설립되었다. 부인회는 농촌부녀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문명을 알리고, 풍속을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창립 5년 뒤인 1925년 당시 80명의 회원이 활동했다. 반면에 팔탄청년회는 지도부와 회원들의 열의 부족으로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을 박창래(朴昌來)·이 욱(李 煜) 등이 앞장 서서 재건했다. 임원은 회장 이 욱, 부회장 박창래, 간사 5명, 평의원 10명, 서기 2명, 고문 2명, 회원이 90명에 달했다.

◇ 수원형평사

형평사(衡平社)는 천민계급, 특히 백정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된 일종의 인권단체였다. 일본의 수평사(水平社) 운동에 자극 받아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창립되었는데 같은 해 겨울 수원지부가 창립된 것이다. 3년 뒤인 1926년 수원형평사로 독립하였고, 1927년 당시의 회원은 30명이었다. 1928년 2월 22일 오후 신풍리 소재 수원형평사 사무실에서 사장 김금봉(金今奉)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는 경성본부에서 파견된 이동환(李東煥)이 형평운동의 당위성과 적극성을 강조하는 개회사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① 일체 천시와 차별 철폐에 관한 건 ② 야견(野犬) 박살에 관한 건 ③ 당진군 합덕면 사건에 관한 건을 결의했다.

◇ 신간회 수원지부

신간회는 공산·사회주의 사조에 대립해 조직된 민족주의 단체로, 1927년 李商在가 주도하여 조직했다. 창립 멤버로는 안재홍(安在鴻)·홍명희(洪命憙)·조병옥(趙炳玉)·허헌(許 憲) 등 당대의 민족 지도자가 망라되었다. 수원지회 창립을 위한 준비 모임은 1927년 10월 9일 북수리 천도교당에서 열렸고, 준비 위원들은 논의 끝에 창립총회를 10월 17일 오후 1시 천도교당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창립대회는 준비위원 김노적(金露積)의 사회로 개막되어 경과보고, 집행부 임원선거, 회원 심사에 이어 본부에서 파견된 이관구(李寬求)의 축사가 있었다. 창립총회를 끝내고 같은 날 8시 종로교회에서 이관구의 '조선의 농촌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는데 임검한 일본 경찰의 발언 중지명령 때문에 간간히 끊겼다. 이어 계속된 권태인(權泰仁)의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분투하자'는 제하의 강연은 왜경의 제지로 중단되고 말았다.

이렇듯 신간회 수원지회는 가장 조직적이면서 일제에 자극을 주는 구국운동 단체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 조직도 사상을 달리는 좌우의 마찰 때문에 내홍을 겪었다. 1929년 4월 7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았다. 지회장 이각래(李珏來), 부지회장 염석주(廉錫柱), 총무간사 박승극(朴勝極)·공석정(孔錫政)·엄익홍(嚴翼鴻)·김병호(金炳浩), 상무간사 이근상(李根相)·이연학(李演鶴)·김봉희(金鳳憙)·김재형(金在衡).

잡초처럼 끈질겼던 투쟁력

◇ 혁성단

오산에 본부를 둔 혁성단은 1926년 가을에 결성되었다. 혁성단은 여느 청년단체와 달리, 사상단체를 표방한 수원지방 유일의 조직으로서 15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 사ㄹ 청년동맹

기존의 갑자단(甲子團)과 초화청년회(草華靑年會)가 합친 단체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 단체가 통합한 것은 1927년 봄인데 이 때 단체명을 '사ㄹ 청년회'로 정했다. 동회는 회장 김기선(金基宣)외 40명의 회원들이 힘을 합쳐 성호면 오산리에 있는 대성학원을 돕는데 주력했다.

◇ 수원애우소년학우회

단체명 그대로 소년 즉 어린이들을 돕는 조직인데 창립 날짜는 알 수 없다. 전하는 바로는 1923년 발족한 소년운동협회가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로 한 취지에 찬동하여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원지회도, 수원소년군·화성소년군 등과 연합하여 1927년부터 매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 반도청년회

항일운동가이면서 사회주의자인 박승극(朴勝極)이 주도하여 조직한 단체로 창립 날짜는 미상이다. 1928년 9월 1일 반도청년회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왜경의 제지로 유회되고 말았다. 박승극은 회 명칭을 양감청년회(楊甘靑年會)로 바꾸고 나서야 임원 선출을 할 수 있었다. 이날 회의 폐막에 앞서 만세삼창을 부를 예정이었지만 임검 왜경의 제지로 불발하고 말았다.

◇ 원리소년저축조합

1928년 2월 창립되고, 본부는 성호면 원리에 있었다. 회원들은 매월 노력(勞力)으로 번 돈 50전 씩을 저축하여 기금을 모으기로 했는데 회원이 50명에 달했다. 모아진 기금은 농자금 대출과 상부상조에 쓸 예정이었으나, 속내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응하는 항일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 발안청년회

1928년 3월 2일 창립되었다. 향남면 발안리 송송복(宋松福)의 집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소년운동 전개를 결의하고 당면 과제를 논의하였으나, 훗날의 성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

◇ 수원청년운동자 간담회

1928년 1월 28일 오후 수원 영락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발족했다. 오산 사ㄱㄹ청년동맹의 공석정(孔錫政)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는 포천·진위·발안·양감·오산 등지에서 온 청년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 벽두 박승극(朴勝極)의 '현하 조선청년운동과 수원청년운동'이란 제하의 발언이 있은 후 청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도청년회, 사ㄱㄹ청년동맹, 세교리 광활청년회를 통합해 청년동맹을 조직하자는 토의가 있었으나, 임검한 왜

경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

◇ 수원삼월회

창립 날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삼월회 활동은 기록에 남아있다. 1928년 3월 24일 저녁 8시 수원공회당에서 개최한 '신춘 남녀 대강연회'도 그 중 하나다. 이 강연회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수원지국이 후원했다. 봄비가 내리는 데도 참가자가 몰려와 공회당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우성규(禹聖奎)의 사회로 강연이 시작되었으나, 왜경의 제지로 이승화(李承和)는 단상에도 못 올랐고, 여성 연사 이연적(李年積)도 강연을 못했다. 이에 청중들이 아우성을 쳐 장내가 혼란했다. 같은 해 7월 28일에 있었던 위생강연회도 원만하지 못했다.

임검 일본 경찰이, 사사건건 제지

◇ 수원청년군동맹

수원군내의 유력한 청년운동가들이 기어이 결성하려 했지만 왜경의 반대와 교란 공작 탓에 불발로 그친 조직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청년군동맹은 수원청년운동사에 정식으로 기록될 대상은 아니지만 창립 과정에서부터 일제의 간섭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주목할만한 단체였다. 1928년 8월 9일 회동한 준비위원들은 창립 날짜를 8월 12일로 결정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으나, 수원경찰서 고등계는 절대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안건 토의 없이 임원 선출만 하게 해 달라고 졸랐지만, 오히려 교섭에 나섰던 권순회(權舜會)가 무직자라며 15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렸다. 결국 예정된 날에 10명 가운데 2명의 준비위원만 참석해 유회되고 말았다. 이 때 면·리에서 올라온 대표들의 항의가 거세 현장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전한다.

◇ 조선소년총연맹 경기도연맹

1928년 7월 29일 수원에서 개최하려던 창립총회를 경성(서울) 견지동 시천교당으로 옮기는 등 이 연맹은 출범 단계에서부터 시련이 컸다. 수원 창립 행사의 교섭위원은 최신복(崔信福)·정홍교(丁洪敎) 등이었으나, 왜경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바람에 수원 집회를 포기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1929년 12월 1일 수원화성학원에서 수원군청년연맹(水原

郡靑年聯盟)을 결성하니, 당시의 집행위원장은 송봉출(宋奉出)이었다.

◇ 혈복단(救國民團)

남학생 대표 박선태(朴善泰)·이득수(李得壽)와 여학생 대표 박순남(朴順南)·최문순(崔文順)·이선경(李善卿)이 주동해 조직한 단체이다. 1921년에 창립된 혈복단의 목적은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 전개였다. 단원들은 〈大韓民報〉와 〈獨立新聞〉을 암암리에 민간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했다. 그러나 동년 4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있은 선고공판에서 제령 제7호 위반죄로, 박선태·이득수는 징역 2년, 안순남·최문순·이선경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언도 받는 등 파란이 많았다.

◇ 오선청년동맹

1928년 4월 20일 저녁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한필호(韓弼鎬) 자택에서 창립되었다. 총회 석상에는 30여 명의 맹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으나, 왜경의 임검이 심해 분위기는 살벌했다. 이날 총회는 임시 집행부 의장에 변기재(邊基在), 서기 이봉의(李鳳儀), 사찰에 강우형(姜友馨)을 선출하고, 조직체 및 규약 반경 등을 결의했다. 임원은 위원장 공석정(孔錫政), 위원 이남수(李南壽)·박건실(朴建實)·변기재(邊基在)·김기환(金基桓)·한용록(韓用錄)·강우형(姜友馨)이었다.

◇ 화성소년단

조선소년군(朝鮮少年軍) 산하 조직인데, 언제 창립되었는지 알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1927년 제2회 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것으로 보아, 1926년 쯤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장은 박선태(朴善泰), 사령 우성태(禹聖泰), 虎隊長 정지수(鄭芝洙), 부대장 백남선(白南善), 이사 박봉득(朴奉得)·장보라(張保羅)·하상묵(河相默)·함석종(咸錫宗)이었다.

비록 뜻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한 경우가 많기는 하였지만 다양한 계층에서 다기한 목적을 가지고 돌진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특히 행사 때마다 왜경이 임검하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보통의 의지와 담력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수원의 청년운동은 완성의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정의 열의와 애국심만은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수원 郵政 '영화역' 에서 '덕풍진' 까지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우정(郵政)이 처음 도입된 것은 구한말 때인 1884년(고종 21)이었다. 그 해 10월 초하루 개화파의 홍영식(洪英植) 주도 아래 우정총국(郵政總局)이 개국되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우정사업의 출범도, 김옥균(金玉均) 등과 함께 거사했다 3일만에 끝장난 갑신정변 때문에 17일 만에 혁파되는 시련을 겪었다. 불안했던 정국이 진정되면서 1885년 우정사업이 재개됐다. 1886년 한성(漢城)·동래(東萊)·나주(羅州)·의주(義州)·경성(鏡城) 등 한반도의 남단과 북단에 우정망이 설치되었다. 1897년(광무 1) 만국우편연합(萬國郵便聯合) UPU에 가입하고, 1900년 통신원을 설치하는 등 우정근대화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1905년 일본에 통신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우역제(郵驛制)라는 것이 있었는데 수원에는 조선 정조(正祖) 때 지금의 영화동에 영화역(迎華驛)이 있었다. 이 역에는 최고 책임자인 찰방(察訪) 1명, 역리(驛吏) 12명, 통인(通仁) 6명, 사령(使令) 9명, 관노(官奴) 5명, 인부(人夫) 18명, 역노(驛奴) 133명, 역비(驛婢) 2명, 뛰고 달리는 봉족(奉足)이 216명이나 상주했다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할만 하다. 구한말(1894년) 한성우정총국이 생긴 이듬 해인 1895년 한성우체사(漢城郵遞司) 수원지사(水原支司)가 개설되고, 1896년 8월 10일에는 수원우체사(水原郵遞司)로 승격되었다.

이런 일화도 있었다. 수원우체사 체부(遞夫:지금의 집배원) 서경석이 한성우체사로 배달을 가다 도둑을 만나 수원 우체물 9통, 나주 우체물 1통, 전주 우체물 6통 등을 빼앗긴 분실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897년 2월 25일 안성지사가 개국되고, 1903년 8월 1일 수원-일본 우편수취소가 수원군 남부면 매산리에 설치되었으며 1905년 6월 1일 오산우편수취소에서 우편 저금과 집배사무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1일 수원우편국에서 전신 및 특설전화와 교환전화의 통화사무를 취급하게 되니, 이것이 수원에서의 전화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그 전화에 얽힌 이런 저런 얘기를 모아 보았다.

오늘날(2001년 현재) 수원에는 수원전화국, 동수원전화국, 남수원전화국 등 3개의 전화국이 있다. 전화 가입자가 55만 1281명에 시설수가 61만 1874대인데 업무용이 14만 7002대, 주택용이 39만 9474대, 사업용이 4805대, 공중전화가 1만 3521대에 달한다. 그런데 수원의 옛 전화 얘기를 하기 전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전화 역사부터 알아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수원의 민간전화, 1903년 첫 등장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화가 설치된 것은 1889년(고종 26)의 일이다. 당시 궁내부(宮內部) 주관으로, 궁중과 각 아문(衙門) 간의 업무연락을 위해 전화를 마련한 것인데, 3년 뒤인 1902년(광무 6) 3월에야 민간 전화가 개통되었다. 맨 먼저 한양(서울)과 인천 간에 전화가 개설되고, 같은 해 6월 시내 공중전화, 이듬 해에 부산까지 연장 가설되었다. 민간 전화가 최초로 가설된 1902년 3월 당시만 해도, 개인 전화 가입자는 한성 11명, 인천 7명, 평양 2명 등 20명에 불과했다. 수원에 전화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03년(광무 7)인데 가입자가 누구인지, 가입자 수가 몇이나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같은 해에 평양·삼화·마포·도동·시흥·경교 등에 전화가 개통됨으로써 1902년 개통된 한성·인천·개성을 합쳐 10군데에 달했다. 수원은 1차의 한성에 이은 2차 개통지역이니까 전화에 관한한 선진 도읍이었던 셈이다. 당시는 전화기를 '덕풍진'(德風津) 또는 '득풍진'(得風津), '전어기'(傳語器)라고 불렀다. 바람 풍(風) 자가 들어간 것은 말이 바람처럼 빨리 전달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화기는 에릭슨사가 만든 자석식 단식 교환기와 벽에 거는 벽괘형(壁掛型)이었는데 1905년 그나마 통신권을 일본이 강탈해가는 바람에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인 통신사업은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인 전화와 처음 만나다보니까 일화도 많았다.

공중전화 바로 옆엔 관리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는 통화시간을 재면서 통화 내용까지 엿들었다. 이를 두고 외국인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불평을 털어놨지만 우리 정부는 "관리인은 외국말을 모른다"는 말로 무시해 버렸다. 그런데 관리인을 배치한 진짜 까닭은 따로 있었다. 즉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다보니까 가끔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전화규칙' 31조에 보면 "통화하는 가운데 불온, 저속한 언사를 농하거

나 서로 언쟁을 할 때는 전화소에서 통화를 금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1905년 4월까지 전화 가입자가 50명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외국 무역상이었으며 조선 사람은 10명 안팎이었다. 그나마도 돈 많은 부자나 행세깨나 하는 양반들 차지로, 민초로서는 그림의 떡과 다름 없었다.

수원에 이어 오산 · 사강에도 전화

1908년 2월 9일자 〈京城新報〉는 동년 1월 중에 인천에서 경성(서울)과 수원으로 건 시외전화 통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천에서 경성 호출 건수가 6건, 호출료 90전, 요금 1원 20전으로 모두 2원 10전이고, 인천에서 수원 호출 건수는 4건, 호출료 60전, 요금 80전을 합쳐 1원 40전이라고 밝혔다. 1908년 10월 1일 전화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입 및 가입구역제도와 통화 및 통화구역제도, 호출 및 호출구역제도가 모두 바뀌었다. 특히 통화 단위가 매초 단위로 개정 돼 요금 산정이 보다 정밀해졌다. 이 때 정해진 시외통화와 호출 요금표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시외전화 및 호출요금표

호출지	전화요금	호출요금	호출지	전화요금	호출요금	호출지	전화요금	호출요금
京 城	20전	10전	仁 川	20전	10전	龍 山	20전	10전
永登浦	20전	10전	麻 浦	20전	10전	天 安	30전	15전
成 歡	20전	10전	溫泉里	30전	15전	延 安	50전	25전
海 州	60전	30전	春 川	40전	20전	稷 山	30전	15전
平 壤	80전	80전						

세월이 흘러 한일합방 1년 전인 1909년 2월 1일, 수원-온천리(지금의 온양)간에 1구간 시외전화선이 가설되고, 같은 해 9월 1일 수원역전우편소에서 장거리 전화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한일합방이 된지 2년 째가 되는 1912년 12월 11일 오산우편소에서 전신 · 전화 업무를 취급하게 되고, 1918년 11월 11일 남양우편소에서 역시 전화 · 전신 업무를 취급했다. 1920년 4월 초하루부터 특설전화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원의 지급(至急) 개통제의 전화가설료가 100원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돈 100원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화는 부의 상징이었다.

같은 해 수원-경성간에 1구간의 시외전화가 증설되고, 수원-천안간에도 전화선이 가설됐다. 1924년 12월의 한달간 시외통화 건수는 1일 평균 발신 46건, 착신 62건으로 예전에 비하면 시외전화 통화가 크게 늘어났다. 1928년 3월 16일 발안우편소에서 전화 업무를 하게 되고, 1930년 10월 7일 수원-대구간 통화가 시작되었다. 1932년 12월 2일에는 수원과 인천간의 직통전호가 가설 돼 교환대를 거치지 않고 통화할 수 있었다. 1935년 7월 6일 오산 시내전화가 개통되고, 오산우편소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1개 면에 시내전화가 가설된 것은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같은 해 10월 초하루 남양우편소에서 전화 교환 업무가 시작돼 전화 불모지대이던 해안지역에 전화문화가 전파되었다. 1938년 12월 6일 조암리에 전화가 들어가고, 1939년 2월 18일 사강우편소에서 전화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해 수원과 오산 등지의 전화가설 요금이 1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1920년 100원이던 가설 요금에 비하면 배가까이 오른 것이다. 잰걸음으로 24년 동안의 수원지방 전화사정을 알아보았으나, 정보화시대의 오늘과는 격차가 너무 커 격세지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1949년까지는 분단된 북한지역과도 통화

수원에서, 안방 차지를 하고 있었던 전화가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40년 4월의 일이다. 이름하여 '공중전화'인데 수원에서 최초로 개인전화가 가설된 것이 1903년 3월이었으니까 안방에서 길거리로 나오는데 37년이나 걸린 셈이다. 수원 최초의 공중전화는 수원역전에 설치되어 왕래하는 시민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부터 전화의 대중화시대가 열린 셈이지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이 되는 1945년 시점에서 수원의 전화가입자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이 역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당시의 전화사정을 짐작케하는 자료가 하나 있다. 그것은 1949년 8월 1일 〈京鄕新聞〉 수원지사가 발행한 《躍進水原案內》라는 자그마한 책자다. 이 책자 부록에 수원시내 전화번호 안내가 들어있다. 여기에 등재된 전화가입자는 236명이다. 아다시피 1945년 광복이 되고나서, 곧바로 미군정이 시작돼 남한을 통치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우리 진영은 좌·우익의 사상 논쟁으로 세월 가는 줄 몰랐고, 미군정 당국은 우리나라 건설이나 민생을 위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전화만해도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때

문에 1949년 당시의 전화가입자와 왜정 말기와는 4년의 시차가 있었지만 가입자수는 대동소이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전화안내 책자에는 아주 흥미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949년 당시만 해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화 통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9월 9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남북 분단이 시작되었는 데도 전화만은 끊기지 않고 있었으니 조금은 놀라운 일이고, 달리 말하면 아주 멋진 일이었다.

또 하나는 국내의 시외통화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전화설비가 낙후되어 있었다는 증거다. 참고 삼아 통화가 가능했던 지역명과 1통화당 전화요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전화 가능한 지역과 전화요금

지역명	통화료	지역명	통화료	지역명	통화료
海 州	72원	延 安	72원	開 城	64원
長 湍	56원	釜 山	120원	光 州	105원
大 邱	88원	春 川	64원	忠 州	64원
大 田	64원	汶 山	56원	公 州	56원
溫 陽	56원	天 安	46원	仁 川	40원
議政府	90원	平 澤	40원	서 울	40원
安 養	32원	發 安	32원	烏 山	24원



1898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치되었던 전화교환기와 망건을 쓴 교환수들



구한말 때의 郵政司 우편배달부. 긴담배대와 초립이 인상적이다.



1920년 당시의 일제하 수원우체국, 1895년 9월 28일 설치된 한성우체사 수원지사가 전신이다.

기상천외한 月·月·火·水·木·金·金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탄압, 회유를 거듭하던 일제는 소위 대동아전쟁 발발 1년 전인 1940년부터 정치·사회·경제·문화 측면에서 광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눈에 띈 것이 각종 제도와 법률의 제정과 공포인데 그 어느 하나도 전쟁 대비용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표적인 것만 열거해도 열손가락으론 헤아릴 수 없다. 1940년 2월 11일 創氏改名, 동년 8월 10일 〈朝鮮日報〉〈東亞日報〉 폐간, 동년 10월 9일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조직, 1941년 2월 12일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공포, 동년 3월 국방보안법 공포, 동년 3월 31일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 동년 5월 무역통제령 공포, 동년 6월 각급 학교 학생 연중 근로봉사 실시, 동년 8월 금속회수령 발표, 동년 11월 28일 16~40세 남자에 대한 국민등록 실시, 동년 12월 9일 대미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른다. 창씨개명은 반만년 역사를 살아온 조선 배달 민족의 자존심이자 명예인 성씨를 일본식으로 새로 만들고(創氏), 이름 역시 일본식으로 바꾸라(改名)는 전대미문의 폭거였다. 그런데 이를 고무 찬양한 인사가 소설가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였다. 그는 가야마미찌로오(香山光郎)라고 이름과 성을 바꾸었다.

머리카락이 길거나 거동이 수상하다 싶으면 사상범으로 몰아 감옥에 쳐넣었고,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면서 황국신민 교육이 시작되었다. 모든 학생들은 연중 근로봉사에 끌려다녔고, 반나절을 쉬는 토요일과 온날을 쉬는 일요일을 없애고 '月·月·火·水·木·金·金'이라는 기상천외한 요일제도를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무한노동을 강요했다.

1941년 12월 8일 전쟁이 시작되자, 1942년 2월 20일 식량관리법 공포, 동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사건 관련 인사 투옥, 동년 12월 청년특별연성소 입소식 거행, 1943년 10월 20일 조선학병제 실시, 1944년 1월 전국 석간지 폐지, 동년 2월 징용제 실시, 동년 8월 23일 여자정신대 근무령 공포, 1945년 2월 전후건설단 조직, 동년 4월 주요도시 소개령 공포로 이어졌다. 결국 12세에서 40세까지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전쟁터로 끌려가 일본 군인의 성의 제물이 됐다. 징병을 모면한 중장년의 남성들은 징용 당해 일본과 사할린의 탄광으

로 끌려가 죽는 것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강제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마디로 일제 말기인 4~5년 간은 생존의 의미를 상실한 지옥생활 그 자체였다. 이번 마당에서는 앞에서 매거한 민족 수난 가운데 수원읍에서 벌어졌던 일제치하의 악몽, 달리 말하면 수원읍민이 몸소 겪었던 치욕적 과거사 한 두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40년 8월 27일 경기도는 동력용 연료와 관련하여 폭탄적인 경고를 발령했다.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표된 경고문의 내용은 '모든 자가용 자동차는 물론 영업용 차량도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체의 운행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전쟁 임박하자 심야 자동차 운행금지령

194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는 미미하고 어설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왕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고, 일반 시민들로서도 세월이 나아지기는 커녕 나빠지고 있다는 어두운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다. 발표 이틀 뒤인 1940년 8월 29일자 〈京城日報〉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까닭에 논조 자체가 친일적일 수밖에 없었다.

> 가솔린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성부내(일제 때는 서울도 경기도 관할이었다)는 물론 전국적으로 교통지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근간에는 화류계, 흥행장, 경마장, 연애, 도박행각 등의 오락과 향락 방면의 자동차 사용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더구나 심야의 돌발적인 병원행 등은 업자들의 외면으로 불행을 감수해야하는 사태가 적지 않다. 전시 일본이 가솔린의 부족으로 고뇌하고 있는 이 때 후방 국민들의 생활이 이래도 좋은 것일까.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드디어 보도(寶刀)를 뽑아 들고, 악질적인 폐해를 일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의 아래 향락에 이용하는 일체의 차량을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 경찰부장 이름으로 발표된 경고는 금후 수시로 부내의 각 경찰서 별로 또는 정동연맹(精動聯盟)의 엄중한 감시와 취체를 통해 행선지 등을 조사 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 자가용(관공서용 포함)이든 영업용이든을 불문하고, 화류계, 흥행장, 경마장 등의 오락 방면의 왕복은 물론 유람용(관광버스 포함) 등 불요불급한 자동차의

사용을 금한다.

◇ 자동차 영업자는 위 행위를 목적으로하는 구차(求車:사용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이에는 영업하지 말 것. 단 구급환자, 기차역의 열차 발차시 송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은 가솔린 국책상 필수적인 것이므로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반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쯤되면 일제하, 그것도 전쟁을 준비 중이던 1940년 초의 에너지 사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만 하다. 이 같은 가솔린 소비억제 조치가 발표되고 나서, 시중에는 "가솔린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다"라는 야유 섞인 말이 생겨났고, 뒤 이어 술이 통제되었을 때는 "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다"로 바뀌어 주당 간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경기도 경찰부장의 엄명이 있고 나서, 수원읍에서도 자가용과 영업용의 유흥성 운행이 금지되고, 경찰의 감시 감독이 강화되자, 업계의 불평불만은 자자했지만 감히 어기는 자는 없었다.

총독부 앞재비 '精動聯'의 신체제주간

앞에서 반휴제(半休制) 반납으로, '月·月·火·水·木·金·金'이란 기상천외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는데 이같은 요일 개념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니고서는 상상 조차할 수 없었던 일이다. 단숨에 끝내려던 미국과의 전쟁이 장기화 되고, 전세마저 불리해지자 조선총독부는 후방 국민의 결속을 강화할 목적으로 벼라별 억지 짓을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소위 국민정신총동원연맹(國民精神總動員聯盟)이란 관변단체를 급조한 일이다. 정총련은 1940년 10월 시·군 조직을 끝내자, 곧 바로 실천에 들어 갔는데 수원읍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경찰은 이 운동에 반대하거나 태만히 하는 반동을 막기 위해 암암리에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총연을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그렇다면 제1일부터 제7일까지 1주일 동안에 걸쳐 실시된 말도 안되는 '억지강요'의 내용은 어떠했을까.

◇ 제1일. 감사의 날로써 7시 싸이렌이 불면 궁성(宮城) 참배를 하고, 정오 싸이렌이 울리면 묵념을 하는 일방 반듯이 신궁(神宮)이나 신사(神社) 참배를 결행하라.

◇ 제2일. 국어의 날로써 일체 외국어(우리 말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거리의 외래어 사용 간판을 조사하는 일방 불순한 외국 사상을 배척하는 대강연회 등을 개최하라.

◇ 제3일. 체육의 날로써 관공서, 공장, 회사, 은행은 물론 상점의 종사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라디오 체조, 그밖의 체조와 운동을 함으로써 발랄하고 건강해지도록 하라.

◇ 제4일. 도보(徒步)의 날로써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도보 30분을 해야한다. 관청, 회사의 출근은 말할 것도 없이, 등·하교 때에도 도보로 해야하고 고관들도 이날만은 자동차 출·퇴근을 금한다.

◇ 제5일. 근로와 청소의 날로써 아침 6시 싸이렌에 맞춰 모든 시민은 기상해야 하며 기상 후에는 즉시 근로작업을 하고, 관청·은행·회사·공장에서는 합동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제6일. 절약의 날로써 연회(宴會)의 억제, 회식금지, 마작이나 화투놀이 금지, 남자의 장발금지, 관혼상제의 간소화는 물론 여성의 반지, 하이힐, 괴상한 모자, 퍼머, 입술 연지, 분칠, 화려한 옷 등 사치를 금지하며 각자가 반성하여 시국에 알맞는 행색을 갖춰라.

◇ 제7일. 저축의 날로써 전체 수입의 4분의 3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반듯이 저축하라.

1940년 6월 1일에 실시된 설탕 전표제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면서 어불성설이었다. 강압에 못이겨 신사나 신궁 참배는 했지만 아마데라스오미가미(天照大神)나 천황에게 충성을 다짐했을 리는 없고, 외국어를 쓰지 말란다고 해서 우리 말을 안 썼을 리 없다. 도보의 날에 30분은 의무적으로 걸어라했는데 먼길을 가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이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어찌하란 말인가. 근로의 날이라며 너나 없이 새벽 6시에 기상하도록 한 것은 취침의 자유마저 빼앗는 것으로 그야말로 사생활 침해요, 인권 약탈이 아닐 수 없었다. 절약의 날이라며 남녀 모두에게 검약을 강요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인간의 행복권을 송두리 째 박탈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신동아 건설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일제의 전쟁 대비는 시민경제면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통제경제의 도입이고, 그 실천방법이 배급제(配給制) 실시였다. 수원에서는 1940년 6월 1일부터 단행한 설탕 전표제가 그 효시였다. 말이 전표제이지, 수원읍에서 발행한 전표없이는 설탕을 살 수 없었으니까 배급제와 다를 것이 없었다.

수원읍은 설탕 전표제를 실시하면서 매산제면소(梅山製麵所)·금덕상회(金德商會)·금택제과점(金澤製菓店)·화춘제과점(華春製菓店) 등 네군데를 지정하고, 배급량을 1세대당 1개월에 1근(600g)으로 제한했다. 동년 8월 12일에는 수원군청 회의실에서 설탕배급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군수가 감독권을 갖도록 한 내용의 규약을 통과시켰다.

또 동년 7월 1일부터는 면포(綿布) 전표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振興商會·大榮商會·三和商會·興信商會·水原婦人商會·義昌商會·三友商會·洪商會·華潤商會·順昌商店·德潤商會·新興商會·民衆商會·廣成商會·梅橋商店·福商店·大昌商會·廣興商店 등 18개 소를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배급량은 1인당 1년에 4마(碼)로 제한했다. 1년에 4마의 광목으로 무슨 옷을 짓고, 침구를 만들어 썼을지는 보지 않고서도 짐작할 만하다. 인간생활의 3대 요소인 衣·食·住가 하나 둘씩 무너지는 시기가 바로 이 때였다.

전시경제의 하수역이 된 '어용조합'

앞의 마당에서 전시하의 전표제(傳票制) 얘기를 하면서 1940년 7월 1일부터 수원읍에서 실시한 면포(綿布) 전표제에 관해 언급한 바가 있었다. 연로한 독자들은 이해하겠지만 1940년대의 우리의 복식·침구 문화는 매우 열악했다.

이미 생산이 제한되고 설혹 생산한다해도 군수품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암거래가 성행하고, 경제경찰의 밀거래 단속과 취체가 강화되었다. 절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포목만이 아니었다. 쌀을 비롯한 식량,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땔감, 일상적으로 써야하는 일용잡화에 이르기까지 넉넉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활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발이 필요한 데 그 신발 공급이 되지 않아 기워 신거나 고쳐 신기 일수였고, 그 것 조차 어려우면 너덜대는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초라한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이런 차에 1940년 11월 경기도는 수원읍을 비롯한 도내 부·군에 고무신 배급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년 11월 14일자 〈京城日報〉는 '자아 나온다 고무신'이란 제목으로 고무신 배급 사실을 보도했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신발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던 도민들로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하나 고무신 배급이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의 배급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배급 조건은 대충 이러했다. 배급 대상자는 도내에 소재한 방적(紡績), 유산(硫酸)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 등 근로자, 후방치안과 공작을 담당하는 방위단(防衛團), 청년단, 농업학교 학생, 여학생, 소학생(초등 학생)에 국한하고, 배급량은 37만 2000켤레였다. 종류별로는 조선화(朝鮮靴) 4만 6800켤레, 편상화(編上靴) 2만 2700켤레, 조선포화(朝鮮布靴) 3만 6400켤레, 운동화 20만 4000켤레, 지카다비(일본인이 신는 쪽바리 구두) 5만 2800켤레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인의 정서와는 딴판인 지키다비가 조선화나 편상화보다 상대적으로 수량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배급도 현업관청이나 광산 종업원 신발은 조선총독부가 직접 배급하고, 일반 신발만 소매조합을 통해 판매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일손만 바빴을 뿐 장사 재미는 보지 못했다.

통제 위해 組合 급조, 4명 짜리 조합도

각종 물자에 대한 배급제가 실시되면서 생겨난 것이 또 하나있다. 다름아닌 각급 조합의 통폐합과 신설이었다. 우선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까지 35년 동안 수원읍에 설치되었던 각급 조합의 이모저모를 열거함으로써 후일의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다.

수원읍내의 각급 조합 이모저모

組 合 名	組合長	位 置	組合員數
水原木炭配給組合	宮崎末松	水原郡廳 內	9
水原接客業組合	笹田 淸	水原邑 新豊町 285	46
水原邑氷菓子빵製造業者組合	高木德治	水原邑 本町 2丁目	49
水原시멘트加工業組合	柴田正一	水原邑 梅山町 2丁目 77	6
水原陶磁器家庭器具組合	副島儀一	水原邑 本町 4丁目 42	15
水原郡金物小賣商組合	江守一太郎	水原邑 梅山町 2丁目 32	5
水原燐寸第2次店組合	安原鶴允	水原邑 本町 1丁目 3	63
水原自動車商工組合	鬼追末次郎	水原邑 梅山町 2丁目	5
水原朝鮮人飮食店營業者組合	秋田一夫	水原邑 新豊町 258	84
水原旣成服商組合	玉川富也	水原邑 本町 2丁目 7	31
水原藥業組合	今中寬正	水原邑 本町 3丁目 76	32
水原靑果御商組合	原口喜一	水原邑 梅山町 67	6
水原製麵業組合	飯田末次	水原邑 本町 3丁目 49	18
水原邑糧穀配給組合	淺野榮次郎	水原邑 本町 1丁目	52
水原郡糧穀配給組合	德弘國太郎	水原郡廳 內	71
水原鐵加工組合	吉本大男	水原邑 本町 4丁目 91	71
水原家具商工組合	金東奎	水原邑 本町 2丁目	26
水原海産物靑果組合	林白圭	水原邑 榮町	28
水原履物小賣組合	加茂孫四郎	水原邑	60

組 合 名	組合長	位 置	組合員數
水原邑製菓業組合	松山貴成	水原邑 本町 4丁目 9	12
水原生魚介塩干魚小賣商組合	順安宣友	水原邑 榮町 49	35
水原牛馬車運搬統制組合	新井威五郎	水原邑 梅山町 1丁目 19	169
水原邑合同精米業組合	金應德	水原邑 梅山町 1丁目 90	24
水原郡肥料配給統制組合	西澤賢愛	水原郡廳 內	24
水原郡木材販賣統制組合	洪思勛	水原邑 仁溪町 762-13	59
水原郡生必品小賣商組合	三和基成	水原邑 本町 1丁目 91	230
水原邑石炭販賣組合	坂手芳夫	水原邑 梅山町 1丁目	4
水原미싱商工組合	松山 淸	水原邑 本町 2丁目	8
水原洗染業組合	松岡正義	水原邑 梅山町 1丁目	7
水原石油荷受組合	朝原宗良	水原邑 榮町	20
水原獸肉商組合	富原長伸	水原邑 南水町	9
水原鐵物行商組合	三和基成	水原邑 榮町 15	64
水原左官請負業組合	末益喜平	水原邑 宮町	57
水原理髮營業組合	桑田善周	水原邑 新豊町	55
水原飯食店業組合	星本正一	水原邑 梅山町 3丁目	543
水原朝鮮酒販賣業組合	北倉觀豊	水原邑 梅山町 3丁目	397
水原酒類販賣接客業組合	笹田 淸	水原邑 梅山町 3丁目	45
水原非朝鮮酒販賣業組合	洪吉善	水原邑 梅山町 3丁目	335
水原地區酒類配給組合	溝上太久馬	水原邑 梅山町 3丁目	4
水原非朝鮮酒御業組合	溝上太久馬	水原邑 梅山町 3丁目	16
水原製飴製菓業組合	三谷幸三	水原邑 本町 2丁目	-
水原靑果小賣商組合	中川永浩	水原邑 榮町	170
水原履物修繕組合	金龍瑞	水原邑 南水町 86	13

이 밖에 수원읍에는 1개의 도 단위 조합과 각 1개 씩의 협의회 그리고 지부가 있었다.

組 合 名	組合長	位 置	組合員數
京畿道洋服商業組合	吉浦大作	水原邑 梅山町 2丁目 15	17
京畿道製靴業水原支部	廣村宗良	水原邑 榮町	30
水原邑氷菓子빙製造業者組合	洪原 茂	水原邑 本町 3丁目	7

대개의 조합들은 1940년 이후 개편되거나 조직 자체를 개조했으며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들이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크게 바뀌었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조합을 조합 기능에 맞추기보다 상명하달과 어용화(御用化)의 기구로 삼은 일이다. 그러다보니까 조합까지 둘 필요가 없는 업자들까지 끌어모아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예가 '수원우마차운반통제조합'이다. 당시의 우마차 운반이란 부탁 받은 화물을 철도역으로 싣고 가거나, 철도편으로 탁송된 중·소 화물을 싣고 갈 때와 이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고작인데 조합까지 말들어 통제하였으니, 그들의 조선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만 하다.

조합원 수도 마찬가지였다. 수원석탄판매조합과 수원지구주류배급조합은 회원이 4명, 수원읍목탄배급조합 등 8개 조합은 10명에 미달했다. 반면에 수원조선주판매업조합은 조합원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음식점업조합은 343명으로 두 번째, 수원비조선주판매조합은 335명으로 세 번째였다. 예나 지금이나 당장에 먹고 살기에는 음식과 술장사가 손 쉬었음을 알 수 있다.

지겨운 배급제, 그나마 모자라는 식량

경기도와 수원읍이 별의별 조합을 만들면서까지 통제경제를 강화해 나갔지만 전시체제하의 국민경제는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될 뿐이었다. 원자재 수입이 거의 되지 않는데다 생산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시중의 물자는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시키는 1차 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농민들이 주식인 쌀과 잡곡을 애써 생산한다 하더라도, 소위 공출제(供出制)라는 강제 수탈 방식으로 식량을 빼앗아 군량미로 빼돌리는 바람에 미곡시장은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수원읍은 3만 5000명에 달하는 읍민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1939년 11월 1일 '수원정미업하수조합'(水原精米業荷受組合)이란 것을 결성했다. 이날 하오 1시 수원군청 회의실에서 소집된 총회에는 25명의 관내 업자가 참석했고, 수원군수 허 섭(許 燮)까지 나와 업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을 선출한 후 식량배급제 실시에 따른 선후대책을 협의했는데 그 골자는 조합의 규약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과 만약 위반할 때는 500원의 벌금을 물리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1940년 2월 9일에는 역시 수원군청 회의실에서 80여 명의 소매상인이 참석한 가

운데 '수원군식량배급조합'(水原郡食糧配給組合) 창립총회가 열렸다. 군수 허 섭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총 자본금을 10만원으로 하되, 소매상은 가입금 1구좌에 500원씩 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식량배급조합이 설립되면서 전해(1938)에 설립되었던 '수원정미업하수조합'은 해산되었다.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배급미의 질(質) 문제가 대두되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당시 배급조합이 공급하는 백미는 7분도였는데 업자들은 양(量)을 늘리기 위해 3분도가 될까 말까한 저질미를 유통시켰다.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당국에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여론이 나빠지자 수원곡물검사소는 1940년 2월 15일부터 도정 검사를 강화하면서 7분도에 미달하는 쌀의 유통을 단속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원식량배급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경기도에서는 잡곡 2만 6000석, 반미콩(黑太) 3000석을 특별 배급했고, 조합에서는 동년 1월 28일부터 7분도 쌀 1말에 흰보리 3되를 섞어 팔았는데 흰보리 1되 값은 34전 2리였다. 아무튼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던 일제는 전쟁 승리의 관건이 민생안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식량정책에 역점을 두었지만 뜻대로 된 것은 거의 없었다. 1940년 10월 29일에는 수원군미곡조합을 해산하고, '수원읍양곡배급조합'을 새로 설립하기에 이르는데 이 모든 '헤쳐', '모여'는 식량문제가 그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다는 증거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원읍장 우메하라(梅原), 군(郡) 권업과장 마쯔오카(松岡), 수원경찰서 공동주임 나까가와(中川) 등이 참석했는데 수원읍장 우메하라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적지 않은 부자유가 있었지만 다행히 오늘날까지 원만한 배급이 이루어진 것은 군(郡)과 경찰의 지도와 배급조합 관계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올해의 식량문제는 한층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후는 읍배급조합을 중심으로 공평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끝나는 듯하였으나 뜻밖으로 가벼운 반란이 있었다. 즉 전 조합장이던 데라지와(寺澤)가 "우리 조합은 지난해 식량 궁핍 때 군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조직한 이래 오늘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조합을 만들면서 우리 조합에는 아무런 통고도 없었다. 우리는 새 조합 설치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무시 당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고 불평을 토로했던 것이다. 회의장은 술렁댔고, 의장인 읍장 우메하라는 정회를 선포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총회는 조합의 해산권을 읍장에게 부여하고, 각정(각동)마다 1~2개 소의 배급 점포를 두되, 전체 읍내에 45개 점포가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상권을 둘러싼 수원 최초의 신여 시위

생존경쟁은 동서고금의 필연이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로 갈릴 수밖에 없는 데도 경쟁 당사자들은 늘 승자이기를 바란다. 1931년 봄 수원에서는 상인단체와 소비자단체 간에 벌어진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1930년대의 수원군 인구는 16만명 안팎으로, 수원읍 인구래야 1만 4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10년 8월 한일합방 이후 물밀 듯이 조선으로 유입한 일본인들이 '미래의 고장' 수원을 간과했을리 없다. 이미 1932년 수원군에는 858세대 3285명의 일본인이 이주한 상태인데 이들 대부분은 수원군의 군청 소재지이면서 경제·교통의 중심지인 수원읍에 정착했고, 극소수가 지금의 화성시로 분산되었다. 일본인 이주자 수를 수원읍민 대비로 하면 23.4%에 달하는데 이것은 인구 100명 가운데 24명이 일본인인 셈이다.

그야말로 수원은 일본인들의 낙원이었다. 이토록 일본인 이주자가 많아지면서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름아닌 '수원소비조합'이었다. 이들은 조합의 조직 정비를 마치자, 수원의 기존 상인을 상대로 소비자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운동이 워낙 조직적인데다 압력이 지나쳐 기존 상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화가 난 상인들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자구 노력을 모색하던 끝에 '수원소매상연맹'을 조직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식으로 생존권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우선 연맹측은 수원 상인을 위협하는 소비조합의 존재가 불법인데다 월권이라면서 수차에 걸쳐 수원군과 경기도 및 조선총독부에 조합의 해체를 진정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연맹측 진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측 행동을 정당시 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참다 못한 연맹측은 같은 해 10월 17일 조합과의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 아래 집단 행동을 결행했다. 그런데 한가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연맹에는 일본 상인들이 다수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주도세력이 일본인들이었다. 연맹 회원들은 수원에서 가장 큰 신여(神輿)를 끌어내다 어깨에 메고 요새 말로하면 대대적인 가두 시위를 벌인 것이다. 신여는 종묘제례(宗廟祭禮) 때 쓰는 영여(靈輿)

를 말하는데 민간에서는 상여(喪輿)라고 불렀다. 신여가 되었던 상여가 되었던 죽은 송장을 묘지까지 실어 나르는 도구임에 틀림없으니, 이날의 신여 시위야말로 파격적이기도 했거니와 상징성이 매우 공포적이었다. 아무튼 수원에서의 공개적인 상여 시위는 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신여 시위는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조합 해체하라"를 연호하며 행진하던 신여 시위대가 때마침 조합 사무실 앞에 다달았는데 이 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즉 일부 과격파 연맹원이 소비조합 사무실 유리창 대여섯장을 깨어 버린 것이다. 진상 조사에 나선 경찰은 연맹측 관계자인 와다나베(渡邊) 등 5명에게 20원씩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연맹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1932년 2월 3일 오전 11시, 구로자와(黑澤) 판사 주심 데라다(寺田) 검사 관여 아래 1차 공판을 열었다. 사실 심문과 증인 심문이 끝나자, 담당 변호사 데라다(寺田)는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와다나베(渡邊), 야스다(安田), 오오다(多田) 등 4명의 피고인에게 20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가와데(川手), 오오노(大野)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는 조선인도 가담하였는데 일본인 주모자만 처벌한 점이 색달랐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밥그릇 싸움에는 국적이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 준 일이었다.

상공인 등쳐 생색낸 인보사업

1940년 12월 17일 하오 2시. 수원읍 회의실에서는 수원군수 우메하라(梅原), 수원경찰서장, 시내 국민학교 교장, 각 신문사 지국장, 각 정(町)의 정장 및 구장(區長), 방면위원(方面委員)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련의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동안을 소위 동정주간(同情週間)으로 정하고, 연말에 즈음해서 '인보사업'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96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불우이웃돕기운동'과 흡사한 것인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동정주간 행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비용)을 읍내 상공인들에게 떠맡기고, 생색은 관(官)이 내면서 이른 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선양했다는 사실이다. 속된 말로하면 '손 안대고 코 풀기'요, '남의 삽바로 씨름'하는 꼴이었다. 당시만해도 생필품 배급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내 경제와 경기가 극히 악화된 상태여서 뒷돈을 대야하는 상공인들로서는 썩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상

공인은 관에 약한 속성 때문에 정면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날 협의회가 정한 소위 동정주간 실천방안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이웃돕기가 식민지화를 겨냥한 철저한 정략적 계략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25일 아침 10시 수원신사(水原神社) 앞에서 관공서, 회사, 은행 직원, 학생, 일반 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은감사식전(聖恩感謝式典)을 거행할 것. 또 식전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반인과 직장에서는 궁성(宮城) 및 대정천황(大正天皇) 어능(御陵)에 요배(遙拜) 할 것.

둘째, 입간판 및 고지문은 물론 쇼윈도우가 있는 상점에서는 고지 장식을 하고, 정회(町會) 또는 반상회를 개최하여 동정주간의 취지를 알리는 동시에 각 가정에 주지시킬 것.

셋째, 학교·회사·공장·사찰·교회 등에서는 조회 또는 적절한 모임을 가지고 강화(講話)를 실시하며, 시국(時局) 탓으로 혜택을 입은 중소 상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반 요구호자와 군인 유가족들의 생활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할 것.

넷째, 생활 지원은 은혜적 시여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인보상조의 미풍에 따라 세말에 필요한 물품과 금전을 보내되 자립 향상 의식을 높여 줄 것.

다섯째, 전항의 자금(비용) 조성을 위하여 2천원 이상을 일반 및 은행, 회사, 공장, 상인들로부터 기부를 받되 자금의 일부는 후생복지시설 마련에 쓸 것.

주도권 싸움, 수원 운수업계의 명암

이 동정주간 행사의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련 자료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보나마나다. 왜냐하면 일제가 시도한 일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던 탓이다. 필경 2천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공인의 호주머니를 털었을 것이고, 거둬드린 돈은 '성은'이란 미명 아래 일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제국주의 피해자들에게 몇 푼씩 나눠 주었을 것이다.

어느 사회에나 명암은 있게 마련이다.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이 있듯이, 어두운 날이 있으면 밝은 날도 있는데 이 반전은 반복된다. 지긋지긋한 일제 때 수원 운수업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여, 지방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송장을 묘지까지 싫어 나르는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에도 명암은 있었다. 우선 밝은 소식은 1928년 12월 2일 수원에 시내 버스가 등장(개통)한 일이다. 햇수로 따지면 꼭 74년 전의 일이니까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없지 않다. 1928년 12월 6일자 〈東亞日報〉는 수원자동차합자회사가 12월 2일부터 18인승 시내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동사는 수원읍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시내 버스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12월 1일 주문한 버스가 당도하자 2일부터 즉각 운행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수원에 최초의 시내 버스 시대가 열린 셈인데 이 버스의 등장으로 종전의 정기차(定期車) 제도는 없어졌다. 1구간 버스 요금은 15전씩으로 장안문-수원역간, 수원역-권업모범장(현 농촌진흥청) 간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했다.

다음은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이라고 일컫는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주도권 다툼이다. 1928년 6월 7일자 〈東亞日報〉는 '水原聯合의 弊害'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수원합동운수점(水原合同運輸店)의 고객 불친절과 독점사업에 따른 횡포를 비난하면서 시급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전국의 각 역 주변에 난립해 있었던 운송점을 통폐합하는 이른 바 '운합'(運合) 조치를 내렸는데 이 조치에 따라 수원역 주변에 있었던 7~8개의 소규모 운송점을 통합해 설립한 것이 '주식회사 수원합동운송점'이었다.

그런데 운합 덕분에 화물 운송권을 독점하게 된 운합은 영업 태도가 급변하고 말았다. 즉 대하주에게는 고분고분하게 친절을 베풀면서 소하주는 홀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물 수탁료를 종전보다 2배나 더 올려 받는 횡포를 일삼기 시작한 것이다. 뿐 아니라 탁송된 화물의 배달을 까닭없이 지연시키는 등 이용자에게 큰 불편과 불이익을 주었다. 그래서 소화주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운송점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등 암영이 어른 거렸던 것이다.

10전의 다툼, 여공 성폭행까지 파업 백태

노동운동과 파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노동이 있는 곳에 파업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일찍이 발전했던 영국에서도 동맹파업은 공모죄(共謀罪)에 해당한다하여 금지되었으며 민사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등 근로자의 생존투쟁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특히 노동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 그것도 식민지시대의 일제하에서는 동맹파업은 고사하고, 노동운동 자체를 사회주의자의 체제반동으로 간주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했다. 그런데 그 동맹파업이 일제하의 수원에서 있었다. 이번 마당에서는 비록 규모면에서는 작고, 파업의 동기가 매우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사회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냈던 동맹파업의 실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수원자동차공사 임금 인상 파업 1936년 구정(舊正)이 지난지 사흘만인 1월 24일, 수원의 대표적인 택시운송회사인 수원자동차공사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당일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수 8명이 오후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파업 이유는 기업주의 임금 인상 약속 기만행위 규탄이었다. 운전수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당황한 회사측은 임시 운전수 1명을 고용해 영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8명이 하던 일을 1명이 감당할 수는 없었다. 8명의 운전수들은 지난 여름부터 90전씩 받는 일급(日給)을 '1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연말부터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회사측은 연말이 됐는데도 '10전'의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파업과 같은 극단행동을 할 경우 집단해고도 불사하겠다며 위협을 가했다. 이날 파업 때문에 자동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읍민들의 교통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회사측은 운전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파업은 종결되었는데 이 파업은 일제하에서 있은 수원 최초의 공개파업이었다는 점에서 노동사적 의미가 컸다.

문화인쇄소 집단 파업 비슷한 시기에 문화인쇄소에서도 파업이 발생했다. 문화인쇄소


1960년대까지의 인쇄소 문선(文選) 모습. 원고를 보면서 일일이 활자를 뽑아 조판(組版)을 하고, 평판 인쇄기로 인쇄를 했다.

는 수원 굴지의 인쇄소로, 당시(1936년) 동양인쇄합자회사(1928. 1 설립, 朴貞烈), 조일인쇄소(黃等萬), 수원인쇄주식회사(1918. 6. 설립, 香山 弘) 등과 함께 경쟁관계에 있었다. 이 인쇄소에서 일하는 기술자 10명은 구정이 닥치자, 귀성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월급의 일부를 가불해 줄 것을 업주에게 간곡히 요구했는데 업주는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말았다. 공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불해 달라는 것인데 "이럴 수 있느냐"며 화를 내게 되고, 급기야는 동맹파업을 벌이게 이른 것이다. 1936년 1월 26일자 〈東亞日報〉는 이 사실을 보도하게 되고, 인쇄업계는 물론 읍민 간에도 업주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자자했다.

여직공 성폭행에 항의 파업 1930년 우리나라 옷감은 면사(綿絲)로 짜는 광목이나 옥양목이 고작이고, 모직이나 혼방 따위는 특수계층의 전용물이었다. 따라서 일제하의 주요 도시에는 면화(棉花), 제사·직물공장이 많았는데 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원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면화공장은 다름아닌 주식회사 남북면업 수원공장(1935. 3 설립, 朴憲寅)이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기계수로 일하는 여직공을 남자 기관수가 공장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30여 명의 여공들이 추행자 처벌과 향후 안전대책을 요구하면서 전면파업을 벌인 것이다.

사건은 1936년 2월 8일 수원읍 매산리 106번지에 소재한 남북면업 수원공장의 기관수 김모가, 평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주모의 처 정모(26)를 공장 창고로 끌고가 겁탈한데서 비롯됐다. 가해자로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웠다고 생각했겠지만 뜬금없이 소문이 나돌더니 마침내는 진상이 공개되고, 여공들이 일손을 놓고 아우성 치는 동맹파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유부녀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여공들보다 직책상 우위에 있는 기관수였다는 점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았다. 남녀가 공존하는 곳에 성적문제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성에 관한한 극히 보수적이던 당시 상황에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만한 사건이었다. 다급해진 공장측은 "기계를 수리한다"는 구실을 대고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했

고, 경찰에선 가해자를 잡아다 조사를 벌이는 등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이미 일은 '업질러진 물'이었고 파업도 이럭저럭 끝나고 말았다.

물가 오르자 임시 수당 준 미담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파업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업주들이 고용인의 처지를 헤아려 어려운 살림에 보태 쓰라며 임시 수당을 준 아름다운 일도 있었다. 1936년 1월 '일급 10전'의 인상을 거부해 파업을 자초했던 수원자동차회사(1932. 10 설립. 香山 弘)와 화성자동차회사(1929. 7 설립. 金寬鉉), 중앙자동차회사(1926. 3 설립. 宋秉煜) 등 자동차 3사가 1937년 6월 1백여 명에 달하는 종업원에게 "물가가 턱없이 올라 살기 어렵겠다"면서 본봉의 1할(10%)에 해당하는 임시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1937년 6월 6일자 〈東亞日報〉는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임시수당을 준 것은 수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원읍민들도 아름다운 노사관계라며 크게 반겼다.

아름다운 관계도 잠시, 극렬한 태업

물가 앙등에 따른 생활고를 염려하며 임시수당까지 주고 받았던 자동차 3사 가운데 하나인 수원자동차회사에서 직원의 부당해고를 둘러싸고 노사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1937년 7월 3일 수원자동차회사는 전직원이 참석한 조회 석상에서 느닷없이 2명의 운전수와 1명의 차장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허를 찔린 피고용자들은 즉각 자동차 운행을 보이코트하고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종업원들은 사태수습책으로 해고시킨 3명을 즉각 복직시킬 것과 사태를 악화시킨 감독 정모와 차장 감독인 일본인 히다카(日高)의 해직을 요구했는데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런데 나흘 뒤인 7일 회사측이 10여 명의 운전수들을 모아 놓고, 지난 2일 해고시켰던 감독과 차장 감독을 복직시키고 문제가 됐던 2명의 운전수와 1명의 차장을 본디대로 해고시킨다며 말을 바꾸고 말았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돌변하자 회사 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수원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현장에 나와 추이를 감시하기에 이르렀다.

1937년 7월 9일과 11일자 〈東亞日報〉도 태업 소식을 잇따라 보도했고, 읍민들은 노사 양측의 볼썽 사나운 작태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일부 시민은 "읍민을 담보로 한 태업 때문에 입은 피해가 너무 괘씸해서 앞으로는 수원자동차회사의 택시를 타지 않

겠다"고 화를 낼 정도였다. 결국 경찰의 중재로 1주일 이내에 운전수는 전원 복직시키고, 감독은 해고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3일 만에 태업은 끝이 났다.

수원중앙인쇄소 정업 소동 경제가 악화되면서 인쇄소의 운영도 어려워졌다. 1937년 7월 15일 중앙인쇄소는 사전 예고 없이 조업을 중단하고, 직원 가운데 7명을 해고해 버렸다. 해고 당한 직원들은 업주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해고 당하지 않은 나머지 직원들도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동정 태업을 벌였다. 해고된 직원들은 취업 비용과 생활비, 귀향 여비라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장 서모는 "절대로 들어 줄 수 없다"고 맞서 사태가 악화되고 말았다. 1937년 7월 18일자 〈東亞日報〉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촉구했다.

수원 인쇄업자들 양지 배급 진정 수원읍내의 인쇄업자들은 1941년 7월 25일 수원경찰서를 방문하고, 서장 이토오(伊藤)와 면담했다. 인쇄업자들이 경찰서장을 찾아가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이날 방문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방문 이유인 즉 양지(洋紙) 배급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데다 업소까지 난립해 공도(共倒) 우려가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업자들은 서장 면담에 이어 경기도양지배급통제협의회 회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우리 업자들은 비상시 국책에 순응하여 직역봉공(職域奉公)에 정진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면서 전선적(全鮮的)으로 양지 배급이 통제되어 종래에 비해 양이 반감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경영도 어려워졌다. 수원에는 종래 3~4개 소의 인쇄소 밖에 없었는데 근자에 7개 소로 늘어나 경영난이 자심하다. 하지만 직공들의 실업을 막기 위해 갖은 고난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또 다시 2개 소가 개업했고, 또 다른 개업 준비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구업자 가릴 것 없이 양지 배급을 동일하게 한다면 업자의 무모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종내에는 모두가 공멸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1941년 7월 29일자 〈東亞日報〉는 "同業者 續出에 고민"이란 제하의 기사로 인쇄 업계의 어려움을 보도하였으나, 그 뒤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달에 기생 3원, 작부 2원의 혹세

인간이 살아가는데 비용(돈)이 필요하듯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도 돈(재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달 수단은 다르다. 개인은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지만 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갖은 명분과 까닭을 내세워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쓴다.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로 '세금'이고, 그것도 세금을 국민의 의무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번 마당에서는 왜정 때의 水原面 예산과 세금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일제하 행정조직에는 지정면(指定面)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다른 면보다 뭔가가 특별하거나 우수하다는 선택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1923년 당시 전국의 지정면은 41개였다. 지정면은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면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한 끝에 결정하는데 지정면이 되면 인사·재정·행정 등 여러 면에서 차별적 우대를 받았다. 따라서 모든 면들은 지정면이 되기 위해 애썼지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수원면이 그 중심에 있었으니, 이는 좋은 의미든 그렇지 않은 의미든 예사로 보고 넘길 일은 아니었다. 그것도 수원면이, 일찍이 개항장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인천을 제치고, 개성군의 송도면과 함께 경기도에서는 유이(唯二)하게 '지정면'으로 선택되었으니 조금은 놀랄 일이었다. 지정면이 된 데에는 수원면의 행정조직과 운영실적이 우수하다는 전제가 있었겠지만 우수한 면은 우수한 면민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민의 우월성도 인정 받은 셈이었다.

아무튼 1923년도의 수원면 예산은 ·國費 ·地方費 ·面費 ·學校費 ·學校組合費 ·水利組合費 등 12개 항 8개 목으로 대별되었는데 세입 총액은 3만 733원, 세출 역시 같았다. 연도별 예산 총액은 1917년 7434원, 1918년 8509원, 1919년 1만 4271원, 1920년 3만 2317원, 1921년 2만 2355원, 1922년 2만 6033원으로 상승-하강-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출을 위해서는 세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시엔 어떤 세목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메겼을까.

주세원(主稅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비, 지방비, 면비였지만 세금은 '몰수건과 같다'

는 속담 그대로 '짜면 짤수록 나오는 것'이 세금이다. 이 때도 꽤나 짜내기를 했을 것이다. 세금 가운데 소위 '특별부과금'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세금에 해당되는 업종은 물품판매업을 비롯한 57개 종에 달하였는데 藝妓置屋業(기생소개업), 釀造業, 鍛冶業(대장간), 遊戲師匠(6藝를 가르치는 사람) 등 26개 업종은 과세하지 않았다. 과세되는 업종(31개) 가운데서 湯屋業(목욕탕), 洗濯業, 染物業(물감장사), 料理業 등은 연간 수입의 1000/4의 세금을 물렸는데 시쳇말로 '물장사' 세금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물품판매업과 銀行業은 1000/0.5, 製造業, 請負業, 金錢貸付業 및 質屋業(전당포) 등은 1000/1이었다.

하지만 '밤의 꽃'이라 일컫는 妓生은 1인당 월에 3원, 酌婦는 월에 2원,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야 하는 人力車가 1량 당 1년에 3원 50전, 自轉車가 1량 당 1년에 2원, 乘用馬車, 荷積牛馬車가 1년에 5원, 畜犬이 1년에 1두 당 50전, 自動車가 1량 당 1년에 30원으로 자동차가 가장 비쌌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에 3원, 그러니까 1년에 36원을 내는 기생이 있었으니 그들이야말로 '납세왕'이었던 것이다.

이밖에 '잡종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또한 요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給仕人(사환) 1인당 매월 1원, 扇風機(계절세) 1인 1대 3원, 獵銃(계절세) 1인 1자루 3원, 玉突臺(당구) 1년에 30원, 피아노 1년 1대에 15원, 傭人 1년에 1인당 2원, 金庫 3입방척 이상 1년에 2원, 10입장척 이상 1년에 3원, 25입방척 이상 5원, 電柱·木柱·本柱 1년에 3원, 木柱 支柱 1원, 철근콘크리트柱 4원의 세금을 물렸다. 기생이나 예기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환이나 품앗이 일꾼에게까지 세금을 물린 것은 서민기계 보호와 거리가 먼 것으로, 일제판 가렴주구(苛斂誅求)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권농비는 깎고 전시예산은 수천원씩 계상

1943년의 수원읍 일반회계 예산은 39만 1900원이었다. 1923년도의 3만원대 예산에 비하면 무려 13배에 달한다. 물가인상과 화폐가치 변동 등을 감안한다 해도 증액 폭이 너무 컸다. 그런데 이 예산은 내용면에 있어서 예전과 크게 달랐다. 즉 1941년에 소위 '대동아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전쟁을 뒷받침하는 이른 바 전시예산을 짜기 시작한 때문이다. 세출부문 가운데 神社費 170원, 青年訓練費 3251원, 青年特別錬成費 6650원, 國民總力諸施設費 1640원, 防空防護費 5681원 등이 들어 있었다.

신사비는 아마테라스오미가미(天照天神)를 봉안한 곳으로 이 신도(神道)를 통해 조선

인의 종교적 사상적 세뇌를 꾀했던 것이다. 청년훈련에 관련된 예산이나, 국민총력 및 방공방호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전쟁 상대인 미국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강국인가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어용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많았다. 국민총력 수원읍연맹에 2000원(700원 증액), 수원읍경방후원회에 4000원(신설), 부락공동창고 건축보조비로 2000원(신설)을 책정하면서, 전년도에 2000원이던 위생비는 한푼도 없이 삭감하였다. 뿐인가. 요새 말로하면 영농지원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비'는 단돈 4430원 밖에 되지 않았다. 경방후원비가 무려 4000원에 달한 점과 비교하면 먹거리 생산의 중심인 농업 생산을 포기한거나 다름이 없었다. 특히 '미곡생산시설비' 30원, '축산장려비' 30원, '답이작장려비'(이모작)가 150원에 지나지 않았고, 전년도에 894원이던 播種田畜費와 270원이던 肥料奬勵費는 단 한푼도 없이 깎아 버렸다. 한마디로 민생은 뒷전인 채 전쟁지원에만 행정력과 재정력을 총집중한 명백한 증거였다.

이토록 무차별적 과세와 편중 예산을 짜다보니 경제가 악화되고, 돈의 흐름이 나빠지니까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1924년의 경우 地稅 체납액이 278원 43전으로 221명, 所得稅와 銃稅는 체납자가 전무했으나 酒稅 7270원 22전에 389명, 煙草耕作稅 126원 40전에 158명, 地稅附加稅 40원 97전에 102명, 市街地附加稅 34원 89전에 119명, 戶稅 115원 91전에 344명, 家屋稅 397원 64전에 376명, 車輛稅 897원 50전에 423명, 雜種稅割 1659원 75전에 607명, 學校戶別稅組合 8621원 26전에 452명 등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세금은 3663명의 戶別稅割이었고, 2위가 761명의 營業稅, 3위가 607명의 雜種稅割이었다. 급기야는 세금을 못내겠다는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세금을 안내고 배겨난 읍민이 있었을까. 모르긴 해도 빗발치는 독촉과 차압 등살에 못이겨 세금을 냈을 것이다.

송도면과 함께 '지정면', '학교조합'은 전국서 두 번째

세목 가운데 學校費와 學校組合費라는 것이 있었다. 두 가지는 모두 교육을 위한 재정이었으나 학교비는 '보통학교'와 '농업보수학교' 경비로 쓰여지고, 학교조합비는 주로 '소학교' 경비로 쓰여졌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1910년 8월 29일 이전인 동년 5월 31일에 이미 시행되었다. 대부분의 도읍과 농촌의 학교조합은 국치(國

耻) 이후 설립되었는데 어찌 된 까닭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강화학교조합'이 1910년 3월 8일 첫 번째로 설립되고, 수원이 두 번째(5월경으로 추정), 영등포가 6월 9일로 세 번째였다. 특히 京城(서울) 학교조합이 1928년 4월 1일에 설립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경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수원면과 송도면이 전국의 41개 '지정면'에 끼어 있었던 점과 함께 수원은 다른 시·도의 면보다 제도 시행면에서 단연 앞서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 1926년 당시의 학교비와 학교조합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이었다. 따라서 학교비는 조선인만 해당되고, 일본인과 3국인은 해당되지 않았다. 당년의 수원면 학교비는 1호당 2원 29전 5리, 1인당 41전 7리였다. 반면에 학교조합비는 조선인과 3국인은 내지 않고, 일본인들만 냈다. 왜냐하면 신제도의 소학교에는 일본인 자녀들만 다녔기 때문이다. 그들은 1호당 19원 72전 6리, 1인당 5원 5전 8리로 조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였다. 훗날에 와서는 조선인 자녀들도 신제도 소학교에 취학하게 되면서 학교조합비를 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교육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참고로 1923년 당시의 교육현황을 알아보면 면수가 21개면, 학교수(학교비 해당) 10개교, 학급수 56학급, 학생수 3361명이었다. 또 학교조합비에 해당하는 일본인의 총호수는 560호, 인구 2163명, 학생 및 아동수는 359명이었다.

그러면 이쯤에서 당시의 관리들은 봉급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아 보는 것도 흥미거리가 됨직하다. 속된 말로 공무원은 계급과 봉급이 올라 가는 맛에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관리들도 인간이기에 월급에는 상당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인건비 인상을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1943년도의 수원읍 직원은 모두 51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읍장 1명, 부읍장 1명, 서기 25명, 기수 2명, 촉탁 3명(식량배급 조정직 2명, 부인지도 사무직 1명), 용원 12명, 급사 3명, 소사 4명이 전부였다. 이 밖에 일이 생길 때마다 고용하는 임시 용원 연 500명, 임시 용인 연 30명의 인건비까지 합치면 3만 2038원에 달했다. 직급별 급료를 보면 △읍장(연액) 2668원, 연공수당 348원, △부읍장 월 125원 △서기 월 56원 △기수 월 45원 △촉탁 34원에서 42원 △용원 월 34원 △용인 일 1원 41전 △소사 일 1원 20전 △임시용인 일 1원 50전이었다. 읍장의 총 수령액은 서기 총수령액의 4.5배에 달하였는데 실제로 1943년 당시의 '3016원'은 적지 않은 거액이었다. 반면에 길거리 도로에 물을 뿌리는 잡부의 일당은 1원 30전이었으니, 급료의 편차가 어지간하였다. 억울하면 출세할 수 밖에 없었다.

수원상업강습소 돕기에 기생도 한 몫

알려진대로 수원상공회의소는 구한말기인 1908년(순종 2) 4월 15일에 창설되었으므로 올해로써 창립 95년 째가 되는데 창립 당시의 명칭은 수원상업회의소(水原商業會議所)였다. 순수 민족·민간단체인 이 기관은 재수(在水) 상공인들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도 버거운 형편이었지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무산계급의 자녀들을 위해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를 개설한 바 있었다. 주·야간으로 나뉘어 주로 상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비가 저렴한데다 당시 수원지방에서 항일운동의 선봉장으로 이름난 애국 운동가이면서 교사인 金世煥 등이 교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가진 학생들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모여들어, 가장 학생 수가 많았을 때는 수백명에 달하였다.

학생이 늘어나고 교육성과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면서 무명의 상업강습소는 일약 유명세가 붙었다. 문제는 재정난이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강습소 살리기에 앞장 선 것이 다름아닌 당시 동아일보의 金炳浩·高龍成 두 기자였다. 그들은 지면을 통해 강습소의 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민간 강습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원면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재정을 도와야 한다고 여론을 환기시켰다. 드디어 동아일보는 1922년 5월 7일 수원상업강습소 돕기 자선공연을 수원극장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날 공연은 신파극단 혁신단(革新團) 일행의 연극이었다. 공연 소식에 접한 면민들이 운집하면서 극장은 삽시간에 초만원을 이루게 되고, 공연은 성공리에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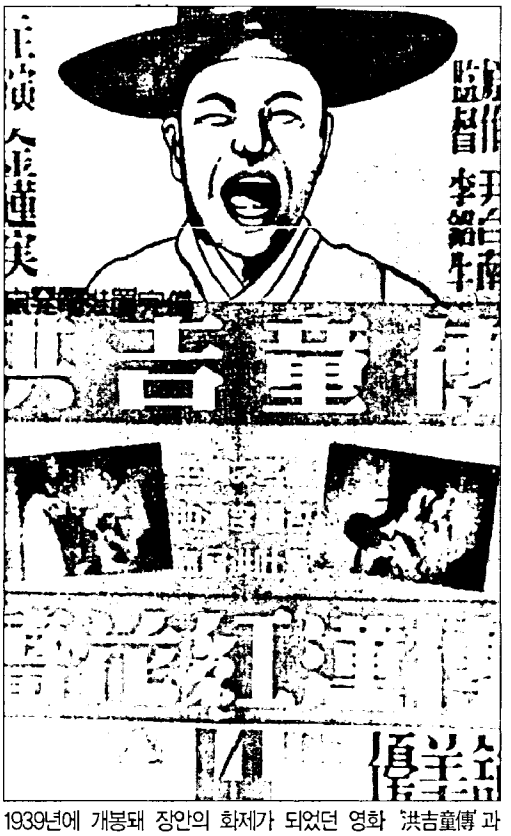
그런데 이날 무대에는 특별한 찬조 출연자가 나타나 관객을 놀라게 했다. 그 주인공은 다름아닌 수원권번(水原券番) 기생들이었다. '밤에 피는 꽃'으로, 뭇 사내들의 간을 빼먹고 산다는 기생들이건만 이날만은 나라의 독립과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는데 너나가 없다며 장기를 한껏 자랑했던 것이다. 수원 기생들은 1919년 3·1운동 때도 수원경찰서 정문 앞에서 종로까지 독립만세를 부르며 가두행진을 벌인적이 있다. 이 때 金杏花·徐桃紅 두 기생이 옥고를 치뤘지만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용감했다. 아무튼 이날 수익금

은 기본 경비를 빼고 115원, 이 돈은 고스란이 강습소에 기탁됐다. 당시 면서기의 월급이 50~6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까지 동석한 강연회

같은 해 7월에는 동아일보 주최로 순회강연 및 위문공연이 수원극장에서 있었다. 일행은 놀랍게도 동아일보 사장 宋鎭禹를 비롯해서 전무 愼九範, 조사부장 金東成 등으로 당시 이들은 민족지도자로, 또는 중진 언론인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수원측 연사로는 항일운동가 金世煥을 필두로 수원출신 서양화가 羅惠錫의 오빠 羅弘錫이 동참했고, 수원의 재원으로 손꼽히는 소프라노 崔載順이 독창을 불러 박수 갈채를 받았다.

역시 같은 해 11월 19일 수원상업강습소에서 강연 및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날 연사로 나선 尹龍熙와 鄭駿和는 앞 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논리정연한 달변으로 청중을 흥분시켰다. 이같은 문화행사 뒤에는 金炳浩와 高龍成 두 기자의 치밀한 섭외와 진행이 있었다. 또 이들이 본사에 송고하는 기사치고 항일 감정이 안 배어 있는 기사는 없었다.


1939년에 개봉돼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영화 '洪吉童傳'과 '장화홍련전'의 포스터

당시의 교회는 단순한 복음 전도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정신적 기지역할도 했다. 그래서 지면에는 교회 소식이 자주 보도되었다. 특히 김병호는 종로교회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 소식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런 일도 했었다. 수학여행 길에 수원을 찾은 학생단체들을 위해 관광 안내를 맡아 수원의 역사를 소개했고, 수원의 명승고적을 담은 그림 엽서를 사비로 만들어 관광객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1924년 5월 28일에는 수원상업갑습소가 화성학원(華城學院)으로 개편되기에 앞서, 수원청년회가 기성회 기금 마련을 위해 소인극 '심청전'(沈淸傳)을 수원극장에서 공연한 바 있었다.

난세에 끼어 드는 것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을 꾀하는 사이비 종교이다. 1925년 수원에서도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름하여 보천교(普天敎)의 등장인데 이런 종교명은 일찍이 들어 본 바도 없고, 알려진 적도 없었다. 그런데 무슨 조화 탓인지 이 무명 종교가 잠시나마 수원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사태의 발단은 李啓尙이란 자가 남수동에 보천교 정교부(正校部)란 간판을 내걸고, 자칭 정교부 부장대리라면서 전도활동을 시작한데서 비롯됐다. 당시의 두발(頭髮)은 까까머리가 아니면 소위 하이칼라 머리였는데 보천교 신자들은 그들 특유의 상투를 틀고 닷새마다 열리는 수원 장날에 수십명씩 나타나 거리를 활보했다.

특별히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작폐를 끼지지는 않았지만 특출한 행동 그 자체가 주위의 시선을 끌었고, 불분명한 교리가 전파되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속칭 '훔치교'라고도 불리운 보천교 신자는 봉담면, 우정면, 음덕면 등지에 가장 많았는데 그 수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자 종교계는 물론 군민들 사이에서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당국에서도 단속의 손길을 뻗치게 되는데 이 때 불길을 당긴 것이 다름아닌 신문이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도하 신문들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그 가운데서도 金炳浩는 '우매한 양민을 상대로 한 사이비 종교로서 우울한 사회문제'라고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다양한 문화행사에 사이비 종교 난타까지

1925년 4월 12일부터 3일 간에 걸쳐 수원실업인협회(水原實業人協會) 주최로 난장판이 벌어졌다. 수원실업인협회는 1915년 7월 15일 공포된 조선상공회의소령(朝鮮商工會議所令)에 따라 1916년 4월(일자 미상) 수원상업회의소가 해산되자, 수원의 실업인들이 창설한 자생단체로, 상공회의소 역할을 대신했다. 이날 행사는 일종의 군민축제로서 흥겹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황소를 상품으로 내세운 장사씨름을 비롯해서 금시계를 상품으로 주는 그네뛰기, 춤과 노래로 흥을 돋으는 기생들의 가무공연까지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답답한 가슴을 열고 여흥에 빠지는 한마당이었다. 같은 해 5월 1일에는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에서 면민위안 원유회가 열리고, 경성방송국(JODK)이 중계방송을 하는 가운데 화성권번 기생들의 가무와 애기씨름대회가 있었다. 洪蘭坡의 '고향의 봄'이 전파를 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역시 같은 해 5월 초순엔 개성의 박연폭포(朴淵

瀑布)를 돌아보는 탑승단(搭乘團)이 구경길에 올랐는데 이 행사는 수원청년회와 수원축구단이 후원했다.

1928년 11월 12일에는 용주사에 불이 나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동아일보는 이 화재사건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 이날 새벽 두 시 반경 수원군 안용면 용주사 부엌 아궁이에서 불이 나서 한 때는 절간 전체를 삼킬 듯한 화마가 충천하다가 불소식을 듣고 달려 온 인근 동민들의 협력으로 아침 6시경 3시간 반만에 진화되었다. 이 불을 맨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 절의 주지 姜大連으로서 그는 금강경을 외우며 절 마당을 돌다가 불난 것을 알았다. 그는 문루(門樓)에 달린 범종(梵鐘)을 난타해서 절 안의 승려와 동구 밖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수백명이 몰려 불을 껐다. 화재 원인은 전날 저녁 6시경, 불공 젯밥을 짓기 위해 장작불을 지폈는데 이 때 불티가 부엌 부뚜막 위에 쌓인 먼지에 비화(飛火)된 것이라 하며 다행이 불길이 본당까지는 옮겨 붙지 않았다. 그러나 불을 끄기 위한 물이 부족하여 장광에 있는 간장 몇 십독까지 쏟아 부었다고 한다. 용주사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부왕(사도세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세운 효심어린 원찰(願刹)로서 33본산의 하나이다.

이 무렵 수원에는 수우회(水友會)라는 여성 씨클이 있었다. 이 씨클은 서울에 있는 근우회(槿友會)와 비슷한 것으로 신여성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써클과 별도로 수원학생친목회가 있었는데 이 친목회는 서울 통학생을 위주로 만들어진 친목단체였다. 두 단체는 기회있을 때마다 공동으로 음악회나 연극 모임 등을 기획·주최하므로써 신시대 문화에 부합되는 계몽활동을 펼쳤다.

1930년 동아일보는 '지방여론에 소(訴)함'이란 제하의 순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수원은 스무번 째로, 그 해 11월 29일 저녁 8시 남문에 있는 영락관(永樂館)에서 洪思先(수원하주운송주식회사 사장), 李秉模(수원종로교회 목사), 申益鉉(수원의원장), 洪長遠(삼일여자보통학교 주임), 崔景煥(수원곡물상조합장), 金炳浩(동아일보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는데 관련기사는 1주일 동안 〈동아일보〉에 연재됐다.

오만한 伊藤博文의 근업모범장 훈사

1905년(광무 9) 11월 17일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내용의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는 순간 조선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전략에 가속도를 부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망국적인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선통감부가 침략사업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농업정책이 수원에서 시작되었다면 의아해 할 독자가 많을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농업정책은 크게 세가지였다. 첫 번째는 토지조사였다. 토지조사는 말 그대로 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니까 국토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할만한 것이다. 문제는 그 목적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및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 잠식의 밑그림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는 식량 및 산업활동의 근본이자 기반인 토지를 초법적 방법으로 수탈한 일이다. 세 번째는 관습적으로 시행해 온 도지제도(賭地制度)를 없애고, 지주로 하여금 소작료를 마음대로 올려 받게 함으로써 농민들을 '생산의 노예'로 삼은 일이다. 소작농들은 도지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조합을 동·리별로 조직하고, 일본식민지 세력에 맞섰지만 법률적 탄압과 지주들의 간교한 책략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1906년 4월 조선통감부에 의해 수원 서둔리 들녘에 세워진 것이 권업모범장(勸農模範場)이었다. 오늘날 농촌진흥청으로 불리우는 이 농사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①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조사와 시험 ② 물산의 조사와 함께 산업상 필요한 물료(物料)의 분석과 감정 ③ 종자(種子) 종묘(種苗) 종금(種禽) 종축(種畜)의 배부 ④ 원잠종(原蠶種)의 제조 및 배부 ⑤ 산업의 기술지도 및 통신.

또 1905년 10월에 제정된 권업모범장 사무분장규정은 ① 위탁시험에 관한 사항 ②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③ 강화에 관한 사항 ④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어느 모로 보나 조선의 농촌근대화에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었다. 그래서 권업모범장의 설립은 국민의 기대를 살만하였다. 그러나 마치 칼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쓰면 식칼이 되고 살상

용으로 쓰여지면 흉기가 되듯이, 연구기관도 운영하기 나름인데 일제는 후자에 정략적 목표를 설정했으니, 속된 말로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다를 것이 없었다.

농사개량이란 미명하의 양두구육

권업모범장 개장식이 있던 날 수원면은 시끌벅적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선에 최초의 농업연구기관이 생기는 데다 조선을 사실상 통치하는 초대 조선통감 이토오히로부미(伊藤博文)가 참석하여 훈사(訓辭)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서둔벌은 황량한 들판에 지나지 않았고, 인적도 드문 시골 그 자체였다. 개장식에는 몇몇 조선의 고위 관료들까지 참석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조·일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통감부와 일본인들의 독무대였다. 먼저 일본 초대 장장인 오다고오스케(大田幸介)가 등단하여 다음과 같은 식사(式辭)를 했다.

"조선 국민의 생활안정에 직결되는 농업진흥은 급선무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제 개량 농업을 모범적으로 전시하여 농민들을 계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제국은 선린국가로서 이웃 조선 발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17여만원이란 일본 자금을 투자해 권업모범장을 설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밝혀 두건대 권업모범장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조선정부에 이관할 것이다."

말은 그럴 듯 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사업방향도 제시했다. ① 이 나라의 농업은 개인 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산 공통의 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손실이 많다. 교통기관의 발달과 함께 기후 토지의 적부를 살펴 적소에 적응 작물을 배치하여 생산력을 증강시킨다. ② 농산물의 종류가 개량되지 않아 산액(産額)이 적고 품질이 낮으므로 이것을 개량한다. ③ 기후와 토질에 맞는 신작물을 수입하여 물산을 증가코저 하는데 신작물을 물산으로 고정함에는 다대한 보관과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으므로 본장(本場)은 그 적부를 고찰한다. ④ 농산물이 풍성하지 못한 원인은 비료의 결핍이므로 그 공급방법을 탐구하고 ⑤ 수리시설이 불안전하여 생산력이 장애되고 불시의 재해로 생산 감소를 일으키므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 ⑥

토지이용의 길이 완전하지 못하여 유용한 방법의 강구로써 생산을 증가한다. ⑦ 가축·가금 및 그 제품에 관한 사업도 그 개량의 여지가 많으니 오랜 세월과 자본이 들어 하루 아침에 성과를 올릴 수 없지만 양계·양돈 개량사업에 선편(先鞭)한다. ⑧ 양잠은 기후 관계상 적지이므로 보급에 철저를 기하면 현저히 증식할 수 있다. ⑨ 농가의 부업은 생산상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의 농업 실상이 그러했을 뿐 아니라 전근대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간파한 그들인지라, 아픈 곳만 골라 찌른 셈이었다. 그러나 보다 위험하고 경계해야할 대목은 조선 농업의 발전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을 하게 되지만 그로써 얻게 되는 열매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 있었다.

이어 조선 초대 통감 이토오히로부미가 등단하여 일장 훈사를 하게 되는데 그 말 속에는 조선과 조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마치 일본이야말로 조선의 구세주인양 장광설을 늘어 놓았다. 때문에 이 훈사는 평가할만한 것도 아니고, 귀담아 들을만한 조언(助言)도 아니다. 하지만 좋고 나쁜 것, 이롭거나 이롭지 않고나를 떠나서 사실을 사실(史實)로 기록한다는 역사의 본질에 따라 그의 훈사를 그대로 옮겨 싣는다.

일본 자랑하며 조선의 무지 꼬집어

"귀부인 각하 및 여러분이, 오늘 권업모범장 개장식을 맞아 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며 이 모범장의 서리는 우리 일본 지도자로서 한국 농업의 개량을 도모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개량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농업은 가장 긴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 농업은 금일의 조선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먼저 국민의 생활상에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선에 필요한 것은 오직 농업 뿐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즉 오늘날 조선의 국민 사정상 생활에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농업의 개량과 증진에 있어서 조금도 착수되어 있는 것이 없는 관계로 이 모범장이 만들어진 이상

은 그것이 하루 속히 조선 농업에 유익한 개량을 베푸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범장을 일본제국의 손으로 만들어 조선에 양도할 것이지만 조선 정부의 관리 특히 지방관들은 이 모범장이 연구를 열심히 하여 조선 농사의 개량과 진보에 유익하게 사용되어 조선 인민을 위한 형태로 장려되어지기를 본관은 마음 속 깊이 바랍니다.

조선을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 각종 사업의 내부에 있어서 이 모범적 농사의 개량은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모범적 사업을 가지고 단지 일종의 무서운 도구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나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조선 정부가 이 가장 긴요한 농사의 개량과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열심인지 아닌지하는 점에서 매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선인의 다수는 농민입니다. 이 다수인 농민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단지 자기 입에 풀칠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기에 급급해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의 힘은 농민에게 아직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단지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해를 주는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중략) 조선인은 무엇보다도 중국 학문의 소양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데 중국에서 농을 국가의 본으로 한다고 옛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으로서 세워지고, 인은 의식(衣食)을 본으로 하고, 의식은 농이 힘써야 하며 의식이 족하면 비로서 예절을 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업·상업·통신 등의 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들의 개량 발달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국산을 늘리고 국민의 부를 키우는 것은 농사입니다.

(중략) 우리 일본의 농사는 와정복고(王政復古) 이전 즉 봉건시대에서도 이미 조선의 현상 보다 크게 앞서 있었으며 명치(明治) 초년 농학교를 설립해서 구미 제국으로부터 농업 교사를 초빙하여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등 농사 개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략) 명치 초년에 쌀 생산이 거의 3천만석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4천만석 내지 4500만석에 이르러 인구 증가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농사 개량 촉진이야말로 대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범장의 박사·학사 및 이에 부수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조선의 농사 개량에 마음을 써서 충분히 노력하여 이 방면에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고, 조선의 지방관 또한 보다 충실하게

이것을 실행한다면 일년내내 춘하추동 순환해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하략)

1910년 8월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에 귀속되었고, 우리나라의 모든 농업분야 시험 및 지도기구가 권업모범장으로 통합되었다. 본장을 수원에 두고 서울 뚝섬의 원예모범장을 원예지장, 같은 해 용산에 잠업지장과 목포에 면작지장, 1913년 선포에 목양(牧羊)지장과 수원에 잠종제조소, 1917년 사리원에 서선(西鮮)지장과 난곡에 목마(牧馬)지장을 두는 등 기구를 늘려 나갔다. 이러한 기구 확장에 따라 1915년 기사 9명, 서기 및 기수를 합쳐 24명이던 것이, 1929년 권업모범장이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고 나서는 기사 14명, 속(屬)이 6명, 기수 30명으로 늘어났다.

돌이켜 보건대 97년 전의 일이다. 광복을 맞아 농촌진흥청으로 변신한 이래 한 때(박정희 군사정권)는 녹색혁명의 본산으로, 오늘날에는 21세기 농촌 정보화시대의 두뇌와 기술의 메카로 부동의 지위에 올라 섰지만 그 찬란한 역사의 뒷면에는 굴욕과 수모의 그늘이 있었으니, 이 또한 역사의 변고라 아니할 수 없다.



1906년 4월 악명높은 초대 조선통감 이토오히로부미(伊藤博文)가 참석한 가운데 개장되었던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오늘날의 농촌진흥청. 원내는 초대 조선통감 이토오히로부미(伊藤博文).

내륙의 식량 수탈철도 '水驪線'

올해로써 우리나라에 철도가 부설된지 104년 째가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京仁線)이다. 경인선은 1899년 9월 18일 개통되었다. 당시의 개통 구간은 노량진과 제물포(인천의 옛 지명)로, 지금의 서울역까지의 구간은 훗날 개통됐다. 이번 마당에서는 지금은 없어진 수여선(水驪線)과 수인선(水仁線)의 내력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수여선의 금석(今昔)부터 더음어 보기로 한다.

1892년, 이미 한국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일본은 고오노덴스이(河野天瑞)를 조선에 파견한다. 그는 일본 정부의 지령에 따라 서울-부산 간의 철도 부설 예정지를 은밀하게 답사하게 된다. 우리 조정은 지켜 보고만 있었다. 고오노가 답사를 마치고 귀국한지 2년 뒤인 1894년 8월 20일,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일잠정합동조관(韓日暫定合同條款)을 체결했다.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경부(京釜), 경인(京仁), 양선의 철도부설권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이것이 근대화의 동맥이면서 기간인 철도부설권을 일본에 넘겨 주는 단초(端初)가 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일본대본영(日本大本營:일본 천황 밑에 두었던 최고의 통수부)의 특명을 받은 철도기사 센니시미쯔쿠(仙石 貢)가 경부·경인 철도 부설 예정지를 정밀 답사하고, 일본의 철도 부설계획은 보다 보완·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계 열강이 이 거대한 이권을 수수방관할리 없었다. 1895년 5월 4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4개 국이 일본의 조선철도 독점에 항의하기에 이르고, 결국 일본은 경인선 부설권을 미국인 모오스에게 내줌으로써 독식을 포기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권 싸움도 잠시, 자금 동원에 실패한 모오스는 적지 않은 대가를 받고, 부설권을 다시 일본에 되돌려 주고 말았다. 결국 일본은 당초의 계획대로 경인선 부설공사를 강행하게 되고,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제물포 구간의 개통식을 가졌다. 오늘날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제정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의 철도부설권을 독점한 일본은 다른 한쪽으로 경부선 부설공사를 서둘렀다. 경부

선을 부설할 때 수원지방민들이 항일 투쟁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반발·방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 마당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1905년 5월 28일 경부선을 개통한데 이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京義線), 마산과 삼랑진 사이의 철도공사에 착수하여 이듬 해 4월에 완공했다. 1914년에 호남선(湖南線), 1928년에 함경선(咸鏡線)을 완성하였고, 1937년에 혜산선(惠山線), 1939년에 평원선(平元線)과 만포선(滿浦線), 1942년에 중앙선(中央線)을 개통,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광궤 철도를 완성했다.

꿩먹고 알먹은 일본의 양면 포석

이에 앞서 조선총독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대어 주면서, 민간 사설 철도회사로 하여금 지선(支線)을 건설하게 했는데 1931년 12월 1일에 수여선, 1937년 8월 6일에 수인선이 개통됐다. 수여선과 수인선은 국내 유일의 협궤 철도인데, 다나카죠오지로오(田中常次郎)가 사장으로 있는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가 부설했다. 일제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여주와 수원 간에 철도를 놓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경기 남부 내륙지방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식량을 일본으로 빼돌리기 위해서였다.

또 한가지 숨겨진 속셈은 서울·인천·부산·원산·수원·개성 등지에 집중되어 있었던 일본인 이주자들을 경기 내륙지방의 중심지인 여주·이천으로 확대 이주시킴으로써 식민지정책을 가속화시키는 일이었다. 일본이 제멋대로 이 나라를 유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 손 놓고 구경하거나, 눈뜨고 당하는 꼴이었으니 절통할 노릇이었다. 경인·경부·경의선 등의 건설을 통해 철도기술을 축적한 일제는 73.4㎞에 이르는 수여선을 힘 안들이고 완성했지만, 난생 처음 기차를 구경하는 여주지방민들의 표정은 그저 놀라움에 차 있었다. 광궤 철도에 비해 몸체가 작은 협궤이긴 했지만 소달구지에 비할 것이 아니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수여선의 정거장은 수원, 동수원(훗날 화성), 원천, (덕곡), 신갈, (어정), 삼가, 용인, (마평), 양지, 제일, 추계, 오천, 표교, 이천, (무촌), (죽량), 매류, (신대), 여주역의 순이었다.

수여선이 개통된지 1년 만인 1932년에 경철(京鐵)이 집계한 영업실적을 보면 여객운임이 28만 6265원, 화물 11만 2662원, 잡수입 3만 1547원 등 43만 461원에 달했다. 개업 1년만의 영업실적 치고는 놀라운 것이었다. 화물의 대부분은 이천·여주에서 생산되는 쌀과



1936년 말에 등장한 최초의 특급 증기관차. 수여선 기관차는 이 보다 훨씬 작고 앙증맞았다.

잡곡이었다. 자채(紫採) 쌀로 유명한 이 지방 쌀은 김포미와 함께 상등미로 꼽았는데 입맛이 간사스럽기로 이름난 일본인들도 혀를 찰 정도였다.

수여선의 화물(곡물) 수송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이곳에서 반출되는 식량은 수원을 거쳐 인천 또는 서울의 미두장(米豆場)으로 몰렸다. 미두장은 현물없이 곡물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오늘날의 선물시장이다. 다시 개통 8년 만인 1939년과 11년 만인 1942년의 영업실적을 보면 수여선이, 일제의 조선 식량 수탈에 얼마나 기여했는 지를 알 수 있다. 먼저 1939년의 경우 여객운임이 29만 4548원(48%), 화물이 27만 6374원(45%), 잡수입 4만 1237원(6%)으로 총수입이 61만 2159원에 달했다. 한편 1942년에는 여객운임 168만 5505원(60.7%), 화물 96만 658원(34.5%), 잡수입 12만 9873원(4.7%)으로 화물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화물수입이 감소한 것은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조선의 식량사정이 악화된 탓이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수여선을 이용한 일제의 식량수탈은 참으로 가공할만한 숫자이며 그 그늘에서 우리 농민들이 당한 고통과 비분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수여선은 하루 수원발 5편, 여주발 4편이었다. 1938년에는 되레 편수가 줄어서, 수원·여주 모두가 4편씩이었다. 역마다 서는 완행이었으므로 운행시간은 2시간 23분이 걸렸다. 수원발 발차시간은 아래와 같았다.

수원발 09시 50분, 여주착 12시 13분
수원발 13시 0분, 여주착 15시 23분
수원발 15시 39분, 여주착 18시 01분
수원발 19시 08분, 여주착 21시 43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전 편은 1편 뿐이고, 3편은 모두 오후였다. 뒤뚱대며 달리는 협궤는 앙증맞아 보이지만 실제로 타는 승객은 낭만을 느꼈다. 고갯길을 넘느라 힘겨워 할 때는 안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다 보니 정시운행을 못할 때가 많았다. 승객들은 불만을 터트리게 되고, 역 당국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932년 7월 29일자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싣고 있다.

장난감 같은 기차, 일화도 많아

'경동철도(京東鐵道)는 교통기관의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간 연착이 부절(不絶)하다. 최초에 어느 정도까지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기타 불비한 점이 있는 것은 용혹무괴(容或無怪)나, 장구한 사일을 허비한 작금에는 유루(遺漏)의 탄(嘆)이 없을만치 제반설비도 정돈되었을 것이며 규칙 엄수에도 완전무결하게 진행될 줄 믿는 바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상을 본다면 연발착은 물론 휴지(休止)하는 사례까지 있으니, 그 책임을 언제까지 감행할 것이냐.'

가끔 운행을 중단하고, 시간을 제대로 안지키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승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11월 5일자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은 개탄조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용인역(龍仁驛)의 화물계가 일반화물이 많다는 구실로, 신문을 내려 줄 수 없다면서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 본사로부터 신문 공급을 받아 독자에게 배달해야하는 지국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화물계의 배짱도 어지간하다. 용인에 내려 놓아야 할 신문을 그대로 싣고 가면 그 신문은 종착역에 가서 찾거나, 다시 수원으로 되돌아 오는 열차 편에 회송해야 하는데 이 짓을 하다보면 신문은 구문이 되고, 독자는 지국에 신문을 끊으라고 야단쳤을 것이다. 신문 배송이 이 지경이다 보니까 일반 화물이나 수화물의 수송도 하자가 많았다.

1937년 12월 초하루부터 1주일 동안은 '수송강조기간'이었다. 그래서 하루 전인 11월 30일에 수원역당국과 철도와 관련있는 업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간담회가 수원에서 열렸다. 주된 참석자들은 수원역 근처의 여관 업자를 비롯해서 창고 업자, 식당 주인, 운송업자와 화주, 수원읍내 유지, 통신 관계자와 수원역장 및 철도사무소 관계자였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문제점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접객업소 종업원의 서비스 지도와 교양을 높이는 일. 둘째 화차의 운용촉진·구내작업의 통제, 화물 적재능력의 향상, 화물중계 범위의 엄수·수부(受付)시간의 합리화. 셋째 화물 취급의 정확·적정한 적재. 넷째 적하작업으로 인한 화차의 지연방지·수하차의 지정운영·인도의 정확 등이었다.

수여선의 모회사인 경동철도는 사업적 야심이 매우 컸다. 그들은 수여선 운행에 그치지 않고, 여주와 원주 간을 잇는 화물자동차 노선과 여주-홍호리 간의 수운(水運), 용인을 기점으로 한 수원·이천·여주·죽산·광주 등지로 연결되는 자동차 영업권까지 독점함으로써 그야말로 이 지역 운송권을 한 손에 장악했다.

또 경동철도는 여주와 점동(占東)간 16㎞의 철도부설권을 1935년 7월 5일 조선총독부로부터 따냈으나, 광복이 될 때까지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제 수여선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지 오래고, 아련한 추억만 남아 있을 뿐이다.

서해안의 수산자원 수탈철도 '水仁線'

수원과 여주를 잇는 수여선(水驪線)을 1931년 12월 1일에 개통시킨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는 6년 뒤인 1937년 8월 6일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水仁線)을 개통시켰다. 수여선 개통이 놀라운 일이었다면 수인선 개통은 전인미답의 경기서부 해안을 단잠에서 깨우는 요란한 사건이었다.

수인선은 수여선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협궤철도로서, 열차의 겉 모양과 구조가 동일했다. 앙증맞게 뒤뚱대며 서해 갯벌을 끼고 달리는 모습은 한폭의 그림과 같았다.

그러나 이 멋스럽고 낭만적인 작은 철마에도 숨겨진 사연은 있었다. 그것은 수여선이 용인·이천·여주지방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입쌀을 일본으로 실어나르는 수송수단이었듯이, 수인선은 수원과 인천을 잇는 서해안 갯벌에서 무진장으로 생산되는 소금(천일염)과 수산물을 인천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리는 중계수송 역할을 했다.

물론 수여선이 전근대적인 경기남부 곡창지대에 근대화의 물꼬를 터주었듯이, 수인선도 경기 서부 해안지대를 근대화시키는데 여러모로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원과 인천 사람들은 수인선 등장에 대해 놀라워하지는 않았다.

첫째 이유는 식민지에 대한 체념이었고, 두 번째는 이미 1899년에 경인선,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되어 어느 정도 철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과 달리, 인천에서는 수인선 부설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있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대충 이렇다. 경동철도주식회사가 수인선 부설허가를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것은 1935년 9월 23일이었다.

허가를 받은 경동철도는 이미 마련해 놓았던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인천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먼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인천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로, 1936년 11월 17일의 일이다. 당시의 동정을 11월 20일자 〈朝鮮商工新聞〉(조선상공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경동철도 제2회 주금 불입문제는 지난번 인천측 주모집위원회에서 논의 비등하여 하는 수 없이 인천측 주주의 의향을 집약하기 위해 17일 저녁 7시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요시다(吉田), 이마무라(今村) 양 중역위원을 비롯한 재인 주주가 모여 신중히 협의했지만 이번 회사측의 조치는 인천부민과 주주들과의 공약을 무시한 것이라고 격분하였다. 재인 주주들은 차제에 제2회 불입기일을 1937년 1월 31일까지 연기하도록 교섭할 것을 일임하고, 3·4차 불입에 대하여도 인천측 주주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의견에 일치를 보고 산회했다.'

다시 이 신문은 6일 후인 11월 26일자 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수인선 건설공사는 조만간에 착공, 1937년 4월경에 개통할 모양이나 동 철도는 과연 경제선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오직 여주방향의 미곡을 인천항으로 집화시킬 모양인데 물자 관계에서 약간의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승객의 증가는 속단하기 어려움으로 수지면의 성과 예상은 전혀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이다. 이같은 불안 재료의 칵테일 탓으로 동사의 주식은 5월 불입의 것이, 겨우 2원 70전이라고 하는 대참락을 보여 조선철도계의 최저치를 시현하기에 이르렀다.'

수인선 건설에 의문을 제기한 주주들

두 차례에 걸친 신문 보도로 비추어 볼 때 인천 주주들이 1차 주금 불입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 주주가 주금을 불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주주이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여주·이천의 쌀을 수송하기 위해서라는 수송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하나는 지역 현실로 볼 때 여객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인 즉 채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주들은 경기남부 내륙지방의 곡물 수송은 수여선을 이용해 수원으로 이동시킨 뒤 경부선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는 대안까지 내놓았다. 또 주주들은 수인선을 건설하므로써 국철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주주들의 주금 불입 보이콧 움직임은 조선총독부와 경영진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일제의 전횡에도 타격을 준 셈이 됐다. 신문의 보도와 평론이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京東의 수인철도 암초에 부딪치다' '수인철도의 경제가치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한 신문 제목은 수인선 공사에 대한 일반의 지지가 냉담했음을 대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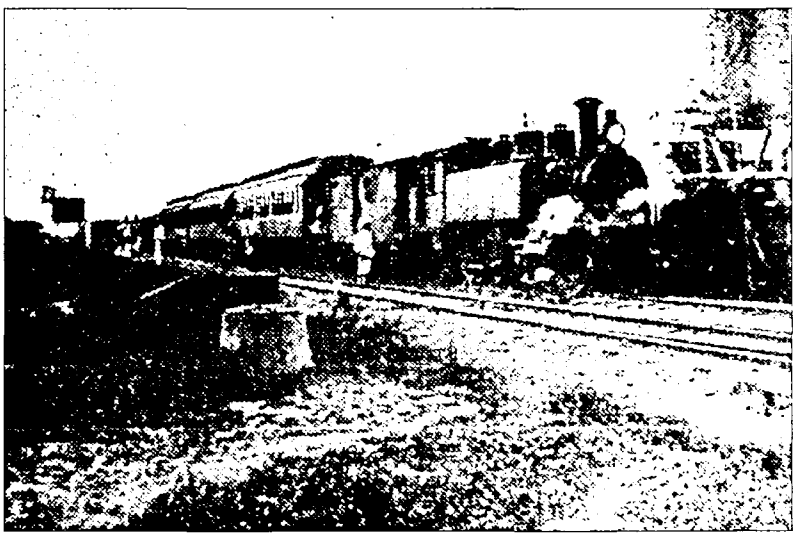
수인선 공사는 한 때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조선총독부가 그냥 두고만 보았을리 없다. 즉각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결국 주주들은 수인선 건설에 협력하게 되고, 공사는 본격화됐다. 경동철도는 이미 수여선을 건설하고, 6년 동안의 운영 경험에서 얻어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다. 수원을 시발역으로 하여 어천(漁川), 야목(野牧), 사리(四里), 일리(一里), 고잔(古棧), 원곡(元谷), 군자(君子), 달월(達月), 소래(蘇來), 남동(南洞), 송도(松島), 용현(龍峴), 종착역인 인천항역(仁川港驛)까지의 철길과 역사·창고 등의 부대시설까지를 짓는데 불과 1년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건설 반대하던 주주, 돌연한 환영

당시의 장비나 기술 및 인력 수준을 감안할 때 매우 놀라운 공사진행이었다. 여기에 쓰인 총공사비는 당시 돈으로 250만원이었다. 공사가 급진전하자 한 때 수인선 건설을 반대하던 인천 경제계는 물론 인천부와 시민들까지도 반색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관민일체의 일본식 단합을 과시했다.

즉 수인선의 인천 종착역이면서 시발역인 '인천항역' 완공을 서두르는가 하면 여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공사를 급진전시켰다. 역 단장만 한 것이 아니다. 인천부에서는 시내 중심부의 상점가인 미야마찌(宮町)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포장하고, 도시기능을 대폭강화했다. 뿐 아니라 경동철도 주주들도 지난날의 비판을 잊은 듯 집행부에 적극 협조했다. 수인선은 예정대로 1937년 8월 6일 개통됐다.

개통식에는 조선총독부 고관을 비롯한 귀빈과 인천부의 각급 기관장 및 유지 다수가 참석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많이 나와 성황을 이루었다. 또 거리에는 일장기(히노마루)가 나부끼고, 개업식에 다녀오는 인파가 줄을 이었다. 수인선의 영업은 주주들의 우려와 달


1937년 8월 6일 개통된 수인선 협궤열차, 어느 중간역에 정차해 있을 때의 모습이다.

리 씩 잘 됐다. 화물수송량은 당연히 많았고, 여객수도 당초 예상보다 웃돌았다. 화물량이 늘어난 것은 수여선을 통해 수원까지 실어온 곡물과 강원도지방에서 채벌한 원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물량이 많아지자, 경동철도측은 인천항역 구내에 인입선(引込線)을 신설했고, 대형창고를 급히 증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원목은 넓다란 광장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경기 남부의 곡물과 서부의 소금은 창고에 가득 채워졌다. 이는 근대화를 외면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었던 경기 남서부에 산업근대화와 현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만했다. 그러나 속사정은 배 주고 속 빌어 먹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물론 아주 얻은 것이 없지는 않았다. 갯벌가에서 살던 원주민들이 수원과 인천을 내왕하면서 새로운 문물에 접하게 되고, 전근대적인 물류형태가 일신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수출을 뜻하는 이출(移出)을 자랑하였지만, 사실은 쓸만한 물자만 골라 착실히 일본으로 옮겨 갔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여선과 수인선은 철도시대의 개막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에 대한 자원 수탈의 도구로써 백분 이용 당한 것이다.

수인선이 부설될 때만해도 원주민들은 어리둥절 했을 뿐 반대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 경부선을 건설할 때 처럼 조직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선을 바꾸도록 하는 등의 집단행동은 더더구나 없었다. 갯벌가에 삶의 터를 잡고, 논밭에서 식량을 얻으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순진무구한 그들에게 반항이란 상상 밖이었는지 모른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인선의 철길은 굴곡이 많은 바닷가를 따라 깔려 있다. 수원에서 인천으로 가다보면 왼쪽이 바다고, 오른쪽이 육지였다. 눈부신 바다와 질펀한 갯벌을 배경으로 한 고즈넉한 풍광은 한폭의 그림 같았고, 원시의 미소를 머금은 듯한 농촌의 모습은 어머니의 품안을 연상시켰다. 힘겹게 달리는 기관차가 내뿜는 석탄 연기는 동화 속의

옛 얘기를 연상시켰다. 기차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씩 4번 왕복했다. 이와 별도로 화물차가 4왕복을 했으니 8왕복을 한 셈이다. 역은 모두 간이역으로, 역무원이 한 둘 밖에 되지 않았다. 단선 철도이기 때문에 기차는 야목에서 서로 비켜갔다. 야목역에는 기관차에 땔 석탄이 수북히 쌓여 있고, 급수탑도 있었다. 때문에 야목역 구내는 비교적 넓었으나, 왕래하는 사람은 고잔역과 소래역이 많았다.

하루에 8회 왕복하는 꼬마 열차

기차는 연발착이 잦은 편이었다. 인천행 기차가 늦게 도착하면 수원행 기차가 기다리고, 수원행 기차가 늦게 도착하면 인천행 기차가 말없이 기다렸다. 연착한다고 시비하는 일이 없었고, 삿대질하며 표를 물러달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도 없었다. 가깝하면 기차간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잡담을 나누었다. 어찌보면 3등 인생을 실어 나르는 등외 열차 같았지만 인간미와 너그러움이 가득했다.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돼 몹시 추웠으나 참고 견디었다.

특히 일제가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1942년부터는 석탄이 귀해서 객차 안의 전등도 끄고 다닐 때가 많았다. 그래도 군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할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잃은 분노를 삭이느라 입을 다문 것이다. 기차는 2시간 30분 쯤 걸려서야 종착역에 닿았다. 완행열차라 가다 서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러는 달리다 고장이 나 멈추는 사고까지 있었다. 그래도 이 꼬마 기차는 밉지 않았다.

아낙네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선을 가득 담은 다라이를 머리에 인채 객차에 오르는 바람에 차안은 비린내가 진동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린내 속에서 인생의 애환과 민족의 아픔을 맛보는 것 같아서 숙연하기까지 했다. 이 작은 철마도 1942년 11월 경동철도주식회사의 운영권이 조선철도주식회사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국철로 바뀌고 말았다. 지금은 녹슬은 철길마저 뜯겨 나간 상태지만 꼬마 열차는 옛 추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高宗이 놀란 모형 화륜차 '京仁線' 이야기

먼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저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초에 다루지 않기로 했던 경인선과 경부선에 대해 추가로 다루기로 한 점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고, 두 번째가 경부선이다. 그런데 경인·경부선의 내력을 아주 빼버리면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경인선의 종착역이자 시발역인 인천과 경성(서울)은 옛 경기도 땅인데다, 특히 인천은 수원과 역사·경제·사회·문화적으로 떨라야 뗄 수 없는 고장이다. 이미 앞의 마당에서 소개한 수여선과 수인선만 하더라도 이래저래 인천과 서울로 연결되는 철도였기 때문에 철도사적으로나 지역사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경인선과 경부선 건설에 얽힌 정사(正史)와 야사(野史)을 섞어 가며 당시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선 두 번에 걸쳐 경인선 얘기를 하고, 그 뒤 네 번에 걸쳐 경부선의 내력과 일화 등을 소개고자 한다.

"긴 행랑 하나가 4~5십간이나 되는 것이 길가에 있어, 나는 차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차라고 하였다. 차마다 모두 바퀴가 있어 앞 차의 화륜이 구르면 여러 차의 바퀴가 따라서 모두 구르게 되니 우뢰와 번개처럼 달리고 바람과 같이 날뛰었다. 한 시간에 3~4백리를 달린다고 하였는데 차체는 안온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다만 좌우에 산천초목과 가옥 인물들이 보이기는 하나 앞에 번쩍 뒤에 번쩍하므로 도저히 잡아 보기가 어려웠다. 노면에 쇠를 깐 것도 또한 두면으로 하였으니 여기서는 차가 가고 저기는 차가 와서,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가더라도 양쪽이 서로 방해됨이 없었다."

이 글은 일찍이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 온 바 있는 예조참의(禮曹參議) 김기수(金綺秀 1832~?)가 1877년 곡산군수로 있을 때 쓴 《日東記遊》(일동기유)에 나오는 화륜차(火輪車·예전에 우리는 기차를 화륜차라 불렀다.) 견문기의 한 구절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1877년 주미공사로 임명된 박정양(朴正陽)을 수행한 이하영(李夏榮)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철도를 보고, 하도 신기해서 1889년 귀국하면서 쇠로 만든 기차 모형을 사 가지고 와, 고종 앞에서 미국 기차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이 때 가지고 온 기차 모형은 폭이 여섯치요 높이가 여덟치였다. 두 개의 쇠길을 연결한 뒤 태엽을 트니까 쇠수레가 느닷없이 달리기 시작하자, 고종의 눈이 휘둥굴해지며 뒷걸음질을 쳤다고 한다. 고종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신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 모형 기차를 손수 시동시켜 보이기까지 했다는데 이는 고종이 개화 문물에 대해 남다른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 쇠뿔고개에서 두 번의 기공식

우리 정부로부터 경인철도 부설권을 선점한 것은 미국인 모어스(James R. Morse)였다. 그는 외무대신 이하영(李夏榮)을 상대로 철도부설권을 달라고 설득했다. 이하영은 고종에게 부설권을 주자고 건의한 끝에 허락을 받아 냈으나, 중신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화가 난 모어스는 우리 조정에 그간의 비용을 합쳐 1만량의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조정은 완강히 거절했다. 이 때가 1892년 3월 25일이다. 그러나 모어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파트너를 이완용(李完用)으로 바꾸고, 뇌물공세를 취한 끝에 1896년 3월 29일 마침내 경인선 부설권을 손아귀에 넣고 말았다. 모어스는 즉각 친구 타운센드와 함께 철도회사를 설립하고, 콜브란을 기사장으로 삼아 선로 측량을 마친 뒤, 1897년 3월 22일 인천 쇠뿔고개 즉 우각리(牛角里)에서 조촐한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이 때 십장을 모집한다며 협작질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해 3월 20일자 〈독립신문〉은 요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 '한성부에서 서울 각 방곡에 고시하기를 서울과 인천서 협잡배가 철도 역군을 모집 한다면서, 어리석은 백설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풍설이 낭자하기에 고시하니 협잡배의 유혹에 속지 말라 하였더라.'

기공식을 마친 모어스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 가 갖은 애를 썼지만 끝

내 실패하고 말았다. 이같은 정보를 입수한 일본은 가만 있지 않았다. 하와이 주재 일본 공사가 귀국한 기회에 경인철도 부설권을 매수할 용의가 있음을 알리고, 적극 교섭하도록 지령했다. 하와이 주재공사는 모어스에게 협상을 제의하고 모어스는 상당한 조건이면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드디어 1897년 5월 8일 미국 외무성 고문인 데니슨과 일본 외무차관 고무라(小村)가 입회한 가운데 모어스와 시브자와에이이찌(澁澤榮一) 사이에 경인철도 부설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양도액은 1백만 달러였다. 이것이 경인철도 부설권을 둘러싼 미·일간의 반전극이다.

1백만 달러에 사고 판 경인선 부설권

부설권을 장악한 경인철도주식회사는 1899년 4월 23일, 인천에서 화려한 기공식을 거행했다. 두 번의 기공식을 치루는 진기한 기록을 남긴 것이다. 이후 경인선 철도 건설공사는 급속도로 진척됐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인천~노량진 간의 영업을 하게 되고, 이듬해(1900) 6월 한강철교가 준공되면서 7월 5일 전노선 개통식을 가진 뒤, 7월 8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1899년 6월 18일자 〈독립신문〉은 개업식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경인철도주식회사에서 엊그제 개업식을 거행하는데 경성에서 내외 귀빈들을 수레에 영접하여 앉히고, 오전 9시에 인천으로 향하는데 화륜거 구르는 소리가 우뢰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 굴뚝 연기는 반공에 솟아오르더라. 수레를 각기 방한칸씩 되게 만들어 여러 수레를 친구로 연하여 수미(앞 뒤) 상접하게 이었는데 수레 속은 상·중·하 3등으로 수장하였는데 그 치장이 이로 말할 수 없더라, 수레 속에 앉아 영창으로 내다보니 산촌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나는 새도 미쳐 따라오지 못하더라.'

〈皇城新聞〉(황성신문)도 개업식 행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요지)했다.

'열차는 6이요, 내빈은 수백이더라. 당일 오전 9시 10분에 영등포에서 발차하여 10시 40분에 인천에 도착하니, 정거장에 솔나무 대문을 높이 세우고 대한·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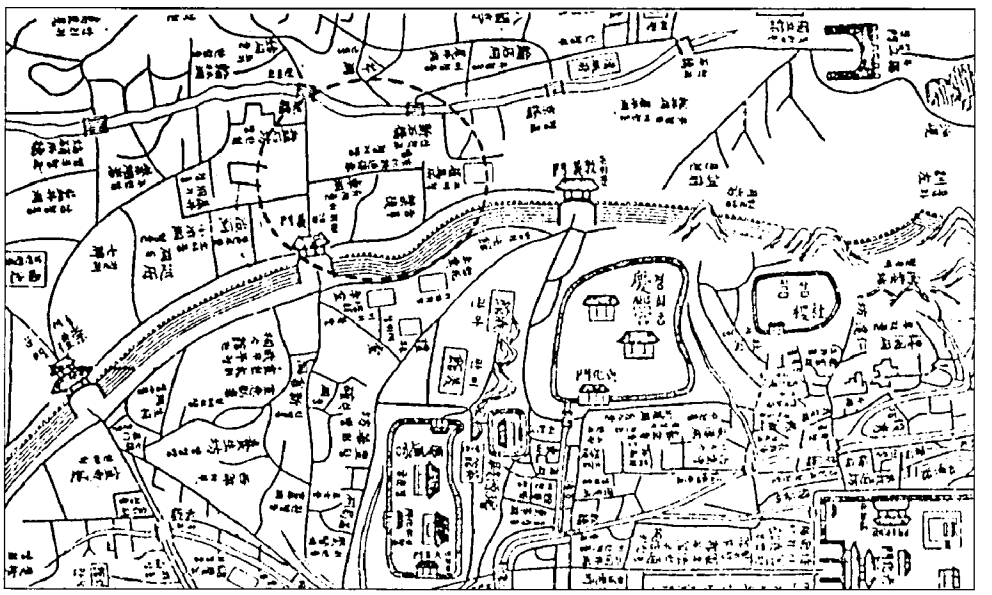
국기와 회사기를 三交(삼교)해 게양했다. 내빈들을 3층으로 된 식장 무대에 앉히고 4면에서 축포를 터트리며 일장 연회를 한 후에 일본인 아시다찌타로오(足立太郎)가 회사를 대표해 식사를 하였다. 정거장 좌우에 구경꾼이 구름과 같이 모여든 것이 기이하게 보였다. 일찍이 개화하였더라면 우리나라가 할 일이었는데 외국인이 각처에 철도를 놓는다더니 오늘 그 실행을 보게 되었다. 이 철도는 25년 후에 그 비용을 일본에 상환하고 우리나라에서 관리한다하니, 그안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지기(志氣)를 분발하고, 재원이 부흥하여 그 조약을 시행하여 그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개통식 보며 허탈했던 우리의 비감

우리나라 철도를 우리 손으로 부설하지 못하고 일본인들에게 넘겨 준데 대한 모멸감과 수치감이 잔뜩 배여있는 글이다. 이어 〈황성신문〉은 1899년(광무 4) 7월 6일 자에서, 한강철교가 준공되고 나서, 두 번째로 개통식을 거행할 당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도(요지)하고 있다.

'어제 경인철도회사에서 경인간 기차 개통예식을 할 때 내외국 신사를 남대문 밖 정거장으로 청하여 오전 10시 30분에 내빈을 탑승시키고, 노량가교를 건너, 기차 안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일본 공사 하야시켄스케(林 勸助)와 대한철도원 총판 민병석(閔丙奭)이 축사를 하니, 경인철도회사 지배인 아시다찌타로오(足立太郎)가 답사를 했다. 오후 2시에 내빈들을 회승(回乘)하고, 남대문 밖 정거장에 도착하여 각자 해산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문 밖 정거장의 위치가 과연 어디인가라는 점이다. 이 대목에 관하여 한국지적기술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바 잇는 이진호(李鎭昊)씨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서울역 자리가 아니라, 서소문공원 근방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곳이 경인철도 뿐 아니라, 훗날 개통된 경부선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었다. 경인선 열차는 이곳을 출발하여 한강철교를 건너게 되고, 노량진을 거쳐 항도 인천으로 내달렸던 것이다. 이씨는 그 근거로 1900년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발행한 한성부지도(漢城府地圖)를 제시하



1900년 양지아문에서 발행한 〈漢城府地圖〉. 점선 안에 '京仁鐵道停車場'이란 표기가 뚜렷하다.

고 있는데 경인철도 정거장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쯤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당대의 일본인 사업가 시브자와에이이찌(澁澤榮一)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그는 1840년 기후켄(崎阜縣)에서 농사와 양잠을 전업으로 하는 부농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27세이던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수행원 자격으로 따라가, 유럽의 경제와 농업을 보고 배웠는데 이 때의 견문이 훗날의 활동기반 조성에 힘이 되었다. 1869년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에 해당하는 대장성(大藏省)에 들어가 조세사(租稅司)가 되고, 민부성 개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였다.

1872년 관직을 떠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1877년 다이이찌(第一)은행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그는 일본상공회의소 설립에도 참여했다. 그가 항도 부산에 다이이찌 은행 부산지점을 설치하니,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은행의 효시다. 그는 한국중앙은행 설립에도 깊숙히 간여했다. 부산에 다이이찌은행이 상륙했을 때는 그의 인물화가 들어 있는 화폐를 유통시킬만큼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그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한껏 받은 인물 중 하나로, 조선 식민지화에 앞장섰다. 그는 마침내 1백만 달러를 주고, 모어스로부터 경인철도 부설권을 사들였고, 나아가서는 경부선까지 부설하였다. 뿐 아니라 1901년(광무 5)에는 충청남도 직산군의 금광 채굴권을 따내 대량의 금을 캐가는 등 조선 경제를 한없이 유린하였다.

세 차례나 거행한 '京仁線' 개통식

경인선이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 것은 1900년 7월 8일이었다. 참고로 이 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정치분야. 1월 전원국제(典圓局制)가 전면 개정되고, 3월 통신국을 통신원(通信院)으로 격상시켰다. 4월 철도원(鐵道院)을 신설하고, 황실소속 철도를 관장케 하였으며, 6월엔 경무청(警務廳)을 경부(警部)로 고치고, 육군헌병조례를 공포시행하므로써 원수부(元帥府)에 육군헌병대가 설치됐다. 9월 전원국이 백동화(白銅貨) 주조를 시작하고, 12월에 태극기 규정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1월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므로써 외국과의 직접 우편물 교환이 가능해지고, 3월 삼남(三南) 지방의 화적들이 활빈당(活貧黨)을 만들고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4월 한성전기회사가 서울 종로에 전기 3등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등이 생겨났다. 7월 5일 한강철교가 준공되고, 경인철도가 완전 개통됐지만 개통식은 11월 12일에 있었다. 같은 7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경인간 시외전화가 개통되고, 조폐국(造幣局)이 준공되었으며, 12월에 덕수궁 석조전 기공식이 있었다.

또 같은 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군악대가 설치되고, 신약성서가 우리말로 완역되었으며 일본의 '철도의 노래'가 소위 창가 형식으로 만들어져 유행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1900년은 변화의 한 해였다. 이후 발 빠른 변화와 개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뒷면에서는 일제의 간섭과 압력이 가중되고 있었고, 우리 정부는 취사선택의 여지도 없이 근대화 물결에 떠밀려 가고 있었다.

인천 ↔ 노량진 간을 처녀 운행할 당시의 경인선은 하루 각 1회 씩 2회만 운행했다. 차표 한장 값은 3등 40전, 2등 80전, 1등 1원 5전으로 차등이 심했다. 화물은 1개 또는 고리당 단위로 화물 품목에 따라 별도로 정하였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연승차표(連乘車票) 제도란게 있었다. 이 차표는 30번 승차를 기준으로 하는데 2등일 경우 기명일 때 20%, 무기명이면 10%를 할인해 주었다. 정거장은 모두 11개 역으로 인천 ↔ 축현 ↔ 우


경인선 부설권을 최초로 따냈던 모어스는 자금 동원에 실패해 중도하차 했다. 미국인 모어스가 살았던 인천 송학동 소재 자택

각동 ↔ 부평 ↔ 소사 ↔ 오류동 ↔ 영등포 ↔ 노량진 ↔ 용산 ↔ 남대문 ↔ 경성이었다.

이미 1899년 9월 18일(인천 · 노량진간)과 1900년 7월 5일(전구간)에 개통식을 가진 바 있는 경인철도는 1900년 11월 12일 세 번째 개통식을 갖는다. 일제가 인천 ↔ 노량진간, 인천 ↔ 서울 전구간을 개통시키면서 개업식을 가진 것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구간 개통식을 치른 4개월 뒤에 세 번째 개통식을 가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모름지기 일제는 한국철도를 장악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함께 식민지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삼탕 기공식은 조선인에게는 무력감을 안겨 주고, 일본 국민에게는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1900년(光武 4) 11월 13일 자 〈황성신문〉에 실린 경인선 개통식 모습은 아래와 같다.

'어제 경인철도회사에서 내외국 문무신상(文武紳商)을 신문(新門) 밖 정거장으로 청하여 개업식을 거행하는데 정거장 남북으로 녹문(綠門)을 높이 세우고 녹문 아래 조 · 일 두 나라 국기와 회사기를 꽂고 좌우에 성등(星燈)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식장에는 솔잎으로 치장하고 여러 색깔의 국화로 수 놓았으며 정면에는 조 · 일 국기를 나란히 세워 놓았다. 당일 정오에 내빈들을 인도해 식장에 자리 잡게 하고, 사장 시브자와에이이찌(澁澤榮一)가 식사를 낭독한 후 대한철도원 총재 민병석(閔丙奭)이 축사를 하고, 총지배인 아시다찌타로오(足立太郎)의 회사 설립 보고가 있은 후 입식(立食:칵테일 파티)를 하는데 테이블에는 일본공사, 대한외무부 대신, 철도회사 사장, 미국공사 제씨가 차례로 축하하고 여흥으로 조선군악대의 연주와 일본 연회를 참관한 뒤 오후 5시에 산회하였다.'

막상 삼탕 개통식까지 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승객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2왕복에 지나지 않던 것을 그해 12월 1일 자로 3왕복, 1900년 3월 16일부터는 4왕복, 전선을 개통할 때(1900. 11. 12)는 5왕복의 다이얼을 짰다. 그 뒤 계절에 따라 4왕복 또는 6왕복으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였다. 승객이 많지 않았던 까닭은 개통 당시는 인천·노량진 사이 밖에 운행하지 않아 경성까지 갈 때 갈아 타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그 때만해도 한강에는 나룻배가 많아 배편을 이용하는 시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인철도회사측은 유객(誘客) 광고를 내게 되는데 국·한문이 뒤섞인 광고 문안이 그럴 듯 했다.

경인철도회사의 기발한 상업광고

'鐵道는 熱氣와 機械 힘으로 旅客과 貨物을 裝車하여 陸上을 快走하는 것이다. 京仁鐵道는 卽 京城과 仁川사이 80里間에 布設한 鐵道요, 其速함은 比할 것이 없나니라. 其費도 不過 幾分이니 東門에서 南門까지의 轎價 값이면 仁川에 往復하겠나리라. 車內는 3等 區別이 있으되, 琉璃窓으로 바람을 막고, 交椅는 安座에 便하고, 大小便까지 別房을 辨備하니 堆戶人車則 雨雪大風은 吾事아니라, 悠悠히 安座하여 四方 光景을 보면서 談笑之間에 旣到 仁港하리라. 故로 京城에 사는 者가 每日 仁川에 가서 視務하며, 仁川에 사는 者가 每日 京官에 仕進하며, 座肆하는 것이 해롭지 아니하리라. 若夫上途探光則 鴈梁鐵橋는 美國에서 製造한 最近新法이요, 天下에 希見할배라. 延長 3千尺. 마치 長虹橫空하니 駕長虹橫大空은 人生의 快事라. 銅雀楊花의 碧流는 漢山冠岳에 崔嵬함에 對하고, 走過富平則 萬頃平野는 麥秋를 歌할만하고, 四季光景 所謂氣象萬千이라. 旣到仁川則 日淸洋館이 高聳山角하여 白壁朱欄參差爲列하고, 永宗八尾群島之間에 輪船은 吐煙하고 帆船은 其檣林立이라. 出浦入津 千貨萬物 誠是 八道中 別天地라. 仁港에 居하는 者로 言之則 一日中 公軒商務 그친 後에 夕間乘車하면 中路에서 飽深風光하고, 長安美酒南山靑松에 醉하고 然而還家靜眠함이 易易耳라.'

동문(東大門)에서 남문(南大門)까지의 교자 삯이 있으면 인천까지 왕복할 수 있고, 차안이 3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유리창으로 바람을 막고, 의자가 편안하며 문

을 밀고 들어가 대·소변까지 볼 수 있으니 눈·비와 바람은 내 알바 아니다. 담소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인천에 도착하게 되므로 경성 사는 사람이 매일 인천에 가서 일보고, 인천 사람도 경성에 가서 일보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노량진 철교는 미국에서 만든 최신공법이라 마치 긴 무지개가 가로지른 듯하다. 부평 평야을 지날 때 만경 평야를 본 듯하고, 인천의 일·청 양관은 높이 솟아 아름답더라. 영종도와 팔미도 앞바다엔 화물선이 연기를 토하고, 돛단배는 마치 숲과 같더라. 인천 사는 사람이 저녁에 차를 타면 풍광을 실증날만큼 구경하고 장안에서 마신 술과 남산의 청송에 취하여 집에 돌아와서는 깊은 잠에 빠지더라.

대충 이같은 요지였다. 요즘 상업 광고와는 사뭇 다르지만 재미와 해학이 번득인다.

실패를 승리의 전기로 삼은 일제

경인선 부설권은 미국인 모어스가 선점했었지만 자금 동원에 실패하여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앞의 마당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선수를 빼앗겼던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실무·외교전을 펼쳤는지를 보여 주는 한 문서(전보)가 있다. 발송인은 주한 일본공사 오무라도시타오로(小村壽太郎), 수신인은 사이온지킨모찌(西園寺公望) 외상 대리로 요지는 아래와 같았다.

'경인철도 부설의 특허를 미국인 모어스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문되는 바, 목하 일·로 양국 정부 간에서 조선문제를 협의 중인 차제에 중요한 특허를 제3국인에게 부여케 함은 부당한 일이므로, ① 일·로 간의 협의가 일결될 때까지는 여상의 특허를 일체 타국인에게 부여하지 못하도록 로국 정부로터 웨베르에게 훈령하여 웨베르로 하여금 조선정부에 친고할 수 있게 로국 정부와 협의해 주기 바란다. ② 만일에 이것이 어려울 경우라면 경인철도를 모어스와 일본인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볼 생각이니, 데니슨(당시 일본 외무성 미국인 고문)으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본관은 당지에서 미국공사와 협의해 보겠다.'

이 전문은 건양 원년(1896) 3월 31일 자로 보내진 것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3월 29일자로 모어스에게 경인선 철도부설권을 부여한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마침내는 모어스와의 협상을 통해 부설권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경인선이 부분 개통(인천↔노량진) 될 당시의 운행 횟수는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등 2회에 지나지 않았다.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이었고, 정거장은 인천·축현·우각·부평·소사·오류·노량진역이었다. 영등포역은 일부 개업 당시 가역사에 지나지 않아, 전구간이 개통되면 폐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의 존속 여론이 비등하자 1900년 9월 1일 자로 영등포역으로 승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의 영업은 예상 밖으로 부진했다. 9월 18일 영업 개시를 한 날로부터 5일 동안의 영업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았다.

◇ 9월 18일 : 승객 208인, 화물 719근
◇ 9월 19일 : 승객 305인, 화물 없음
◇ 9월 20일 : 승객 323인, 화물 1517근
◇ 9월 21일 : 승객 251인, 화물 9678근
◇ 9월 22일 : 승객 369인, 화물 없음

알렌을 위해 세웠던 牛角里驛

끝으로 경인철도 부설에는 실패하였지만, 이 나라에 최초의 철도를 놓고저 안간힘을 썼고, 실제로 철도 부재의 나라에 철도의 이상을 심어 주었던 미국인 사업자 모어스에 관하여 한마디 언급하는 것으로, 경인선 얘기를 마감하기로 한다. 모어스는 인천 송학동에 자리 잡은 소위 양관촌에 근사한 집을 짓고 살았다. 광복 후 이 집에는 한 때 전 국회의장을 지낸 곽상훈(郭尙勳)이 살기도 했다. 모어스는 우각현(牛角峴:쇠뿔고개)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었는데 쇠뿔고개에는 주한 미국공사 알렌의 별장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궁내시의를 역임하였으며 제중원(濟衆院: 현 연세대병원)을 창설하기도 했다. 특별히 우각리역(牛角里驛)을 둔 것은 알렌에 대한 호의의 표시였다. 하지만 알렌이 귀국하자 1906년 4월 우각리역은 없어졌고, 우각리역 바로 근처에 제물포역(濟物浦驛)이 생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京釜線' 명암사(1)

부설권 둘러싼 美·日의 쟁패

한성(漢城:서울)과 초량(草梁:부산)간을 잇는 경부선이 완공된 것은 1904년 11월 10일이고, 영업 개시일은 1905년(光武 9) 1월 1일이다. 뒤이어 1906년(光武 10) 4월 3일 한성~신의주간의 경의선(京義線)이 개통됨으로써 조선반도를 종관(縱貫)하는 철마가 질주하기 시작했다.

먼저 개통된 경부선이 444.5㎞, 나중에 개통된 경의선이 496.5㎞였으니까 총 길이는 941.2㎞, 당시 우리 이수(里數)로 2353리에 달했다. 조선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자랑한 우리이고 보면 그 길이가 얼마나 긴 것이었는지 짐작이 갈만하다. 경부·경의선이 완전 개통되고 나서, 1908년 4월 1일부터 부산~신의주 사이에 급행열차 융희호(隆熙號)가 운행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남단 부산항에서 북단 두만강 신의주까지 2천리 길을 눈깜짝할 사이에 달렸노라면서 혀를 내둘렀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철도 야욕은 한마디로 광적이었다. 경부선은 애초부터 일본인들이 부설권을 따냈던 것이라 그렇다치더라도 경의선은 사정이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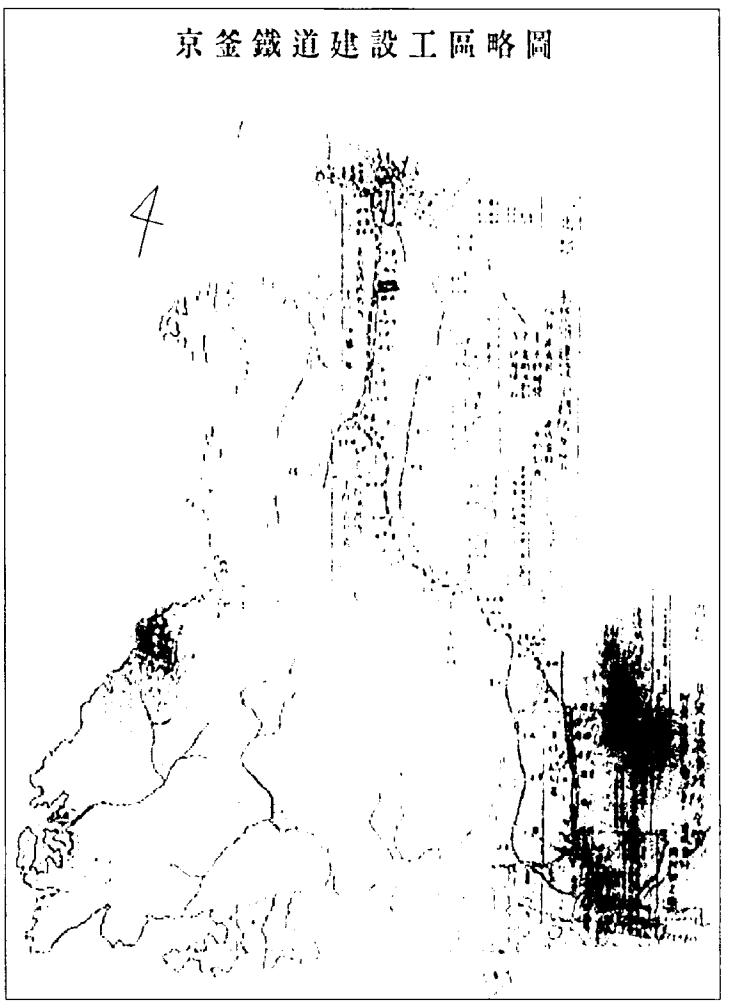
마치 경인선을 미국인 모어스가 부설권을 따냈다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것처럼, 경의선도 최초의 부설권자는 프랑스 퓌브릴회사의 그릴르였으나, 결국에는 빼앗기고 말았다. 그릴르가 경의선 부설권을 따낸 것은 1896년 7월 3일이었다. 그러나 그도 자금 동원에 실패, 1899년 권리가 소멸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이 때다 싶어 7월 8일 자로 대한철도회사에 부설권을 허가하였는데 동사 역시 자금 동원 실패와 기술 부족 탓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4년 후인 1903년 2월 16일 러시아 정부가 부설권 요구를 해왔는데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으로서는 행운이었고, 러시아로서는 불운이었다. 일본은 기회를 놓칠세라 2월 21일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해 임시군용철도감부(臨時軍用鐵道監府)를 설치하고, 이를 조선 주재 일본군사령관 예하에 전속시킴으로써 경의선은 일본의 의도대로 부설하게 되었다.

경부선 부설권을 따내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일본 경부선철도주식회사는 1901년(光武 5) 8월 20일 영등포역에서 '북부기공식'을 거행하고, 9월 21일에는 초량에서 '남부기공식'을 가졌다. 경인선을 기공, 개통할 때 재탕 삼탕의 기공식과 개통식을 한 것 처럼 남북 양단에서 법석을 떨었다. 하나의 철도를 건설하면서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기공식을 따로 가졌다는 것도 우수쾅스러운 일이지만, 기공식 날짜를 한달 간격으로 늦춰 선전효과를 극대화 한 것도 속들여다 보이는 일이었다.

일제의 경부철도건설 기본계획

어렵사리 입수한 '경부철도건설공구약도'(京釜鐵道建設工區略圖)를 보면 경부선 구간을 북부와 남부로 양분해, 구간별로 책임 시공을 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부 공구는 영등포로부터 영동까지, 남부 공구는 거꾸로 초량에서 영동까지로 정하고, 각 구간 마다에 건설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즉 북부에는 영등포건설사무소를 두고, 소장을 두었는데 속성전(速成 前) 소장에 오노타쿠마(小野琢磨)·아라세큐시로오(荒瀨九四郎)·이토오류사브로오(伊藤隆三郎) 등 3명을 임명하고, 속성 당시(速成 當時) 소장으로는 구노도모요시(久野知義)를 임명했다. 또 그



1900년 쯤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京釜鐵道建設工區略圖〉

밑에 2개의 파출소를 두고, 주임을 배치하였는데 영등포파출소 주임은 이토오류사브로오(伊藤隆三郎), 조치원파출소 주임은 이시가와신조오(石川眞三)였다. 이와 별도의 예하 기구로 조치원건설사무소를 두었는데 소장은 사토오고사부로오(佐藤古三郎)였다.

한편 남부에는 초량건설사무소를 두고, 속성 전 소장에 이나가키순(稻垣 雋), 속성 당시 소장에 오카무라쇼노스케(岡村初之助)를 임명했다. 북부와 달리 남부에는 파출소를 따로 두지 않았지만 예하 기구로 대구건설사무소를 두고, 소장에 오무라쇼타로오(大村尙太郎)를 임명하는 등 조직과 인사 양면에서 빈틈이 없었다. 이 때가 기공식 이전이니까 1900년(光武 6)이거나 1901년 초반 쯤으로 추정된다. 새로 입수한 '경부철도건설공구약도'는 상태가 선명하지 않다. 그러나 각 공사구간의 각 역명과 철도 길이, 기공일, 착공일, 부서 책임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경부 천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수원·병점·오산·진위(평택)역 등의 표시는 독자의 시선을 끌고도 남을 만하다.

《各司謄錄》에 나타난 희노애락

이쯤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경부철도 부설권을 따낸 일본이, 북단의 영등포로부터 남단의 초량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소위 지형탐사와 설계측량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연도(沿道)의 군수(郡守)·부윤(府尹)·관찰사(觀察使) 등이 의정부 찬정(議政府 贊政) 외부대신(外部大臣)에게 혹은 그 반대로 직보한 《各司謄錄》(각사등록)의 편편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각사등록이란 조선왕조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공적 기관 간의 기록류를 망라한 것으로 자금의 상하 기관 간의 행정문서와 같다. 각사등록은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 《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 등이 중앙 최고기관의 기록인데 비해, 각 아문(衙門)의 각종 서정을 다룬 직접 기록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각사등록은 토지분쟁을 둘러 싼 송사기록이나, 공초(供草:범죄조서), 민란이나 토비(土匪), 사당(邪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시대의 정치·사상·사회·경제 등을 이해하는 사초(史草) 가치가 크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경부철도 구간 전역에 걸친 각사등록을 다룰 수는 없는 바 수원군 및 인접 군에서 직보한 문서 가운데서 경부철도 부설과 유관된 것만 골라 인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당시의 각사등록이 난초(亂草:흘려 쓴 글씨)가 많은 데다 난해한 문장이

수두룩해 의역(意譯)하였음을 밝혀 둔다. 경부철도와 관련해서 최초로 시달된 공문은 의정부 찬정 외부대신 박재순(朴齋純)이, 경기관찰사 김영덕(金永悳)에 내려보낸 것으로 일본 기술자 3명이 지리 답사를 함에 즈음해서 지방장관들에게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면 일본에 의한 현장 답사를 시발로, 기공식, 노선 변경을 둘러 싼 수원군민들의 반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과 일본의 강요 등 포착 가능한 기록들을 상황별로 짚어 보기로 한다.

◆ 光武 3년(1899) 3월 2일
議政府 贊政 外部大臣 朴齋純
京畿道觀察使 金永悳 귀하

'경부철도를 日本鐵道會社와 업무를 이미 訂約하여 곧 부설할지니, 해당 회사의 발기인 오오가와타구(大江 卓), 고문기사 다이호다다찌(大保 直), 기술공학사 구노 도모요시(久野知義) 등 3인이 지리 답사를 하기 위해 곧 각지로 갈 것이니, 미리 어느 곳으로 갈런지는 미리 헤아리기 어려우나 그들이 이르는 곳의 각 지방장관은 폐조(幣助)하도록 합의한 바 있어 훈령(訓令)을 하니 연로의 각 지방관에게 미리 신신 당부하여 그 사람들이 경계에 이르거든 편안토록 잘 접대하고, 지리 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극력 잘 주선하여 주면서 그 움직이는 동태를 본부에 직보함이 가할 것임.'

공문 내용은 한마디로 한심스럽다. 우리나라 철도 부설권을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한 우리 정부가 일본 관계자들을 무슨 칙사처럼 여기고, 행여 불편한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경계할 것과 융숭한 대접은 물론 갖은 협조를 아끼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선채 죽으라고 한 가르침은 이미 우리에게 소용이 없었다.

'京釜線' 명암사(2)

팔달산 관통에 반기 든 수원 군민

주권을 상실한 국가에는 지배자의 간섭은 있어도, 피 지배자의 자주·자결권은 없다. 경부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내주었을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주권국이 아니었다. 광무정국(光武政局)은 완전무결한 일본 천하였다. 1898년(建陽 2년)에 나라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光武)로 바꾸고, 고종 스스로가 황제가 되었지만 나라 안팎은 달라지기는 커녕 서산으로 지는 해처럼 처량하기만 했다. 나라가 이 꼴이다 보니 국가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경부철도 건설에 있어서도, 일본이 하겠다는 대로 내버려 두고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3년 째가 되는 1900년(광무 4)부터 일본은 경부선 공사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굴욕적인 강요나 간섭에 대하여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없이 순응만 했다. 이어지는 《各司謄錄》(각사등록)의 보고 내용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 光武 4년(1900) 4월 5일
議政府 贊政 外部大臣 朴齊純
京畿道觀察使 趙鍾弼 귀하

'일본 기사들이 경부철도 답사건으로 아산(牙山) 땅에 가려고 떠났는 바 불시에 일어 날 수도 있는 일을 염려하여 서울로부터 순검(巡檢) 2명을 파송하였으나, 몇 사람 되지 않아(인원이 적어) 주찰(周察)이 어려울 듯 싶어 훈령을 하니, 부(府)의 순검 2명을 더 파견하여 보호케 함이 가할 것임.'

◆ 光武 4년(1900) 5월 12일
議政府 贊政 外部大臣 朴齊純

京畿道觀察使 趙鍾弼 귀하

'일본 측량기사 등이 아산지로 향발하는데 파송 순검건은 이미 훈련한 바 있거니와 그들 기사들이, 부산까지 부득이해서 순검을 대동하고 간 모양인데 순검 최여균(崔呂均)이 하는 일없이 여러날 기다리며 지낸 것은 특별한 상황 때문인 듯하니, 조사해 본 후 용서하여 줌이 가할 것임.'

두 공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경기도관찰사가 어느 사이 김영덕(金永悳)에서 조종필(趙鍾弼)로 바뀌었다는 사실과 측량기사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가 라는 점이다. 예나 지금이나 치안은 경찰이 맡게 되어 있지만 전속 순검만으론 안심이 안되었던지 현지 순검까지 추가로 파송해서 호위케 한 것을 보면 당시의 지방 민심과 동향이 심상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수원을 거쳐 부산까지 내려간 일본 측량기사들은 별 사고없이 측량을 마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의 마당에서 소개한 '경부철도건설공사공구'가 결정 되기에 이른 것이다.

북부기공식에 즈음해 수다 떤 우리 정부

현지 측량과 사업 타당성 검토를 끝낸 경부철도주식회사는 1901년(광무 5년) 8월 20일 오전 11시 영등포역에서 소위 '북부기공식'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철도원 총재는 같은 해 8월 8일과 8월 10일 자로 경기관찰사 조종복, 시흥·과천·수원군수에게 경부선 기공식에 만전을 기하라는 훈령을 내리게 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光武 5년(1901) 8월 8일(경기관찰사에게)
본월 20일에 경부철도 개공식(開工式)을 영등포정거장에서 설행(設行)할 터이니, 당일 진참(進參)함이 가하기로 훈령하니 이를 시행함이 가할 것이다.

◆ 光武 5년(1901) 8월 8일(과천·광주·수원군수에게)
본월 20일에 경부철도 개공식을 영등포정거장에서 설행할 터이니, 당일 해당 면의 집강(執綱:면장이나 이장의 관직) 각 1인 씩을 인솔해 동참하되 그 성명을 바로

본원에 보고하도록 훈령하니 이를 시행함이 가할 것임.

◆ 光武 5년(1901) 8월 10일(시흥군수 李峻奎에게)
본월 20일에 경부철도회사 개공식을 귀군 접경 영등포에서 개최하는 바 당일에 소용되는 제구(諸具)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상기 회사원이 본월 13일 귀군을 방문할 것이니 협조할 것은 물론 정거장 예정 기지나, 인민들에 방해가 없도록 대처함이 가하기로 훈령하니 만전을 기함이 옳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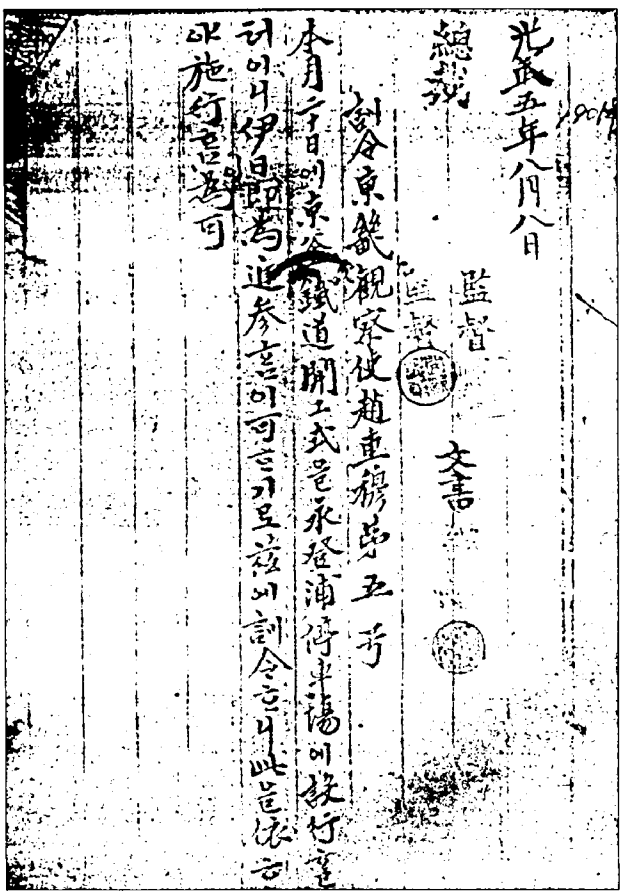
여기서도 우리 정부(철도원)가 경부선 기공식에 지나칠 정도의 친절을 배푼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흥군수 이준규에 내린 지시는 기공식에 쓰일 장비 일체의 대여는 물론 주민들의 수상 쩍고 불순한 불상사를 우려한 나머지 철저한 경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항일 움직임이 없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인들 잔치에 순안군과 청안군 임석

드디어 1901년 8월 20일 북부기공식이 거행되고, 경부철도부설공사는 시작됐다. 광무 5년(1901) 8월 21일자 〈皇城新聞〉(황성신문:대한제국 때 창간된 신문으로 1901년 한일합방 때 강제 폐간)은 기공식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개식선언에 이어 진제문(鎭祭文)을 낭독한 후 철도원장 민병석(閔丙奭)과 경부철도회사 전무총판 다케우찌쯔나(竹內 綱)가 신위 앞에서 시삽을 하고 축사를 하니, 궁내에서 파견한 순안군 이재완(順安君 李載完), 청안군 이재순(淸安君 李載純)이 내빈을 대신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병석은 축사를 통해 경부철도의 장래가 흥왕하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은 경부선 건설의 이유와 의미를 되새겨 우리나라의 근본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이 끝나자 귀빈들이 축하식장에 입장하여 다과를 나누고 일본공사 하야시겐스케(林 權助)가 축사하니, 외부대신 박제순(外部大臣 朴齊純)이 답사했다. 식을 끝낸 뒤 오후 1시에 특별열차를 타고 귀산하였다.'

앞의 마당에서 소개한 '경부철도건설공사공구약도'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북부공구(北部工區)는 영등포에서 영동(永同)까지로, 이 구간에 안양·군포·수원·병점·오산·진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구간은 제1(이수 불명), 제2(22.5里), 제3(48.9里) 제4(49.19里) 착수로 나뉜 4구간 중 '제2착수'에 해당된다. 그런데 바로 이 구간, 즉 수원구간에서 경부철도계획에 반대하는 수원군민 집단항의사건이 일어났다. 쾌조에 희희낙낙하던 경철로서는 불의의 사태에 당황했을 것이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양국 간에 불편한 관계가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光武 5년(1901) 8월 8일 철도원장이 경기관찰사 趙重穆에 보낸 '訓令'. 이같은 공문서를 일컬어 (各司謄錄)(각사등록)이라 했다.

사건의 발단은 시흥군 관할인 안양·군포를 거쳐 남으로 향하는 경부철도 노선이, 수원군 북단 지지대(遲遲臺) 고개를 지나 대유평(大有坪:지금의 조원·정자·파장동 일대)을 거쳐 화서문(華西門:일명 西門)을 스쳐 팔달산(八達山:수원의 주산) 뒤쪽 기슭을 관통하려는 계획이 부당하다며 한사코 반대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관찰사가 외부대신에 보고한 당시 문서를 보면 수원군 또는 군민들의 반대 의지가 얼마나 강경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光武 6년(1902) 6월 3일
京畿道觀察使 李根命
議政府 贊政 外部大臣 귀하

'수원군수 윤영구(尹寧求)의 제77호 보고서에 따르면 본군 경내 철도 답사 선로 표시가 지지대로부터 대유평을 지나 서문에 이르러 팔달산 후록(後麓:뒷기슭)을

관통하여 전향(轉向)하게 되는데 상하(上下) 유천(柳川:버드내)에 이르고 대황교(大皇橋) 동쪽에 머무는 형편은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으나, 그 밖에는 아직 입표(立標)가 없어 자세한 내막은 알길이 없다. 다만 일인들을 통해 탐문한 즉 경부선 역사(役事)를 머지 않아 하게 되는데 팔달산은 화령전(華寧殿)이 있는 주봉(主峰)이 되고, 지지대 또한 소중한 곳인데 일본인들이 일직선으로 이 길에 표를 세우고 답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전답과 분묘가 많아 시비거리가 태산 같다.

또 바야흐로 서문 밖의 보리밭은 곧 수확을 하게 될 터인데 치도(治道) 한다면 곡식들은 어찌 될 것인가라는 민간의 호소가 들려오고 있는 즉 이 길의 입표대로 과연 확정된 것인지 궁금하다. 허다한 폐단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에 보고하니 검토한 후에 관계 부처에 알려 주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세워진대로 시행된다면 전답이나 분묘가 훼손되는 것은 고하간에 막중한 주산의 맥을 관통하고 절단하게 되면 죄스럽고 민망함이 극에 달할 것이며, 춘궁기의 주린 백성들 소망은 오직 다 익은 보리를 수확하는 일인데 그냥 뭉게 버린다면 섭섭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이에 실지상황을 보고하니, 공사간에 구애됨이 없게 하고, 원망 듣는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외부대신은 즉각 "아직은 확정된 선로가 아니니, 인민들에게 잘 설득하여 마지막까지 기다릴 것이며 철도원에 직보함이 옳을 것이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京釜線' 명암사(3)
高宗에 떼쓴 일본공사의 무례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근명(李根命)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군민들은 경부선 부설과 관련해서 크게 두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지지대 고개를 관통하면 유서 깊은 지지대 유적이 망가지고, 팔달산 서쪽 기슭을 스쳐가면 화성행궁의 일부인 화령전 등이 훼손되는데 이것은 왕조에 대한 후손의 불충인 동시에 민족정기를 끊는 결과가 되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가뜩이나 궁핍한 터에 다 익은 보리밭을 깔아 뭉개면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는 양도(糧道) 걱정과 수십 수백기에 달하는 조상묘를 파헤치는 일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라는 아득함이었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으뜸으로 모시는 승조사상이 남달라서, 부모가 죽으면 3년 시묘(侍墓)는 당연한 습속이었다. 조상이 있는 까닭에 후손이 있고, 후손들은 조상을 극진히 모시고서야 인간의 할 바를 다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섬나라 일본은 이점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꺼려했다. 왜냐하면 승조사상은 곧 군신일체 사상으로 바뀌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국수주의적 민족사상으로 발전해 항일운동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정기를 단절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민족 질서를 깨부수는 수단의 하나로써 지지대고개나 팔달산에 흠집을 내려 했던 것이다.

한편 이토록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경부철도 부설공사는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즉 1902년 6월에는 영등포-명학역(鳴鶴驛) 구간의 토목공사를 거의 마쳤고, 10월 이후부터는 공사용 열차를 운행시켰다. 철길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공사용 열차라고는 하지만 어엿한 철길 위를 열차가 오고 갔으니, 실질적인 열차 운행을 한거나 다름이 없었다.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다름아닌 수원-진위(振威:평택·송탄) 구간이다. 경부철도회사는 공사일정을 내세워 당초 계획대로 지지대 관통, 팔달산 서쪽 기슭 통과를 고

집하였고 수원군민은 완강히 반대했다. 1902년(광무 6년) 4월 28일 철도원 총재 유기환(兪箕煥)은 다케우찌(竹內) 취체역에게 철도원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 내용인 즉 일본의 당초 안은 우리나라 조정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요지였다.

난관에 봉착한 다케우찌 취체역은 체한 중이던 다시다(田下) 취체역과 함께 일본공사 하야시켄스케(林 權助)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면서, 경부철도 부설 조약 '제2조'를 들먹였다. 제2조에는 '선로의 부설방법은 시공회사가 선정한 측량기사의 결정에 따라 시공한다'라고 되어 있다. 4월 30일 일본공사를 앞세운 철도회사 중역들은 철도원 총재 유기환을 찾아가, 대어들었지만 유기환은 막무가내였다. 같은 해 4월 17일 경기관찰사 이근명은 외부대신에게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올리게 되는데 이 경우도 일본의 무례와 방종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 光武 6년(1902) 4월 17일
京畿道觀察使 李根命
議政府 贊政 外部大臣 각하

'본월 15일에 일본인 오우라아끼요시(梶浦銹吉) 등 3인이 찾아와 경부철도사무소를 수원군에 두고저 여러 곳을 둘러 보았는 바 외삼문(外三門) 밖에 위치한 예전 비장청(裨將廳)과 서리(書吏) 처사가 쓸만하니, 수리하여 쓸 수 있게 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관의 판단으론 이곳은 화성행궁의 중지(重地)이므로 불가하다 하였기 보고하니, 살펴 처리함이 옳을 것이다.'

안면몰수한 일본의 억지 주장

이 한 장의 공문에서도 일본의 오만과 무례는 인주처럼 묻어 난다. 경철 사무실이 필요하면 새로 짓거나 민간의 건물을 빌릴 생각은 안하고, 우리나라의 옛 관청 건물을 그냥 쓰려고 하였으니 참으로 뻔뻔하였다.

일본측의 지지대 관통 고집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았다. 동년 5월 9일 일본공사 하야시, 취체역 다케우찌, 다시다 등 3인은 경운궁으로 고종(高宗) 임금을 배알하고, 조선의 반대가 부당하다고 억지를 썼다. 우유부단한 고종은 철도원 총재와 협의하라는 칙서를

내리는 것으로 발뺌을 하고 말았다. 일본공사 하야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 강행을 철도원에 통첩하면서 누구이든 공사를 방해할 경우 가차없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6월 초하루 경철은 사그내-오산간 선로 부설공사를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고, 지지대고개 터널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오만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문제는 양국의 견해와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있었다. 사태 악화를 염려한 철도원이 대안을 마련하기에 이르고, 타협안을 내놓았다. 즉 군산포(軍山浦:지금의 군포)에서 네시고개(四時山峴)를 넘어 대대동(大垈洞)→서둔동(西屯洞)을 거쳐 상류천(上柳川)으로 이어지게 하면 다소 우회하게 되지만 지지대고개와 팔달산을 건드리지 않고서도 철도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코 무리한 대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경철은 당초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맞받아 치고 나왔다.

철도원 총재 유기환의 단호한 반대

처음에는 자존심 다툼으로 시작된 대립이, 마침내는 국가 간 감정 싸움으로 변해 버렸다. 이런 와중에서도 철도원은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6월 1일 철도원 총재 유기환은 경기관찰사 이근명에게 시그내-지지대 간의 공사를 엄금하도록 지시했는데 이것은 당시 우리 조정으로선 파격적인 대처였다. 반대 시위를 벌이던 수원군민들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떠 올랐다. 오래간만에 접해 보는 정부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오냐 그리하마"라고 할 일본도 아니었다. 경철측은 같은 날짜로 공사를 무기연기한다고 선언하고, 일본공사 하야시를 분쟁 해결의 기수로 전면에 내세웠다. 경부철도 부설은 엄연히 민간 영역의 업무인데 일본공사가 앞장섰으니, 이는 외교전쟁으로 끌고 가자는 속셈이었다. 하야시는 철도원에 아래와 같은 서한을 보냈다.

'지지대 碑閣(비각)에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철도를 놓을 수 있다면 설계변경을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일로 해서 발생하는 일본측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귀측이 보상해야 한다. 특히 수원군수가 공사에 가담한 조선 인부를 포박한 일은 협동조약과 통상조약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유감천만이다. 만약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부득이 상당한 수단으로 나의 권리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두 나라 사이에 유감스러운 결과가 생기면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귀국 정부에 있다.'

이 문서는 순리대로 풀어 보겠다는 타협이라기 보다는 노골적인 협박장이었다. 문맥 어디에도 타협 의사는 없고, 오직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측에 뒤집어 씌우려는 악의만 가득 차 있었다.

이 공문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는 '조선인부 포박사건'에 관하여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사건은 역시 6월 1일에 발생하였는데 사건의 주인공이 매우 남달라서 자칫 잘못 되면 조·미·일간의 국제 분쟁으로 치달을 뻔 했다. 즉 이색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구한국 시대 내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한국 개화에 진력한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였고, 그들 일행을 폭행한 것은 일본에 고용된 조선 고인(雇人)들이었다. 이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문건이 있으니, 바로 경기관찰사 이근면이 외부대신에게 보낸 1902년 6월 7일 자 《各司謄錄》(각사등록)이다.

철길 건너다 봉변 당한 아펜젤러

◆ 光武 6년(1902) 6월 7일
京畿道觀察使 李根命
議政府 贊政 外部大臣 署理 鐵道院總裁 兪箕煥 각하

'시흥군수 이준규(李俊奎)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서울(皇城) 정동에 있는 배재학당 교사 아펜젤러가 인천부 지천(芝川) 교회당에 일요일(空日) 연교(演敎:설교)를 하기 위해 5~6명의 교인과 함께 본군 저현(邸峴)을 지날 때 고개 마루에서 철도 부설공사를 하는 줄 모르고 인력거꾼들이 인력거를 끈채 올라섰는데 이를 본 일본에 고용된 고인(雇人) 3명이 화를 내며 장작개비 등으로 마구 때려 싸움이 벌어졌다. 치고 받다 보니 교인 4명의 얼굴과 어깨·배 등에 상처가 나고, 일본 용군 2명도 다쳤다. 봉변을 당한 아펜젤러 일행은 인력거를 돌려 돌아 갔는데 이틀 뒤(6월 3일) 일본영사관 경무관 총순(總巡)외 순사 3명이 철도감독 오카

배(岡部) 집에 찾아 와서 공동재판을 하고 곧 바로 현장조사를 마친 후 폭행한 용군 3명을 압촉(押促:연행)하여 갔기에 보고합니다.'


경부선 철길 공사장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봉변 당한 아펜젤러.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의 무상함과 인간의 행적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아펜젤러는 고종 22년(1885) 한국에 와서, 선교회 창설과 배재학당을 설립한 이래 한국의 신교육과 개화에 앞장 섰던 미국인 목사이자 교육자였다. 그가 어쩌다 한일 간의 쟁점이 되었던 경부선 부설 현장에 발을 들여 놓게 되고, 그 일로 해서 일본 용군으로부터 봉변을 당하였으니 우연치고는 너무 지나쳤다. 아무려나 아펜젤러는 경부선 부설 현장에서, 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초괴한 모습과 식민지 야욕을 불사르는 일본의 발악을 두루 확인한 외국인 증인이다.

'京釜線' 명암사(4)

화령전 절단 막은 수원 군민의 승리

우리 철도원과 일본 경찰이 노선 변경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분쟁은 계속됐다. 그중 하나가 화서문(華西門) 밖에 있는 앵봉(鶯峰)·여기산(麗妓山)·숙지산(熟知山)의 석광(石鑛)을 일본 철도역소(鐵道役所)가 사들이고, 돌을 캐내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수원군이 행정조치를 취했던 일은 특기할만 하다. 수원군수 金鈺鉉은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상부에 보고한 바 있다.

◆ 光武 6년(1902) 11월 11일
京畿道觀察使 李根命
議政府 贊政 外部大臣 趙秉式 각하

'水原郡守 金鈺鉉의 제175호 보고서를 접준(接准:접수)한 즉 本郡 西門 밖 鶯峰·麗岐山·熟知山 세곳에 봉표(封標)한 땅을 私事로이 일본 鐵道役所에 팔았다는 소문이 있어 地主를 데려다가 사실을 캐물었더니, 매매 논의가 있었을 뿐 값도 정하지 아니하고 팔라하길래 물리쳤다 하기에 사사로이 팔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철도원에 통보하였더니 封標한 땅은 사사로이 팔 수 없다는 지시가 있어 任意로 팔지 못하도록 당부하였다. 근자에 듣자하니 본군 고양동(高陽洞:일명 고양굴)에 사는 정춘수(鄭春秀)의 분묘가 앵봉 동쪽 기슭에 있는데 그 산에 있는 암석을 710兩에 일본인 미야지마(宮島)에게 팔았다 하며 진위(振威) 사는 권석규(權錫圭)의 분묘가 숙지산(熟知山)에 있는데 그 산에 있는 암석도 1500량에 값을 정하고 역시 일본인 미야지마(宮島)에게 팔았다 하기에 또 다른 1명과 함께 3명을 잡아다 자세히 물은 즉 모두가 말하기를 사사로이 팔 수 없다는 당부와 영은 촌에 사는 농민으로선 들어 본 바 없으며 그 산이 비록 봉산이라 하지만 이미 분묘가 있으

면 자기 산으로 인정되어 일본인에게 팔았다며 구차한 변명만 하고 있다. 실로 이렇게 사매(私賣)한 것이 범법은 아니나 철도원의 지시가 엄중하고, 봉표한 땅은 각별히 소중하다고 판단되어 3인을 엄중히 가두어 두고, 속히 돈을 준비하여 환퇴(還退)하라 하였으나 아직 듣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산에서 떼어낸 돌덩이가 산과 같이 쌓였으니 죄송하고 민망할 따름이다. 본 군수가 일본인에게 10여 차례나 물러 가도록 전하고 그들과 면답하자고 부탁하였으나 이제까지 오지 않으며 본 군수가 직접 찾아가도 피하는 바람에 볼 수가 없으니, 저희 군으로서는 어찌 할 바가 없다. 듣기로는 소용되는 石材가 썩 많은 모양인데 다른 곳에서는 돌뜰을 때가 없는데다 이미 큰 돈을 들여 따낸 것이니 쉬 물러갈 것 같지가 않은 즉 어찌할지 알려 주기 바란다.'

앵봉·숙지산·여기산의 석재 수탈

이 공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경철은 경부선 철도 부설에 필요한 석재를 수원의 세곳 산에서 채석하여 쓰려했던 것이다. 알려진 대로 여기산이나 숙지산에는 양질의 화강암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서, 1794년 정조가 화성을 쌓을 때도 석재를 채석한 곳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은 우리 정부가 자원보존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회유해 저들의 야욕을 충족시키려 했던 것이다. 또 시흥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 光武 7년(1903) 5월 26일
始興郡守 金永雲
議政府 贊政 外部大臣 陸軍副將 귀하

본군 동면 禿山里 주민들의 소에 따르면 음력 4월 28일 아침에 본동에 사는 천아송(千牙松)의 처가 나이 30여 세의 여인인데 마침 콩을 심으려고 들에 갔더니 갑자기 일본인 한명이 나타나 급하게 쫓아 오길래 엎어지며 자빠지며 도망가다가 마침 동네 사람을 만나 큰 소리쳐 말하기를 사람 살려 달라고 하였더니, 동리 사람이 그 곡절을 물었는데 일본인이 아무 까닭도 없이 막대기로 때리므로 도망가

고 말았다. 이를 본 농민과 철도공사 인부 등 8명이 분개하여 그 중에서 일본어가 대충 통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무례함을 꾸짖으면서 썩 물러나라 했더니 그 자가 부복하여 사죄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일본인 1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아까 손댄 놈을 찾아내라며 행패가 자심한 지라, 남녀노소 모두가 겁을 먹고 피신하였는데 일본인들은 집강(執綱:이장)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내일 오전 중으로 그놈들 모두 잡아오고서야 동리가 무사할 것이다라고 하더니, 29일에는 일본인 5명이 다시 나타나 집강 윤영성(尹永善)을 결박한 채 잡아가 마구 때리길래 살려 달라고 애걸하니,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내일 오전까지 데려 오지 않으면 알릴 수 없는 까닭이 있는 것으로 알겠다며 집강의 이름을 적어 놓고 방출하였다. 먼저 손을 댄 것으로 알려진 김 아무개란 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가 찾을 길이 없고, 겁에 질린 집강마져 도망쳐 버리는 바람에 온 동네가 흩어져 농사를 패할 지경이라 보고하니, 상부에 전보(轉報)하여 화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속담에 똥 눈 놈이 방귀 뀐 사람에게 큰 소리치고,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더니 일본인들의 행태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유부녀를 백주에 겁탈하려는 야만적 행위도 문제지만 그것을 말린 것을 트집 잡아 이장을 결박해 잡아가 매질을 한 것은 무법천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남의 물건 마구 쓰고 '가져간 자가 임자' 라고 억지

분통 터지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04년 2월 10일 시작된 러일전쟁 때 우리나라를 거쳐 북진했던 일본 육군은 그들의 작전계획에 따라 각 지방으로 분산배치 됐다. 이 때 민관의 설비와 물자를 함부로 쓰고, 대가를 주지 않는 등 노골적인 약탈행위가 자주 발생해 주민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관찰사 이근명은 외부대신에게 긴급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아직 군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없어 세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토지수용에 따르는 피해가 자심하고, 해당 일본 군대가 군상품(軍商品)에 대한 대금지급을 제때에 하지 않고 있으며 당장에 못줄 양이면 후일에라도 받을 수 있게 증빙서류를

해주어야 마땅한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갚아 주겠다니 이는 호도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관은 각 군에 항목별 사용과 설비는 물론 모든 공급물자 대금을 갚지 않을 때는 즉시 일일보고 하도록 했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면 지체말고 비보(飛報)하도록 지시했다. 이달 3일에는 일본이 군용철도를 가설할 때 전주를 함께 세웠는데 이 때 일본육군 공병소위 즈다켄키치(津田兼吉)가 공병 6명을 데리고 위동리(衛洞里)에 주둔하면서 농사 일에 바쁜 농민들을 자주 철도 공사에 동원시키는가 하면 일본 역부들이 철로 부근 각 동에 나타나 농민을 강제로 취업시켜 폐농할 지경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15일 자 보고에 보면 시흥군 서기 이종열(李宗烈)이 일본의 요청에 따라 긴급히 인부를 모으도록 알리자, 군민 수천명이 무리지어 관아(官衙:군청)로 몰려와 난타하는 바람에 군수와 군수 자녀가 상해를 입었으며 일본인 2명이 피살되는 불상사가 있었다."

철도원, 배상금 요구를 단호히 거절

아무려나 일본 경철은 우리 철도원이 내놓은 지지대-팔달산 간의 수정 노선안을 받아들이게 돼 지지대비나 화령전(華寧殿)을 다치지 않고, 오늘날의 경부선이 깔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수원군민의 항쟁 승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즉 1903년 10월 '1만 3503원 95전'의 배상금을 청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침내 1904년 11월 10일 서울·초량 간의 경부선이 완공되고, 1905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 정거장에서의 개통식은 같은 해 5월 28일에 있었다. 끝으로 4회에 걸친 '경부철도 명암사'를 마무리하면서 1908년 최남선(崔南善)이 지은 경부철도가(京釜鐵道歌) 가운데 기전지방(畿甸地方:경기지방)에 관한 대목만 싣기로 한다.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 南大門을 등지고 떠나가서 /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 날개가진 새로도 못 따르겠네.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 우리 내외 외국인과 같이 탔으나 / 內外新疎 다 같이 익히지내니 / 조그만한 땅 세상 절로 이뤘네.

關正廟와 蓮花峰 들러 보는 중 / 어느덧에 龍山驛에 다달았다. / 새로 이룬 저자는 모두 일본집 / 이천여 명 일본인이 여기 산다네.

西關 가는 京義線 예서 잘려서 / 一山 水色 지나서 내려간다오 / 옆에 보는 푸른 물 용산나루니 / 경상 강원 웃물 배 뫼는 곳일세.

讀書堂의 폐한 터 조상하면서 / 빗긴 쇠다리 건너오나니 / 노량진역 지나서 게서부터는 / 漢城之境 다하고 果川 땅이라.

浩浩洋洋 흐르는 한강 물소리 / 아직까지 귀속에 쳐져있거늘 / 어느 틈에 영등포 이르러서는 / 인천 차와 부산차 서로 갈리네.

예서부터 인천이 오십여리니 / 오류 소사 부평역 지나가는데 / 이 다음에 틈을 타서 다시 갈 次로 / 이번에는 직로로 부산 가려네,

관악산의 개인 경치 우러러 보고 / 永郎城의 묵은 터 바라보면서 / 잠시 동안 시흥역 거쳐가지고 / 날개 있어 나는 듯 안양 이르러.

실라 같은 안양을 옆에 끼고서 / 다다르니 수원역 여기로구나 / 예전에는 留守도 지금은 觀察府 / 경기도 관찰사 있는 곳이다.

경개 이름 다 좋고 西湖 抗眉亭 / 그 옆에 농학교 농사시험장 / 마음으로 華寧殿 숭배한 후예 / 大聖人의 큰 孝誠 감읍하도다.

光敎山을 옆하고 떠나가서 / 잠시간에 餠店驛에 이르렀도다 / 북에 뵈는 솔밭은 隆陵 뫼신곳 / 이름 높은 大皇橋 거기에 있다오.

이 다음 정거장 烏山驛이니 / 온갖 곡식 모이는 큰 장거리오 / 그 다음 정거장이 진위역이니 / 물새 사냥하기에 좋은 터이다.

西井里를 지나서 平澤이르니 / 물은 낮고 산 낮아 들만 넓도다 / 묘한 경치 좋은 토산 비록 없으나 / 쌀 所出은 다른데 당하리로다.

신여성시대 개척자 여류화가 羅蕙錫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羅蕙錫

수원이 낳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羅蕙錫)이 태어난지, 올해로써 107년 째가 된다. 그녀는 조선시대인 1896년 수원군 신풍리에서 아버지 나기정(羅基貞)의 4남매 가운데 첫째 딸로 태어났다. 증조부가 호조참판(조선시대의 정이품 벼슬로 판서 다음의 직책)을 지냈고, 생부 역시 구한말에 사법관을 거쳐 용인·시흥군수를 지냈으니 가위 명문가의 규수라 할만했다. 그녀가 태어나던 1896년은 고종(高宗) 33년에 해당하는 건양(建陽) 원년으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기 1년 전이다. 이 때 조선은 밖으로부터는 열강의 거센 개방 압력을 받고, 안으로는 친일·친로·친중파 간의 암투와 갈등이 한창이어서, 과연 조선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혜석은 바로 이런 풍운의 시기에 태어났으나, 워낙에 개화된 집안인데다 그녀 자신이 총명해서 어렵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수원삼일여학교를 거쳐 서울진명여자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신여성 소리를 들을만 하였다. 이 시절 남이 알게 모르게 내비친 것이 그녀의 그림 그리기 재능이었다. 이 재능을 꿰뚫어 본 것이 그의 오빠 경석(景錫)이었다. 나혜석은 마침내 오빠의 도움으로 1913년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 유학하게 된다.

수원 처녀의 일본 유학이라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다. 그녀는 일본에서 미술 수학을 하기 위해 먼저(1908년) 일본에 와 있던 고희동(高羲東), 1909년에 도일한 김관석(金觀錫), 1910년에 일본으로 건너 간 김찬영(金贊永) 등 선배들과 만나게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고희동은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로 우뚝 서는 근대미술의 선구자요 개척자다. 나혜석은 낯선 이국 땅에서도 미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

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당찼다. 그림에 몰두해 있었던 그녀는 어느 날 글을 쓰기 시작한다. 문인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녀는 1914년 《學之光》(학지광) 3호에 '이상적인 부인'이란 제목으로 생애 첫 번째의 처녀작을 발표했다.

1915년에는 도쿄에 유학 온 여학생들을 규합해서 조선여자친목회를 조직하여 이국 생활을 하면서 꿈을 키우는 신여성의 결속을 다진다. 그 후에도 문단생활은 계속됐다. 1917년 동인지 《女子界》(여자계)를 발간하고, 기고활동 횟수도 늘려갔는데 그녀는 이즈음 정월(晶月)이라는 아호를 쓰기 시작하였다.

나혜석은 에너지가 충만한 여자,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얻기 위해 정열을 불살으는 여자, 여성 해방을 위해 앞장 서고 대변하며 고뇌하는 불사조와 같은 여자로 어느새 변해 있었다.

그러나 잘 나가던 그녀에게도 비극은 있었다. 한동안의 열애 끝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최승구(崔承九)가 폐결핵으로 갑자기 죽은 것이다. 그녀 나이 스물살 때 일로, 첫 사랑을 잃은 충격은 컸다. 1918년 서양화 수학을 마친 나혜석은 귀국하게 되고, 함흥영생중학교와 서울정신여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후학을 가르쳤다. 1919년 3·1운동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그녀는 김활란·박이덕·신마실라·신준녀·김마리아·황애시덕 등과 함께 독립만세를 모의하다 왜경에 붙들려 5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만주로, 구라파로 날개 돋힌 외유

이 때 나혜석은 변호사 김우영(金雨英)과 만나게 된다. 김우영은 일본교토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준재로, 고국에 돌아와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 나혜석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피고와 변호사로 만난 두 사람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졌다. 나혜석으로서는 첫 사랑 최승구로부터 받은 충격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의 보상을 받는 기회가 됐다. 두 사람은 1920년 서울 청동교회에서 화촉을 밝히게 되고, 이듬 해(1921)에는 큰 딸 김나열을 낳았다. 나혜석은 가정과 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정상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1921년 3월 19일은 나혜석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1913년 일본에서 서양화 수학을 마치고 돌아온지 8년 만에 최초의 개인전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날 전람회는 〈경성일보〉 내청각에서 열렸는데 서양화 70점이 출품됐다. 이 전람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희동 서양화 개인전에 이은 두 번째 전람회였으나, 여류 서양화가의 전람회로서는 첫 번째 개인전이었다. 당시 이 전람회 모습을 취재한 한 신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에서 처음 열린 나혜석 양화 전람회는 예정대로 시작됐는데 일반 관객은 남녀 부절하여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학교의 단체 관람객은 물론 몇몇 서양 여성들도 관람하였다. 출품작품 가운데 가장 값이 비싼 것은 '新春'(신춘)이란 그림으로 350원에 팔렸다.'

조선미술전람회의 산파역도 맡아

당시 웬만한 봉급장이 월급이 30~50원 안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대단한 값이었다. 개인전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 현대 미술단체의 효시라 일컫는 서화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미술전람회가 계동 소재 중앙고보에서 개최됐는데 나혜석은 고희동과 함께 4점의 유화를 출품하였다. 당시만해도 서양화가 뭔지, 유화가 뭔지 잘 모르던 때라 관람객의 반향은 여간 크지 않았다.

이 전람회가 있고나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미즈노렌따로오(水野錬太郎)는 서화협회 측 대표를 초청해서 조선미술전람회의 창설을 자문 받은 뒤, 1922년 1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사 제12호로 조선미술전람회 규정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동년 여름 제1회 '선전'(鮮展)을 갖게 되고, 1944년까지 23회에 걸쳐 전람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모름지기 나혜석은 선전의 산모 역할도 했고, 그 자신 훗날 선전에서 특선(1931년 · 제10회)의 영광을 안았다.

1923년 나혜석은 또 한번의 변신 기회를 갖게 된다. 즉 변호사로 일하던 남편 김우영이 직업 외교관으로 만주에 가게 돼 그녀도 자연스럽게 만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미 일본 생활을 체험한 터였지만 만주는 미지의 세계로, 호기심 많은 그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풍경화 중심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예컨대 〈중국 거리〉 · 〈봉황산〉 · 〈만주봉천 풍경〉 · 〈봉황산의 남문〉 · 〈천후궁〉 등이 그 때 그린 작품들이다.

만주에 건너간지 3년 만인 1927년 6월, 그녀는 천재일우의 행운을 거머쥐게 된다. 일본 외무성이 나혜석으로 하여금 미술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서양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특전을 베풀어 준 것이다. 나혜석은 2년 동안 구라파 제국을 전전하면서 서구의 화단을 섭렵하고, 유명화가들과 만나 미술세계의 이해와 함께 인간적 사교의 폭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와 방종의 그늘에는 함정이 뒤따르는 법인지, 그녀 앞엔 '화려한 비극'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 중추원(中樞院) 참의(조선시대 때 육조의 정3품 벼슬)로 파리에 주재하고 있던 외교관 최 린(崔 麟)을 만나게 되고, 애정행각을 벌이게 된다. 세상에 둘만이 아는 비밀은 없다. 이런 사실을 안 김우영은 진노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는 급냉했다. 이는 남편 김우영에 대한 배신이며, 자식과 가정을 가진 주부의 도리를 외면한 불륜의 시작이었다. 결국 나혜석은 1931년 봄 35세 나이로, 김우영의 이혼 제의를 받아들여 남남으로 갈라 섰다.

모든 것을 앗아간 비련의 혼외정사

영원할 줄 알았던 최 린과의 밀애도 오래가지 못했다. 너무나 짧았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도 어렵사리 쌓았던 과거가 너무 아쉬워 재기를 시도했지만 세간의 냉소 앞에서는 견디기 어려웠다. 작품도 인간도 무시 당했다. 쌓기는 어려워도 찰라에 무너지는 것이 탑이듯이, 나혜석의 인생도 기우뚱하기가 무섭게 침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나혜석은 그대로 주저 앉지 않았다. 잡지 〈三千里〉 8월호와 9월호에 '이혼고백서'라는 글을 연재했다. 글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고 저항적이었다. 이 장문의 고백서는 당시의 일반적 인습과 남성 위주의 사회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그녀는 여성의 정조가 남성의 지배적 전유물이거나, 여성 만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여성은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왠지, 나혜석의 부르짖음은 생각보다 크게 들리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거듭되는 것은 좌절과 실의, 그리고 무력감 뿐이었다. 나혜석은 살기 위해 다시 그림을 그렸다. 1935년 10월 24일부터 서울 선린동 조선관 전시장에서 조출한 소품전을 가졌으나, 철저히 외면 당하고 말았다. 미술은 작가의 재능의 산물이 아니라, 인격의 소산이라는 무

언의 정의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시기에 〈소녀〉·〈선죽교〉·〈화려한 작약〉·〈수원 서호〉·〈창가에서〉·〈금강산 만상전〉 등의 작품을 그렸다. 이 보다 앞선 1929년 9월 23일에는 그녀의 고향 수원에서 제2회 개인전도 가졌다. 자신을 낳아 준 고향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상누리(上樓里: 지금의 교동) 소재 불교포교당에서 동아일보 수원지국 주최로 열린 전람회에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린 작품 여럿이 전시되어, 고향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샀다.


1930년대에 그린 나혜석의 〈자화상〉

이 즈음에 그린 것 중에서 오늘날 대표작으로 회자되는 것이 〈누드〉와 〈자화상〉이다. 나혜석이, 한 여인으로서 영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제국주의자에 의해 도발된 이른 바 대동아전쟁은 날이 갈수록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고, 명분없는 싸움에 말려든 우리 민족은 갖은 박해를 당했다. 1944년 그 어느날 나혜석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풍문으로는 충남 공주 소재 마곡사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나, 훗날 서울 인왕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청운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명문가의 규수로 태어나 신교육을 받고, 유복한 가정을 꾸몄으며 만주와 파리 등지를 좁다하고 돌아다닐 때만 해도 나혜석은 선택된 신여성이었다. 그러나 자유 연애의 이름으로 시작된 불장난은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라는 명예와 자랑은 물론 인간 나혜석의 모든 것을 허공으로 날려 보냈다. 1948년 12월 10일 아침 그녀는 향년 53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지만 나혜석의 예술혼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녀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나라에서 서양화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한 개척자이면서 선구자임에 틀림없다. 후반기의 빗나간 애정행각이 그녀를 파멸로 몰아갔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녀에게 돌팔매질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혜석은 수원의 딸이며 수원의 빛이요 흔적이다.

독립운동의 기수 金世煥의 생애



영원한 독립운동가 金世煥

1919년 3월 15일. 경성(서울)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야마자와사이찌로(山澤佐一郎)는 3·1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다 왜경에 체포되어 기소된 한 젊은 독립운동가를 취조하고 있었다. 검사는 고답적인 자세로 질문하고 30대 피고인은 담담한 말투로 대답하였다.

검 사 성명·연령·직업·주소·본적·출생지는 어딘가.

피 고 金世煥, 32세, 수원삼일학교 교사로써 주소는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 242, 본적은 주소와 같다.

검 사 위기(位記:벼슬아치에 관한 기록)·훈장·종군기장·연금·은급·공적을 가졌는가.

김세환 없다.

검 사 종교는 무엇인가.

김세환 북감리교 신도다.

검 사 피고는 1919년 3월 13일 정무 총감부에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경부 아이우찌(相內)의 취조를 받을 때 공술한 것이 틀림 없는가.

김세환 틀림없다.

그날로부터 3일 후인 1919년 3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심문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서기 야마모도(山本)가 입회하고 있었다.

검 사　1919년 3월 1일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가지를 행진하였는가.

김세환　그렇다. 서울 종로에서 무교동 경성일보사 앞까지 갔었다.

검 사　피고가 야소교(예수교)와 천도교도가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때인가.

김세환　올해 2월 10일 경 朴熙道에게서 들었다.

검 사　그 때 어찌하여 그런 말을 들었는가.

김세환　나는 삼일여학교 교사로 있었으므로, 교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박희도를 찾아 갔다. 이 자리에서 박이 지금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고 있으므로 조선 독립을 할 때라고 하여 찬성하였다.

검 사　2월 22일 경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나.

김세환　교원을 구해 달라고 부탁할 겸 또한 독립운동을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박희도에게 갔더니, 박이 말하기를 너는 이 계획을 지방 사람에게 알리고 동지를 모집하라고 하면서 여비로 20원을 주기에 충남 방면으로 갔었다.

검 사　그 때 어찌하였는가.

김세환　해미에서 목사 김병제를 만나 세계 대세를 말하고, 독립운동을 계획하니 찬성하여 달라고 하여 동인의 찬성을 얻고서 27일과 28일 경성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 다음 공주에 가서 현석철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서 박희도에게 보고한 후 남양으로 갔었다. 거기서 동석기를 만나서 찬성을 얻고, 이천에서는 이강백을 찾아 찬성을 얻었으며 오산에서는 김광식의 찬성을 얻었다. 수원면에서는 임응순에게서 찬성을 얻었다. 그리고 경성에 동석기와 두 사람이 오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찬성 날인 한 것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소각해 버렸다.

검 사　그 후는 무엇을 하였나.

김세환　12일까지 경성 당주동에 있다가 체포되었다.

검 사　피고의 학력은

김세환　조선시대 외국어학교를 졸업하였다.

검 사　피고는 금후도 조선독립을 위하여 활동할 것인가.

김세환　그렇다.

판사 물음에 "독립운동하겠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1919년 5월 20일, 이번에는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판사 나가시마유우조오(永島雄藏)와 서기 시무라진베에(磁村仁兵衛)가 입회한 가운데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판 사　성명은 뭔가.
김세환　김세환이다.
판 사　1919년 2월 2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회합할 때 피고도 참석하였는가.
김세환　그렇다. 박희도, 함태영, 이갑성, 신흥식, 이승훈, 안세환 외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판 사　오화영, 오기선, 현 순 등도 회합하였는가.
김세환　성명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판 사　그 때 어떤 말을 하였는가.
김세환　조선독립운동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정부나 총독부, 파리강화회의에 서면으로 보내자는 말을 들었다.
판 사　동지 모집에서 승낙하는 사람은 각각 그 인장을 받기도 하였는가.
김세환　그렇다.
판 사　피고는 어떤 지방으로 갔었나.
김세환　나는 충청남·북도와 수원지방을 순회하였다.
판 사　그 때 신흥식은 평양, 이갑성은 경상남·북도로 가기로 하고, 현 순은 강화회의에 보낼 서면을 가지고 상해로 가기로 했었나.
김세환　그런 말이 있었다.
판 사　독립운동은 천도교와 야소교가 연합하여 운동하기로 하였나.
김세환　그런 말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판 사　독립운동의 비용은 천도교에서 지출한다는 말을 들었나.
김세환　그런 말은 듣지 못하였다.
판 사　지방에 가는데 여비를 받았나.
김세환　이갑성 집에서 박희도로부터 20원과 동지 모집에 조인할 미농지 15매를 받았다.
판 사　경성을 출발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김세환　최초에 충청남도 해미군(현재의 당진) 읍내 감리교 목사 김병제를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말을 하여 찬성을 얻고나서 승낙서에 날인하여 늦어도 26일까지는 박희도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였고, 그후 곧 홍성을 거쳐 천안에서 기차로 조치원에 와서 자동차로 공주까지 갔었다. 공주에서는 감리교 목사 현석철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와서 박희도에게 보고한 다음 수원으로 가서 남양교회 목사 동석기를 만나 찾아온 취지를 말하였더니 박희도에게 들었다면서 승낙하였다. 집에 와서 하루 자고 26일 이천교회 목사 이강우에게서 찬성을 얻고 조인을 받아가지고 박희도에게 가니, 시간이 늦어서 안되겠다 하므로 宿屋(숙옥:하숙집)에 와서 소각하였다.

판 사　피고는 3월 1일 어찌하였나.

김세환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시가지로 나가므로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판 사　파고다공원에서 누가 선언서를 낭독하였는가.

김세환　나는 군중 틈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낭독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판 사　그후 어찌 되었나.

김세환　집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예심 판사 겐다주에쯔(源田宙悅), 서기 나완규 입회하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때의 심문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판 사　종교는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인가.

김세환　종교는 북감리교 신자요, 수원삼일학교 교사를 하였다.

판 사　한일합방에 대하여 어떤 감상을 가졌나.

김세환　아무리 세계 대세로 병합이 되었다하더라도 항상 가슴 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모든 물건을 대할 때 초목에서 흐르는 이슬도 눈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지경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에 정정당당히 조선 사람은 권리를 갖고 일본 사람은 권리를 돌려 줄 시기가 돌아 올 줄 알았다.

판 사　2월 18일 경부터 박희도를 여러번 만나서 조선 독립운동에 대하여 상의한 일이 있는가.

김세환　그 때에 간일도 있고 모이기도 하였으나 많은 동지를 모아서 청원하자는 사람

이 많았으며 모든 일을 각각 분담하여 각 교파에서 의견이 합치되는 때에는 모두 합하여 운동하자고 하였다.

판 사　23일 밤에 경성에 와서 어디서 동지와 의논하였는가.

김세환　오전 6시 경에 왔으나 나의 의견과 맞지 아니하여 그대로 집으로 내려 갔다.

비굴을 몰랐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다소 장황해졌지만 이상이, 수원의 독립운동가 김세환이 수원과 공주 등을 넘나들면서 조선 독립청원서에 찬동하는 동지를 규합하다가 왜경에 체포돼, 재판을 받을 때의 재판기록이다. 재판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김세환은 서울에서 시작된 3·1독립운동 모의에 가담해서 수원과 공주지방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재판에서 조국을 빼앗긴 조선 사람으로써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며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가 금후에도 조국 독립을 위해 활동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도 "그렇다"라고 말할 정도로 조선 독립은 김세환의 전부였다.

김세환은 1888년(고종 25) 11월 18일 수원군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조선외국어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쥬오(中央)대학에서 수학을 끝낸 뒤 귀국, 1908년 4월 15일 창설된 수원상업회의소가, 1909년에 병설한 수원상업강습소에서 직조감독관 겸 교사로 일했다.

여기서 독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원상공회의소가 창립된지 올해(2003년)로써 어느덧 95년 째가 되고, 수원 최초의 사립 사회교육기관인 수원상업강습소를 세워 신교육을 가르친 것이 다름아닌 수원상업회의소였으며, 수원상업강습소의 후신이 오늘날의 수원고등학교라는 사실이다.

김세환은 8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수원상업강습소를 1916년에 사직하고, 수원삼일여학교(1903년 4월 설립된 사학으로 현재의 매향여자 중·산업정보고등학교) 학감으로 전직하면서 교육자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게 된다. 김세환이 삼일여학교로 자리를 옮긴지 3년 만인 1919년이 바로 기미년(己未年)이고, 그해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이에 앞서 김세환은 서울YMCA 간사이면서 북감리교 전도사이고, 훗날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朴熙道를 만나, 그로부터 역시 33인 가운데 하나인 李甲成을 소개 받게 된다.

2월 21일 이갑성 자택에서 있은 비밀회의에 참석한 김세환은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의


삼일만세운동이 있은 후 일제 재판부가 독립운동가들을 붙들어다 재판하는 광경. 김세환도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운동책임자로 지명되는데 그 연유는 경기·충청이북감리교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이다. 김세환은 곧바로 지역내의 교회 목사를 찾아가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서명을 받아냈다. 다른 사람들은 두세번씩 찾아가서도 서명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김세환은 그 특유의 진실성과 설득력 탓에 2월 28일까지 단 7일 동안에 40명의 찬동자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김세환이 사력을 다해 받아낸 서명문서를 가지고, 서울의 박희도를 찾아 갔을 때는 이미 33명의 서명자가 결정된 뒤였다. 김세환으로서는 아쉽고 분통 터질 일이었지만 대사에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힘없이 하숙집에 돌아온 그는 민족혼이 흠뻑 배어있는 서명문건을 태워버리고 말았다.

여기서 또 한가지 밝혀 둘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삼일독립선언서에는 33인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명과 선언식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17명이 따로 있다. 즉 33인 가운데 예심 중에 옥사한 양한목과 해외로 빠져나간 목사 김병조를 제외한 31명 외에 기독교 함태영(48세)·김진환(29세)·안세환(33세)·김세환(32세), 천도교 박인호(66세)·노헌용(53세)·이경섭(45세)·한병익(28세)·김홍규(45세), 교육인 송진우(31세)·현상윤(28세)·학생 강기덕(31세)·김원벽(27세)·문인 최남선(31세), 무직 임 규(56세)·김도태(29세)·정노제(30세) 등이 그들로, 이들까지 합치면 48인이 된다.

김세환은 33인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48인에는 당당히 들어 있다. 33인이 기미만세운동의 무대에 선 막전(幕前) 인물이었다면 김세환 등 17인은 막후(幕後) 인사였다. 인생이 찰라의 갈림 길에서 판이하게 갈라 서듯이, 조국독립운동가들의 운명도 순식간에 자리 메김을 한 것이다.

김세환은 후자에 속하게 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서명공작을 했고, 실제로 40명이라는 많은 지지인사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그가 거사에 뛰어 들

때는 일신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날이 오더라도 빼앗긴 조국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 뿐인 목숨을 초로와 같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허나 운명의 여신은 김세환에게 또 다른 후일을 기약하듯이, 주동자 반열에서 끌어 내려 공모자 자리에 세워 놓았다.

결국 김세환은 1920년 10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구류 360일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복심법원이란 고등법원보다는 아래이고, 지방법원보다는 위인 일제 때의 재판소를 말한다. 당시 복심원은 경성(서울)·평양·대구에 있었는데 김세환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피고라면 너나없이 갈망하는 것이 무죄다. 그러나 김세환은 무죄가 유죄처럼 느껴졌을지 모른다.

훗날 공개된 공판기록에 따르면 33인 가운데 3분의 1이 한일합방을 찬성하고, 10분의 1이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김세환이야말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순수 독립운동가였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아쉬운 최후가 있는 법이다. 그는 병중에 광복을 맞았다. 홍유선이 찾아와 "형님 해방됐오! 해방이 됐단 말이야!"라고 감격해 맞이 않았으나, 김세환은 나즈막한 소리로 "뭐 해방이 됐다구. 해방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이 되었다면 병석을 박차고 벌떡 일어났어야 옳았는데 이미 쇄잔한 몸은 움직이질 않았다. 김세환은 1945년 9월 16일 이른 아침 5시 50분, 수원 매교동에 있는 수원상업학교 구내 사택에서 향년 57세를 일기로 한많은 인생을 마감했다.

독립운동의 열병을 앓은 金露積의 일생


항일투사 金露積

수원지방을 중심 무대로 한 또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가 있었으니, 그가 다름아닌 김노적(金露積)이다. 김노적은 1895년 5월 12일(高宗 32) 아버지 金用甫, 어머니 金用善의 2남으로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지금의 교동) 332번지에서 태어났다.

1910년 일제의 조선 식민지가 시작되자, 김노적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 1914년 김세환이 교사로 있는 수원상업강습소에 입학, 1916년 본과 2학년을 졸업했다. 21세의 만학이었다. 드디어 1919년(기미년)이 되면서, 서울과 지방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위한 지하활동이 시작되는데 수원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김세환이 주동자였다. 김세환은 서울의 독립운동가들과 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항일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해 2월 어느날 김세환은 수원의 동조자들을 불러 놓고 거사 모의를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다름아닌 수원사업강습소였다. 강습소는 남창동에 있었으므로, 수원경찰서(지금의 수원 행궁)와 일본헌병대(지금의 종로파출소 맞은편)와는 불과 4~5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마치 호랑이굴 옆에서 모의를 한 셈이지만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대담한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김노적을 비롯하여 朴善泰·李善卿·林順男·崔文順·金錫浩·金秉甲·李熙景·愼用俊 등이 참석했다.

김노적은 24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20세 안팎이었다. 김세환의 거사계획을 듣는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비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모임에서 결정된 수원 거사계획은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 같은 날 정오 수원에서도 삼일학당(지금의 삼일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방화수류정-장

안문-종로 사거리-팔달문까지 진출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코스를 정한 것은 왜경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은 있지만, 읍내 중심가라 군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인지, 왜경이 눈치 챘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같은 날 밤에 횃불시위를 갖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군중 동원은 김노적이 맡았다. 마침내 운명의 밤은 왔다. 김노적을 선두로 한 일단의 시위대가 동창부리 창룡문 봉수대로 올라가 일제히 횃불을 치켜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를 신호로 성곽 곳곳에서 봉화가 타오르고 독립만세 소리는 어둠이 깃든 장안을 진동시켰다.

거사는 성공했다. 그러나 날이 밝자 왜경은 시위대 주모자 검거에 나서게 되는데 김세환·김노적 등 60여 명은 비굴한 꼴을 보이지 않고 순순히 외경에 이끌려 갔다. 김세환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시위자들은 수원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왜경은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 김노적은 수괴로 지목되어 고등계 형사 스미가와(炭川), 노구찌(野口)의 가격으로 갈비 뼈 4개와 왼팔이 부러지고 두개골이 깨졌지만, 거사계획과 모의 내막은 끝내 불지 않았다. 김노적은 산루리 소재 성공회 영국인 신부의 도움으로 풀려나, 그곳에서 죽을 뻔한 목숨을 건졌다. 이 때부터 김노적은 일경의 감시를 받게 되고,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미행 형사가 따라 다녔다. 3월 1일 수원 시위는 수원읍내 뿐 아니라, 우정·장안·향남 등지로 파급되어, 크고 작은 독립만세 시위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김노적은 주변의 도움으로, 그해 4월 1일 경성사립중앙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되어 1921년 3월 23일 3학년을 수료하였으나, 왜경의 압력으로 퇴학당하고 말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1921년 4월 1일에는 경성사립배재고등학교 4학년에 진학, 1922년 3월 22일 본과를 졸업하는 뚝심도 보였다.

강풍에도 꺼지지 않은 독립정신

김노적이 학문을 일단락했을 때의 국내 사정은 매우 험악했다. 조선총독부는 무단정치의 한계를 깨닫고 소위 문화계몽정책을 썼지만 알맹이는 예전보다 더 간악하고 공포적이었다. 김노적은 재학 중에도 사회단체운동을 통해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예컨대 1920년 7월 영국 신부 구세실(具世實)이 주도한 수원진명구락부 창립발기인이 되고,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에 선출됐다. 회장 金 仁·총무 趙鏞昊·도서부장 金露積·운

동부장 朴善泰 등이 주역이었다.

또 두 살 아래인 박선태가 주도하는 구국민단(救國民團), 혈복단(血復團) 등에도 참여했다. 〈대한민보〉와 〈독립신문〉을 은밀하게 배포하여 항일정신을 북돋우는 데도 앞장 섰다. 1920년 8월에는 왜경에 발목이 잡혀 검찰국으로 송치되고, 검사 가토오(加藤)의 기소로 1921년 4월 12일 경성(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장 타이사이(太宰), 배석판사 후지무라(藤村)·李弘鍾에 의해 제령 7호 위반죄로, 박선태·이득수는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김노적은 간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고보 퇴학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쳤다. 1922년 배제고보를 졸업한 김노적은 그해 4월 초하루 수원사립 화성학교 교원으로 교단에 섰는데 모교로 돌아 왔을 때 그의 나이 27세였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그의 항일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한계를 느낀 그는 1923년 4월 10일 화성학원을 사직하고 중국 장춘(長春)으로 탈출, 같은 해 5월 1일 남경건업대학(南京建業大學) 고등학부 문과에 입학했다.

망가진 몸으로 광복군에 입대

자연히 상해 임시정부에 드나들게 되고 이 때 임정 요인 손우혁을 알게 돼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1924년 봄 귀국하자, 그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수원성공회의 도움으로 1925년 4월 1일 수원삼일학교 교원으로 다시 교편을 잡았으나, 교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배제고보 동창인 洪思赫과 어울려 수원구제회 멤버가 되었다.

이 모임은 수원 최초의 경노자선단체로 무의무탁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돕는 자선모임이었다. 그러나 봉사활동 뒤에는 동전의 뒷면처럼 항일운동이 숨어 있었다. 1926년 3월 24일 그는 본래의 근무지였던 화성학원으로 되돌아 왔다. 조선소년군 수원 8호대(虎隊) 대장을 지낼 때는 제1회 수원야구대회를 열어 야구 불모지인 수원에 야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1927년 10월 9일에는 월남(月南) 李商在가 주관하는 신간회(新幹會) 수원지회에 참여, 초대회장 김세환의 뒤를 이어 2대 회장으로 활약하였다. 이렇듯 김노적의 일상은 단 한시도 편안한 때가 없었다.

무엇을 하나, 인생의 뒷면에는 조국 독립의 염원이 지워지지 않았고, 바로 그일을 위해 태어난 듯이 분골쇄신했다. 고통 받는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줄창 계속되는 왜경의 가택수색과 심문에 온 가족이 지쳐 있었다. 1932년 1월 14일 나이든 아버지 김용보가 향년 71

세로 한 많고 설움 많은 세상을 등지니, 김세환의 마음도 아팠다. 아버지의 타계가 김노적의 탓만은 아니었겠으나, 조국 독립의 열병에 걸린 아들을 지켜 보는 아버지의 심사도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김노적은 1939년 10월 또다시 중국을 향해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된다. 왜경이 검속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옮겨지자, 46세 나이에 한국 광복군에 자원 입대했다. 고문 때문에 왼팔이 망가진 상태로 말이다. 이쯤하면 그의 일편단심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만하다. 드디어 그에게도 길고도 험난하던 고뇌의 시간이 멈추는 때가 왔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것이다. 그는 그해 11월 23일 백범(白凡) 金 九와 함께 그토록 그리며 사랑하던 고국에 돌아왔다.

주변의 권고로 임정 요인들이 참여한 한국독립당에 입당, 당무위원과 초대 경기도당 책임자로 일하였으나 이미 깊어진 신환 때문에 마음껏 활약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이 뜸해진 1953년 3월 22일 평생 동안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써 마음 고생하며 살아온 조강지처 崔慶玉마저 서둘러 저승 길에 오르니, 김노적의 회한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963년 6월 초하루 김노적은 무거운 짐을 내던지고, 안식의 자리에 든다. 남수동의 누가에서, 그 때 나이 68세였다.

수원 태생 여걸 白善行의 고락기

수원 출신의 근대 여류화가하면 서양화가 나혜석을 거명하는데 이론이 없다. 그렇다면 한 시대를 풍미한 수원 출신 여걸은 과연 누구일까.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도 없고, 공인된 인물도 없었다. 도읍이 생긴 이래 2백년이 지난 수원이라고는 하지만 재자가인(才子佳人)이 득시글 거리고, 출중 지사(志士)가 비일비재했다던 이 땅에 여걸이 없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 근대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나혜석에 견줄만한 여걸을 찾아왔는데 최근에야 그 주인공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름은 백선행(白善行)이다. 백선행은 수원 백씨의 후손이다. 그런데 훗날 당대의 자선사업가로 명성을 떨친 고장이 다름아닌 분단의 땅, 평양이라는 사실은 한 여성의 인간사를 논하고 당시의 역사를 관조함에 있어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한낱 빈한한 농가의 여식이던 백선행이 천신만고 끝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갑부가 되고, 나중에는 육영사업에 전재산을 쏟아 붓는 '공수래 공수거'의 초아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 범상치 않다. 가난은 인간을 옥죄이게 하고, 옥죄인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법인데 그녀는 그런 굴레를 용납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녀는 위대한 것이다.

또 한가지는 백선행의 '찬란한 일생'이 조선 근대사에서 홀대 받은 여성 인물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새로운 역사 인식을 갖게 한 점이다. 특히 불평등한 남존여비사상에 짓눌려 핍박 받은 근대 조선 여성의 인권과 사회활동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는 여간 큰 수확이 아니다.

백선행은 1848년(憲宗 14) 11월 19일 수원에서 태어났다. 수원 백씨의 후예인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고고의 소리를 지른 곳이 수원 어딘지는 확일할 길이 없다. 마악 세상 밖으로 나온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안겨 머나먼 평양 땅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녀가 7살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편모 슬하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야 했다. 애비없는 자식, 그것도 여식이 감당해야 할 앞날이란 열의 아홉은 가시밭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녀도 예외가 아니었다.

홀어머니가 꾸려가는 살림은 궁핍하기 이를데 없어서 제대로 먹고 입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시 효심이 강한 그녀는 힘 닿는데 까지 어머니를 도왔다. 그녀가 14세 묘령의 처자가 되었을 때 혼담이 들어와 역시 수원 태생의 신랑 안재욱(安載煜)과 결혼을 했다. 그러나 단꿈을 꿀 사이도 없이 남편 안재욱이 죽는 바람에 청상과부 아닌 아기 과부가 되니, 그녀 나이 16세였다. 사경을 헤메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무명지를 갈라 피를 먹이기까지 했지만 무심한 사내는 저승 길을 재촉하고 말았다. 회자정리(會者定離)의 법칙을 뛰어 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열여섯 새색시의 남편과의 사별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이자 절망이었다. 과부가 되어 친정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 백선행은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결행하는 '제2막 인생'을 열어간다.

'불륜과 도둑질만 빼고는 모두 한다'

그 첫째는 좌절과 고통을 욕망과 야망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두 번째는 불륜과 도둑질을 빼고는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결심이었다. 그녀의 결심은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간장 장사를 했다. 팔자 좋은 아낙내들의 으시대는 꼴을 본채 만채 하면서 품도 팔았다. 그녀는 장정들이 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 그녀의 억척은 용모와 무관하지 않았다. 덩치가 사내 같고, 키도 장부처럼 훤칠하였다. 거기다가 양볼에 광대뼈까지 불거져 남자 면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여자는 여자였다.

10년 동안 궂은 일 마다 아니하고 돈 벌이에만 몰두한 나머지 상당한 돈을 모았다. 그래서 겨우 호구지책이나 면하게 되나 보다 했더니, 노모가 세상을 떴다.

마음 아픈 일은 또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생존에 입양했던 양자가 유산을 내 놓으라기에 집 한채 만 남겨 놓고는 모두 주고 말았다. 마음의 상처는 컸지만 현실의 몸은 자유스러웠다.

혼자의 몸이 된 백선행은 '제3막 인생'을 시작한다. 그녀는 자수성가의 열망을 한층 드높혔다. 봉선화 모종과 꽃을 따다 파는가 하면 뜨물찌꺼기를 얻어다 돼지를 키웠다. 누에도 치고, 베·무명·명주까지 짰다. 그녀의 손은 작은 직물공장 같았다. 20대 청상과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생리적 욕망도 견디어 냈다. 치장은 남의 일이었다. 웬만하면 손이 가게 마련인 분칠은 말할 것도 없이, 연지 한번 바르지 않았다. 새 옷은 지어 입어 본 일이 거의 없고, 평양의 아녀자가 즐기는 단오 놀이에도 끼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사치와 향

락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녀에게는 오직 '부의 축적'만이 인생의 목표였고 신념이었던 것이다.

평양은 4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古都)이다. 단군·기자·위만 등의 3조선과 고구려의 서울이기도 했다. 시내의 중앙을 관류하는 대동강(大同江)과 그 지류인 보통강(普通江)·합장강(合掌江)이 서녘 땅의 젖줄이 되고, 강 기슭을 따라 서북 특유의 문화가 형성됐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에는 시련도 있는 법인지 영욕의 역사가 반복되었으니, 강인하면서도 낙천적인 민중정신은 근대 한국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대동강을 끼고 도는 수운(水運)은 평양을 낭만이 넘치는 산업의 고장으로 만들었다. 대동문은 경의가도의 관문이고, 옆에 자리한 영광정(鍊光亭) 누각 밑을 흐르는 명경지수(明鏡止水)는 나그네의 발길을 머뭇거리게 했다.

임진왜란 때 평양 명기 계월향(桂月香)이 일본의 부장을 꾀어 金應瑞로 하여금 목을 베게한 뒤 강물로 뛰어 들어 자진한 곳이 바로 여기다. 을밀대(乙密臺)에 오르면 모란대(牧丹臺)의 천험(天險)이 바로 가까이 서 있고, 고개 돌려 굽어 보면 현무문(玄武門)·부벽루(浮碧樓)가 빨려 들어온다. 넘실대는 대동강 물결 넘어에는 실버들이 연기처럼 서려 있는 능라도(綾羅島)와 반월도(半月島)가 떠 있으니, 한폭의 그림인가 선경인가. 의기(義妓)·명기(名妓)·미기(美技)가 많기로도 유명해 유경(柳京)이니, 색향(色鄕)이라 했다.

마침내 다가온 富神의 손길

아무튼 평양에서 백선행이 주목 받는 여걸이 되고, 사회사업가로 급부상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소산이었다. 그럼 이쯤에서 백선행이 어떻게 평양에서 내로라하는 갑부가 되고, 평생 동안 모은 엄청난 재산을 육영사업에 희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그녀의 '부의 축적' 비결은 오직 세가지였다. 첫째는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고, 둘째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입으며, 셋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은 쉬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녀는 낱알 한알, 밥풀 하나라도 버리지 않았다. 옷은 새로 지어 입는 일없이 덕지덕지 기워 입었다. 심지어 고이와 고쟁이를 아흔아홉번이나 기워 입었다니까 더 할말이 없다.

그녀는 웬만큼의 돈이 모이게 되자, 그녀가 살고 있었던 대동군 용연면 객사리 일대의 전답을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대동군은 평양에서 4-50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로 유명한

쌀 산지다. 그녀는 사들인 전답을 도지(賭地)를 주고, 추수 때 곡물로 받았다. 백선행은 어느새 지주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년, 대동군에서 내로라하는 부자가 됐다. 드디어 백선행은 소유의 사회 환원을 결심하게 되고, 그 첫 번째 행사가 객사리에 '솔뫼다리'를 놓은 일이다. 동리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다리 이름을 백선행의 이름자 일부를 따서 백선교(白善橋)라 명명하였다. 이 때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지 4년 째가 되는 1914년, 그녀 나이 66세였다.

吳胤善 · 曺晩植 장로와의 만남

허리춤에, 버선목에, 그것도 모자라면 등거리 속에다 감추어 가며 모은 청상과부의 돈은 이런식으로 햇볕을 보게 됐다. 하지만 그녀가 보다 결정적으로, 보다 경이적으로 갑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의 극적 드라마는 따로 있다. 이 대목은 조흥은행 상무와 동화은행 전무를 역임하다 지금은 평안시민회 회장을 지낸 李在泉씨의 증언을 인용하가로 한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넌다는 백선행도 실수할 때가 있었다. 평양 교외 승호리(勝湖里)에 있는 수십만평의 야산을 속아 산 것이 그것이었다.

건달 농간에 걸려 풀 한포기 제대로 자라지 않는 야산을 샀을 때 여간 낙담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일본인 오노다(小野田)가 값은 고하간에 야산을 사겠으니 팔라고 졸라댔다. 흥정이랄 것도 없이 평당 30원 씩에 팔고 샀다. 3전 씩 주고 산 것이니까 꼭 100배를 남긴 것이다. 백선행은 당시 돈 30만원의 현금을 거머쥐면서 일약 갑부가 된 것이다. 오노다가 불모의 야산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즉 야산 전체가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석회암 석산으로, 훗날 그 유명한 오노다 시멘트공장의 본거지가 된 것이다.

하늘의 도움이 아니고서야 이런 횡재가 어찌 가능했겠는가. 이 시점에서 백선행은 본격적인 사회사업을 펼치기로 결심하고, 산정현교회(山頂峴敎會) 장노인 吳胤善 · 曺晩植과 만난다. 그녀는 두 장노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사업의 대상 선정과 추진 일체를 일임하였다. 다만 그녀는 새로 학교를 짓기 보다는 기왕에 서 있는 학교 가운데서 양심이 바르면서 재정이 어려운 학교를 돕고 싶다고 하였다. 두 장노는 그녀의 뜻에 따랐다.

백선행에게는 그 특유의 돈 철학이 있었다. 첫째 돈은 벌기가 어렵고, 둘째 돈은 지키기가 어려우며 셋째 돈은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벌고 지키는 데는 성

공했다. 다만 쓸 줄을 몰라, 오·조 두 장노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이다.

일은 급진전 됐다. 1925년 2월(당시 78세) 논 1만 800평과 밭 3500평을 광성소학교에 기부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송현여학교에 추자도 땅 2만 6000평, 1927년(당시 80세) 2월 기백창덕소학교(紀白彰德小學校)에 300마지기 논, 역시 같은 해 숭인상고(崇仁商高)에 1만 3천원의 거금을 기부했다. 위의 기백(紀白)은 白善行의 선행을 기념한다는 뜻에 부친 교명이다.

오윤선·조만식 장노가 평양에 조선인이 쓸 수 있는 공회당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자, 백선행은 쾌락했다. 얼마 뒤 설계가 완성되었는데 설계비가 당시 돈으로 2만 8천원, 쌀 140가마 값이었다. 백선행은 군말없이 지불했다. 총 건평 324평으로 석조 2층의 건물이었다. 1층에는 1천명을 수용하는 대강당이 배치되고, 2층에는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회의실 등이 마련됐다. 1929년 5월 7일(당시 82세)의 일이다. 이름하여 '백선행기념관'이다.

평양 최초의 사회장, 86세에 영면

1930년 11월(당시 83세) 평양의 저명 인사들이 '백선행여사 친하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때 백선행은 "조선인들에게 유익하게 쓰여지기 바란다"는 짤막한 인사말을 남겼다. 1933년 5월 9일 한 시대를 거칠고 아름답게 산 백선행은 하늘의 부름을 받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녀 나이 86세였다. 그녀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이었다. 그녀가 떠나가는 장례 행렬은 5리나 되었고, 평양 시민들은 영원한 이별을 아쉬워하였다.

끝으로 일화 하나를 덧붙이면서 이글을 마감하기로 한다. 백선행은 임종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약간의 유산을 남겼다. 그런데 그녀의 노후를 끝까지 시중 들어 준 몸종에게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 이거나 가져라"면서 덕지덕지 기운 등거리를 던져 주었다. 몸종은 여간 서운하지 않았다. 한편으론 화도 났다. 그래서 장작불이 활활 타는 아궁이 속에 쳐 넣을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부욱 뜯어 봤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빳빳한 100원 짜리 지폐가 가득히 들어 있었다. 그녀가 고향 수원에 이렇다할 발자취를 남기지 않은 채 일생을 마친 것은 유감 스럽다. 하지만 동포를 위하고, 박해 받는 조선인의 세상을 밝게 해 준 미거라면 지역이나 시공을 따질 일이 아니다. 지금도 백선행기념관은 평양 대동문과 옛 국일관 중간 지점에 있다고 전해진다.

수원이 낳은 양악의 거성 洪蘭坡


양악계의 거성 洪永厚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 동리 새 동리 나의 옛 고향 /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 냇가에 수양 버들 춤추는 동리 /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홍난파(洪蘭坡 · 본명 洪永厚)가 지은 '고향의 봄' 가사다. 모름지기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다 인생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치고 이 노래를 모르거나 불러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노랫말과 곡이 우리 민족 정서에 맞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랫말이 그리운 고향과 사람, 그리고 소년기의 애틋한 추억과 동경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탓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애증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신묘함이 있으니 애착이 갈 수밖에 없다. 홍난파가 이 노래를 지은 것은 1920년, 그의 나이 23세 때다. 이제 홍난파가 태어난지 106년, '고향의 봄'이 세상에 나온지 83년이 된다.

이번 마당에서는 수원이 낳은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홍난파의 일대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난파는 1897년 옛 水原郡 南陽面 活草里에서 南陽 洪氏 23세 손인 洪 淳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지 3년 후인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소위 '한일합방조약'을 맺게되니, 27대 임금에 걸쳐 519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조선 왕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조선인은 국적없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선 홍난파도 불운한 시기에 태어난 조선의 후예였다. 3살 되던 해(1900)에 서울 정동으로 이사 가게 되고, 형 錫厚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의학도로

서 학문을 닦고 있었으나, 14살이던 홍난파는 음악세계에 눈을 돌리게 되고, 마침내는 부모와 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 공부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1912년 서울 YMCA 중학부에 입학한 홍난파는 평양에서 미국선교사로부터 서양 음악을 배운 뒤 귀향한 金仁湜 문하에 들어가, 바이올린 교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난파가 음악세계와 인연을 맺는 최초의 계기였다.

1년 동안 김인식 문하생으로 바이올린을 배운 난파는 이듬 해(1913)에 조선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습소야말로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악'과 '서양악'을 함께 가르치는 음악 전문교육기관이었다. 여기서 조선정악전습소의 내력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다. 이미 국운이 기운 조선은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마저 설 땅을 잃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한말의 국악인 金景南·河順一·韓容九 등 10명이 발기하여 조양구락부(調陽俱樂部)를 창설했는데 이 구락부는 아악(雅樂) 전수에 그치지 않고 양악(洋樂) 발전에도 힘썼다. 1911년 2월 조양구락부는 정악유지회(正樂維持會)로 바뀌게 되고 얼마 후에는 조선장악전습소로 개편되면서 국·서악을 함께 가르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학교로 변신하였다. 난파는 1913년 성악과(2회)를 졸업하고, 1914년에는 기악과(3회)를 졸업함으로써 유일한 양과 졸업생이 되었다.

1925년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

졸업 후 전습소에서 3년 동안 바이올린 교사로 일하던 난파는 아버지와 형의 권유로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했지만 적성이 아닌 것을 깨닫고, 1918년(22세) 아버지 몰래 도쿄우에노음악학교(東京上野音樂學校)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음악수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듬 해인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하게 되고, 한 때는 〈매일신보〉 기자로 어론계에 몸 담기도 하였다. 그는 1922년 정동 자택에다 연악회(硏樂會)를 차리고, 1925년에는 연악회 주최로 YMCA 강당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

언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음악전문지인 《音樂界》를 창간하였다. 학문의 부족함을 통감하던 난파는 1926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국립고등음악원에서 3년 간의 유학을 마쳤다. 난파는 이 때 일본 樂壇으로부터 능력있는 바이올린 연주가로 인정 받아 동경교향악단의 제1 바이올린 주자로 활약하면서 이름을 떨쳤다. 1929년 귀국한 난파는 중앙보

육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유치원 교사를 배출하는 곳으로 난파는 이 때 동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마침 이 학교에는 어린이 운동가 小波 方定煥 등이 재직하고 있어서 동요 만들기가 자연스레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아동문학의 원로 尹石重은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 바 있다.

"난파선생으로부터 엽서를 받았는데 이 때 내 나이 18세였다. 엽서 내용은 파고다공원 건너 덕원빌딩 안에 있는 '研樂會'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나보다 13세나 위였으니까 난파 나이는 31세였을 것이다. 난파선생은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상처 받은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정서가 듬뿍 담긴 동요를 만들어 주자고 제의하면서, 나더러 노랫말을 지어 달라고 했다. 이런 인연과 만남으로 해서 1929년과 1933년 두 차례에 걸쳐 《朝鮮童謠百曲選》을 만들게 됐다."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 강행한 미국 유학

난파는 1931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현재 남아있는 관련자료에 따르면 난파의 도미 연도가 1931년, 1932년, 1933년 등 구구각각인데 아마도 1931년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난파가 도미를 결정하자, 경성·대구·목포 등지에서 '홍난파 도미 송별음악회'가 잇따라 열렸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1931년 6월 5일 자에 '樂團의 巨星 洪永厚氏 渡美', 6월 16일 자에 '洪蘭坡氏 獨唱會 명일 개최', 6월 17일 자에 '洪蘭坡씨 渡美送別音樂會 16일 밤 公會堂에서 개최', 6월 23일 자에 '洪蘭坡씨 送別音樂會 大邱에서 개최', 6월 26일 자에서 '洪蘭坡씨 送別音樂 木浦에서 개최' 등 송별음악회 개최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난파의 도미는 1931년이 확실하고, 도미한 달은 7·8월일 가능성 크다. 그런데 이 때의 도미는 일반적으로 음악 수업을 하기 위한 유학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사실은 첫 사랑에 푹빠진 난파가 미국으로 간 애인을 따라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 '비연의 비화'가 숨어있었다. 원로 문인 金乙漢이 지은 《그리운 사람들》(1991년 9월 20일 三中堂 발행)에 보면 비연의 주인공이 된 난파의 방황과 고뇌, 그리고 첫 사랑을 놓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가 얼마나 간곡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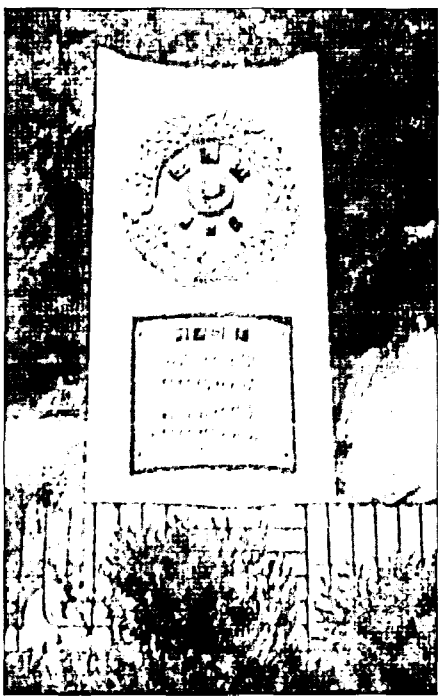
"난파가 서울에서 연학회를 조직하고 혹은 글을 쓰기도 하고, 혹은 연주회를 열기도 하면서 음악 보급운동에 열중할 무렵에 그에게는 K라는 애인이 있었다. 난파와 그녀는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장래를 약속까지 한 터였다. 하지만 K양은 이화학당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음악과장 미스 이엉의 수양 딸이었으므로 결혼을 하려면 그녀의 허락을 받아야할 처지였다. 그러나 미스 이엉은 홍난파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을 누구로부터 전해 듣고, 그와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며 맹반대를 했다. K양은 수양 어머니의 뜻에 따르자니 난파가 울게 되고, 난파의 청혼을 받아들이자니 수양 어머님을 울게 할 처지가 되므로 진퇴양난이었다. 결국 K양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수양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 갔다. 실의에 빠진 난파는 '오냐 네가 가면 나도 간다'며 급히 미국 유학 길에 오랐는데 유학생활 자체가 무리로 시작된 터라 퍽이나 고생을 하게 되고 건강까지 해치고 말았다. 한계를 느낀 난파는 귀국하였고, K양과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파가 정신적으로 망신창이가 되어 있을 무렵에 옛날 중앙보육학교 재직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 李大亨을 만나게 되어 첫 사랑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

金乙漢의 글 가운데는 이런 구절도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음악을 하지 말라고 야단치던 형(洪錫厚)의 아들 3형제가 숙부(洪永厚)의 영향을 받아 모조리 바이올린을 배워 '음악일가'를 이룬 일이다."

바이올린 · 작곡 · 지휘 · 논설로 이름 떨친 음악 귀재

미국에서 실연의 아픔을 안고 고국에 돌아온 것이 1936년. 난파는 3년 동안 미국 샤우드음악대학에서 음악연구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난파는 미국에 있으면서 '흥사단가'(興士團歌)를 작곡한 일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훗날 安昌浩 · 李光洙 등과 함께 옥고를 치뤘다. 도미하기 전인 1930년에는 경성방송국 양악부 책임자가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방송관현악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난파는 논객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음악회 · 연주회 · 지휘 · 작곡 등 음악활동을 하면서 당시의 일간 신문과 잡지에 많은 논설을 투고했다. 그의 글은 음악평론이 주된 것이었으나 개중에는 국민 계몽적인 글도 있었다. 확보된 자료(京畿藝術總史 1994년. 12. 31, 藝總


수원 八達山에 세워진 〈고향의 봄〉 노래비

京畿道支會 발행)에만 보더라도 난파는 두 번째 일본 유학(1926년)을 하기 전인 1924년부터 〈조선일보〉·〈동아일보〉·〈라디오세계〉·〈朝光〉·〈青年〉·〈新家庭〉·〈東光〉 등에 다양한 글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시기는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집중되고 있는데 상·중·하로된 연재 논설은 보통이고, 20회를 넘는 연재도 적지 않았다. 1934년 2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音樂夜話 第一夜 진주의 선물'은 무려 26회나 연재됐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난파야말로 음악을 작곡이나 연주로 소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 이론 개발과 비평을 동시에 해낸 '행동과 논리'를 조화시킨 음악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고뇌에 찬 시련과 마주하면서 불모의 음악세계를 개척하고 펼쳐나간 그에게도 한계는 있었다. 1941년 8월 30일 그의 나이 44세를 일기로 타계한 것이다. 그가 작곡한 가곡으론 〈봉선화〉·〈성불사의 밤〉·〈옛 동산에 올라〉·〈봄처녀〉·〈장안사〉·〈금강에 살어리랏다〉 등 주옥 같은 노래가 있고, 저서로는 〈음악만필〉·〈세계의 악성〉과 창작소설 〈處女魂〉·〈向日草〉·〈暴雨기 지난 뒤〉 등이 있다.

수원이 낳은 음악계의 거성도 그가 타계하고 나서는 일반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타계한 시기가 일제 패망 4년 전인데다 뒤이은 대동아전쟁 때문에 망각의 피안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광복이 되고 나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러던 중 1969년 8월 30일 난파추모일을 맞아 예총 경기도지회가 '제1회 난파음악제'를 개최함으로써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난파의 음악정신과 세계가 재조명 받기에 이른 것이다. 올해로써 34회 째를 맞았고, 이 콩쿨을 통해 음악계의 기린아로 인정 받은 이가 부지기수다. 이에 앞서 1968년에는 수원 팔달산에 '홍난파 노래비'가 세워졌고, 1987년 4월 10일(탄신일)에는 생가 복원이 실현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홍난파의 친일 시비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로 다루지 않았다. 이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

근대 문예의 선구자 洪思容 일대기


휘문의숙에 재학 중일 때의 露雀 洪思容

"만세 부른 담 담해, 어느 날 단핏골(花洞) 내집에 옥색 옥양목 두루막을 입은 한 표표한 선비가 찾아왔다. 그것이 노작 그대였다. '이슬에 젖은 참새' 하고 우리 웃지 않았나. 《白潮》를 낼 무렵은 그대의 득의한 때였다. 무대 감독인 그대를 광무대에서 만났다. 그 조용한 음성으로 그대는 나와 나란히 서서 무대를 바라보면서, 극예술에 대한 포부를 내내 말하지 아니하였나. 형이라고 부르고, 아우라고 부르면서도 서로 만나는 날이 많지는 못하였다. 그대는 바람과 같이 불쑥 나를 찾아 오는 때가 있었다. 그대는 술을 즐겨하고 선을 찬미하였다. 아들 혼인에 주례를 하라고 나를 끌어 간 지도 벌써 여러 해 전이다. 노작도 나이 많았구나 하였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무척 오래간만에 그대가 동저고리 바람으로 자반 비옷을 지푸라기로 묶어 들고 자앗골(孝子洞) 거리로 올라가는 것을 만난 것이, 이제 보면 우리 둘이 금생의 영결이었다. 지난 봄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서, 꼭 나를 만나서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알려 달라고 하고는 그대는 오지 아니하고 말았다. 아파서 못 왔던가, 꼭 내게 하려던 말은 무엇인가. 이제는 물을 길이 없다. 피차에 법계를 두루 도노라면, 만날 날 있으려니 둘의 인연이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노작아, 가난·고생에, 세상 풍파에 시달린 혼을 편히 쉬어라.

정해(1947) 정월, 그대 몸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광 수"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가, 노작 홍사용(露雀 洪思容)이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 들던 날 노작 영전에 바친 글이다. 1947년 정월에 쓴 글이니까 어언 56년 째가 된다. 이 글을 보면 노작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술을 위해 무엇을 하려했는지, 그리고 세상 사는 안목과 태도가 어떠하였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슬에 젖은 참새'는 초라할 수밖에 없다. 무대를 바라다 보면서 포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예고없이 불쑥 찾아 왔지만 이렇다할 말도 없이 가는 사람, 그것은 사려가 깊다 못해 할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동저고리 바람에 지푸라기로 묶은 자반 비웃(靑魚)을 들고 느릿 느릿 걸어가는 사나이의 뒷 모습은 누가 뭐래도 서민적이면서 인간적이다. 노작은 춘원에게 하고 팠던 말을 끝내 못했고, 춘원은 들었어야 했던 말을 끝내 듣지 못한 채 금생의 영별을 했다. 하지만 뒤따라 간 춘원은 이승에서 못들은 말을 저승에서 들었을 터인데, 그 말은 무엇일까. 사설이 길어졌지만 이번 마당에서는 이 나라 근대 문학과 연극계의 선구자로서, 절망과 좌절의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다 못해 불사르고 간 노작 홍사용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12살 때 2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

노작은 1900년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용수골에서 대한제국 通政大夫 陸軍憲兵副尉 南陽 洪氏 哲裕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지 백일 만에 서울 제동으로 옮겨 유년·청년·중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친가가 옛 水原郡 東灘面 石隅里 돌모루(먹실)로 옮겨졌으니, 노작의 진짜 고향은 수원인 셈이다. 집안 사정이 있었던지 외아들인데도, 백부 升裕의 양자로 입양하게 되고, 12살 때인 1912년에 2살 연상인 元孝順과 결혼을 했다.

1916년 휘문의숙에 입학하고 나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침내 3학년 때인 1918년 月灘 朴鍾和·鄭 栢 등과 함께 등사판으로 된 문학동인지 《피는 꽃》을 발간하기에 이른다. 휘문의숙을 졸업한 이듬 해 3·1운동이 시작되자, 당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항일운동에 참가했다가 왜경에 붙들려 옥고를 치렀다. 노작은 정 백과 고향에 숨어 살면서 '청산백운'(靑山白雲)과 시 '푸른 언덕가으로'를 쓰게 되고, 장남 圭善을 낳았다.

1920년 朴鍾和·鄭 栢과 함께 문예지 《文友》를 창간하고, 1922년에는 《白潮》를 창간하

면서, 시 '꿈이면은?' '백조는 흐르는 데' '별 하나 나 하나' '통발 어부의 跡' '푸른 강물에 물놀이 치는 것은'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변신하였다. 1923년 그의 대표작으로 남아 있는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백조》에 발표하고, 1927년 극단 土月會에 몸 담게 될 때까지 왕성한 문학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가 《백조》에 간여하고 있었던 수삼년 동안에 고향에 있던 수백마지기의 논이 출판 비용으로 없어졌고, 朴 珍과 더불어 극단 山有花會를 만들어 운영할 즈음엔 고향의 가산은 동이 나 있었다.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남양 등지에서 거둬들이는 벼를 가득히 실은 10여 개의 소달구지가 노작의 집 앞마당을 가득 채웠었다고 하지만 떵떵거리는 시골 부자도 물 쓰듯이, 아니면 야금야금 새어나가는 재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가산 탕진으로 이어진 예술의 정열

문학과 연극에 광적으로 매달리던 노작은 가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멈칫하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면 전체 비용을 혼자 대다시피 했다니, 억만장자라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작은 후회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노작은 자신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에 입문한다. 덧없는 세상 참선으로 매만져 보려했던 것이다. 노작은 1928년 잡지《佛敎》에 희곡 '벙어리 굿'을 발표하려다 일경에 압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내용은 반일적인 것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박해를 고발하는 줄거리였다. 대목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다.

> '전국에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었다. 종로 인경이 운다는 것이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백성들 사이에 아무날 아무시 종로 인경이 울것이라는 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건 시골이건 가릴 것 없이 각처에서 종로로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사람은 잔뜩 모였는데 서로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이다. 굿은 굿인데 말을 못하니 벙어리 굿이다. 이 때 일본 경찰이 나타나 사람들을 마구 잡아 갔다.'

그럴싸한 소문을 퍼뜨려 선량한 사람들을 모아 놓고, 당치도 않는 꼬투리를 뒤집어 씌워 죄 없는 민초를 잡아 가는 왜경의 폭거를 비유한 것이다. 왜경이 가만 둘리 없었다. 초교까지 봤던 이 희곡은 압수 당했고 경찰에 끌려가 곤욕을 치뤘다. 노작은 술을 즐겨

마셨다. 말술도 마다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두주불사(斗酒不辭)에다, 청탁물문(淸濁不問)이었다.

춘원의 글에 있듯이, 그는 술을 즐겨하면서 선을 찬미했다. 인품은 표표하고, 성질이 결백했으며 고고한 기개와 절조를 지닌 전형적인 선비였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 아니하고, 상심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삭이는 인고의 미덕을 가진 인격자였다. 月灘 朴鍾和는 애도의 글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래 과작인 그의 시는 편편이 주옥이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기의 시를 세상에 내놓기를 싫어하였다. 고고한 성격과 결백한 지조 때문이리라. 시인 생활 30년에 시집 한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오직 노작이었을 따름이다."

노작은 술을 벗삼아 인생을 살았지만 술은 결코 그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 말년에 몸이 만신창이(폐병)가 된 것도 술과 아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작은 한쪽 폐가 거의 절단난데도 내과의사 申容均, 외과의사 白麟濟, 소아과 의사 任明宰 등과 밤새 대작을 하였다. 모두가 골아 떨어졌지만 노작만은 끄떡 없었다. 그는 "현대의학은 허구다. 폐를 두 개 가진 자들이 하나 밖에 없는 나를 못 당하다니"라고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병마에 이기는 장사는 없다. 노작의 폐병은 깊어만 가고, 몸은 상할대로 상해 갔다.

노작은 뒤늦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즉 한의학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서울 세검정에서 한의학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 1935년이다. 그는 독학으로 한의학을 터득하게 되고, 훗날에는 용한 한의사 소리를 들으면서 용채를 벌어 썼다. 1944년을 전후해서는 강경과 전주 등지에서 교편을 잡았고, 이화여전에도 출강했는데 이것이 생계를 위해 일한 소위 '밥벌이'의 전부였다. 노작은 1941년 조선총독부의 강요로 김옥균전을 쓰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절필하는 바람에 괴심죄가 적용돼 주거제한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고고한 선비

"노작은 일제 36년 동안 내내 국민복을 입지 않고 국민모를 쓰지 않았다. 언제든지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한사(寒士)였다. 그리고 만나면 말없이 고소

(苦笑)하며 악수하는 소아(笑啞) 洪思容이었다."(月灘의 회고)

노작의 항일정신이랄까, 불의·부당·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강건한 성격과 정신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글이다. 누구나 겪었듯이, 일제의 복식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이었다. 특히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일제 말기에는 조선 옷을 입으면 눈총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 시절에 한복만을 입고 다녔다는 것은 예사 고집이 아니다. '金玉均傳'만 하더라도 총독부 주문대로 썼더라면 두둑한 고료도 받고, 응분의 신분 보장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는 편이 낫다고 버티다 보니, 고달픈 것은 가족이었다. 노작의 아들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문단생활과 신극운동을 하고 나서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끝내 그 많던 전답은 타인에게 넘어 가고, 住位沓 명목으로 전답 2000평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것으로 가족들이 근근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때부터 부친은 방랑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서 고향까지 1백리 길인데 7년 동안이나 고향에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연필 한자루 받아 본 적이 없다면 곧이 들을까."

상해 임시정부, 정치자금 제공설

그런데 노작의 돈 낭비벽에 대하여는 다른 일설이 있다. 즉 양가(養家)의 1천석 지기와 생가(生家)의 4백석 지기를 단 몇년 만에 문예운동을 한답시고 탕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가 그것이다.

원로 언론인 나절로가 1970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 가운데 "노작이 상해 임시정부에 정치자금 5만원을 주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돈의 일부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건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갖게 한다. 아무튼 노작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면서 근대 조선의 문예진흥운동에 모든 것을 바친 흔치 않은 인물 임에 틀림없다. 노작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땅에 신문학이 생겨나고, 신극이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시대에나 희생양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 때문에 많은 중생이, 나아가서는 특정한 국가가 융성 발전하는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여 밝힐 일이 있으니, 그

것은 1984년 5월 26일 수원의 여러 문인과 몇몇 유지들이 뜻을 모아 노작의 고향인 동탄면 석우리(먹실) 그의 무덤 옆에다 '露雀 洪思容 詩碑'를 세운 일이다. 이 때 필자는 시비건립위원장을 맡아 시비를 세우고 제막하는 모든 일을 주관했다. 노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56년 째, 시비가 세워진지도 19년이나 됐다. 그의 대표작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한 구절을 옮기는 것으로 이 글을 맺는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 그러나 十王殿에서도 쫓기어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 "맨처음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맨처음 받은 것은 사랑이었지요마는 그것은 눈물이더이다"라고 하겠나이다. / "맨처음 네가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 "맨처음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젖 주세요"하는 그 소리였지만은 그것은 으아!하는 울음이었나이다.(중략)

할머니 산소 앞에 꽃 심으로 가던 한식날 아침에 어머니께서는 왕에게 하얀 옷을 입히시더이다. / 그리고 귀밑 머리를 단단히 땋아 주시며 "오늘부터는 아무쪼록 울지 말아라" / 아! 그 때부터 눈물의 왕은 / 어머니 몰래 남모르게 속깊이 소리없이 혼자 우는 그것이 버릇이 되었소이다. /(중략)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 설움있는 땅은 모두 왕의 니리로소이다.'

(白潮 제3호 1923년 9월)

'常綠樹'로 거듭난 농촌 계몽가 崔容信


샘골에서 활동할 당시의 崔容信

지난번 마당에서는 수원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꽃피운 여걸 白善行의 일대기를 소개한 바 있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수원 白氏의 후예인 그녀가 서경(西京)으로 일컬어지는 평양까지 가서, 갖은 고난을 이긴 끝에 큰 부자가 되어 그 많은 재산을 육영사업에 쏟아 붓고 그녀 자신은 쓸쓸하게 세상을 하직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인간승리' 얘기가 발표되고 나서 여러 독자로부터 감명과 감동을 받았다는 찬사의 말이 있었고, 특히 이북 5도청 산하의 평안남도가 발행하는 〈平南新報〉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전재까지 했었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훌륭한 일을 한 일물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검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포착된 인물이 여성 농촌운동가이면서 沈 薰의 소설《常綠樹》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최용신(崔容信)이다.

이번 마당에서 다루게 될 최용신의 일대기는 지난번 마당에서 다룬 白善行의 일대기와 몇가지 점에서 흥미있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두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61세라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조선시대에 살았던 동시대 인물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이렇다할 피붙이가 없는 머나먼 타관 땅에서 이름을 떨친 일이다. 백선행은 남쪽(水原)에서 태어나 북쪽(平壤)에서 결실을 맺은데 반해 최용신은 북쪽(元山)에서 태어나 남쪽(水原)에서 큰 자취를 남겼으니,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이러니하다. 네 번째는 그녀들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위 상민 집안의 자녀였다는 점이다.

최용신은 1909년 8월 咸鏡南道 元山邑 斗南里에서 아버지 崔昌熙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집안이 어려웠던 그녀는 1918년, 그러니까 나이 열한살 때 루씨여자보통학교 지교에 입학했다. 빈한할 망정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았던 탓에 1920년에는 명문교로 소문난 원

산 소재 본교로 옮겨 1928년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수석을 차지했다. 이 때 19살 숙녀로 바뀐 최용신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녀는 교목이던 田義均으로부터 감화 받아 감리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이 때 인간의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나는 농촌으로 가서, 농민계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선생이 자신의 결심을 이해 해주기 바랐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선뜻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학업과 재질 뿐 아니라 인간 됨됨이가 뛰어난 최용신을 그녀 뜻대로 농촌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교 당국은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감리교협성신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했고, 최용신은 그 권유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였고, 1931년 22세 때 서울 YMCA 봉사요원으로 배치돼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터로 배치 받은 곳이 옛 水原郡 半月面 4里 일명 '泉谷' 또는 '샘골부락'이었다. 오늘날에는 '華城市 半月面'으로 지명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수원 땅이었다.

타관 땅에서 시작한 억척 농촌운동

낯선 땅 샘골에 온 그녀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을까. 이미 오래된 일이라 지금은 최용신의 행적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긁어 모아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농촌운동가로서의 그녀의 샘골 생활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쉽지 않았던만큼 얻은 보람은 크고, 남긴 자취도 우람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샘골 감리교회 아랫 쪽에 자리 잡은 홍수용의 초가집 건너 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했다. 성격은 괄괄한 편이었고, 매사에 적극적이었다. 몸은 건강하였으나 얼굴이 약간 얽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얼굴이 얽은 것은 홍역 마마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탓일 터인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구한말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다.

자신이 5~6살 때 최용신을 보았다는 田穀哲은 어떤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의철은 천곡감리교회 담임목사였던 전재풍의 아들로 중견 전문의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타관 땅에 단신으로 와서, 농촌 계몽운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시

골 사람들을 설득시켜 강습소를 지을 때 학생들과 함께 돌을 머리에 이고 나르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뿐 아니라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뜯어 말리고 전후 사정을 꼬치꼬치 따져서 어느 쪽이 나쁜지를 가려 주었다. 이토록 1인 4역에서 5역까지 했으니, 몸과 마음이 무쇠덩어리였더라도 당해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최용신은 조선시대 여자가 아니라, 이미 개화된 문명과 사상으로 무장된 신여성이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를 지낸 송길섭도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기고 있다.

"감리교회에 이토록 훌륭한 여성 농촌운동가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며 자랑이다. 그녀는 가난한 농민 가정에 태어났지만 대학까지 마치고, 배울만큼 배웠으니, 자기 한몸은 편히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무지와 빈곤이 판치는 농촌에 들어가 신앙정신을 버팀목으로하여 학문을 통해 배운 바를 몸으로 실천하였으니, 그녀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며 동시에 민족주의를 실천한 계몽가였다."

유학길에 오르면서도 샘골 걱정

미뤄 짐작하건대 그녀가 몸담고 있었던 샘골부락은 어지간이 빈한한 시골동네였던 것 같다. 가난이 쌓이다 보니 싸움이 잦고, 이웃간의 애정도 좋은 편은 아니었을 것이다. 모두가 가난 탓이요, 배우지 못한 무지 탓이었다. 사정이 이럴수록 최용신은 이같은 현실을 이상세계로 바꾸어 놓는 것이 자기 몫이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문제에 관한한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옛 서울대 농과대학 교수였던 柳達永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기고 있다.

"1933년 초가을 어느날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水原高農 재학시절 때 崔容信을 처음 만날 수 있었다. 이 때 우리들은 여러 농촌에다 강습소를 세우고, 직·간접적으로 농촌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우리들이 보조금을 보태주고 있는 샘골에서 농촌계몽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 여성이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기에 만날 장소를 西湖로 정하였다. 한창 나이인 우리들은 흔치 않은 처녀 계몽가를 만난다는

호기심과 이성을 대한다는 설레임이 있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고 서호로 나갔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흰 적삼에 짤막한 검정 치마를 입은 여성이, 양산을 꼿꼿이 세워 받고 버들가지가 바람결에 나부끼는 시험장 다리를 건너 오고 있었다. 나이는 24~25세 쯤 되어 보였고, 키는 중키에 날신한 편이었는데 얼굴이 약간 얽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윤곽이 또렷하고 시원스러웠으며 오뚝한 코와 지혜롭게 빛나는 눈동자에는 사랑과 정열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여성으로서의 따스함 보다는 의지가 강한 동지를 만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날 그녀는 우리들에게 일본 고오배(神戶)신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더 해야겠다면서 유학계획을 알려 주고, 이렇게 부탁했다. '저는 지금 자신이 몹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웬만큼 기틀이 잡힌 샘골을 더 발전시키려면 지금의 실력으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신도 없어요. 저는 머지 않아 일본으로 건너가 좀 더 멀리 보고 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겁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한결 같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안심하고 갔다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沈薰의 '상록수'는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당선작

그녀는 예정대로 유학 길에 올랐으나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최용신은 고향인 원산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니하고, '약속의 땅' 샘골로 돌아왔다. 이 때가 1934년이니까 유학간지 1년 만이었다. 그녀는 장중적증(腸重積症)이라는 고약한 병과 투병하면서도 샘골 계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무리 강인한 그녀였다 하더라도 여성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녀에는 K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장래를 약속했고, 농촌계몽운동도 함께 하기로 다짐한 터였다. 그러나 그녀가 병석에 눕게 되자, K는 그녀 곁을 떠났다. 그 뒤 다른 연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5남매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쨌거나 최용신은 끝내 샘골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 호랑이도 죽게 되면 자기 굴을 찾아 간다는데 최용신은 태어난 고향 대신에 '영혼의 고향'인 샘골에서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니, 이 때가 1935년 1월 23일 새벽이다. 그녀 나이 26세, 못다 이룬 꿈과 불타는 정열을 안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상록수와 영원한 연인으로 각인되어 있으니, 그녀의 삶이야말로 값진 것이 아니고 무엇

인가.


《常綠樹》의 작가 沈大燮(沈 薰)

이쯤에서 최용신을 모델로 하여 썼다는 沈 薰의 소설 《常綠樹》에 대해 몇마디 해두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대로 상록수의 주인공 蔡永信은 소설 속에서 개작된 최용신이 맞다. 심 훈이 최용신을 모델로 하여 상록수를 쓴 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심 훈의 본명은 沈大燮이다. 두 형이 있었는데 둘 째 형 友燮이가 감리교 목사였다. 최용신에 관해 이야기를 해 준 것도 바로 그였다. 그렇다면 상록수의 남자 주인공 朴東赫은 누구를 모델로 한 것일까. 박동혁은 다름아닌 심 훈의 조카 沈載英이다. 심재영은 경성농고를 졸업하자, 곧 바로 충남 당진으로 내려가 소설 속의 朴東赫과 같은 생활을 했다. 결국 상록수는 실존하는 여성 농촌운동가와 농촌개척자인 자신의 조카를 모델로 한 소설이다.

심 훈이란 소설가가 상록수란 소설을 쓰지 않았더라면 실존의 최용신은 소수의 샘골마을 사람들이나 기억하는 여성운동가로 치부되었을지 모른다. 소설 '상록수'는 1935년 8월 13일, 〈동아일보〉가 창간 15주년을 기념으로 마련한 소설 공모에 당선작이다. 그러나 심 훈은 이듬해 장티푸스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다. 그때 나이 35세였다. 아무튼 소설가 심 훈은 위대했고, 상록수는 젊은이들의 우상과 이상으로 오늘에 남게 된 것이다.

샘골 시절 최용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었다는 康錫柱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기고 있다.

> "어떤 날 얼굴이 얽은 신여성이 찾아와 미력하나마 농촌계몽을 위해 이 한몸 바쳐 볼 결심이니, 부디 잘 도와 달라고 부탁하길래 내심으론 날고 기는 남자들도 견뎌내지 못하는 일을 여자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경멸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훗날에 본 최용신은 단순한 신여성이 아니라, 신들린 계몽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찬탄하고 있다. 그녀는 강습생이 늘어나자 아침반·오후반·야간반을 만들어 3부제 수업을 했다고 한다. 일본 경찰이 그냥 둘리 없었다. 우리 글인 한글을 가르친다고 이리와라 저리가라 했다. 그래도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샘골과 이웃 동네 사람들을 가르쳤다.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타관 땅인 수원에 묻히긴 했어도 그녀의 발자취는 오래도록 역사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리라.

개화파 거두 朴泳孝의 파란만장기


개화에 앞장 섰던 春樂 朴泳孝

구한말 개화파의 거두이자, 갑신정변의 주역이 金玉均과 朴泳孝 등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창시한 인물이 다름아닌 박영효라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박영효가 옛 水原郡 태생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마당에서는 당대의 혁신정치가로, 혹은 친일 개화파 인물로 알려진 춘악 박영효(春樂 朴泳孝)의 일대기를 알아 보기로 한다.

박영효는 1861년(哲宗 12) 6월 12일(음력) 옛 水原郡 台長面 陳雁里(번지미상)에서 공조판서(工曹判書)인 아버지 朴元錫과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시조(始祖)는 고려 때 호장(戶長)을 지낸 朴應珠의 24대 손으로 명문가의 후예였다.

그가 태어난 1861년의 국내외 정세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으나, 어렵고 심각한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예컨대 1860년에는 영국 상선이 추자도(楸子島)에서 난파하고, '경신사옥'(庚申邪獄)과 崔濟愚가 이끄는 '동학'(東學)이 창시 돼 국내 정국을 긴장시켰다. 이어 1861년에는 러시아 함대가 원산에 들이 닥쳐 통상을 강요하면서 내정간섭을 노골화하더니, 조정에서는 느닷없이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구경할 수 없게 하는 법을 공포해 민초를 외면한 임금이라는 비난을 샀다. 다만 기뻐할 일이 있었다면 金正浩가 각고의 노력 끝에 《大東輿地圖》(대동여지도)를 완성해 우리나라의 지리학 발전을 크게 앞당긴 일이었다. 1862년에는 진주민란을 시작으로, 益山·介寧·咸平·廣州와 忠淸·慶尙·全羅 각지에서 민란이 잇따라 나라 안이 뒤숭숭하였다.

이렇듯 나라 안팎이 혼란과 긴장에 휩싸이는 격동의 시대에 태어난 그는 13살 때인 1872년 3월 18일 철종의 딸 영혜옹주와 결혼해 부마가 되고, 이듬 해에 금능위(錦陵尉)로 봉해지면서 상보국(上輔國:정일품의 文·武官의 총칭으로, 儀賓의 품계)에 승임되니, 그

의 앞날에는 탄탄대로가 예약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결혼한지 불과 4개월 만인 1872년 7월 4일 옹주가 급서하므로써 초혼의 단꿈을 꿀 사이도 없이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만 했다. 얼마 후 그는 朴仁圭의 둘째 딸 景熙와 재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영혜옹주와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고향 땅 진안리를 떠났으나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생가의 위치와 주소가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이같은 궁금증을 풀기위해 나선 한 향토사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름아닌 화성문화원 전 사무국장 趙光遠씨다. 그는 수소문 끝에 성남시 운중동에 살고 있는 박영효의 손자 찬익씨를 찾아내, 조부에 관한 증언을 들은 뒤 이를 근거로 어떤 잡지에 '太極旗의 創始者 朴泳孝 先生'이란 제하의 글을 발표한 바 있었다. 여기서 그가 발표한 글의 일부를 인용하기로 한다.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던 선각자

'당시(1989년) 증언을 직접 들었거나,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후손은 손자 朴贊益(70·주일 오사카총영사 역임), 증존자 朴亨雨(52·서울 송파구 방이동), 운현궁 낙선제에 살고 있는 손녀 贊珠(76·義親王의 5남 李偶公의 부인)씨 등이었다. 찬익씨 말에 따르면 조부(朴泳孝)는 "옛 水原郡 台長面 陳雁里(현재는 화성시)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후일 일가를 이룬 뒤에는 지금의 오산시 은계동 46번지 소재 금오산 기슭에 한옥 별장과 과수원을 만들어 복숭아 재배를 했다고 한다. 혁신 이전까지는 주로 한복을 입었는데 회색 두루마기를 즐겨 걸쳤으며 성품은 매우 온화한 편으로 화초 가꾸기와 과수 재배를 좋아했다. 금오산 밑에 과수원을 마련한 것도 과수 재배 취미 탓이고,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과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손수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식품공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다. 별장은 일반 가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지붕을 양철로 한 것이 달랐다. 양철 지붕은 우리 전래의 초가 지붕 다음에 생겨난 새로운 가옥 형태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철 지붕은 서민적인데다 전원적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추억거리가 될만한 것이다. 또한 옛 과수원 터 부근을 '박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지명 역시 박가동(朴家洞)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박영효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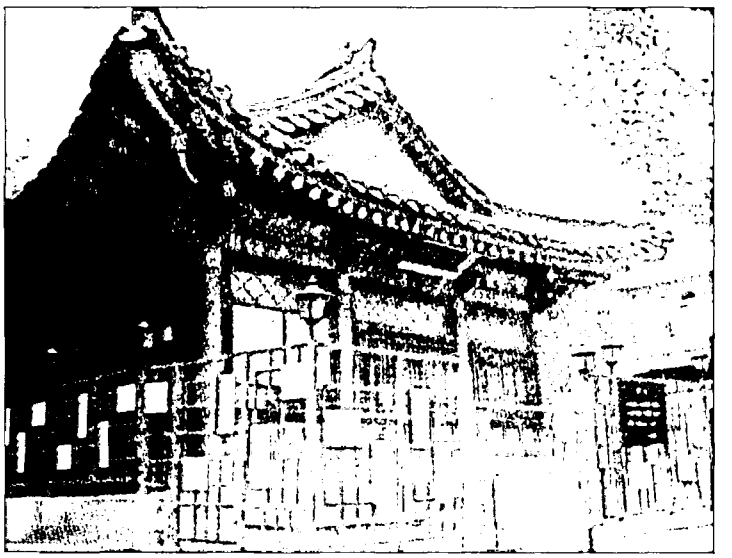
그는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일을 인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농사에 전념하도록 격려하였으며 가난한 이웃들을 여러 모로 도와 주어 주변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같은 추억담은 당시 손자 찬익씨가 열다섯살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과수원과 별장에 드나들면서 기억한 것이니까 더 이상 묻고 따질 것이 못된다. 하지만 이같은 박영효의 생활 모습은 그의 인간성과 경세의 편린을 짐작케 하는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내면세계에서는 기울어 가는 국운을 안타까워하면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봉건·사대주의 체제를 타파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의 정치제도를 도입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야 겠다는 일념만이 있었을 것이다.'

3일 천하의 아픔 안고, 일본에 망명

박영효가 일본 수신사로 임명되어 도일한 것은 1882년(高宗 19)으로, 그의 나이 스물한 살 때였다.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섬나라 번주(藩主) 국가가 명치유신이란 엄청난 개혁을 통해 근대국가로 변모하는 모습과 과정을 낱낱이 보고 배웠다. 당시 우리나라는 閔泳翊·閔升鎬 등 민비 족벌과 그들과 연대한 金弘集·金允植·金晩植·魚允中 등이 중심이된 수구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의 영향을 받은 金玉均·朴泳孝·洪英植·徐光範·徐載弼·尹雄烈 등 소장파들은 혁신의 기치를 들고 개화당을 결성, 수구파와 대립하게 되는데 개화파가 수구파를 몰아내고 정권 탈취를 하려한 것이 다름아닌 갑신정변이다.

갑신정변은 1884년(高宗 21) 12월 4일(음력 10월 17일)에 일어났다. 이날은 신관제에 따라 신설된 우정국(郵政局)이 개국하는 날로, 내외 고관을 초빙한 축하연이 마련되어 있었다. 김옥균·박영효 등 개혁파는 축하연이 무르익을 즈음, 이웃 집에 불을 질러 혼란을 야기시킨 뒤 그 북새통에 사대당 요인들을 모두 암살하려했던 것이다.

이날 거사에는 일본공사 다케조에신이찌로오(竹添進一郎)가 지휘하는 일본군과 일본 사관학교 사관 생도 등 2백명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작전 미숙으로 민영익에 중상을 입


갑신정변의 현장이었던 옛 우정국 청사

혔을 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던 김옥균과 박영효 등은 왕께 거짓을 고하면서까지 억지 변란을 도모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변란이 실패한 데는 사대당의 원군 요청을 받고 급히 출동한 청장(淸將)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이끄는 2000명의 청군 탓도 있지만, 군중의 지지기반 없이 소수 선각자들만이 봉기한 '준비되지 않은 혁명' 탓이 더 컸다. 결국 정변은 거사 3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3일 천하' 정변이라 일컬으는 것이다.

박영효와 김옥균 등은 일본군을 따라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고, 후일 도미했다가 1894년 갑오경장 때 사면 돼 귀국, 제2차 金弘集 내각에 입각하는 등 재기를 꾀하였으나, 1895년 반역음모사건으로 재차 일본에 망명했다.

오랜 망명 끝에 1907년 귀국하여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었지만 대신암살음모사건에 연류돼 1년 동안 제주도에 유배당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궤적은 혁신지향적이고, 정치근대화를 향한 고독한 고난에 찬 투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10년 조선이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일본 천황이 내린 후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과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가 조선 경제식민지화의 정책기관인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이사로 취임한 일 등이다. 그가 원하였던 원하지 않았던 친일을 한 이상, 박영효의 개인사에는 '한점의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메이지마루' 선상에서 만든 태극기

풍운의 정객, 박영효는 수신사로 가는 일본기 선 메이지마루(明治丸) 선상에서 도안을 그려,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 때가 1882년 8월 9일로, 메이지마루는 인천항을 벗어나 서해

를 거쳐 일본으로 항진하고 있었다. 이 배에는 개화파의 김옥균·서광범도 함께 타고 있었다. 그들은 태극기를 급히 만들어 당장 일본에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8월 14일 고오베(神戶)에 상륙할 때 태극기를 앞세웠고, 숙소인 나시무라야(西村屋) 지붕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조선의 국위를 선양했다. 한편 박영효는 이런 사실을 본국 정부에 세세히 알렸고, 이에 고무된 정부는 1883년 1월 27일 태극기 제정을 법으로 공포함으로써,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국기가 생겨난 것이다. 당시 박영효가 본국에 보낸 서한은 다음과 같다.

"(전략) 이미 각국과 더불어 통상수호를 한 후에는 사절을 파견할 때마다 예의상 국기가 없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세계의 여러 항구에서 각국의 병함을 만나게 될 경우 六門 이상의 艦載砲를 가진 자는 반드시 祝砲의 禮로 대하는 것이다. 이러할 때는 각국의 사절들이 제각기 국기를 게양하여 서로 분별하는 법이요, 각국의 여러 가지 경축이 있을 때에도 국기를 달아 서로 치하하는 것이며 각국 공사들이 모여 회합할 때에도 국기로써 좌석의 차례를 표시하는 법이니, 이 때문에 이 모든 경우를 생각하여 어느 나라이건 국기를 만들어 휴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英·美·淸·日의 각국도 모두 우리 국기를 그려갔으니, 이로써 널리 천하에 佈明해야 할 것이다."(하략)

박영효는 고오베를 떠나 10월, 도쿄에 도착하였을 때도 태극기를 줄곧 사용하였다. 즉 10월 3일 왕비(坤殿) 탄신을 맞아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이 때도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게양하였고, 국기로서 자리 배석을 하는 등 국제 관례에 따랐다. '春樂' 또는 '玄玄居士'로 불리웠던 박영효의 생애는 파란만장 그 자체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왕의 사위인 부마, 옹주와의 4개여월 만의 사별, 일본 수신사와, 선각자로의 변신, 태극기 창시, 갑신정변의 주역과 실패, 일본 망명, 사면과 재 입각, 제주도 유배, 친일행각 등에 이르기까지 매거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 그는 1939년 9월 21일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고향과는 거리가 먼 釜山府 東萊郡 沙下面 多大里(지금의 다대포)에 묻혔다. 1960년 후손들에 의해 경기도 마석 모란 공원묘지로 이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옛 수원이 낳은 개화파 거두 박영효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아직 차갑다. 하지만 난세를 풍미한 선각자 박영효에 대한 근대 한국사적 시각도 그와 똑 같아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월북 작가 朴八陽의 사회주의 문학

이번 마당에서는 수원 출신의 문인 박팔양(朴八陽)의 생애와 문학 편력에 관해 얘기하고저 한다. 미리 말해 두지만 박팔양은 우리나라 근대 문학사에서 자주 거명되거나, 주목을 끌었던 문인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명할 수 있고 유명했어야 했던 인물인데도, 우리에겐 '무명'에 가까웠던 문인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박팔양이 '월북작가'로 분류되는 문인인 까닭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그는 일제하 민족 수난기에 태어나, 문학에 심취하는 과정에서 소위 카프(KAPE·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에 가담하게 되고, 1920~1930년대에 한창 유행하던 이른 바 프로문학(무산문학)의 일원으로 항일·사회주의 경향의 시·소설·수필·평론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문학활동을 전개한 주목할 만한 문학인이었다. 하지만 1947년 월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북작가 딱지가 붙게 되었고, 국내 문단에서는 그의 작품이나 인물에 관해 언급하는 것 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마침내 1988년 7월 19일 월북작가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지면서, 캄캄한 지하에 갇혀 있었던 월북작가들의 작품과 작품이 햇볕을 보게 되고, 나아가서는 문학사적 연구와 평가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팔양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가 박팔양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의 과거 행적과 관계없이, 수원에서 태어난 문인이라는 사실과 그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다시 남으로, 또다시 남에서 북으로 전전한 그 자체가 우리 분단사의 단면이면서, 동시대에 살았던 민족의 비애로 받아드릴만 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박팔양은 1905년 옛 水原郡 安龍面 谷仲亭里에서, 아버지 박제환(朴齊瓛)의 3남으로 태어났다. 아명은 八福이었고, '麗水', '金麗水', '麗水山人', '金니코라이' 등 여럿의 호를 가지고 있었으나, 필명은 '金麗水'를 주로 썼다. 이 한 가지만 봐도 박팔양이 약간은 괴짜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 면으론 사실을 음폐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일제하의 암울한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아버지 박제환은 당시 관리였다고 하는데 무슨 관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수원은 시골이었다. 그런데도 서울 제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배제고보를 거쳐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진학한 것을 보면 집안이 부유했을 뿐 아니라, 개화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배재고보 3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났다. 사춘기 나이에 감수성이 강했던 그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사상적 동요와 함께 문학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다. 이 시기에 만난 문학청년들이 김기진·김복진·나도향·박영희 등이었다.

박팔양은 1925년 8월 결성된 카프에 그들과 함께 가입하게 되고, 사회주의적 계급사상과 현실문제를 문학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이른다. 법전에 입학하고 나서는 휘문고에 재학 중이던 정지용·박제찬·김화산 등과 함께 등사판 동인지 《搖籃》을 발간하게 되는데 같은 수원 출신의 선배 문인 露雀 洪思容이 작품 비평과 지도를 해 주었다. 당시 요람에 실은 프롤레타리아 문예 특집이 문제가 되어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은 박팔양으로 하여금 프로 문학으로의 방향 설정을 촉진하는 하나의 전기가 되었을지 모른다. 이 때 알게된 것이, 파스큐라 멤버인 이 호·최승일 등이었다.

《神의 酒》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1923년은 박팔양에게 있어서, 인생과 문학의 숙명적 고리가 만들어지는 극적인 전환기였다. 그는 그해 창작시 《神의 酒》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는 영예를 안았기 때문이다. 1924년에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입사해 언론인으로 변신했다. 신문기자 생활은 그의 문학 영역을 넓히고 다지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1928년 姜金洙를 아내로 맞아 들여 일가를 이루게 되고, 中外日報, 朝鮮中央日報 사회부장이 되었으나, 이 신문이 폐간 됨에 따라 1937년 鮮滿日報 사회부장 겸 학예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국을 떠나 만주로 이사하고 말았다. 알다시피 만주는 일본이 세운 괴뢰국가로 선만일보는 그 기관지였는데 반일 성향의 박팔양이 그곳에서 일했다는 것은 기이하다.

아무려나 박팔양은 만주로 가기전,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 재직 시절에 '九人會'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구인회는 카프에 버금가는 문학단체로 당시 문단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결국 박팔양은 카프와 구인회(九人會) 모두에서 프로문학(무산문학)을 체험하고 동조함으로써 문단에서는 프로시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의 시 세계는 반듯이 극좌 사회주의적이거나, 프롤레타리아적 계급투쟁 일변도의 문학

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 반증으로서 해방전에 남한에서 출판한 유일한 시집 《麗水 詩抄》(博文書館 · 1940)에 실린 대부분의 시가, 이념적 투쟁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 박팔양이 사회주의 이념에 투철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월북 시인이라는 사실이다.

남한 출신으로서는 보기 드문 엘리트 코스 달려

그래서 다음에 열거하는 박팔양의 재북 활동상황을 보면 그가 1947년에 월북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평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해방 직후 신의주에서 공산당 평북도당 기관지 〈평북신보〉와 〈바른말〉 편집국장 ◇1947. 2 조선문학가동맹 전국 문학자대회 참가(명단에는 이름만 있고 주소는 없다) ◇1946~1949 〈正路〉·〈로동신문〉 편집국장 및 부주필 ◇1946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 ◇1949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 문학부 교원 ◇1950 종군작가로 활약하면서 공로 메달과 국가훈장 3급 수여 ◇1951~1955 김일성종합대학 복직 ◇1955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1956 동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가훈장 2급 수여 ◇1957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58 조·소친선협회 중앙위원

이상의 발자취로 보면 박팔양이 1947년 이전에 평양에 있었음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친 정통 북한 공산주의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박팔양도 1966년 '반당종파분자'로 숙청되고 말았고, 그 뒤 그의 행방은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다음의 시는 그의 화려한 시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不幸한 사람이로다
靑春을 볼 때에
사람이 자랑하는 靑春을 볼 때에
나는 그들의 붉은 얼굴 뒤에서

앙상한 骸骨을 보앗노라

사랑하는 남녀의
타는 듯한 붉은 입술과 입술이
서로 마조치며 불길이 일 때
앙상한 骸骨과 입빨과 입빨이
달각거리며 서로 마조침을 나는 보앗노라

다음과 같은 반 프로 비평도 있었다.

'우리 프로 시인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제작하였고, 또 프로 시인으로서 부르 시단까지 많은 총애를 받던 朴八陽씨의 시를 보면 우리는 도저히 프로 시라고 명칭을 부치기 어렵다. 그의 시는 뿌르죠아를 표방하는 (중략) 그 가운데는 프로레타리아의 뿌르죠아 계급에 대한 ××××는 거름자도 없고, 조금씩 料理의 '약점'처럼 들어 있는 不平·同情의 문구는 뿌르 대중 시인들의 반동시나에도 넉넉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詩는 프로 시로서는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소위 인도주의의 시라고 이름 부치기에도 정도가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시는 언제까지든지 배척해야 하며 단 이 동지가 하로 밧비 반성하여 푸로레타리아트 시의 길로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남북 양쪽에서 곁눈질 당한 고아 문인

이상의 시와 비평은 〈華城文化〉(1990. 12. 崔炳基, 朴八陽論)에서 인용한 것이다. 위의 시와 비평으로 보건대 박팔양의 시는 반부르죠아시, 즉 프로 시로 보기에는 그 내용과 사상성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비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박팔양은 이 시절에 이미 북한 정권으로부터 '요주의' 시인으로 지목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는 누가 뭐라해도 김일성 정권하에서 권부에 밀착되어, 소위 권력형 문학인으로 영화를 누렸다. 그것도 남한 출신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그의 재능이 비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상적 '외도'는 숙청

이라는 비극으로 마감되고 말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카프의 일원으로 프로문학을 했을 망정, 민족을 토대로 한 서정시를 쓰고, 때로는 프롤레타리아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는 사실 때문에 남과 북에서 곁눈질 당하는 문학계의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문단 일각에서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옛 수원 출신의 문인으로서 수원을 대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露雀 洪思容과 더불어 한 때나마 정열을 불태운 문학도였다는 인식에서, 그리고 그의 문학 역정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탓이다.

박팔용이 일제시대에 발표한 각 장르의 작품 연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隨筆 · 1928. 8. 8~9 동아일보 《自然과 生命》, 1934. 5. 19 조선일보 《無題錄》, 1935. 7. 6 조선일보 《自然과 喪失》, 1935. 8. 10~14 조선일보 《한강에 배를 띄어》 ◇詩 · 1923 동아일보 《神의 酒》 (신춘문예 당선), 1924. 2. 11 동아일보 《나그네》, 1925. 2. 生長 2호 《鄕愁》, 1926. 6 三千里 1호 《故鄕 생각》, 1934. 10 新家庭 《가을》, 1930. 7. 30 조선중앙일보 《물방아》 ◇童謠 · 1924. 9. 15 동아일보 《가을바람 落葉》, 1925. 2. 1 조선중앙일보 《눈오시는 아츰》 ◇콩트 《午後 여섯시》 ◇掌篇 《放浪의 水夫와 異國 계집애》 ◇短篇小說 《말 없이 물끄림이 쳐다보는 얼굴》 ◇長篇小說 《情熱의 都市》 (이상 연월일 미상)

이 밖에 북한에서 발표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長詩 · 1949. 9 文學藝術 《민족의 영예》, 1962. 6 조선문학 《보천보》, 1964. 2. 천리마 《영원한 횃불》, 1966. 3. 8 문학신문 《림진강》, 1967. 7 조선문학 《인민은 노래한다》 ◇詩集 · 1949 《박팔양 시선집》, 1956 《박팔양 시집》, 1958 《황해의 노래》, 1959 《박팔양 시선집》, 1961《눈보따리》

인간으로서의 박팔양, 문인으로서의 박팔양의 문학세계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다른 월북 작가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학계의 과제다.

조림가 崔在燁과 일인 축우업자 忽那新人

수원이, 우리나라 농업과학의 중심지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앞의 마당에서 살펴 보았듯이, 1906년(광무 10) 4월 서둔동에 근업모범장(勤業模範場)이 설치된데 이어 동년 8월 9일에는 고종황제의 칙령 제37호에 따라 지금의 서울 뚝섬에 원예모범장이 설립되고, 1910년에는 1900년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잠업기술보급기관으로 설립되었던 잠업시험장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었으며, 1914년 3월 31일 수원에 원잠종제조소가 창설되는 등 연구기관의 설립이 줄을 이었다. 또 왕가의 만마(輓馬:수레를 끄는 말)와 일반 만마를 생산·개량할 목적으로 이왕직(李王職) 화산목장까지 설치하니, 그야말로 수원은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총집합한 연구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듯 수원에 농업연구기관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수원이 지리적 환경 그리고 기상조건 등이 적합한 탓이었겠으나, 일찍이 수원을 무대 삼아 농사연구를 했던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오늘날 거명되고 있는 농사전문가로는 조선시대 후기에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 농촌에 칩거하면서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학을 바탕으로한 농서(農書)와 농사법을 개발한 취석실(醉石室) 禹夏榮(1741~1812)을 비롯해서, 일제하를 거쳐 광복 후에 크게 활약한 근대인물로서는 趙百顯, 柳達永, 玄信圭, 金文浹, 表鉉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수원 태생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연구와 농촌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들의 개인사(個人史)를 논할 때 수원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농사연구는 과학자와 학자들 몫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학문적 연구나 학술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농촌사회에 대한 애착과 농민들에 대한 애정 하나로 봉사한 유·무명의 독농가와 축산가들이 있었기에 우리 농촌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야말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위선자가 아니며, 하찮은 일을 꾸며 소문이나 내는 매명주의자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번 마당에서는 세간에 크게 알려진 바가 없었던 두 사람의 독농가를 소개할까 하는데 한 사람은 한국인 조림가 최재엽(崔在燁)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왜정 때 조선으로 건너와 수원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축산 발전을 위해 적으나마 공헌한 일본인 축산가 고쯔나신닌(忽那新人)이다.

산에 옷을 입힌 崔在燁의 도전정신

조림가로 이름난 최재엽의 출생지와 가족관계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수원군 안용면에서 조림을 시작했고, 또 그곳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묘목을 생산해서 좁게는 수원군, 넓게는 우리나라 전역에 우수한 묘목을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산림녹화 내지는 용재공급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일찍이 조림의 근본이자 산림녹화의 시발인 수묘(樹苗)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시로서는 어설프고 불확실한 수묘포 경영에 뛰어들었던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모험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그의 도전정신을 평가하기 보다는 미친 짓을 한다며 비아냥 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식민지로 몰락한지 10년 째가 되는 1920년 당시만해도, 묘목 생산에 관한 기술은 전무하다시피 했고, 수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수묘포를 만드는 일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수묘포를 설치하고 시험 재배를 시작한 것이 다름아닌 최재엽이었다.

산의 옷이면서 지구의 옷이기도 한 산림을 윤택하게 하려면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데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다 재목이나 땔감으로 쓰기만할 뿐 나무를 보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결국 벌목하고 식목을 하지 않으면 산은 벌거숭이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파괴된 자연이 재앙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선 최재엽은 안용면에다 수묘포를 만들었다. 수묘포를 설치한 첫 해에는 적송(赤松)을 파종하였다. 최재엽 자신도 수묘사업의 미래가 밝다는 자신감만 있었지 양묘기술은 잘 모르던 터라 당국의 지도를 받아가며 성심껏 키웠는데 지성이면 감천인지 튼튼한 적송 묘목을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생산된 묘목을 팔고 나니까 상당한 이익금이 생겼다. 이를 지켜본 이웃 농민들의 마음에 동요가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7명이 수묘포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차츰 식부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묘포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둘씩 늘어나

면서 묘포장은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바뀌어 갔다. 이러기를 수년, 마침내 수원군 안용면은 수묘 생산지로 정착되고, 그 소문이 전국 각지로 퍼지면서 안용면하면 '수묘포의 고장', 수묘포하면 안용면을 떠올릴만큼 묘목 산지로 이름이 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축적되고, 기술이 보강된 만큼 우수한 묘목을 생산할 수 있어서 수입도 함께 늘어났다. 수묘포를 시작한지 3년 째인 1923년에는 적송 외에 흑송(黑松) 약 1석 5두와 구누키(상수리나무) 30석을 파종하고, 차상체(且床替) 60만본을 4정보에 파종하기에 이르렀다. 소득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근검역행(勤儉力行)의 미풍을 외면하고 게우러질대로 게우러졌던 농민들이 묘포 작업에 흥미를 갖게되면서 일하기를 즐겨하고, 일한 것 만큼 번 돈은 농외소득으로 쌓이게 되니까 농가의 살림이 눈에 띄게 윤택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련도 없지 않았다. 1922년의 대홍수로 명춘산(明春山) 일대의 묘목포가 쓸려나가면서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되는 고난이 있었지만, 이미 참고 이기는 자 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농민들은 천재지변도 거뜬히 이겨냈다. 이듬 해인 1923년의 묘포면적은 약 1정보 5만보에 달했고, 수종은 적송(赤松) 파종 4두, 흑송 파종 1두, 상수리나무 파종 10석 말고도, 적송 상체(床替) 25만 본, 흑송 5만 본, 상수리나무 3만 본에 달하였다.

그러나 최재엽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100만 본의 묘목 생산을 목표로 삼고 묘포를 늘려나갔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수원에 있는 관련 연구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 아름다운 봉사는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 오는 법이다. 훗날 최재엽은 안용면 뿐만 아니라 산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고 한다.

한국 소 수출과 개량에 앞장선 '고쯔나'

고쯔나신닌(忽那新人)은 1913년 조선으로 건너 왔다. 수원에 터를 잡았고, 주변 정리가 끝나자 그가 손을 댄 일은 우리나라 소를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서는 한국 소를 개량하는 일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소는 매우 우수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요새말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실제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한번에 50에서 100마리의 소를 끌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국 소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비싼 값에 팔았다. 덕분에 축산 농가는 수입이 늘어나고, 우량 소로 개량해야만 축산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그는 좋은 암소를 농가에 예탁 사육하게 하고, 튼

튼한 송아지를 생산하면 부부상(夫婦賞)을 주었으며 여느 소보다 2할 가량 비싼 값에 사들임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여 주었다. 처음에는 일본인이라고 경원하던 조선 사람들도 그의 말과 행동이 정직 성실한 것을 알게 된 뒤부터는 경계심을 풀게 되었고, 민족적 감정도 삭으러 들었다. 아무튼 고쯔나는 한국 소가 일본 소보다 체형·체력·성질·기능면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한국 소 예찬자로서,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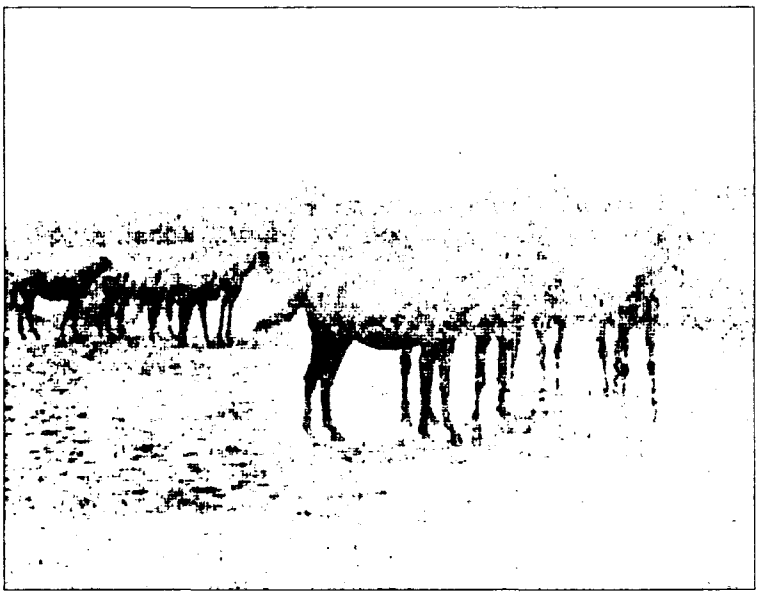
뿐 아니라 한국 소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비용 부담이 큰 철도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철도국과 특별 교섭을 벌이는 등 생산과 판매 양면에서 빈틈없이 대처하였다. 특히 좋은 소를 생산하기 위해 시작한 위탁사육제를 경기도에 국한 시키지 않고, 황해도·강원도·전라도·충청도 지방까지 확대해 나갔다. 위탁사육 농가에는 사육기술을 보급하고, 건강한 소를 생산하면 10원에서 20원의 상금을 줌으로써 농가의 경쟁심을 유발시켰다.

일본에 韓牛 우수성 알린 전도사

반면에 일본에서는 한국 소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고, 한국 소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량도 크게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한국 소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종전에 해오던 소량 송아지 위탁사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암소 30마리에 수소 한 마리 비율로 하는 대량 위탁사육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한 두 마리의 소를 길러 가지고서는 소득이 미미할 뿐 아니라, 단순 부업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개량 의욕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는 광복이 될 때까지 수천 마리의 소를 위탁사육하고, 그보다 더 많은 소를 일본에 수출했다고 한다.

참고로 일제하의 1911년부터 1936년까지의 우리나라 한우 실태를 알아보면 1911년 90만 6067두, 1912년 104만 720두, 1913년 121만 111두, 1914년 133만 8401두, 1915년 135만 3531두, 1916년 136만 3108두, 1917년 138만 4609두, 1918년 148만 37두, 1919년 146만 3660두, 1920년 148만 797두, 1921년 152만 4134두, 1922년 160만 7707두, 1923년 161만 970두, 1924년 160만 5072두, 1925년 159만 806두, 1926년 159만 4894두로, 1922년까지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 160만두 선을 넘겼다. 그러나 1925년부터는 160만두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수출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한우의 수출 상대국은 일본과 소련이었고, 중국은 양적으로 많지 않았다. 소고기보다



대한제국이 몰락하고 나서, 일본 정부는 재정적으로 궁색해진 李王家를 돕기위해 구차한 대책을 세웠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위 李王職목장으로 수원 오목내 일대에 있었다. 여기서 한때 짐을 운반하는 소위 만마(輓馬) 개량사업을 하였다.

돼지 고기를 즐겨 먹는 그들이고 보면 무리가 아니었다. 소련 수출은 지리적 조건상 북한지방의 항구에서 선적했는데 1908년부터 1911년까지의 3년 사이에 6만여 마리가 수출되었다. 반대로 일본에는 연간 1만 5000두 안팎 씩 수출하였는데 한 때 일본에서 우역(牛疫)이 발생하자 한우에 의해 전염되었다며 수입을 중단한 때도 있었다. 우역 파동이 수습되자 1916년부터 식용 및 농우(農牛) 수요가 늘어나 1920년에는 6만 3000두를 수출했다. 한우 감소의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내에서의 소 전염병에 의한 폐사 탓이 컸다. 1920년과 1921년에 400두가 죽고, 1925년엔 380두가 죽었으니 축산농가의 타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일본 또는 소련에 수출된 우리나라 소 값은 얼마나 되었을까. 지역에 따라 값의 차이가 있었지만 일본 고지켄(高知縣)의 경우 한우가 120원 일 때 일본 소인 화우(和牛)는 140원이었고, 시즈오카켄(靜岡縣)에서는 한우 값이 일본 소 값보다 20~30% 가량 쌌다. 또 오늘날 수원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후꾸이켄(福井縣)에서는 일본 소가 170원 일 때 우리나라 소는 135원 안팎이었다. 구마모토켄(熊本縣)은 값의 차이가 없었고, 오사카(大阪)의 경우는 한우가 일본 소 보다 1할 내지 2할 가량 비쌌다.

華城 쌓기 이후의 水原市場 내력

시장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저자(시장)는 언제 어디서 처음 섰을까. 먼저 시장의 역사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시장이 먼저 생겨난 곳은 유럽이었다. 고대의 그리스 또는 로마에서는 도시국가의 중심부에 있었던 아고라(agora)나 포럼(forum)이 시장 역할을 했다.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공간으로서의 경제적 기능 말고도 민중집회 또는 정치집회의 장소로 함께 쓰여졌다.

고대 그리스의 원시적 시장은 제례(祭禮)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시장은 제일(祭日) 오전에 열리게 되는데 이 때 노예·가축·의류·금은 제품이 거래됐다고 한다. 11~12세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즉 국왕이 개시권(開市權)을 장악하게 되고, 국왕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봉건 영주의 보호 아래 장이 열렸다. 왕과 봉건 영주는 당연히 시장세나 상품세를 거둬들였고, 그 돈은 통치자금으로 쓰였다.

대개의 시장은 일정한 길이의 길거리에 노점을 설치하여 이른 바 시장거리를 형성시켰다. 12세기 이후 사회기능과 생활형태가 바뀌면서 보다 공간 면적이 큰 광장으로 자리가 옮겨졌으며 거래 방법도 한지(限地) 위주에서 벗어나, 원격거래가 이루어졌다.

동양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시장이 앞서 있었다. 중국의 시장은 단순한 물자 거래 외에 제례·오락 및 사교가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 공간을 시장, 또는 '회'(會)·'집'(集)이라 했고, 작은 읍(邑)의 시리(市里)·향(鄕)이나 정(亭) 같은 취락이 합쳐 현(縣)이 되면 현성(縣城)이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唐)·송(宋)·명(明)·청(淸)으로 이어지면서 생산·인구·상업이 발달하자, 호시(胡市)·시박(市舶)·해관(海關) 같은 관설 무역시가 생겨나고, 이밖에 미시(米市)·어시(魚市)와 같은 업종별 전문 시장이 형성됐다. 또 현내의 상업·교통 중심지에는 진(鎭)·시(市)·점(店)·보(步)로 불리우는 도시 시장이 개설되었으며 농촌에는 촌시(村市)·초시(草市)·허시(虛市) 등으로 불리우는 정기시(定期市)가 생겨났다.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제도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 문헌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시장은 신라 소지왕(炤知王) 12년, 그러니까 서기 409년에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에 경사시(京師市)가 개설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시장의 효시로 친다.

우리 시장의 효시는 경주 '京師市'

이어 508년(智証王 10)에 동시전(東市典)이 설치되고, 이 때 상거래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함께 생겨났다. 이는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장세를 거둬드리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었다.

약 2백년 후인 695년(孝昭王 4)에 서쪽과 동쪽에 시전(市典)이 새로 생겨났다. 거래는 주로 물물교환 형태였으며 시장엔 주로 아낙네들이 드나들었다. 까닭은 남정네는 힘든 수렵이나 운반 등을 맡게 되고, 아낙네는 농사와 교역을 맡는 분업 때문이었다. 신라가 멸하고 고려가 들어섰으나 시장 형태는 신라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1208년(고려 熙宗 8)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시장 일부를 고쳐 약간의 상설 점포를 두게 되는데 이후 나라 안 여러 곳에 상설 점포가 생겨났다.

그렇다면 수원에 처음 시장이 생겨난 것은 언제 쯤일까. 문헌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길이 없다.

다만 화성을 1794년(正祖 18)에 쌓기 시작해서, 1796년(正祖 20)에 축성을 끝냈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어떤 형태의 시장이던 장이 섰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 물산(物産)이 있게 마련이고, 물산이 있는 곳에 물물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수원의 개기(開基) 배경과 실제 상황을 들 수 있다. 효심이 지극한 정조는 억울하게 죽은 생부 사도세자의 원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풀어 주어야 한다고 오매불망 하였다. 그럴라치면 양주 땅 배봉산에 있는 원침(園寢) 영우원(永祐園)을 길지(吉地)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속내였다. 때마침 금성위(金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고 영우원의 천봉을 상소하기에 이른다. 정조는 대신들을 불러 의논토록 했으나,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어서 즉각 길지를 물색토록 했는데 이 때 길지로 선택된 것이 바로 지금 현능원(顯陵園)이 자리 잡고 있는 화산(花山:용주사 근처)이다. 이 때가

1789년(正祖 13) 7월경이다. 천봉이 결정되자, 화산 바로 밑에 있는 민가들을 옮겨야 하는데 그 이전지가 지금의 수원 팔달산 기슭이었다. 정조는 읍치(邑治)를 정하자, 천원도감(遷園都監)을 설치하고, 균역청(均役廳)의 돈 10만량을 이전비로 내려보냈다. 동시에 영의정 김 욱(金 煜)을 총호사(總護使)로 삼고, 도제조(都提調) 서유린(徐有隣)을 원소도감(園所都監)으로 임명해 집단 이주를 실행토록 했던 것이다. 이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도세자는 그해 10월 4일 개렴(改殮)하고, 10월 7일 화산에 마련된 만년 유택에 고히 묻히게 된다.

바로 이 무렵, 화산에 있었던 민호(民戶)와 시전(市廛)을 집단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있고, 수원부(水原府)를 화성(華城)으로 개칭하면서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으며 화성 축성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화성'과 함께 생긴 수원시장

이렇듯 수원은 정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만약 그 시대에 불운의 사도세자가 없고, 효성 지극한 정조가 군왕 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수원은 지금의 수원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려나 이런 일들이 있은지 5년 만에 화성을 쌓게 되니, 시장도 함께 생겨났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대로 그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헌이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오직 광무(光武) 3년(1899) 5월에 편찬된 《水原郡邑誌》(수원군읍지)가 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규장각에서 찾아 낸 이 문서는 요즘의 《市勢要覽》(시세요람) 같은 것으로, 그 목록을 보면 폭원(幅圓:면적)부터 시작해서 군수선생(郡守先生)까지 51항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책 29항에 장시(場市)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장은 모두 4개로서, 장마다의 개장 날자와 수원 기점의 거리를 표기한 것이 전부다. 시장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남문(南門) 시장은 남문 밖에 있으니,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오산(烏山) 시장은 남으로 40리 청호면에 있으니, 3일과 8일에 장이 선다. 발안(發安) 시장은 남으로 50리 공항면에 있으니, 5일과 10일에 장이 선다. 안중(安仲) 시장은 남으로 80리 오정면에 있으니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시장의 규모, 주거래 상품명, 거래액도 없다. 상업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물산(物産) 항목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 내용 또한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다.

'소금 · 소어(蘇魚) · 병어 · 황조기 · 농어 · 전어 · 민어 · 석어(石魚) · 오징어 · 뱅어 · 황합 · 호독어 · 토화(土花) · 굴 · 낙지 · 해양 · 새우 · 어표(魚螵) · 붕어 · 오린어(烏鱗魚).'

모두 합쳐서 20종 뿐이다. 말이 물산이지 사실은 수산물 뿐이다. 알기 어려운 어종에 대해 설명하면 소어는 낙지 또는 밴댕이를 말하고, 석어는 조기, 토화는 거리 맛, 어표는 부레 등이다. 해양과 오린어는 뭔지 자세치 않다.

우리는 농경 민족인지라, 쌀을 비롯한 식량의 생산규모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총(結總)이란 항목에서 조세를 셈하기 위한 논밭의 넓이와 단위로서 백 짐 또는 만 파(把)를 일컫는 결(結)과 전답의 합계만 나와 있을 뿐 곡물별 생산량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적으면 아래와 같다.

'원장(元帳)의 전답 결수는 1만 1821결 61부(負) 3속(束) 중에서 여러 가지의 잡탈결 5294결 63부 5속을 제하면 6526결 97부 8속이다. 새로 올린 결의 284결 72부 7속을 합치면 6811결 70부 5속이다. 병신년(丙申年)에 추탈(추가)할 오가면의 9결 9속과 청호역의 7결 6속과 읍의 부족분 70결과 새로 올린 중에서 형지(形址) 없는 31결 28부 9속을 합치면 실지 결이 6693결 63부 1속이오, 개간을 권한 결이 21결 3부이나 도합 결이 6714결 68부이다. 매결당 세금이 25량이니 세금 합계는 16만 7867량 2푼 5리이다.'

요즘 통계 감각으로 보면 황당무계해 보이기도 하고, 과학성과 산술개념이 빠진 되다만 통계 같아 보이지만 당시의 우리 조상들은 그런 식으로도 조세를 과징할 수 있었으니, 놀랍다면 놀라운 일이다.

구한말 당시의 수원군 재래시장

앞의 마당에서 1890년대의 수원 저자(市場)의 내력과 규모에 관해 알아 본 바 있었다. 또 당시 수원군의 군세(郡勢)와 내력을 담은 기록문서가 광무 3년(1899) 5월에 펴낸 《水原郡邑誌》(수원군읍지) 뿐이라는 것도 밝힌 바 있다. 거듭 말해두지만 이 책에는 전후 51개 항목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상업에 관한 것은 단 2개 항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저자(市場)에 관한 것이 하나이고, 물산(物産)에 관한 것이 다른 하나다. 그나마도 기사가 몇줄 밖에 되지 않아 그 시절의 저자 모습과 저자에서 거래된 상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문헌에서 수원의 저자 모습을 찾아 보기로 했다. 미리 말해 두지만 수원의 시장 현황만 다룬 기록은 없고, 조선시대의 시장에 관해 언급하는 가운데 수원시장 얘기가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 고작이다. 예컨대 《萬機要覽》(만기요람) 재용편의 부향시조(附鄕市朝)라든지,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의 부향지조 등이 그것이다. 만기요람은 조선조 후기의 재정·군세를 설명한 책으로 순조(純祖) 9년(1809) 심상규(沈象奎)·서영보(徐榮輔) 등이 편찬한 책이다. 책은 재용편 6책, 군정편(軍政篇) 5책으로 되어 있는데 재용편에서는 전제(田制)·세법(稅法)·조운(漕運)·무역(貿易)·창고(倉庫)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증보문헌비고는 우리나라의 상고로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 말기에 이르기 까지의 문물·제도를 분류 정리한 책으로 약칭 '문헌비고'라고도 한다. 최초의 편찬은 영조(英祖) 46년(1770)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에 따라 공사(公私)의 실기를 널리 참고해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책을 지나치게 급히 만드는 바람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많아 정조(正祖) 6년(1782)에 이만운(李萬運)에 의해 보편(補編)되고, 광무 7년(1903)에 박용대(朴容大) 등 30여 명의 문사로 하여금 5년 만인 1908년에 16고 250권을 만들어 《증보문헌비고》라 한 것이다.

먼저 만기요람에 보면 조선조 중기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장시는 순조 연간에 전국에

1060개 소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지방별로 보면 경기도 102개 소, 충청도 157개 소, 강원도 68개 소, 황해도 82개 소, 전라도 214개 소, 경상도 276개 소, 평안도 134개 소, 함경도 28개 소 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경상도에 가장 많고, 오지인 함경도가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증보문헌비고는 만기요람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수원에는 초하루 장인 읍내(邑內)·안중(安仲)·오타(吾朶) 장을 비롯해서, 2일장인 석현(石峴), 3일장인 오산(鰲山) 4일장인 신기(新機)·사슬곶(沙瑟串), 5일장인 팔탄(八呑) 등 8곳의 저자가 있다' 라고 쓰여있다.

수원장서 하루에 판 쌀은 1백타

이 기록은 1899년에 펴낸 수원군읍지가 남문·오산·발안·안중 등 4개의 시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9년 사이에 4개의 시장이 신설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비슷한 자료는 《水原市史》(수원시사) 역사편 조선시대의 수원 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집필자인 정교용(鄭僑溶)씨는 《千一錄》(천일록) 권7, 《한국사》에서 재인용한 글 가운데서 '수원 부내(府內) 호수는 1천호였는데 쌀 장사가 하루에 판 쌀이 1백여 타(駄)를 밑돌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타' 란 2석(石)을 뜻한다. 그러니까 1백여 타는 2백여 석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만한 거래량이면 당시 수원시장의 미곡 유통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수원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이나 농·수산물의 거래실적 같은 것을 기록한 문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의 지방 시장이 어떤 형태였으며 시장의 주체와 제도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한 문헌에서 대강의 사정을 알아 보기로 한다.

조선시대의 상업 조직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4가지였다. 첫째는 서울의 공랑상점(公廊商店)인 시전(市廛)과 선조(宣祖) 이후 발생한 육의전(六矣廛) 그리고 개성(開城)·평양(平壤)·수원(水原) 등 지방도시의 상설 점포들이 주로 궁중과 여러 관아의 수요품을 조달하였다. 둘째는 저가(邸家)라고 불리던 객주(客主)와 여각(旅閣)으로서 이들은 화물의 집산이 이루어지는 지방도시를 거점 삼아 상품의 거간과 알선을 비롯해서 창고업·위탁판매업·운송업·금융업 등을 겸하고 있었다. 셋째는 보부상(褓負商)이다. 이들은 민간

수요의 일용잡화를 가지고 지방 장시(향시라고도 했다)나 산간벽지를 돌면서 물건을 파는 일종의 행상이었다. 넷째는 조선 중기 이후 대동법(大同法) 실시를 계기로 나타난 공인자본(貢人資本)으로서 이들 공인들은 궁궐과 관부(官府)의 수요물자를 육의전과 더불어 독점적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일반적 저자는 육장(六場)이라고해서 매달 6회 씩 장이 열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1·6일, 2·7일, 3·8일, 4·9일, 5·10일 장 등이 바로 그것인데 1·6일 장이라 하면 초1일에 장이 선 곳은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등 5일 간격으로 고정된 날짜에 맞추어 장이 섰던 것이다. 이런 장시(場市)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교환경제를 매개하던 전문적인 상인이 바로 보부상이며, 이들은 대개 하루 왕복의 여정을 기준으로 하여 장을 돌아다녔다.

보부상은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을 합친 말로서, 행상이라는 상업수단에서는 같았지만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보상은 주로 의복·모물(毛物)·뼈로 만든 것·혁대·매듭·칼·거울·빗·장난감·포목·유기·담배대·금·은·동 등 비교적 비싼 잡화를 판 반면에 부상은 목기·담배·토기·자반·도자기·방망이·홍두깨·돗자리·바가지·짚신 등 비교적 값싼 물건을 팔았다. 바꾸어 말하면 보상의 상품이 발달된 기술을 요하는 세공품 위주였다면 부상의 상품은 재래 농업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가내 수공업품과 수산물 등이었다.

행상의 방법도 달라서 보상은 상품을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멜빵에 걸머지고 다니다 장터 또는 촌가의 마루에 보자기를 풀어 놓고 물건을 판데 반해서, 부상은 상품을 지게에 얹어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다.

일제 자료로 본 1920년대의 수원

일제 강점하의 수원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료가 없으니 일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 가장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조선총독부가 1929년 8월 5일에 펴낸 《調査資料 第二十九輯·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이다.

이 책은 당시의 조선 각 도와 주요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상태를 조사 기록한 것으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본 서는 조선에 있어서 각 지방의 경제사정과 생활상태를 밝히기 위해 미리부터 촉탁 젠세이에이스께(善生永助)에 명하여 조사한 가운데서 생활실태조사의 제1권으로 경기도 수원군에 관한 기사 및 사진을 채록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총독부가 전 조선의 생활상태를 조사 기록하면서 왜 수원군을 첫 번째로 다루었는가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8도의 다른 도와 시를 제치고 수원군을 채택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이 책은 총설에 이어 ① 경제사정 ② 부락의 특상 ③ 생활양식 ④ 문화사상 ⑤ 생계상태 ⑥ 농가의 수지와 수원군지도 외에 1백 수십장의 사진이 실려있다.

3권의 수원 관련 책을 낸 酒井政之助

비록 조선총독부가 펴낸 식민지 자료라고는 하지만, 1920년대 후반의 수원군 사정을 이만큼 자세히 정리한 책은 없다. 특히 수원읍내 사진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사진은 그 시절의 수원군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뿐 아니라, 이 자료집에는 수원군의 경제사정과 통계가 실려있어서, 수원군의 상공업계 현황을 살펴 볼 수도 있다.

또 하나, 민간인 저술가 사케이세이노스께(酒井政之助)가 저술한 《水原》이 있는데 이 책은 앞에서 소개한 생활상태조사 보다 6년이 앞선 1923년 10월 3일에 발간됐다. 전자가 조선총독부라는 막강한 행정조직과 강압적 권력을 배경으로 지은 관제 자료집이라면 후자는 수원군에 살면서 수원의 여러 사정을 기술한 민간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시케이세이노스께는 이 책 발간에 앞서 1914년에 《發展하는 水原》, 1915년에 《華城之影》이란 소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저자가 일본인인 까닭에 위화감이 생기고, 심한 경우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수원을 주제로하여 3권의 책을 펴낸 사람은 한·일 양국인을 망라해 그 뿐이니, 시비 걸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다음 마당부터는 앞에서 소개한 4가지 자료를 근거로 수원의 역사와 풍물기행에 나설까 하는데 사케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에 관하여는 다른 마당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일본의 경제식민지와 水原市場

이번 마당부터는 일본인 저술가 사케이세이노스께(酒井政之助)가 1923년에 펴낸 《水原》과 조선총독부가 1929년 9월에 발행한 《生活狀態調査(其一)水原郡》 등을 근거로 해서 당시 수원시장의 모습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우선 발행연도가 빠른 《水原》을 인용하기로 하는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인 사케이세이노스케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연유로해서 1914년 9월에 《發展する 水原》, 1915년 9월에 《華城乃影》, 8년 뒤인 1923년 8월에 《水原》 등 수원을 주제로 한 3권의 책을 냈는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사케이세이노스께는 1885년 8월 니이가다껜 나오에즈죠오(新潟縣直江律町)에서 태어나, 1908년 6월 쥬오대학(中央大學)을 졸업하고, 1887년 조선으로 건너왔다. 조선에 와서는 조선신문 수원지국장, 수원학교조합회 의원, 수원실업협회 법률고문, 수원전기주식회사 감사역, 니이가다현인회장, 수원독서회 주사 등으로 활약하였는데, 본업은 소송대리업이었다. 당시 일본인으로서는 상당한 지식인 임에 틀림없으나 일본이 조선 침략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수원에 정착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선 그 역시 조선을 탐낸 일본인 임에 틀림없고, 일제식민지 정책에 동조한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水原》의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반도 산업개발의 비건(秘鍵)을 쥐고 있는 수원! 풍광천여(風光天與)의 시경(詩境)을 담은 우리 수원! 수원은 경성에서 남으로 불과 백리 떨어진 경부선 가운데 한 소역이다. 비록 역은 작으나 놀랍게도 1년 동안에 약 50만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 과연 조선의 수원다운 소이(所以)가 이를 통해 말해 주고 있지 않겠는가. 나는 1914년 9월에 《발전하는 수원》을, 1915년 9월에 《華城之影》을 발행해 기적미답(旣蹟未踏)의 인사들에게 수원의 진면목을 알리고저 노력하였다. 그러나 벌써

10년 전의 옛말이 되고 말았다. 이제 또 다시 불기천재(不器淺才)에도 불구하고, 새로 단장된 수원의 모습과 산업개발의 위적(偉績)에 곁들여 천인합작(天人合作)의 승경(勝景)을 《水原》이란 졸서에 담아 소개하고저 한다.(중략)

수원을 객관적으로 보면 반도 개발에 있어서 몇 안되는 본보기라 할만하고, 화산(花山)의 식림(植林)은 시범이 되고도 남는다. 서호의 아름다운 꾸밈새는 관개의 법을 가르친다. 한편 주관적으로 보면 수원은 실로 웅대한 풍광을 나타내고, 그 산수의 아름다움은 뽐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4계절의 관상(觀賞)은 이미 세평이 난지 오래고, 물질의 풍요와 진보는 10년 전에 비할 때 격세지감을 금할 길이 없다."

日人이 본 수원은 '발전이 약속된 땅'

다소 과장했거나 지나치게 미화된 흔적이 엿보이지만, 저술가의 눈에 그렇게 비쳐졌다면 그 또한 그의 마음 먹기 나름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책 수원 제1편, 지리상으로 본 수원 속에 들어있는 '상업'(商業) 대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옛날 책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이 책도 지금의 기록 서적에 비하면 내용·문장·체제·편집면에서 크게 뒤떨어진다. 기왕이면 좀더 넓고 깊게 사실을 적고 분석 평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상업항목이라는 것이 불과 한쪽 반 분량이고 기사래야 모두 스무줄 뿐이다.

그러나 《水原郡邑誌》의 단 두 줄 기사에 비하면 열배나 되고, 내용도 한결 구체적이긴 하다. 기사를 요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서 아예 원문 전부를 의역(意譯)하기로 한다.

"조선에 있어서의 상업은 몹시 유치하여 아직도 물물교환의 유풍(遺風)이 그대로 남아 있다. 매월 몇회로 정해진 장터에 각지 산물(産物)을 들고 나와 일상적인 수요품과 교환하는 간이 상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상설된 점포는 많지 않고 소위 부상(負商)으로 불리우는 상인들이, 일상잡화를 들고 다니며 파는 행상과, 농업을 하면서 장사를 겸하는 지방민이 뒤섞여 장을 열게 된다.

물건은 길거리에 진열하여 상호상통하는 하나의 상업기관이 대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자에 이르러 일반적인 경제사상이 발달되면서 소위 상업이란 말에

걸맞는 상가(商家)가 점차 늘고 있는 경향이다. 그렇지만 시장에 있어서의 물질 집산은 매우 높아서, 수원시장에 집산하는 구역만 따져도 꽤 광범위하다. 가깝게는 17리에서 18리, 멀게는 24리에서 25리나 된다. 이 시장에서 1년 동안에 거래되는 집산 가격은 1백만원 안팎의 거액에 달한다. 만약 수원군에 있는 전체 시장의 집산 가격을 합산한다면 연간 160에서 170만원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수원 성안(城內)과 성밖(城外)에 있는 2개 시장에 있어서의 중요 물자의 매매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농산물 25만 7641원 ◇ 수산물 5만 6534원 ◇직물류 5만 8523원 ◇ 해산물 2만 9350원, ◇기타 31만 5230원

이로 미루어 볼 때 수원시장의 거래가 얼마나 왕성하였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거기다가 수원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관계상 상업용 점포도 해마다 늘어나 그 수가 5백여 개 소는 될 것이다. 상공업의 향상·활약에 힘쓰는 기관으로 근래 수원실업협회라는 것이 조직 되어 있는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상의원 5명, 평의원 20명, 기타 상담역·고문 등이 있다. 이들 임원들은 일치 협력 활동 중이며 상세도 나날이 진전하고 있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전국에서 유수한 상업지로 변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67%가 소작인, 보잘것 없었던 농수산물

위의 기록을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수원읍내에는 성안과 성밖 두 곳에 시장이 있었다는 것, 두 개의 시장에서는 농·수·축산물이 주로 거래되었으나 거래 규모는 여느 지방의 시장보다 컸다는 것, 그리고 1776년 정조대왕에 의해 수원이 생겨난 때로부터 147년 째가 되지만 도시로서 발전 속도가 빨라서 상설 점포가 5백개 소나 됐다는 것, 일본인 중심의 단체이긴 하지만 실업협회라는 것이 설립되어 상인의 이권단체로 활동하였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실업협회에는 유일하게 한국인 한상봉(韓相鳳)이 들어있었는데 《水原》에 수록된 그의 경력을 보면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으로서 1876년 3월 23일 수원에서 태어나 1900년 1월 한국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참위에 임명됐다. 이어 정위로 진급, 마침내 무관학교 군법회의 판사로 일하다 전역한 뒤 1906년 9월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이 된 것이다.

그는 또 수원 금융경제계의 중진으로서 내선인(內鮮人)의 신망이 매우 두텁고 다른 요직도 겸하고 있었다. 이밖에 수원면 상담역과 경기도 평의원 그리고 수원실업협회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친일 인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본고에서 논할 일이 아니다. 다만 시대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친일에 가까운 인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우리는 사케이세이노스께 덕분에 1923년 당시의 수원시장을 윤곽이나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하였듯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 만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왁자지껄한 장터의 풍경이나 구성진 장터의 분위기, 그리고 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과 언동 같은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불만스럽다. 그래서 참고가 될까 싶어, 수원 장터에서 취급했다는 농·수·축산물의 당시 통계를 인용하기로 한다.

◇ 농업

수원군의 경지면적은 3만 4440정보로 전이 1만 3744 정보, 답이 2만 664정보였다. 이는 군 전체면적 8만 8300여 정보의 39%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자작농이 33%, 소작농이 67%였다. 소수 지주에 다수 소작인이 딸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농민 호수는 2만 2581호였다. 주된 농산물은 마늘·보리·콩 등으로 연간 2만 5000석, 돈으론 75만원 어치였다.

◇ 축산

주된 축산은 소·돼지·닭 등으로 소는 군내에 1천여 두로 농가 2호당 약 1마리를 사육했다. 돼지는 바크셔·요크셔 등 개량종이 보급되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닭은 9만 5740마리로 나날이 개량종이 수입되고 있어서 농가부업 뿐 아니라, 양계업으로도 전망이 밝다.

◇ 수산

서해와 면해 있다고는 하나 수산업은 미미하다. 어업 호수는 146호, 어민은 712명에 불과하다. 수산물 판매업자도 8호 밖에 안되고, 연간 생산액도 3만 4500원에 지나지 않았다. 염전은 14만 8705평으로 생산량은 668만 2370근이었다.

민초의 애환이 서린 수원시장 백태

앞의 마당에서 1923년 당시의 수원시장의 대강을 알아 보았다. 이번에는 민간이 아닌 조선총독부가 1929년 4월 9일에 발간한 《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을 인용하기로 한다. 이 책은 서문과 본문을 합쳐 258쪽에 달한다. 차례는 총설과 ① 경제사정 ② 부락의 특상 ③ 생활양식 ④ 문화사상 ⑤ 생계상태 ⑥ 농가의 수지로 나뉘어 있고, 20만분의 1짜리 '水原郡地圖'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다른 책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아주 귀중한 자료가 들어있다.

그건 다름아닌 사진이다. 당시는 컬러사진이 없었던 때라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지만 사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사진도 한 두장이 아니다. 분야도 한 두군데가 아니다. 과장된 표현을 빌리면 당시의 수원군의 구석구석을 찍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진이 들어있는가.

① 수원읍내를 비롯한 14개 부락 사진 ② 수원읍내 상류저택(양승관)을 비롯한 12개의 가옥 사진 ③ 수원군청을 비롯한 12개의 관청 사진 ④ 부국원 묘원을 비롯한 25개 산업시설 사진 ⑤ 수원역을 비롯한 14개 교통시설 사진 ⑥ 수원읍내 상점을 비롯한 20개 상업시설 사진 ⑦ 수원공립심상소학교를 비롯한 9개 교육시설 사진 ⑧ 송산리 용주사를 비롯한 10개 종교시설 사진 ⑨ 서호 전경을 비롯한 9개 고적 사진 등 모두 135매의 사진이 실려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억압한 조선총독부라고는 하지만, '사진자료' 그 자체만 따진다면 가히 압권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담이지만 필자가 입수한 이 사진은 15, 6여 년 전 경인일보에서 '향토사진전'을 할 때 빌려 준 일이 있었고, 《水原商議史》, 《水原市史》를 편찬할 때 아주 요긴하게 인용했다. 또 최근의 일로는 수원시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가 공동으로 펴낸 《수원풍물사진집》에도 상당량 게재된 바 있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조선총독부가 다른 도의 시·군을 제치고, 경기도 수원군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사실 당시의 수원은 조선 안에서 특별히

이름난 고장이 아니었다. 역사도 긴 편이 아니다. 또 특산물이 풍부하거나 인구가 많은 곳도 아니다. 그런데도 수원군을 첫 번째 대상으로 꼽은 것은 수원을 장래성있는 도시로 간주한 때문이라고 추측 해 볼 따름이다.

수원군내의 7개 시장 현황

이 책 1항 경제사정 12번 째 목에 보면 상업이 소개된다. 상업은 외국무역, 상업의 종류와 매상고, 본바닥의 행상수, 시장현황 등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기왕에 시장에 초점을 맞춘것이니까 시장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당시 수원군내에는 수원의 성안과 성밖시장을 필두로, 오산시장·반월시장·남양시장·신기시장·발안시장 등 7개가 있었다. 시장 규모는 성밖시장이 성안시장 보다 컸다. 1925년 조사에 따르면 성밖시장의 1년간 거래액이 50만 3422원인데 반해 성안시장은 40만 8171원으로 9만 5251원이 적었다.

연간 시장에 드나드는 사람 수도 성밖이 2000명인데 반해, 성안은 1700명으로 3백명이나 적었다. 또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평균 구매자수도 성밖이 1700명인데 반해 성안은 1500명으로 200명이 적었다.

두 개의 시장은 그렇다치고, 나머지 5개 시장의 현황을 알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수원군 시장의 거래액·출장자수

〈1925년 현재, 단위:원〉

시 장 명	연간 거래액	평균 출장자수	평균 구매자수
수 원 성 안	408,171	1,700	1,500
수 원 성 밖	503,422	2,000	1,700
오 산 시 장	238,564	1,000	800
반 월 시 장	21,270	100	90
남 양 시 장	30,360	500	400
신 기 시 장	24,329	400	300
발 안 시 장	91,109	700	500
계	1,317,225	6,400	-5,290


1929년 당시의 수원 성밖시장 어구. 왼편 위가 팔달문이고 뾰족한 기둥 4개가 서 있는 곳이 수원면사무소 건물이다. 지금 이 자리는 영동시장이 들어 앉아 수원 상권의 중심지가 됐다.

이 표에서 수원 성안·성밖 시장을 빼고는 오산시장과 발안시장의 경기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통계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시장에 드나드는 이른 바 장꾼 가운데서 실제로 물건을 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사실이다. 시장이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시장에 갔다고 해서 누구나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아니다. 재수 좋은 상인은 많이 팔아 톡톡히 재미보지만, 마수걸이도 못하는 운 나쁜 장사꾼도 있다. 사는 쪽에서도 잔뜩 마음 먹고 장에 가지만 물건이 마음에 안들고 값이 비싸다 싶으면 맨손으로 돌아 오는 수도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수원군내의 장은 대개 80% 안팎의 사람이 물건을 산 것으로 되어 있다.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고 만족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낙네, 주막에 걸터 앉아 텁텁한 막걸리 한잔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촌로의 얼굴이 안개처럼 피어 떠오른다.

장꾼으로 들끓던 장터의 情景

시장이 서려면 물건을 사는 소비자도 있어야 하지만 물건을 받아다 파는 상인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옛날 시장은 상설 점포 위주가 아니라, 좌판이나 땅바닥에 물건을 진열하는 노점 위주였다.

행상들은 장날을 따라 이동했다. 행상도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의 두가지다. 하나는 물건을 보따리에 싸들고 다니고, 다른 하나는 등에 지고 다니는데 서로 다루는 상품이 다르다. 그들은 군내만 도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도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거셀 수밖에 없다. 담력과 건강없이는 해낼 수 없는 중노동과 다름이 없었다. 오늘날 편안하게 장사하

는 상인에 비하면 그 시절의 상인들이야말로 초인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수원군내 7개 시장의 행상은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보자. 역시 1925년 현재의 조사다.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큰 곳에 행상이 많았다. 수원 성밖시장 530명, 성안 515명으로 가장 많고, 반월시장 25명, 남양과 신기가 각각 90명이었다.

행상이 취급하는 물건도 가지가진데 수원군의 경우는 잡화를 취급하는 상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직물 행상이었다. 시장별 행상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수원군 시장 행상자 수

〈1925년 현재, 단위:명〉

시장명	해산물	곡물류	가축류	직물류	잡화류	기 타	계
수원성안	39	59	10	80	194	133	515
수원성밖	41	63	10	83	196	137	530
오산시장	32	60	10	40	80	106	328
반월시장	2	5	-	5	5	8	25
남양시장	10	15	10	5	30	20	90
신기시장	10	15	10	10	20	25	90
발안시장	15	20	20	15	30	20	120
계	149	237	70	238	555	449	1,698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군내의 7개 시장을 무대로 한 행상은 상상외로 많았다. 수원 성안과 수원 성밖의 상인이 5백명대를 넘었고 오산이 3백명대, 남양·신기·발안이 1백명에 가깝거나 넘었다.

이미 73년전에 일이니까 그 시절의 상인들은 타계하였거나, 생존하고 있다해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1920년대 말은 어떤 시대인가. 일제가 이 땅에 들어와 제 세상 만난 듯이 활개치며 살 때다. 상대적으로 우리 겨레는 기가 죽어 오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던 때였다. 물자는 귀하고 좋은 물건도 손에 넣기 어려웠다. 좋은 물건은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로 빼돌리거나 앞을 다투어 썼기 때문이다.

자기 땅에서 생산된 물건을 마음대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름아닌 식민지경제하에서 살아야하는 약소 민족의 비탄이고 좌절이다.

신새벽에 열리는 수원 땔감 장터

앞의 마당에서 수원의 성안장과 성밖장의 대강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안시장은 북수동 수원천변가에 위치하여 주로 소를 사고 팔았다. 그래서 일명 '우시장'으로 불리웠다. 성밖시장은 지금의 영동시장으로 일용잡화를 비롯한 농수산물 등을 팔고 샀다.

지금도 북수동에 있던 우시장을 성안시장이라하고, 영동시장을 성밖시장으로 불렀는지에 대해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이가 더러 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북수동 우시장이 성밖에 있고, 영동시장이 성안에 있었던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 두 시장에 관하여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이번 마당에서는 일반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나와 있다해도 체계화된 통계가 없는 '나무시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하지만 광복 전, 그리니까 일제식민지시대의 일이라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가 별로 없다. 설혹 있다해도 나무시장에 드나든 일이 없는 사람은 그 사정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몇 사람의 고로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우선 만난 분이 이종섭(李種燮)씨로 당시 80세. 다른 한분은 이달주(李達周)씨로 당시 72세였다. 또 두분 말고 증언을 해준 이는 수원공고의 이흥구(李興九) 재단 이사장으로 2003년 현재 73세이다. 이 세 분은 모두 수원 토박이로, 젊은 시절의 생업은 달라도 수원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온 명실상부한 원로들인데 애석하게도 이종섭·이달주 두 분은 몇 해 전에 작고했다.

이 땔감시장은 정식으로 허가가 난 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땔감은 불가결한 것이고, 땔감이래야 솔가지나, 솔잎 그리고 가랑잎과 장작이 전부이던 때라 이 장터에는 아낙네와 남정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위치는 지금의 매향교(梅香橋)에서 옛 우시장 쪽 냇갈(수원천)언덕 일대였다. 현재는 매향교가 시멘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1930년대의 매향다리는 통나무로 된 나무다리였다. 비록 다리는 엉성했지만, 그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이 옥수 같아서 여름에는 애 어른할 것 없이 멱을 감았고, 붕어며 치리며 뱀장어 등이 꽤 많았는데 특히 이 장터 상류에

있는 화홍문 7간수 아랫 쪽의 돌바닥에는 큼직한 뱀장어가 많이 서식해 장어 낚시꾼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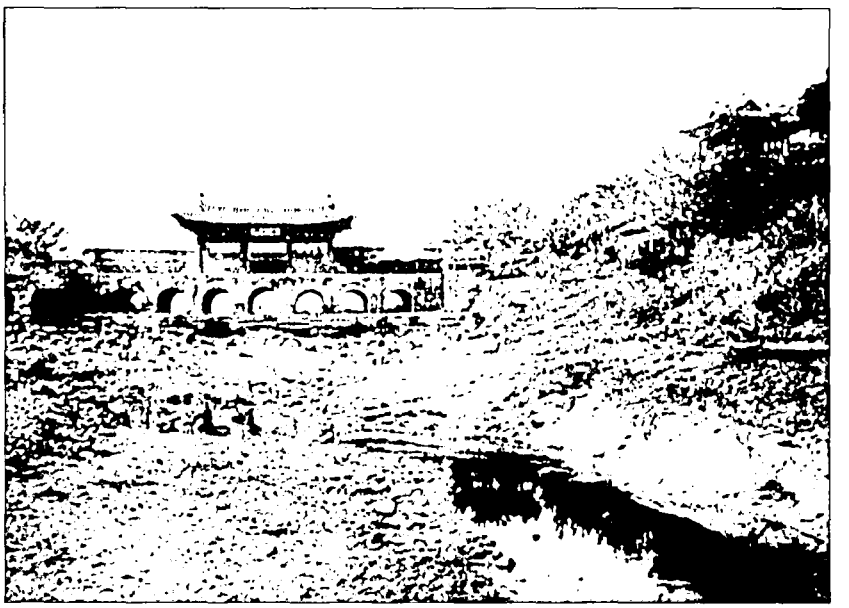
나무시장은 성안과 성밖의 5일장과 관계없이 열렸다. 장은 새벽 어둠이 걷히기 전부터 서는데 나무를 팔러 온 사람이 많으면 70~80명, 적을 때는 수삼십명에 달했다. 장이 새벽부터 열리는 까닭은 하루 일과가 아침 밥을 짓는 일부터 시작되는 탓도 있지만, 나무꾼 또는 나무장사가 일찍 나무를 팔아야 낮 동안에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단하지만 생기 넘치는 땔감 장터

이곳에서 거래되는 땔감은 주로 솔잎과 솔가지, 그리고 갈잎과 솔잎이 적당히 뒤섞인 것들이었다. 솔잎이나 갈잎은 갈퀴로 긁어 모으고, 솔가지는 낫으로 쳐서 모으는데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지게 하나가 고작이었다. 솔잎이나 갈잎 또는 솔가지를 섞어 네모지면서 둥그스름하게 짜올린 것을 '한동'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한동 값은 하품 20전, 상품 25전이었다. 굳이 상·중·하품을 나눈다면 상품은 솔가지가 많은 것, 중품은 솔잎이 많은 것, 하품은 이것 저것 뒤섞인 것이었다.

당시(1930년)의 쌀 소두 한말 값이 90전 안팎이었으니까, 솔가지 한동을 팔면 쌀 두되 반이나, 서되를 살 수 있었다. 장이 새벽에 서는지라, 나무를 사러 오는 이른 바 고객도 일찍 나온다. 가격은 따로 매겨져 있지 않지만 통상 관례에 따랐다. 흥정도 사람과 분위기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는 사람은 1전이라도 깍으려고 이것 저것 흠을 잡고, 나무꾼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자랑과 엄살을 핀다. 흥정이 되면 산 사람집 안마당까지 지게로 실어다 주어야 하는데 집이 워낙 멀면 따로 몇푼을 얹어 받는다. 이 때 인심이 후한 집에서는 아침 밥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아침 한끼니를 때우게 되는데 여간한 재수가 아니면 얻어 걸리지 않았다. 반대로 집이 워낙 멀면 나무꾼이 팔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일 때문에 새벽녘에 나무 장터는 시끌벅적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인간이 살아있다는 생동감과 삶의 절실함이 넘쳤다. 거래가 되던 안되던 시장세 2전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읍에서 위탁 받은 관리인이 챙겼다. 땔감을 지고 나왔다고 해서 모두 팔리는 것은 아니다. 운이 나쁘면 해가 질때까지 팔지 못해 남의 집에 맡겨 놓고 이튿날



멀리 화홍문 아래 칠간수가 보인다. 지금은 양편에 석축을 쌓았지만 1930년대의 수원천은 자연상태였다. 바로 칠간수 돌바닥에 뱀장어가 우글거렸다고 한다. 그리고 화홍문을 향해 외쪽 어덕에서 매향다리 근처까지가 땔감 장터였다.

다시 팔러 나오는 일도 가끔 있었다. 때로 속이 상한 나무꾼은 대문이 큰 부잣집으로 쳐들어가, 사라고 때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때의 값은 아무래도 제값을 받지 못했다.

드문 예로 힘께나 쓰는 장정이 두 동을 지고 장터에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한 동을 다른 곳에 내려 놓고, 남은 한동을 모로 놓지 않고 세워놓았다. 이유는 나무단이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사는 예나 지금이나 이문 먹자는 것이니까, 잔꾀가 많은 상인들은 시골 산지까지 가서 소달구지로 여러 동을 사다 집에서 해체해서 동수를 늘려 장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땔감장에는 솔잎이나 솔가지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장작도 나왔다. 그러나 장작은 그리 많지 않았다. 벌목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다 허가를 받아 벌목한 장작이 나왔는데 장작을 거래할 때의 단위는 '평' 또는 '조짐'이라 하였다. 조짐이란 쪼갠 장작 더미를 세는 데 쓰는 말로 목척(木尺)으로 사방 여섯자에 여섯자 높이로 쌓아 놓은 더미를 뜻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석자 높이에 열두자로 쌓는 것이 보통이었다. 까닭은 질펀하게 깔아 놓음으로써 분량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작은 한 평 또는 한 조짐에 10원 가량 했다. 10원은 쌀 한가마 값과 버금 간다. 따라서 장작은 부잣집에서나 땔 수 있었다. 그리고 '반거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반거리란 자금자금한 솔가지를 차곡차곡 쌓아 말린 것으로, 한바리(세동)에 1원 80전, 그러니까 한동에 60전 씩이었다.

25전 안팎인 솔잎이나 갈잎에 비하면 꽤나 비쌌다. 그리고 '쪽바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에 실어서 나르는 기구인 '길마'의 방언이다. 쪽바리에는 세동을 실었으니, 사람의 세곱 짐을 실은 셈이다. 그러면 이런 땔감들은 어디서 실어왔는가. 수원은 광교산이

주산지였다. 날이 밝으면 조반을 한술 씩 뜬 나무꾼들이 광교산에 오르는데 그 행렬이 줄을 잇고, 저녁이면 다시 한동씩 등에 진 지게꾼이 하산의 행렬을 이루었다.

빈한한 집안에선 틈만 있으면 나무하러 다녔고, 학비와 식량을 장만하기 위해 이른 새벽 나무시장으로 나갔다. 그래서 "광교산이 수원 사람을 먹여 살렸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 밖에 광주군 대장리, 용인군 수지면 고분재, 풍덕재, 메주고개, 기흥 등지에서 땔감이 들어왔다. 용인은 20~30리 밖에 있기 때문에 오밤 중에 떠나야 수원 새벽장에 댈 수 있었다. 그러니 그 고생이 여간이었겠는가. 갖은 고생 끝에 몇십전의 돈이 생기면 막걸리 한잔 생각이 나게되는데 당시 해장국에다 막걸리 한잔을 곁들인 값이 5전이었다. 쇠뼈다귀를 밤새 고운 국물에 우거지와 선지를 넣은 해장국에다 막걸리 한잔을 기우리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고 한다.

막걸리 한잔에 시름 잊는 나무꾼

해장국으로 유명한 집은 용두각 근처에 있는 '정바위네' 집인데 새벽 3~4시면 영업을 시작했다. 나무꾼들은 막걸리 한잔으로 거나해지면 콧노래 삼아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으니, 이 순간이야말로 가난 같은 것이 문제될리 없었을 것이다.

일화도 많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산림간수 얘기다. 일제는 낙엽 채취와 벌목을 막기 위해 산마다 산림 간수를 배치했는데 광복 후 수원 부자로 이름난 고 송영복(宋榮福)옹의 아버지 송세호(宋世浩)는 팔달산의 산림 간수였다. 그는 산림 간수 답게 나무꾼을 취체하고 단속했는데 단속하는 방식이 달랐다. 즉 나무꾼을 발견하면 "거기 섰거라"하고 큰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 있을 나무꾼이 어디있겠는가. 지게며 자루며 심지어 갈퀴와 낫까지 팽개치고 줄행랑 칠 것은 뻔한 일이다. 결국 송간수는 나무꾼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게 도와 준 것이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나보다. 반대로 일본인 산림 간수들은 살금살금 다가와서 나무꾼을 붙잡았다. 일단 붙들리면 두들겨 맞고 벌금을 물어야 했으니, 나라 잃은 서러움이 여간 아니었다.

그런데 그 팔달산과 융·건릉의 아름드리 소나무를 절단낸 것이 다름아닌 일본제국주의자들이다. 기록에 보면 1944년 8월부터 팔달산의 150년 생 소나무를 남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융·건릉도 마찬가지였다. 이 나무들은 조선(造船) 용재로 쓰여졌는데 일본인들

은 융·건릉 안과 병점(餠店)에 제재소를 차려 놓고 나무를 켰다.


1907년 당시의 서울 종로 나무시장

이래서 해방이 될 무렵에는 팔달산이 민둥산이 됐던 것이다. 이 때 베어낸 나무가 얼마나 컸던지, 나무 한 그루를 켜면 7간 집을 짓고도 남았다고 했다. 지금 지지대 고개에 수십 그루의 노송이 남아있지만, 당시 팔달산에서 베어낸 소나무에 비하면 지금의 노송은 가지에 불과하다고 고로들은 회고한다. 끝으로 한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잎이나 갈잎을 긁어다 땔 때 일본인들은 무엇을 땠을까. 그들은 장작과 숯을 땠다. 숯은 깊은 산골에서 구운 것을 사다 팔고, 장작은 소나무가 아닌 참나무 장작만 팔았다. 파는 곳은 수원에 몇군데 있었지만 가장 크게 장사한 곳이 중동 구길 성공회(聖公會) 옆에 있는 미야자키(宮崎) 상점이었다. 그들은 장작이나 숯을 저울로 달아 팔았다하는데 그 값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전국에서 내로라했던 수원 우시장

이번 마당에서는 왜정 때 특수시장으로 분류되었던 1930년대의 수원읍 '우시장'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오늘날에는 우시장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엔 '쇠장' 또는 '우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우시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조선총독부가 1918년, 그러니까 조선을 병탄한지 8년 째 되는 해에 실시한 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우시장이 모두 655군데 있었다. 도 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91군데로 가장 많고, 강원도 67군데, 황해도 63군데, 전라남도 58군데, 충청남도 52군대, 평안남도와 경상남도에 각각 50군데, 경기도에 47군데 있었다. 이 가운데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우시장은 함경북도 명천군 명천장과 길주군 길주장이었다. 이들 우시장에서는 한해에 2만 5000마리의 소가 거래됐다. 다음으로 큰 장이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 우시장이었다. 한해에 2만여 마리가 팔려나갔다. 수원 우시장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짐작할만 하다. 비슷한 수준의 장으로는 양주군 한금면 삼패리, 용인군 외서면 백광리 우시장을 쳤다. 이곳 우시장에서도 2만 마리 이상이 팔렸다. 그 다음으로 1만 마리 가량 거래된 우시장으로는 포천군 소흘면 동교리와 파주군 조리면 춘일천 등 12군데가 있었다.

그러면 1930년대 수원읍 우시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73년 전으로 되돌아 가 보자. 당시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고로를 찾아 나섰는데 맨 먼저 만난 분이 주식회사 삼원 대표이사인 이낙수(李樂秀)씨였다. 그는 수원 토박이로 옛 수원 사정에 정통하지만 불행하게도 우시장에 관하여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로부터 소개 받은 분이 당시 71세인 수원 토박이 이상래(李相來)씨였다. 그도 우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총명한 기억력 더분에 수원 우시장의 이모저모를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설과 달리 수원에는 성안 우시장말고, 성밖장에도 우시장이 섰다고 증언했다. 성안장은 본디 나라 안에서 이름을 날리던 큰 우시장이고, 성밖장 한쪽 귀퉁이에 서는 우시장은 성밖장이 서는 날 더불어 서는 들러리격의 장이었다. 성밖장의 우시장은 지금의 영동시장에서 지동으로 넘어가는 지동교 아래 윗쪽 강변가에 섰다. 이



위 사진은 조선총독부가 1929년 발행한 생활생태조사 〈수원군〉편에 나오는 사진인데 설명에는 수원우시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증 결과 땔감장에 나왔다가 수원천변에서 쉬고 있는 소로 판명됐다. 아무튼 이 근처에 우시장이 있기는 했었다.

다리는 광복되기 10년 전 쯤에 가설됐는데 그 때는 '영교다리'라고 했다. 성안장은 본격적인 우시장이라 일시에 3백여 마리의 소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성밖 우시장은 기껏해야 50~70두가 한계였다.

나무 말뚝에 매놓고 요란한 흥정

수원 우시장은 연중 성황을 이루었다. 성안장은 10일 간격으로 9·19·29일에 서고, 성밖 장은 4·14·24일에 섰다. 결국 수원읍 전체로 보면 5일장이 되는 셈이다. 훗날 시장이 상설화되면서 두 군대가 모두 5일장으로 바뀐 때가 있었으나 광복을 전후해 성밖장은 일반 시장으로, 성안장은 우시장으로 정착하면서 성밖장에 서던 우시장은 없어졌다.

우시장에는 팔러 나온 송아지·암소·황소 등을 분류해 묶어 놓는 나무 말뚝이가 꽂혀 있었는데 굵기는 직경 15~70센티 안팎이었다. 우시장은 날이 새자마자 열린다. 근동에서

는 당일 소를 끌고 나오지만 용인·이천·발안·안중·평택·안양 등지에서 오는 소 임자들은 전날 미리와서 여각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장수는 대개 두가진데 하나는 농가나 다른 우시장에서 소를 사서 모았다가 내다 파는 일종의 수집상이고, 다른 하나는 장날에 맞춰 소를 이동시키면서 그날의 시세 차액을 노리는 이동 상인이다. 소를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에 끼여드는 것이 중개인이다. 이들은 말뚝에 메놓았던 소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돈을 번다고해서 '말뚝베기'라고 불렀다.

또 한가지 우시장을 성립시키는데 있어서 없어서 안되는 것 중 하나가 소를 몰고 다니는 '소몰이꾼'이었다. 소몰이꾼은 다른 말로 '채꾼'이라고도 했는데 이들은 대개 2~4마리 까지의 소를 몰고 다녔다. 비교적 순하고 말잘 듣는 소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채꾼이 끼어든다. 그리고 그 뒤로 두 세마리의 소가 따라오게 하는데 보기와는 달리 손쉬운 일은 아니었다. 북새통 속에서도 흥정은 이뤄지는데 열이면 아홉은 말뚝배기 농간으로 사고 팔게 된다. 흥정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현금과 소를 맞바꾸게 되는데 이 때 말뚝배기는 구전을 챙기고, 우시장 측에선 장세와 수수료를 받았다.

쇠똥 냄새와 어울리는 구수한 먹자판

가축을 팔고 사는 공간이라 그런지 우시장에서 쓰는 말은 하치말 일색이었다. 그들은 은어도 곧잘 썼다. 《시장의 사회사》(정승모 지음)에 보면 아래와 같이 쓰여져 있다.

'15원을 '함뚜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0원 짜리 한 장 반이라는 뜻으로, 장 반이 쟁반이 되고, 그것이 뚜껑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값을 반으로 깍을 때는 '접는다'라고 한다. 쇠머리는 '게낭'이라고 하는데 게낭이 좋다고 하면 소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고, 나쁘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사람을 치받을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쇠발을 '딛음'이라고 하고, 눈은 '저울', 기름진 소는 '색시' 좋다, 그 반대는 색시 언잖다고 했다. 농우나 짐소는 '성귀소', 식용소는 '살소', 비육우는 '나남치'라 했다. 또 값을 정하는데 '모도'라 하면 쇠살쭈에게 지불할 구변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한 액수를 말하고, '차지'라 하면 그것을 빼고 소를 판 사람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액수를 뜻한다. 소의 나이를 감정할 때도 은어를 쓰는데 '나릅'은 4살, '다습'은 5살, '막졌다'는 6살이 넘었다는 뜻이며 '앞졌다' 또는 '보

졌다'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를 간 두 세살 박이 소를 말한다.'

우시장에 나온 소라고 해서 모두 팔리는 것은 아니다. 값이 안맞거나 소의 상태가 나쁘면 퇴짜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튿날 끌고 가거나, 다른 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갈 길이 아득하면 하루 밤을 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소들을 맡아 먹이를 주고 재워 주는 곳을 마방(馬房)이라 하였다. 마방은 대개 일자형으로 된 마구간으로 마방 주인이 시중을 들었다. 수원 우시장 근처에도 마방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황소 한 마리 값은 얼마나 했을까. 이상래(李相來)씨는 그가 열한살 때(1933년) 글을 모르는 이웃 할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부르는 대로 대필(代筆)하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써 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쪽지 내용은 "소 가져간 돈 60원을 냉큼 가져오라"였다. 영감은 황소 한 마리를 60원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약속 날짜에 돈을 안가져오니까 돈 가져오라는 독촉장을 쓰게 한 것이다. 당시의 쌀 소두 한 말 값이 80전 안팎이었다고 한다. 열말드리 한가마니면 8원에서 10원 가량된다. 소 값 60원은 쌀 여섯 가마니 값이 되는 셈이다. 요새 시세와는 큰 차이가 나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소 값은 그렇다치고 우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자판이다. 먹거리를 파는 음식 장수들은 하루 전에 준비를 끝내고, 당일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파는 음식은 장국밥·해장국·순대국 등이었다. 안주가 있으면 술이 있는 법이다. 막걸리와 소주를 파는 주막도 있었으나 왜정 말기에는 술이 귀해 밀주가 성행한 적도 있었다. 큼직한 뚝배기에 넉넉히 담긴 순대국에 막걸리 한잔을 걸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거기다 소 판돈까지 거머쥐고 나면 일시에 부자가 된듯해 어깨가 으쓱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풍만감도 잠시, 소 판돈으로 자식놈 학자금과 장리 빚을 갚고 나면 금방 빈털털이가 되곤 했다. 가족처럼 아끼던 소와 작별하는 것도 당시의 농부로서는 서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수원 최초의 '漢城銀行 水原支店'

구한말 수원의 금융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구한말하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말기를 말하니까 1897년(광무 1)부터 한일합방이 되는 1910년(융희 4)까지의 13년 사이가 된다. 고종(高宗)이 그 즉위 24년이 되던 해(1897)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光武)로 바꾸면서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를 때만 해도 이 나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였다.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 잡고, 무차별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외세의 압력과 공세를 막을 처지가 못되었다. 임금이 '황제'가 되고,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었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계 은행이 설립되는데 다름아닌 한성은행(漢城銀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1897년의 일이니까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바로 그해였다.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한성은행은 대한제국 수립기념사업에 견줄만 했고, 근대적 은행이 처음 태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한성은행이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은 아니었다. 최초의 은행은 일본계 제일은행(第一銀行)으로, 1878년 부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 효시였다. 일본계 은행이 남의 나라 조선에 들어와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로서는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만 있었으니, 조금은 한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계 은행은 우리나라 전국에 지점망을 설치해 놓고 달콤한 돈 장사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19년 만에야 금융 독립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자각하고, 한성은행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한성(漢城:서울)과 지척지 간에 있는 수원에 지점이 생긴 것은 한성은행이 본점을 설립한지 9년 뒤인 1906년(광무 10) 10월 15일의 일이다. 은행 볼모지이던 수원에 은행지점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경사스러운 일이었는 데도,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우선 점포의 모양새가 썩 호화스럽지 못했다. 1983년에 발간된 《水原商議史》(수원상의사)에 보면 한성은행 수원지점은 1906년 10월 15일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 13통에 있는 평

범한 건물에서 개업했다라고 적혀있다. 평범하다는 것은 비범 또는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니, 점포 자체가 눈에 띌만큼 크거나 고급스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1906년은 한일합방이 되기 4년전이다. 하지만 수원에는 이미 일본인을 비롯한 서양 상인들이 이주해 와서 장사를 하던 때이고, 도시구조가 날로 변화하는 급변기였다. 당시의 수원읍내 인구는 조선인 6685명, 일본인 634명으로 모두 7319명이었다. 지금의 인구 개념으로 보면 하잘 것 없는 것이지만 1899년 당시의 수원군민이 4만 970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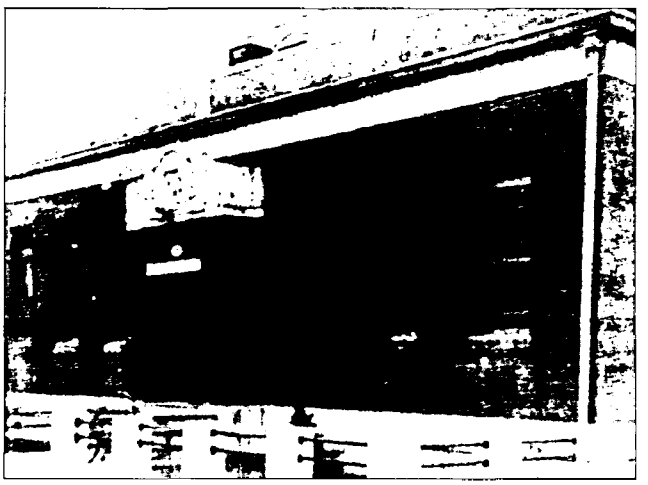
업계에 변화를 몰고 온 수원금융조합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당일의 개업식 광경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대로 평범한 건물에 점포를 차리고, 개업을 했다면 개업식 자체가 화려하지 않았을 것 같고, 업계와 읍민들의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은행 수원지점은 수원에서 유일한 은행이었기 때문에 금융업계를 독점하는 기린아가 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가 받아 1907년 12월 20일에 개업한 '수원금융조합' 건물. 이 건물은 왜정 때 미야마찌(宮町), 지금의 중동에 있었다.

적어도 한성은행 수원지점이 개업한 이듬해(1907) 10월 8일 설립허가를 받은 수원금융조합(水原金融組合)이 12월 20일 개업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금융조합은 시중 은행과 달라서 서민과 농민이 출자한 금융기관으로 시중 은행보다 문턱이 낮다는 인상을 주었다. 수원금융조합은 1907년 6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설립인가를 받은 전라남도 광주금융조합(光州金融組合) 다음으로 인가 받은 두 번째 조합인데다 한성은행 수원지점 보다 서민적 이미지가 강해서 면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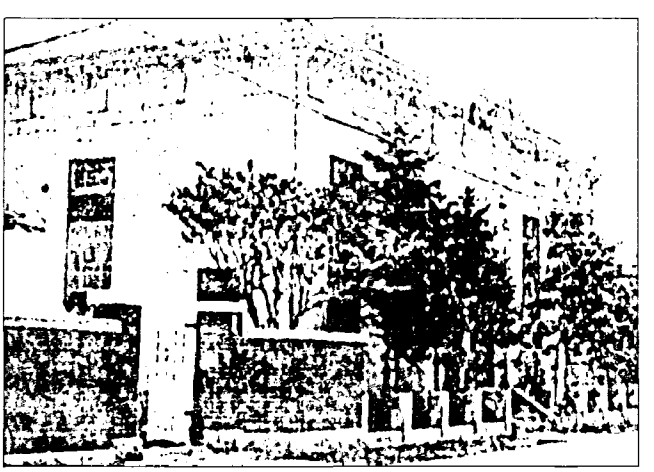
수원금융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도내에는 59개 조합과 19개의 지소가 설치되면서 그야말로 금융조합 전성시대를 구가했다. 수원금융조합은 수원면 미야마찌(宮町:지금의 중동)에 터를 잡고, 농민 보다는



설립연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화성금융조합' 건물. 이 건물은 산루리(山樓里:지금의 교동)에 있었다.

상공인들을 주고객으로 삼았다. 창업 당시의 회원이 이를 입증한다. 전체 조합원 297명 가운데 상공인이 222명, 농민은 75명에 지나지 않았다. 업무 관할 구역도 넓었다. 수원군은 물론 진위군(振威郡:지금의 평택군)과 용인군(龍仁郡:지금의 용인시)까지 장악해 경기 중남부의 금융시장을 여유 있게 공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조합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임직원의 인사 구도였다. 즉 조합장은 조선인으로 하고, 실무 책임자인 이사(理事)는 철저하게 일본인을 임용한 점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할 뿐 실권은 일본인 이사가 행사했다. 일제는 일본인 이사를 통해 돈의 흐름을 감시한 것이다. 당시의 수원금융조합장은 구한말 시절 수원상업회의소 부회장을 지낸 양성관(梁聖寬)이 맡고, 이사는 일본인 오쿠다다네히코(奧田種彦)였다.

뒤 이어 생긴 것이 화성금융조합(華城金融組合)이다. 이 조합은 수원면 산루리(山樓里:지금의 교동)에 있었다. 이 조합이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일부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1918년경 화성지방금융조합(華城地方金融組合)이 생기면서 수원금융조합을 흡수했다는 설이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광복이 될 때까지 수원금융조합 건물과 화성금융조합 건물이 따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두 조합이 별개였음이 확실하다. 아무튼 화성금융조합은 조합원 구성부터가 수원조합과 달랐다. 1920년도의 상황을 보면 조합원이 563명인데 모두가 농민이었다. 수원조합의 회원 절대 다수가 상공인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화성금융조



1906년 10월 15일에 개업한 '한성은행 수원지점'. 이 건물은 개업 당시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축한 것이다. 개업 때는 남수리(南水里) 13통 소재 '평범한 건물'에서 영업을 했다.

합은 경영실적도 건실한 편이었다. 1928년 당시의 현황을 보면 기본금 1만원, 출자금 3만 1520원, 건물 등 부동산 2만 7330원, 예입금 12만 3488원, 조합원 1227명, 대부금 15만 3749원, 순익금 4876원, 배당금은 연 7부였다. 당시 조합장은 김남소(金南韶), 이사는 다카시마 류스케(高島隆助), 1명의 서기와 3명의 견습이 있었다.

지방 금융조합의 백가쟁명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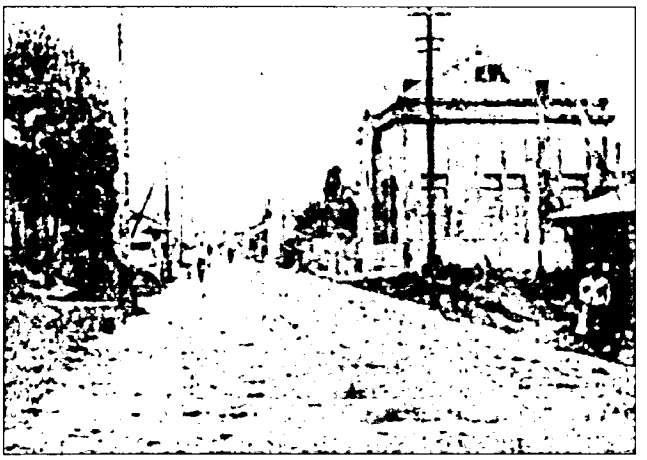
이 무렵에 南陽·龍仁·烏山·發安·華城·朝岩·白岩·沙江·烏山第2·新葛金融組合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수원조합에 이어 설립된 것이 남양금융조합(南陽金融組合)으로 1908년(융희 원년) 7월이다.

가장 늦게 설립된 것이 신갈금융조합으로 1933년 2월 9일에 개업했다. 일제하의 금융조합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농민 상대의 금융기관이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농민 사이에는 협력도 있었지만 갈등도 있었을 것이다. 수신은 농민의 몫이지만, 농사자금을 빌리는 여신은 절대적으로 조합의 특권이다. 자연히 조합장이나 이사(일본인)는 콧대가 높아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치사한 짓도 더러는 했을 것이다.

도내 여러 곳에 금융조합이 설립돼 근대적 금융업이 한창일 때 돌연히 나타난 것이,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朝鮮殖産銀行 水原支店)이다. 알다시피 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주로 산업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곳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 침략의 핵심과제인 황국식민지화를 위해 금융의 통제와 수탈을 제1의 목표로 했던 '공포의 금고'였다. 본점은 한성은행이 설립된 1897년에 설립되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격에 벗어난 일이었다.

왜냐하면 내용이야 어찌 되었던 조선은 엄연한 독립주권국가이고, 비로서 민족계 은행이 생겨난 시점인데 막강한 자국 자본을 앞세워 거대한 은행을 세웠으니, 금융침략이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였다. 아무튼 조선식산은행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수원 금융시장을 눈밖으로 하지 않았다.

유일한 시중 은행으로 독무대를 자랑하던 한성은행 수원지점의 등을 밀어내면서, 기어히 지점을 설치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이 언제 어떤 수순을 밟아 수원에서 개업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추측으로는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는 1924년 당시 전국에 52개 지점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개업 날짜가 확실치 않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건물. 이 건물은 매산로(지금의 아카데미극장 사거리 옆)에 있었다. 후일(1963년) 수원상공회의소가 매수해 회관으로 쓰기도 했다.

당시의 수원은 비록 소도시였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언제나 선두 그룹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식산은행이 수원에 지점을 두지 않았을 리가 없다. 어쨌거나 식산은행 수원지점의 등장은 가족적이면서 두레 분위기가 강했던 수원 금융가를 일시에 뒤흔들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의 규모가 달랐고, 영업방식이 판이하였기 때문이다. 1923년의 결산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된다. 정기예금 2만 9467원, 당좌예금 242만 3005원, 특별당좌예금 21만 7991원, 제예금 48만 7182원으로 수신만 315만 7645원이나 됐다. 여신은 공공산업 대출 104만 8172원, 당좌대월 102만 2981원, 할인어음 54만 3609원, 이채어음 107만 2099원, 어음대부 43만 509원 등 411만 7327원에 달했다.

같은 연도의 한성은행 수원지점은 수신 48만 8824원, 여신 91만 1104원으로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교와 같았다. 여기에 더해서 식산은행은 산업금융 말고도 일반 여수신까지 닥치는 대로 취급했기 때문에 한성은행이나 금융조합으로서는 당해낼 처지가 못 되었을 것이다.

희비가 교차된 일제하의 서민경제

"빈곤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창문으로 도망간다." 서양의 격언이다. 우리 민족은 가난의 역사와 더불어 살았다.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대표되는 국난(國難)의 시기와 일제하의 35년, 여기에 더해서 민족상잔의 6·25전쟁 때의 빈곤은 극에 달했다. 이번 마당에서는 일제하 수원지방의 먹거리, 땔거리 난리(亂離)와 기근(饑饉) 때문에 아우성치던 일과 뜻밖에 북지(北支)와 만주(滿洲)지방으로 농산물을 수출했다는 얘기들을 모아 보았다.

수원지방의 쌀 파동 조선총독부가 한백미(韓白米)에 대해 소위 '공정가격제'를 실시한 것은 1939년의 일이었다. 그전까지만해도 쌀을 비롯한 식량 거래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쌀밥도 먹고, 잡곡밥도 먹을 수 있었으나 가격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우선 싸전에 그득그득하던 1~2등미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대신 소량의 저질 쌀을 진열해 놓고, 눈치 보아가며 팔았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싸전 풍경을 보면서 읍민들은 어안이 벙벙해하며 투정부렸지만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통 1~2등미의 경우 대여섯 번 찧게 마련인데 문제의 저질미는 한 두번 찧은 것이라 밥 맛이 형편 없었다. 읍민들은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이 쌀을 사다 정미소에 가서 다시 찧게 되는데 이 때 1말을 찧으면 1되의 감량이 생겼다는 것이다. 원성이 자자해지자, 수원경찰서 경제계가 나서서 취체를 단행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1939년 9월 7일자 〈東亞日報〉는 '韓白米 公正價格 실시 후 品質低下, 水原經警 엄중취체방침'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땔감 값 폭등 수원읍민 울상 먹거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땔감이다. 취사와 난방을 전적으로 신탄(薪炭), 즉 장작이나 솔가지 등에 의존하던 시대라 땔감 공급이 좋지 못하거나 값이 오르면 가계에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같은 걱정이 현실로 나

타나고 말았다. 1939년 10월, 그러니까 초가을이라는 계절 탓도 있었지만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보름 전에 비해 50%가량 값이 오르고 나니까 장작이나 솔가지 더미를 바라다 보는 읍민의 눈길이 고울리 없었다. 게다가 품귀현상까지 겹쳐 살래야 살 수 없는 일까지 생겼다. 당시의 솔가지 한바리 값은 1원 20전이었는데 가장 비쌀 때 3원 50전까지 올랐고, 장작은 1평에 8~9원 안팎이던 것이 19원 50전, 해적(마른 풀) 1바리에 2원 20전, 솔가래(솔잎) 1바리 2원 80전에 거래되었다고 1939년 10월 20일자 〈東亞日報〉는 보도했다.

목탄 배급제에 품귀현상까지

일제하의 통제경제는 끝이 없었다. 땔감 값이 폭등하자, 목탄(숯) 값도 덩달아 올랐고, 마침내 1940년에는 목탄배급제가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각도에 목탄 통제를 지시하고, 각도는 조선산림회(朝鮮山林會)로 하여금 배급제를 주관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로 수원에도 '목탄배급조합'이 생겨났다. 서둘러 개최한 조합총회에서는 일본인 미야자키스에마쯔(宮崎末松)를 회장에, 미조우에다쿠마(溝上多久馬)를 부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일본인이 주도권을 장악했다. 조합은 수원역 근처에 목탄 창고를 세우고, 수원군내에서 생산되는 1만표(俵)와 용인군에서 생산되는 2만표를 보관하고, 조합이 지정한 9명의 목탄상이 수요자에게 배급하도록 했다. 당시 수원읍내의 숯 소요량은 2만 5000표로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조합측 주장이었지만 유통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목탄 수급대책을 세우기 위해 194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에 걸쳐 부군임업기술원타합회(府郡林業技術員打合會)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타합회에는 40명의 부·군 임업기술원과 20명의 도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달된 중요 지시사항은 ◇목탄 배급통제에 관한 운영방법 ◇목탄 집하(集荷) 배급기구의 운영방법 ◇집하 수수료 및 처치방법 ◇목탄 통제실시 요령의 개정 ◇목탄 공정가격의 개정 등이고, 결의된 사항은 ◇원칙적인 도외(道外) 방출 금지 ◇京城(서울), 수원, 인천, 개성 및 기타 소비지역에 목탄배급조합 설치 ◇조합 미설치 지역의 배급은 산림지부가 담당 ◇생산자로부터는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였다.

숯은 흑탄(黑炭)과 백탄(白炭)으로 크게 나누고, 7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당시의 목탄

값은 ◇白炭 최상품(1표당) 2원 1전, 최하품 1원 76전 ◇黑炭 최상품(1표당) 1원 96전, 최하품 1원 71전이었다.

쌀, 땔감에 뒤질세라 야채도 쌀과 땔감 폭등에 주눅이 든 수원읍민들이 이번에는 천정부지(天井不知)로 뜀박질하는 김장감 앞에서 또 한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김장은 '반양식'이라고 할만큼 우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런데 1939년의 김장 값이 턱없이 비싸진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인 이유는 가뭄 탓이었다. 여름 가뭄에 이어 가을 가뭄까지 겹치면서 배추·무우 농사를 망친 것이다. 생산량이 주니까 출하량이 감소되고, 급기야 품귀사태와 함께 값이 올랐다. 문제는 예년에 비해 값이 3배나 오른 데 있었다. 말이 3배이지, 한푼을 쪼개 쓰는 아낙으로서는 여간한 충격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에 유행어처럼 회자(膾炙)된 것이 '금치'였다고 한다. 참고로 당년의 김장거리 시세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배추 상품 한통에 7전, 중품 5전, 하품 3전 ◇조선무우 한가마니 상품 3원 50전, 중품 3원, 하품 2원 80전 ◇일본 무우 100개에 상품 3원 10전, 중품 2원 50전, 하품 2원 20전.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에 어리둥절

물가경쟁, 쇠고기까지 가세 가난하던 시절,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사치품이었다. 특히 쇠고기는 1년에 한두번 맛보면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접하기 어려운 식품이었다. 물론 누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흔히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37년 소위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시작되면서 육류 유통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194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수급상태가 매우 나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몇 해 동안 쌀·땔감·야채 값이 터무니 없이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어쩌다 맛보는 쇠고기 값마저 껑충 뛰고나니까 시민 감정이 온전할리 없었다. 수원읍내의 푸주간들은 살코기 따로, 내장 따로 팔던 관행을 깨고, 살코기에 내장을 섞어 파는 소위 '끼워팔기'를 시작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하면 살코기와 내장을 5:5 비율로 팔았다. 당시 살코기 1근(600g) 값은 75전, 내장은 35전이었으니까 평균으로 치면 55전인데 장사치들은 75전 씩에 팔았다. 그나마 싫으면 사지 말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니까 소비자는 할말을 잃었다. 1940년 2월 20일 〈京城日報〉는 '살코기만은 안파는 水原의 精肉商'이란 제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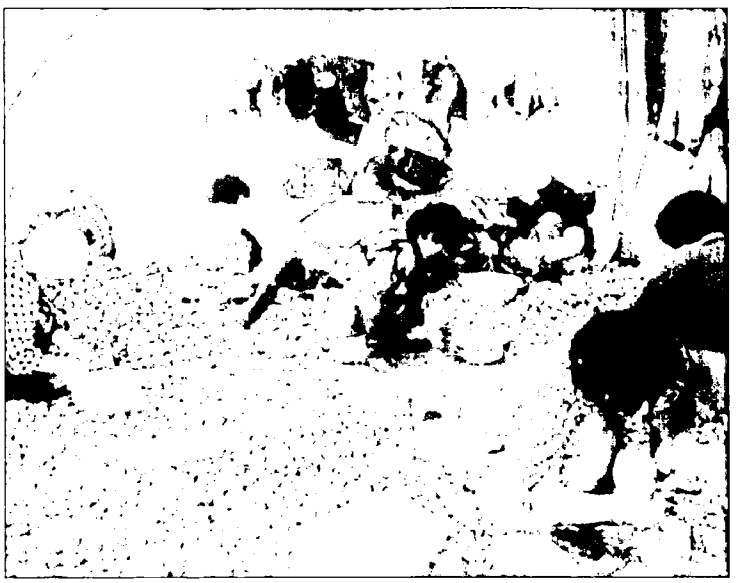
푸주간의 횡보를 보도했다. 먹거리, 땔거리 값이 폭등하고, 품귀현상을 빚는 바람에 서민생활과 지방경제는 바닥을 헤메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외골수로만 가란 법은 없는 것인지 '수원 수박'이 때아닌 효자 구실을 한적이 있었다. 경향 각지에서 일명 수원 수박으로 유명했던 수박은 당시 수원군 반월면에서 대량 생산되었다. 토질이 양호한데다 일조량 등 기후가 알맞아 수박 산지로 적합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수원 수박 일지라도, 소비시장은 경성(서울) 주변이 한계일 수밖에 없었는데 1938년에 뜻밖의 일이 생긴 것이다.

즉 1937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일본군을 중국 전선(戰線)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전쟁 통에 소위 특수(特需)가 생겨났다. 말 그대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것인데 그 특별 케이스 속에 수원 수박이 끼게 될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아무튼 반월면에서 수확한 수원 수박은 수원역과 군포역을 통해 북지(北支)로 실려 나갔고, 수박 농가는 물론 청과상인들까지 때아닌 돈벌이에 희색이 만면하였다. 1939년 7월 26일자 〈東亞日報〉는 '지난 20여일 동안에 수원과 군포역에서 북지로 수출된 수원 수박이 10여 트럭에 달했다'며 1년간의 수박 총생산고가 8만 5700원에 달하였다고 보도했다.

북지와 만주로 수출된 수박과 석화

전쟁 통에 수출로 재미 본 남양 생굴 수원군 서부 황해 연안에 위치한 남양의 특산물은 다름아닌 굴(石花)이다. 육지가 바다 쪽으로 돌출하였다하여 남양반도(南陽半島)라 부르고 역사가 깊은 고장이다. 이를테면 대중국 무역기지이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해상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또 제염(製鹽)의 고장으로 우리나라 소금 생산의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해산물의 산지이기도 하였다. 남양반도에 속한 면(面)만도 陰德面, 麻道面, 松山面, 西新面, 長安面, 雨汀面, 梅松面, 半月面, 鄕南面, 八灘面 등 10개 면이나 된다. 이들 면의 해안 굴곡선이 수십리에 달하는데 이 부근 일대가 석화 산지였다. 석화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중 채취하는데 연간 수확량이 1천여 석이나 되고, 돈으로 따지면 6만여 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1940년 상당량의 석화가 만주로 수출된 일이 있었다. 수출량과 수출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어민과 수산물 업자들이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할만큼 영양이 높은데다 김치를 담글 때 없어서는 안되

는 식품이기 때문에 남양 굴의 성가(聲價)는 늘 높았다. 만주로 수출된 맛 좋은 남양 굴이 무슨 요리로 만들어져 누구 입에 들어간지는 알 수 없지만 남양 갯벌에서 따낸 굴이 바다 건너 중국 땅으로, 그것도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이 한창인 때에 수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굴 까는 아낙들, 해변가에 지천으로 깔려 있었던 자연산 굴(石花)은 점점 감소되고, 양식 굴이 일반화 되고 있다.

아무러나 쌀·연료·야채·육류에 이르기까지 가격 폭등, 품귀, 배급제까지 실시한 1940년대의 수원 경제는 한마디로 위기였다. 물자·물가·품귀대란에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그 모든 것은 일본이 세계 재패라는 야욕 아래 중국에 이어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물자 부족을 초래한 때문이고, 그 와중에서도 조선의 산물을 가로채 일본으로 빼돌린 것이 절대적인 원인이었다.

실패한 산미계획과 수원 동족부락

인류가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침략이나 식민지가 뭔지 모르고 살던 시대에는 인간이 먹는 식량을 하늘이 준 선물이거나 은총으로 여겼다. 그러나 국가 또는 민족 간에 잡아 먹느냐 잡아 먹히느냐의 전쟁과 영토 확장을 노린 세력 다툼에 더해 인구마저 폭증하면서 식량은 무기로 변하고 말았다. 오늘날 식량은 핵무기보다 강력한 공포의 무기로 자리 매김을 하였고, 실제로 강대국들은 오래전부터 식량을 전략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구상의 곳곳에서 엄청난 기아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인도주의를 외면할 수 없어 원조의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저들의 곡간을 털어서 도와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마당에서는 일제의 무모하기 그지없는 소위 산미(産米)계획의 허구성과 우리나라 농민들이 일제하의 열악한 사회환경 속에서도 동족이라는 혈연을 바탕 삼아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던 수원의 4대 동족부락(同族部落)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제국은 식량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른 바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이란 것을 마련했었다. 문자 그대로 쌀을 증산해서 부족한 식량 사정을 해소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도록 하겠다는 것이니, 하늘 아래 머리 둔 사람치고 반대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입안한 산미증식계획에는 숨겨진 속내가 있었다.

즉 당시 일본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석 가까운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했다. 문제는 식량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데 있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의 비옥한 농토와 무진장한 인력을 동원해 쌀을 증산함으로써 식량 수입에 따른 자국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양질의 조선 쌀을 싸게 먹는 이른 바 '꿩먹고 알먹기'를 꽤하였던 것이다. 방침이 정해지자 조선총독부는 1912년 산미증식계획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1차 계획은 1912년부터 1927년까지 15년으로 정하고, 각 도에 책임량을 할당하는 등 박차

를 가하게 되는데 계획 자체가 억지여서 순조롭지 않았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조선총독부는 1차(1912~1927), 2차(1926~1941), 3차(1941~1951)에 걸쳐 산미증식계획을 강행하려 했지만 단 한번도 계획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즉 1차 계획은 계획연도인 1927년보다 1년 빠른 1926년에 중단되고, 2차 계획은 계획연도인 1941년 보다 무려 8년이나 앞당긴 1933년에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3차 계획은 1945년의 패전으로 보따리 싸들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바빴으니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계획기간 동안 일제는 조선 농민들에게 증산을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 수탈과 농권의 지배와 식민지화를 위해 광분하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허리 펼 날이 없었고, 농사는 쌀밥 먹기 위해 짓는다는 소박한 바람도 용납되지 않았다. 수원군의 1·2·3차 산미증식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식량난 해결 위해 억지 계획

제1차 산미증식계획 기간 동안인 1923년 당시 수원군의 총 경지면적은 답(畓) 20만 6547정보, 전(田) 13만 7754정보를 합쳐 34만 4301정보였고, 농가 호수는 2만 2581호, 농업인구는 12만 3031명이었다. 경지면적이나 농업인구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진짜 문제는 농가의 영농 형태였다. 대지주가 288호, 중소지주 651호, 자작 1728호, 자작 겸 소작 8255호, 소작 1만 1659호로 혹독한 소작료를 내야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식량증산 의욕이 생길 턱이 없었다.

소작 계약은 성문으로 하지 않고 연한도 명기하지 않았으며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다. 게다가 지주의 위임을 받아 수확한 식량을 관리하는 마름(일명 '舍音') 몫이 적지 않아 소작인들로서는 이중고를 면할 길이 없었다. 뿐인가 마름들은 저들의 사복(私腹)을 채우기 위해 지주에게 소출을 거짓 보고하기 일쑤였는데 결국은 소출에 불만은 품은 지주는 소작인을 나무라게 되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힐 수 없는 소작인으로서는 은사 죽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년 내내 고생한 끝에 소작료와 마름 몫 말고도 엄청난 공출까지 내고 나면 농민들 손에 남는 식량은 언제나 보잘 것 없었다.

제2차 계획기간이었던 1920년대 후반의 수원군은 21개 면과 277개 리가 있었다. 당시 수원면에는 수원군청, 읍사무소, 미곡검사소, 지방법원 지청, 경찰서, 우체국, 도립의원, 권업모범장, 잠업시험소, 여자잠업강습소, 보통학교, 소학교, 전기회사, 한성은행 수원지점,



1920년대 후반의 수원읍내 모습. 비록 일제하이긴 했어도 멀리 문루가 보이고, 그 일대에 초가집이 들어서 있는 동네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 없었다.

식산은행 수원지점, 수원·화성금융조합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서 수원면이야말로 수원군의 중심지로서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원군에는 대·소 지주가 많은데다 소작인이 전체 농업 인구의 절반이나 되었기 때문에 경제사정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조선총독부는 농촌과 농민도 시대변화에 걸맞게 변해야 살 수 있다면서 벼라별 농촌조직과 어용단체들을 만들어 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1923년도의 수원군에는 농회(1개), 축산동업조합(1개), 산림보호조합(1개), 공동구우계(11개), 산미개량조합(8개), 수리조합(3개), 학교조합(4개), 금융조합(5개), 동력농구사용조합(16개), 근검저축조합(21개), 청년회(5개), 공조회(7개), 부인긴친회(2개), 초혜계(草鞋契·2개)·농촌개량강습회(1개), 기노회(耆老會·1개), 상조회(1개), 건아회(1개), 식리강(殖利講·14개), 식리계(殖利契·373개) 등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농촌·농민 조직들이 농촌근대화에 일조가 된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농촌 조직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농민들의 자율적 참여보다는 억지·강제성이 농후한데다 기여한 것만큼의 실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이들 조직들이 일제의 식민지를 합리화하고, 친일을 고무 선진하는 어용성이 강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강한 농민일수록 피상적으로 참여를 하였으니 성과가 있을 리 없었다.

3차 계획기간인 1941년 이후는 소위 미국과의 대동아전쟁 발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식량증산에 힘 쓸 상황이 아니었다. 일본의 식량문제는 고하간에 조선의 식량사정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일본에 빼돌릴 여유가 없었고, 암거래가 일반화될 정도로 식량 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3차 산미증식계획은 계획일 뿐 이 계획에 따르거나 지키는 농민들이 거의 없었다. 결국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패전하면서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을 청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고난의 시기, 분노로 가득찬 시련의 시절에도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는 권력이나 제도만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유무형의 존재들은 있었다. 예컨대 전통적인 민족성, 대대로 이어져 온 가풍과 문화, 일상화된 관습과 행동거지(行動擧止), 자연·학연·인연 등이 빚어내는 삶의 터전이 그것이다. 특히 인간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는 곳이 농촌인데 그 가운데서도 동족끼리 모여 사는 소위 동족부락은 그 정도가 각별하였다.

박해에도 자존심 지킨 동족부락

1933년 당시 경기도내의 동족부락은 929개였다. 이 가운데 117개가 수원군내에 있었다. 이 숫자는 전체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 동족부락이 많았다. 일제하의 동족부락은 일제의 관헌들로부터 감시 받는 특별한 생활공간인 동시에 실제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 준 존재이기도 했다. 오늘날 기록에 남아 있는 당시 수원군의 대표적인 4개 동족부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南陽洪氏 홍법리 동족부락

1550년 경에 생긴 이 부락은 광활한 농경지가 있는 평화로운 부락이었다. 모두 55호에 동족 367명이 살았으나 타성도 12호에 58명이 있었다. 조선 명종(明宗) 때 홍문관 대제학과 영의정을 지낸 홍 진(洪 暹, 호 忍濟宮)이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사패지(賜牌地)인 이곳에다 삶의 터전을 잡고 전원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자손이 늘어나 동족부락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부락은 부락민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고, 선조에 대한 제사나 시제(時祭) 때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재단에서 지출함으로써 부락민의 사부담을 줄이고, 번거로움까지 덜 수 있게 하였다.

◇ 密陽朴氏 장지리 동족부락

지금의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에 있었던 이 동족부락에는 70호에 420명, 타성은 40호에 200명이 살았고, 생업은 농업이 대부분이었다. 원래는 진주 강씨들이 살았는데 훗날 강씨 동족이 이곳을 떠나게 되자 밀양 박씨가 이주해 왔고, 급기야는 박씨 동족부락으로 굳혀지고 말았다. 부락의 대표적인 부자는 당시 돈 1만원 재산가로 알려진 박병준(朴秉俊)과

박승철(朴承喆)인데 두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 密陽朴氏 동촌 동족부락

지금의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었던 이 동족부락은 1740년 경 박 이(朴 揖)의 조부 박견룡(朴見龍)의 무덤을 이곳에 쓰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터를 옮긴 것이 동족부락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부락 안 박씨는 55호에 310명이고, 타성은 12호에 46명이 살았는데 대부분 농사 일을 했다. 부락에는 2만원 부자 박래원(朴來遠)과 1만 3000원 부자 박용건(朴容健)이 살았다.

출중한 인물로는 예랑공(藝郎公) 박농예(朴農禮), 부승지 박수계(朴壽啓), 호조참판 박도윤(朴道潤) 등이 있었다. 이 동족부락의 특징은 문중 재산으로 한문 사숙(私塾)을 만들어 문종 자손들을 가르친 일이 있었다.

◇ 廣州李氏 파장동 동족부락

수원시의 최북단에 위치했던 이 동족부락에는 광주 이씨 61호에 350명과 59호에 280명의 타성이 함께 살았다. 1680년 경 서울 사람으로 20만원 부자였던 이영달(李榮達)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후손이 늘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동족부락으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광주 이씨는 여주 이씨와 쌍벽을 이루는 수원의 대성인데 파장동 동족부락 말고도 수원에는 광주 이씨가 많다. 이 부락에서 배출된 인물로는 군수를 지낸 이병화(李秉化)와 이규회(李圭會)가 있었다.

1920년대 수원 부자와 빈자 이야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돈(물질)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돈의 많고 적음을 경제가치의 기본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후자는 돈의 다과보다는 노동생산성을 통한 공생공존을 최상의 덕목으로 삼는다.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의 반쪽(남한)은 자본주의체제이고, 다른 반쪽(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다. 1945년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남북협상을 통해 하나된 조국을 건설하고저 노력하였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북한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남북은 분단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어느새 55년 째가 되고,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발발한지도 53년 째로 접어들었다. 견원지간이던 남북이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진척은 없다.

아무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독자적인 경제체제로 국가를 운영하여 왔는데 반세기만의 채점표는 어떤가.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부자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최극빈국에 속하는 나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가난은 패배가 아니라, 고통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부자는 부일일 뿐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일 뿐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싫든 좋든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살아 온 우리의 과거, 즉 일제하인 1920년대의 수원군의 빈부(貧富) 이야기를 나눌까 한다. 1920년대의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력한 철권통치에 짓눌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나기가 퍼부어도 비에 젖는 사람과 비에 젖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숨막힐 듯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부자유 없이 사는 부자가 있었는가 하면 세월과 관계없이 굶주리는 가난뱅이가 있었다.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부자와 빈자의 실상을 조사했는데 그 때가 1925년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조사에 앞서 두 가지 조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하나는 자산이 1만원 이상의 부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하의 빈자였다. 당

시 1만원은 보통 월급쟁이 월급을 25원으로 칠 때 4백개월 치니까 이만저만한 큰 돈이 아니다. 그런데도 빈부의 기준을 1만원으로 정한 것은 1만원 이하의 가난뱅이 숫자를 알아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1만원 이상의 떼부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부자 개념은 현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가진 자였는데 조선총독부는 부자의 등급을 15단계로 나누었다. 즉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0만원 이상, 15만원 이상, 25만원 이상, 30만원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는 2만원 이상의 107명이 가장 많고 3만원 101명, 1만원 74명, 4만원 37명, 5만원 27명, 10만원 10명, 7만원 8명, 6만원 6명, 9만원과 10만원 이상이 각 5명, 30만원 이상 2명, 8만원 1명이었다. 당시 최고라고 할 수 있었던 30만원 이상의 부자는 2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이야말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갑부(甲富)였던 것이다.

부자는 83명의 수원면이 으뜸

부자를 면별로 보면 수원군청 소재지이면서 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였던 수원면(水原面)이 가장 많았다. 즉 2만원 18명, 3만원 23명, 4만원 14명, 5만원 8명, 6만원 3명, 7만원 1명, 9만원 2명, 10만원 8명, 10만원 이상 4명, 30만원 이상 2명으로 모두 83명에 달하였다. 그 다음이 정남면(正南面)으로 51명, 서신면(西新面) 30명, 일형면(日荊面) 26명, 장안면(長安面) 25명, 성호면(城湖面) 16명, 음덕면(陰德面) 1명의 순이었다. 면별 부자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원군 면별 부자(1만원 이상) 상황

面別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0만원 이상	15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25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계
水原面		18	23	14	8	3	1		2	8	4				2	83
日荊面		6	8	6	5	2	1				1					26
儀旺面		5	3	1	2											11
半月面	4	6	5	1												16
梅松面	2	4		1												7
峰潭面	7	6								1						14
飛鳳面		3	5	1	1	1	1									11

面別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0만원 이상	15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25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계
陰德面										1						1
麻道面			6	1	1											9
松山面		10	12	3	2											17
西新面	14	4	3	2	2		2		3							30
八灘面	1	7	1													9
長安面		16	9													25
雨汀面			2		1		3	1								16
鄕南面	4	5	1	2	2		1									15
楊甘面	2	4	5		1											12
正南面	40	8	1	2												51
城湖面		8	7		1											16
東灘面			2	2	1											5
安龍面																
台章面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만원 이상의 부자가 태장면(台章面)과 안용면(安龍面)에는 단 1명도 없었다는 것과 10만원 이상은 수원면과 일형면에서 4명과 1명이 있었을 뿐 다른 면에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어쩌다 부자가 있는 면으로 분류되긴 했어도 음덕면(陰德面)은 10만원 부자가 단 1명 뿐이었다. 그렇다면 면별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의 액수가 어떨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합산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았다.

◇수원면 424만원 ◇일형면 114만원 ◇서신면 90만원 ◇송산면 78만원 ◇정남면 67만원 ◇장안면 59만원 ◇향남면 42만원 ◇성호면 42만원 ◇우정면 40만원 ◇비봉면 36만원 ◇반월면 35만원 ◇의왕면 33만원 ◇마도면 31만원 ◇양감면 30만원 ◇봉담면 19만원 ◇동탄면 19만원 ◇팔탄면 18만원 ◇매송면 14만원 ◇음덕면 10만원으로 총액이 1201만원이었다. 그러나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까지의 실제 금액을 포함시킨다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아무튼 수원군에는 부자 반열에 오른 374명의 부자가 12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작게는 마을에서 크게는 동리나 지역사회 경제를 좌지우지 했을 것이다.

재물이란 동전의 앞 뒤와 같다. 부자가 잇는 곳엔 가난한 자가 있게 마련이다. 조선총독부는 수원군의 부자를 조사하면서 빈자(貧者)가 얼마나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들은 빈자를 세민(細民), 궁민(窮民), 걸식(乞食)으로 분류했다. 세민이란 요새말로 하면 영세민이고, 궁민이란 생활이 궁핍한 자를 말하며 걸식이란 빌어 먹는 거지를 뜻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쯤 된다는 요즘에도 하루 살기가 힘겨운 영세민은 있고, 심지어 문전걸식하는 걸인도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일제하의 사정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 우선 빈부 격차가 심했다. 부자는 엄청난 재력을 앞세워 땅 넓고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살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하루가 여삼추(如三秋) 같다고 할만큼 생계 유지가 쉽지 않았다. 일본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본질은 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체제였기 때문에 부자 우대, 빈자 하대(下待)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선총독부는 부자들을 규합해 친일경제 구축에 힘썼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존하기 위해 친일 행각을 서슴치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일제 36년 동안 친일에 앞장 섰거나 동조한 계층은 서민층이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호의호식한 부유층이었던 것이다.

부자가 있는 곳엔 빈자도 있다

조사 결과를 면별로 보면 세민·궁민·걸식 세가지를 합쳐서 빈자가 가장 많았던 면은 1500명의 안용면이고, 그 다음이 1406명의 반월면, 1332명의 향남면, 1243명의 송산면, 1228명의 일형면, 1202명의 성호면, 1193명의 우정면, 1143명의 음덕면, 1093명의 팔탄면으로 1000명이 넘는 면만도 9개 면이나 되고, 전체 빈자수는 1만 9865명에 달하였다. 세민이 가장 많았던 면은 안용면으로 700명, 일왕면 650명, 송산면 565명, 동탄면 559명, 일형면 516명, 서신면 450명, 매송면 415명, 태장면 400명, 우정면 382명, 향남면 366명 등으로 군내의 총 세민수는 8256명이었으며 세민이 가장 적었던 면은 정남면의 120명이었다.

궁민은 반월면 964명, 향남면 959명, 음덕면 874명, 팔탄면 850명, 우정면 811명, 안용면 800명, 성호면 752명, 비봉면 741명, 일형면 704명, 송산면 641명 등으로 총 궁민수는 1만 1451명에 달했는데, 궁민이 가장 많았던 면은 964명의 반월면이고, 가장 적었던 면은 23명의 태장면이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낙오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원군 전체 걸식수는 159명으로, 반월면의 81명이 가장 많고, 수원면·정남면·동탄면이 2명씩이고, 매송·봉담·비봉·음덕·마도·서신·팔탄·장안·우정·양감·성호·태장·안용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군의 면별 빈자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원군 면별 빈자(세민 · 궁민 · 걸식) 상황

면 별	세 민	궁 민	걸 식	계
水 原 面	360	120	2	482
日 荊 面	516	704	8	1,228
儀 旺 面	650	150	20	820
半 月 面	363	964	81	1,408
梅 松 面	415	198		613
峰 潭 面	300	500		800
飛 鳳 面	185	741		926
陰 德 面	269	874		1,143
麻 道 面	338	457		795
松 山 面	565	641	37	1,243
西 新 面	450	516		966
八 灘 面	243	850		1,093
長 安 面	421	546		967
雨 汀 面	382	811		1,193
鄕 南 面	360	959	7	1,332
楊 甘 面	204	509		713
城 湖 面	450	752		1,202
東 灘 面	559	312	2	873
台 章 面	400	23	423	
安 龍 面	700	800		1,500
正 南 面	120	24	2	146
計	8,256	11,451	159	19,866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빈민이 가장 많았던 면은 안용면으로 1500명에 달하고, 빈민이 가장 적었던 면은 정남면의 146명이었다. 결국 1920년대의 수원군은 부자가 많기로는 수원면이고, 빈자가 많았던 면은 안용면이다.

高宗의 '교육조서'와 수원의 근대교육

'내가 생각하건대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다리사 이제 504년을 지내었다. 실로 우리 열조(列朝)의 교화와 덕택이 인심에 젖은 것은 또한 우리 신민(臣民)이 능히 그 충애(忠愛)를 다 한데 있다. 이러함으로써 내가 한량없는 대역안(大歷眼)을 계승하여 밤낮 조심하여 조종의 유훈(遺訓)을 받드노니 너희들 신민은 나의 마음을 본 받을 것이다. 오직 너희들 신민의 조상은 곧 우리 조종이 보육한 어진 신민이다. 나와 너희들 신민의 조종의 큰 터를 지켜 억만년 아름다운 명을 맞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국가는 공고(鞏固)하기가 어렵다. 우내(宇內)의 형세를 보건대 부하고 강하며 독립하여 웅시(雄視)하는 모든 나라는 다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였다. 지식의 개명은 교육의 선미(善美)로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데 근본이다. 이로함으로써 내가 군사(軍師)의 자리에 있어 교육의 책임을 스스로 메노라. 교육은 또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이름과 실용(實用)을 먼저 분별해야할 것이다. 독서나 습자로 열 사람의 찌꺼기나 줍고, 시세대국에 어두운 자(者)는 그 문장(文章)이 비록 고금을 능가할 지라도 한 쓸데 없는 서생(書生)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내가 교육강령(敎育綱領)을 보여 헛이름은 이에 버리고, 실용은 이에 쓰게 하노라. 가로되 덕양(德養)이나 오륜(五倫)의 행실을 닦아 속강(俗綱)을 문란하게 하지 말고 풍교(風敎)를 부식(扶植)하여 인세(人世)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라. 가로되 체양(體養)이니 동작을 떳떳이 하여 부지런과 힘쓰기를 주장하고 게으름과 편안을 탐하지 말고 괴롭고 어려운 것을 피하지 말며 너희 힘줄을 굳게 하고 너희 뼈를 튼튼히 하여 강장(康壯)하고 병없는 낙(樂)을 누려 받으라.

가로되 지양(知養)이니 물(物)을 깨고 지(知)를 끝까지 하여 이(理)를 궁구(窮究)하고 성(性)을 다하여 좋고 미운 것과 옳고 그른 것과 길고 짧은 데서 나와 남의 구역을 세우지 말고 자세히 연구하고 널리 통하여 한 몸의 사를 꾀하지 말고

공중의 익(益)을 헤아릴지어다. 가로되 이 세 가지는 교육의 강기(綱紀)일지나 내 내 정부를 명하여 널리 학교를 베풀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써 국가 중앙 대공을 창성하게 하려 하노니 너희들 신민의 충군(忠君)하고 애국하는 심성으로 네 덕(德)과 네 몸과 네 지(智)를 길러라.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다. 너희들 신민이 선미한 지경에 다다르지 못하면 내가 어찌 나의 다스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어찌 감히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너희들 신민이 또한 어찌 감히 교육의 도(道)에 마음을 다하여 협력하였다고 할 수 있으랴. 아비는 이것으로써 그 아들을 끌어내고, 형은 이것으로써 아우를 끌어내고, 형은 이것으로써 아우를 권면하고, 벗은 이것으로써 도웁는 길을 행하며 분발하여 벗지 말라. 국가의 분(憤)을 대적할 이가 오직 너희들 신민이요, 국가의 업신여김을 막을 이가 오직 너희들 신민이요. 국가의 정치와 제도를 닦고 지울 이가 또한 오직 너희들 신민이니 이것이 다 너희들 신민의 당연한 직분이다. 학식의 등급으로 공효(功效)의 높고 낮음을 아뢰어라. 이러한 일로 상(上)을 위하여 도는 비록 사소한 결단(缺端)이 있더라도 너희들 신민은 또한 오직 말하기를 너희들의 교육이 밝지 못한 탓이라고 하며 상하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쓰라. 너희들 신민의 마음이 또한 나의 마음이니 힘쓸지어다. 진실로 이와 같으면 나는 조종의 덕광(德光)을 사표(四表)에 날릴 것이요. 너희들 신민은 또한 오직 너희들 선조의 어진 자식과 착한 손자일 것이니 힘쓸 지어다.'

新學制에 의한 근대 학교의 설립

이 절절한 말씀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조선 후기의 26대 임금 고종 황제(高宗 皇帝)이다. 고종은 1895년(고종 32) 2월 신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교육입국'에 관한 조서(詔書)를 내렸는데 그 전문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이 땅에 근대교육의 물결이 밀려 들기 시작한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걸쳐 수원에서 펼쳐진 근대 교육기관의 등장과정과 개교 초기의 실상들을 제조명 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소개한 고종의 '교육대강령'에도 불구하고, 한말에 있어서의 근대교육은 지지부진하였다. 그 까닭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임금의 간곡한 뜻을 받아드릴만큼 성숙하지 못한

데다, 완고한 유교사상이 신문명의 수용을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갑오경장(1894년)은 '3일 천하'로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 정신은 살아 남아서 여러 분야에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그 중 하나가 근대 학교의 설립이었다. 갑오경장 이전인 1883년 서울에는 멜도르프와 하리팍스가 설립한 영어학교와 1886년에 귀족 학교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이 설립되고, 1885년엔 스크랜톤에 의해 배재학당(培材學堂), 언더우드에 의해 경신학교(儆新學校), 1886년엔 역시 스크랜턴 대부인에 의해 이화학당(梨花學堂)이 세워졌다. 한편 인천을 통해 입국한 또 다른 선교사 존스는 1892년 영화여학당(永化女學堂), 1893년엔 영화학교(永化學校)를 설립하게 되니, 이것들이 이 나라의 사학(私學)의 첫 걸음이자 발판이었던 것이다.

이 무렵(1895년)에 국정 개혁을 위한 '洪範14條'가 발표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혁이 시작되는데 이 때 수원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가 1896년 2월 10일 개교한 수원 경기관찰소학교(京畿觀察小學校)와 1898년 10월 1일 남양면 남양리에 개교한 남양공립소학교(南陽公立小學校)였다. 경기관찰소학교는 1906년 9월 갑종 수원공립보통학교(水原公立普通學校)로 개칭되었는데 이 학교가 오늘날의 신풍초등학교의 전신이며, 남양공립소학교는 1911년 11월 4일 남양공립보통학교(南陽公立普通學校)로 개칭되었는데 이 학교가 지금의 남양초등학교의 전신이다. 2003년 현재 신풍초등학교는 개교 107년, 남양초등학교는 105년 째가 된다. 관·공립학교에 관한 얘기는 뒤로 미루고, 한말에 설립된 사학의 개교 배경과 발자취를 알아보기로 한다.

기독교가 주도한 수원의 私學

한말 수원에 설립된 최초의 사학은 1902년(光武 6) 6월 3일 개교한 수원삼일소학당(水原三一小學堂)이고, 두 번째가 1903년 5월 7일 개교한 수원삼일학교(水原三一學校), 세 번째가 1909년 2월 2일 개교한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였다.

수원삼일소학당은 일찍이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이 나라 여성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스크랜턴 대부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설립 배경과 당시 상황은 여러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필자가 간여해 만든 《水原市史》와 최근(2000. 4. 6) 발간된 《수원종로교회사》에 보면 대체적인 내용은 같지만 사안에 따라 차이나는 점들이 있다. 하지만 수원종로교회야말로 수원지방의 기독교 선교의 본산인 데다 오늘날의 매향여자중학교와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삼일중학교와 삼일상업고등학교 및 삼일공업고등학교



1896년에 개교한 수원공립심상소학교의 교사 전경.(1924년 당시) 오늘날의 신풍초등학교로, 2003년 현재 개교 107년 째가 된다.

의 모체였던 만큼 《수원종료교회사》의 기록을 인용하되, 차이나는 부분에 관하여는 서로 보완하기로 한다. 우선 《水原市史》에 보면 교명이 삼일소학당으로 되어 있으나, 《수원종로교회사》는 '매일학교'로 기록하고 있다. 매일학교는 Day School의 번역으로, 구한말 당시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었던 서당(書堂)의 제도와 운영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개교 당시의 매일학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당 형태였다. 교사(校舍)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느 서당처럼 한옥이었다.

스크랜턴이 설립한 '매일학교'와 버딕의 고뇌

스크랜턴 대부인은 수원에 내려와 북감리교회에 매일학교를 차리고, 몇 명의 여학생을 모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 때가 1902년이다. 교회는 수원면 보시동(普施洞: 지금의 북수동) 116번지에 있었다.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여성교육에 손댓고, 여성교육이야말로 교회 발전과 여성의 개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1900년 장지내에, 1901년 무지내에 이미 매일학교를 설립한 터라, 수원에 매일학교를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수원순회구역은 그녀의 아들인 스크랜턴과 자주 선교 여행을 하였던 고장이라 친숙함이 있었다. 아무튼 수원여자매일학교는 수원순회구역에서의 여성교육의 시작이자 단초(端初)였던 셈이다. 수원남녀 매일학교와 관련해서 개교 초기부터 스크랜턴 대부인 못지 않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에쓴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버딕 선교사였다. 버딕의 한국명은 변조진(邊兆鎭)으로, 1903년 한국에 온 이후 초기 수원지역 선교에 힘썼다. 그는 1908년 수원지방 초대 감리사로 파송되어 4년간 다른 지방에서 일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원과 이천지방에서만 줄 곧 일하였고,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인천지방에서 일하다 바로 그해에 은퇴하였다. 버딕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다른 마당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개화의 버팀목이 된 수원의 교육열정

이번 마당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일 또는 그 과정을 뜻하는 교육계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기로 한다. '敎育'이란 용어는 孟子가 말한 "得天下英才而敎育之" 즉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란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외국의 예는 접어두고, 우리나라 그것도 수원 교육계의 변천사를 보면 이제 겨우 1백년이 넘어섰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시대에 있었던 구식교육기관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은 〈成均館〉, 〈四學〉, 〈鄕校〉, 〈書院〉 및 〈書堂〉 등이 있었는데 성균관은 오늘날의 대학이고, 사학과 향교 및 서원은 중학교, 서당은 초등학교에 해당하였다. 성균관과 사학은 한성(서울)에만 있었고, 향교·서원·서당은 지방에 산재해 있었다. 향교는 태조(太祖)가 즉위한 초기에, 서원은 중종(中宗) 37년(1512), 서당은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진작부터 있어 왔다. 향교는 지방의 양반 자제들의 교육기관으로 수원군에는 〈水原鄕校〉(수원면), 〈南陽鄕校〉(남양면)가 있었으나, 굳이 말한다면 이들 향교야말로 구시대의 수원 최초의 교육기관이었다.

한편 서원은 선현을 제사하고 받드는 곳으로, 그 지방의 청소년들을 모아 교육하는 사설기관인데 수원군에는 〈梅谷書院〉(肅宗 20년〈1694〉), 〈闕里祠〉(正祖 16년〈1792〉), 〈龍栢祠〉(顯宗 7년〈1666〉), 〈安谷祠〉(顯宗 15년〈1674〉) 등 4개 서원이 있었다. 매곡서원은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궐리사는 문선왕(文宣王)과 공자(孔子), 용백사는 제갈 량(諸葛 亮)과 문정공(文貞公), 안곡사는 문헌공(文憲公)과 홍 진(洪 暹) 등을 주사(主詞)로 모셨는데 이들 4개의 서원은 오늘날 중학교 격이었다. 서당은 글방으로 오늘날의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인데, 우리나라가 일제에 합방된지 7년 만인 1917년까지만 해도 경기도내에는 2463개의 서당이 있었으니,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서당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의 70대는 서당에 다닌 경험이 있을 것이고,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편 우라나라의 신식교육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에 의해 시작되는데 1886년에

설립된 배재학당이 그 효시이고, 경기도에서는 1893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인천영화여학당과 인천영화학교가 최초의 신교육기관이었다. 이미 앞의 마당에서 말하였듯이 1896년(高宗 33) 2월 10일 수원군 북부면 신풍리에 수원군공립소학교(水原郡公立小學校)를 개교하니, 이 학교가 오늘날의 신풍초등학교로써 수원군내 초등학교로서는 첫 번째 주자인 것이다. 이 학교의 최초의 교원은 판임관(判任官) 6등인 이필구(李弼求)로서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제1회 졸업생이었다. 그는 1896년 개교 때 부임하였다가 1898년 6월 10일 전남관찰부공립소학교로 전근하게 되는데 수원 최초의 공립소학교의 기틀을 잡았다는 점에서 기억할만한 인물이다.

水原郡公立小學校에 이어 줄줄이 개교

1898년 10월 1일에는 남양공립소학교가 설립되는데 이 학교는 옛 남양도호부 집사청(南陽都護府 執事廳)을 빌려 썼고, 교원은 박제현(朴齊賢) 한 사람 뿐이었다. 가르치는 과목은 千字文·小學·孝經 등으로 당시 재학생은 35명에 지나지 않았다. 1902년 6월 3일 삼일여학당이 개교되고, 1903년 5월 7일엔 삼일학당, 1906년 8월에는 수원심상고등소학교가 잇달아 개교되면서 본격적인 신식교육시대의 막을 올렸다. 또 같은 해 9월 10일에는 오산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는데 이 학교 설립자는 오산일본인회로, 1911년 오산학교조합립 오산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이듬 해인 1912년 다시 오산공립심상소학교로 바뀌었다. 1906년 10월 8일 공립수원보통학교와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개교되고, 1907년 1월 8일 농상공부 소관으로 세워진 농림학교(農林學校)가 한성부 수진동에서 수원군 일형면 서둔리로 이전하니,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권선구 서둔동 103)이다.

이로써 소학교와 중학교 밖에 없던 수원에 고등교육기관이 들어서게 되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08년 4월 15일 수원 상공인 권익단체인 수원상업회의소가 창립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수원상공회의소 전신이다. 수원상업회의소는 상권보호를 위한 이익단체에 자족하지 않고, 1909년 2월 2일 부설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를 설립하였다. 이 강습소는 당시 제도권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신시대의 문물과 지식을 익히고 배우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평가 받을만 했다.

1909년 4월 28일 수원사립삼일여학교가 정식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 학교가 재정난으로



송산공립보통학교의 수업광경. 흑판 오른 쪽에 '昭和四年 七月 九日(火) 晴'이라 쓰여져 있고, 수업 제목은 '기차'였다. 소화 4년은 1929년이니, 74년 전의 수업 모습이다.

폐교 위기에 처한 것을 수원 유지인 이하영(李夏永)·차유순(車裕舜)·나홍석(羅弘錫) 등이 스크렌톤 여사와 협력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바로 이 여학교가 오늘날의 매향중학교와 매향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913년 4월 1일 오산공립보통학교(수원군 성호면 오산리)가 설립되고, 1915년 8월 1일엔 동교에 2년제 오산공립농업실수학교가 설치되었다. 1916년 4월 27일 수원상업강습소가 화성학원(華城學園)으로 개칭되는데 이 학원은 보통과·전수과·고등과 등 3과가 있었다. 고등과는 주학, 초등과·전수과는 야학으로 운영하였다. 신식 교육기관이 잇따라 개설되는 시기인 1918년 1월 30일 벽천서당(碧千書堂·수원군 태장면 지리 148)이 설립되는데 이 서당은 유지 김정익(金正翊)이 세운 것으로 교사는 김사운(金士云), 학동은 8명, 1개월 월사금(月謝金)은 70전이었다.

1918년 농림학교가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되고, 1920년 11월 16일에는 송산공립보통학교(수원군 송산면 사강리)가 개교됐다. 1921년 10월 25일 팔탄공립보통학교가 설립인가를 받아 1922년 4월 4일 개교하고, 같은 해 11월 24일 인가 받은 태장공립보통학교(수원군 태장면 신리)가 1922년 4월 28일 교문을 열었다. 1922년 3월 31일 칙령 제151호에 따라 수원농림전문학교가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되고, 같은 해 11월 19일 수원상업강습소가 창립 13주년을 맞게 되는데 일개 사립강습소가 10년 넘게 유지한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1923년 4월 4일에는 삼미의숙(三美義塾·수원군 성호면 외삼미리)이 개교하게 되는데 이 의숙은 윤학영(尹學榮)이 설립한 것으로 개교 당시 85명의 학동이 있었고, 오늘날의 삼미초등학교 전신이다. 1923년 5월 21일 반월공립보통학교(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6월 1일엔 삼괴공립보통학교(수원군 장안면 어은리), 역시 같은 해 10월 21일 동탄공립보통학

교(수원군 동탄면 오산리)가 개교됐다. 1924년 4월에는 마도야학회(수원군 마도면)가 설립되는데 개교 당시의 학동수는 22명이었다. 또 같은 해 4월 18일엔 수원부인야학이 개학되었다.

뒤이어 1924년 9월 11일 안용공립보통학교(수원군 안용면 황계리), 1925년 4월 28일엔 사립광성학원(수원군 성호면 세교리)이 설립되었다. 같은 해 5월 6일 수원종로교회 안에 삼일부인야학이 개설되고, 6월에는 수원 최초의 사립 수원유치원(수원군 수원면 북수리)이 문을 열었다. 1926년 5월 20일 삼일여학교가 삼일여자보통학교로 승격되고, 동년 6월에 수업연한 6년의 수원여자매향학교(수원군 수원면 남수리)가 설립되었다. 또 같은 해 8월 23일 향남공립보통학교(수원군 향남면 백토리), 1927년 4월 1일엔 장안강습소(수원군 장안면 장안리),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신진갑(申眞甲)이 설립한 화산야학부, 9월 15일엔 조인행(趙仁行)이 설립한 정문야학회(수원군 정남면 계향리)가 수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에 안용공립심상고등소학교(수원군 안용면 송산리)가 개교하고, 10월 5일에는 수원진명학교, 10월 15일에는 양부성(梁富成)이 세운 동리청년야학부, 11월 10일에는 송인철(宋寅哲)이 세운 서둔리야학부가 글 공부를 시작하였다.

가난해도 배워야 한다며 세운 夜學

1928년 4월 5일 배성순(裵聖淳)이 설립하고 장규한(張圭翰)이 가르친 신갈서당(수원군 태장면 지리 539), 6월 28일에 오산공립보통학교 부설 오산부인야학교(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7월 1일엔 한운택(韓雲澤)이 세운 영통야학교(수원군 태장면 영통리), 10월 1일에는 백홍기(白弘基)가 세운 안용리야학회(수원군 안용면 안영리), 11월 14일엔 발안야학회가 설치되었다. 1929년 5월 13일에는 상남공립보통학교, 6월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설 실업보통학교가 개교했다. 같은 해 7월 수원면 교동에 聖公會가 세운 진명회 유치원이 문을 열었으며, 10월 6일에는 오산에 광성학원, 1930년 1월 21일에는 정남공립보통학교(수원군 정남면 본산리), 8월에는 미도리유치원(수원군 수원면 교동), 같은 해 12월엔 발안공립심상소학교(수원군 향남면 능리 629), 1931년 3월 1일 여산 송씨(宋氏) 문중이 세운 양명학원(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4월 23일에는 비봉공립보통학교(수원군 비봉면 삼화리)가 각각 개교됐다.

개교 행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32년 11월 1일 매송공립보통학교, 12월 1일 서신

공립보통학교(수원군 서신면 매화리), 1933년 1월 19일 양감공립보통학교(수원군 양감면 신왕리), 4월 1일 우호일(禹浩一)과 배국진(裵國珍)이 세운 정신학술강습소(수원군 정남면 상월리), 5월 15일엔 봉담공립보통학교(수원군 봉담면 상리)가 각각 개교한데 이어 1933년 11월 1일 매송공립보통학교(수원군 매송면 원평리), 1934년 4월엔 파장공립국민학교 부설 율전간이학교, 1935년 4월 25일 마도공립보통학교(수원군 마도면 석교리), 5월 1일 향남공립보통학교 부설 발안간이학교, 1936년 4월 20일 삼괴공립보통학교 부설 화수간이학교(수원군 우정면 화수리)가 개설되고, 6월 8일엔 고시(告示) 제349호에 따라 수원공립농업학교(수원군 수원면 영화리)가 설립인가를 받아 7월 1일 개교식을 가지니, 이 학교가 오늘날의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이다.

동년 11월 1일 우정공립보통학교(수원군 우정면 조암리)가 개교되고, 1938년 1월 27일 수원부인야학이 설치됐다. 10월 25일에는 수원세류공립심상학교가 신교사로 이전하였고, 1940년 1월 15일엔 김재구(金在龜)에 의해 송곡서당(수원군 태장면 능리 948)이 설립되고, 1940년 7월에는 오산공립청년훈련소, 남양공립청년훈련소, 팔탄공립청년훈련소가 창립되는데 이는 일제가 대동아전쟁에 대비해 급조한 교육기관이었다. 대동아전쟁이 발발하는 1941년 4월에 수원상업전수학교와 수원공립고등학교가 설립되고, 모든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으며 송라·발안·영화간이학교가 공립 국민학교로 승격되는 등 식민지 교육이 강화되었다.

지금까지 연대별로 각급 학교 인가·설립·개교·개칭·승격 등을 알아 보았다. 이 대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설 교육기관인 야학과 여성교육기관인 강습소 등이 생각 밖으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 시대가 비록 일제의 간섭과 통제 아래 신민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긴 하였으나, 뜻있는 유지들이 야학이나 서당을 세워 후진을 가르친 것은 애국심의 발로였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은 신교육의 실천 현장이었다고 할만 하다.

"교육은 독립의 무기" 삼일학교의 탄생

선교활동에 관한한 과격적이던 선교사 버딕도 매일학교에 관하여는 유연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버딕은 매일학교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의 조사(助師)는 가끔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공부한 과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곳에는 지식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계몽과 기독교인 교육은 이 백성들이 손에 가지고, 역경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큰 싸움에 실패한다면 그것에 대처할만한 기독교 학교 자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외국인 교사들 지도하에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남자학교와 여자학교가 모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이름에 걸맞게 되기를 바랍니다.(중략) 그리고나서 교리를 가르치며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학교들을 통해 자기 민족을 일으키려는 헌신의 정신을 불러 일으켜 주시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나의 꿈입니다."

버딕은 또 다른 기회에 조선인들의 교육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었다.

"학문과 교육에 대한 긴급함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저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은 현재의 위기상태로는 굉장한 것입니다. 3월에 있었던 여행 마지막 주일 날 나는 남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어느날 저녁 7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이 나의 방 앞 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 단지 3명 만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서당이 있었지만 훈장이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해 다른 곳

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어떤 형태로든 학교가 없습니다. 그 주일날 25명의 어른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3분의 2가 문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선생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나는 수원 학교의 고등반에 적합한 선생을 찾으려고 도시건 시골이건 찾아다녀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개 미국 선교사의 말이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과 환경, 그리고 교육만이 민족적 역경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지적은 충격적이다 못해 자괴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

서당과 다름없는 '매일학교'

매일학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초등과정부터 가르쳤다. 바꾸어 말하면 서당과 다름없는 형태였다. 땅바닥에 글씨를 써서 가르쳤으니 그 정도를 짐작할만 했고, 학생들의 학력 차이도 천차만별이었다. 나이가 들어 장가는 갔어도 낫 놓고 'ㄱ'자를 모르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나이는 어려도 일찌감치 서당에 다닌 덕에 한문을 썩 잘 아는 학생도 꽤 있었다. 문제는 배운 것이 한문 뿐이어서 서양 학문인 수학이나 지리 등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머리가 명석해서 초등과정은 쉽게 마칠 수 있었으나 매일학교의 고민은 따로 있었다. 버딕은 1906년 매일학교에 중등과정을 설치했으나 교사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버딕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스크랜턴이 서울 상동교회의 매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채성석(蔡聖錫)을 수원매일학교로 보내 줌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채성석의 부임은 천군만마(千軍萬馬)의 도움이 되었다. 교사가 없던 시절 8명에 불과했던 중등과정 학생이 100명으로 늘어나고, 평균 출석률도 100%에 달하였다. 당시의 매일학교는 항일정신을 배양하는 '애국혼'의 산실이었다. 1907년 일본이 조선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자 격분한 군인들이 지방의 매일학교 군사훈련 교관으로 일하거나 의병에 합류하기도 하였는데, 이 무렵 구 조선군 부위(副尉) 송세호(宋世鎬)가 수원교회 부속 남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담당하였다. 체조시간에는 광목에 검은 물을 들인 학도복에 검은 학생모를 쓰게 하고, 고무신을 신킨채 군사훈련을 시켰다. 일본 관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수원면민과 유지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1902년 (또는 1903년) 5월에 설립돼 올해로써 개교 103년 째를 맞이한 오늘날의 삼일상업고등학교가 세워졌던 '학당집' 자리.(현 북수동 116번지)

그래서 남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보조교사에게 10원씩의 월급을 지급할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였다. 여학교도 남학교에 뒤질세라 열심이었다. 1년 전에 불과 20명이던 여학생이 60명으로 불어나고, 1907년엔 정부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 1908년에는 남녀 매일학교가 한층 발전하였다. 보시동(普施洞:지금의 북수동)에서 종로로 이사오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나, 임시 변통으로 지은 집이라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학생이 많아지면서 주간에 공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야간 학급까지 신설하게 되는데 1908년 당시의 주야간 학생은 모두 210명에 달하였다. 이같은 변화와 발전을 보면서, 수원의 고위직 관리 한 사람은 "우리가 수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들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라고 말했다고, G. M Burdick(버딕)은 그의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훗날(1917년) 수원종로교는 주일학교 안에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원 최초의 유치원으로 유년부 250명, 유치원생 70명 등 모두 320명에 달하였다니, 이 유치원에 대한 수원면민의 호응과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만 하다.

매일학교가 발전하면서 중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해결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수원사립삼일학교의 설립이었다. 이 때 이하영(李夏榮), 임면수(林勉洙), 나중석(羅重錫), 차유순(車裕舜), 최익환(崔翼煥), 홍건표(洪建杓), 이성의(李聖儀), 김제구(金濟九) 등 젊은 유지들이 수원교회를 중심으로 설립촉성회를 구성하게 되고, 마침내 수원 최초의 사학인 삼일학교를 설립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학교의 설립 연도와 설립 주체에 대하여는 이설(異說)이 있다. 1983년 학교법인 삼일학원이 펴낸 《삼일학교 80년사》는 김세환(金世煥)의 말을 인용해 1903년 수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유지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2000년에 발간된 《수원종로교회사》는 〈연회록〉을 인용해 1902년 선교사 베크의 도움으로 남자매일학교를 설립했던 만큼 매일학교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했다는 주장이고, 김세환(金世煥)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했다는 것이다.

수원종로교회 부속 삼일학교 설립

학교 설립을 마치자 교명을 삼일학교로 결정하고 교장에 이하영, 교감에 임면수를 임명하게 되는데 교명은 이하영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교의를 반영해 지었다. 개교 초기의 교육 목표는 자주독립사상의 배양에 두고, "어서 어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너무 모른다. 어서 배워서 알아야 한다. 국가 독립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유지들이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삼일학교는 개교 3년만에 재정난에 봉착했다. 이 때(1906년 5월)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나중석이 수원 부자 강호석(姜鎬錫)을 설득해 8만 량의 기부금을 받아냄으로써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나중석 자신은 수원면 매향동 소재의 땅 900평을 삼일학교 부지로 내놓았다.

하지만 개교 이후 4년 동안의 학사운영은 매우 부실하였다. 학년과 학반도 없이 서당식 교육을 하다 1906년부터 학제를 마련하고, 성경·국민·영어·미술·동물·지리·수신·작문·체조 등 신학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유지들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자, 1908년 9월 1일 경영권 자체를 북감리교회(수원교회) 선교부에 넘기고 말았다. 선교부가 경영권을 맡은지 1년 뒤인 1909년 4월 23일 수원사립삼일학교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게 되고,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기쁨을 안았다. 이후 삼일학교는 일제의 간섭과 박해를 받는 형극의 길을 걷게 된다. 참고로 당시의 역대 교장과 교사, 담당 과목은 다음과 같았다.

◇초대 교장 李夏榮 ◇2대 金漢睦(1906~1907) ◇3대 李夏榮(1907~1908) ◇4대 李範昌(1908~1909) ◇5대 李枝盛(1909~1910) ◇성경·한문 李夏榮 ◇영어·산술 蔡聖錫 ◇한문·지리·국문 金鴻植 ◇한문·지리·국문 林勉洙 ◇체조·훈련 姜建植 ◇수신·역사·산술 姜奉鏞 ◇한문·수신·역사 金用鎬 ◇영어·산술 金 銓 ◇역사·작문·한문 朴相勳.

상공학교 후신인 '수원농림학교' 개교

한일합방(韓日合邦)이 체결되기 5년전, 그러니까 1905년을 전후해서 민간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이 전개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하였던 사학(私學)의 전승기였다. 이 때의 교육 중심은 어디까지나 민족정신의 고취와 체력 단련이었다. 순수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교육 목표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었다. 당시 각급 사학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다 훗날 학부(지금의 교육부)에 의해 발매 금지된 현채(玄采)《유년독본》에 게제된 '아국아신(我國我身)'이란 제목의 글은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 쟁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此國에서 태어났으니 此國은 곧 我國이요, 我身이라 함은 他人이 있는 연고이며 我의 自由하는 權은 사람 마다 上天이 주신바라, 他人이 감히 빼앗지 못할배요, 我國도 또한 그러한지라, 他國의 간섭을 물리쳐 自主權을 잃지 아니하고 獨立하는 실상 힘을 지킨 후에야 我國이라 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我國을 保全치 못하고, 我國을 保全치 못하면 我身을 保全하지 못하나이다.'

민족정신 고취는 교과서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다. 그 유명했던 '권학가'(勸學歌) 가사도 의미심장하였다.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벽상(壁上)의 괘종(卦鐘)을 돌어보시오. 한 소리 두 소리 가고 못오니, 인생은 백년가기 주마등(走馬燈) 같다. 東國春과의 방초녹음도 西風秋天에 하염 없고나, 제군 청춘 소년 자랑마시오, 이언에 百年白髮 가석하도다. 귀함도 귀하다 가는 일분 일각이 천금이로다.'

이렇듯 당시의 민족교육은 학문과 자기 연마를 통해서만 자아성취는 물론 패망의 벼랑

으로 굴러 떨어지는 조국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이야기는 수원의 사학으로 돌아 가고자 한다. 1903년 5월 7일 설립된 수원사립삼일학교에 앞서 1902년 6월 3일 개교한 것이 수원사립삼일여학교였다. 개교 당시의 학생수는 3명. 교장은 후일 삼일학교 초대 교장을 지낸 李夏榮이었지만 남자학교 보다 여자 학교가 먼저 세워졌다는 것은 수원이 남존여비의 보수·봉건적인 사고에서 과감히 탈출한 개화도시 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었다. 즉 이 학교 설립자가 수원인이 아닌 외국 여성 선교사 스크랜톤이었던 것이다. 스크랜톤은 1899년 조선 미감리교회 초대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1900년 4월 10일 수원에 북감리교회를 세우고, 1901년 9월 이 교회에 이명숙(李明淑)을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전도사 이명숙은 교회 안에 삼일소학당을 마련하고, 이하영을 한문 선생 겸 교장으로 초빙하였던 것이다.

삼일여학교와 삼일남학교는 같은 뿌리 남매

10개월 뒤 삼일소학당을 삼일사립여학교로 개편하게 되는데 학교는 보시동(普施洞:지금의 북수동) 소재 북감리교회 안에 있었다. 앞의 마당에서 소개하였던 수원사립삼일학교와는 같은 그루터기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동근남매(同根男妹)였던 것이다. 개교 초기의 학교 시설은 보잘 것 없었다. 책 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목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선생도 부족하였다. 책 걸상이 없다 보니 수업은 온돌방에서 무릎을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고, 학습용 흑판도 이듬 해(1903)에야 겨우 걸 수 있었다. 종이와 연필이 없다보니 석판에 석필로 쓴 글씨를 지워가며 공부했다.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나서 연필과 공책·석판·붓·종이를 쓰기 시작하였지만 이 모든 학용품은 학교가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교회가 설립한 학교이다 보니까 교육 목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였고, 1909년에 만든 교가 가사는 아래와 같았다.

> '산도 높고 물도 고운 반도 강산에 / 우리 학교 우리 위치 널리 빛나니 / 활발한 기상으로 앞서 나가세 / 삼일여학교 만세 만세 만세 삼일여학교 / 만세 만세 삼일여학교 / 백절불굴하여 용맹있게 나가세 / 삼일여학교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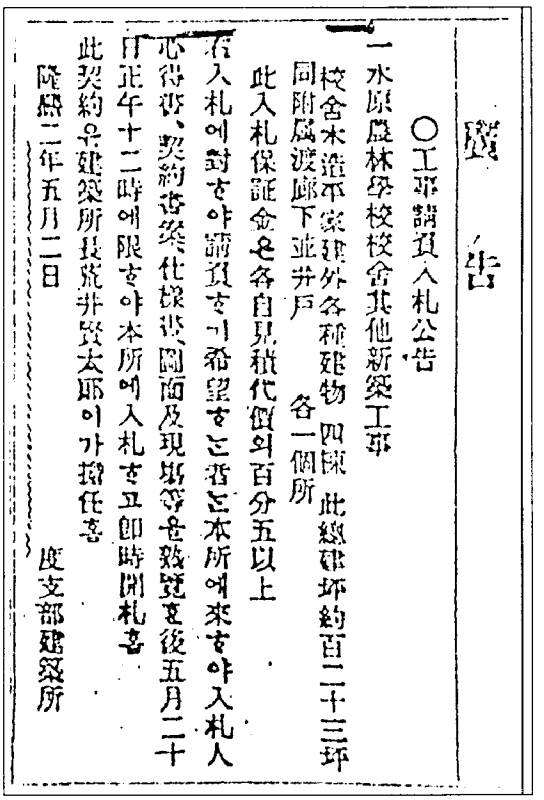
가사가 매우 공격적인데다 투쟁과 승리의 의미가 담긴 '만세'를 강조하고 있어서 여학

교 교가라기 보다는 남학교 교가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구국에는 여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당시의 교과목은 비교적 단순해서, 國文·漢文·英語·算術·體操·聖經·音樂·裁縫 등이 전부였다. 여자교육기관으로 기틀을 잡은 이 학교는 얼마 후 수원 유지 이하영(李夏榮)·차유순(車裕舜)·최익환(崔翼煥)·나중석(羅重錫), 임면수(林勉洙) 등과 학교 설립자 스크랜톤이 회동하여 교명을 수원삼일여학교로 바꾸고, 정식 학교로 개편하기 위해 학교설립 허가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동년 4월 28일자로 학부대신 이재곤(李載崑)의 인가를 받았다. 1910년 3월 23일 신학제 개편 이후 최초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졸업생은 모두 4명이었다. 이들 졸업생 가운데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면서 신여성운동과 신문학의 선구자로 일세를 풍미한 정월(晶月) 나혜석(羅惠錫)이 들어 있었다. 참고로 광복 이전까지의 교장을 소개하면 초대가 이하영(1902~1906), 2대가 밀러(1907~1945)였다.

실업 전문학교인 '수원농림학교' 탄생

이 무렵에 개교한 것이 수원농림학교였다. 현재 이 학교의 개교 때 상황에 대하여는 다소 다른 내용의 기록 때문에 학교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이 기회에 개교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고자 한다. 비록 국운은 기울기 시작하였지만 한말의 고종황제는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치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유교사상적 공리공론(空理空論)의 서당식 교육이 아니라, 국가 부강에 직결되는 실용적 과학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운 것이 1899년에 개교한 상공학교(商工學校)였다.

상공학교는 지금의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 뒤쪽에 있었는데 상과와 공과뿐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1차 산업인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하여 1904년 농과를 증설해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로 개편한 것이다. 농과는 처음 훈동(勳洞)에 있는 소옥(小屋)을 교사로 사용하다 상·공과와 합쳐 수진동(壽進洞:지금의 수송동) 제용감(濟用監:지금의 숙명여자중고등학교 안)으로 옮겼다. 이 때의 수업 연한은 예과 1년, 본과 3년으로 4년제였고, 개교 당시 100명의 입학 지원자가 있었지만 80명만 입학시켰다. 교직원은 학교장 1명, 교관 10명, 서기 2명을 두었고 외국인을 고용해 교관으로 썼다. 개교 당시의 농과 교관은 한국인 이장로(李章魯·일본 구마모토학교 졸업)와 일본인 아카베키지로오(赤壁次朗)였다.



廣告

○工事請負入札公告

一 水原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工事

校舍木造平家建外各種建物 四棟 此總建坪約百二十三坪
同附屬渡廊下並井戸 各一個所

此入札保証金ハ各自見積代價ノ百分五以上

右入札ニ對シ仕請負ヲ希望スル者ハ本所ニ來リ仕入札人心得書、契約書案、仕樣書、圖面及現場等ヲ熟覽ノ後五月二十日正午十二時ニ限リ仕本所ニ入札シ且即時開札ス

此契約ヲ締結スル所長荒井賢太郎ノ仕擔任ス

隆熙二年五月二日

度支部建築所

1908년 5월 2일 官報 제4066호에 게재된 수원농림학교 교사 신축공사 입찰공고

교육 개혁에 자신감을 갖게된 정부는 1906년 8월 실업교육의 강화 차원에서 칙령 제39호로 농상공학교에서 농과를 독립시켜 농림학교로 개칭하고, 학부(學部 : 지금의 교육부)에 속해 있던 것을 농상공부(農商工部)로 이관시키면서 농무국장 서병숙(徐丙肅)으로 하여금 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일 농림학교로 독립시키고, 9월 10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구 농상공학교의 농과 학생은 1904년 12월 입학생 25명과 한성학당(漢城學堂 : 일본어 교육을 위한 보통학교)의 농과 속성과 학생 8명(1905년 12월 입학생)을 합친 33명이었다. 이들은 수업연한 2년의 본과 1학년에 편입돼 9월 10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바로 이날이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전 서울농대)의 '개교 기념일'인 것이다.

농업학교로 독립돼 개교는 하였지만 단독 교사(校舍)가 없었던 이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 단독 교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같은 사정을 알게된 정부는 단독 교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동경제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인 도요나가마코사토(豊永眞里) 등을 초빙하여 농림학교 설립의 기초 설계를 위임하였다. 학교 부지는 서울이 아닌 수원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의 결정이, 수원이 이 나라 농업연구의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정부는 수원군 일형면(日荊面)의 민유지 12정 5반보를 750원에 매입하고, 교사·기숙사·관사 등 500평의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용재는 일본의 스기(杉) 나무를 가져다 썼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08년 5월 2일자 관보(官報) 제4066호에 탁지부건축사무소(度支部建築事務所) 명의로 '水原農林學校 校舍其他 新築工事' 입찰공고를 낸 바 있었다.

공고 내용은 '각종 건물 4동, 총건평 약 123평, 동 부속 도랑(渡廊:건널 마루) 및 우물 1개' 등으로 '입찰 보증금은 입찰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며 입찰 날짜는 5월 20일 낮 12시, 본소 사무실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찰은 탁지부 건축사무소장 아라이 켄타로오(荒井賢太郎)가 담당한다라고 되어있다.

항일 투쟁에 앞장선 '水原高農'

수원으로 이사한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는 기숙사를 짓고, 모든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했다. 후일 이 학교는 '수원고등농림학교'로 바뀐 것 말고도, 여러 차례의 교명 변동이 있었다. 이번 마당의 주제는 고농 때 일어난 것이므로 '수원고농'으로 한다. 학생들은 관비(官費)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돈 안들이고, 학문과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개교 초기에는 조선인 학생들만 취학하였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는 매우 평화스러웠다. 동시에 기숙사 생활도 평온하였다. 학교 당국은 조선인 학생들이 쓰는 기숙사를 동료(東寮)라고 불렀다. 그런데 1917년부터 일본인 학생들을 입학시키면서 1918년에 일본학생 기숙사를 새로 짓고, 서료(西寮)라고 명명하였다.

주간에는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저녁엔 동료와 서료로 헤어지는 차별이 생겨났다. 결국 이것이 훗날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마침내는 민족 감정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만 것이다. 바로 이 시기가, 1919년에 야기된 기미년(己未年) 만세사건의 전야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조선총독부 스스로가 조·일 학생 간의 운명적인 격돌을 촉발하는 뇌관을 건드린 셈이다. 기숙사의 차별은 '나 따로, 너 따로'의 한계를 긋게되고, '동료'와 '서료'라는 형식의 구별이 마침내는 '조선인' 대 '일본인'이라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조선 학생들은 '동료'를 의기투합의 본거지로 인식하고, 마침내 '동료정신'(東寮精神)이란 정신체계를 만들어 냈다. 우선 동료 합숙생들은 조기회를 조직하였다. 조기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둔 들녘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건강 체조를 실시하였고, YMCA운동과 수원농민사(水原農民社)지부 설치, 신간회(新幹會) 등 민족독립운동 단체와 제휴하거나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수농(水農)학생 중심의 농촌계몽운동이 전개되고, 야학을 설치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청소년들의 문맹퇴치에 힘썼다. 이런 가운데서 은밀한 독립정신이 전달되고, 조선 민족의 주적(主敵)이 일본과 일본인임을 인식시켰으며 실제로 이 때의 동료정신이 수원의 3·1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단순한 차별에서 비롯된 '동료'는 '동료정신'으로 바뀌고, 마침내는 동료정신을 노래하는 '동료가'(東寮歌)가 태어났다.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 노랫말을 짓고, 당시 독일 애국가의 곡을 부친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세계문화의 첫 빛을 굉이 만든 날 생겼고, 단군의 혜친 흙에서 문명의 조선 나왔네. 시원한 바람 팔달산 맑은 물 넘치는 서호수(西湖水), 수고한 후릇 밤 씻을 때 나날이 새론 희망 큰 만족.'

東寮精神에 바탕 둔 '동료 밀약 5조'

동료 진영의 움직임에 학교 당국이 놀란 것은 당연하다. 동료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들은 동료 남쪽에 일본의 전통 주거 형식인 다다미로 꾸민 기숙사를 새로 만들고, '남료'(南寮)라 이름 지은 뒤 조선 학생들을 이곳으로 옮겼다. 그렇다고 해서 '동료정신'이 사라질리 없었다. 조선 학생들은 남료에 거처하면서도 동료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동료 밀약(密約) 5조'를 만들었다.

첫째 조기회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 둘째 강의시간 이외에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 것, 셋째 축구부 이외의 운동 써클에는 참가하지 말 것, 넷째 반드시 경어를 쓰고 규정된 석차(席次)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 다섯째 게다(일본의 나막신)와 조리(일본의 짚신)을 신지 말 것.

이 밀약 5조는 외견상 평범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나라의 독립과 일제 식민정책에 항거하는 정신적 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곪으면 터진다'라고 하였는데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우구지사 33인에 의한 독립선언문 낭독사건이 일어나고, 수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기에 이른다. 이 운동이야말로 조선 독립운동의 기폭제이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세계 만방에 알린 큰 획인 것이다. 그로부터 9년 뒤인 1928년 제1차 고농사건(高農事件)이 터졌다. 일제에 정면으로 맞선 고농생 중심의 이 사건은 3차에 걸쳐 전개됐는데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차 高農事件 조선인 고농 학생 11명이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라는 지하 비밀 결사를 만든 것이 사건의 단초다. 동참한 학생들은 1926년부터 1928년 8월 일경에 발각될

때까지 여러 차례의 비밀 모임을 가지고, 조직의 정관(定款)과 취지문을 만든 뒤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거사 직전에 비밀이 탈로난 것이다. 이들은 국유림을 개간하여 농장을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농민운동을 전개하다 일본이 외국과 전쟁을 벌이는 기회가 오면 농민 봉기를 통해 국권을 되찾는다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었다. 그들은 농민개척사업단체로 위장하기 위해 흥농사(興農社)로 고치는 등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법정에 서고 말았다. 1928년 9월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에서 각 관·사립대학생들의 비밀결사사건이 빈번한 이래 사상 학생에 대한 취체가 극히 엄중한 이즈음 조선의 전문학부인 수원고등농림학교 안에서 '조선의 대중은 농민이 8할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민과 더불어 조선 운동을 일으켜야겠다'고 하여 수원 서호 옆의 여기산(고농 뒷산)에서 농과 3년생 십여 명이 여름방학 동안에 모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한편으로는 부근 마을에 농촌 야학을 세워 민족주의를 전파하다 발각되어 수원에서 포위 체포돼 그 동안 취조를 받다가 작 15일에 체포된 열한명이 모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된 바 조선의 전문학생 비밀결사사건으로는 이것이 처음인 만큼 일반의 주목이 자못 크다.'

주모자 검거되자, 재학생들은 '동맹퇴학'

1928년 9월 1일자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사록(學事錄)은 '昭和 3年 不詳事件'이란 제하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인 학생 가운데 비밀리에 불온한 행동을 한 자가 있어 당일에 5인, 다음날 낮에 6인을 구속하였다. 동월 12일 조선인 생도의 대부분이 동맹퇴학계(同盟退學届)를 제출하고 퇴학하였으나 수일 내에 탄원서를 내고 복교을 원했으며 전부 등교한 것은 약 20일 후였다.'

동료 학생 11명이 검거되자 나머지 재학생들이 동맹퇴학을 꾀하였으나 끝내 관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단결심만은 보여 주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11명은 주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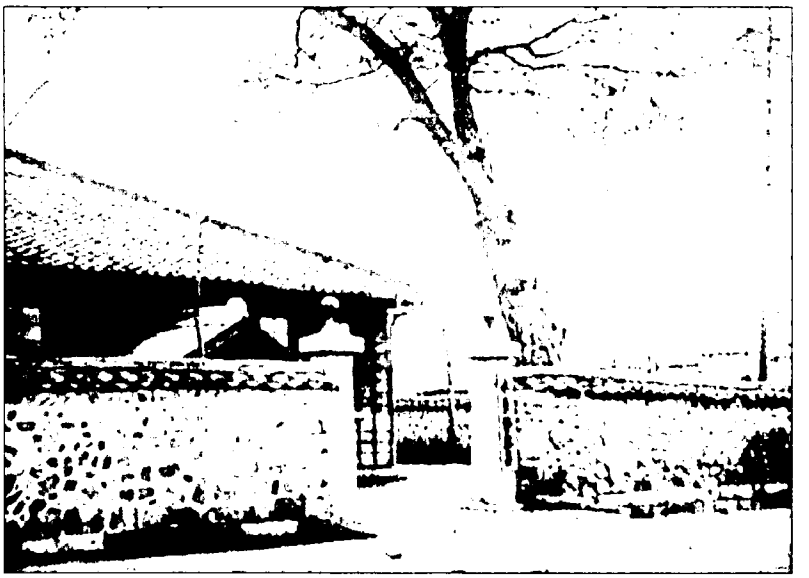
자 김찬도(金燦道), 권영선(權永善) 외에 김봉일(金奉日), 고재천(高在千), 진동백(陳東白), 백세기(白世基), 남영희(南榮熙), 우종징(禹鍾徵), 김익수(金益洙), 황봉선(黃鳳善), 김민찬(金玟贊) 등인데 전원 옥고를 치렀다.

제2차 高農事件 제1차 고농사건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항일 민족투쟁은 잠들지 않았다. 재학생 김종수(金鍾壽)가 중심이 되어 상록수(常綠樹) 운동과 독서회(讀書會)를 운영하게 되는데 재학 중에는 전국 각지의 모교 졸업생과 손을 잡고, 농민 중심의 문맹퇴치와 함께 항일의식 고취에 힘썼다. 교내에서는 '농촌지도를 위한 여명의 아들'이라는 명제 아래 동료 기숙사 취사부를 자치제로 운영하면서 조선학생만으로 축구부를 만들어 정신·체력·단결의 삼위일체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동지를 규합하는 등 전국적인 지하활동을 벌이다 1935년 7월 고농 졸업생 이용필(李容泌)이 김천고보(金泉高普) 맹휴사건을 배후에서 조정하던 중 체포되는 바람에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이용필을 비롯한 사회주의운동 학생(李容泌, 金鍾壽, 金光泰, 崔弘基, 金在琨, 金俊綱, 劉載煥, 李致樂, 崔泰煥, 孫昌奎, 朴基楫) 등은 치안법·출판법·불경죄 위반 등으로 대구형무소에 투옥되고, 민족주의운동 학생으로 분류된 이필규(李弼圭), 신근철(申瑾澈), 유달영(柳達永) 등은 옥고를 면하였다.

애국운동 자금으로 쓰여진 '자치비'

제3차 高農事件 제1·2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농의 항일투쟁은 계속되었다. 1941년 임병현(林炳賢)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졸업생들이 선배들의 항일정신을 이어 받아 민족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3차 사건이 1·2차 사건과 다른 점은 졸업생 중심이었다는 것일 뿐 운동과 투쟁방향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3차도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임병현을 비롯한 많은 졸업생들이 체포 투옥되었다. 이렇듯 고농의 항일운동은 질경이처럼 질기고 황소처럼 저력이 있었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면면히 이어져 온 항일운동을 뒷받침한 자금을 졸업생들이 대어주었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 졸업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 동료기숙사(東寮寄宿舍) 자치비로, 일금 10원씩을 기부했는데 바로 이 기부금이 운동 자금으로 쓰여졌던 것이다. 이토록 놀라운 항일·독립운동을 눈으로 확인한 학교 당국과 조선총독부는 우선 차별을 없


1920년대에 악명 높았던 수원경찰서. 이 건물 안에서 수많은 항일 투사들이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었다.

애기로 하고, 2차 사건 이후인 1936년부터 '동료 식당'을 일본 학생 전용 식당이던 '서료 식당'으로 합치고, 급식 메뉴를 한식과 일식으로 번갈아 바꾸는 교대제를 도입하였다. 뿐 아니라 1940년에는 아예 '동료'를 폐지하고, 일본 학생과 강제 합방까지 시켰다. 그러나 이런 억지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까닭은 조선 학생이 일본 학생보다 수적으로 적어 한 방에 조선인 학생 1명에 일본인 학생 3~4명이 합숙하게 되자 이에 반감을 가진 조선 학생들이 기숙사를 빠져나와 민가에서 하숙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포기할 학교 당국도 아니었다.

1943년부터는 수원읍내 거주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지방학생들은 반드시 기숙사에 입사(入舍)하도록 하는 사주제도(舍住制度)를 실시하는 등 발악적 조처를 취하였다. 하지만 동료정신만은 꺾지 못하였다. 그런데 1·2·3차 고농사건 때 헌신적으로 변론을 맡아 준 조선인 변호사가 있었다. 그 장본인은 광복 후 법무부장관을 지낸 이 인(李 仁)과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金炳魯)와 대법관을 지낸 신태악(辛泰嶽), 김용무(金用茂) 등이었다. 이 인은 당시 나이 34세였으나, 변론 과정에서 지나치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이유로 6개 월 동안 변호사 정직처분을 받았다.

단발령소동, 교실에 가두고 강제 삭발

상공학교(1899년)에서 농상공학교(1904년)로, 다시 농림학교(1906년)로 개편 돼 수원면 서둔동으로 이전한 것이 1907년 1월이었다는 것은 앞의 마당에서 밝힌 바 있었다. 당시의 국가 형태는 엄연한 대한제국이었지만 이미 조선통감부가 실질적인 통치를 하던 때라 농림학교의 수원 이전도 통감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학제는 예과, 본과 외에 1년 과정의 '연구과'를 두어 농학이나 임학을 가르쳤고, 당장에 필요한 농업 관련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수시로 1년 과정의 '속성과'를 설치 운영하였다. 농림학교가 수원으로 이사 온 지 3개월 째가 되는 4월에 제1회 속성과 학생 12명이 수료해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데 수료생들은 대부분 수묘양성소(樹苗養成所)에 취업하였다. 1908년 '수의속성과'를 설치하고, 입학생에게는 역시 관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대신 졸업 후 관비 수령 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취업해야만 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수령한 관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본과와 연구과의 정원은 40명씩이고, 수업 연한은 본과 2년, 연구과 1년이었다. 입학자격은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로서 15~25세 이하의 건강하고 품행이 방정하면서 가사와 무관한 자였다. 학교 규율은 엄격한 편으로 '근신', '정학', '방교' 등으로 구분했는데 방교(放校)란 곧 퇴학을 말한다. 초대 교장이었던 농상공부 농무국장 서병숙(徐丙肅 · 1906~1907)에 이어 2대가 정홍진(鄭弘鎭 · 1907~1908), 3대가 일본인 혼다고오스케(本田幸介 · 1908~1919)였는데 이 때부터 근업모범장의 장장이 교장을 겸임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 농림학교'가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교명이 바뀌고, 소속도 근업모범장으로 이속되었다. 어찌되었거나 당시의 농림학교는 이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엘리트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웃지 못할 얘기거리도 없지 않았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학생 가운데는 기혼자가 많았다. 기혼 학생들은 하나 같이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정부는 근대화를 내세워 사회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방침 가운데 하나가 단발

령(斷髮令)이었다. 본과(1회) 재학생 33명 가운데 21명이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학교측의 엄격한 단발 지시에 불응하였다.

관비에 이끌려 15대 1의 경쟁

앞에서 말한대로 농림학교는 관비 학교였으므로, 숙식비 말고도 교복까지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학교측은 삭발하지 않는 학생에겐 교복 지급을 중단한다고 위협하였으나 실효가 없었다. 뿐 아니라 담임 교사가 타일러도 막무가내였다. 자존심이 상한 학교는 1908년 어느날 갑자기 학생들을 교실로 불러 들인 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교관들이 학생들의 상투를 강제로 잘라 버렸다. 상투를 잘린 학생들은 통곡하기도 하고, 잘려나간 상투를 붙들고 망연자실하는 학생도 있었다.

강의시간에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교관이 하는 말을 학생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문에 비교적 정통하였기 때문에 문학이나 철학 등 인문과학의 수업은 그런대로 소화할 수 있었지만 물리·화학·수학 등 서양 학문은 알아 듣지를 못해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입학시험 때 대리시험이 생기고, 부정입학도 비일비재 하였다. 농림학교인 까닭에 현장에서의 농업실습이 불가피하였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해 갈등을 빚는 학생도 있었다. 그런데도 농림학교가 학생 세계에서 인기가 높았던 것은 우선 일체의 학비가 관비라는 점과 두 번째는 신식 교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면 너나없이 우러러 보는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멋이 좋았으며,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신식 스포츠(축구·정구·탁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학교를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선망의 적'이 되었던 관비 지급제도도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 간섭이 심해지더니, 1916년 후반엔 관비제도가 아주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관비제도가 남아 있었던 1916년 초 입학시험 때는 모집정원 40명에 602명이나 몰려들어 무려 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해의 입학생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위 민주정치를 실험대에 올려 놓았던 민주당 정부 때의 국무총리 장 면(張 勉)이 입학했다. 장 면은 훗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회가 발행하는 《常綠誌》(상록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농림학교에 지원하고 시험 날 수원에 왔더니, 불과 40명을 뽑는데 수험생이 수백명에 달해 굉장하였다. 우리 수험생들은 고등촌 작은 마을에서 자게 되었는데 수백명이 한꺼번에 모여들었으니 집집마다 방이 동이 나고, 한 방에 7~8명씩 끼어 자게 되었는데 20살이 넘은 장정들인데다 담배까지 피우는 바람에 방안은 연기가 자욱해 숨쉬기 어려웠다. 날씨는 쌀쌀한데 불도 안 땐 방에서 고성잡담이 밤새 이어져 한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말았다.(중략) 그 때 전교생에게 관비 5원씩 매월 지급하였는데 당시의 물가는 상상도 못하게 싸서, 기숙비 3원 50전을 제하고 남은 돈 1원 50전만 가지고서도 용돈을 아껴쓰면 견딜만 하였다.(중략) 요즘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는 모양이지만 당시의 우리들에겐 여름방학이란 특별히 없었고, 여름이 되면 농장에서 실습을 하느라 힘이 더 들었다. 그 뒤에 관비제도가 없어지면서 입학 지원자가 금감하였다. 1918년에는 143명 가운데 22명이 합격했는데 그 중에는 일본인 9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張勉, 趙伯顯 등 많은 걸물 배출

1918년 조선총독부는 칙령 제48호로 농림학교를 총독부 산하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같은 해 4월 15일 오전 10시 본교에서 개교식을 가졌다. 개교식에는 총독 하세가와(長谷川)가 참석해 고사(告辭)를 하였고, 조선농회 회두(會頭)이면서 친일파의 수괴인 이완용(李完用)이 축사를 하였다. 전문학교로 승격되자 권업모범장 소관에서 학무국 산하로 이관되고, 교장은 모범장장이 계속 겸직하였다. 드디어 1920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훗날 서울대 농대 초대 학장을 지낸 조백현(趙伯顯)과 미군정청 농림부장을 역임한 이훈구(李勳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졸업하자 곧 바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일본 유학을 통해 농사 전문가로 대성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수원농림전문학교는 3년제였고, 정원은 각 학년 40명씩으로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했다.

당시의 교직원은 조수, 서기까지 합해서 30명이었는데 조선인 교수는 윤태중(尹泰重 · 한국어, 가상작물시험 및 실습담당), 이윤재(李允載 · 한국어, 농산제조 작물토양실험 및 실습담당), 이종오(李鍾旿 · 조림, 조림보호 삼림이용 측량실험 및 실습담당, 학생감), 이광복(李光馥 · 실습담당), 이이우(李以雨 · 연습림 고원) 등 5명이었다. 농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보습학교'와 '농업학교' 등을 잇따라 설립하던 조선통독부는 1922년



1930년대의 수원고등농림학교 교문. 이 학교는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4월에 옛 교명인 수원농림전문학교로 바뀌었다.

3월 31일 고급 농업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3년제의 수원농림전문학교를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편하였다. 입학 자격은 5년제 고등보통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로 하고, 종래의 단과제를 '농학과'와 '임학과'로 나누었다. 각과의 정원은 30명씩으로 재학생은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았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사립학교 교원자격증을 주었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하였다.

교과목은 농학과가 국어, 영어, 물리학 및 기상학, 농업경영학 등 33 과목이었고, 임학과는 독일어, 경제학, 조림학, 법학통론 등 27과목이었다. 1931년 당시의 교수는 10명, 교유(敎諭) 3명, 조교수 9명 등이었지만 박사학위 소지자가 상당 수 있었다. 재미있었던 일은 국어 시간이 되면 조선 학생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인 학생은 조선어를 배웠던 일인데 그나마 1941년 소위 대동아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어 강의는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1927년에 설립되었던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가 1934년 농업교원양성소로 개칭되고, 1937년에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수의축산학과'가 증설되었으며 7년 뒤인 1943년에 다시 '농업토목학과'를 증설함으로써 기존의 '농학과'와 '임학과'를 합쳐 4과가 됐다.

1944년 4월에는 3년제의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학제를 2년 6개 월로 바꾸면서 옛 교명인 수원농림전문학교로 되돌려 놓았다. 조선총독부는 학제를 개편하면서 이렇다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 시기가 일본이 대미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비용 축소와 함께 농업기술 인력을 하루 빨리 일선에 배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수원고농에 이은 '水原公農'의 탄생

이번 마당에서는 일제 중기인 1936년에 개교해, 이 나라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원공립농업학교(水原公立農業學校: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의 지난날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이미 앞의 마당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수원에는 1906년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전문교육기관인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가 설립돼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수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1922년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로, 1944년에는 다시 수원농림전문학교(水原農林專門學校)로 개편되는 등 교명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바로 이 학교가 광복 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서울大學校 農科大學)을 거쳐 오늘날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서울大學校 農生命科學大學)으로 교명이 바뀐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교육 기관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었다.

한편 1906년 4월, 농업기술연구기관인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즉 오늘날의 농촌진흥청(農村振興廳)이 설치돼 수원은 농업교육과 농업연구의 중심지가 됐다. 한적한 시골에 불과한 수원이,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즉 1936년 6월 8일 설립인가를 받은 5년제 수원공립농업학교(水原公立農業學校)가 동년 7월 1일 개교한 것이다. 이 학교는 1945년에 수원공립농림학교(水原公立農林學校), 1951년 수원농림고등학교(水原農林高等學校)를 거쳐 오늘날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水原農生命科學高等學校)로, 67년의 개교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 학교는 1936년 수원군 수원읍 영화정 55번지에 세워졌다. 그러나 본 교사가 완공되기 전인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6개월 동안은 수원읍 신풍정에 위치한 신풍공립보통학교(新豊公立普通學校)의 1개 교실을 빌려 제1회 입학생 55명으로 개교하였다. 교직원은 교장 노무라긴(野村 衿・경성공립농업학교장 겸직), 교무주임 아메가히(雨 甲斐), 하상점(河相點・신풍보통학교 교사 겸직), 강사 1명 등 4명이었다. 한편 7월 18일부터 영화동 현지에서 본교사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동년 12월 20일 공사가 끝나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으며 이듬 해인 1937년 4월 23일 낙성식을 가졌다. 시설 규모는 교장실・교무실・

교실·우사·돈사 등을 합쳐 18개, 부지는 약 4만평, 학교림은 8000평에 달하였다.

당시의 학교 주변은 인가가 전혀 없었고, 다만 영화역말(迎華驛) 근처에 수십호의 초가집이 있었을 뿐이었다. 길도 나있지 않아 우마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특히 이 일대는 자갈이 많은 하천부지여서 눈에 띠고 발길에 채이는 것은 오직 돌맹이 뿐이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을 마치면 오후에는 전교생이 농장으로 나가서 흙을 파내 돌과 흙을 분리하는 고된 작업을 해야만 했다. 흙을 파낸 자리는 밭으로 일구고, 농로를 만들었는데 신입생들은 으레껏 돌줍기 작업을 '입학기념'으로 했다고 한다. 특히 제1회 입학생들은 가교사인 신풍학교에서 2㎞나 떨어진 본교사 신축공사장까지 매일 같이 도보로 걸어와 실습장 개간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입학 때 농기구 지참은 의무사항

그런데 이 학교의 신입생들은 여느 학교와 달리 입학 때 삽, 호미, 괭이(삼덕추), 낫, 지게, 바수거리, 비, 숫돌 등 농기구를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했고, 농구사(農具舍)에는 '닦아서 빛나는 마음과 농구'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을 정도로, 농구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학습보다는 실습 비중이 컸고, 실습 때에는 실습모와 실습복 차림으로 농장 앞에 집합하여 일장 훈시를 들은 뒤에 상급생 지도 아래 실습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말이 실습이지 농장 개척사업이나 다름이 없었다.

또 여름 방학에는 전교생을 전기·후기로 나뉘어 기숙사에 합숙하면서 공동포장(共同圃場)과 30평씩의 개인포장(個人圃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이 때의 기숙사 합숙비는 학교 부담이 아니라, 학생 자부담이었다. 이 밖에도 소위 대동아전쟁이 시작되는 1941년을 전후해서는 학도군사훈련을 강화했는데 훈련 내용은 38식 소총과 모의 수류탄을 투척하는 전투 훈련 등이었다. 특히 방학 중에는 강원도 평강에 있는 보병 제26부대 훈련장으로 가 야영훈련을 했고, 완전무장한 채 20~30리를 왕복하는 내서(耐暑)와 내한(耐寒) 행군을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계훈련 때는 서울 용산의 연병장에 모여 남·북군으로 편을 갈라, 한강 백사장으로 나가 한강 도하작전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난의 뒤에는 일말의 보람도 있는 법이다. 특히 가을 수확 때 풍성한 결실을 보는 학생들은 농학도로서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인문계 학교에 비해 몸과 마음 고생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농 입학은 쉽지가 않았다.

농업학교로서는 제반 시설이 완비된 5년제 정규 학교인데다 모집 학생수가 학년당 55명 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절반은 일본인이 차지하였으므로 조선 학생 끼리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제1회 입학시험 때 55명 모집에 670명이 응시하였는데 600명이 조선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원의 절반인 27명 대비 22대 1이 넘었다. 당시 수농의 교훈은 '지성'(至誠)이고, 교풍(校風)은 '강건'(剛健)이었다. 교무실에 걸린 교풍과 교훈 액자는 제2대 교장 다께다(武田)가, 소위 데쵸오세쯔(天長節:일본 천왕의 즉위 일)때 조선총독인 미나미지로오(南 次郎)를 찾아가 친필 휘호를 받아 온 것으로 광복 때까지 교무실에 걸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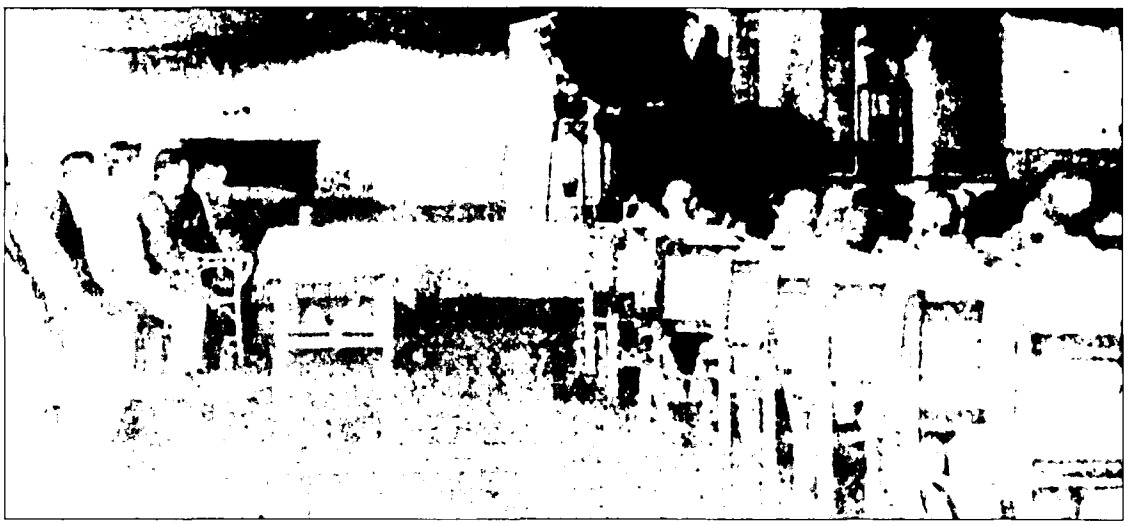
수업연한 5년, 역대 교장 일본인 일색

역대 교장은 설립 당시(1936. 6~7) 노무라긴(野村 衿), 초대(1936. 7~1938. 12) 사메지마(鮫島), 제2대(1939. 1~1942. 12) 다께다(武田), 제3대(1943. 1~1945. 8) 히사고메모도시(久米 基) 등으로 일본인 일색이었다. 1936년 7월 입교한 제1회 입학생은 5년의 수업 연한을 마치고, 1941년 3월 7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생은 42명이었다. 광복 이후인 1946년 까지의 입학 및 졸업생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의 水公農 입학·졸업 현황

졸업회수	입학연월일	입학생수	졸업연월일	졸업생수	학제 및 비고
제1회	1936. 7. 1	55	1941. 3. 7	42	수원공립농업학교 5년제
제2회	1937. 4. 6	55	1941. 12. 28	45	5년제
제3회	1938. 4. 10	55	1942. 12. 23	39	5년제
제4회	1939. 4. 10	55	1943. 12. 22	53	5년제
제5회	1940. 4. 10	55	1944. 12. 23	50	5년제
제6회	1941. 4. 5	55	1945. 3. 20	50	4년제 입학과 신설
제7회	1942. 4. 1	55	1946. 6. 20	37	1945. 12. 21 수원공립농림학교로 개칭하면서 4년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입학생 55명 가운데 많게는 16명, 적게는 5명까지 졸업 탈락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개인 사정으로 자퇴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교칙 위반으로 퇴



1936년 7월 1일에 있은 수원공립농업학교(5년제)의 입학식. 가교사로 썼던 신풍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거행된 이날 입학식에는 제1회 신입생 55명이 참석했다.

학 당한 자도 없지 않았다. 또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1941년 3월 7일(제1회)과 12월 28일(제2회) 두 차례에 걸쳐 졸업식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1941년은 일본이 미국과 소위 대동아전쟁을 벌인 해로써 그해 12월 8일 선전포고 없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바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전쟁이 발발되자 군량미와 농산물 증산 때문에 농촌지도 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수업기간을 3개월이나 단축시키면서 제2회 졸업식을 거행했던 것이다. 이러저러한 일제의 간섭과 억압이 있기는 하였지만 일제하의 수농이 우수한 농학도를 배출한 측면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제하의 수공농 9년 동안엔 추억에 남을 만한 낭만과 자랑거리도 없지 않았다. 하나는 우수한 씨름 선수를 배출해 전국 씨름대회에서 연전 연승하면서 씨름판을 제패했던 일이고, 또 하나는 1938년, 1939년, 1940년 등 3개년에 걸쳐 나라 밖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일본·중국 등으로 해외수학여행을 간 일이다. 학생들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매월 납부하는 수업료와 함께 1원씩(당시 쌀 한말 값은 60전)을 적립해 모아진 돈을 여행 경비로 썼다. 제1회 졸업반은 1938년 9월 1인당 12원의 비용으로 6일간 북선(北鮮)의 금강산을 거쳐 영변까지 다녀 왔고, 1939년 10월 제1회 일부와 제2회 졸업반은 1인당 38원으로 2주일 동안 일본 오사카-닛꼬 등을 여행하였으며, 1940년 5월엔 제1회 졸업반 일부와 제2회 졸업반이 1인당 40원으로 8일간 중국 하얼빈까지 여행하였다. 1941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해외수학여행은 중단되고 말았지만, 당시의 경제사정과 사회환경으로 미루어 볼 때 해외여행을 한 것은 파격적인 일이다.

애환 1세기의 증인 공립남양소학교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해상무역기지이면서 서해의 요충지였던 옛 고을 남양(南陽)은 오늘날 화성시 '남양동'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신라 경덕왕 9년(757)때 당은군, 흥덕왕 4년(829) 때 당성진, 고려 태조 23년(940) 때 당성군, 현종 9년(1018) 때 익주 또는 강녕, 충열왕 16년(1290) 때 강령도호부, 충열왕 3년(1308) 때 익주목, 충선왕 2년(1310) 때 남양부, 조선 태종 13년(1413) 때 남양도호부, 인조 22년(1644) 때 남양현, 효종 4년(1653) 때 남양도호부, 현종 15년(1674) 때 남양도호부, 고종 32년(1895) 때 남양군, 일제하인 1914년에 수원군 음덕면,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에 화성군 남양면이 되었다가 2000년에 화성시 남양동으로 바뀌었으니, 지명 변천이 화려하다. 행정관할구역의 설정과 변경은 통치권을 거머쥔 정부의 특권이다. 행정 편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지명(地名)이라고는 하지만 지명 변천은 역사의 단면(斷面)으로, 혹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남양은 도(道) 안의 비교적 큰 도시나, 왕실의 연고지에 설치하는 목(牧)과 광대한 속지(屬地)를 지배하기 위해 세우는 도호부(都護府)가 있었던 고장이다. 뿐만 아니라 남양은 경기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대(對) 중국과의 무역기지로도 유명하였다. 한마디로 남양은 그 지명이 말해 주듯이 '남쪽의 태양'이고, '빛나는 고장'이었다.

이번 마당에서는 구한말인 1898년 바다 내음 가득한 남양 땅에 신교육의 요람으로 세워진 이래, 10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옛 '공립남양소학교' 즉 오늘날의 '남양초등학교'를 주제로 삼았다.

우리나라에 신학제가 도입된 것은 구한말인 고종 32년(1895)이었다. 이해 7월 19일 고종은 '소학교령'을 공포했고, 이에 따라 최초로 생겨난 공립소학교가 서울의 장동(壯洞), 정동(貞洞), 계동(桂洞), 묘동(廟洞) 등 4개 소학교였다. 그 뒤를 이어 몇 개의 관립 소학교가 생겨나고, 1896년(고종 33) 9월에 경기관찰부를 비롯한 13개 관찰부와 3개 부(府), 인천항을 비롯한 4개 항(港), 제주목과 양주군을 비롯한 17개 군(郡) 등 38개 소에 공립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때(1896년 2월 10일) 수원에 설립된 것이 경기관찰부립소학교(京畿觀察府立小學校)로 오늘날의 신풍초등학교(新豊初等學校)이며 어느덧 107년의 개교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양공립소학교(南陽公立小學校)는 1898년에 개교하였으니, 신풍소학교 보다 2년이 늦다.

104년 전의 남양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여러 가지 예증(例證)으로 당시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겠으나 가장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인구와 호수 실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784년(정조 13)에 간행된 《戶口總數》를 보았더니 남양부의 총호수는 6315호, 인구 2만 3418명으로 남자가 8436명, 여자가 1만 4982명이었다. 반면에 같은 해의 수원부 호수는 1만 5121호, 인구는 5만 7660명으로 남자가 2만 8240명, 여자가 2만 9420명으로 남양이 수원보다 호수·인구면에서 훨씬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려나 공립남양소학교는 1898년 10월 1일 당시 남양군 음덕면 남양리에 위치했던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의 집사청(執事廳)을 빌려 개교했다. 임시 교사로 썼던 남양도호부의 집사청이 어디에 있었으며 규모와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어 안타깝다. 하지만, 중국과의 해상무역 기지였던 이곳에 신식 교육의 요람인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남양의 성가(聲價)는 짐작하고도 남을만한 일이다.

남양도호부 執事廳을 빌려 개교

1895년 7월 19일에 공포된 '소학교령'은 제16조와 제17조에서 취학 학령을 만 7세부터 만 15세까지로 정하고, 각 부·군은 그 '관내의 학령 아동을 취학시킬 공립소학교를 세워야 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한마디로 해당 지방 관아는 이유없이 소학교를 세워야 하고, 세워진 소학교에 학령이 된 학생들을 수용해 가르치게 한 강제규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령이 공포된지 3년 째가 되는 1898년에 공립남양소학교를 개교한 것을 보면 남양부 나름으로는 소학교를 설치할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3년의 공백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교 첫 해의 입학생은 모두 35명이었고, 교원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제현(朴齊賢)이며 교장은 없었다. 광무 10년(1906) 1월 2일자 《官報》에 '南陽郡公立小學校 敎員 朴齊賢 官立小學校 敎員 敍判任官 8給'으로 승급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남양공립소학교에 오랫 동안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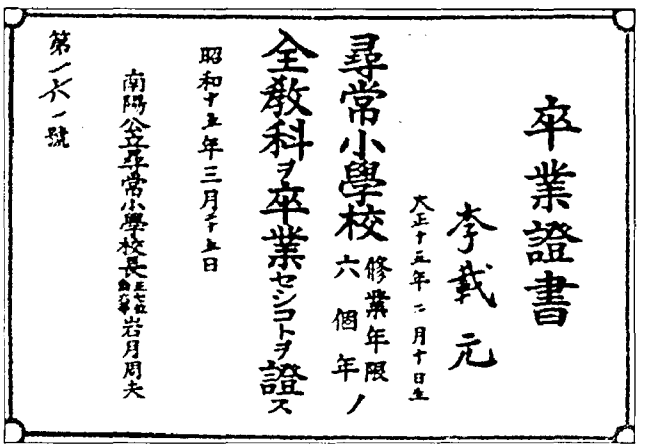
1913년 朴用鉉과 면민들의 협력으로 마련한 목조 단층 교사 앞에서 조회를 하고 있는 학생들.

1908년 2월 사립 양성학교를 합병하고, 남양군수 김관현(金寬鉉)이 교장에 취임한데 이어 훈도 겸 교감으로 일본인 사도겐(佐土 原)이 부임하였으며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나서 광복이 될 때까지 모리노부요시(森信良), 이와쯔키지카오(岩月周夫), 아끼요시센노스케(秋吉仙之介), 미야모도요시도시(宮本美俊) 등이 교장으로 재임하였다. 이 시골 소학교도 조용하지만은 않았다. 1910년 2월 재학생 일동이 동맹휴학을 하는 바람에 3일 동안 휴교하는 대소동이 있었다. 같은 해 3월 31일 제1회 졸업식을 가졌는데 현존하는 기록에는 송연호(宋然浩), 서정옥(徐廷玉), 김정철(金正哲), 윤예봉(尹禮奉) 등 4명이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교 당시 35명이 입학했는데 4명만 졸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사실을 밝힐 근거가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1912년 7월 1일 남양공립 간이농업학교가 부설되고, 1913년 남양도호부 시절 오위(五衛)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수 즉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던 박용현(朴用鉉)이 중심이 되어 지금의 남양시장 터인 읍덕면 남양리 1165번지에 교사를 짓기로 하였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근동의 면민들과 학부형들이 목재며 곡물 등을 희사한 덕분에 같은 해 4월 27일 목조 단층에 양철 지붕으로 된 6개 교실을 낙성할 수 있었고, 개교 15년 만에 자체 교사를 갖게 됐다.

1928년에는 홍승하(洪承夏)가 1902년에 설립한 이 지방 최초의 '제하여학교'를 편입시키면서 남녀 공학이 시작됐지만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의 관습이 남아 있던 시절이라, 공학 초기에는 남녀 복식반을 운영하다 1940년 무렵부터 저학년은 남녀 합반, 고학년은 남녀 분리반을 운영하였다니, 남녀 공학에 익숙해진 요즘 학생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취학 아동이 증가하면서 1937년에 9학급, 1938년에 10학급, 1939년에는 11학급으로 해마다 1학급씩 늘어나 교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신외리 갑부 박창원(朴昌元)이 거금 3만원을 희사하고, 읍덕면민들로부터 거둔 기부금 3만원을 합친


卒業證書
李載元
大正十三年二月十日生
尋常小學校修業年限六個年ノ
全教科ヲ卒業セシコトヲ證ス
昭和十五年三月二十五日
南陽公立尋常小學校長 岩月周夫
第一六一號

1940년 3월 25일에 있은 남양공립심상소학교 제30회 졸업식 때 받은 李載元의 졸업장. 이재원은 광복 후 화성군수, 수원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6만원으로 남양에서는 최초의 붉은 벽돌로 지은 2층에 12개 교실을 갖춘 신축 교사로 이사하였다. 이 때 개교 초기부터 사용하던 목조(木造) 교사 2동을 통나무를 이용해 통째로 옮겼는데 그 광경이 매우 볼만해서 구경꾼이 운집했었다고 한다.

이런 기쁨도 잠시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날을 더해 심해졌다. 1941년에 소위 창씨개명(創氏改名)이 강제로 실시되면서 희한한 이름들이 등장한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예컨대 본디 이름인 윤덕정(尹德定)은 尹原德定, 김명정(金明正)은 金山明正, 고병희(高丙熙)는 高本丙熙로 바뀐 것이다. 이름 석자 또는 넉자에 생명과 명예를 건다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치욕이었지만 당시의 우리로서는 이를 뿌리칠 수 없었다. 같은 해 2월 28일 칙령 제148호로 소학교령이 '국민학교령'으로 개정되면서 '남양공립국민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는데 이는 다른 소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황국신민선서'로 시작되는 하루 일과

당시 아침마다 시행되는 조회와 하루 일과도 가관이었다. 아침에 가지는 조회는 전체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먼저 교장이 '황국신민선서'를 낭독하면 교직원이 따라 불렀다. 이어 아침 회의가 열리고 뒤이어 아동 조회가 시작되는데 대열 정리가 끝나면 동쪽에 세워진 국기게양대에 걸린 일장기(日章旗)에 경례하고, 일본 궁성을 향한 요배, 황국신민선서를 외운 다음 교장 훈화와 주번 교사의 말이 이어졌다.

대동아전쟁이 시작된지 2년 뒤인 1943년부터는 지식과 인격을 도야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었다. 학교마다 '학도보국대'가 설치면서 남양학교에도 '청년학교'가 개설 돼 마을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 터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여자훈련소까지 설치해 운영하였다. 억지가 기승을 부릴 때인지라 상식 밖의 일도 더러 있었다. 그 중 두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첫째 1932년 교사 이근홍(李根弘)은 일본 짚세기(조오리) 삼기 실습을 한다면서, 수업

당일 학생들에게 집세기를 신고 오도록 명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 박상희(朴相熙)가 조선 사람이 왜놈의 '조오리'를 신을 까닭이 없다면서 전체 학생들에게 고무신을 신고 등교하도록 사발통문을 돌리자 이튿날 모든 학생들이 고무신을 신고 등교한 것이다.

이 뜻하지 않은 돌발사태 때문에 학교가 법석을 떤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비록 경미한 집단행동이었으나, 당시 학생들 마음 속에는 항일 감정이 맥맥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천하요, 제국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지만 식민지 교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장학 당국에 맞섰던 일본인 교장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 문제의 일본인 교장은 아끼요시(秋吉)였다.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한데 그치지 않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이 계속되는 한 일본은 반듯이 패망할 것이라면서 네가지 이유를 들어 전시교육을 비판하였다. 첫째 농촌의 장정들이 군대와 징용으로 끌려갔으니 일손이 없다. 따라서 학생들을 근로봉사에 동원할 것이 아니라 수업을 마치는 대로 집으로 보내 집안 일을 돕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근로동원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가는 시간 낭비가 심하고 효율도 없다. 셋째 남의 일이라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일은 스스로 하고 싶어해야 하는데 강제로 시키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넷째 노력봉사를 했다고 해서 집안 일을 외면할 수 없는데 정작 집에 돌아가면 힘이 빠져서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한다. 그러니 강제성을 띤 근로봉사는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제국주의적인 교장을 두고만 볼 일본이 아니었다. 반골 교장 아끼요시는 끝내 1944년 교장직에서 해임되고, 쓸쓸히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비록 일본인 교장이었지만 곧곧한 교육자 정신만은 그 시절 재학생들에겐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10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양초등학교에서는 최근 두가지 개교 100년사업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나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파란만장했던 지난날과 크게 발전한 오늘날의 학교 역사를 집대성한 《南陽百年史》를 1998년에 발간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100년 동안의 이모저모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사료관(史料館)을 교내에 설치한 일이다.

학교사(學校史)는 더러 발간한 학교가 있지만 별도의 사료관을 마련한 학교는 많지 않다. 교사 3층에 자리 잡은 사료관은 50평(교실 1.5칸)으로 총 공사비가 3400만원이 들었고, 20종 350점의 자료와 실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자료와 기록 보전에 약한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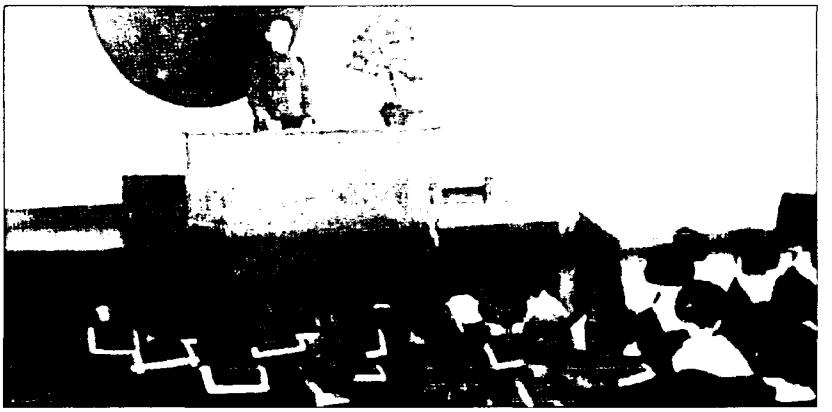
梁聖寬과 수원공립가정여학교

1936년 3월 24일 설립인가를 받아, 동년 4월 16일 개교한 수원공립가정여학교(水原公立家政女學校)야말로 수원 최초의 공립 여성교육기관이었다.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교명이 말해 주듯이, 가정(家政)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한 가정(家庭)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르치는 이른 바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양성 도장이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수원에는 일본에서 건너 온 소위 재수 거류인(在水 居留人)들이 많았다. 이들은 저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학교조합(學校組合)이란 것을 만들고, 이 조합으로 하여금 학교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는데 자녀 가운데 딸아이들이 나이를 먹게 되자 중등과정의 여학교 설립이 절실했던 것이다. 결국 수원 재류일본인학교조합이 수원공립가정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마침내 인가를 받아 냈는데 인가 조건은 '3년제 1학급'이었다.

설립인가는 받았지만 교사(校舍)가 없는 터라 수원공립심상학교(지금의 매산초등학교) 별관을 빌려 4월 15일 개교하고, 16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초대 교장은 일본인 아카즈 모도(赤津 基)였고, 학생수는 53명으로 일본 여학생 28명, 조선 여학생 25명이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일본 여학생을 위해 설립한 터라 일본 여학생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남은 자리 만큼 조선 여학생을 뽑았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차별을 금하는 교육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일본인들은 개의치 않았다.

수원공립심상소학교 별관에서 수업을 시작했던 가정여학교는 1937년 12월 28일 이 학교 한쪽에 새로운 교사를 짓고 이사했다. 신축 교사는 교실 7, 직원실 1, 가사실 1, 양재실 1, 1·2·3학년 교실 각 1실, 꽃꽂이 및 다도실(茶道室) 1실 등 모두 15실이었다.

어렵사리 개교한 수원공립가정여학교는 1941년 수원공립고등여학교로 교명이 바뀌게 되고, 수업연한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면서 학급수 역시 3학급에서 4학급으로 증설되었다. 고등여학교로 바뀐지 반년 만인 1941년 9월 8일 이 학교에 큰 변화가 생겼다. 오늘날 수원여자고등학교가 있는 바로 그 자리(고등동)에 새로운 교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1937년 개학식에서 훈사를 하고 있는 일본인 경기도지사, 뒤에 걸린 일장기는 위압감을 주고도 남았다.

다. 교지(校地) 1만 533평에 연건평 469.3평의 교사(校舍)를 짓기 시작한지 2년 3개월만인 1943년 12월 13일 이사를 마치게되니, 7년여 만의 '더부살이' 청산이었다.

당시 이 학교 주변은 온통 논밭 뿐인데다 얕으막한 산등성이에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통학하는 여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우선 읍내에 사는 여학생들이 등교하려면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펼쳐지는 논두렁과 밭고랑을 건너지 않으면 안되었다. 건기에는 그런대로 운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기나 한 겨울에 눈이라도 쏟아지면 여간한 고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산등성에 세워진 낭자학당

산등성이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지금도 교문에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우람한 느티나무는 그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어느덧 60년이 된 고목이다. 그런 까닭에 이 나무들이야말로 수원여고의 과거와 현재를 말해 줄 수 있는 역사의 증인인 셈이다. 1943년에 신축교사로 이사간 것 까지는 좋았으나 교사가 턱없이 비좁은 것은 흠이었다. 그래서 추진된 것이 교사 증축계획이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水原女高50年史》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43년 5월 15일 수원공립고등여학교 기성회장 야나가와세이캉(梁川聖寬 · 조선명 양성관)은 1만 440평의 학교 부지를 경기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고, 1945년(월일 미상) 회장 양성관, 부회장 2명, 평의원 60명, 간사 25명, 고문 9인으로 된 교사 증축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기성회는 공사 비용으로 110만 2378원을 조성했고, 이 돈으로 1946년 1월부터 7월까지 보통 교실 8동과 화장실 등 연건평 2만 5366평을 새로 지었다.'

이 기록대로라면 이 학교의 제1차 교사 증축은 광복 직전에 조직된 기성회가 추진하다 광복 이후에 마무리한 셈이 된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대목은 기성회장을 맡았던 양성관(梁聖寬)이 어떤 인물인가이다. 양성관은 한마디로 일제하의 수원 유지였다. 그것도 보통 유지가 아니라 특급 유지라 할만큼 활동 폭이 넓었고, 사업가로서 재물도 많았다. 1986년에 발간된 《水原商議史》는 양성관의 개인사(個人史)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수원 유지 梁聖寬

'양성관은 1867년(고종 4) 8월 4일 수원에서 태어났다. 그는 수원의 8부자 가운데 하나인 남원 양씨(梁氏) 문중의 후손으로 평생 동안 부를 누렸다. 그는 유교계통의 수원명륜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 때 나이 31세였으니까 만학을 한 셈이다. 그 해(1908년 4월 15일) 수원상업회의소가 설립되자 부회두(副會頭)에 취임하였다. 양성관은 이 무렵 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수원전기주식회사 취체역, 수원금융조합장, 화성산업주식회사 대표 취체역 등으로 있으면서 수원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당시 "재채기를 하면 양성관네 집으로 가라"할 정도로 양성관은 부자였다. 이 말은 재채기 귀신도 양성관 집에 가야 얻어 먹을 것이 있다는 비유였다. 그는 특히 교육사업에 힘 썼다. 수원상공회의소가 설립한 수원상업강습소가 재정난에 봉착했을 때 거액의 후원금을 내놓음으로써 훗날 화성학원(華城學園)으로 살아 남게 하였다.

1935년 1월 말에는 남자 중학교 설립 논의가 있었는데 이 때 회동한 도의원 최재엽(崔在燁), 신현익(申鉉益)을 비롯한 유지들은 지체없이 중학교 기성발기회를 구성하였다. 동년 2월 28일 수원공회당에 모인 경기도 남부 5개군 대표 30여 명은 '중학교기성회'를 발족시키고 양성관을 회장으로 뽑았다. 그는 동년 3월 12일 거금 3만원을 중학교 신축기금으로 내놓았다. 이것이 1941년 3월 인가된 수원상업전수학교 탄생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양성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자중학교를 세우기로 했으니, 여자학교도 설립해야 한다면서 여성교육기관 설립에 앞장섰다. 당시 수원에는 1936년 3월 24일 '실습·보습학교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4월 15일 개교한 수원공립가정여학교가 있었으나 일본인들이 세운 학교인데다 인문계가 아니여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1939년 7월 22일 수원군청 회의실에 모인 민관 관계자 50여 명이 '수원고등여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시 회장에 양성관을 선출했고,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1941년 5월 7일 수원고등여학교가 개교되었다.'

소녀의 꿈을 앗아간 전시수업

이상에서 양성관의 개인사의 대강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원고등여학교 개교 부분은 《水原女高50年史》와 《水原商議史》 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기성회 발족시기이고, 두 번째는 공사 시기이다. 전자는 1941년 9월 8일에 현 수원여고 교사 터에 새 교실을 짓기 시작해 1943년 12월 13일 이전하였다라고 적고 있으나, 후자는 1939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1941년 5월 7일에 개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오기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전자의 주장을 받아 드리는 것이 옳음직하다. 왜냐하면 1936년에 설립된 수원공립가정여학교는 문자 그대로 '공립'이었고, 광복 때까지 일본인 교장이 시무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수원고등여학교의 기성회장이 다름아닌 양성관이었다는 사실이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학교사(學校史) 문제는 후일의 보정(補正) 과제로 넘기고, 《水原女高 50年史》에 수록된 이 여학교의 엄청났던 교육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교복과 몸빼** 지정 교복은 기념일과 수요일 조회시간에만 입었다. 평상시는 소위 몸빼 차림으로 등교했고, 대동아전쟁 말기에는 방독면, 비상약품, 붕대, 삼각끈 등이 들어 있는 보조 가방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했다.

◇ **근로봉사** 말이 근로봉사이지 사실은 무임금 강제노역이었다. 집단 노역에 나갈 때는 소대와 분대를 편성해 소대장, 분대장이 엄격한 통제를 하였다. 권업모범장(현재의 농촌진흥청)에서 볍씨를 뿌릴 때는 나무 핀센트로 볍씨를 한알 한알씩 심어야 했고, 과수원에서는 열매 솎음질과 잡초 뽑기, 산에 올라 솔방울 따기, 운모(雲母) 공장에서는 힘겨운 일을 하였다. 솔방울 기름은 항공기 연료로 썼고, 운모는 항공기를 만들 때 부재료로 사용하였다.

◇ **체육시간** 팔달산 성벽 타기, 모래 주머니를 양손에 들고 달리기, 박달나무로 만든 칼과 창으로 찌르고 베기, 수원읍에서 군포까지(약 3km) 4kg의 모래 배낭을 지고 행군하

기 등 여학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체육훈련을 시켰다.

◇ **채소경작** 운동장 일부를 채소 밭으로 일궈 각종 채소를 심고 가꾸게 하였다. 채소 경작은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단(分團)을 편성해 책임 경작을 시켰으므로 시골의 촌부(村婦)와 다를 것이 없었다.

◇ **자전거 타기** 수업이 끝나면 휴식시간이 있게 마련인데 당시 이 학교에서는 잡담하며 노는 휴식시간이 허용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련한 18대의 자전거로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 **급장 차별** 급장은 형식상 자유선거로 선출하였지만 급장은 반드시 일본 여학생 만이 할 수 있었다. 조선인 여학생은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도 부급장 밖에 할 수 없었다.



수업은 뒷전인 채 항공기 부품으로 사용하는 운모(雲母) 공장에 동원된 수원고등여학교 학생들. 몸빼를 입고 일하는 여학생들을 군복 차림의 교사가 뒷짐을 진채 지켜보고 있다.

한마디로 고난과 시련, 고뇌와 좌절로 가득찬 시대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은 절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드러나는 것이 결과였다. 수원공립가정여학교 제1·2·3회 졸업식은 수원공립심상소학교(지금의 매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제1회(1939. 3. 15) 43명, 제2회(1940. 3. 15) 27명, 제3회(1941. 3. 14) 43명이었다. 한편 광복 때까지의 역대 교장은 초대 아까즈모도시(赤津 基), 제2대 이케다요시다네(池田義種), 제3대 시마다아오(島田 靑), 제4대 이네즈히데오(稻津英夫), 제5대 하라다다케오(原田武雄)였다.

수원고등학교 전신 수원상업강습소

수원상공회의소가 설립된지 올해로써 95년 째가 된다. 1908년 4월 15일 창립 당시의 기관명은 수원상업회의소(水原商業會議所)였다. 수원상업회의소는 창립 2년 뒤인 1910년 6월(융희 4) 무산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상업에 관한 지식과 하루가 다르게 개화되어 가는 신문명을 가르치기 위해 수원상업강습소를 설립했다. 참고로 미리 말해 두지만 1910년 당시의 수원면 인구는 2313호에 6971명(남자 3742명, 여자 3229명)이 모여 사는 한낱 한촌에 불과하였다. 이렇다할 산업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사회간접자본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번 마당에서는 오늘날 수원중·고등학교의 모체가 된 화성학원의 길고도 험난했던 발자취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22년 1월 27일자 〈동아일보〉의 '상업강습소의 개혁' 이란 제하의 기사를 소개한다.

'수원 역내(域內) 상업강습소는 융희 4년(1910) 4월 전 수원상업회의소에서 상업에 관한 지식기능의 강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는 바 그 후 대정(大正) 5년(1916) 4월에 회의소가 폐지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 곤란으로 폐문의 비경(悲境)에 이를 뻔한 적이 1·2차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수 3명의 유지의 열성으로 근근 유지하여 오며 주·야학 각과에 다수 학생을 수용 교수하여 적어도 수원에선 불소한 공헌을 하였던 터이다. 강습소는 현대식 문명 풍조에 따라 낙오의 탄(嘆)이 불무함으로 그 내용 전부를 개혁하였는데 차(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재래의 상업강습소를 '화성학원' 이라 하고, 학령 과만자(過滿者)도 모든 학교에 입학 준비 또는 간이한 고등·보통 정도의 학식을 수학케 한다는 것이다. 주학으로는 보통과·중등과·고등과를 두고, 야학에는 초등과와 전수과를 두되, 교육 내용을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사는 이규재(李圭宰), 최상훈(崔相勳), 정준화(鄭駿和), 윤용희(尹龍熙) 제씨가 집편(執鞭)하는데 이미 교육 받은 학

생이 160여 명에 달한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27년 1월 17일자 〈동아일보〉는 '정차장(停車場)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 大悟를 요할 우리'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는데 그 가운데서 화성학원에 관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 기관이 변변치 못하고,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고 남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경영해 나가는 오직 하나 뿐인 교육기관이다. 융희 4년(1910) 4월에 당지(當地) 상업회의소의 경영으로 창립되어 간이한 상업을 교수하던 야학 기관이던 바 대정(大正) 4년(1915)에 공포된 상업회의소령에 따라 수원상업회의소가 폐지(1916년)하게 됨에 동교는 폐교의 비운에 빠졌었다. 당시 선생이던 윤용희(尹龍熙)씨 외 몇분이 보수없이 교편을 잡는 등 열성 탓으로 다시 상업강습소를 주학(晝學)으로 증설하였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작년(1926) 5월에 '華城學院'이란 교명으로 당국의 인가를 얻었다. 현재의 학생수는 야학생이 240명, 주학생이 190여 명에 달한다. 재정문제는 수원청년회장인 홍사훈(洪思勛)씨가 일부를 부담하여 그럭저럭 유지해 나간다.'

자존심을 지킨 '민족교육의 요람'

위의 두가지 기사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상업강습소는 1910년 4월에 설립되어, 수원상업회의소가 1915년 7월 15일 공표된 '조선상업회의소령'에 따라, 1916년 4월 해산될 때까지 적어도 8년 동안 상업강습소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강습소를 운영하는 동안 재정과 교육 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해체 위기가 몇 차례 있었고, 운영 전반에 걸쳐 굴곡이 있었다는 것은 기사의 행산(行間)에서 읽을 수 있다. 뿐 아니라 1986년에 발간된 《水原商議史》도 당시의 수원상업회의소가 상업강습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면민과 국내 각지의 후원자들의 상업강습소에 대한 애정은 예사롭지 않았다.

1921년 9월 11일 통영청년회 활동사진대가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와 수원청년구락부의 후원으로 상업강습소에서 이틀 동안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이 때 번 돈 전액을 운영비로


資格者今や三百
創立總會開く
水原商工會議所實現へ

1941년 3월 4일자 〈경성일보〉에 실린 수원상공회의소 창립총회 기사. 1916년 4월 해산된지 25년 만의 재기였다.

써달라며 상업강습소에 전달하였다. 1922년에는 신파극단인 '혁신단'이 45일 동안 수원 공연을 한 바 있었는데 하루 수익금 115원을 화성학원에 기탁하였고, 수원의 권번 기생들도 같은 해(1922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자선공연을 펼쳐 그 수익금을 화성학원 교실 증축기금으로 희사한 바 있었다. 이토록 화성학원은 수원인의 희망이면서 자랑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1916년 4월 수원상업회의소가 해산과 함께 손을 떼게 되자, 수원상업강습소는 졸지에 어버이를 잃은 고아격이 되고 말았지만 결코 살아지지는 않았다.

화성학원을 살린 '화성학원유지회'

수원상업강습소는 '화성학원'으로 바뀌게 되고, 10여 년 동안 소장으로 있었던 신준희마저 사임하는 바람에 강습소의 앞날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 때 전면에 나선 사람이 수원 부호 홍사훈(洪思勳)이다. 그는 1891년 수원에서 태어나, 경성보성중학교를 중퇴하고, 수원상업강습소 법상과를 졸업하였다. 그 뒤 삼일학교 학무위원, 수원청년회장을 역임하다 1928년 존폐 기로에 선 화성학원을 인수, 원장에 취임한 것이다. 생업으로는 세류포목점을 경영하였고 용수흥농주식회사 취체역, 수원극장 대표이사, 만종원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홍사훈이, 자신의 모교인 수원상업강습소 원장으로 취임하여 위기에 처한 모교를 튼튼한 사학으로 키워냈다는 사실이다.

홍사훈은 맨 먼저, 매월 교사 월급과 운영비로 100원 씩 내놓으면서 학원 정상화에 심혈을 기우렸다. 그러나 홍사훈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꽤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지 내지는 주민들의 공동 후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1930년 1월 16일 화성학원유지회를 구성하였다. 회장 홍사훈, 부회장 이길태 · 유하영 외 6명의 평의원으로 짜여진 유지회는 단숨에 1만 235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기금은 화성흥한주식회사에 예탁하고, 매월 100원 씩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1930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금 기탁자와 기탁금은 다음과 같다.

洪思勛 2000원, 梁聖寬 1000원, 車裕舜 700원, 尹泰貞 宋秉煜 400원, 車泰益 安永台 尹龍熙 200원, 李吉泰 150원, 金世琓 120원, 朴慶根 李聖儀 李慶儀 李完善 林慶讚 尹泰仁 韓光錫 金幸權 洪喆厚 尹泰重 華城券番 100원, 李東根 70원, 朴一龍 申鉉益 柳夏永 權泰東 市內自動車會社 嚴桂喆 崔赫來 洪寅權 洪思先 安順福 李性連 吳燦永 李楨圭 沈遠明 尹秉絢 車柱順 金龍植 南觀熙 朴勝玉 全根在 具瓊會 李漢升 50원, 崔善容 金世煥 崔〇〇 洪思安 40원, 洪鍾煥 崔景祐 尹宅榮 安永舜 李祥淑 朴善泰 尹鳳燮 趙漢敎 李昌鎔 崔益煥 安巨福 金英俊 具然弼 鄭泰尙 尹冕厚 尹達容 崔元益 安孝烈 30원, 申采均 金振洙 徐廷玉 李珍榮 車載潤 趙應順 崔聖運 韓 曦 沈順伯 朴東勳 韓羽敎 車元成 李玨來 金炳浩 20원, 金周文 李愚祥 15원, 權雲岡 周永植 10원, 崔 松 5원.

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화성학원유지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당시 수원을 대표할만한 유지들이다. 원장인 홍사훈이 거금 2000원을 쾌적한 것이나, 수원 상업회의소 창립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양성관이 1000원을 기부한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다. 재정난을 돕는 데는 기부금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정성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단돈 5원의 기금도 고귀한 것으로, 92명 모두가 화성학원을 살리는 정신적 구세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권번(券番) 기생들이 100원의 기금을 낸 것은 교육에 관한한 수원인의 애정과 관심이 범상치 않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또 한가지 화성학원과 관련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원상업강습소 또는 화성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던 교사들이 민족운동가로서 기미년 만세사건을 전후해서 괄목할만한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 면면을 보면 이규제, 최상훈, 정준화, 윤용희, 김노적, 최철원, 김응백, 김세환, 최상규, 김용묵 등인데 특히 金世煥은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는 들지 못하였지만, 예비 서명자 48인 가운데 한명이었다. 수원상업회의소 부설로 태어났던 수원상업강습소가 화성학원을 거쳐 오늘날 수원중·고등학교로의 대변신한 일이야 말로, 한편의 드라마 보다 더 진한 감동적인 역정(歷程)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일본인 저술가가 남긴 일제하 水原史料

역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수원의 과거사, 그것도 지난 1세기 동안의 정사(正史)와 야사(野史)를 입증할만한 사료는 거의 없다. 가장 분명하게 남아있는 확실한 사료라야 조선시대 정조(正祖) 때 이루어진 화성(華城)의 축성공정과 비용・인력 등을 기록한 《華城城役儀軌》(화성성역의궤・1800년 정조 24)와 1794년(정조 19) 무명 선비인 이의평(李義平)이 정조의 수원 행차 때 노정(路程)과 혜경궁 홍씨(정조의 생모)의 회갑연 이모저모를 쓴 《華城日記》(화성일기), 그리고 1899년(광무 3) 수원군이 편찬한 《水原郡邑誌》(수원군읍지) 정도가 조선시대 자료의 전부다. 결국 조선시대의 수원을 일부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화성성역의궤는 축성에 관한 전문기록이고, 화성일기는 일종의 기행견문기라 수원사 자료로서는 거리가 멀다. 오직 수원군읍지만이 당시의 수원군의 행정관할구역, 인구, 호구, 과세 등 전반적인 읍치(邑治)를 수록하고 있어서, 수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오늘의 수원은 역사자료 '빈곤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수원의 정사나 야사를 연구 복원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다. 조선이 일본에 병탄되고나서, 식민지하에서 치욕적인 삶을 산 35년 동안의 수원 역사도 한말 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조선인이 썼거나, 지하 단체에서 발간한 서적이나 기록, 심지어는 쪼가리 자료 조차도 남긴 것이 없다. 물론 일제의 철권정치하에서 역사 기록을 남기거나 책으로 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일제하)의 수원 관련 사료나 자료는 아주 없었을까.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서적들이 하나 같이 재수(在水) 일본인 저술가(著述家)들이 썼거나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것이라는데 있다. 하지만 그나마의 간행물마져 없었다면 일제 강점기의 수원 역사는 전혀 알 수 없는 '역사 공백'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일제하에 일본인 저술가들이 남긴 역사 관련 서적이란 대체 어떤 것들인가. 이번 마당에서는 이미 앞의 마당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일본인 저술가들이 남긴 이른 바 '지배자 자료'(支配者 資料)를 주제로 삼았다.

1. 《發展する水原》(발전하는 수원). 이 책은 일본인 저술가 사케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가 쓴 것이다. 그는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 9월 조선에 건너와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수원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수원에 거주하면서 3권의 수원 관련 서적을 발간했는데 《發展する水原》은 그 첫 번째 것이다. 직업은 '소송대리업' 즉 '사법서사'로 1885년 8월 일본 니이가다켄(新潟縣) 直江津町에 태어나 1908년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다. 朝鮮新聞 수원지국장, 水原實業會 법률 고문 등도 역임했다. 필자는 이 책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실패했다. 1985년에는 일본 도쿄의 중의원 도서관까지 찾아가 열람을 시도하였으나 "대부중"이라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실물은 보지 못하였지만 1912년이나 1913년 쯤에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華城之影》(화성의 그림자). 이 책은 사케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의 두 번째 저술물이다. 1915년 9월 9일 발행된 것으로, 수원 중심으로 쓰여진 《發展する水原》과 달리, 水原郡, 龍仁郡, 利川郡, 驪州郡 등 수원 주변의 군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1910년은 日·韓이 합병된 해이다. 이것은 日淸·日露의 2대 전역(戰役)의 결과로서 즉 동양 평화의 기초를 확립하여 총독 정치를 편 때문이다. 올해는 그 5주년이 됨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京城에서 始政5周年記念 朝鮮物産供進會가 열리는 바 이 장거는 鷄林(조선 8도를 뜻하는 말)의 실업계로서 경하할 일이다. 우리 수원 유지는 이 사업에 협찬하기 위하여 본회를 설립했다. 기념공진회를 관람코저 하는 내외 인사가 이 호기를 이용하여 적지아니 당지를 관광하고저할 것이 예상되어, 그 예(禮)로서 일반적인 지방현황을 편찬해 모든 분께 드리고저 한다."

외면만 할 수 없는 4권의 일본인 저서

위 글에서 본회란 수원협찬회(水原協贊會)를 말한다. 즉 조선총독부의 강권통치 5년의 성과를 기리기 위해 민간 실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그들이 협찬금을 내서 펴낸 책이다. 책의 크기는 문고판으로 광교산으로 보이는 동양화를 표지에 싣고, 제목인 '華城之影'은 붓으로 쓰여져 있다. 부피는 글과 사진을 합쳐 70쪽이고, 인쇄는 大阪市東區內淡路町1丁

目 31번지 大阪活版所에서 찍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水原》(수원). 이 책 역시 사케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가 쓴 것으로 1923년 10월 3일 水原郡 水原面 南昌洞 180번지 소재 酒井出版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쇄는 두 번째 책인 《華城之影》을 찍은 오사카의 大阪活版所(대표 岡本省三)였다.

이 책은 기간(旣刊)한 책과 달리 수원에 관한 모든 자료를 기록한 총괄서라고 할 만하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 "正祖에 의해 水原이 마련되고나서 천도(遷都)의 논의까지 있었던 시절, 8도의 시청(視聽)은 수원에 집중되었으나, 그 전성기는 순간의 영화에 지나지 않았다. 왕조의 붕괴와 더불어 모처럼의 계획이 허무하게 끝난지 어언 130년, 정도(政道)는 한동안 쇠퇴하고 문운도 퇴폐하니 장려(壯麗)한 건물은 있으되 영화는 꿈만 같다. 그러니 총독 정치에 힘입어 수원은 부동의 기초를 수립함과 동시에 장차 발전할 소질을 확보하였다. 누구이던 팔달산에 올라 관조하면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10리(우리 이수로는 100리에 해당한다)의 옥야(沃野) 황파금풍(黃波金風) 나부끼는 가을, 누가 이 절대(絶大)한 보고 앞에 경탄의 눈동자를 돌리지 않겠는가. 따라서 수원의 장례는 유망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국에서 수원이 첫 번째로 꼽힌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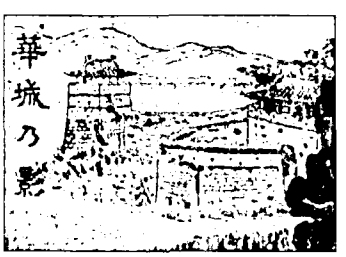
더 말할 것 없는 예찬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지식인이고, 일제 식민지 찬양자 임에 틀림없다. 그의 두 번째 책 《華城之影》에서 강조하였듯이 수원의 발전 근거를 총독 정치에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나름의 현실감이랄까 시대인식에 비추어 본다면 저들끼리의 예찬은 있을 법한 일이다. 다만 일본의 명문대학을 나온 지식인 조차도 한일합방을 동양평화 운운하면서 정당화한 대목은 우리를 격노시키고도 남는다. 이 책은 가로 12㎝, 세로 18㎝ 크기로 수원의 풍물사진과 기사를 합쳐 112쪽에 달한다. 이 책과 만난 것은 1983년 여름으로, 인천도서관에서였다. 서고 한쪽 귀퉁이에 쌓아 둔 책더미 속에서 찾아냈는데 그 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감격하다 못해 황홀할 지경이었다. 그 뒤 《水原》은 필자가 편찬한 《水原商議史》(1986. 2. 15 水原商工會議所), 《水原市史》(1986. 11. 25. 水原文化院)에 인용된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수원사를 다루는 모든 기사에 인용되고 있다.

4. 《生活狀態調査·其一·水原郡》(생활상태조사·그일·수원군). 이 책은 조선총독부가 1929년 9월 17일 발행한 정부 간행물이다. 저자는 조선총독부 촉탁 센쇼에이스케(善生永助)로, 일찍이 《仁川市史》를 집필한 역량있는 저술가였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5층 도서관에서 이 책과 첫 만남을 했을 때 약간 놀란 것은 조선총독부가 조선 전도(全道)의 '생활상태조사'를 하면서 일개 지방 도시에 불과한 수원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었다. 아무튼 이 책은 민간인 저술가가 쓴 책과는 달리, 막강한 행정 조직을 이용한 까닭에 다양한 통계가 비교적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당시의 통계란 단순한 것이어서 오늘날의 통계연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시시콜콜히 조사하고 주석을 단 노력은 돋보인다. 서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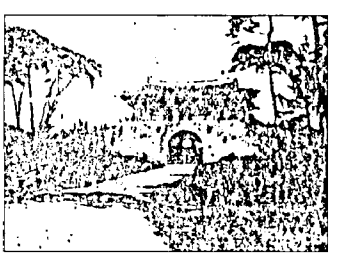
> '본서는 조선에 있어서 각 지방의 경제사정과 생활상태를 밝히기 위하여 촉탁(囑託)인 善生永助에 명하여 조사 중인 生活狀態調査의 제1책으로, 경기도 수원군에 관한 기사 및 사진을 수록한 것이다.'

권위주의로 무장한 조선총독부 다운 자세다. 책의 크기는 세로 20.5cm, 가로 14.5cm로 양장이며 표지는 붉은 색이다. 지질은 모조지, 흑백 사진의 인쇄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인쇄는 京城(서울) 소재 조선인쇄주식회사(朝鮮印刷株式會社)에서 했고, 부피는 본문 256쪽, 사진 56쪽을 합해 312쪽 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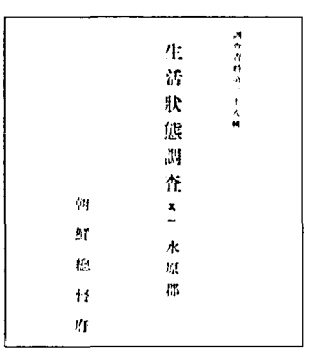
이 책이 수원 관련 자료로 공개되고 나서, 도하 언론사와 향토사학자들이 일제히 인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책에 실려있는 수원의 '풍물사진'은 오늘날 복사되어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만든 책이라는 거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책마저 없었다면 1920년대 일제하의 수원 모습은 짐작만 가능했을 뿐 실제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華城之影》
1915년 일본인 저자 사케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가 펴낸 두 번째 저서이다.



《水原》
1923년 일본인 저술가 사케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가 세 번째로 펴낸 책이다.



《生活狀態調査》
1929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것으로 촉탁 센쇼에이쓰케(善生永助)가 집필했다.

조선 최초의 〈漢城旬報〉와 수원 언론

이번 마당에서는 우리나라 근세 신문의 역사와 노정(路程)의 대강과 일제하에서 소장(消長)하였던 수원지역의 언론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지만 한국언론사(言論史)를 이해하려면 조선 말기에 해당하는 1880년대의 언론 상황부터 짚어 보는 것이 순리일 것 같아 188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漢城旬報〉(한성순보) 얘기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종주국인 중국과의 교린(交隣)을 정치 외교의 기본으로 삼고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금기하는 절대 쇄국주의 국가였다. 당시의 지도계급들은 모화사상(慕華思想)에 심취된 나머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 가는 외부세계의 문물과 정치적 변화를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외세를 배척하는 것이 곧 자존(自尊)의 길인양 여겼다. 아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밤낮 없이 일삼은 것은 당파 싸움과 세도 다툼이었으며 국가가 위태롭거나 말거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말거나, 비기윤가(肥己潤家)에만 열중하였다.

이런 난국을 보다 못해 우국(憂國)의 충정 하나로 고개를 치켜 세운 것이 다름아닌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역인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김옥균(金玉均)을 비롯한 개화파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있은 얼마 뒤 일본수신사(日本修信使)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인물들로 일본에 머물러 있는 동안 조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일본의 개화를 확인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 개화의 원동력이었던 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와의 만남은 조선의 쇄국정치가 얼마나 무모하고 전근대적인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서울에 돌아와 맨 먼저 손댄 것이 다름아닌 신문을 발행하는 일이었다.

일본수신사 로 도일할 때 정사(正使)였던 박영효(朴永孝)가 한성판윤(漢城判尹:서울시장)에 임명되자 한성부 주관으로 신문을 발행하기로 하고, 창간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주유수(廣州留守) 겸 수어영사(守禦營使)로 전임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후임으로 일본수신사 때 부사(副使)였던 김만식(金晩植)이 임명되자 외아문협판(外衙門協辦) 김윤식(金允植)과 협력해 통리아문(統理衙門)에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게 되고, 1883년(고종 20) 10월 1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발행하기에 이르니,

이 신문이 〈漢城旬報〉(한성순보)였다. 신문 형태를 갖춘 한국 최초의 이 신문은 제호 그대로 10일 마다 한번씩 한달에 3회 발행하는 순간(旬刊)이었다.

지면 구성은 관보(官報) 기사를 위주로 하되 그 여백에 내외의 대소 시사문제를 곁들이고, 논설은 인지계발(人智啓發)과 식산장려(殖産奬勵)에 중점을 두었다. 글씨는 한문이었다. 한성순보 창간 당시의 박문국 주요 멤버는 총재 외아문독판(外衙門督辦) 민영목(閔泳穆), 부총재 한성판윤 김만식, 편집 진용은 강 위(姜 瑋), 추백엽(秋柏燁), 박영선(朴泳善), 오용묵(吳容默), 주우남(朱雨南), 오세창(吳世昌), 현영운(玄映運), 정만조(鄭萬朝), 장 박(張 博) 등 쟁쟁한 재사들이었다. 이들은 훗날 한성순보가 〈漢城週報〉(한성주보)로 바뀔 때까지 함께 하였으나 직함은 관청 직급인 주사(主事) 혹은 사사(司事)로 불리웠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신분상으론 신문기자가 아니라 관리였던 것이다. 또 한 사람 신문 제작을 실무적으로 도운 자가 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일본인 이노우에가쿠고로오(井上角五郎)였다. 한성순보는 성격상 관보(官報)가 분명하지만 민간 소식을 함께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참신한 면이 없지 않았다.

아무튼 한성순보의 출현은 신문의 존재 가치와 기능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우리 국민에게 놀라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속보성과 날카로운 비판력 앞에서는 할 말을 잊을 정도였다. 물론 비난과 비판의 소리도 없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수구파는 한성순보를 서교전파(西敎傳播)와 개화당의 앞잡이로 몰아 세우면서 관보를 이용한 민간 여론의 호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華兵犯罪' 보도에 발끈한 李鴻章

호사다마(好事多魔), '큰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 그대로 한성순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그칠 줄 몰랐다. 그 결정판이 1884년 10월 17일 일어난 갑신정변 이후 나타났던 여러 사태들이다. 알려진대로 갑신정변은 온건 개화파인 김옥균(金玉均), 서광범(徐光範), 박영효(朴泳孝) 등의 주도로 단행되었지만 3일 째 되는 날(10. 20) 무장한 1500명의 청군(淸軍)이 개입함으로써 김옥균·박영효를 비롯한 주모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고, 미쳐 도망치지 못했던 홍영식을 비롯한 정변 주도세력들은 청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다. 그래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 일컬으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은 다름아닌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주계급 중심의 개혁을 감행

한 점과 일본을 원조 세력으로 삼는 바람에 청군의 반감을 산 점이었다.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하게 되자 수구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저동(苧洞)의 박문국을 습격했다. 난입한 폭도들은 활자와 인쇄기 등을 때려 부수고, 다른 한편으로 불을 지르는 바람에 한성순보는 정간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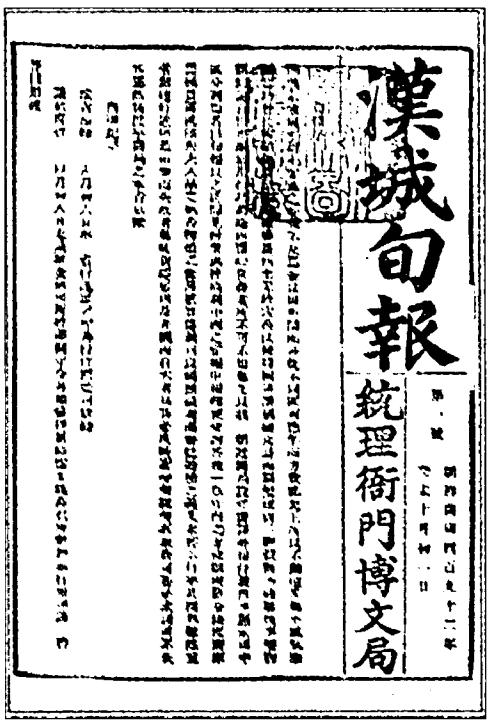
이런 일도 있었다. 1884년 1월 3일자 한성순보 제10호는 '華兵犯罪'(화병범죄)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내용인 즉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병졸들이 광통교(廣通橋) 어느 약국에서 물건을 산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약국 주인에게 위협적인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우리나라의 종주국인데다 갑신정변 때 원군을 보내 개화파를 몰아낸 터라 중국은 물론 중국인들 조차 한국과 한국인을 속국의 무지렁이 정도로 멸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런 판국에 문제의 보도가 나갔으니, 중국이 발끈한 것은 당연하였는지 모른다. 소위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은 다음과 같은 항의 서한을 조선 정부에 보내 왔다.

"본래 한성순보는 관보이다. 관보에는 민보가 수문수록(隨聞隨錄)하는 것과는 다르다. 금반(今般) 기사는 다만 과오로서 말살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

관청에서 일어난 일만을 다루어야할 관보에 민간 소식, 그것도 중국 군인의 비행을 보도한 것은 대중국의 위엄에 흠집을 내려는 악의 찬 망동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홍장의 경고 일언은 솜방망이가 아니었다. 박문국은 외아문 고문이면서 박문국 주재(主宰)인 이노우에가쿠고로오(井上角五郎)로 하여금 일체의 책임을 지게하고 사표를 수리하고 말았다.

개화당 몰락과 함께 〈漢城旬報〉도 끝장

1886년 1월 외아문협관 김윤식은 저동에 있던 박문국을 교동으로 옮기는 일방 정간했던 한성순보의 제호를 〈漢城週報〉(한성주보)로 개제하고 복간했다. 한성주보는 한성순보와 달리 국한문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한문을 모르는 언문(諺文:한글) 독자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또 한성순보는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서 일하는 소위 공직자들에게만 배포되었으나 한성주보는 일반 백성에게도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漢城旬報
統理衙門博文局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 1일 관보(官報) 형식으로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이 신문은 1884년 갑신정변 후 폐간되었다가 1886년 〈한성주보〉로 복간되었지만 개화당의 몰락과 함께 1888년 폐간되고 말았다.

관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정부 기관지이긴 하였으나 언론 불모국인 우리나라에 언론의 새싹을 돋게 하였다는 점, 언문 기사를 실음으로써 국학 보급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개화당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개화의 숨결을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평가 받아 마땅하다. 특히 고종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김윤식의 불굴의 노력, 이노우에의 기술적 지원 등은 한성순보를 있게 한 요인으로 인정할만 하였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이 땅에 신문이라는 언론 매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일본의 속셈이다. 그들은 언론을 국민의 개화와 국가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라기 보다 식민지화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개화를 주도하던 개화당이 몰락하자 자연스럽게 재등장한 수구파는 그 첫 번째 개혁으로 박문국을 없애고 한성주보를 폐간시켜 버렸다. 이 때가 1888년(고종 25)이다. 그들은 박문국과 한성주보의 말살을 현실정치에서의 승리처럼 여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각살우(矯角殺牛)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를 전후해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1894년 2월 15일 동학란을 구실삼아 조선 침략의 마수를 뻗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급기야는 같은 해 6월 갑오경장(甲午更張)을 통해 대원군을 무력화시키면서 고종의 친정체제를 복원하는 등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시작하였다. 또 갑신정변 때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하였던 서재필(徐載弼)이 돌아와 외부고문(外部顧問)으로 취임하게 되고, 독립협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 때 이승만(李承晩), 윤치호(尹致昊), 이상재(李商在), 양홍묵(梁弘默) 등 젊은 우국지사들이 동참하였으며 치욕의 상징이던 모화관(慕華館)과 영은문(迎恩門)을 헐어내고 독립관과 독립문을 세웠다. 뿐인가 1896년 4월 7일 순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함으로써 이 땅에 새로운 '신문시대', 진정한 '언론시대'의 막을 올렸던 것이다. 오늘날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기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암흑기 가시밭 길 걸어온 수원 언론인

1896년 4월 7일 창간한 〈독립신문〉은 순수 민간신문이면서 한글을 전용하고, 내정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점에서 근대 한국 언론의 지평을 연 선구자였다. 그러나 수구당의 갖은 위협과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창간 3년 만에 폐간되고 말았다. 이 때부터 조선의 언론은 군웅이 할거하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1898년(광무 2) 1월 8일 〈협성회주보〉와 주 2회 발행하는 〈경성신문〉이 창간되는데 전자는 이승만(李承晩)을 비롯한 학구파 중심의 것으로 논조가 급진 과격함이 특징이었고, 후자는 윤치소(尹致昭)가 중심이 된 상업계발을 주장하는 일종의 경제지였다. 얼마 후 협성회주보는 〈매일신문〉으로 바뀌었다가 〈데국신문〉으로 개제되고, 경성신문은 〈대한황성신문〉이었다가 〈황성신문〉으로 제호가 바뀌었다.

1899년 1월 24일 황국협회 기관지 〈시사총보〉와 〈상무시보〉가 창간되었으나 자유민권사상에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앞잡이로 낙인 찍혀 오래 가지 못하였다. 중류 이상의 독자를 겨냥한 황성신문은 장지연(張志淵), 박은식(朴殷植), 남궁 억(南宮 檍), 유 근(柳 瑾)등 저명한 필진들이 정론(正論)을 개진하면서 주변의 탄압에 굴하지 않았다. 데국신문도 형극의 험로를 걷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승만이 옥중에서 쓴 논설 '독립정신'은 감동적이었다. 1904년 이승만이 미국으로 탈출하면서 데국신문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민족혼을 부르짖는 논조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무튼 두 신문은 구한말기에 있어서 정신·사상적으로 의지가지 할 데 없는 조선 민중에게 희망의 빛과 소리를 전해 줌으로써 찬사와 지지를 받았다. 1905년 11월 17일 韓日協商條約(한일협상조약)이라는 이름의 乙巳條約(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이, 독립신문 이후 명맥을 이어 오던 민족 신문의 위상도 풍전등화의 꼴이 되고 말았다.

을사조약 이후 〈萬歲報〉 〈京鄕新聞〉 〈國民新報〉 〈大韓新聞〉 〈大韓每日新報〉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신문 홍수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주목 받은 신문은 대

한매일신보였다. 영국인 배 설(裵 說)이 발행을 맡고, 양기택(梁基澤)이 운영을 책임진 이 신문은 발행인이 영국인이었던 탓에 일인들의 사전 검열을 비껴 갈 수 있었다. 동지는 〈대한매일신보〉 외에 〈코리아 데일리뉴스〉 등 3가지 신문을 발행하여 한 때나마 신문계의 왕자로 군림하였다. 그렇다고 민족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06년 1월 6일 친일파 영수인 이용구(李容九), 송병준(宋秉畯) 등이 창간한 〈국민신보〉와 역시 친일파 이완용(李完用) 내각의 기관지로 둔갑한 〈대한신문〉 등은 매국적 논조를 서슴치 않았다.

1909년 6월 2일 대한협회가 〈대한민보〉를 창간하였으나 1910년 8월 22일 경술(庚戌) 국치(國恥)를 맞게 되자, 이틀 동안 '대한'의 두자를 떼어내고 〈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한 후 자진 폐간하였고, 대한매일신보 역시 '대한'이 떨어져 나간 〈매일신보〉로 바뀌면서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도 경술국치 이전까지는 개혁과 수구, 민족지와 친일지가 뒤섞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나 합방 이후부터는 오직 조선총독부 기관지만 남고, 여타 신문들은 강제 폐간되면서 언론 암흑시대로 이어졌다.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빼앗겼던 언론계에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1919년의 3·1운동이었다. 1920년 3월 5일 〈朝鮮日報〉, 4월 1일 〈東亞日報〉가 창간되고, 1921년 2월에는 주간잡지 〈東明〉의 후신인 〈時代日報〉가 발행되었으나 1940년 8월 10일을 기해 조선·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되면서 이 땅에는 식민지 언론만 남고, 민족 언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심야에 돌린 지하신문과 교회신문

억압하면 반발하고, 틀어 막으면 뚫고 나오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상정이다. 기미년 3·1독립운동이 일제에 대항하는 분노의 소산이었듯이, 일제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이른 바 '지하신문'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19년 경성 보성사(普成社)에서 찍어낸 〈朝鮮獨立新聞〉과 그해 8월 안창호(安昌浩)가 미국에서 발행한 〈獨立新聞〉, 그리고 같은 해 10월 재미 교포들이 펴낸 〈新大韓報〉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신문들은 국내에 밀반입 돼 지하에서 보급됐다.

이에 고무된 국내 독립운동가들도 지하신문을 잇따라 내게 되는데 한창 때는 26종이나 발행되었다. 지하신문들은 야심한 틈을 타 애국단, 청년단원이나 부녀회 회원들에 의해 각 가정과 장터에 배달되었기 때문에 신새벽에 신문을 받아 보는 독자들은 긴장감과 함께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무렵 수원에서도 지하신문이 맹위를 떨쳤다. 독립운동가



1920년 4월 1일 창간된 〈동아일보〉 창간사

김세환(金世煥), 이선경(李仙京), 김노적(金露積), 차인재(車仁載), 박선태(朴善泰), 김병갑(金炳甲), 이희경(李喜京), 신용준(申容俊), 윤구섭(尹九燮), 김석호(金錫浩) 등이 기자이면서 배달원으로 활약하다 일경에 붙잡혀 옥고를 치뤘다.

1920년 조선·동아일보가 창간되면서 제도권 신문제도가 확립되고 언론인 단체가 하나 둘씩 생겨나는데 첫 번째 단체가 1921년 1월 27일에 창립된 무명회(無名會)였다. 1922년 7월 25일에는 전국기자연맹이 조직되었는데 수원에서는 동아일보 수원지국의 김병호(金炳浩)와 고용성(高龍成)이 참여하였다. 김병호는 평북 연변 태생으로 수원 부자 이경의(李敬儀)의 둘째 딸과 결혼하면서 수원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당시 동아일보 본사에는 경제부 기자 서 춘(徐 椿)이 있었는데 그도 이경의의 큰 딸과 짝을 맺어 김병호와는 동서지간이었고, 장인되는 이경의는 동아일보에 투자한 주주로써 수원지국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이야말로 동아일보 가족이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동아일보 수원지국은 수원군 일원에서 대중계몽과 항일정신을 북돋우는 순회강연, 소인극, 토론회, 웅변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동아일보에 게재되는 수원발 기사 역시 비판적인 것과 일제를 비난하는 소위 '까는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26년 9월 18일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의 〈時代日報〉를 인수한 이상협(李相協)이 11월 15일자로 〈中外日報〉로 이름을 바꾸어 속간하면서, 한성수(韓聲洙)를 수원지국장 겸 주재기자로 임명하였는데 당시 그의 나이 23세였다. 1927년 2월 15일 서울 YMCA에서 신간회(新幹會)가 창립되면서 이상재(李商在)가 회장에 취임하고, 수원지부장엔 조선일보 기자 변기재(邊基在)가 뽑혔다. 동년 4월 26일에는 동아일보 사옥 낙성식이 서울에서 있었는데 수원의 일꾼 김세환(金世煥)의 주선으로 수원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렇듯 수원인들은 동아일보에 극진한 애정을 표시하였는데 이것은 수원과 동아일보, 동아일보와 수원인 간의 상호관계가 남달랐음을 보여 준 예였다. 한편 조선일보도 수원과 수원인

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언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수원지역 독자들도 조선일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

민중 계도에 앞장선 언론인 단체와 언론인

수원기자동맹은 1931년 1월 24일 팔달문 근처의 영락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짐하게 되는데 이날 선출된 임원은 위원장 김병호(동아일보), 서무 변기재(조선일보), 조사위원 박승주(중외일보)·우성규(조선일보)·박정오(동아일보)였다. 이날 수원기자동맹은 독자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연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는데 동년 2월 7일 계획대로 수원공회당에서 '신춘 경제강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날 연사와 연제는 ◇'조선의 신문' 조선일보 주필 이선근(李瑄根) ◇'조선경제의 진상과 그 대책' 동아일보 주틸 서 춘(徐椿)이었다. 양사가 주필을 연사로 내세운 것으로 보아, 수원 독자에 대한 양사의 평가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는 1931년 7월 여름방학을 맞아 '보나르드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 운동은 1934년까지 줄기차게 지속되었고, 이 운동의 중심에는 수원고농 학생이 있었다. 한편 조선일보는 전국 27개 도시에서 '제1회 조선어강습회'를 개최하므로써 조선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사에 힘 썼는데 이 때도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다.

신문의 생명은 공정 보도에 있다. 따라서 신문기자 역시 거짓없는 보도와 논평을 써야 하지만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도 빼놓을 수 없는 기능 가운데 하나다. 일제의 감시와 박해가 극성을 떨던 그 시절, 수원주재 기자들의 문제제기와 당국의 무사안일을 힐난하는 보도는 매우 날카로웠다. 그 한 예가 중앙 3사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화홍문 중건 촉구 보도였다. 1932년 5월 9일자 〈동아일보〉에 김병호가 쓴 화홍문 중건 기사를 소개하면 이렇다.

> 朝鮮時代的 建物인 華虹門 重建/舊韓國時代 紙貨에 실렸던 것/10년 만에 面目一身
> [水原] 조선 건물계의 대표적인 명물로 구한국시대에 지폐에 까지 올려 세계적으로 이름을 휘날리던 수원 화홍문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임술(壬戌:1922년) 때 큰 물에 한번 그 자취를 잃은 후 오늘날까지 10여 년 동안 황성(荒城)에 빈터만

남긴 채 뜻있는 이들의 감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우리 고장의 고적과 명소는 우리가 보존하자는 분연한 뜻을 가지고, 작년에 수원읍 의원 車載潤씨 외 몇몇 분의 발기로 수원명소보전회를 조직한 후 3000여 원을 거두어 이왕직사무국(李王職事務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곧 작년 가을부터 건축에 착수한 이래 반년 동안의 공사 끝에 10년 만에 다시 면목을 새로이 하여 예전의 아름다운 영자(影姿)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듯 화홍문은 수원 주재 언론인들의 문제 제기로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화강암으로 된 매향교(梅香橋)와 남수문(九澗水)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니, 71년에 걸친 무심한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질 뿐이다.

이 무렵 활동한 기자 가운데는 조선중앙일보 수원지국 기자 최영주(崔泳柱)가 있었다. 그는 동요작가로 '고향의 봄' 가사를 쓴 이원수(李元壽)의 처남이요, 역시 동요 가사 '오빠 생각'을 쓴 최순애(崔順愛)의 오빠였다. 1939년엔 홍길선(洪吉善)이 동아일보 주재기자로 활약하게 되는데 그가 입사하고 나서 수원에선 음악회가 자주 열렸다. 왜냐하면 그가 동경무사시노(武藏野) 음악학교 출신의 음악도였기 때문이다. 최봉수(崔鳳洙)가 동아일보 오산지국장에 임명되고 나서, 이 인(李 仁)이 공자의 이름자인 언덕 구(丘)를 개 구(狗)로 쓴 것과 관련해 유림대표들과 함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바람에 이 인이 공개 사죄한 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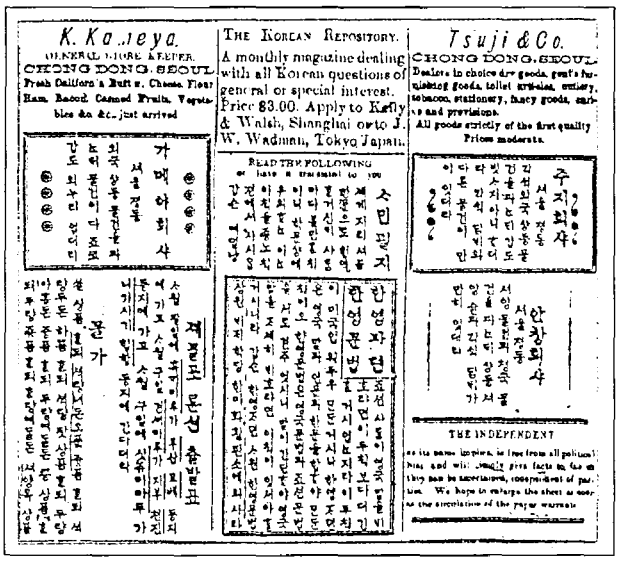
일제 말기인 1942년에는 한성수(韓聲洙)가 조선상공신문 주재기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 신문은 일본어 신문이었다. 그는 광복이 되고나서 언론계를 떠나 90세의 장수를 누렸으나 노후의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1940년 조선·동아가 폐간되고 나서 광복이 될 때까지 수원에는 〈京城日報〉〈朝鮮商工新聞〉〈米肥日報〉 수원지국과 기자가 있었을 뿐인데 이들 신문은 하나 같이 일본어로 된 친일신문이었다. 오직 하나 우리말로 된 신문 〈每日新報〉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였으며 조선인 기자는 조선상공신문의 한성수와 매일신보의 문중현(文仲賢) 두 사람 뿐이었다.

수원인의 언론 사랑과 신문광고

현대는 지식정보화시대이다. 잠자리에 들어 있는 시간을 빼고는 온통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정보 가운데는 광고 정보도 포함된다. 새벽에 배달되는 신문의 절반 쯤은 광고로 채워져 있고, 텔레비젼과 라디오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별의별 광고가 쏟아져 나온다. 뿐만 아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잡지와 지칠 줄 모르는 전단 광고까지 합치면 머리가 어지러워질 지경이다. 그러나 광고를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 그 나름의 소용이 있고, 경제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보탬을 주는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이번 마당에서는 60여 년 전인 일제식민지시대의 신문 광고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1920년 4월 12일자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社告)가 실려있다.

'본보의 제반 준비가 초기(草期)에 속하여 인쇄 부수가 강호제현의 요구에 만족키 불능하고, 각 지국에 발송하는 시간도 따라서 지연되고 있음은 유감이오나 이는 사세(社勢) 부득이한 일이오니 하량하시고, 각기 최근(最近) 접지(接地)되는 지국 또는 분국에 주문하시되 선금을 요함.'

동아일보 창간일이 1920년 4월 1일이었으니까 두서가 없었을 법도 하다. 한데 재미있다 할까 흥미있는 것은 신문 대금을 선납하라는 대목이다. 당시 신문지대는 선불일 때 1개월 구독료가 60전, 우송일 때 75전, 3개월 2원 20전, 6개월 4원 40전, 1년치가 8원 80전이었다. 한편 광고 요금은 5호 활자(본문 활자는 6호) 14자 1행에 1원, 같은 잡보(雜報)란 일 때 2원, 4호 활자 9자 1행 1원 50전, 2호 활자 7자 1행 2원, 게재 위치를 지정할 때 지정료가 매 1행마다 30전, 월정 지정료 매 1행마다 20전이었다. 신문 한달치 구독료가 60전인데 비하면 엄청나게 비쌌다. 모든 신문은 지대(구독료)만 가지고는 경영하기 어렵고, 광고 수익을 통해 이럭저럭 채산을 맞추고 있는 터라 초기 동아일보도 광고 따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독자)들이 신문 구독과 함께 적극적


K. Kajeya.
GENERAL STORE KEEPER.
CHONG DONG, SEOUL.
Fresh California Butter, Cheese, Flour, Ham, Bacon, Canned Fruits, Vegetables &c. &c. just arrived

가메야 회사
서울 정동
외국 상품 판매소

THE KOREAN REPOSITORY.
A monthly magazine dealing with all Korean questions of general or special interest.
Price $3.00. Apply to Kelly & Walsh, Shanghai or to J. W. Wadman, Tokyo Japan.

READ THE FOLLOWING

소민필지

한영문법

Tsuji & Co.
CHONG DONG, SEOUL.
Dealers in choice dry goods, gent's furnishing goods, toilet articles, cutlery, tobacco, stationery, fancy goods, canned and provisions.
All goods strictly of the first quality
Prices moderate.

주지회사
서울 정동

안창회사
서울 정동

THE INDEPENDENT

제물포 본정 출장소

본가

〈한성주보〉에 실린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1886. 2. 22)

인 광고주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민족지인 조선일보(1920년 3월 5일 창간)나 동아일보를 위해 수원 군민과 상공인들이 얼마만큼 광고 게재에 협력하였을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수원인들은 뜻밖으로 적극적이었다. 동아일보가 창간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920년 4월 6일과 7일 자 신문에 각 8건과 12건의 광고를 내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당시 광고료는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닌데도 6일 자에 8건의 광고가 실려 있었다. 즉 龍珠寺를 필두로 東華醫院(權泰東), 水原製紙組合, 水原郡 參事 禹成鉉, 남창리 사는 高永祚와 산루리 사는 金敬夏, 성내에 사는 洪承權, 신풍리 거주 柳夏永.

또 7일 자에는 재목상 車璣衡, 대서업 尹泓植, 水原鐵工組合, 소송대리 李圭冕, 水原天道敎 大敎區一同, 大昌商會를 비롯하여 尹鳳燮, 車尙進, 朴仁榮, 龍雲禧, 林應鎭, 金明月 등 12건의 광고가 게재됐다. 그 뒤에도 크고 작은 창간 축하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이 자체는 수원군민 또는 유지들이 일찍부터 신문과 광고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일제 연간에 도하 신문에 게재된 수원 사업자 또는 기관 유지들의 광고를 보면 순수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적으로 많은 것은 창간 몇돌, 신년 축하 따위의 광고가 많았다. 이 경우 광고 효과 보다는 언론과의 관계 유지 또는 개선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차 간에 무리가 없었다면 마다할 일은 아니었다.

세창양행이 낸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광고

우리나라에 상업광고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86년 2월 22일자 〈한성주보〉에 실린 '덕상 세창양행고백'(德商世昌洋行告白)으로 알려져 있다. 덕상은 독일 상사를 뜻하고, 고백(告白)은 오늘날의 광고(廣告)를 뜻하는 말이다.

덕상 세창양행에서 알림

'저희 세창양행이 조선에서 개업하여 호랑이·수달피·검은 담비·흰 담비·소·말·여우·개 등 여러 가지 가죽과 사람의 머리카락·소·말·돼지의 갈기털, 꼬리·뿔·발톱, 조개와 소라, 담배, 종이, 오배자, 옛 동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독일 상사 세창양행이 조선에서 개업하여 외국에서 자명종 시계, 들여다 보이는 풍경, 뮤직박스, 호박, 유리, 각종 램프, 서양 단추, 각색 서양 작물, 서양 천을 비롯하여 염색할 옷과 선명한 염료, 서양 바늘, 서양 실, 성냥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수입하여 물품의 구색을 맞추어 공정한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 모든 손님과 상인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나 노인이 온다해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 세창양행의 상표를 확인하신다면 거의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자그만치 117년 전의 광고인데도, 별로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광고의 기본인 상품의 다양성, 신용보증, 친절 서비스 정신이 두루 베어 있어서 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들이 광고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던 당시에 서양 상인들은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한껏 자극하기 위해 소위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廣告'로 바뀐 조선시대의 '告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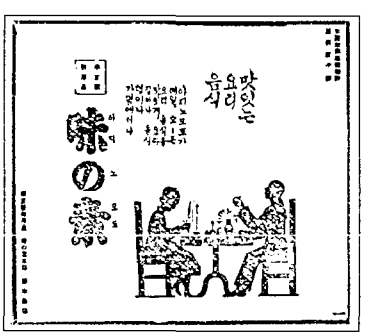
다음은 용어의 선택과 변화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광고를 고백(告白)이라 했는데 이는 사실대로 널리 알린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신문의 영향을 받아 광고(廣告)로 변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1896년 4월 7일자 〈독립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 가메야회사/서울 정동/외국 상등 물건을 파는데 물건이 다 좋고 값도 에누리 없더라. ◇ 사민필지/세계지리서를 한문으로 본역한 것인데 사람마다 볼만한 책이니 학문상에 유의하는 사람은 이 책을 종로 책전에서 사시라/값은 여덜냥. ◇ 주

식회사/서울 정동/각색 외국 상등 물건을 파는데 값도 비싸지 아니하더라. 각색 담배와 다른 물건이 많이 있더라. ◇ 안창회사/서울 정동/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배우려면 이 두 책보다 더 긴한 것이 없는지라. 이 두 책이 미국인 워두우 만든 것이니 한영자전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하여 만든 책이오. 한영문법은 영국문법과 조선문법을 서로 견주었으니 말이 간단하여 영국 말을 자세히 배우려면 이 책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값은 한영자전 사원, 한영문법 삼원, 배재학당 한미활판소에 와 사라.'

너무 자세한 것이 흠일만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광고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간추려 보면 이렇다.

◇ '味の素'(아지노모도)



'味の素'(아지노모도) 광고
(동아일보 1928. 11. 14)

1928년 11월 14일자 〈동아일보〉에 게재. 당시 아지노모도는 미각을 돋구는 절대무비의 조미료로 조선인의 입맛을 바꿔 놓았다. 광고에는 '맛있는 요리/아지노모도가 제일/모든 요리·음식을 맛있게/요리집이나 집이나 음식점이나 가정에서나.' 큰 글씨로 쓴 '味の素' 왼쪽에는 '李王家 御用品'(이왕가 어용품)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왕실에서 쓰는 것이니까 품질과 맛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당시 아지노모도는 뱀 가루로 만들었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사실과 달랐다.

◇ '毒婦丸'(독부환)

1920년 5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로, 부인병 약 광고이다. 이 광고는 여성의 나체를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었다. 광고 문안도 노골적이고 직설적이다. 육체정화, 정신미화라고 강조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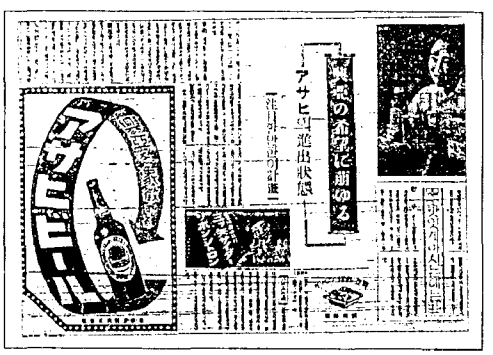
'즉효있는 매독, 임독, 태독, 창독, 피부독, 색흑변통불량 등 각종 독 제거약/미(迷)치 말고 시(試)하라 효력이 유(有).'



'毒婦丸' 광고
(동아일보 1920. 5. 30)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임질·매독이 흔히 있었다. 외도한 남편이 아내에게 병을 옮겨 고통 받는 가정부인이 많았고, 몹쓸 병 때문에 부부 싸움도 꽤나 했었다. 결국 독부환은 이 틈새를 노린 성병약으로, 대단한 인기가 있었고 약효도 컸다고 전한다.

◇ 'アサヒビール'(아사히 맥주)



'アサヒビール'(아사히 맥주) 광고 (동아일보 1940. 1. 22)

이 광고를 보면 광고 그 자체 보다는 〈東亞日報〉의 본문 글씨가 한글에서 일본 '가나'로 바뀐 것이 먼저 눈에 띈다. '아사히'는 한문으로 '朝日'이며 '아침에 떠오르는 해'르는 뜻이다. 아사히 맥주는 지금도, 'キリンビール'(기린 맥주), 'サッポロビール'(삿뽀로 맥주)와 함께 시판되고 있다. 이 광고는 여느 광고와 다르게 아사히 맥주가 '興亞'(흥아)의 상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흥아는 아시아의 융성 발전이란 뜻으로 식민지 침략의 기본 노선 바로 그것이다. 광고와 기사를 합성한 것으로 보아 기획기사라 해야 옳을 듯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성을 띤 광고라고도 할 수 있다.

◇ 수원과 관련된 운송광고

수원과 관련있는 광고도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경성(서울)에 본사를 둔 '京南自動車商會'(경남자동차상회)의 대절(貸切)과 승합(乘合)에 관한 광고를 들 수 있다.



경남자동차상회의 '貸切', '乘合' 광고
(동아일보 1921. 10. 13)

'○본 상회가 사정상 부득이하여 얼마만큼 교통상 불편을 드린 것은 강호제위가 애석히 여기는 바 올시다. ○다시금 전과 같이 경영을 계속하려고 3세의 경남자동차상회는 부활이 되었습니다. ○금후로부터 일제 설비를 완전히 하여 교통의 손실을 보하겠습니다. ○시내에 있어서는 대절의 수응을 하고, 지방에 있어서는 승합으로 수응하여 유감없이 친절과 신속한 절차로 편이를 도모하겠습니다.'

수원체육의 원류는 연무대 '馬上武藝'

우리나라의 근대체육 역사는 길지 않다.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지만 1876년 2월 2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일명 병자수호조약) 이후 열강 제국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 체육교류도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이 보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체육이 없었을까. 아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궁사(弓射) ◇투호(投壺) ◇축국(蹴鞠) ◇격구(擊毬) ◇씨름(脚戱) ◇기사(騎射) ◇수렵(狩獵) ◇추천(鞦韆) ◇풍연(風鳶) ◇죽마(竹馬) ◇가무(歌舞) ◇위기(圍碁) ◇악삭(握槊) ◇저포(樗蒲) ◇석전(石戰) 등 그야말로 근대체육에 버금가는 다양한 종목이 있었다. 또 고려시대에는 숭유호문(崇儒好文)과 문예정치(文藝政治)를 우월시하면서 무예는 경시하였으나 ◇궁술(弓術) ◇창술(槍術) ◇검술(劍術) ◇수박(手搏) ◇원기(猿騎) ◇목희(木戱) ◇기구(氣毬) ◇비연(飛鳶) ◇쌍육(雙六) ◇기사 ◇격구 ◇석진 ◇투호 ◇추천 ◇죽마 등이 일반화 되었는데 이 무렵에 여성들이 격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한편 조선시대에 와서는 임진왜란(1592년)과 병자호란(1635년)을 겪으면서 전시체제가 강화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선조(宣祖) 26년(1593년) 훈련도감(訓練都監)을 두어 5도에서 장정을 뽑아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등의 무예를 가르친 일이었다. 이것도 체육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正祖)가 그 20년(1796)에 화성을 축성하고 나서, 천시하던 무반(武班)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무예 부흥이 시작됐다. 특히 정조는 수원에서의 무예 부흥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1793년 1월 장용영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로 고치고, 같은 해 7월 수원부(水原府)의 마병(馬兵)을 별장대(別壯隊)로 고쳐 부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장용영병의 요패(腰牌) 규정을 마련하여 병사들의 복식 모양을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이 때 수원부의 별장대원들은 지금까지 근위병(近衛兵) 정도로 알고 있다가 허리에 차는 요패가 왕을 지키는 친위대(親衛隊)라는 것을 알고 매우 기세 등등하였다고 한다.

화성은 부국강병의 도장이기도 하였다. 성안에 있는 강무당(講武堂)과 서장대(西將臺), 동장대(東將臺)와 연무대(鍊武臺)에서는 훈련병들이 내뱉는 기합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요란하였고, 성밖에 있는 서둔벌(西屯)과 지금의 조원동인 대유평(大有坪) '진따배기'에서는 군악과 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진따배기는 오늘날 경기도교육청이 자리 잡고 있는 일대의 평퍼짐한 들판인데 이곳에서는 군기를 높이 내걸고 군사훈련을 하였다. 이 무렵 수원에서 성행한 체육은 앞에서 거명한 것 말고도 ◇격봉(擊棒) ◇마상쌍검(馬上雙劍) ◇마상월도(馬上月刀) ◇마상편곤(馬上鞭棍) ◇윤목희(輪木戱) ◇줄다리기 ◇널뛰기 ◇줄타기 ◇격양(擊壤) ◇설마(雪馬) 등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말을 이용해 하는 체육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말은 좁은 공간에서는 다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마상훈련을 하자면 군마(軍馬)가 필요한데 말 사육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데도 유독 수원영(水原營)에서 마상훈련이 성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조선시대의 고속교통수단이었던 역참(驛站)이 수원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의 양재역(良才驛)을 수원 장안문 밖으로 옮긴 것이 영화역(迎華驛)인데 영화역에는 1백필 가까운 말과 수백명의 마부가 상주할 정도로 큰 역참이었다. 따라서 훈련용 병마 공급이 가능했고, 처처에 있는 광활한 공간을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당시 마상무예 가운데 고난도(高難度) 무예로 분류된 '주마입마상'(走馬立馬上)·'좌우칠보'(左右七步)·'마상도립'(馬上倒立)·'마상횡와'(馬上橫臥) 등은 일본과 중국에까지 알려진 자랑거리였다고 한다. 어찌되었거나 조선시대에 수원에서 다양한 무예가 전개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예에 대한 정조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 탓이다.

'체육' 과목 첫 도입자는 선교사 언더우드

그러나 조선시대의 체육은 군사적 측면이 강한 일종의 전략전술적인 훈련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시민과 선수가 두루 즐기는 스포츠와는 개념부터가 달랐다. 그렇다면 근대체육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언제 쯤이었을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강화조약 이후였다. 강화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쇄국(鎖國)의 문호를 열므로써 열강의 근대화 문물과 사상을 받아 들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조약의 내용은 굴욕과 불평등 그 자체였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조선을 자주국가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조선의 종

주국인 청나라를 무력화시키고 마침내는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었다.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듬 해인 1886년에 미국 선교사 H.G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한양에 발을 붙인 그는 재빨리 신식교육기관인 경신학교를 설립하였다. 조선에는 일찍이 예종(睿宗) 때 유교대학격인 국자감(國子監)이 있기는 하였으나 신식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 민초들은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고 경서를 배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에 비하면 선교사 또는 교회가 설립한 신식 학교의 교육 수준은 우리 것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고 다양했다. 경신학교를 세운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교과목 하나를 정하게 되는데 다름아닌 '오락'(娛樂)이었다. 오락시간은 오늘날의 스포츠를 통한 유희(遊戱)의 개념으로 체력을 단련하면서 정신적으로 즐긴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언더우드는 여기에 더하여 1891년에는 제 1교시에 30분 짜리 '체조'(體操) 시간을 마련하였다. 공부도 건강이 있고서야 가능하다는 발상이었다.

조선 최초로 도입된 '오락' 시간

서양인들의 사고와 행동은 한마디로 파격적이었다. 외국 문물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민초들은 "세상에 이럴 수가"라며 경탄했고, 정부 역시 우리의 과거가 전근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았다. 마침내 고종(高宗)은 그 32년(1895) 2월 2일 '교육조서'(敎育詔書)를 공포하기에 이르고, 신교육정책의 근간을 덕육(德育)·체육(體育)·지육(智育)으로 집약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체양(體養)은 동작에 상(常)이 유하여 근려(勤勵)하므로 주(主)하고, 타일(惰逸)을 탐(貪)치 물(勿)하며, 고난을 피(避)치 물(勿)하야 이근(爾筋)을 고(固)케하며, 이골(爾骨)을 건(健)케 하야 염장무병(廉壯無病)한 낙(樂)을 향수(享受)하라."

뜻인 즉 체육에 유념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라는 당부로서, 이 때부터 정부 주도하에 신식 교육기관이 잇따라 설립되고, 교과목에 반드시 체조를 넣도록 하였다. 이 조치야말로 사대적 사상과 봉건적 습속을 타파하는 단초(端初)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근대체육의 시도와 실천의 시발점이 되었다.

1895년에 공포된 고종의 '교육조서'에 근거하여 수원에 세워진 신식 공립학교가 다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 체육과목이 생긴 이래 모든 학교에서는 도수체조가 실시되었다. 사진은 어느 소학교 학생들의 도수체조 장면이다.

아닌 '공립수원소학교'(公立水原小學校)였다. 이 때 다른 4개 지역(한성·강릉·전주·진주)에도 공립소학교가 설립됐다. 공립수원소학교는 처음 수원부 남부면 교동 43번지 즉 오늘날의 향교(鄕校) 자리에서 개교하였으나 얼마 뒤 화성행궁(華城行宮)이 있는 군기동(軍器洞), 즉 오늘날의 신풍동으로 이전하고, 교명을 '수원공립보통학교'로 고쳐 불렀는데 바로 이 학교가 지금의 신풍초등학교이다. 교과목에 체육시간이 편성되어 있어서 남녀 학생들이 체조를 즐긴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당시의 체조시간은 달리기·던지기·씨름 등 매우 기초적인 것이었는데 여기에 풍금 소리를 곁들여 멋스러운 도수체조를 맨 처음 도입한 학교가 한성고등학교로 1910년 4월의 일이다.

이후 각 학교에서 풍금(오르간) 반주에 맞춰 하는 도수체조가 시작됐다. 수원의 삼일여학교(지금의 매향여중·정보산업고)에서도 율동과 무용형식을 가미한 체조를 가르쳤다.

또 한가지 이 무렵부터 시작된 것이 봄·가을에 갖는 '운동회'였다. 운동회를 가장 먼저 가진 학교는 미국인 허치슨이 교사로 있는 한성영어학교로 1896년(건양 원년) 5월 2일 동소문 밖에 있는 삼화평(三化坪)에서 가진 '화류회'(花柳會) 즉 봄나들이 운동회였다. 운동회는 학생 서로 간의 기량을 겨루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교사·학부형이 한데 어울려 하루를 즐기는 축제였다. 운동회에는 으레 학생과 학부모 말고도 소위 지방 또는 지역유지들이 참가해 금일봉을 내고 참관하는 것이 관례였다. 중앙정부가 있는 한성 소재 학교에는 조정의 정승·판서가 임석하고, 지방에서는 군수와 읍·면장이나 경찰서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나, 분명한 것은 학교 운동회야말로 지역축제였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신식 학교에서의 체조가 널리 보급되면서 체조시간은 즐거운 '유희의 장'으로 변해 갔고,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여학교의 체조시간은 발랄한 여성미와 아름다운 율동미가 합성돼 보는 이의 마음까지 즐겁게 했다. 그

러나 체조시간에 체조를 가르치거나 운동화를 가지려면 '운동장'이 필요했다. 당시의 사립학교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웬만한 운동장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수원삼일학교의 경우가 그 한 예였다. 이 학교가 북감리교회(지금의 종로교회)로 이전하고 나서, 1906년 2월 군관인 참위(參尉) 강건식(姜建植)이 체육교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운동장이 없었다. 이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나중석(羅重錫·수원 출신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의 오빠)이 수원 갑부 강석호(姜奭鎬)를 설득해서 매향동 땅 9백평을 삼일학교에 기부하게 했다.

이 땅은 오늘날 삼일중학교 아담스기념관의 앞 마당으로 쓰여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근대체육 보급에 앞장 서자, 민간도 수수방관 하지만은 않았다. 1906년 3월 11일 서울 괴동의 김기정(金基正) 자택에서 현양운(玄暘運)·신봉휴(申鳳休)·한상우(韓相宇) 등의 발기로 대한체육구락부(大韓體育俱樂部)가 발족되고, 같은 해 6월 10일 40여 명이 모여 영도사(永道寺)에서 운동회를 가졌는데 이 운동회가 우리나라 운동회의 효시가 됐다.

이렇듯 체육이 군사훈련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스포츠로 바뀌면서, 민간운동회와 학교운동회가 일반화되고 참여 계층도 다양해졌다. 조정에서는 황제와 황후가 친히 금일봉이나 푸짐한 상품을 내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칙어(勅語)까지 내렸다니, 왕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만 하다.

실제로 1907년 10월 26일 훈련원 광장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관립·공립·사립학교 72개교 선수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 대항 운동회가 열렸다.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였던 이 운동회에는 황태자와 총리대신을 비롯한 대신들, 조선통감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까지 대거 참석하였고, 고종황제는 칙사를 보내 칙어를 읽게 하였다. 홑바지 저고리에 상투를 튼 차림으로 뛰고 달리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겠지만 오늘의 스포츠는 이런 희극과 전력(前歷)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스포츠 수원을 빛낸 체육 선구자들

근대 스포츠가 도입되던 초기와는 달리, 학교체육과 일반의 운동회 등이 일반화 되면서 근대체육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매김을 했다. 미개한 나라와 국민일수록 새로운 문화나 사조(思潮)에 접하였을 때 경계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다.

학교체육은 교육의 한 수단이면서 청소년의 건강과 호연지기(浩然之氣) 함양의 방법으로 굳혀졌고, 민간끼리의 운동회는 대동단결과 인간적 화친의 장으로 활용되었는데 체육이 한 문화영역을 형성하게 되면서 생겨난 것이 체육단체였다.

이미 앞의 마당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양운(玄暘運) 중심의 대한체육구락부(大韓體育俱樂部)가 1906년 3월 11일 서울 괴동 김기정(金基正) 집에서 결성되고, 같은 해 4월 11일 황성기독청년회 운동부(皇城基督青年會 運動部)가 설립되었으나,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1907년 10월 노백린(盧伯麟) 주도하에 대한국민체육회(大韓國民體育會)가 결성돼 주로 병식체조(兵式體操) 보급에 주력했지만 오래가지 못하였고, 1908년 8월 서울 북동 남연계(南宴桂) 집에서 결성된 소년광창체육회(少年光昌體育會)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렇듯 군소 체육단체들이 소장(消長)을 거듭할 무렵인 1909년 10월 24일 체조교사인 조원희(趙瑗熙)·김성집(金聲集)·이기동(李基東) 등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것이 체조연구회(體操研究會)였다. 이 단체는 본부를 보성중학교에 두고, 체육교사들이 체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연구 단체였다.

한일합방이 되기 전인 1910년 2월에는 중동중학교 학생 최성희(崔聖熙)·신완식(申完植)·성 희(成 熙)등이 청강체육부(青强體育部)를 결성하고, 수요일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축구 시합을 가졌는데 아마도 이것이 중동학교를 축구 명문교로 발전시킨 밑거름이 되었음직하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던 체육정책과 민간에 의한 체육활동도, 1910년 8월 22일(國恥日)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면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근본이 바뀌면 새로운 권력을 중심으로 한 대체세력이 대두하게 마련인데 체육

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1918년 2월 18일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朝鮮體育協會)가 결성되고, 1920년 7월 13일엔 고원훈(高元勳)과 김성수(金性洙) 등이 주축이 된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가 발족했다. 이어 1922년 5월에는 조선정구협회(朝鮮庭球協會), 같은 해 7월 11일엔 조선궁술연구회(朝鮮弓術研究會), 1924년 2월 27일에는 관서체육회(關西體育會), 1925년 7월 5일엔 조선농구협회(朝鮮籠球協會), 1927년 11월 27일에는 조선씨름협회가 창설되는 등 다양한 체육단체가 생겨났으나, 일제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안되었다.

삼일학교에서 열린 수원 최초의 축구시합

경성의 중동중학교 학생들이 청강체육부를 결성하고, 정기적으로 축구시합을 하던 무렵 수원에서도 삼일학교 운동장에서 최초의 축구시합이 있었다. 삼일학교 재학생 차선순(車宣舜)·김덕근(金德根)·김원성(金元成)·박윤근(朴胤根)·서기덕(徐基德) 등이 "경성 학생들이 하는 축구를 삼일학교 학생이 못할소냐"면서 축구부를 만들고, 수원 최초의 축구시합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시합 때 쓰여진 공이 7호 공인데 이 공은 5호 공보다 큰 성인용으로 수원에서는 첫선을 보인 것이다.

아무튼 이를 계기로 수원에 축구 열풍이 불게 된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었으나, 마땅한 운동장이 없는 것은 큰 걱정거리였다. 사정이 이쯤되다 보니 너나없이 삼일학교와 화성학원 운동장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두 운동장은 늘 초만원이었다. 열풍이 있는 곳엔 외레 리더가 있게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아닌 차선순이었다. 그는 원래 정구선수로, 경성에서 열린 제1회 전국정구대회에 출전함으로써 중앙 무대에 선 최초의 수원 출신의 국가 대표선수가 됐다. 또 차선순의 형 차철순(車哲舜)은 배제학당에 다녔는데 그는 정구·야구·축구 등 모든 구기에 능통한 만능 선수였다. 차철순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수원의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고, 때론 직접 지도까지 했다. 이 밖에 비슷한 나이 또래이면서 중국과 일본에 유학하였던 김행권(金幸權)이 축구선수로 활약해 수원 축구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수원은 축구 말고도, 야구로도 명성을 떨쳤다. 오늘날 야구는 세계의 스포츠로 자리 매김했지만 왜정 때는 아주 특별한 선수와 보통 이상의 사람들만 즐기는 특수영역의 운동이었다. 그런데 그 야구가 수원에서 성행하고,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원 출신 야구선수들이 있었다니 조금은 놀라운 일이었다.

수원 야구의 대표적인 인물은 단연 석연봉(石連奉)이다. 석연봉은 원래 인천 화수리(花水里) 태생으로 배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재학시절 야구에 심취한 까닭에 사회에 나오자마자 인천부(仁川府) 야구팀 선수로 활약했다. 이 무렵 일제는 수원과 서해안 연안에서 생산되는 양곡과 수산물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수인선(水仁線)을 건설 중이었다. 알다시피 철도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면서 최대의 이권사업인데 일본은 경인·경부선 부설권을 장악한데 이어 지방의 사철(私鐵)까지 독식하고 말았다. 일찍이 수여선을 개통하고, 수인선 부설권을 따낸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가 회사 홍보를 위해 수원에 경동철도야구단을 창설했다. 이 때 석연봉이 경동철도에 의해 스카우트 된 것이다. 당시 석연봉의 인천부 야구팀 월급은 35원이었다. 그런데 경동철도가 일거에 55원을 지급했으니 자리를 옮길만도 하였다. 그는 또래의 친구로 황해도청 야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지성용(池成龍)까지 끌어 들였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경동야구단은 강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명성을 떨친 수원야구와 기라성 같은 선수들

한편 수원에는 배재 출신의 차철순(車哲舜), 보성 출신의 이용성(李容成)과 장세걸(張世傑), 제2고보 출신의 차인순(車仁順)과 방구현(方九鉉), 우체국 직원 이한규(李漢圭), 응큼하다고 해서 너구리란 별명으로 통한 최응환(崔應煥) 등이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들 수원 출신의 선수들이 경동철도야구단에 동참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용성은 그 기량이 뛰어나서 수원 야구하면 이용성, 이용성 하면 수원 야구로 통할만큼 유명했다고 한다. 아무튼 경동야구팀은 전국 최강으로 알려진 철도국팀과 대전해 번번히 승리할만큼 막강했다.

석연봉은 스타답게 무용담도 많았다. 그가 23살 때 인천 우터골 운동장에서 전일본 선발팀과 대전했을 때 2점 짜리 홈런을 날려 4대 0으로 전조선 선발팀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고, 수원 화성학원 운동장에서 홈런을 날리면 야구공이 화홍문 칠간수로 빨려들어가 공을 찾지 못한 일이 한 두번 아니었다고 한다. 참고가 될까 해서 일제 강점기 때 수원에서 있었던 체육계의 행사 이모저모를 일기 형식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일제하 수원체육계 이모저모

◇1921. 8. 8 수원유년동맹군과 오산유년군 축구대회
◇1921. 6. 15 수원상업강습소 유년야구단〈S · W〉와
경성학생유년팀〈S · Y〉팀 야구전
◇1921. 8. 21 올 경성고보축구단과 수원학생친목회 운동부 축구전
◇1922. 9. 26 수원 유군(幼軍) 야구대회
◇1924. 5. 17 수원곡물상 주최 수원시민운동회
◇1925. 5. 24 수원 자전거경기대회
◇1926. 6. 17 수원 기호궁술대회(연무대)
◇1926. 9. 26 수원군 기호궁술대회(남양면)
◇1927. 2. 23 수원 최초의 무도(武道)대회
◇1927. 6. 4 수원소년군 주최 수원야구대회
◇1928. 6. 22 수원청년회 주최 동아일보 수원지국 후원, 수원정구대회
◇1929. 6. 2 제2회 중조선(中朝鮮) 소년축구대회
◇1929. 7. 6 기호청소년정구대회(오산)
◇1930. 11. 14 수원경마대회(水原競馬大會)
◇1931. 1. 30 수원소년동맹 주최 제1회 얼레공대회
◇1932. 9. 16 수원체육회 주최 수원시민 대운동회
◇1934. 6. 27 수원에서 전조선소년야구대회
◇1935. 4. 9 경기도체육회가 남창리에 수원체육관 짓기로 결정
◇1935. 4. 27 수원 야구 리그대회
◇1935. 6. 25 수원시체육관 기공식
◇1935. 9. 22 수원삼일, 삼일여고, 수원유치원 연합운동회
◇1935. 10. 25 수원체육회관 낙성식
◇1936. 5. 13 수원과 안동(安東) 군민 친목운동회
◇1938. 3. 12 수원공설운동장 기공식
◇1939. 5. 16 수원체육회 주최 전수원축구연맹전
◇1940. 5. 2 수원공설운동장 확장공사 착수
◇1940. 6. 14 동아일보 수원지국 후원 수원 단오놀이

부싯돌시대를 마감시킨 수원성냥공장

왜정 때 수원에 큰 규모의 성냥공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설혹 안다해도 그 성냥공장이 어느 정도의 것이며, 그 내력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1910년대 이후부터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조선성냥 업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수원인촌공장(水原燐寸工場)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이 공장은 지금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은 공장이 헐리고, 그 자리에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 차서 그 흔적 조차 찾아 보기 힘들다. 공장 옛터가 어디쯤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장안문에서 광교 쪽으로 가다보면 영화교회까지 채 못간 지점 왼편에 신축 중인 엘지(LG)연수원이 있다. 바로 이 건물 맞은 편에 골목길이 있는데 지금은 복개를 했기 때문에 보통의 아스팔트 길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길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었다. 광교저수지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수원농생고 뒷문 또랑을 거쳐 이곳까지 졸졸 흘렀다. 이 개울을 따라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개울이 왼편으로 꺾이는데 바로 그 지점에 수원성냥공장이 있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는 우봉제(禹鳳濟)씨가 살던 2층 집이, 옛 공장 터 바로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광복이 되고나서 성냥공장이 문을 닫고, 국립양로원이 들어 섰는데 1980년 초 새로 지은 양로원으로 옮겨가면서 주택가로 변해 버렸다.

인촌(燐寸)하니까, 무슨 뜻인가 싶겠지만 왜정 때는 한문으로 쓸 때 나무 꼬챙이에 인을 조금씩 묻혔다해서 인촌이라고 표기했다. 수원성냥공장은 1910년(경술국치)에 세워졌다. 사장은 일본 효오고켄(兵庫縣) 출신의 사가야마(嵯峨山)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성냥 상표는 '이까리'(錨). 이까리란 배를 한군데 묶어 놓기 위해 내리는 닻을 말한다. 공업화가 덜된 시기인데도 이 성냥공장은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대량 생산을 했다. 당시의 성냥은 통성냥과 갑성냥의 두가지였는데 수원성냥공장은 두가지를 전부 생산할 만큼

규모가 컸다. 일제하의 성냥은 통제품이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살 수 없었다. 오직 서울 남대문에 있는 조선성냥공업조합이 전국에서 생산되는 성냥을 통괄해서, 지역별로 배급하는 독점체제였다.

배급전표는 당시의 애국반을 통해 배정되는데 그 배급량이 워낙 적어서 성냥은 아껴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말로는 갑성냥을 나미가다(並型)라 하고, 통성냥을 오가다(大型)라고 했는데 물론 일본 말이다.

성냥을 처음 들여온 사람은 개화승 李東仁

이쯤에서 성냥의 내력과 조선시대의 성냥 역사를 알아 보기로 한다. 성냥은 1827년 영국의 J·워커가 염소산 칼륨과 황화안티몬을 발화연소제로 쓴 마찰 성냥을 고안한 것이 최초였다. 1830년 이후 발화연소제로 황린을 사용한 마찰성냥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제조되어 실용되었으며, 1945년에는 A·슈로테에 의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적린 성냥이 개발되었다. 그후 1948년 독일인 P·뵈크거가 안전 성냥을 발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성냥이 처음 들어온 것은 언제이며, 최초로 들고 온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냥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80년이다. 쇄국정치가 한창이던 시기인데다 공업화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당시 부싯돌을 쓰고 있었다. 부싯돌이란 강철 조각을 차돌에다 마찰시켜 그곳에서 발생하는 불꽃을 말린 쑥에다 점화시켜 불씨를 얻는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성냥이 생산돼 시판되기 전까지 부싯돌을 썼다. 부싯돌 보다 조금 발달한 것이, 소나무를 엷게 깎아 말린 뒤 그 끝 부분에 황을 찍어 말린 꼬챙이었다. 꼬챙이를 집집마다 소중히 간수하고 있는 화로 불씨에 접근시켜 불을 내 썼으니, 부싯돌 보다는 진일보한 채화방법이었다.

그러면 그 귀한 성냥을 처음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온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 해 전에 KBS 1에서 방영한 대하사극 〈찬란한 여명〉에 나오는 개화승(開化僧) 이동인(李東仁)이 바로 장본인이다. 이동인은 1880년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을 따라 일본에 갔다 오는 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냥을 들고 들어왔다. 그러나 이동인이 가지고 들어온 성냥은 우리 기술로 개발되지 못하고, 1910년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사업가들이 성냥공장을 세웠다.

조선에서 맨처음 세워진 성냥공장은 인천 조선인촌공장(朝鮮燐寸工場)이었다. 그 뒤를 이어 군산(群山)·수원(水原)·영등포(永登浦)·마산(馬山)·부산(釜山)에 차례로 공장이 섰는데 모든 성냥공장은 철저하게 일본인들이 독점·독식했다. 조선인에게는 성냥공장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술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따라서 공장의 핵심 인물은 전부 일본인이었고, 조선인들은 기껏해야 현장에서 궂은 일이나 하는 노무직 뿐이었다. 수원성냥공장만 하더라도 사장 이하 간부는 모두 일본인 일색이었고, 주로 조원동과 정자동에 사는 주민들이 일당 노무자로 일했다.

금값 만큼이나 비쌌던 성냥

당시 조선의 성냥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고로(古老)를 찾아 나섰는데 먼저번 마당에서 수원 우시장에 관해 증언해 주었던 이상래(李相來)옹이, 성냥이 금값이던 바로 그 시절에 서울 소재 조선성냥공업조합의 수원성냥공장 창고 담당으로 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필자 자신도 어지간히 놀랐다.

그는 수원성냥공장의 이모저모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공장 소속이 아니라, 조합 소속이었기 때문에 생산 쪽 보다는 공급 쪽에 전통했다. 그가 알고 있는 당시의 성냥 유통은 이러했다. 국내에 있는 성냥공장에서 생산되는 성냥은 모두 성냥조합에 보고된다. 상품별 생산량이 보고되면 조합은 전국을 대상으로 물량 배정을 한다. 시·도 뿐 아니라, 읍·면에까지 배당량이 할당되면 각지의 배급 성냥 상인들이 도내의 시·군·읍·면의 배급소에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이상래(李相來)씨는 그들이 가져 오는 전표 내용대로, 짝으로 된 성냥 상자를 출고시켜 주면 됐다. 당시는 말이 출고지, 검품까지 했다고 한다. 그가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반품되고, 그가 '합격'해야 입고됐다. 화물자동차가 귀한 때라, 근동지역에서는 우마차를 끌고 와 실어갔는데 소달구지의 경우 45짝에서 50짝까지 실었다. 먼 지방이나, 일본으로 갈 때는 우마차로 수원역이나 서울까지 옮겨 열차에 실어 보냈다. 성냥은 완전 통제품이라, 민간에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암거래 성냥이 나돌 수밖에 없었다. 암거래 성냥은 공장에 드나드는 사람 손에 의해 빼돌린 것이다. 가끔 장터나 구멍가게에서는 성냥개비 따로, 딱지 종이 따로인 짓박 성냥을 팔곤했는데 이것 역시 생산과정에서 생긴 불량품을 재간 좋은 인부들이 슬쩍한 것들이다.

이 알갱이 성냥은 성냥 개비가 둘 또는 세 개씩 붙은 쌍둥이가 많아서, 쌍둥이 성냥이라고도 하였다. 이토록 귀한 물건이다 보니 값도 비쌌다. 성냥전문가 최도학(崔度鶴)씨에 따르면 1940년대의 성냥 1통 값이 쌀 1되 값과 맞먹었다니, 여간 호된 값이 아니었다. 또 1929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생활실태조사》에는 '안전 일포'(安全 1包) 값이 4전이었다고 적혀있다. 아무튼 나라 안에서 유명하다 못해 부러움을 한몸에 샀던 수원성냥공장은 지금 온데간데 없으나, 우리 고장의 상공업계를 위해 큰 몫을 다했다는 것만은 기억해 둘 만한 일이다. 참고로 당시 수원 성냥산업과 관계되는 일부 기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1940년 3월 수원상공주식회사(水原商工株式會社)가 설립 되었는데 물품 판매분야에서 성냥을 주상품으로 꼽았다.

◇ 같은 해 7월에는 성냥 값을 소위 적정가격 보편화시책이란 말로, 통제가격제도를 강화하였다.

◇ 1941년 10월 수원읍에 거주하는 도매업자들이 수원인촌 제2차 조합(水原燐寸第2次組合)을 창립하고, 팔달제함공장(八達製函工場)이 가지고 있었던 성냥 유목(柚木) 제조 설비를 수원인촌공장이 인수하였다.

멋쟁이 산실, 수원 양복점 이야기

인간의 생활 기본이 의·식·주(衣·食·住)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잘났건 못났건 인간은 입는 옷과 먹는 양식과 사는 집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의(衣), 즉 옷을 주제로 삼았다. 우리 속담에 '옷 잘입어 미운 사람 없고, 헐벗어 이쁜 사람 없다' '옷은 날개요, 밥이 분이다'라고 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옷을 잘 입으면 인물이 훨씬 돋보인다는 뜻이다.

옷도 옷나름이고, 종류도 종류 나름이라, 한마디로 옷은 이런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서는 양복(洋服)을 주제로 삼고자 한다. 그것도 조선시대 이후 일제하의 수원읍내 양복점과 경영인·기술자·옷감·옷값·모양 등 이모저모에 관해서 말이다. 그러나 양복에 관해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양복 역사를 먼저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복을 입은 사람, 즉 양복을 맨처음 들여 온 사람은 다름아닌 1881년을 전후해서 조선수신사(朝鮮修信使) 또는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옥균(金玉均), 서광범(徐光範), 유길준(兪吉濬), 홍영식(洪英植), 윤치호(尹致昊) 등 개화파 인사들이다. 그들은 일본에서 일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양복을 사입고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양에서 비롯된 양복을 조선으로 들여 온 장본인이 그들이었으니 양복문화의 선구자 임에 틀림없고, 개화문명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입었다해서 '개화복'이라고도 불렀다. 그로부터 한참 뒤인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일어나자, 정부는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여러가지 제도를 개혁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손댄 것이 다름아닌 복제 개혁이었다. 1896년(고종 33년) 4월 7일 칙령 제78호로 '육군복장 규칙'을 재정하여 옛 군복을 없애고, 구미식 복장을 입게 하였다.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는 칙령 제14호로 '문관 복장 규칙'을, 뒤이어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制式)을 칙령 제15호로 정하여 구미식 관복으로 바꾸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양복은 군복이었다. 이후 고종황비(高宗皇

妃)인 엄비(嚴妃)가 양장에 모자와 양산을 쓰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배재중학교와 숙명여학교의 교복이 양복으로 바뀌고, 점진적으로 민간에 까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화된 인사들이 양복을 사입고 들어온 때로 따지면 올해가 122년, 조선 정부가 관복을 양복으로 정한 때로 따지면 103년 째가 된다.

31개의 수원읍내 양복점

광복되기 3년 전인 1942년 수원읍내에는 31개의 양복점이 있었다. 후일의 참고가 될까 해서 양복점 상호와 위치, 업주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邑商會(매산동) 吉浦大作 ◇太西洋服店(매산동) 崔相熙 ◇榮光洋服店(매산동) 李起英 ◇朝日洋服店(매산동) 車炳起 ◇大衆洋服店(매산동) 權英均 ◇昶秀洋服店(매산동) 姜畢成 ◇鮮一洋服店(중동) 金長慶 ◇寬興洋服店(팔달로 3가) 高漢昌 ◇水朝洋服店(팔달로 3가) 金善滿 ◇八達洋服店(팔달로 2가) 朴昌根 ◇普信洋服店(팔달로 2가) 朴八龍 ◇鮮光洋服店(팔달로 1가) 金顯哲 ◇世信洋服店(팔달로 1가) 池公淳 ◇築地洋服店(신풍동) 築地 守 ◇喜多村洋服店(신풍동) 喜男村毅 ◇南興洋服店(매산동) 韓南洙 ◇朝光洋服店(매산동) 田炳浩 ◇世榮洋服店(매산동) 金靑山 ◇平本商店(매산동) 趙昌鎬 ◇양복점(팔달로 1가) 李敏石 ◇中央洋服店(팔달로 2가) 張駿植 ◇高華洋服店(팔달로 3가) 李在星 ◇啓昌洋服店(팔달로 3가) 金健榮 ◇華信洋服店(팔달로 3가) 李應先 ◇昌信洋服店(팔달로 3가) 韓允澤 ◇共榮洋服店(팔달로 3가) 李 烜 ◇旭日洋服店(팔달로 2가) 宋炳星 ◇大丸洋服店(팔달로 2가) 朴淳錫 ◇新豊洋服店(팔달로 1가) 金在基 ◇長安洋服店(장안동) 鄭成模 ◇竹井洋服店(인계동) 韓甲星.

이로 미루어 보면 매산로와 팔달로에 양복점이 밀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일 오래된 양복점은 일본인 요시우라다이사쿠(吉浦大作)가 경영한 파상회로 지금의 매산로 구길 아카데미극장에서 역전 우체국 쪽으로 내려가다 중국음식점 송무반점(松茂飯店) 채 못간 오른 편에 있었다. 창업연도는 자세치 않으나, 일본인들이 수원에 이주하여 자리를 잡아가던 1930년대로 추정되는데 일본인들이 경영한 양복점은 3군데 뿐이었다.



1929년에 찍은 가미사키(神崎) 오복점과 대륙고무, 화흥원 중화요리집(팔달로 2가) 간판이 보이는데 그 앞을 기모노를 입은 여인들이 걷고 있다. 오복점(呉服店)은 일본 옷을 파는 가게로 일본 말로 '고후꾸야'라고 부른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양복점이 중동에 자리 잡은 선일양복점으로, 김장경(金長慶)이 주인이었다. 이 양복점은 지금의 중동 사거리 중동파출소에서 대각선 맞은 편, 조흥은행 수원지점 건너편 코너에 있는 부춘당한약방 자리에 있었다. 이 건물은 수원 부자이면서 한량으로 이름난 김행권(金幸權) 것으로 양철 지붕의 가게였다. 그런데 당시(1941년) 선일양복점에서 견습공과 직공으로 일한 두 사람이 생존해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수원양복사(水原洋服史)의 산 증인이다. 한 사람은 태안 태생으로 16세 때 서울 백양양복점에서 견습을 거쳐 선일에 입사한 박제은(朴齊殷 · 86)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원 토박이로 15세 때 견습공으로 선일에 입사한 김창성(金昌成 · 83)씨다. 양복 견습은 박씨가 먼저였지만, 선일 입사는 김씨가 먼저였다. 본디 선일의 창업주는 장경(長慶)의 형 장덕(長德)이었다. 형이 죽고 나서 아우가 주인이 된 것이다. 한편 견습공으로 있었던 창성씨의 형 김창진(金昌鎭)도 선일에서 장경(長慶)과 같이 있었던 터라, 두 집안의 형제가 같은 양복점에서 일한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당시 창성씨는 숯불을 피워 무쇠로 된 개량 다리미에 담아내는 등 선배 직공의 심부름을 하면서 양복 짓는 일을 배웠지만, 박제은씨는 재봉을 하는 직공이었다.

아무려나 왜정 말기의 양복 값은 얼마나 했을까. 그들의 말에 따르면 45원에서 50원 안팎이었다고 한다. 보통 월급장이 월급이 30원 쯤이었으니까 양복 한벌을 지어 입으려면 한달 반치 월급을 써야했다. 그러니 양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 떵떵거리며 사는 일본인이나, 돈푼께나 있다는 부자가 아니면 엄두를 못냈다.

양복 옷감도 흔치 않았다. 최고로 치는 옷감이 사지였고, 보통은 무명이거나 대마직이

었다. 빛깔은 국방색이 대부분이고, 곤색이나 검정아니면 흰색이었다. 옷 모양은 생존의 모택동(毛澤東)이 자주 입던 국방복이거나, 쯔메에리(목닫이)였다. 양복 직공은 5년 쯤 기술을 배워야 직공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월급은 40원에서 50원 안팎이었다니까 일반 월급장이 보다 많이 받았다.

선일양복점과 파상회는 쌍벽을 이루었지만, 경영상의 마찰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는 전기가 귀해서 양복을 지울 때 호아불(난포불)을 썼기 때문에 늘 코속이 검었고, 또 옷을 짓다보면 콧노래를 부르게되어, 양복 직공 가운데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수원양복상업조합과 옷감 배급

일제는 소위 태평양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물자가 딸리자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양복 옷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수원읍내의 양복점이 전부 배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소위 경기도양복상조합 수원지부로부터 옷감 배급을 받은 곳은 17개 점포 뿐이고, 나머니 14개 점포는 배급 받지 못했다. 기술이 부족하고 영세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배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부장은 파상회 주인 요시우라다이사쿠(吉浦大作)로 모든 업자들은 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배급 받은 옷감은 곧 돈이었다. 배급 옷감으로 옷을 지워 입으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었기 때문이다. 옷감은 양복으로 짓지 않고 그냥 쌀과 바꾸기도 했다. 그런 옷감은 혼수감으로 쓰여졌다.

당시 수원읍내에서 가장 양복을 잘 입은 멋쟁이는 김행권(金幸權)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추종을 불허했다고 한다. 김행권은 선일양복점이 자기 건물인지라, 양복점에 매일 나타나 대형 거울 앞에서 한껏 멋을 냈다니, 그 멋스러움을 짐작할만 하다.

박제은씨는 얼마전까지 미복양복점을 경영했고, 김창성씨는 1980년대 초반까지, 남문에서 금성라사를 경영하였다. 그들의 양복 경력은 40년이 넘는다. 아무튼 수원은 멋을 아는 신사들이, 양복의 혜택을 한껏 누릴 수 있었던 멋쟁이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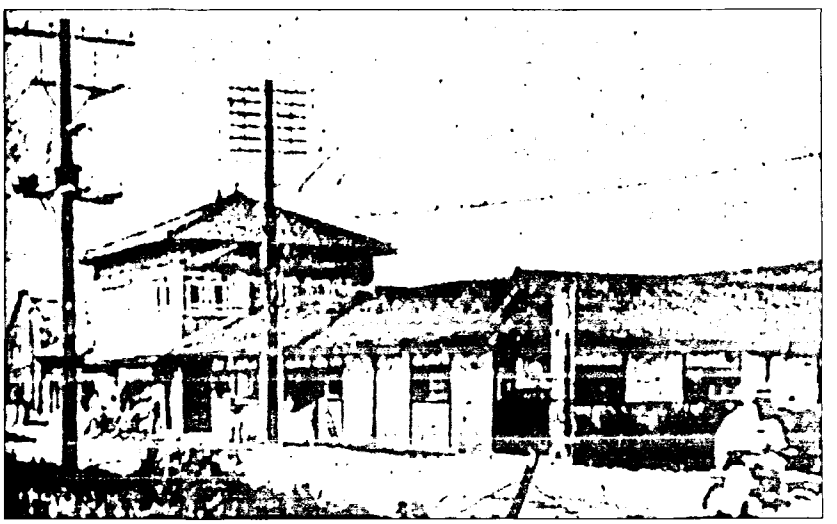
조선 8도 으뜸가는 '酒鄕水原'

이번 마당에서는 '수원의 술' 얘기를 해 볼까 한다. 술의 역사는 간단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길고 복잡하다. 또 술의 역사를 정확하게 밝혀 주는 문헌이나 기록도 많지 않다. 여러 갈래로 전해지고 있는 구전과 자료들에 따르면 심산(深山)의 원숭이가 갈라진 나무가지와 움푹 패인 웅덩이에 저장해 둔 과일이 발효된 것을 인간이 우연히 먹어 본 결과 맛이 희얀한 것을 알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술을 인류발달사 측면에서 보면 수렵시대에는 과실을 원료로 하는 과실주, 유목시대에는 가축의 젖을 원료로 하는 유주(乳酒), 농경시대에 들어와선 곡류를 원료로 하는 곡주가 생겨났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시기는 BC 3000년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술 역사는 이 보다 훨씬 뒤져서 3천년 쯤 되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는 능신 연못가에서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를 술로 유혹한다. 해모수의 행위에 분노한 하백은 술 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해모수의 신성성이 입증되자, 주연을 베풀어 모두 취하게 한 후 해모수와 유화를 가죽 수레에 태운다. 분리되어 있던 남녀는 수레 안에서 일체화가 되었다가 새어드는 햇빛을 타고 해모수가 승천함으로써 분리되었다. 그 때 낳은 아기가 주몽이다.'

이 설화는 술이 신화시대 때부터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 일설에는 우리나라의 술은 기자시대(箕子時代)에 중국에서 전해졌다고도 하고, 일찍이 단군시대부터 있어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우리나라의 술은 탁주, 약주, 소주로 대별한다. 탁주를 막걸리라고 하는 것은 '마구 걸렀다' 해서 생겨난 것이다. 약주는 예전에 청주라 했는데 약주로 개명한 것은 특별히 약으로 쓰여졌다 해서가 아니다. 영조(英祖 · 1724~1776) 때 농정가로, 《種藷譜》(종서보)를 저술한 서유거(徐有渠)가 썩 좋은 술을 빚었다해서 생겨난 이름이다. 그의 아호가 약봉


1934년 당시의 수원주조주식회사 전경

(藥峯)인데다, 그가 산 곳이 약현(지금의 서울 중림동)이라, '약봉이 만든 술' 또는 '약현에서 만든 술'이, 약주(藥酒)로 변한 것이다. 소주는 과실이나 곡물로 술을 빚은 다음 달여서 만드는 증류수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다. 일설에는 인도나 이집트에서 약 3천년 전에 만들었다 하고, 동양에서는 약 7백년 전에 중국 원나라 때 처음 만들어 감로(甘露)라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소주가 등장한 것은 고려 충열왕(忠烈王 · 1274~1308)시대로 당시에는 약으로 쓰여졌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일반이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10년 9월 30일 일본인 야마구찌 세이(山口 精)가 펴낸《朝鮮産業誌》중권에 보면 '수원군에는 대규모 주조장(酒造場)은 없고, 대부분이 집안의 한쪽 구석에서 수시로 제조하여 장날에 내다 팔거나, 자가용으로 썼다'라고 적혀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규모가 큰 양조장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작음작음한 술빚는 집은 업청나게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허가없이 술을 빚은 소위 자가 주조장이 많았던 곳은 대구로 7450개 소, 평양 3962개 소, 해주 2907개 소, 그 다음이 수원으로 영변과 함께 2573개 소였다.

당시의 수원군 호수가 1만 5천 352호였으니까 6호당 1호가 술을 빚은 셈이 된다. 그것도 전국에서 4 번째로 술 빚는 집이 많았으니까 가위 '술의 고장' 즉 주향(酒鄕)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대구 막걸리' '수원 약주'라고 일컬어 왔다. 특히 수원 가까이 있는 '안성 약주'는 유명했다.

그렇다면 당시에 주조장을 경영한 고로가 있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 나섰는데 광복 이후 막걸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임주백(林柱伯)씨 소개로, 이재근(李在根옹 · 작고)을 만날 수 있었다. 첫 인상이 너무 깨끗하고 곱사스러워서, 참말로 미수(米壽 · 88세)를 눈앞에 둔 분인가 싶을 정도였다.

지금부터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옹의 증언을 곁들여 가며 '수원의 술' 얘기를

하고자 한다. 이옹은 29세 때인 1940년 부친 명서(明西)씨의 뒤를 이어, 원천양조장(당시 수원군 태장면 원천동 183번지 소재)을 경영하였다. 종업원은 5명으로 하루에 2섬씩 한달에 60섬의 쌀로, 주로 막걸리와 약주를 만들었다. 원천 막걸리는 그 품질이 뛰어나 주류품평회에서 해마다 1등을 차지했는데 하두 1등 상을 독차지하니까, 세무서장으로부터 더러 양보하라는 권유까지 받을 정도였다. 이옹은 좋은 술을 빚는 기술을 다른 양조장에서 배워 직원들에게 전수시키는 등 술 빚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

최근 수년 동안 쌀 생산이 늘어 나면서, 막걸리를 쌀로 빚고 있지만 몇해 전만해도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를 원료로 쓴 때가 있었다. 그러나 왜정 때는 식량 배급을 할만큼 시량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양조용 쌀만은 전쟁 말기까지 배급을 줬다고 한다.

일제가 막걸리 원료인 쌀 배급을 계속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술을 '군수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이 술을 마시고, 용맹을 되찾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었다. 하지만 원천양조장의 경우 특별히 군부에 납품한 기억은 없다고 하였다.

술은 만들어 내기만 하면 주류조합이 지정한 도매업자가 몽땅 가져가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팔았다. 술 값은 약주 한되에 60전, 막걸리는 20전이었다. 이옹의 말로는 이문은 많지 않았지만 판로는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도 현금이었다니, 양조업계는 그런대로 재미를 본 셈이다.

수원지방 주조장의 빛과 그림자

이옹의 말에 따르면 1940년 당시의 수원군내 양조장은 읍내(시내)에 5개 소, 읍밖(시외)에 4개 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 많던 양조장이 30년 사이에 모두 없어진 것이다. 1942년 수원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수원상공인명록(水原商工人名錄)에 보면 규모가 큰 것으로 분류된 주조장은 3개 소 뿐이다.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 합자회사 수인주조장(水仁酒造場)으로, 1907년 4월 수원군 고색동에 세워졌다. 주로 탁주·소주·약주를 생산 시판하였으며 창업자는 박건유(朴健裕)였고, 아들 정환(庭煥)이 뒤를 이었다.

오늘날에는 박건유의 손자인 박지원(朴志遠)씨가 그 맥을 잇고 있다. 박정환은 수원상공회의소 제5대(1964-1967) 상임위원을 지냈고, 박지원은 7대(1970-1973) 의원을 역임하므로써 세습 의원이 됐다. 1929년 3월 수원읍 매산리에 수원양조주식회사(水原醸造株式會

社)가 설립됐는데 대표는 홍사안(洪思安)이었다. 훗날 홍사영(洪思英)으로 이어지는데 〈水原商工人名錄〉에는 양규룡(梁奎龍)이 대표로 기록되어 있다. 양규룡은 수원상공회의소 임의단체 시절에 초대(1946-1947) 부회장을, 홍사극(洪思克)은 공법인 제2대(1957-1960) 때 감사를 지냈다.

이 양조장에서는 주로 탁주와 소주를 생산했는데 생산량은 연간 4900석이었다. 홍사안은 수원주조조합장과 수원곡자제조조합의 감사도 역임했다. 또 하나 수원주조주식회사(水原酒造株式會社)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일본인 것이라 하고, 상표는 '華虹鶴'(화홍학)이었다.

다음이 한필호주조장(韓弼浩酒造場·설립년도 불명)이다. 성호동(城湖洞·지금의 오산시)에 위치한 이 양조장은 연간 5천석의 막걸리와 약주를 생산했다. 대표 한필호는 당시 수원지방의 유력자로 중추원 의관, 지위군 북면장, 오산금융조합장, 수원고자제조조합장, 수원주조조합장, 조선곡자회사 취체역 등을 역임하는 등 양조업자 보다는 사회 유지로 행세한 인물이다.

수원 막걸리 맛은 원천의 물맛 때문

그런데 수원지방의 막걸리나 약주 맛이 좋았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원료인 쌀과 물이 좋았던 탓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이 쌀을 '곡량도'(穀良都)라고 했는데 주로 오산에서 생산됐다. 1931년 경기농회는 관계 기관들이 곡량도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자, 일본 대장성(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 양조시험장에 보내, 품질시험을 받았는데 매우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근(李在根)옹은 "원천 막걸리가 장안의 인기를 끌었던 것은 쌀도 쌀이지만 원천의 물이 좋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 이옹 말마따나 막걸리는 99%가 물이고 보면 물맛이 술맛을 좌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주류품평회가 열린 것은 1917년 서울에서 였고, 수원에서 처음 품평회가 열린 것은 그 보다 한참 뒤인 1927년이었다. 품평회에는 장안의 양조장에서 생산한 각종 술이 출품되는데 그 분위기는 축제 그것이었다고 한다. 술을 빚는 곳이 많으면 술집도 많았을 터이다. 옛날의 술집은 대개가 주막 형태의 선술집이었다. 수원읍내에서 밥과 술을 함께 판 음식점만 해도 82군데나 됐다. 그러나 이것은 옥호 유무와 관계없

이 허가를 받아 영업한 곳이고, 허가없이 술을 판 은근자 집까지 합치면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선술집의 술안주는 김치였으며 그나마도 없으면 왕소금만 내놓는 대포집도 적지 않았다.

술은 신명과 흥과 멋을 돋운다. 마시기에 따라서는 힘도 되고 약도 된다.


1934년 당시의 한필호주조장 전경

유교에서는 예절의 하나로 쳐서 주도(酒道)가 생겼으나, 불교에서는 금기로 쳤다. 술은 길흉화복을 상징한다. 또 제물로도 쓴다. 현실도피와 풍류로 치부되고, 서양에서는 생명과 불멸성으로 상징된다. 중국인들이 맹세할 때 서로의 피를 술에 타 마시는 거나, 크리스트교의 성찬식에 크리스트의 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신의 집으로의 입문(入門)을 뜻한다. 술은 일상생활에서 해방감을 주고, 쌓인 감정을 씻어내는 기분 전환의 역할도 한다. 그러나 과음하면 해가 되는 단점도 있다. 아무려나 수원은 물과 쌀이 좋아 명주(名酒)를 만들어낸 술의 고향이자, 풍류의 고장이었다. 지금은 그 멋과 풍류가 오간데 없으니 아타까울 뿐이다.

冶匠의 원조, 수원 대장간 이야기

인간생활과 떨레야 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쇠(鐵)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금속제품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쇠로 만든 것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현대에 오면서 비철금속 또는 경금속 등이 개발되어 철로 만든 제품이 적어졌지만, 일제 때만해도 웬만한 물건은 모두 쇠로 만들었다. 이번 마당에서는 일상에 필요한 쇠붙이나, 농기구, 간단한 기계부품 등을 만들어 내던 철공소 얘기를 나누어 보기로 한다.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첨단기계가 도입돼 짧은 시간에 정교한 물건을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옛날의 대장간은 생산성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지금과 비교되지 않았다. 지금은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나 가야 옛날 본을 딴 대장간을 볼 수 있을 만큼 대장간이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그렇다면 옛날 대장간은 대저 어떤 모습이었을까.

대장간은 으레 풀무를 차려 놓고 알탄이나 코크스 등의 열로 쇠를 달구어, 각종 연장을 만들었다. 풀무는 손풀무와 발풀무 두가지가 있었다. 대장간에서 쓰는 기구는 풀무말고도 모루·정·메(앞메와 옆메)·집게·대갈마치·숫돌 등이 필수적이었다. 대장간은 부락마다 있었다지만 부락이 아주 작거나, 오지 마을에는 대장간이 없었다.

이런 곳에는 떠돌이 대장장이가 순회하면서 연모를 벼려 주고, 간단한 것은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메와 집게 하나로 벌겋게 달군 쇠덩어리를 두들겨서 낫이며, 도끼·쇠스랑·칼·호미 등을 만들어 낸 그 솜씨란 신기(神技)에 가깝다고 할만 했다.

수원에 대장간이 생겨난 것은 언제쯤일까. 이 수수께기를 풀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내로라하는 고로(古老)들 조차 대장간의 소장사(消長史)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분명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華城城役儀軌》(화성성역의궤) 두 번째 권이었다.

화성성역의궤는 화성(華城)을 쌓을 때의 시말(始末)을 세세히 기록한 문헌으로, 그 정확성과 사실성은 참으로 놀랍다. 여기에 보면 '야장'(冶匠)항이 있다. 야장이란 대장장이를 말한다. 화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 1794년이고, 축성을 끝낸 것이 1796년이니까, 올해로

써 207년 째가 되는데 그 당시 수원에 대장장이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대장장이가 있었다는 것은 '대장간'이 있었다는 또 다른 확증이 된다. 참고로 삼기 위해 야장에 관한 기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성 축성 때 동원된 야장(대장장이)은 모두 83명이었다. 이 가운데 박덕긍(朴德恆) 등 63명은 서울(漢陽)에서 차출되고, 최장천(崔長天) 등 20명은 수원에서 뽑힌 일급 대장장이었다.

일제 때 수원읍 대장간은 10개 소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목수(木手)·석수(石手)·이장(泥匠)·와벽장(瓦壁匠) 등은 나라 안 팔도에서 뽑아 올렸는데 유독 대장장이만은 한양과 수원 두곳에서만 뽑은 점이다. 뿐 아니라, 수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석수 642명, 목수 335명, 미장이 2985명, 기와구이 150명에 비하면 대장장이는 그 수가 너무 적다. 그 이유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인데다 당시만 하더라도 쇠붙이 수요가 많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려나 화성 쌓기에는 나라 안에서 내로라하는 대장장이들이 총동원된 셈인데 그들이 성 쌓기를 끝내고 수원에 정착했다면 필시 이 고장의 대장 기술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옛 일은 그렇다치고, 일제하의 대장간 실태는 어떻하였을까, 역시 해당 기록이 눈에 띠지 않았다. 그래도, 도움을 준 것은 1942년 수원상공회의소가 펴낸 《水原商工人名錄》(수원상공인명록)이었다. 여기에 보면 당시 수원에는 10개의 철공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철공소명과 대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京南鐵工所(매산동·金東勳) ◇朴松鐵工所(매산동·朴松雲) ◇本町鐵工所(교동·金貴山) ◇滿助工業社(중동·金志漢) ◇大垣工業社(중동·李一奉) ◇華城鐵工所(팔달로·庾壽乭) ◇수선소(북수동·金用元) ◇수선소(매향동·梁貴星) ◇水原鐵工所(영동·崔熙榮) ◇盛實鐵工所(영동·朴盛實) ◇수선소(지동·金性俊) ◇西本鐵工所(중동·西本市之進).

이 가운데서 일본인이 경영한 것은 니시모토(西本) 철공소 하나 뿐이었다. 그런데 이 10개 철공소 가운데서 오늘날 후손이 세습한 철공소는 오직 한군데 밖에 없다. 즉 당시


1920년대의 전형적인 우리나라 대장간 모습. 세워 놓은 소달구지 바퀴가 낯익다.

의 '본정철공소'가 그것이다. 본정철공소의 창업자는 김귀산(金貴山)으로, 1927년 3월에 창업했다. 그는 광복(1945년)을 거쳐 자유당 때인 1957년까지 30년 동안 이 철공소를 지켰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1920년 전후의 우리나라 철공소는 대장간이었다. 김귀산도 그 시절에는 대장간 주인이면서, 대장장이었다. 김귀산이 타계하고 나서 그의 아들 김성근(金聖根)씨가 선대의 가업을 잇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군수산업체로 지정된 삼광공업사(三光工業社)이다.

목탄차 개조에 힘쓴 金貴山

혼마찌철공소(本町鐵工所)는 지금의 수원극장 맞은 쪽 중동과 교동이 맞닿는 실개천 위에 있었다. 오늘날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삼광빌딩(양다방 등 입주)이 로타리에 위치해 있고, 그 옆으로 대한극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있지만 70여 년 전만해도 이곳은 메치는 소리와 쇠를 달구는 불꽃 열기로 후끈거리는 대장간이었다. 여기서 김귀산은 주로,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던 우마차 수레 바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호미나 낫을 만드는 대장간 보다는 한 차원 규모가 큰 철공소였다. 나무 바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쇠테를 만들어 씌우게 되는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우선 불에 달군 철판을 메로 때리고 펴서 쇠테를 만들고, 그 테를 이글대는 볏짚불 위에 올려 놓아 벌겋게 달군다. 이 쇠테를 나무 바퀴에 끼우게 되는데 그 솜씨가 여간 아니었다. 빨갛게 달군 쇠테를 나무 바퀴에 씌으면 나무 바퀴는 탈 수밖에 없다. 이때 잽싸게 이모저모를 조율하고나서, 얼른 찬물 속에 던지면 타던 나무는 더 이상 타지 않게 되고, 쇠테는 단단해진다. 이 쇠테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 졌던지, 나무 바퀴가

다 절단나도 쇠테 만은 여전 했다고 한다. 김귀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왜정 말기에 휘발류가 귀해지자, 휘발유 자동차를 목탄차(木炭車)로 개량하게 되는데 이 때 김귀산은 목탄차 개조에 앞장 섰다. 특별히 전문적인 학문을 한 것도 아닌데 오랜 경륜과 체험을 통해 수원에서는 최초의 목탄차를 만들었다고 한다. 적재함 한쪽에 목탄로를 설치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엔진 캬브레타까지 배관을 통해 송출하면 스타팅을 돌려 점화시킨다. 푸더덕 거리며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자동차가 움직였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겠지만, 목탄차는 현대에서 원시로 되돌아간 느낌마져 줬다. 그나마 가스 충전이 제대로 안되면 언덕이나, 가파른 길을 오르다가 멈추기 일쑤였다.

오늘날 홍수를 이루고 있는 마이카시대에 견주어 보면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이런 인연 탓인지, 아니면 부친의 장인정신의 영향을 받았음인지, 혈육의 한 사람인 아들 김성근씨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거쳐 오늘날에는 방산(防産)에 참여하고 있으니, 대견한 일이다. 그건데 왜정 때의 수원철공업계는 사회적 지위가 단단했던 것 같다.

그 증거의 하나가 1920년 4월 7일자 〈동아일보〉에 창간 축하 광고를 낸 것을 들 수 있다. '水原城內 南水里 水原鐵工組合'으로 되어 있는 이 광고는 성안의 유지 또는 상회와 함께 게재되어 있다. 민족지 창간에 즈음하여 광고를 낼 정도였다면 그들의 사회 인식이 남달았음을 알 수 있다. 또 1936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에는 '水原南門外 華城鐵工所 主 庾壽乭'의 광고가 실려 있는데 화성철공소야말로, 당시로서는 수원에서 규모가 제일 컸다고 한다. 왜정 말기(1942년)에는 수원철공조합이 수원철가공조합(水原鐵加工組合)으로 개편되면서, 일본인 요시모토다이키치(吉本大吉)가 조합장을 지냈다. 무쇠 덩어리를 한 자루의 메와 집게로 떡 주무르듯한 옛 장인들은 지금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그 맥과 정신만은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찍습니다" 수원사진관 이모저모

수원시 매향동 버스 정류장에서 광주(廣州) 가는 좌석 버스를 타고, 풍덕내를 거쳐 대지고개를 넘으면 얼마 안가서 용인 땅 능원리에 다다른다. 한길가에 서 있는 포은(圃隱) 정몽주묘소(鄭夢周墓所) 입구 푯말을 끼고 안쪽으로 접어들어 고불고불한 아스팔트 길을 따라가면 왼쪽에 포은 묘소가 있고, 바로 앞쪽에 멋스러운 건물 한채가 눈에 띈다. 필자가 이곳까지 찾아간 것은 이 집의 주인 김동휘(金東輝)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김동휘씨는 웬만한 수원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써 수원 종로에서 보구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다 1981년에 은퇴한 원로 의사이기도 하지만, 1966년 예총 경기도지부 수원지구회장에 취임한 이래, 1972년 안익승(安益承)씨에게 예총 수원지부장 직을 물려 줄 때까지 만 6년 동안 수원 예총을 지켜온 수원 예술계의 원로이다.

그는 1918년 7월 1일 생으로 올해 85세이다. 그는 이곳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한국등잔박물관'을 지은지 오래다. 이 박물관은 개인박물관 치고는 꽤 큰 편이며, 그 모양이 화성(華城) 동문(蒼龍門)에 위치한 봉수대(烽燧臺) 이미지를 살려 매우 특이하다. 그가 등잔박물관을 짓게 된 데에는 그 나름의 사연이 있는데 사실은 퍽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등잔을 수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에는 등잔 전문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등잔 수도 엄청나다. 결국 그는 민족의 애환이 서린 등잔의 역사와 실체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사재를 털어 등잔박물관을 세운 것이다.

필자 역시 1960년대에 예총 경기도지부 사무국장을 지낸데다, 1980년대에 예총 문인협회 경기도지부장을 역임한 터라. 소원한 처지가 아니다. 아무튼 필자가 선생을 찾아 간 까닭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왜정 때 수원의 병원 실태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생이 예술사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시 왜정 때의 수원 사진계 이모저모를 들어 보기 위해서 였다.

사진이란 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γ선·전자선 등의 작용에 의해서 감광층(感光層:건판이나 필름) 위에 물체의 반영구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1920년대의 혼례식 기념사진. 오늘날의 결혼기념 사진에 비하면 촌스러워 보이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은 자금도 진한 추억거리로 남아 있다.

LJM 다게르(1787-1851)에 의해 발명된 은판사진이,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발명품으로 인정받고 나서 맨 처음 찍은 것은 풍경사진이었다. 이 때부터 따지면 사진이 처음 선보인지 올해로서 164년 째가 된다. 풍경사진이 선을 보인 얼마 후에 초상사진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1851년 영국의 F·S 아처(1813-1857)가 습판사진술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다게르가 발명한 사진술이나, W. 탈보드의 종이 인화법 보다 훨씬 노출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또한 음화에서 양화로 인화하는 과정도 간략하여 사진 표현상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시작된 사진 기술이 1세기를 거치는 동안 사진 예술이 여러 단계와 경향으로 발전되고, 마침내는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오늘날의 사진으로 정착한 것이다. 문헌상으로 한국에 사진이 처음 들어 온 것은 1884년으로 지운영(池運泳)이 일본에서 사진술을 배워 지금의 서울 마동에 사진관을 차린 것이 효시로 되어있다.

청·일전쟁(1894-1895) 이후 일본인들의 조선 출입이 잦아지면서, 일본인들의 사진관이 나라 안 여기저기에 생겨났는데 이 시절 고종(高宗)의 시종이면서 영친왕(英親王)의 서예 스승이던 서화가 김규진(金圭鎭)이 석정동(石井洞)에 사진관을 차렸는데 이것이 영업 사진관의 효시였다.

수원에 처음 사진관이 생겨난 때는 언제이며 가장 먼저 사진관을 차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유감스럽게도 이 궁금증을 풀어 줄 문헌이나 기록은 없다. 그래서 쪼가리 기록들을 뒤진 끝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사진관을 찾아 낼 수 있었다.

1915년 9월 수원 거주 일본인인 저술가 사카이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가 펴낸 《華城之影》이란 조그만 책자에 2개의 사진관 광고가 나온다. 책 말미에 국조저명실업가 안내(國朝著名實業家 案內)라는 제호가 붙은 광고란에 50개 업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속에,


사진 도입기인 1880년대에 세워진 서울의 사진관 모습, 초가지붕 밑에 사진관 간판과 함께 견본사진이 나 붙어 있고, 문앞에 가지런히 서 있는 어린이들 모습이 순진해 보인다.

'水原城 本町 1丁目 美術寫眞館 水原寫眞館 舘主 寺尾正一'가 들어 있다. 本町 1丁目은 지금의 중동이고, 관주 데라오쇼오이찌는 일본인이다. 다른 하나는 '水原南大門外 美術寫眞 森山榮吉'. 남대문 밖이라는 것은 남문 밖을 말하니까 지금의 영동시장 입구 쯤 일 것이고, 관주 모리야마에이키치는 역시 일본인이다. 1915년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지 5년 뒤인데 어느새 일본인들이 수원에 1개도 아닌 2개의 사진관을 차렸으니, 그 재빠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수원은 그들로부터 비싼 돈을 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의 소비시장으로 평가 받은 셈이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1928년 1월 3일자 〈東亞日報〉 근하신년 광고에 모리야마사진관(森山寫眞館) 광고만 나오고, 수원사진관 광고가 눈에 띠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원사진관은 폐업했음이 분명하다.

사업 기반이 단단했던 '팔달사진관'

그 뒤 1936년 1월 20일자 〈東亞日報〉 신년 광고에 실린 것이 '八達寫眞館 電話 二 四番'이다. 팔달사진관은 1939년 1월 3일자 동아일보에도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를 통해 업주가 安吉洙·安龍植·安健鎬·成百烋로 밝혀졌다. 팔달사진관은 아마 수원에서 이름도 있고, 장사도 잘 되었던지 1940년 1월 4일자 동아일보에도 광고를 내고 있다. 이 때의 업주는 安龍植·安健鎬·安龍順·李義敬·安吉洙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安씨 형제이거나 친척들이 공동으로 경영한 것 같은데 동아일보에 거의 해마다 광고를 낸 것을 보면 경영기반이 단단했던 것 같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2년 11월 1일에 수원상공회의소가 발행한 《水原商工人名錄》(수원상공인명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6개의 사진관이 나온다. △

研美寫眞館(매산로 2가 29) 鄭萬成 △ 華虹寫眞館(팔달로 2가 39) 金福萬 △ 高山寫眞館(팔달로 2가 40) 崔壽吉 △ 愛光寫眞館(팔달로 1가 61) 李又福 △ タカラ屋(다카라야·남창동 22) 渡辺マサヲ △ 八達寫眞館(남창동 138) 安吉洙.

훨씬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졌으나 개업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사진관이 고참이고, 어느 사진관이 햇내기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일관되게 광고를 낸 것이 팔달사진관이고 보면 아마 이 사진관이 원조가 아니겠는가 싶다. 김동휘씨도 9살 때(1927) 기억으로, 지금의 남문 옆 신한은행 근처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진관이 었었으며, 위에서 말한 화홍사진관과 팔달사진관은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있다고 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팔달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아도, 사진의 추억은 길다

그 때나 지금이나 영업용 사진은 사진사가 연출을 하고, 고객이 잔뜩 긴장한 가운데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대개의 사진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런데 당시의 사진 값은 얼마나 했는지 궁금해서, 몇몇 원로들에게 물어 보았지만 값이 얼마인지를 기억하는 이는 없고, 비쌌다는 말과 함께 요새 돈으로 한판에 3만원이나 5만원 쯤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하였다.

필자의 기억으로도 사진을 찍는 일은 대단한 행사였다. 우선 사진관으로 갈라치면 온 가족이 성장을 해야하고, 사진관에 들어서서 촬영을 할 때까지, 긴장이 계속되었던 생각이 지금도 남아 있다. 뿐인가, 학교 졸업식 사진을 찍는 날이면 대단한 법석이었다. 키 순서대로 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사진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포즈가 재미있어서 낄낄대며 웃다가 선생한테 얻어 맞는 녀석이 한 둘이 아니었다.

아무튼 왜정 말엽의 수원읍 인구래야 2747세대에 1만 3767명 밖에 안되었는데 6개의 사진관이 있었다는 것은 수원의 사진문화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영향 탓인지 수원에는 예술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이 일찍부터 있었고, 영업용 사진관과 사진사도 많았다. 흔히 '인생은 짧고, 남는 것은 사진 밖에 없다' 고들 말한다. 그래서 사진을 찍게 마련이고, 사진을 통해 추억은 살아나는 것이리라.

'바다의 신'이 준 수원 소금 이야기

이번 마당에서는 짭짤한 소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고, 여타 수원군 지역이 화성군으로 개편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원군은 소금 고장이었다. 서해에 연해 있는 남양만을 중심으로 펼쳐진 염전에서는 양질의 소금이 대량으로 생산됐고, 그 질이 좋아 특산품으로 인정 받았다. 이곳 사람들은 이 고장을 '어염식수'라고 자랑했다.

어염식수란 풍부한 물고기와 맛좋은 소금, 깨끗한 물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소금 만드는 법은 논처럼 점토로 바닥을 굳힌 천지(淺地)를 만들어 한쪽 끝에서부터 햇볕과 바람으로 농축된 바닷물을 순차적으로 옮겨, 마지막 결정지(結晶地)에서 제품으로서의 소금을 얻는 천일염(天日鹽)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차차 잊혀가는 염전에 관한 낱말도 꽤 있었다. 천일염을 다른 말로 '볕소금'이라했고,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 때 바닷물을 거르기 위해 땅바닥을 다지고 가장자리를 넓고 길게 둘러 막은 장치를 '섯동'이라 하며, 소금 굽는 가마를 '소금가마', 바다의 짠물에 열을 가해 졸여서 소금을 만드는 일을 '소금구이', 물속의 소금기를 재는 뜬 저울 즉 염도기를 '소금기재개', 바닷물을 가두기 위해 논이나 밭처럼 두렁을 막는 곳을 '소금밭' 또는 '염밭', 소금기가 내돋아서 엉기며 말라 붙은 것을 '소금버캐', 어떤 물건에 소금 기운이 배거나 내솟아 허옇게 된 것을 '소금쩍', 소금 밭에서 처음으로 모래를 걸러 낸 물을 '초물'이라 하였다.

천일염을 생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는 토기에 바닷 물을 넣어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원시적 토기제염법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바닷 물을 1차 증발시켜 농축된 함수(鹹水) 즉 짠물을 끓여 소금을 얻는 방식이 개발되었지만 대량의 연료가 소비되는 데다 생산성이 높지 않았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야 제방을 쌓아 염전을 조성하는 오늘날의 천일 염전 방식이 도입됐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천일염 역사는 조선 말기로 볼 수 있으나, 보다 본격적인 제염법이

도입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제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다. 우리나라에 천일 염밭(鹽田)이 도입된 것은 1908년(隆熙 2년)으로, 인천의 주안염전이 효시였다. 당시 조선총독부 기록에 보면 주안·소래·남동·군자 등지에 1948정보에 달하는 관영 염전이 있었고, 연간 9천 985만 1000톤을 생산한 것으로 되어있다. 염전이 가장 많았던 곳은 당시의 부천군으로 무려 34개 소나 됐다. 남양만 근처에 염전이 생긴 것은 이보다 한참 뒤인 1910년대 후반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다. 1934년 경기도가 발행한 《商工水産統計》(상공수산통계)에 보면 수원군의 경우, 1930년 당시 266명의 제염업자가 있었고, 소금을 굽는 가마가 125였다.

염밭 면적은 10만 9660평이고, 연간 생산규모는 408만 2960 근이며 돈으로 3만 6337원어치였다. 1934년에는 업자 213명, 종업원 456명, 제조장수 99개 소, 가마수 99개, 염전면적이 17만 6779평으로 388만 8700근, 4만 232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다. 당시의 산업구조나 생산으로 미뤄 볼 때 결코 얕잡아 볼 대상이 아니었다. 수원군의 소금 생산은 인천 지방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지만 입지적 조건과 자연환경이 뛰어나서, 기대 이상의 경제성과를 거두었다.

살아있는 염부장 裵文吾 옹의 증언

그렇다면 일제치하의 염밭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거기에 얽힌 일화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그 시절 염밭에서 일한 엽부를 찾아 내야만 했다. 벌써 해방이 된지도 58년이나 되고, 당시 염전 가운데 일부만이 남아 있는 터라, 산 증인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화성군의회 의원을 지낸 최학현(崔學炫)씨 소개로, 화성군 남양면 신남 2리에서 몇 대 째 살고 있는 배문오(裵文吾·82세)옹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나이에 비해 건강상태가 괜찮아 보였고, 술은 통 마시지 못하지만 담배는 꽤나 즐기는 편이었다.

배옹을 만난 곳은 조암의 조그마한 다방이었다. 그는 동네 가까이 있는 매호동 염전의 염부장으로 일하였다. 당시 염부장은 자격시험을 치뤘는데 그는 주안염전에서 실사한 시험에 합격돼 염부장이 됐다. 매호동 염전은 10정보였는데, 동네 사람 이항묵이 7정보를 차지하고, 이훈용 등 수인이 3정보의 지분을 가진 동업 염전이었다. 그는 17살에 장가를 들었고, 염부장으로 일할 때가 1940년 스무살 때였다. 그는 주안 염전에서 배운 기술을 인부들에게 전수하고,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과 셋째가 광복 후 염전에서 일했다니까 삼부자 염부집이라 할만하다.

염전 일은 1년 농사나 다른 것이 없다. 정월 보름에 염전에 나가면 10월에야 끝마무리를 하게 된다. 농사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데 반해, 염전 일은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니까 더 고됐다. 당시의 소금은 철저한 전매품이었다. 늘 주재원이 돌아다니면서 소금 재고를 감시했다. 당시 소금 값은 호되게 비쌌다. 소금은 60kg 단위로 가마니에 담는데 시중 가격이 쌀 대두 한말 값과 같았지만, 소금 생산은 비교적 순조러워서 늘 재고가 있었다고 한다.

염부와 주재원은 한통 속의 공모자

생산량 가운데 3할은 공출하고, 7할은 재고로 남겨두도록 했기 때문에 염전 주인은 소금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변통이 어려웠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암거래였다. 그는 소금 암거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 주었다.

"현금이 없어 쩔쩔매는 주인의 부탁으로 가끔 소금을 내다 팔지 않으면 안되었다. 소금은 워낙 무거워서 황소 등에 3가마 밖에 못 실었다. 야밤에 싣고 나가 찻길 옆에 있는 주막집에 감추어 두면 팔탄면 근방에 사는 행상들이 찾아와 사갔다. 들키지만 않으면 이것만큼 짭짤한 재미도 없으련만 세상에 완전한 속임수란 없었다.

어느날 배씨는 신참 주재원에게 들키고 말았다. 주재원들은 구렁이가 대여섯 마리나 들어 있는 엉큼한 자들이라, 염전 주인을 협박하고, 배씨를 경찰에 넘기겠다며 위협했다. 평소에 식량과 땔감 심지어는 자전거까지 얻어 타던 그들인데도 안면 몰수하고 대어드는 데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그 속을 염부장 배씨가 모를리 없다. 결국 협상 끝에 뇌물을 주고 받게 되고,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런 일은 어느 염전에서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창고에 남아도는 소금을 몰래 팔아 먹는 염전 주인과 암거래를 막는 주재원은 공생관계였기 때문이다. 소금 행상들의 지하 거래도 눈물겨웠다. 웬만한 장정도 들기 힘든 60kg 짜리 소금가마를 여인들이 머리에 이고 지고 해서, 동네방네에 팔면 곱장이 장사가 됐기 때문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주로 남양에서 나온 소금은 발안장에서 거래됐는데 대여섯번만 성공하면 한번 쯤 벌금을 물어도

돈이 남았으니까 억척 여인들이 눈독을 들일만 하였다. 소금 장수 여인들은 이렇게 번돈으로 식솔을 먹여 살리고, 자식 공부까지 시켰으니 과연 인고를 낙삼아 산 한 많은 여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7월 장마가 들면 염전은 쉰다. 쉬고 싶어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어서 애간장을 태우며 날이 개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염전과 비는 상극이다. 비가 오면 애써 모아 두었던 염밭의 함수가 맹탕이 되고, 다된 소금도 빗물에 씻겨 내려간다. 이런 경우를 두고 '남양사람 헛일했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장마가 들면 염부장의 일은 더 바빠진다. 염밭이 터지지 않을까, 창고에 물이 차서 소금이 못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 밤낮 없이 염전을 헤메야 하고, 잠도 염막에서 잔다. 불안하기는 염부들도 마찬가지였다. 멀쩡이 놀리고 월급 주는 것이 아까워서, 염전 주인은 염부장 더러 감원하라고 성화를 부리는데 그 화살이 다름아닌 자신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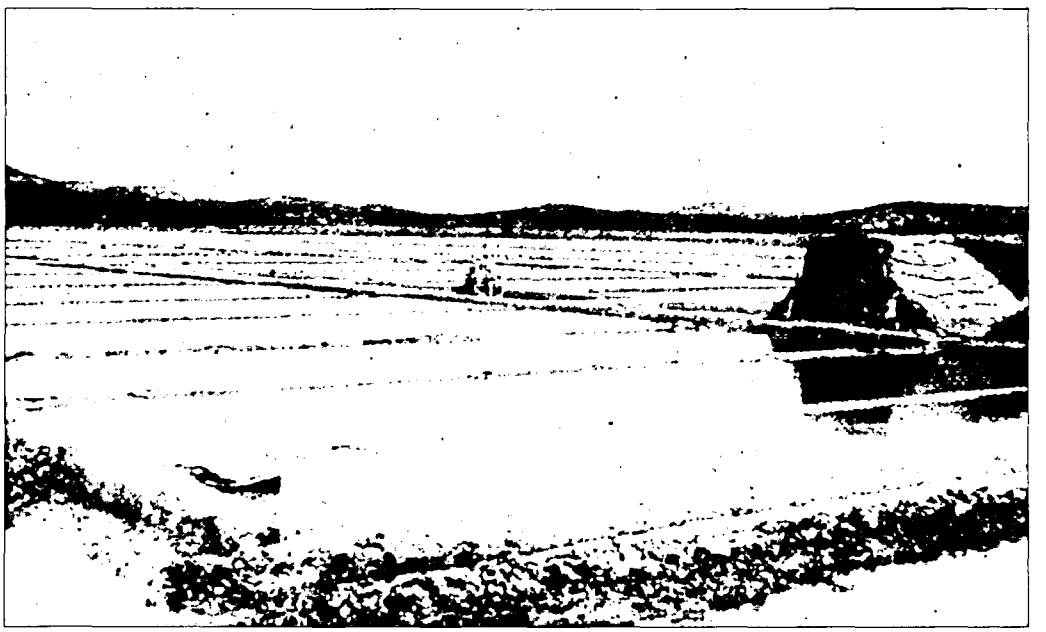
염부장 배씨는 이럴 때 너무 딱해서 제비 뽑기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의 무자비한 '명퇴' 바람에 비하면 애교가 있었다.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일광과 바람에 말리면 소금은 나오게 마련이지만, 과정 하나하나의 노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들었다. 때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여자들도 썼다고 한다. 저수지의 짠물을 염밭으로 끌어 올리는 물수레(水車)를 돌리게 하고, 소금을 가마니에 담는 일도 시켰다. 시정이 아주 어려울 때는 서울마포형무소의 모범수들까지 끌어다 염밭 일을 시킨 적도 있었다고 한다.

"부쟁이 고기라도 구워먹었나"

아무리 호된 일도 대가가 넉넉하면 힘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염부들이 바로 그러했다. 매호동 염전의 경우 많을 때 10명, 적을 때 4-5명의 염부를 썼는데 이들은 사흘 일하면 쌀 대두 한말 값을 받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보다 수입이 많았다.

따라서 한번 염부가 되면 평생 염부로 지냈다고 한다. 염부도 염부나름으로, 소금을 구워내는 소위 '염봇'의 염부는 고생깨나 했던 모양이다. 여기서 말하는 염봇이란 용어는 지금도 남양지방에서 공공연히 쓰여지고 있는데 국어사전은 물론 다른 참고서에도 나와



1920년대의 수원군 마도면 소재 석교리조합 염전의 모습. 지금은 논으로 바뀌어 옛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말은 이 지방의 사투리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이 아니고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정당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바닷물을 퍼올려 웅덩이에 담아 대충 수분을 증발시킨 뒤, 토분(土盆)이나 철분(鐵盆)에 쏟아 붓고 불을 때 바닷물을 졸여 소금을 만드는 것을 남양이나 조암 사람들은 염봇이라고 말한다. 이 방법은 주로 간척지가 없는 동해지방에서 발달하였으나, 서해안에서도 이용됐다. 하지만 염봇의 생산성은 천일염전에 비할 것이 못되었다.

우선 화목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생산량이 적었다. 그래도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서 일하는 염부들은 무엇보다도 불을 때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종일토록 불을 때다 보면 온통 검정을 뒤집어 쓰게 돼 눈동자만 반짝반짝할 뿐 얼굴과 몸은 까마귀처럼 까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부쟁이 고기라도 구워 먹었나"라는 속담이다. 부쟁이라는 말도 사전에 없는 이 지방만의 사투리다. 조암에서 근 50년 가까이 씨앗 장사를 하고 있는 간대균(簡大均)씨는 조암 근방에도 여러 개의 염봇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기억나는 것으로는 배미(지금의 화산 1리), 한말(지금의 화산 2리), 사랑터 등을 들었고, 그곳에서는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솥에다 짠물을 붓고 밤새 불을 때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하였다. 해방되기 직전에는 모든 물자가 귀했는데 소금도 그 중 하나로 '야미'(암거래의 일본말) 소

금 한발이 쌀 한말 값이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소금 값이 금값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 소금이 들어와 소위 신토불이 소금은 설 땅을 잃었다. 우리 소금이 좋긴한데 가격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소금은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다. "소금으로 열두가지 반찬을 만든다"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불도들이 절에 소금을 시주한 기록이 있다. 소금은 정화력·영약·생명력·액막이·재계 등 광범위하게 쓰여졌다.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뜨겁게 볶은 소금을 배꼽 위에 놓고 쑥 뜸질을 하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나, 산기(産氣)가 있으면 산실 윗목에 소금과 깨끗한 물을 놔둔 것은 정화를 위해서였다.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은 악귀를 쫓는 뜻이고, 오줌 싸게 아이더러 키를 쓰고 이웃집에서 소금을 얻어 오게 한 것도 수치심을 유발시켜 오줌 싸게 짓을 고치려 한 일종의 민간 치유법이었다.

소금을 귀하게 여기기는 서양도 마찬가지다. 크리스트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금의 계약'이라 하고, 셱익스피어는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에서 남성의 정액을 '청춘의 소금'이라고 하였다. 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도 소금이 등장한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 곁에 모여있는데 배반자 유다 앞에는 뒤집힌 소금 그릇이 놓여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소금이 악령을 쫓는다고 믿는 까닭이다. 아무튼 소금 고장이던 수원은 말할것도 없이, 한국의 소금이 자취를 감추어 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옷감 왕국 수원직물공장 흥망기

동명왕 신화에 이런 대목이 있다. 동부여를 탈출한 주몽이 모둔곡(毛屯谷)에 이르렀을 때 세 사람을 만난다. 그들은 베옷(麻衣), 중옷(衲衣:납의), 마름옷(水藻衣)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이름을 물으니, 베옷 입은 이는 재사(再思)라 하고, 중옷 입은 이는 무골(武骨), 마름옷 입은 이는 묵거(默居)라 했는데 성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주몽은 이들에게 극씨(克氏), 중실씨(仲室氏), 소실씨(小室氏)로 성을 붙혀 주고 "내가 천명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보배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는 하늘이 내려 준 것이리라"하였다. 주몽은 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신분과 재능·성품을 알아 보았고, 그에 따라서 건국에 필요한 역할을 맡겼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옷에 관한 속담이 유달리 많다. 이는 그만큼 옷과 인간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마당에서는 옷을 짓는 옷감, 즉 직물 얘기를 할까한다. 그것도 수원의 직물공장에 관해서 말이다.

조선 말기와 일제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직물은 무명베와 삼베 모시가 전부였다. 생산규모도 가내수공업에 지나지 않았다. 베틀만해도 일본 것은 양족답기(兩足踏機)였으나, 우리 것은 편족답기(片足踏機)였다. 특히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열강의 문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의·식·주의 첫 대목인 옷감, 즉 직물기술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1885년에 조정에 직조국(織造局)이 설치되고, 1890년 후반에 민간 자본에 의한 소규모 직조소가 경향각지에 생겨났지만 규모·기술면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 시절에 생긴 것이 대한직조소(1879), 종로직조소(1899), 김덕창 염직소(1902), 대한부인회 용산양잠소(1902), 송고실업장(1904), 경성뉴직주식회사(1910) 등이다.

이 가운데서 경성뉴직은 조선인 직물업자끼리 출자한 회사였다. 그래도 본때 있게 차린 직물공장은 1919년(기미년)에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한 경성방직주식회사였다. 이 회사 설립자는 호남의 토착 재벌인 김계수(金季洙)로, 자본금이 1백만원이나 됐다. 이로부터 13년 뒤인 1932년 수원 최초의 직물공장인 수원직물공장(水原織物工場)이 세워지는데 사장은 김학배(金學培)였다. 그 뒤를 이어 소화직물공장(사장 卓載潤), 成田織物工場

(사장 成奉德), 東亞織物工場(사장 洪思成), 大成織物工場(사장 洪富成), 昌和織物工場(사장 李有福) 등이 창업하고, 그보다 3~4년 늦은 1942년과 43년 사이에 鮮一絹織株式會社(사장 朱大允), 鮮京織物株式會社(사장 黃淸河), 朝鮮織物株式會社(사장 李炳德) 등이 설립되었다. 이 밖에도 가내공업 수준의 공장이 꽤 있었으나 1941년부터 시작된 소위 대동아전쟁 때의 통제경제 때문에 거지반 소멸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정 말기에 설립된 직물공장 가운데 역경을 딛고 살아 남은 것은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선경인더스트리로 발전한 선경직물이 전부라 할 수 있다.

수원 최초의 수원직물공장을 세운 김학배와 광복 후 적산공장으로 휴업 중이던 선경직물을 재가동시켜 수원 직물계의 맥을 잇게 한 최종건(崔鍾建)의 일대기를 재조명해 보기로 하는데 이들이야말로 수원 직물업계를 꽃 피운 선구자이면서 큰 별이라 할 수 있다.

수원직물공장을 세운 金學培


직물계의 선구자 金學培

김학배는 누가 뭐래도 수원 직물계의 선구자다. 그는 1908년 10월 21일 수원에서 아버지 김현서(金顯瑞)와 어머니 조종수(趙鍾守)의 2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수원공립보통학교(지금의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이 짧은 것을 후회하거나 열등감을 갖지도 않았다. 스물두살 때인 1930년에 청년 김학배는 수원상회를 차리고, 인견·견직물·면직물·석유·비누 등을 팔았다. 워낙 당찬데다 상업적 두뇌가 명석해서 금방 상도(商道)를 익혔다. 1932년, 그러니까 포목장사를 시작한지 2년 만에 수원직물공장을 세웠다. 젊은 사업가의 등장도 관심거리가 될만했지만, 수원 최초의 직물공장을 차렸다는 점에서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영동(당시는 사카이마찌라 불렀다.) 60번지 소재 부지 723평에다 건평 361평 짜리 공장을 짓고, 역직기(力織機) 60대를 차려 놓았다. 공장은 잘 돌아갔다. 주로 짠 것은 인조견과 유똥·양단 등 비교적 고급 옷감들이었다. 1930년대만 하더라도 일제의 간섭과 억압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호황을 누릴 때여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27세 때인 1935년 수원읍회의 관선 의원이 된 이래 4선을 했고, 나중에는 경기도평의원(京畿道評議員)까지 지냈다. 다분히 친일적인 사회 진출이었지만 직물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서는 흔치 않은 영달임에 틀림없었다. 1940년에는 성냥공장을 차리고, 1942년에는 수원석유하수조합(水原石油荷受組合) 조합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또 수원상공회의소 상임의원으로 상공업계 발전에도 큰 몫을 했다. 1943년에는 지금의 남창초등학교 자리에 수원유치원(水原幼稚園)을 세웠고, 같은 해에 동원장학회(東原奬學會)를 설립해 해마다 16명의 수원고등농림학교(지금의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광복 후에도 그는 사업과 사회사업이라는 두가지 일을 통해, 기업에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시켰다. 1946년에는 대동제지주식회사를 설립해 종이 생산에 주력하였고, 수원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러나 광복 후에는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친일 재벌 박흥식(朴興植)과 함께 옥고도 치렀다. 재력가 답게 호사스런 생활도 했다. 당시 자가용 승용차와 독일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승마를 즐겼다. 특히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애마를 타고 다닌 것은 유명하였다. 정계의 거물과도 친분이 두터워 대통령 이승만(李承晩)과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이 수원에 오면 김학배를 찾았을 정도였다. 그런 그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21일 경남 청도에서 교통사고로 타계하니, 그 때 나이 43세였다.

선경직물을 자기것으로 만든 崔鍾建


직물계의 큰 별 崔鍾建

앞에서 소개한 김학배가 수원직물업계의 선구자라면 최종건은 수원직물업계의 꽃을 피운 완성자라 할만하다.

선경직물주식회사(鮮京織物株式會社)의 전사(前史)와 후사(後史)를 말하자면 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경의 설립 배경과 당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기에 우연이랄까 필연이랄까 선경과의 인연으로 해서 큰 뜻을 이룩하게 되는 최종건의 청년기 활동을 재조명해 보는 것으로 그칠까 한다. 먼저 선경의 설립 배경을 알아보면 이렇다. 조선을 병탄한 일제는 조선의 경제 식민지에 박차를 가하면서, 엄청난 시장 잠재력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을 눈 밖으로 하지 않았다. 특히 1941년에 일을 저지른 대미전쟁이 불리해, 전시물자가 부족해지자, 농가에는 양잠과 목화 재배를 강요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얻은 원료로 군수용 옷감을 짜야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미 가동 중이던 선만주단주식회사(鮮滿織物株

式會社)와 일본의 경도직물주식회사(京都織物株式會社)로 하여금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했다. 상호는 선만(鮮滿)의 첫 글자인 '鮮'과 京都의 머리 글자인 '京'를 따사 '鮮京'이라 한 것이다.

선만은 1927년에 세운 회사로, 대표취체역인 다케무라히데오(竹村秀雄)는 만주와 국내에서 왕성한 사업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가(聲價)를 올리고 있었다. 경도 역시 일본의 칸사이(關西) 지방에서 내로라하는 직물회사였다. 양사가 합작에 합의한 것은 1939년,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다. 선만은 공장부지와 건축비를 대고, 경도는 직기와 부대시설을 현물로 출자하는 조건이었다. 선만측에서는 즉각 부지 매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때 지목된 것이, 수원시 평동 4번지에 있는 지금의 선경직물 터였다. 평동은 예전에 '벌말'이라 불렀다. 선만이 이곳을 노린 것은 서호천이 가까이 있어 공업용수 조달이 쉽다는 점이었다. 매수 예정 평수는 자그만치 8천평. 당시 제일 컸다는 수원직물(723평)에 비하면 10배가 넘었다. 이쯤에서 최종건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건의 조부는 기호유생 최두혁(崔斗赫)으로, 그의 독자인 아버지 학배(學培)와 어머니 이동대(李同大) 사이에서 1926년 1월 30일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바로 벌말에서이다. 최학배는 일찍이 이재에 밝아 평동에서 대동상회를 경영하고 있었다. 한 때 이장도 지냈고, 서호천의 수세징수 반대운동에 앞장 서기도 했다.

해방정국에서 살아난 鮮京

이 때 선만으로부터 토지 매입 부탁을 받게 되자, 지주 차철순(車哲舜)에게 땅을 팔도록 권유했지만 차철순은 일본인에게는 한치의 땅도 안판다고 거절하였다. 최학배는 차철순을 끈질기게 설득해 끝내 매매를 성사시켰다. 이런 일과 관계없이 최종건은 성장했다. 1942년 신풍소학교(지금의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한 최종건은 경성직업학교(병종학교)에 진학하였다. 갑·을종 학교를 놔두고 병종 학교에 간 것은 당시 수원경찰서장 무라야마(村山)의 아들을 때린 사건으로 낙제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졸업할 때는 3급 기계정비사 자격을 따냈다. 아버지 최학배는 선경의 땅 매입에 간여한 일도 있고 해서, 최종건을 선경에 견습공으로 입사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최종건이 선경과의 첫 인연이면서, 선경의 주인이 되는 첫발이었다. 이즈음 기업정비령에 따라 모든 공장이 통폐합되는데 선경도 안양에 있는 조선직물주식회사로 통합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선일직물

은 제1공장, 선경은 제2공장으로 개편되고, 공장장에 스즈키사브로오(鈴木三郎)가 부임하였다. 얼마 뒤 최종건은 직포반 제2조장으로 발탁되었는데 그 때 나이 약관 18세였다. 그는 1백명이 넘는 여직공을 잘 관리했고, 생산성도 높혔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하고, 선경은 휴업을 하게 되었다. 최종건은 이 때 그의 인간적, 사업적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해방정국을 맞아 세간이 어수선할 때 최종건은 선경치안대를 조직하고, 자칫 폭도들에 의해 박살 날 수 있었던 선경을 고스란히 지켰다.

여기서 광복 후의 행적을 간략히 적으면 다음과 같다. 광복 정국이 차차 안정되면서 선경도 재 가동에 들어갔다. 1947년부터 정상가동이 되고, 직물업계도 호황을 맞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갑작스레 송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모든 산업체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선경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둘러 자가발전을 보강한 탓에 정상조업이 가능했다.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청이 적산으로 관리해 오던 선경이 관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래저래 선경의 입지는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최종건은 선경에 사표를 내고 만다. 아무리 애쓴들 월급장이 신세를 면할 수 없을 바에야 독립해서 자기 장사를 해야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버지 금고 털어 인수한 鮮京

그는 짧은 밑천을 가지고 상경해 원사 장사를 시작하였다. 선경에서의 경험이 있어서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야심만만한 최종건은 거시서 만족할 수 없었다. 숙고 끝에 아버지 최학배에게 선경을 인수하겠으니 뒷돈을 대달라고 요청한다. 부자 사이에서는 "달라" "못준다"라는 말씨름만 되풀이 될 뿐 결말이 나지 않았다.

1953년 5월 어느날 아버지 최학배가 집을 비운 사이, 금고를 털어 땅 문서 등 1억 3천만환을 훔쳐냈다. 그는 그 돈으로 선경을 인수한 것이다. 결코 잘한 일은 아니지만 야심에 찬 청년사업가인 그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 최종건의 그후 행적은 생략한다. 다만 호쾌하면서도 선이 굵은 사업가로써, 평소에 주장하던 직물로부터 석유산업까지를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의 동생 최종현(崔鍾賢) 선경그룹 회장을 통해 큰 뜻을 성취하였으니, 최종건이야말로 성공한 사업가라 할 만하다. 그가 1973년 11월 15일 타계하니, 그 때 나이 49세였다. 그 선경직물이 적자를 감당 못하고, 2003년 9월 공장문을 닫게 되었다니 안타깝다.

호롱불시대 종식시킨 수원발전소

우리나라에 맨 처음 전기가 들어온 것은 1887년(高宗 24)으로, 경복궁 향원정의 연못물을 빨아 들여 만든 수력발전이 효시였다. 물을 먹고 켜진 불이라 하여 '물불' 또는 기묘하기 그지없는 불이라는 뜻으로 '묘화'라고도 불렀다.

향원정 발전소는 미국인 기술자 맥케이가 운전했다. 기계를 시동하면 벼락치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연못 물을 빨아 드리게 되고, 다른 한쪽에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뜨거운 물이 흘러 나왔다. 이러기를 한동안 반복하면 전기 불이 켜지는데 당시의 궁인들은 하도 괴상스러워 '도깨비 불' 같다며 숨어서 보곤했다고 한다.

처음에 신기하게 보이기만하던 도깨비 불도, 하도 시끄러운 발전기 소리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나마 제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아 촛불이나 등불을 따로 준비해야만 했으니, 경비가 이중으로 드는 불편이 뒤따랐다.

마음 내키면 들어오고, 아니면 꺼진다하여 '건달 불'이란 별명이 또 하나 생겼다. 결국 이 발전소는 두가지 이유로 해서, 몇 달만에 가동을 중단하는 단명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첫째 이유는 잦은 고장 때마다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 뒷 돈 대는 일이 문제가 되었다. 얼마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던지 당시 건청궁 관계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둘렀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요란한 발전기 소리를 그 누구보다도 고종이 싫어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배수 때문에 향원정 연못의 물고기가 죽으면서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신경이 예민한 고종은 잦은 고장으로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고, 참기 어려운 소음에 자주 짜증을 냈다. 게다가 증어(蒸魚)는 망국의 흉조라는 말이 예전부터 전해져 온 터라, 개화에 반대하는 보수파가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을 막을 길이 없었다.

경복궁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지 3년 뒤인 1900년에 덕수궁에 새로운 전기소가 생겼다. 당시 조선의 나라 안 사정은 몹시 불안하였다.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하였다가 덕수궁으로 옮겨온 고종은 밤이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연히 공포감을 느끼고 작은 소리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 동이 훤하게 튼 뒤 까치 울음 소리가 들려야 새벽 잠에 들 정도였다. 어느날 고종은 한성판윤 이채연을 불러 "무릇 환란은 밤에 일어나는 법이니, 궁안의 밤을 대낮 같이 밝히는 방도를 강구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고종은 경복궁 시절에 애먹이는 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의 악몽을 까맣게 잊은 듯 전기소 재설치를 명한 것이다.

어명이 있자 증기기관사였던 서양인 코온을 통해 일본 나가사키 흠링거 상회에 발전기를 주문, 마침내 덕수궁에 두 번째 발전소가 세워졌다. 발전소 규모는 향원정 것 보다 커 25KW에 달했고, 시설도 좋았다.

1900년 봄 고종은 발전소가 준공되자 장안의 내외 귀빈을 초빙한 가운데 점등 축하 파티를 열었다. 궁안에는 빨간·파란·노란 등 5색등 6백개를 매달아, 그냥 보기에도 호화찬란했다. 그런데 연회를 막 시작하려는 찰라에 정전이 되는 바람에 연회장은 암흑 천지가 되고 말았다. 당황한 코온은 발전소로 달려가 긴급 수리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발전소도 덜덜대는 소리가 요란해 '덜덜불' 또는 정동 골목을 '덜덜거리' 또는 '덜덜골목'으로 불려지는 등 눈총을 받다가 끝내는 흉설에 밀려 철거 당하고 말았다. 결국 우리나라 최초와 두 번째의 전기는 고종의 남다른 애착에도 불구하고,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수원 최초의 수원전기주식회사

수원에 최초로 전깃불이 들어온 것은 1913년의 일이다. 서울 향원정 발전소 시절부터 따지면 16년 뒤의 일이고, 덕수궁 전기소 때부터 따지면 13년 후의 일이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1910년부터 따지면 3년 뒤의 일이다. 수원전기주식회사(水原電氣株式會社)의 본사는 당시 산루리(山樓里:지금의 중동)에 있었고, 발전소는 남부정(南部町:지금의 구천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법인인 이 회사 사장은 곤도오도라노스께(近藤虎之助)로 1913년 8월에 설립됐다. 자본금은 당시 돈 6만원, 이 회사 발전소를 수원천변의 구천동에 설치한 것은 발전소 냉각 용수를 수원천에서 퍼 올리고, 더워진 폐수를 수원천으로 흘려 보내는 이점 때문이었다. 마침 발전소가 있는 곳에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를 '전기회사 다리'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고로들은 '전기회사 다리' 자리라고 말한다.

발전기는 40KW짜리 1대로, 생산된 전기는 주로 관공서와 일본인 상가, 일반 민가 등에


1913년 8월에 설립돼, 호롱불 시대를 마감시킨 수원전기주식회사의 〈구천동 발전소〉 전경

공급됐다.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향원정이나 덕수궁 것에 비할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소음이 났던 것은 사실이다.

아무려나 수원군민은 이 때 전깃불을 처음 봤고, 체험도 했다. 수원전기주식회사는 1914년 3월 23일 영업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는데 확적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일본인 저술가 사카이세이노스께(酒井政之助)가 1922년에 펴낸 《水原》에 실린 발전소 사진을 보면 벽돌로 지은 커다란 건물 3채가 있고, 그 가운데 한 건물 안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발전기가 어느 나라 것인지, 성능과 제원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향원정이나 덕수궁 것 보다 현대적인 것이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발전기 모터는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높고 컸으며, 발전소는 3명의 기술자가 움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만해도 일반 가정에서는 송진이나 식용유(참기름·들기름)을 태워 불 밝히는 것이 고작이었고, 훗날에 나아진 것이 석유를 쓰는 등잔이나 호롱불이 조명 도구의 전부였다. 해가 질 때 호롱불을 피우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켜 놓게 되는데 이 불빛 아래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었다. 또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들은 바느질과 다디미 질 등 일상의 일들을 다 해냈다. 아침 잠에서 깨어나 코를 풀면 시꺼먼 그을름이 묻어 나왔으니, 위생적으론 퍽이나 해로웠을 것이다. 그런 때에 신기하기 그지없는 전기가 들어 왔으니, 수원읍민들이 놀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깃불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눈이 휘등글해지고 열린 입을 다물 줄 몰랐다는 말이 허풍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깃불을 켜고 신문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특수계층'은 얼마나 되었을까. 수원전기주식회사가 영업을 개시했다는 1914년의 통계는 밝혀진바 없고, 15년 뒤인 1929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에 '전등사용호수조'(電燈使用戶數調)가 나와 있다. 여기에 보면 ◇일본인 전등 사용호수가 478호에 전등 3159개, 촉광수가 4만 4986W ◇한국인 전등사용 호수 745호에 등수 1802개, 촉광수 1만

5500W ◇중국인 전등사용 호수는 26호, 등수 132개, 촉광수 1516W로, 전체 전등 사용 호수가 1249호, 전등수 5093개, 촉광수 6만 2098W라고 밝히고 있다.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등 사용 호수에 있어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267호가 많은데도 전등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1357등이나 적었을 뿐 아니라 촉광수도 2만 9390W나 적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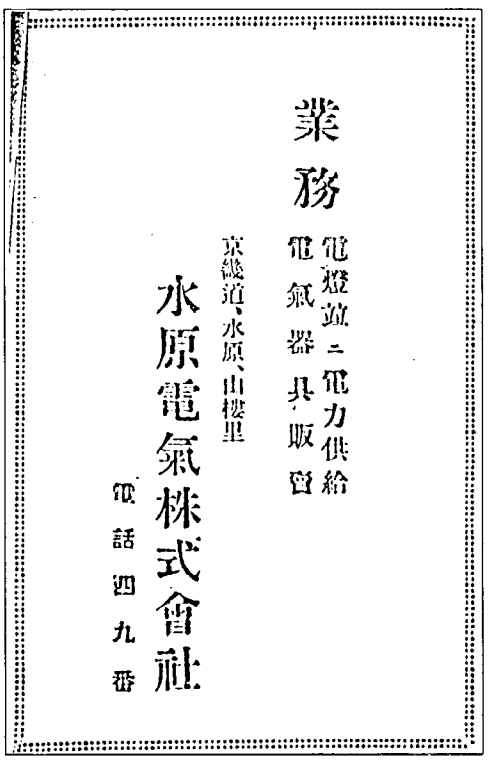
전깃불 사용에도 식민지 서러움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일본인들은 1호당 6.6등 꼴의 전등을 단데 비해, 수원군민은 1호당 2.4등 꼴 밖에 가설하지 못하였다. 일본인들은 비싼 전기요금 쯤 아랑곳하지 않고 흥청망청 써댔겠지만 수원군민들은 기왕에 가설한 전등이라도, 덜 켜려고 애썼고, 켰던 전등도 볼일을 보면 금방 꺼 버렸다. 자기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를 나라 주인은 쓰기 아까워하고, 남의 나라를 차지한 일본인들은 남용을 했으니, 이 어찌 식민지 국민의 서러움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보다 더 서럽게 산 사람은 다름아닌 중국인들이다. 중국인들은 전등을 가설한 호수가 26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등수는 132등으로 1호당 5등 꼴로, 일본의 6.6등에는 뒤졌지만 우리의 2.4등 보다는 크게 앞서 있었다. 결국 전깃불 혜택을 덜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수원군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생활상태조사 통계 끝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이 붙어 있다.

> '즉 전등 공급구역 안에 있어서, 內鮮(內는 일본인, 鮮은 조선인을 나타내는 말) 外人의 호수를 고려할 때 조선인의 전등 수요율이 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력의 빈곤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사실인지 모른다. 그러나 수원군민이 가난 탓에, 아니면 몸에 밴 검약정신 때문에 전기를 덜 사용했다하더라도, 원천적인 빈곤을 강요한 것은 다름아닌 일본인들이었다. 1927년 1월 15일자 〈동아일보〉는 '정류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 大悟를 要할 우리' 라는 해설 기사를 싣고 있다. 이 기사는 '수원군 주민은 7만 84호, 14만 7297명인데 조선인은 2만 6240세대, 14만 93명에 달한다. 793호, 3041명에 지나지 않은 일본인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자위 상권을 일본인들이 잠식하고 있으니 조선



酒井政之助가 쓴 《수원》에 실린 수원전기주식회사 광고

인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고 경고하고 있다. 딱히 맞는 말이었다.

현대문명의 꽃인 전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덜 쓰고 아껴 써야했지만 일본인들은 밤을 대낮 같이 밝히며 살았으니 불공평했다. 하지만 수원에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한 수원전기주식회사는 수원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등잔불로 자족하던 우리 조명문화에 획기적인 변화와 편리를 준 것 만은 분명하다.

수원전기주식회사는 1928년 10월 13일, 일제 식민지 독과점 기업인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에 흡수되고, 같은 날 경전은 수원군의 명사와 유지들을 초청한 가운데 '경전 수원지점' 개점식과 거창한 피로연을 가졌다. 이로써 경전시대의 막이 오르게 되고, 오늘날에는 그 후신인 한전(韓電)이 전력산업의 본산으로 남아 있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전력사업 1백주년을 맞아 한전 경기지사가 옛 수원발전소 자리이면서 지금은 '녹산빌딩' 이 들어선 바로 그곳에, 한국전기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 한국전기 탄생의 뜻을 기린 일이다. 비록 일본인에 의해 창업된 전기회사였다고는 하지만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고 인식하는 일은 정당하다.

민초의 애환 실어나른 수원 자동차

인간이 굴대(바퀴의 축)로부터 바퀴를 발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이라고 한다. 바퀴를 사람이나 짐승의 힘으로 굴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달리는 수레는 인간의 간절한 꿈이었다. R 베이컨은 "어느 날엔가 말이나 그밖의 동물에 의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달리는 차가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 때가 1250년이었다. 그 뒤로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자동차 만들기에 몰두하였지만 실용되지는 못하였다. 드디어 1826년에서 36년 사이에 W. 핸목이 만든 10대의 증기자동차(버스)가 런던 시내를 달리게 되는데 이것이 사상 최초의 실용화된 자동차였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운행 규칙은 매우 까다로웠다. '1대의 자동차에 3인의 운전수를 태우고, 붉은 기(赤旗)를 든 사람을 도보 또는 말을 타고 자동차 앞에 가게 하여 통행인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고, 밤에는 붉은 등을 든 인도자를 둬야 한다. 또 최고 속도는 6.4km/h 이하로 하되, 시가지에서는 3.2km/h로 하며 증기를 방출하지 말 것' 등인데 이것이 적기조례(赤旗條例)였다.

각설하고, 수원에 대중교통 수단인 자동차가 처음 운행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한 자료(酒井政之助, 水原 · 1922)에 보면 수원-원주간, 수원-남양간 승합자동차를 운행한 土肥自動車商會(수원역전 소재) 광고가 실려 있는데 아마 이 회사가 수원 최초의 여객운송회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를 이어 몇 개의 자동차회사가 수원읍에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26년 3월에 설립한 中央自動車合資會社(대표 宋秉熀 · 수원면 매산리 165), 1929년 7월에 설립한 華城自動車株式會社(대표 金寬鉉 · 수원면 매산리), 1932년 10월에 설립한 水原自動車株式會社(대표 香山 弘 · 수원면 북수리) 등이다.

1927년 7월 15일자 〈동아일보〉는 수원-발안-안중간을 운행하는 자동차가 영업을 개시했다 라고 보도하고, 1928년 12월 6일 자에서는 수원 시내 버스의 운행 개시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928년 12월 2일부터 수원에 시내 버스가 등장했다. 수원시내 자동차합자회사에

서는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시내 버스 운행을 추진해 왔는데 12월 1일 18인승 버스가 당도하여 즉각 운행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定期車를 폐지하고, 1구간 15전씩의 요금을 받고 북문(장안문)-수원역간, 수원역-권업모범장(농촌진흥청)간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키로 하였다. 이로써 매일 수원역을 거쳐가는 1천명의 왕래객을 무난히 수송하게 되었다.'

이권이 있는 곳엔 공수 논리가 있는 법

위의 자료와 기사를 종합해 볼 때 수원에 자동차가 들어 온 것은 1920년대 초부터이고, 그후 크고 작은 자동차회사가 설립되면서 교통운수업이 발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만해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은 신개척사업인데다 장래가 보장되는 알짜배기 이권사업인지라 수원 토착 상인과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사업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다. 그 일례가 1928년 12월 11일 수원합동운송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생한 두나라 주주간의 대립이었다. 수원 역전구락부에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중역이 사원을 겸직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중역이 사원을 겸직할 수 없게

수원군 승합차 운전상황

區 分	里數	所要時間	回數	經 由 地	片道料金
水原-驪州	17.12	3시간 50분	1	新葛·烏山·金良場·陽智·利川	3円 40錢
水原-原州	27.00	6시간 4분	1	新葛·金良場·陽智·官庫·文幕	5円 90錢
金良場-竹山	8.00	2시간 20분	1	陽智·白岩·三溪里	3円 40錢
烏山-金良場	6.00	1시간 30분	2	泉川·德成·松田	1円 80錢
烏山-凰南里	1.22	35분	1	鳳舞里·長基里·下北里	45錢
新豊里-朝岩	8.12	1시간 45분	2	梅山·上里·發安里	2円 55錢
新豊里-安仲	10.02	1시간 57분	1	海倉·發安·古念·玄谷里	1円 75錢
新豊里-沙江	7.28	1시간 41분	3	梅山·院坪·漁川·南陽·石橋里	2円 30錢
新豊里-南陽	5.28	1시간 17분	1	梅山·院坪·漁川·兩考里	1円 70錢
新豊里-發安	5.28	1시간 35분	1	梅山·上里	1円 70錢
北水里-古川	2.18	35분	2	芭長里	40錢

되면 조선인 주주는 줄게 되고, 일본인 주주는 늘게 돼 회사 실권이 일본측으로 넘어 가게 됨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 수원 주주들의 주장이었다.

1929년 9월 9일 수원-발안간 자동차가 운행되고, 1929년 10월 6일에는 수원시내 버스 일구간 운임을 종전 15전에서 10전으로 5전을 인하했다. 1930년 10월 1일 수원-인천간 승합차가 운행되고, 같은 날 수원시내 버스가 자진해서 구역제도를 없애고, 전 시내를 1구간으로 하면서 운임도 내렸다.

여기서 1929년 8월 5일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 편에 실린 같은 해의 水原郡 '승합자동차운전상황'을 알아보기로 한다.(別表)

이로 미루어 볼 때 교통 중심지는 수원이었다는 것과 1일 왕복 편수가 16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표에 기록된 里數는 일본식 이수로써 일본의 1리는 우리나라의 10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원-여주간 17.12리는 170리로 보면 된다. 또 자동차의 성능과 도로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을 터인데도 소요시간이 그만했던 것은 워낙 자동차가 흔치 않아 주행이 빨랐던 탓이었다. 다만 이 통계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승객수가 빠져 있는 점이다. 필경 당시의 자동차 이용은 비싼 요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의 떡처럼 보기만 하고, 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1920년대에 자동차 회사가 처음 생긴 이래 크고 작은 자동차 회사가 잇따라 설립된 점을 들 수 있다.

한양 백리 길을 1시간 20분에 주파

이듬 해인 1931년 3월에는 수원-경성(서울)간 승합버스가 운행돼 전적으로 철도에 의존하던 한양 1백리 길을 자동차로도 갈 수 있었다. 이것은 자동차시대가 가져온 하나의 변화였다. 우선 상업면에서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교육과 문화면에서 큰 변혁를 가져 왔다. 당시의 경성 통학생들은 하나 같이 경부선 열차에 의존했는데 버스가 다니게 되면서 교통편의 선택이 자유스러웠을 것이고, 일반의 나들이길도 여간 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1931년 6월에는 반월장과 군포장 사이를 운행하는 승합차가 운행되고, 1932년 11월에는 오산-발안간 자동차가 개통됐다. 그러나 2년 뒤인 1934년 8월에는 큰 비가 내려 오산 자동차가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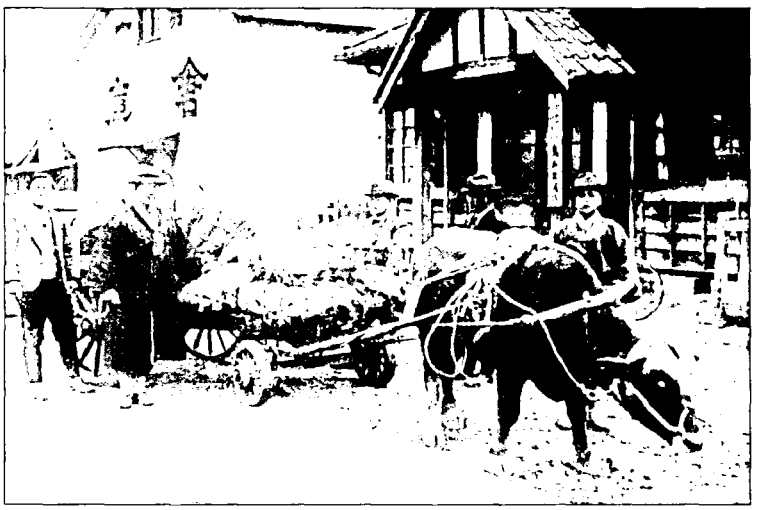
조선운송주식회사 오산지소 전경. 왼편 차고에 4대의 트럭이 세워져 있고, 15명의 직원이 나란히 앉아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앞에서 밝힌 바 있는 화성자동차주식회사(華城自動車株式會社)가 1935년 2월 제6회 정기총회를 수원 역전에 위치한 중화요리집 태흥루(泰興樓)에서 개최한 바 있는데 〈동아일보〉가 총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회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꽤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1937. 5. 9)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도대체 몇대나 되었을까. 대형 자동차(버스 포함) 71대, 소형 자동차(택시 포함) 26대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2백만 대에 달하는 도내 등록차량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예나 지금이나 승객과 회사 사이에는 서비스 문제 때문에 대립하거나 충돌하게 되는데 1939년 4월 경수버스회사가 고객에 대해 불친절하다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수원시내 버스가 읍내 각처에 처음으로 정거장을 설치하여 승하차 질서가 한결 나아지고, 승객들의 버스 이용도 수월했다. 1940년 8월 수원화성자동차회사가 남양-발안간 노선을 개통하고, 이듬 해(1941) 2월에는 조선인이 장악하고 있었던 경수버스 운행권을 수여선·수인선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성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가 매수했다.

이 노선은 당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었는데 종내는 일본인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말았다. 당시 일본은 대동아전쟁 시작을 앞두고 통제경제를 밀어 붙이고 있을 때여서, 조선 사업가는 원통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다만 경동철도가 인수하고 나서 착발차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서비스도 향상돼 고객 입장에서는 좋았다고 한다. 당시의 수원정류장 발차 시간은 9시·11시·13시·17시·19시 등 다섯 차례로, 경성 도착시간은 10시 20분·12시 20분·14시 20분·18시 20분·20시 20분이었다. 일단 운행권을 따낸 경동철도는 1941년 4월 경수간 버스 운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수자동차주식회사(京水自動車株式會社)를 매수하기에 이르는데 이 때의 거래액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



전통적인 두 바퀴 소달구지를 네 바퀴로 개량해 사운전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현관에 〈穀物精米所 仁川支店 烏山出張所〉 간판이 보인다.

아 알 수 없다. 광복 1년전인 1944년 4월에는 화물자동차 통합시책에 따라 마루보시(丸星:한국통운의 전신) 수원출장소가 설치돼 영업에 들어갔는데 마루보시는 일본 자본으로 설립된 운송회사로 육상화물 수송업무를 독점했다.

광복 반세기가 지난 지금 모두가옛 얘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도 일본 자본가들의 물량 공세에 못이겨 모든 영업권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으니, 철도에 이은 좌절이었다. 일본의 싹쓸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즉 牛馬車까지 통제할 목적으로 1944년 1월 수원군우마차운반통제조합(水原郡牛馬車運搬統制組合)을 만들었다. 우리 전래의 소달구지 마져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였으니, 어찌 한많은 세월이 아닌가.

참고문헌

1. 《植民地號》, 현대평론사, 1924
2. 《朝鮮現勢の考察》, 井上蘇人, 大海堂
3. 《決戰下商工行政》, 황국경제연구소
4. 《昭和 30年の朝鮮》, 경성실업협회, 1927
5. 《朝鮮金融組合史》,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34
6. 《朝鮮金融組合の指導施設》,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34
7. 《滿鮮問題の歸趨》, 대륙연구소, 1934
8. 《朝鮮の經濟》, 鈐木武雄, 일본평론사, 1942
9. 《朝鮮の市場》, 조선총독부, 1929
10. 《朝鮮の市場經濟》, 조선총독부, 1924
11. 《朝鮮鐵道四十年史》, 조선총독부 철도국, 1940
12. 《朝鮮の物産》, 조선총독부, 1927
13. 《朝鮮副業指針》, 足立愼太郎, 동광사, 1924
14. 《鐵道旅客・小貨物運賃算出表》, 철도강습회, 1927
15. 《全朝商工會議所發達史》, 부산일보사, 1930
16. 《朝鮮各道府邑面間料程表》, 조선총독부 사계과, 1944
17. 《朝鮮商品と地理》, 일본전보통신사 경성지국, 1912
18. 《朝鮮の商工業》, 조선총독부, 1922
19. 《決戰經濟と商工經濟會》, 橋爪克己, 中川書房, 1943
20. 《決戰下の商工行政》, 황국경제연구소, 1943
21. 《朝鮮各道邑誌》, 金迪東, 조선박문사, 1929
22.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조선총독부, 1918
23. 《朝鮮紳士錄》, 조선신사록 간행회, 1931
24. 《朝鮮事情》, 조선총독부, 1922
25. 《朝鮮事情》, 조선총독부, 1933
26. 《朝鮮事情》, 조선총독부, 1940
27. 《朝鮮事情》, 조선총독부, 1942

28.《朝鮮事情》, 조선총독부, 1943
29.《京城地方の名勝古蹟》, 경기도, 1937
30.《朝鮮》, 4·7월호, 조선총독부, 1928
31.《朝鮮》, 6·9월호, 조선총독부, 1933
32.《朝鮮彙報》, 10·12월호, 조선총독부, 1916
33.《鮮文京城便覽(附 仁川)》, 조선신문사, 1915
34.《調査日報》, 제1권, 3·5·9호, 조선총독부, 1930
35.《朝鮮地方財政便覽》, 조선총독부, 1940
36.《朝鮮年鑑》, 경성일보사, 1943
37.《京畿道道勢要覽》, 경기도, 1936
38.《鐵道要覽》, 조선총독부 철도국, 1937
39.《大韓民國總計月報》, 공보처 통계국, 1949
40.《朝鮮人の商業》, 조선총독부, 1925
41.《敎育と宗敎要覽》, 경기도, 1941
42.《朝鮮の人口現象》, 조선총독부, 1927
43.《朝鮮の姓氏と同族部落》, 善生永助, 1943
44.《朝鮮の都市》, 萩森 茂, 대륙정보사, 1930
45.《現代の朝鮮》, 棍川半三郎, 六合館, 1927
46.《朝鮮鄕土娛樂》, 조선총독부, 1941
47.《昭和18年 水原邑 歲入歲出豫算》, 수원읍, 1943
48.《朝鮮の犯罪と環境》, 조선총독부, 1928
49.《水原》, 酒井政之助, 1923
50.《京城電氣株式會社 60年沿革史》, 경성전기주식회사, 1958
51.《市場制度の硏究》, 秋元 博, 1939
52.《軍國日本朝鮮强占36年史》, 文定昌, 박문당, 1967
53.《朝鮮風俗集》, 今村 鞆, 1919
54.《朝鮮會社表》, 경성상업회의소, 1926, 1933, 1935, 1938
55.《水原高校 校誌》, 수원고등학교, 1975
56.《水原女子高等學校 50年史》
57.《水原農林高等學校 50年史》

58. 《水原郡邑誌》, 규장각 도서, 1899
59. 《龍仁郡邑誌》, 규장각 도서, 1866
60. 《南陽府邑誌》, 규장각 도서, 1867
61. 《韓國交通年鑑》, 교통부, 1960
62. 《韓國鐵道史》, 철도청, 1977
63. 《東亞年鑑》, 동아일보사, 1968
64. 《韓國의 商工業 100年》, 대한상공회의소, 1984
65. 《水原商議史》, 수원상공회의소, 1986
66. 《水原商工會議所 90年史》, 수원상공회의소, 1998
67. 《廣告學槪論》, 박영사, 김원주, 1970
68. 《水原市勢一覽》, 수원시, 1958
69. 《朝鮮日報》, 조선일보사, 왜정연대 관련기사
70. 《東亞日報》, 동아일보사, 왜정연대 관련기사
71. 《京畿事典》, 경기사전편찬위원회, 1959
72. 《水原商工人名鑑》, 수원상공회의소, 1942
73. 《朝鮮酒造史》, 조선주조협회, 1935
74. 《京畿道 水原郡·南陽郡 一部 塩業調査》, 한국정부 재정고문본부, 1907
75. 《京城日報》, 경성일보사, 1939
76. 《朝鮮商工新聞》, 조선상공신문사, 1936
77. 《仁川新聞》, 인천신문사, 1961
78. 《南陽百年史》, 남양초등학교, 2001
79. 《京畿道史》, 상·하권,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80
80. 《水原市史》,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2
81. 《開港과 洋館歷程》, 처성연, 경기문화사, 1959
82. 《仁川半世紀 : 몸소 지켜본 이야기들》, 신태범, 홍성사, 1983
83. 《日帝侵略과 親日派》, 임종국, 청사, 1982
84.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동아출판사, 1~31권, 1993
85. 《京畿道史料集》,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편, 1997
86. 《京畿道誌》, 上·中·下卷,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55
87. 《내고장의 脈》, 경인일보사, 1984

88.《烏山의 뿌리를 찾아서》, 한민규, 오산문화원, 1996
89.《서울六百年史》, 제1권, 서울특별시, 1977
90.《鮮京四十年史》, 최시호, 선경홍보실, 1993
91.《(국역) 華城城役儀軌》, 上·中·下, 수원시, 1989
92.《나혜석 바로 알기 제2회 심포지엄》, 정활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1
93.《水原文化》, 제1~11호, 수원문화원, 1984~1989
94.《朝鮮常識問答》, 최남선, 삼성문화재단, 1965
95.《各司謄錄》, 경기도편, 1·2·3·4·5편, 국사편찬위원회, 1996
96.《이규태의 600년의 서울》, 이규태, 조선일보사, 1993
97.《三一獨立運動》, 최금동, 한영영화사, 1985
98.《仁川今昔》, 고 일, 주간인천사, 1955
99.《역사의 향기, 내고장 전통가꾸기》, 수원시문화공보실, 1984
100.《한말·일제하 수원기사색인집》, 이승언, 수원문화원, 1996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003년 8월 10일 인쇄
2003년 8월 15일 발행

지은이 / 李昌植
펴낸이 / 金鍾基
펴낸곳 / 수원문화원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산2-1
T. 031-244-2161
인 쇄 / 도서출판 우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05-4
T. 031-242-9001(代)

〈비매품〉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일제강점기 민생실록